

저자 조정준

국역 이정현

해제 이정현

국역

及 幼 方 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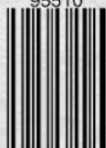


비매품

95510



9 788959 704415



ISBN 978-89-5970-441-5 (PDF)

ISBN 978-89-5970-445-3 (세트)



한국한의학연구원

Table of Contents

원문·국역

급유방 권7 及幼方卷之七	1.1
감질 疳疾	1.1.1
기병 魁病	1.1.2
제적 諸積	1.1.3
벽적 癖積	1.1.4
급유방 권8 及幼方卷之八	1.2
복통 腹痛	1.2.1
반장통 盤腸痛	1.2.2
곽란 霍亂	1.2.3
회충통 蛔蟲痛	1.2.4
구토 嘔吐	1.2.5
설사 泄瀉	1.2.6
토사 吐瀉	1.2.7
이질 痢疾	1.2.8
복창 腹脹	1.2.9
급유방 권9 及幼方卷之九	1.3
부종 浮腫	1.3.1
황달 黃疸	1.3.2

학질 瘡疾	1.3.3
급유방 권10 及幼方卷之十	1.4
외감 外感	1.4.1
서증 暑症	1.4.2
급유방 권11 及幼方卷之十一	1.5
해수 咳嗽	1.5.1
천 喘	1.5.2
마비풍 馬脾風	1.5.3
급유방 권12 及幼方卷之十二	1.6
대변불통 大便不通	1.6.1
소변불통 小便不通	1.6.2
대소변불통 大小便不通	1.6.3
산증 疝症	1.6.4
음낭종통 陰囊腫痛	1.6.5
제림 諸淋	1.6.6
요백탁 尿白濁	1.6.7
유뇨 遺尿	1.6.8
한 汗	1.6.9
인후통 咽喉痛	1.6.10
제창 諸瘡	1.6.11
양매창 楊梅瘡	1.6.12
잡병경험 雜病經驗	1.6.13
급유방 권13 及幼方卷之十三	1.7

본초발명 本草發明	1.7.1
식치발명 食治發明	1.7.2
곡부 穀部	1.7.2.1
과부 果部	1.7.2.2
채부 菜部	1.7.2.3
수부 獸部	1.7.2.4
금부 禽部	1.7.2.5
어부 魚部	1.7.2.6
충부 蟲部	1.7.2.7

해제·출판

해제	2.1
일러두기	2.2
출판사항	2.3

及幼方卷之七 금유방 권7

橫城 趙廷俊重卿 集

황성 조정준(趙廷俊, 字 重卿) 편저



疳疾 감질(疳疾)

疳者, 乾也, 瘦【疒+平】¹少血也. 五疳病關五臟, 二十歲以下曰疳, 二十歲以上曰勞, 始因父母姑息舐犢之愛, 遂令飯粥肉食太早, 肥甘厚味不節, 內²熱中滿而成, 或大病後, 久吐久瀉, 或癖痞等症, 妄施吐下, 內亡津液而成, 要皆脾胃虛弱, 氣血³枯滯, 生熱生痰, 承臟腑之氣虛, 傳入爲疳, 間有熱者, 亦虛熱耳, 故治熱不可妄表過涼, 治寒不可峻溫驟補, 必須扶胃而兼消導, 實者, 必先疎利而後和胃, 不可因循以致積久成疳也.

감(疳)은 마른다는 의미이니 수척해지며 혈을 적어지게 만드는 병이다. 다섯 가지 감질은 오장과 관련된다. 20살 이하는 감(疳), 20살 이상은 노(勞)라고 한다. 본래 부모가 아이를 귀여워만 하면서 밥이나 죽이나 고기를 너무 어릴 때 부터 먹이고 기름지고 맛있는 음식을 절제하지 않아 속에 열이 나고 배가 그득해져 생기게 된다. 혹은 큰 병을 앓은 후 오랫동안 토하고 설사하거나, 혹은 장벽(腸癖)이나 비괴(痞塊) 같은 증상에 함부로 토법이나 하법을 써서 몸속에 진액이 없어졌기 때문에 생기기도 한다. 요컨대 모든 감질은 비위가 허약해져 기와 혈이 막히거나 마르게 되고 그 때문에 생긴 열이나 담음이 장부의 기운이 허약해진 틈을 타고 흘러 들어가서 감질이 되는 것이다. 간혹 열이 나는 경우는 허열(虛熱)일 뿐이다. 그러므로 열증을 치료할 때 땀을 내는 약재를 함부로 써서 너무 냉하게 만들어서도 안되고, 한증을 치료할 때 매우 따뜻한 약재로 갑자기 보해서도 안된다. 반드시 위장을 도와주면서 그와 동시에 소화시키고 빼주어야 한다. 실증인 경우에는 반드시 먼저 하법을 쓴 후에 위장을 편안하게 해야 하니 우물쭈물하다가 적취가 오래되어 감질이 되게 해서는 안된다.

心疳, 卽驚疳, 原因心虛血弱, 更加乳食不調, 心臟積熱所致, 外症臉赤脣紅, 口舌生瘡, 胸膈煩悶, 小便赤澀, 五心皆熱, 盜汗發渴, 嚙齒驚悸, 輕者, 朱砂安神丸 [方見疳疾], 重者, 五福化毒丹.

심감(心甘)은 경감(驚疳)이다. 발병 원인은 심장과 혈이 허약한데다가 젖과 음식 조절을 잘못하여 심장에 열이 쌓였기 때문이다. 겉으로 볼 때 뺨과 입술이 붉어지고, 입과 혀에 창이 생기며, 가슴이 답답하고, 소변이 불그스름하면서 잘 나오지 않으며, 오심번열(五心煩熱)·도한(盜汗)·갈증·교아(咬牙)·경계(驚悸) 증상이 나타난다. 증상이 가벼운 경우에는 주사안신환 [처방은 감질 문에 있다] 을 쓰고, 심한 경우에는 오복화독단을 쓴다.

○茯神丸

○복신환

治心疳.

심감을 치료한다.

赤茯神、蘆薈(煨)、琥珀、黃連、茯苓 各三錢, 遠志(製)、釣藤皮、蝦蟆灰 各二錢, 菖蒲 一錢, 麝香 少許.

적복신·노회(불에 달군다)·호박·황련·복령 각 3돈, 원지(법제한다)·조구등피·하마회 각 2돈, 창포 1돈, 사향 약간.

右細末, 粟米^湖丸麻子大, 每十丸, 薄荷煎湯下.

이상을 곱게 가루 낸 후 좁쌀풀에 개어 마자(麻子) 크기로 환을 빚고 10환씩 박하 달인 물로 넘긴다.

○胡黃連丸

○호황련환

治熱疳.

열감(熱疳)을 치료한다.

胡黃連、黃連(薑炒) 各五錢, 朱砂(水飛) 二錢半.

호황련、황련(생강즙에 축여 볶는다) 각 5돈, 주사(수비한다) 2.5돈.

右細末, 填入猪膽內, 用淡醬水於砂銚內, 懸胎煮一飯時許取出, 入蘆薈、青黛末、
蝦蟆灰各二錢, 麝香末一分, 和勻, 飯丸麻子大, 每三五丸米飲下, 至一二十丸.

이상을 곱게 가루 내어 저담(猪膽) 속에 채워 넣은 후 묽은 장수(醬水)를 채운
사기 그릇 위에 매달아 1반시(飯時) 정도 끓이다가 꺼낸다. 여기에 노회、청대
가루、하마회 각 2돈, 사향 가루 1푼을 넣고 골고루 섞는다. 이것을 밥에 개어
마자(麻子) 크기로 환을 빚고 3 - 5환씩 미음으로 넘긴다. 차차 10 - 20환까지
늘린다.

○五福化毒丹

○오복화독단

治小兒蘊積熱毒, 脣口腫破生瘡, 牙齦出血口臭, 頰赤咽乾煩燥, 並治痘疹餘毒未解,
或頭目身體, 多生瘡癤, 眼有赤白翳⁵, 及眼胞赤爛, 又治心疳.

아이가 적체된 열독으로 입술과 입이 붓고 터지면서 창이 생기며 잇몸에 피가
나면서 입냄새가 나며 뺨이 붉으면서 목구멍이 건조하고 번조증이 있는 경우
를 치료한다. 또한 두창이나 마진의 남은 열독이 풀어지지 않거나 혹은 머리、
눈、몸에 창이 많이 생기거나 눈에 적백예(赤白翳)가 생기거나 눈꺼풀이 빨강
게 짓무르는 경우를 치료한다. 그리고 심감(心疳)을 치료한다.

連翹、玄參、朴硝、甘草 各六錢, 犀角、生芩(酒洗)、赤茯苓、牛蒡子(微炒)、桔
梗 各五錢, 青黛 二錢.

연교、현삼、박초、감초 각 6돈, 서각、생지황(술로 씻는다)、적복령、우방
자(살짝 볶는다)、길경 각 5돈, 청대 2돈.

右末, 煉蜜丸如龍眼大, 每服一丸, 薄荷煎湯化下, 兼有驚, 朱砂爲衣. ○錢氏方, 生芩五兩, 青黛一兩半, 玄參、甘草(炙)、朴硝 各二兩, 天門冬、麥門冬 各三兩.

이상을 가루 낸 후 연밀(煉蜜)에 개어 용안육(龍眼肉) 크기로 환을 빚고 1환씩 박하 달인 물에 녹여서 넘긴다. 경계(驚悸) 증상까지 있으면 주사를 곁에 입혀 쓴다. ○전을(錢乙)의 책에는 다음과 같이 되어 있다. 생지황 5냥, 청대 1.5냥, 현삼、자감초、박초 각 2냥, 천문동、맥문동 각 3냥.

○辰砂丸

○진사환

治熱疢身熱, 黃瘦煩渴, 五心皆熱, 夜睡驚悸, 眼赤羞明, 或白翳出沒.

열감(熱疢)으로 몸통이 뜨겁고 누렇게 마르면서 번갈과 오심번열이 있고 밤에 자면서 경계(驚悸) 증상이 있으며 눈이 충혈된 채 쉽게 눈부셔하며 간혹 백에(白翳)가 생겼다가 없어지기도 하는 경우를 치료한다.

青黛一兩, 朱砂三錢, 夜明砂(炒)、鬱金 各五錢, 麝香一字.

청대 1냥, 주사 3돈, 야명사(볶는다)、울금 각 5돈, 사향 1자.

右細末, 熊膽化水和丸麻子大, 每三五丸, 金銀薄荷湯下.

이상을 곱게 가루 낸 후 웅담 녹인 물에 개어 마자(麻子) 크기로 환을 빚고 3 - 5환씩 금은화와 박하 달인 물로 넘긴다.

○寒水石丸

○한수석환

治熱疢, 心膽積熱, 五心煩熱, 喜飲冷水, 好臥冷地, 身不着衣.

열감(熱疳)으로 심장과 담부에 열이 쌓여 오심번열이 있고 찬물만 마시려 하며 찬 곳에 눕기를 좋아하고 옷을 걸치지 않으려는 경우를 치료한다.

寒水石(煨)·滑石 各一錢, 瓜蒌根·甘草 各五錢, 朱砂 二錢.

한수석(불에 달군다)·활석 각 1돈, 과루근·감초 각 5돈, 주사 2돈.

右細末, 蒸餅和丸菉豆大, 每二三十丸, 米飲下.

이상을 곱게 가루 낸 후 증병(蒸餅)과 잘 섞어 녹두 크기로 환을 빚고 20 - 30환 씩 미음으로 넘긴다.

○驚甲散

○별갑산

治熱疳, 骨蒸勞熱.

열감(熱疳)으로 생긴 골증노열(骨蒸勞熱)을 치료한다.

驚甲(塗童便炙焦)·黃芪(蜜炒)·白芍藥 各一兩, 生芩(酒洗)·地骨皮·當歸·黃連(薑炒) 各五錢.

별갑(동변을 발라 검게 굽는다)·황기(꿀을 묻혀 볶는다)·백작약 각 1냥, 생지황(술로 씻는다)·지골피·당귀·황련(생강즙에 축여 볶는다) 각 5돈.

右剉, 每二錢, 水一盞, 煎至半服.

이상을 썬 후 한 번에 2돈을 물 1잔에 넣고 절반이 되도록 달여 복용한다.

○茯神湯

○복신탕

治驚疳心氣不足, 虛而驚悸, 日常煩哭羸瘦.

경감(驚疳)으로 심기(心氣)가 부족해져 이유 없이 놀라며 늘 미칠듯이 울고 바싹 여위는 경우를 치료한다.

赤茯神、人參、當歸身、麥門冬 各五錢, 甘草 二錢.

적복신、인삼、당귀신、맥문동 각 5돈, 감초 2돈.

右剉, 每二錢, 水一盞, 煎至七分, 無時服.

이상을 썬 후 한 번에 2돈을 물 1잔에 넣고 7할이 되도록 달여 수시로 먹인다.

肝疳卽風疳, 多因胎風, 更加乳食不調, 肝膽受熱, 或乳母外感內傷, 邪氣未散, 遽與兒乳所致, 外症, 搖頭揉目, 白膜遮睛, 或赤腫眵淚, 爛弦痛痒, 雀目昏暗, 甚至經月眼合, 名疳眼, 汗流合面而臥, 肉色青黃, 髮立筋青, 腦熱羸瘦脇痛, 宜生熟地黃湯, 或黃連肥兒丸, 山梔煎湯下.

간감(肝疳)은 풍감(風疳)이다. 대부분 태풍(胎風)이 있는 상태에서 젖이나 음식이 과하여 간장과 담부에 열이 침입하여 생기고, 혹은 유모가 외감이나 내상으로 사기가 남아있는 상태에서 갑자기 아이에게 젖을 주어 생기기도 한다. 겉으로 보이는 증상으로는 머리를 떨면서 눈을 비비고 눈에 흰 막이 눈동자를 덮는데, 간혹 눈이 빨갛게 부으면서 눈곱이 생기고 눈물을 흘리거나 눈꺼풀이 짓무르면서 아프고 가렵거나 야맹증이 생기기도 하고, 심하면 한 달 내내 눈이 붙어있기도 한다. 감안(疳眼)이라고도 한다. 땀을 흘리면서 얼굴을 바닥에 대고 눕고 살갗이 푸르거나 누레지며 머리카락이 곤두서고 푸른 핏줄이 나타나며 뒷골이 뜨겁고 바싹 여위며 옆구리가 아프다. 생숙지황탕을 복용하거나 황련비아환을 산치인 달인 물로 넘겨야 한다.

○風疳丸

○풍감환

治疳眼壯熱, 體瘦脇疼, 一切肝症, 又治筋疳瀉血.

감안(疳眼, 풍감)으로 열이 심하고 몸이 마르며 옆구리가 아픈 증상 등 간장과 관련된 일체의 증상을 치료한다. 또한 근감(筋疳)으로 피를 설사하는 증상도 치료한다.

靑黛、黃連、天麻、五靈脂、夜明砂(炒)、川芎、蘆薈(煨) 各二錢, 龍膽草(酒炒)、防風、蟬退 各一錢半, 全蝎 二枚(炒去毒), 乾蟾頭(酒灸黃) 三錢.

청대、황련、천마、오령지、야명사(볶는다)、천궁、노회(불에 달군다) 각 2돈, 용담초(술에 축여 볶는다)、방풍、선향 각 1.5돈, 전갈 2개(볶아서 독성을 없앤다), 건섬두(술에 축여 누렇게 굽는다) 3돈.

右爲末, 猪膽汁浸糕和丸麻子大, 每十丸, 薄荷煎湯下.

이상을 가루 낸 후 저담즙에 담근 설기떡에 개어 마자 크기로 환을 빚고 한 번에 10환씩 박하 달인 물로 넘긴다.

○生熟地黃湯

○생숙지황탕

治疳眼, 閉不能開, 內有朦霧.

감안(疳眼, 풍감)으로 눈이 붙어서 뜨지 못하고 눈 속에 뿌연 안개 같은 것이 생긴 증상을 치료한다.

熟苳、生苳 各半兩, 川芎、赤茯苓、枳殼(炒)、杏仁、黃連、半夏麴、天麻、地骨皮、甘草(炙)、當歸 各二錢半.

숙지황、생지황 각 0.5냥, 천궁、적복령、지각(볶는다)、행인、황련、반하국、천마、지골피、자감초、당귀 각 2.5돈.

右剉, 每服二錢, 入薑三, 黑豆十五粒, 水煎服.

이상을 썬 후 한 번에 2돈을 생강 3조각과 흑두 15알과 함께 물에 달여 복용한다.

○煮肝丸

○자간환

治疳眼, 盲膜不見物, 又治雀目.

감안(疳眼, 풍감)으로 눈에 예막이 생겨 사물을 보지 못하는 증상을 치료한다.
또한 야맹증도 치료한다.

夜明砂(炒)、青蛤粉、穀精草 各等分.

야명사(볶는다)、청합분、곡정초 각각 같은 양.

右細末, 小兒一錢, 七歲以上三錢, 豬肝一大片, 重重批開, 糝藥末, 麻線縛定, 米泔半碗煮, 肝⁶取出, 肝湯⁷眼, 取肝分三次嚼, 訖却以肝湯下, 一日三次, 大人雀目亦宜.

이상을 곱게 가루 낸 후 어린 아이는 1돈을, 7살 이상은 3돈을 쓴다. 돼지의 간 큰 것 1개를 겹겹이 칼집을 내서 약가루를 뿌리고 삼끈으로 묶어 맨 후 쌀뜨물 반 사발에 넣고 삶는다. 간이 익으면 꺼내고 국물의 김을 눈에 썬다. 간은 3번에 나누어 씹어 먹고 국물로 넘긴다. 이렇게 하루 3차례 한다. 어른의 야맹증에도 좋다.

○蘆薈丸

○노회환

治風疳羸瘦, 搖頭揉目.

풍감(風疳)으로 바싹 여위고 머리를 떨면서 눈을 비비는 증상을 치료한다.

蘆薈(煨) 一錢, 草龍膽(酒洗焙乾) 一兩.

노회(불에 달군다) 1돈, 초롱담(술로 씻은 후 겉불에 말린다) 1냥.

右細末, 用皂角三丁, 搗⁸碎去核, 水二升, 煮至三合, 去滓, 更入石器內, 慢火熬成膏, 和丸黍米大, 每二十丸米飲下.

이상을 곱게 가루 낸다. 조각자 3개를 부수어 겉껍질을 제거한 후 물 2되에 넣고 3홉이 되도록 달여 찌꺼기를 제거한다. 이것을 다시 돌그릇에 넣고 약한 불로 졸여서 고약처럼 만든다. 고약에 약가루를 섞어 서미(黍米) 크기로 환을 빚은 후 한 번에 20환씩 미음으로 넘긴다.

○龍膽飲子

○용담음자

治疳眼流膿, 或白膜遮睛, 赤澀羞明.

감안(疳眼, 풍감)으로 눈에서 고름이 나오거나 흰 막이 눈동자를 덮거나 눈이 충혈되고 까끌거리면서 쉽게 눈부셔 하는 증상을 치료한다.

靑蛤粉、蛇脫皮、穀精草 各五錢, 羌活、草龍膽 各三錢, 麻黃 二錢半, 黃芩(炒)、升麻 各二錢, 鬱金、甘草 各半錢.

청합분, 사달피, 곡정초 각 5돈, 강활, 초롱담 각 3돈, 마황 2.5돈, 황금(볶는다), 승마 각 2돈, 울금, 감초 각 0.5돈.

右細末, 每一二錢, 茶清調下.

이상을 곱게 가루 낸 후 한 번에 1 - 2돈씩 차청(茶清)에 타서 넘긴다.

脾疳卽食疳, 由乳食傷而復傷, 脾氣孤弱, 或乳母恣食生冷肥膩, 或酒飯後卽與乳, 因以滯脾不化, 腹脇結塊, 名曰乳疳, 外症, 黃瘦腹脹, 氣促瀉臭, 合睡減食吃土, 益黃散 [方見泄瀉]、消乳食丸 [方見諸積], 或肥兒丸, 加蓬朮、陳皮、青皮, 肚大

青筋者, 小胡連丸.

비감(脾疳)은 식감(食疳)이다. 젖이나 음식에 상한 상태에서 무언가에 다시 상하여 비장의 기운이 쇠약해지기 때문에 생긴다. 혹은 유모가 생랭(生冷)하거나 기름진 음식을 많이 먹어서 생기기도 하고, 혹은 술을 먹은 직후에 젖을 물려서 생기기도 한다. 그 결과 비장에서 막혀 소화되지 못하고 배나 옆구리에 덩어리가 맺히게 되는 것이다. 유감(乳疳)이라고도 한다. 겉으로 나타나는 증상으로는 누렇게 마르면서 배가 뽕뽕해지고 숨을 헐떡이며 냄새가 심한 설사를 하고 눈이 달라붙은 채 잠들며 먹는 양이 줄고 흙을 먹는다. 익항산 [처방은 설사문에 나온다] · 소유식환 [처방은 제적(諸積)문에 나온다] 을 쓰거나 비아환에 봉출 · 진피 · 청피를 더하여 쓴다. 배가 뽕뽕해지면서 푸른 핏줄이 드러나는 경우에는 소호련환을 쓴다.

○小胡連丸

○소호련환

治食疳, 肚大青筋.

식감(食疳)으로 배가 뽕뽕해지면서 푸른 핏줄이 드러나는 증상을 치료한다.

黃連、神麴(炒) 各二錢, 阿魏 一錢半, 胡黃連 五分, 麝香 半分.

황련 · 신국(볶는다) 각 2돈, 아위 1.5돈, 호황련 5푼, 사향 0.5푼.

右細末, 猪膽汁和丸黍米大, 二三十丸, 白朮湯下.

이상을 곱게 가루 낸 후 저담즙에 개어 서미 크기로 환을 빚고 20 - 30환을 백출 달인 물로 넘긴다.

○桑皮消腫丸

○상피소종환

治脾疳, 面黃多睡, 手足浮腫, 大便溏泄, 小便如泔.

비감(脾疳)으로 얼굴이 누레지고 계속 자려고 하며 손발이 붓고 설사를 지리며 쌀뜨물 같이 뿌연 소변을 누는 증상을 치료한다.

桑白皮(炒)·漢防己(焙)·赤茯苓·人參·胡黃連 各一錢, 麝香 少許.

상백피(볶는다)·한방기(겉불에 말린다)·적복령·인삼·호황련 각 1돈, 사향 약간.

右末, 煉蜜丸麻子大, 每一二十丸, 米飲下.

이상을 가루 낸 후 연밀(煉蜜)에 개어 마자 크기로 환을 빚고 한 번에 10 - 20환 씩 미음으로 넘긴다.

肺疳卽氣疳, 原因傷寒傷風, 汗後勞復, 更加乳食不調, 以致肺氣受傷, 鼻下兩傍, 瘡痒不痛, 或鼻流臭汁, 內生⁹息肉, 或汁流處, 隨卽成瘡, 名疳蠱, 不時咳嗽, 氣逆寒熱, 唾紅泄瀉, 揉鼻咬甲, 與勞症大同, 宜先服清肺湯.

폐감(肺疳)은 기감(氣疳)이다. 발병 원인은 상한이나 상풍으로 땀 흘린 후에 노복(勞復)이 있는 상태에서 젖이나 음식을 과하게 먹여 폐장의 기운이 손상되었기 때문이다. 코밑 양 옆이 헐고 가렵지만 아프지는 않고, 혹은 냄새나는 콧물이 흐르면서 콧속에 작은 혹이 생기거나, 혹은 콧물이 흐르는 곳마다 곧바로 헐기도 한다. 감닉(疳蠱)이라고도 한다. 갑자기 기침을 하거나 기운이 치밀면서 오한발열이 있거나 침에 피가 섞여있고 설사를 하거나 코를 문지르고 손톱을 깨무는 증상을 보인다. 노복의 치료법과 동일하니 먼저 청폐탕을 복용해야 한다.

○清肺湯

○청폐탕

治肺疳, 咳嗽唾血聲嘶.

폐감(肺疳)으로 기침하면서 침에 피가 섞여있으며 목소리가 쉰 경우를 치료한다.

黃芩、當歸、麥門冬、連翹、防風、赤茯苓、桔梗、生苳、蘇葉、前胡、甘草 各五分, 桑白皮 一錢.

황금、당귀、맥문동、연교、방풍、적복령、길경、생지황、소엽、전호、감초 각 5푼, 상백피 1돈.

右剉, 水煎服.

이상을 썬 후 물에 달여 복용한다.

○化癰丸

○화낙환

治肺疳, 鼻下瘡痒.

폐감(肺疳)으로 코밑이 헐고 가려운 증상을 치료한다.

蕪荑、蘆薈(煨)、青黛、川芎、白芷、胡黃連、黃連、蝦蟆灰 各等分.

무이、노회(불에 달군다)、청대、천궁、백지、호황련、황련、하마회 각각 같은 양.

右末, 猪膽汁浸糕和丸麻子大, 每二十丸, 食後臨臥, 杏仁煎湯下. ○鼻下瘡處, 常用熊膽泡湯, 小筆蘸洗後, 青黛末糝付. 小兒胎瘡, 用此亦好.

이상을 가루 낸 후 저담즙에 담근 설기떡과 섞어 마자 크기로 환을 빚고 한 번에 20환씩 식후 자기 전에 행인 달인 물로 넘긴다. ○코밑의 헐 곳에 응담 끓인 물을 자주 작은 붓으로 찍어 씻어 준 후 청대 가루를 뿌린다. 아이의 태창(胎瘡)에도 이 방법을 쓰면 좋다.

腎疳, 一名急疳, 五疳惟腎疳最急, 多因痘瘡紅疹後餘毒未淨, 更加乳食不調, 甘味入脾, 而生蟲, 狀似傷寒狐¹⁰, 上蝕齒齦, 則口瘡出血臭氣, 甚則齒齦潰爛, 齒黑脫落, 頤穿作穴, 名曰走馬疳, 言陽明熱氣上奔如馬然, 下蝕腸胃, 則下痢肛爛, 卽後疳痢, 外症腦熱肌削, 手足如冰, 爪黑面鰲, 身多瘡疥, 寒熱時作, 甚則天柱骨倒, 俱宜腎氣丸 [方見解顱], 加史君子、川練肉.

신감(腎疳)은 급감(急疳)이라고도 한다. 다섯 가지 감질에서 오직 신감만이 가장 위급하다. 발병 원인은 대부분 두창이나 마진을 앓은 후에 남은 열독이 깨끗이 사라지지 않은 상태에서 젖이나 음식을 너무 많이 먹여 단맛이 비장으로 들어가 벌레가 생기기 때문이다. 증상은 상한호혹(傷寒狐惑)과 비슷하다. 위쪽으로 벌레가 잇몸을 파먹어 입에 창이 생기고 피가 나면서 냄새가 난다. 심하면 잇몸이 짓무르거나 이가 검게 변하면서 빠지거나 뺨이 뚫리면서 구멍이 나기도 한다. 이것을 주마아감(走馬牙疳)이라고 하는데 양명경의 열독이 치밀어 오르는 것이 말이 빠르게 달리는 것 같기 때문에 붙은 이름이다. 아래쪽으로 벌레가 장이나 위를 파먹게 되면 설사를 하면서 항문이 짓무르게 되고 곧바로 감리(疳痢)가 된다. 겉으로 보이는 증상으로는 뒤통수에 열이 나고 살이 마르며 손발이 얼음처럼 차갑고 손발톱과 얼굴이 까맣게 되며 몸통에 창개(瘡疥)가 많이 나고 오한발열이 가끔 생긴다. 심하면 머리를 가누지 못하게 된다. 모두 신기환 [처방은 해로(解顱)문에 나온다] 에 사군자、천련육을 더해 써야 한다.

○龍骨散

○용골산

治走馬牙疳.

주마아감(走馬牙疳)을 치료한다.

砒礪 一字, 龍骨、輕粉 各五分, 雄黃、蟾酥 各一錢半, 龍腦 少許.

비상 1자, 용골·경분 각 5푼, 옹황·섬수 각 1.5돈, 용뇌 약간.

右¹¹礪極細末, 次入輕粉、雄黃、龍腦, 同研, 每少許, 以細辛、薄荷煎湯洗後擦, 日四五次, 腐肉盡落, 漸次生肌.

위 약재 중 비상을 아주 곱게 가루 내고 그다음 경분·옹황·용뇌를 넣어 함께 간다. 한 번에 약가루 약간씩을 세신·박하 달인 물로 씻은 후에 바른다. 하루 4 - 5번 바르면 짓무른 살이 전부 떨어지고 점차 새살이 돌아난다.

○二金散

○이금산

治急疳.

급감(急疳, 신감)을 치료한다.

砒礪 一字, 麝香 五錢半.

비상 1자, 사향 5.5돈.

右細末, 以藥水洗之後, 每一字, 鷄翎刷瘡上, 日三兩次, 無令嚥津.

이상을 곱게 가루 낸다. 약물로 입을 씻어낸 후 한 번에 1자씩 닭 깃털로 창이 생긴 부분에 바른다. 하루 2 - 3번 바르고 침을 삼키지 않게 한다.

○尿白散

○요백산

治走馬疳輕者.

주마아감(走馬牙疳)의 가벼운 증상을 치료한다.

白礬(枯) 五錢, 馬牙硝 一錢, 銅青 五分, 麝香 一字, 人中白(煨) 三錢.

고백반 5돈, 마아초 1돈, 동청 5푼, 사향 1자, 인중백(불에 달군다) 3돈.

右極細末, 每一字, 擦齒齦上.

이상을 아주 곱게 가루 낸 후 한 번에 1자씩 잇몸에 바른다.

- 肅廟丁亥, 自春徂夏, 紅疫大熾, 小兒得走馬疳, 死者亡¹²數, 以油烙瘡處, 敷龍骨散、二金散而救者, 甚多.
- [의안] 숙종 정해년(1707) 봄에서 여름까지 홍역이 크게 유행하여 주마아감으로 죽은 아이들이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았다. 이 때 뜨거운 기름으로 창이 생긴 곳을 지지고 용골산·이금산을 발라 생명을 구한 경우가 매우 많았다.

口齒疳者, 五六歲兒, 齒齦潰爛, 膿出臭氣, 久則齒黑根露, 齒頭碎破, 此非走馬疳, 乃齒疳, 疳熱之兒, 多有此症, 舊齒退落, 則如前完合, 新齒復生, 不可深治, 但熱病, 及痘瘡紅疫¹³時, 齒疳兒, 胃熱上騰, 仍成走馬疳, 頻頻開視口中, 以野薔薇根煎水, 或薄荷湯、米泔之類, 頻洗之, 可免¹⁴走馬疳之患.

구치감(口齒疳)은 5 - 6살 아이의 잇몸이 짓물러 고름이 나오면서 냄새가 나고 오래 되면 이가 까맣게 되면서 뿌리가 드러나고 이 끝이 부서지는 병이다. 이는 주마아감이 아니라 치감(齒疳)이다. 감질로 열이 나는 아이는 대부분 이 증상이 있다. 한 이가 빠지면 예전처럼 아물었다가 새로운 이가 다시 나니 너무 깊이 치료해서는 안된다. 다만 열병·두창·마진이 있을 때 치감을 앓는 아이는 위(胃)의 열이 위로 끓어올라 결국 주마아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자주 입을 벌려 속을 살피본 후 들장미뿌리 달인 물이나 박하탕이나 쌀뜨물 같은 것으로 자주 씻어주면 주마아감에 걸릴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五臟疳, 名與症各異, 究其源, 則脾胃先傷於乳食, 而爲病, 傳¹⁵於四臟, 仍成五疳之病也. 若脾臟病去, 諸臟自¹⁶安, 是故上醫調和脾胃以扶之, 淡薄飲食以養之, 小兒生發之氣, 如春草之漸長, 自然蘇完, 如不得已而藥餌者, 勿爲過溫過冷, 復傷胃¹⁷氣, 一或差焉, 未保其往, 君子戒之.

오장감(五臟疳)은 명칭과 증상이 각각 다르지만 병의 원인을 따져보면 비장과 위가 먼저 젖이나 음식에 상하여 병에 걸린 상태에서 나머지 4개의 장으로 전해져 결국 다섯 가지 감질이 된다. 만약 비장의 병이 없어지면 나머지 4개의 장은 저절로 좋아진다. 이 때문에 노련한 의원은 비장과 위를 편안하게 하여 몸을 유지하면서 담박한 음식으로 기운을 길러준다. 아이의 자라나는 기운은 마치 봄날에 풀이 점점 자라나면서 자연스럽게 회복하는 것과 같다. 만약 부득이하게 약으로 치료할 때에는 너무 따뜻하거나 너무 냉한 약재를 쓰지 말아야 한다. 그렇게 한다면 다시 비장의 기운을 상하게 할 것이니 한 증상이 혹시 나왔더라도 그 다음을 보장할 수 없다. 그대들이여 조심해야 할 것이다.

熱疳者, 與心疳同, 初起未甚瘦削, 但臉赤口臭, 脣焦煩渴, 潮熱大便秘澀, 宜胡連丸、五福化毒丹.

열감(熱疳)은 심감(心疳)과 같다. 발병 초기에는 심하게 마르거나 허약해지지는 않고 다만 뺨이 붉어지고 입냄새가 나며 입술이 마르고 번갈과 조열이 있으며 대변을 잘 누지 못한다. 호련환이나 오복화독단을 복용해야 한다.

冷疳者, 久則目腫面鰲, 體瘦煩渴, 腹脹脚細, 便無常色, 或青白, 或如膩粉, 好臥冷地.

냉감(冷疳)이 오래 되면 눈이 붓고 얼굴이 까매지며 몸이 마르고 번갈과 복창(腹脹)이 생기며 다리가 얇아지고 대변이 일정한 색깔 없이 푸른색이었다가 흰색이었다가 간혹 끈적거리기도 하고 차가운 바닥에 눕기를 좋아하게 된다.

◦至聖丸

◦지성환

治冷疳.

냉감을 치료한다.

木香、厚朴、史君子、陳皮、肉豆蔻(煨) 各二錢, 丁香、丁香皮 各一錢.

목향、후박、사군자、진피、육두구(재에 묻어 굽는다) 각 2돈, 정향、정향피
각 1돈.

右末, 神麴糊和丸麻子大, 每一二十丸, 米飲下.

이상을 가루 낸 후 신국을 넣어 쏘 풀에 개어 마자 크기로 환을 빋고 한 번에 10
- 20환씩 미음으로 넘긴다.

○木香丸

○목향환

治上同.

위와 같이 냉감을 치료한다.

丁¹⁸香、青黛、檳榔、肉豆蔻(煨) 各二錢半, 麝香 一錢半, 千金子(去皮炒) 一兩,
蝦蟆 二箇(燒存性).

목향、청대、빈랑、육두구(재에 묻어 굽는다) 각 2.5돈, 사향 1.5돈, 천금자(껍
질을 제거하고 볶는다) 1냥, 하마 2개(약성이 남도록 태운다).

右細末, 蜜丸菉豆大, 每三五丸, 量兒大小加減, 薄荷湯下.

이상을 곱게 가루 낸 후 꿀에 개어 녹두 크기로 환을 빋는다. 한 번에 3 - 5환씩
을 기준으로 아이의 몸집에 따라 가감하여 박하탕으로 넘긴다.

冷熱疢者, 冷熱二症交互, 非新非舊, 不內外因者, 宜消積和胃, 滋血調氣, 淡薄飲食,
久則自然堅牢.

냉열감(冷熱疢)은 냉감과 열감이 번갈아가며 나타나는 증상이다. 새로 걸린
것도 아니고 오래된 것도 아니며 내상이나 외감 때문도 아닌 경우에는 적취를
삭히면서 위를 편안하게 하고 혈을 길러주면서 기를 안정시키며 담박한 음식

을 먹여야 한다. 이렇게 오래 하면 아이가 자연히 튼튼해진다.

○如聖丸

○여성환

治冷熱疢.

냉열감(冷熱疢)을 치료한다.

黃連、胡黃連、蕪荑、史君子 各一兩, 麝香 五分, 蝦蟆 五箇.

황련、호황련、무이、사군자 각 1냥, 사향 5푼, 하마 5개.

右細末, 蝦蟆搗碎, 酒熬成膏, 和丸麻子大, 每一二十丸, 人參煎湯下. 常服錢氏白朮散. ○一方, 草決明二兩, 細末, 蜜丸麻子大, 每一二十丸, 米飲或白湯下.

이상을 곱게 가루 낸다. 하마를 짓찧어 술에 넣고 고아서 고약처럼 만든 후 여기에 약가루를 개어 마자 크기로 환을 빚는다. 한 번에 10 - 20환씩 인삼 달인 물로 넘긴다. 늘 전씨백출산을 복용한다. ○어떤 서적에는 '초결명 2냥을 곱게 간 후 꿀에 개어 마자 크기로 환을 빚고 한 번에 10 - 20환씩 미음이나 꿀인 물로 넘긴다.'고 하였다.

疢瀉者, 毛焦脣白, 額上青紋, 肚脹腸鳴, 泄下糟粕, 忌用熱藥止之.

감사(疢瀉)는 머리카락이 푸석해지고 입술이 하얗지며 이마에 푸른 핏줄이 드러나고 배가 똥똥해지면서 꾸루룩 소리가 나며 소화가 덜 된 음식을 설사하는 것이다. 뜨거운 성질의 약으로 설사를 멎게 하면 안된다.

○香薷丸

○향구환

治疢瀉.

감사(疢瀉)를 치료한다.

黃連 三錢, 木香、肉豆蔻(煨)、訶子(炮)、砂仁(炒)、赤茯苓 各一錢.

황련 3돈, 목향·육두구(재에 묻어 굽는다)·가자(습지에 싸서 굽는다)·사인(볶는다)·적복령 각 1돈.

右細末, 飯丸黍米大, 每五丸, 米飲下.

이상을 곱게 가루 낸 후 밥에 개어 서미(黍米) 크기로 환을 빚고 한 번에 5환씩 미음으로 넘긴다.

疢痢者, 先有疢疾, 加之傷食, 及感冷熱不調, 以致痢下五色, 裏急後重, 度數無算, 漸加瘦瘠.

감리(疢痢)는 감질이 있는 상태에서 추가로 음식에 상하거나 일정하지 않은 온도로 외감이 더해져 결국 오색리(五色痢)가 되고 뱃속이 당기면서 항문이 묵직하며 셀 수 없이 설사를 하다가 점점 더 수척해지는 것이다.

◦香砂丸

◦향사환

治疢痢.

감리(疢痢)를 치료한다.

黃連 三錢, 木香、厚朴、夜明砂(炒)、砂仁(炒) 各二錢, 訶子 一錢.

황련 3돈, 목향·후박·야명사(볶는다)·사인(볶는다) 각 2돈, 가자 1돈.

右細末, 粳米飯和丸麻子大, 每十五丸, 薑艾煎湯下.

이상을 곱게 가루 낸 후 멍쌀밥에 개어 마자 크기로 환을 빚고 한 번에 15환씩 생강과 쑥 달인 물로 넘긴다.

○史君子丸

○사군자환

治疳痢.

감리(疳痢)를 치료한다.

史君子(糲褁煨去殼) 一兩, 厚朴、訶子(半生半煨)、甘草(炙) 各五錢, 橘皮 二錢半.

사군자(밀가루 반죽으로 싸서 잿불에 묻어 구운 후 겹데기를 제거한다) 1냥, 후박, 가자(절반은 생것, 절반은 잿불에 묻어 굽는다), 자감초 각 5돈, 굴피 2.5돈.

右細末, 蜜丸芡實大, 每一丸, 乳汁或米飲化服.

이상을 곱게 가루 낸 후 꿀에 개어 검실 크기로 환을 빚고 한 번에 1환씩 젓이나 미음에 녹여 복용한다.

○胡黃連丸

○호황련환

治小兒疳痢, 腹痛不止.

아이가 감리(疳痢)로 배가 계속 아픈 증상을 치료한다.

胡黃連 五錢, 沒藥、木香 各二錢半.

호황련 5돈, 몰약, 목향 각 2.5돈.

右細末, 糯米飯和丸菉豆大, 每五七丸, 米飲下.

이상을 곱게 가루 낸 후 찰밥과 잘 섞어 녹두 크기로 환을 빚고 한 번에 5 - 7환씩 미음으로 넘긴다.

疳渴者, 臟中宿有疳氣, 加之乳母恣食五辛炙燂酒麵, 以致小兒心肺壅熱, 日則煩渴引飲, 夜則渴止, 乳食不進, 肌瘦骨立.

감갈(疳渴)은 오장(五臟)에 묵은 감질이 있는 상태에서 유모가 오신채(五辛菜)나 굵고 지진 음식이나 술이나 국수를 마음대로 먹어서 결국 아이의 심장과 폐장에 열이 뭉치기 때문에 생긴다. 이 병은 낮에는 번갈로 물을 찾다가 밤에는 번갈이 멎고 젖이나 음식을 넘기지 못하여 살이 바싹 마르면서 뼈가 튀어나오게 되는 증상을 보인다.

◦連膽丸

◦연담환

治疳渴乾疳, 通治諸疳.

감갈(疳渴)이나 건감(乾疳)을 치료한다. 여러 가지 감질을 두루 치료한다.

黃連 五錢(猪膽汁浸), 瓜婁根、蓮肉、烏梅肉、杏仁 各二錢.

황련 5돈(저담즙에 담근다), 과루근、연육、오매육、행인 각 2돈.

右細末, 牛膽汁浸糕丸麻子大, 每十五丸, 烏梅薑蜜湯下.

이상을 곱게 가루 낸 후 우담즙에 담근 설기떡에 개어 마자 크기로 환을 빚고 한 번에 15환씩 오매、생강、꿀 달인 물로 넘긴다.

◦生津止渴湯

◦생진지갈탕

治小兒疳渴不止.

아이의 감갈(疳渴)이 멈추지 않는 증상을 치료한다.

葛根、胡黃連、甘草(炙)、玄參、麥門冬 各等分.

갈근、호황련、자감초、현삼、맥문동 각각 같은 양.

右細末, 每一二錢, 水一杯, 入薑一片, 煎服.

이상을 곱게 가루 낸 후 1 - 2돈씩 물 1잔에 생강 1조각을 넣고 달여 복용한다.

疢腫者, 中虛有積, 積毒與脾氣相併, 故令肚腹緊脹, 由是脾復受濕, 頭面手足浮腫, 宜肥兒丸. ◦疢脹腹皮緊者, 大異香散 [方見腹脹], 加五靈脂爲末, 紫蘇煎湯下, 便秘, 紫霜丸, 量宜服.

감종(疢腫)은 위기(胃氣)가 허약한 상태에서 적취가 생기면 적취의 독기가 비장의 기운과 서로 합쳐져 배가 팽팽하게 부푸는 것이다. 또한 이 때문에 비장이 한 번 더 습사에 상하여 머리、얼굴、손、발이 붓게 된다. 비아환을 써야 한다. ◦감창(疢脹)으로 배의 피부가 팽팽해진 경우에는 대이향산 [처방은 복창(腹脹)문에 나온다] 에 오령지를 더하여 가루 낸 후 자소 달인 물로 넘겨야 한다. 변비에는 자상환을 아이 몸집에 따라 복용한다.

◦褐丸子

◦갈환자

治乳食不消, 心腹脹滿, 嘔逆氣急, 或腸鳴泄瀉腹痛, 食癥乳癖, 大便或秘或利, 頭面浮腫, 兼治五疢八痢, 肌瘦腹大者, 如神.

젖이나 밥이 소화되지 않고 배가 창만하며 구역질을 하고 숨이 급하며 간혹 배가 꾸르륵하면서 설사를 하고 배가 아프거나 젖이나 음식으로 뱃속에 징가나 현벽이 생겼거나 변비나 설사를 하거나 머리와 얼굴이 붓는 증상을 치료한다. 또한 다섯 가지 감질과 여덟 가지 이질로 살이 여위면서 배가 뽕뽕한 경우도 귀신 같이 치료한다.

蘿菔子 一兩, 黑丑(半生半炒, 頭末) 七錢半, 青皮、陳皮、三稜(煨)、蓬朮(煨)、五靈脂(醋炒)、赤茯苓、檳榔 各五錢, 胡椒 二錢半, 木香 一錢半.

나복자 1냥, 흑축(절반은 생것, 절반은 볶아서 만물가루를 쓴다) 7.5돈, 청피·진피·삼릉(재에 묻어 굽는다)·봉출(재에 묻어 굽는다)·오령지(식초에 축여 볶는다)·적복령·빈랑 각 5돈, 호초 2.5돈, 목향 1.5돈.

右細末, 麵糊丸菉豆大, 每十五丸, 蘿菹煎湯下.

이상을 곱게 가루 낸 후 밀가루풀에 개어 녹두 크기로 환을 빚고 한 번에 15환씩 나복 달인 물로 넘긴다.

蛔疳者, 因缺乳早哺粥飯甘膩之物, 腸胃停蓄, 化爲蛔蟲, 多啼嘔沫, 腹痛脣紫, 腸頭及齒齦痒, 蛔雖食蟲, 不可動, 動從口鼻出者, 難治. 凡疳積, 莫不有蟲, 形狀不一, 黃白赤可治, 青黑色者難治, 考蛔蟲參治.

회감(蛔疳)은 젖이 없어 죽이나 달고 기름진 음식을 너무 일찍 먹이게 되어 음식이 장과 위에 정체되었다가 회충으로 변하기 때문에 생긴다. 증상으로는 계속 울면서 거품을 물고 배가 아프며 입술이 보라빛이 되고 항문과 잇몸이 가렵게 된다. 회충은 비록 음식을 먹고 사는 벌레지만 움직이게 해서는 안된다. 움직여서 입이나 코로 나오는 경우는 치료하기 어렵다. 대체로 감적(疳積)은 충이 생기지 않는 경우가 없으나 충의 모양은 한결같지 않다. 황색·백색·적색 충은 치료할 수 있으나 청색·흑색 충은 치료하기 어렵다. 회충문을 참고하여 치료하라.

疳勞者, 骨蒸五心煩熱, 潮熱盜汗, 咳嗽泄瀉, 脇硬如石, 面色如銀, 斷不可治. 古方, 八物湯, 去白朮, 加黃芩·柴胡·陳皮·半夏·史君子·蝦蟆·鱉甲等分, 薑棗煎服, 或連膽丸救之.

감로(疳勞)는 골증열·오심번열·조열·도한·해수·설사 증상이 나타나는 데, 옆구리가 돌처럼 딱딱해지면서 얼굴이 은빛이 되는 경우는 결단코 치료하지 못한다. 옛 방서에서는 '팔물탕에서 백출을 빼고 황금·시호·진피·반하·사군자·하마·별갑 각각 같은 양을 더한 후 생강과 대조를 넣고 달여 복용하거나 혹은 연담환을 복용하여 생명을 구할 수 있다.'고 하였다.

腦疢者, 因胎中素挾風熱, 生下乳食越常, 或臨產犯房以致, 滿頭餅瘡, 腦熱如火, 髮結作穗, 顙腫顙高, 遍身多汗.

뇌감(腦疢)은 배속에서부터 풍사와 열사에 상했다가 태어난 후에 젖이나 음식을 너무 많이 먹이거나, 혹은 산달이 임박했을 때 성교를 하여 생기게 된다. 증상으로는 머리에 온통 병창(餅瘡)이 생기고 뒤통수가 불처럼 뜨거우며 머리카락이 뭉쳐 이삭처럼 되고 뺨이 부으면서 숫구멍이 솟아오르며 온몸에 땀이 많이 난다.

○龍膽丸

○용담환

治腦熱.

뒤통수가 뜨거운 증상을 치료한다.

草龍膽(酒洗炒)、升麻、苦練根(白皮)、防風、赤茯苓、蘆薈(煨)、油髮灰、青黛、黃連 各等分.

초롱담(술로 씻은 후 볶는다)、승마、고련근(속껍질)、방풍、적복령、노회(불에 달군다)、유발회、청대、황련 각각 같은 양.

右細末, 猪膽汁浸糕和丸麻子大, 每一二十丸, 薄荷紫蘇湯, 食後下, 仍以蘆薈末, 吹入鼻孔.

이상을 곱게 가루 낸 후 저담즙에 담근 설기떡과 섞어 마자 크기로 환을 빚고 한 번에 10 - 20환씩 식후에 박하와 자소 달인 물로 넘긴다. 그다음에 노회 가루를 콧구멍에 불어 넣는다.

脊疢者, 蟲蝕脊膂骨如鉅齒, 拍背如鼓鳴, 十指背生瘡, 頻咬爪甲, 煩熱黃瘦下痢.

척감(脊疳)은 충이 등골을 갉아 먹어 톱니처럼 되는 것으로 등을 두드리면 북처럼 울린다. 증상으로는 열 손가락 바깥쪽에 창이 생기고 자주 손톱을 깨물며 번열이 있으면서 누렇게 여위고 대변을 지린다.

○蘆薈丸

○노회환

治脊疳, 及通治諸疳.

척감을 치료한다. 또한 여러 가지 감질을 두루 치료한다.

黃連、蕪荑、草龍膽 各一兩, 蘆薈(煨) 二錢半.

황련、무이、초롱담 각 1냥, 노회(불에 달군다) 2.5돈.

右先炒蕪荑黃色, 次入二味同¹⁹炒, 赤色爲末, 別蘆薈末和勻飯, 丸黍米大, 一歲兒十丸, 二歲兒加數, 米飯下.

위 약재 중에 우선 무이를 누렇게 볶고, 그다음 황련과 초롱담을 넣어 함께 볶다가 볶게 되면 가루 낸다. 별도로 가루 낸 노회 가루와 함께 밥에 잘 섞어 서미 크기로 환을 빚는다. 1살 아이 기준으로 10환을, 2살 아이부터는 갯수를 늘려 미음으로 넘긴다.

無辜疳者, 腦項邊有核轉動, 軟而不疼, 中有蟲如粉, 不速破之, 蟲隨熱氣流散, 淫食臟腑, 以致肢體癰瘡, 便利膿血, 壯熱羸瘦, 初起可用鍼破, 膏藥貼之. 或因浣兒衣時, 衣露簷下, 爲【屯+佳】²⁰鳥落羽所汚, 兒着此衣, 蟲入皮膚故也. 其衣用火烘之, 則無此恙, 十全丹、二連丸.

무고감(無辜疳)은 뒤통수와 뒷목 주변에 멍울이 생겨 돌아다니는 것으로 멍울은 말랑말랑하고 아프지도 않다. 그 속에는 가루 같은 충이 있으므로 빨리 깨지 않으면 충이 열기를 타고 여기저기 흩어져 오장육부를 파먹어 결국 온몸에 웅어나 창이 생기고 대변으로 피고름이 나오며 심하게 열이 나면서 바싹 여위

게 된다. 발병 초기에는 침으로 째 후 고약을 붙이면 된다. 간혹 아이의 옷을 빨고 처마 아래에 널어 놓을 때 암까마귀 깃털이 떨어져 옷을 더럽히기 때문에 생기기도 하는데 아이가 이 옷을 입으면 충이 피부로 들어가서 생기기 때문이다. 아이의 옷을 불에 쪼이면 이런 걱정을 없앨 수 있다. 십전단이나 이련환을 써야 한다.

○月蟾丸

○월섬환

治無辜疳, 又治疳瘡.

무고감을 치료한다. 또한 감질로 생긴 창도 치료한다.

癩蝦蟆一箇, 打殺置桶²¹中, 以尿浸之, 却取糞蛆一杓入內, 任蛆食一日夜, 取蛆入布袋²², 繫²³之於急流, 水中浸一宿, 瓦上焙乾. 入麝香一字, 爲末, 飯丸麻子大, 每三十丸, 米飲下. 一服虛煩退, 再服渴止, 三服瀉止.

두꺼비 1마리를 죽여서 통 속에 넣은 후 소변에 잠기게 해놓는다. 구더기 1국자 정도를 구하여 그 속에 풀어 놓고 하루 동안 두꺼비를 파먹게 둔다. 구더기를 건져 포대에 넣고 급류에 묶어 놓아 물 속에 하룻밤 동안 담가 놓은 후 기와에 올려 결불에 말린다. 여기에 사향 1자를 넣고 가루 낸 후 밥에 개어 마자 크기로 환을 빚고 한 번에 30환씩 미음으로 넘긴다. 처음 복용하면 허번증이 줄어들고, 다시 복용하면 갈증이 멎으며, 세 번 복용하면 설사가 멎는다.

○猪肚黃連丸

○저두황련환

治疳瘡, 自孩提至弱冠, 潮熱發瘡, 乃疳氣使然, 疳蟲蝕其肌膚, 疳熱流注²⁴, 遍身熱瘡, 發歇無已.

감창(疔瘡)으로 갓난아이 때부터 약관 때까지 조열이 나면서 창이 생기는 증상을 치료한다. 이 병은 감질 때문에 창이 생기는 것이다. 감충(疔蟲)이 피부를 갇아 먹고 감질로 생긴 열이 흘러 다녀 온몸이 뜨거우면서 창이 생기는데 창이 생겼다가 가라앉았다는 반복하며 그치지 않는다.

雄猪肚 一具(洗淨), 黃連 七兩(細末).

웅저두 1개(깨끗하게 씻는다), 황련 7냥(곱게 가루 낸다).

右黃連入猪肚中, 以線縫密, 頓在五升米飯上蒸, 十分爛取入臼中, 入些飯擣千杵, 丸菉豆大, 二三十丸, 米飲下.

위 약재에서 황련을 웅저두 속에 넣고 실로 꿰매 밀봉한 후 쌀 5되로 밥을 하면서 그 위에 통채로 넣고 찐다. 푹 찌지면 절구에 넣고 밥 약간과 함께 1000번 찧은 후 녹두 크기로 환을 빚는다. 20 - 30환을 미음으로 넘긴다.

丁奚疔者, 手足與項, 極小伶丁也, 奚, 腹大也. 甚者, 尻高肉削, 臍突胸陷, 或生穀癥, 愛喫土炭, 晝夜啼哭.

정해감(丁奚疔)의 정(丁)은 손발과 목이 아주 작고 가냘픈 것이고 해(奚)는 배가 뽕뽕한 것이다. 증상이 심한 경우에는 꼬리뼈가 튀어나오도록 살이 쏙 들어가고 배꼽이 튀어나오면서 가슴은 움푹해진다. 간혹 곡징(穀癥)이 생기거나 흙이나 숯을 자꾸 먹으려 하거나 밤낮으로 울기도 한다.

哺露疔者, 虛熱往來, 頭骨分開, 翻食吐蟲, 煩渴嘔噦, 骨瘦稜層露形.

포로감(哺露疔)은 허열이 생겼다 없어졌다 하며 머리뼈가 벌어지고 음식을 게우면서 벌레를 토하고 번갈과 구역질이 생기며 뼈의 끝부분이나 관절이 드러나도록 마르는 병이다.

諸疔中疔乾、疔渴、疔痢、疔腫、蛔疔、疔瀉, 皆疔之危症, 疔勞、腦疔、脊疔、無辜疔、丁奚疔、哺露疔, 皆疔之死症. 蓋胎中稟受, 脾胃²⁵不足, 生下乳食越常, 復爲風冷所傷, 五臟六腑俱病. 丹溪曰, 此等之疾²⁶, 虛扁復生, 難以施巧.

여러 가지 감질 중에서 감건(疢乾)、감갈(疢渴)、감리(疢痢)、감종(疢腫)、회감(蛔疢)、감사(疢瀉)는 모두 위급한 증상이고, 감로(疢勞)、뇌감(腦疢)、척감(脊疢)、무고감(無辜疢)、정해감(丁奚疢)、포로감(哺露疢)은 모두 사증이다. 대부분 뱃속에서부터 타고나기를 비장과 위의 기운이 부족하고 태어난 후에 젖이나 음식을 너무 많이 먹인 데다가 풍사나 냉기에까지 상하여 오장육부가 모두 병이 든 것이다. 단계(丹溪)는 "이 병들은 노(盧)나라 편작이 다시 살아난다해도 치료하기 어려울 것이다."라고 말하였다.

○肥兒丸

○비아환

此藥消疳化積, 磨癖清熱, 伐肝補脾, 進食殺蟲, 肌膚潤澤.

이 약은 감적(疢積)을 녹이고 벽적(癖積)과 열을 없애며 간목(肝木)을 억제하면서 비토(脾土)를 보함으로써 음식을 넘기게 하며 충(蟲)을 죽이고 피부를 윤택하게 한다.

胡黃連 五錢, 使君子 四錢半, 人參、黃連(薑炒)、神麴(炒)、麥芽(炒)、山查肉 各三錢半, 白朮、白茯苓、甘草(炙) 各三錢, 蘆薈(煨) 二錢半.

호황련 5돈, 사군자 4.5돈, 인삼·황련(생강즙에 축여 볶는다)·신곡(볶는다)·맥아(볶는다)·산사육 각 3.5돈, 백출·백복령·자감초 각 3돈, 노회(불에 달군다) 2.5돈.

右細末, 黃米糊丸麻子大, 每三四十丸, 米飲下.

이상을 곱게 가루 낸 후 황미(黃米)로 쏜 풀에 개어 마자 크기로 환을 빚고 한 번에 30 - 40환씩 미음으로 넘긴다.

○入門肥兒丸

○《의학입문》의 비아환

治身黃, 肚腹脹急, 脇硬痞塊, 泄瀉瘦弱.

몸이 누레지고 배가 뽕뽕하며 옆구리에 단단한 비괴(痞塊)가 만져지고 설사하면서 수척해지는 증상을 치료한다.

黃連(薑炒)·神麴(炒) 各一兩, 麥芽(炒)·肉豆蔻(煨)·使君子 各五錢, 檳榔·木香 各二錢.

황련(생강즙에 축여 볶는다)·신곡(볶는다) 각 1냥, 맥아(볶는다)·육두구(재에 묻어 굽는다)·사군자 각 5돈, 빈랑·목향 각 2돈.

右細末, 猪膽浸糕和丸麻子大, 每二三十丸, 米飲下.

이상을 곱게 가루 낸 후 저담즙에 담갔던 설기떡에 개어 마자 크기로 환을 빚고 한 번에 20 - 30환씩 미음으로 넘긴다.

○局方肥兒丸

○《태평हे민화제국방》의 비아환

○上方, 加三稜·蓬朮并煨·川練肉炒各五錢, 製服法, 上肥兒丸同. ○治食痞乳癖疳瀉.

○위에 있는 비아환 처방에 삼릉·봉출(2가지 모두 재에 묻어 굽는다)·천련육(볶는다) 각 5돈을 더한다. 제법과 복용법은 위에 있는 비아환과 같다. ○음식으로 생긴 비괴(痞塊)·젖으로 생긴 벽적(癖積)·감사(疳瀉)를 치료한다.

○黃連肥兒丸

○황련비아환

治諸疳, 及疳眼.

여러 가지 감질 및 감안(疳眼, 풍감)을 치료한다.

黃連(薑炒)·神麴(炒) 各一兩, 麥芽(炒)·使君子(肉) 各五錢, 蕪荑(去扇) 三錢, 青皮 二錢半.

황련(생강즙에 축여 볶는다)·신곡(볶는다) 각 1냥, 맥아(볶는다)·사군자(과육) 각 5돈, 무이(비늘같은 껍질을 제거한다) 3돈, 청피 2.5돈.

製服法, 入門肥兒丸同.

제법과 복용법은 《의학입문》의 비아환과 같다.

○四味肥兒丸

○사미비아환

治身熱腹脹, 羸瘦, 愛喫土炭.

몸통이 뜨겁고 배가 빵빵하며 바싹 여위고 흙이나 숯을 자꾸 먹으려는 증상을 치료한다.

黃連(薑炒)·蕪荑·神麴(炒)·麥芽(炒) 各等分.

황련(생강즙에 축여 볶는다)·무이·신곡(볶는다)·맥아(볶는다) 각각 같은 양.

右末, 糊丸黍米大, 每三四十丸, 米飲下.

이상을 가루 낸 후 풀에 개어 서미(黍米) 크기로 환을 빚고 한 번에 30 - 40환씩 미음으로 넘긴다.

○六味肥兒丸

○육미비아환

四味肥兒丸, 加陳皮、川練肉各等分, 製服法上同.

사미비아환에 진피、천련육 각각 같은 양을 더한다. 제법과 복용법은 위의 사미비아환과 같다.

○秘方肥兒丸

○《비방》의 비아환

消疳進食, 磨積健脾, 清熱止瀉利.

감적(疳積)을 없애고 음식을 넘길 수 있게 하며 적취(積聚)을 없애고 비장을 튼튼하게 하며 열을 없애고 설사를 멎게 한다.

白朮 一兩, 黃連(薑炒)、使君子(煨)、肉豆蔻(煨)、麥芽(炒)、神麴(炒) 各五錢, 木香 一錢, 檳榔、蝦蟆(灰) 各一箇.

백출 1냥, 황련(생강즙에 축여 볶는다)、사군자(재에 묻어 굽는다)、육두구(재에 묻어 굽는다)、맥아(볶는다)、신곡(볶는다) 각 5돈, 목향 1돈, 빈랑、하마(재로 만든다) 각 1개.

右細末, 糊丸黍米大, 每三四十丸, 米飲下.

이상을 곱게 가루 낸 후 풀에 개어 서미 크기로 환을 빚고 한 번에 30 - 40환씩 미음으로 넘긴다.

- 按. 稍長小兒, 本無疳熱, 而素稟脾胃不實, 常時食飲不多, 以致肌肉稍²⁷瘦者, 往往指爲疳羸, 而使用肌兒丸. 夫肥兒方中, 固有參朮補脾之功, 然黃連蘆薈之苦寒, 神麴麥芽之燥烈, 虧損胃氣, 耗傷津液, 欲求治病, 而反生他症. 此出於誤認肥兒二字, 輒謂可以肥兒而喜用之, 良可慨然. 大凡藥餌必不得已而用之, 不

可尋常妄投以傷胃和之氣, 此古人所戒也夫.

- [안어] 약간 큰 아이는 원래 감열(疢熱)이 없는 법이다. 그런데 평소에 비위가 부실하여 늘 먹는 양이 많지 않아 살이 좀 마른 경우를 가끔 감질로 마른 것이라고 하면서 곧바로 비아환을 쓰는 경우를 본다. 대체로 비아환 처방 속에는 분명히 인삼과 백출도 비장을 보하는 작용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황련과 노회와 고한(苦寒)한 성미나 신국과 맥아의 조열(燥烈)한 성미는 위의 기운을 손상시키고 진액을 소모시키기 때문에 병을 치료하려다 도리어 다른 증상이 생기게 된다. 이런 일은 '비아(肥兒)'라는 2글자의 뜻을 착각하는 데에서 생기는데 혹자들은 도리어 아이를 살지게(肥兒) 할 수 있다고 말하면서 즐겨 쓰고 있으니 참으로 개탄할 일이다. 무릇 약은 반드시 부득이할 때 써야지 아무 때나 함부로 써서 안정되어 있는 위의 기운을 상하게 해서는 안되는 법이니 이는 옛 사람들도 경계하던 부분이다.

○疢積餅

○감적병

治五疢諸積.

다섯 가지 감질과 여러 가지 적취(積聚)를 치료한다.

使君子(肉) 一兩, 白朮、山查肉、陳皮、青皮、黃連(薑炒) 各三錢, 神麴(炒)、麥芽(炒)、三稜(煨)、蓬朮(煨)、木香 各二錢半, 砂仁(炒)、檳榔、肉豆蔻(煨)、訶子(煨)、甘草(炙) 各二錢, 茴香(炒)、川練肉、夜明沙(炒) 各一錢半, 乾蟾 一箇(酥炙).

사군자(과육) 1냥, 백출, 산사육, 진피, 청피, 황련(생강즙에 축여 볶는다) 각 3돈, 신국(볶는다), 맥아(볶는다), 삼릉(재에 묻어 굽는다), 봉출(재에 묻어 굽는다), 목향 각 2.5돈, 사인(볶는다), 빈랑, 육두구(재에 묻어 굽는다), 가자(재에 묻어 굽는다), 자감초 각 2돈, 회향(볶는다), 천련육, 야명사(볶는다) 각 1.5돈, 건섬 1개(연유를 묻혀 굽는다).

右末, 白糲三斤炒黃, 以砂糖五兩水煮和勻, 印作餅子, 每重一錢, 每服一二餅, 任意嚼吃²⁸, 米飲送下.

이상을 가루 낸 후 흰 밀가루 3근을 누렇게 볶고 사당(砂糖) 5냥 달인 물과 골고루 반죽하여 병자(餅子) 모양으로 찍어내되 하나에 1돈 무게로 만든다. 한 번에 1 - 2개씩 임의로 씹어서 미음으로 넘긴다.

○五疢消食丸

○오감소식환

通治諸疢, 殺蟲退熱, 磨積進食.

여러 가지 감질을 두루 치료한다. 충을 죽이고 열을 내리며 적취를 없애고 음식을 넘기게 한다.

使君子、麥芽(炒)、陳皮、蕪荑、神麴(炒)、草龍膽(酒炒)、黃連(薑炒)、山查肉各等分.

사군자、맥아(볶는다)、진피、무이、신곡(볶는다)、초롱담(술에 축여 볶는다)、황련(생강즙에 축여 볶는다)、산사육 각각 같은 양.

右末, 陳米飯和丸黍米大, 每二三十丸, 米飲下.

이상을 가루 낸 후 묵은쌀로 지은 밥과 잘 섞어 서미 크기로 환을 빚고 한 번에 20 - 30환씩 미음으로 넘긴다.

○五疢保童元

○오감보동원

治五藏疢.

오장의 감질을 치료한다.

鰾鱈魚頭(灸黃, 無則蕪荑代用)、蘆薈(煨)、熊膽、草龍膽(酒炒)、五倍子、青皮、夜明砂(炒)、苦練根、雄黃、麝香、天漿子、青黛、黃連(薑炒)、胡黃連 各二錢半, 乾蟾頭 一枚(灸黃色).

만리어두(누렇게 굽는다. 구하지 못한 경우 무이를 대신 쓴다)、노회(불에 달군다)、웅담、초롱담(술에 축여 볶는다)、오배자、청피、야명사(볶는다)、고련근、웅황、사향、천장자、청대、황련(생강즙에 축여 볶는다)、호황련 각 2.5돈, 건섬두 1개(누렇게 굽는다).

右爲末, 飯丸麻子大, 一歲兒, 米飲下一二十丸.

이상을 가루 낸 후 밥에 개어 마자 크기로 환을 빚고 1살 아이 기준으로 미음에 10 - 20환을 넘긴다.

○十味蘆薈丸

○십미노회환

治諸疢, 殺蟲和胃, 止瀉退熱.

여러 가지 감질을 치료한다. 충을 죽이고 위를 편안하게 하며 설사를 멎게 하고 열을 떨어뜨린다.

胡黃連、雷丸、蘆薈(煨)、蕪荑、木香、青黛、鶴膝、黃連 各五錢, 蟬退 十箇, 麝香 五分.

호황련、뇌환、노회(불에 달군다)、무이、목향、청대、학슬、황련 각 5돈, 선퇴 10개, 사향 5푼.

右末, 猪膽汁浸糕丸麻子大, 米飲下二三十丸.

이상을 가루 낸 후 저담즙에 담근 설기떡에 개어 마자 크기로 환을 빚고 미음으로 20 - 30환을 넘긴다.

○十全丹

○십전단

治丁奚、哺露、無辜壞症.

정해감(丁奚疔)、포로감(哺露疔)、무고감(無辜疔)으로 생긴 괴증(壞症)을 치료한다.

陳皮、靑皮、蓬朮(煨)、川芎、五靈脂(炒)、白豆蔻(煨)、檳榔、蘆薈 各五錢, 木香、使君子(肉)、蝦蟆(灰) 各三錢.

진피、청피、봉출(재에 묻어 굽는다)、천궁、오령지(볶는다)、백두구(재에 묻어 굽는다)、빈랑、노회 각 5돈, 목향、사군자(과육)、하마(재로 만든다) 각 3돈.

右末, 猪膽汁浸糕丸麻子大, 米飲下二三十丸.

이상을 가루 낸 후 저담즙에 담근 설기떡에 개어 마자 크기로 환을 빚고 미음에 20 - 30환을 넘긴다.

○布袋丸

○포대환

治諸疳, 腹大項小, 面黃蟲痛, 飲食不爲肌膚.

여러 가지 감질로 배가 뽕뽕하고 목이 얇으며 얼굴이 누레지고 회충으로 통증이 있으며 음식을 먹어도 살이 붙지 않는 경우를 치료한다.

夜明砂(炒)、蕪荑、使君子 各二兩, 蘆薈(煨)、人參、白朮、白茯苓、甘草 各五錢.

야명사(볶는다)、무이、사군자 각 2냥, 노회(불에 달군다)、인삼、백출、백복령、감초 각 5돈.

右末, 湯浸蒸餅和丸彈子大, 每一丸, 用絹袋盛之, 次用精豬肉二兩同煮, 候肉爛熟, 提起藥掛, 風前陰乾, 只用肉和汁, 與兒食之, 次日依前煮服, 藥盡爲度.

이상을 가루 낸 후 뜨거운 물에 담근 증병(蒸餅)에 개어 탄자 크기로 환을 빚는다. 한 번에 1환을 천 주머니에 넣은 다음 돼지고기 살코기 2냥과 함께 삶는다. 고기가 푹 익으면 약 주머니는 건져서 바람이 통하는 그늘에서 말리고 고기와 국물만 아이에게 먹인다. 다음날도 같은 방법으로 삶아서 먹이면서 주머니의 약이 없어질 때까지 한다.

○消疳丸

○소감환

治五疳, 皮黃肌瘦, 髮直尿白, 肚大青筋, 好食土炭茶米之物, 或吐或瀉, 腹內積塊, 諸蟲作痛.

오감(五疳)으로 피부가 누레지면서 살이 여위고 머리카락이 쭈뼛 서며 흰 오줌을 누고 배가 똥똥하면서 푸른 핏줄이 나타나고 흙, 숯, 차, 쌀 같은 것을 자꾸 먹으려 하며 간혹 구토나 설사를 하거나 뱃속에 덩어리가 만져지거나 여러 가지 충으로 아파하기도 하는 경우를 치료한다.

蒼朮(炒)、陳皮、厚朴、枳殼、檳榔、神麴(炒)、山楂肉、麥芽(炒)、三稜(煨)、蓬朮(煨)、砂仁(炒)、茯苓、黃連(薑炒)、胡黃連、蘆薈(煨)、使君子(肉)、蕪荑(仁) 各等分.

창출(볶는다)、진피、후박、지각、빈랑、신곡(볶는다)、산사육、맥아(볶는다)、삼릉(재에 묻어 굽는다)、봉출(재에 묻어 굽는다)、사인(볶는다)、복령、황련(생강즙에 축여 볶는다)、호황련、노회(불에 달군다)、사군자(과육)、무이(속씨) 각각 같은 양.

右末, 使君子殼煎湯泡蒸餅, 丸彈子大, 每一丸, 清米飲化下.

이상을 가루 낸 후 사군자 껍데기 달인 물에 담근 증병(蒸餅)에 개어 탄자 크기로 환을 빚는다. 한 번에 1환씩 묶은 미음에 녹여서 넘긴다.

○快活丸

○쾌활환

治小兒疳症, 皮膚瘦削, 骨露如柴, 肚大青筋, 小便濁, 睡臥燥亂, 神氣昏沈. 常服, 健俾²⁹化積, 進食肥肌, 其效如神.

아이가 감질로 살이 뺄뺄 말라 뼈가 나뭇가지처럼 드러나고 배가 빵빵하면서 푸른 핏줄이 나타나며 오줌이 탁하고 잘 때 답답해서 발버둥을 치며 정신이 혼미한 증상을 치료한다. 늘 먹으면 비장을 튼튼하게 하고 적취(積聚)를 녹이며 음식을 넘어가게 하고 살을 붙게 하니 그 효과가 신통하다.

蒸餅一斤, 作餅十六箇, 每一箇重一兩, 頂開一窺, 取出餅屑, 入青礬五分, 仍以餅屑填緊, 外以濕紙包固, 炭火煨透乾, 取出候冷用.

증병(蒸餅) 1근을 16개 덩어리로 나누어 1개가 1냥 무게가 되도록 만든다. 증병 덩어리 위에 구멍을 하나 파 그 가루를 꺼내고 청반(靑礬) 5푼을 넣은 후 구멍을 찢던 가루로 다시 구멍을 메운다. 겉을 습지로 싸매고 숯불에 구워 마르면 꺼낸 후 식혀서 쓴다.

右細末, 別以肥小棗, 用米泔水浸經一宿, 飯上蒸熟, 去核皮, 爛杵如糊, 同前餅末搗, 丸如黍米大, 每服三五十丸, 不拘時米飲下, 或米湯研化服.

이상을 곱게 가루 낸다. 따로 통통하고 작은 대추를 쌀뜨물에 하룻밤 담가 놓았다가 밥 지을 때 위에 놓고 찌서 익힌다. 씨와 껍질을 제거하고 찢듯하게 찢절다가 위의 증병 가루와 함께 찢은 후 서미 크기로 환을 빚는다. 한 번에 30 - 50환씩 시간에 상관 없이 미음으로 넘기거나 쌀 끓인 물에 갈아서 복용한다.

◦九味柴胡湯

◦구미시호탕

治肝膽經熱毒瘰癧, 或耳下耳內生瘡, 發熱潮熱, 或肝經濕熱, 下注囊癰, 便毒腫潰, 或小腹脇股結核. 凡肝膽經部分, 一切瘡瘍發熱等症, 及肝疳并治之.

간경(肝經)이나 담경(膽經)의 열독으로 나력이 생긴 경우, 혹은 귀의 아래나 속에 창이 나면서 열이나 조열이 나는 경우, 혹은 간경의 습열이 아래로 흘러 불알에 웅저가 생기고 변독(便毒)으로 종기가 났다가 터지는 경우, 혹은 아랫배나 옆구리나 허벅지에 멍울이 만져지는 경우를 치료한다. 간경·담경이 지나는 부분에 생기는 모든 창양(瘡瘍)·발열 등의 증상과 간감(肝疳)을 모두 치료한다.

柴胡、黃芩(炒) 各五分, 人參、山梔、半夏、草龍膽(酒炒)、當歸(酒洗)、赤芍藥 各三分, 甘草 二分.

시호、황금(볶는다) 각 5푼, 인삼、산치인、반하、초롱담(술에 축여 볶는다)、당귀(술로 씻는다)、적작약 각 3푼, 감초 2푼.

右剉, 水煎服.

이상을 썬 후 물에 달여 복용한다.

◦孺疳丸

◦내감환

小兒因喫着熱病乳, 便成熱疳, 下痢吐逆.

아이가 열증이 있는 유모의 젖을 먹고서 곧 열감(熱疳)이 되어 설사와 구토를 하는 증상을 치료한다.

桃仁(去皮尖炒)、胡黃連 各五錢, 沈香、朱砂 各三錢, 金箔 五片.

도인(껍질과 뾰족한 부분을 제거하고 볶는다)·호황련 각 5돈, 침향·주사 각 3돈, 금박 5조각.

右細末, 軟飯和丸麻子大, 米飲或乳汁下五七丸.

이상을 곱게 가루 낸 후 진밥에 개어 마자 크기로 환을 빚고 미음이나 젖에 5-7환을 넘긴다.

○清胃養脾湯

○청위양비탕

治小兒愛喫米炭沙土, 乃脾虛胃熱所致.

아이가 자꾸 쌀·숯·모래·흙을 먹으려 하는 경우를 치료한다. 이는 비기(脾氣)가 허하고 위에 열이 있기 때문이다.

石膏(煨) 一錢, 陳皮、白朮、赤茯苓、黃芩、甘草 各二分.

석고(불에 달군다) 1돈, 진피·백출·적복령·황금·감초 각 2푼.

右剉, 水煎時時服.

이상을 썬 후 물에 달여 수시로 복용한다.

○黃金餅

○황금병

治同上.

위와 같이 아이가 자꾸 쌀·숯·모래·흙을 먹으려 하는 경우를 치료한다.

黃連濃煎, 取清汁, 搜和黃土, 日乾, 與兒食即止. ○一方, 膩粉一分, 砂糖搜和丸麻子大, 空心米飲下一丸, 瀉出土即差.

황련을 진하게 달인 맑은 국물에 황토를 개어 벌에 말린 후 아이에게 먹이면 즉시 증상이 멈춘다. ◦어떤 서적에는 '이분(膩粉) 1푼과 사당(砂糖)을 섞어 마자 크기로 환을 빚고 빈속에 미음으로 1환을 넘기면 설사로 흡이 나오면서 즉시 좋아진다.'라고 되어 있다.

- 一小兒, 因缺乳蚤食飯粥, 內傷脾胃, 漸成疳疾, 延及五六歲, 病根已痼, 難以藥治. 余試以癩蟾蜍, 如法取肉, 或烹熟作粥, 或炙燂食之, 幾至百餘箇, 身熱潮熱, 漸次減歇, 腹脹溏泄癖痞等症, 亦隨而差, 肌肉自生, 頓成別人.
- [의안] 어떤 아이가 젖을 먹지 못하고 너무 일찍 밥이나 죽을 먹어 비장과 위가 손상되다가 결국 감질이 되었다. 이 상태로 5 - 6살이 되자 병의 뿌리는 이미 고질병이 되어 약으로 치료하기 어려웠다. 내가 우선 두꺼비의 살을 발라 죽으로 썰거나 구워서 먹이기를 거의 100마리 정도 반복했더니 몸통이 뜨거운 증상과 조열이 점차 줄어들었고 배가 똥똥하면서 음식을 그대로 설사하는 증상들도 함께 좋아져 살이 저절로 붙으면서 전혀 다른 사람이 되었다.

蟾蜍 [두터비], 又名風鷄, 性寒有毒, 治小兒勞瘦五疳八痢, 殺蛔蟲, 破癖瘕瘡疥, 善解疳熱.

섬서 [두꺼비] 는 풍계(風鷄)라고도 한다. 성미는 차갑고 독이 있다. 아이의 노수(勞瘦)、오감(五疳)、팔리(八痢)를 치료하고 회충을 죽이며 벽적(癖積)、비괴(痞塊)나 창개(瘡疥)를 없애고 감질로 나는 열을 잘 풀어준다.

蠃 [머구리], 一名金線蛙, 亦蝦蟆一種, 背有黃紋, 性冷無毒. 主治小兒疳瘦, 補虛解熱, 渾身水腫, 單腹脹利水道. 南人食之, 以爲佳饌. ◦修治法, 去皮腸骨³⁰, 取肉洗淨, 或煮或炙食之, 或乾或燒存性, 入藥用之. ◦李時珍曰, 蝦蟆之類, 名稱雖多, 功用則一也. 古方, 多用蝦蟆, 近方, 多用蟾蜍, 蓋古人通稱蟾爲蝦蟆耳. 余於小兒疳病, 多用蝦蟆, 而蟾之功尤勝, 有奇效, 以蟾蜍治疳癖羸瘦, 似是矣.

와 [개구리] 는 금선와(金線蛙)라고도 하니 하마(蝦蟆)의 일종으로 등에 누른 줄이 있다. 성미는 냉하며 독이 없다. 아이가 감질로 마르는 증상을 치료한다. 허약함을 보하고 열을 풀어준다. 온몸에 수종이 생기거나 복창 증상만 있는 경우에 소변으로 잘 빠진다. 남쪽 지방 사람들은 이것을 먹으며 맛있는 음식으로 여긴다. ○손질하는 방법. 껍질과 내장과 뼈를 제거하고 살을 발라 깨끗하게 씻은 후 삶거나 구워서 먹는다. 혹은 말리거나 약성이 남도록 태운 것을 약에 넣어 쓰기도 한다. ○이시진이 《본초강목》에서 '하마의 일종으로 이름은 다양하지만 효능은 동일하다.'라고 말하였다. 옛 방서에는 대부분 하마를 쓰고 요즘 방서에는 대부분 섬서를 쓰는데 아마도 옛 사람은 섬서를 하마라고 통칭했을 뿐인 것 같다. 내가 소아의 감질에 하마를 많이 써보았지만 섬서의 효능이 더욱 좋아 신통한 효과가 있었다. 섬서를 써서 감벽(疳癖)으로 바싹 마르는 증상을 치료하는 원리도 이와 비슷할 것이다.

老鼠, 如食治法多食, 善解疳熱. ○夜明砂炒, 水煎服, 或細末, 入粥飲中, 亦治疳疾.

늑은 쥐를 식치법대로 손질하여 많이 먹이면 감열(疳熱)을 잘 풀어준다. ○야명사를 볶아 물에 달여 복용하거나 혹은 곱게 갈아 죽이나 미음에 넣어 먹여도 감질을 치료한다.

古方云, 冷疳多見於內, 言大便或泄或痢, 小便泔白, 嘔乳吐食, 乳食不進, 熱疳多見於外, 言鼻下赤爛, 或滿頭餅瘡, 或遍身發瘡, 劇歇無常, 以此觀之, 則小兒胎瘡經年不合者, 亦熱疳之類也. 疳瘡年久不愈者, 世俗專以胎瘡治之, 豈不誤哉. 錢氏猪肚黃連丸註, 固已明辨之矣. 余於小兒疳瘡之類, 經歷頗多, 四五歲兒, 有熱瘡蔓延, 五六年不合者, 蟾蜍烹食, 或燒火存性, 細末, 米飲調服, 或月蟾丸, 如法製服多用, 乃效. 其年壯者, 自幼時, 胎瘡發於腿脚, 浸淫不已, 則難醫也. [夏月則完合, 冬月則發, 凡小兒癰癤馬刀瘡者, 皆熱疳之類也.]

옛 방서에서 '냉감(冷疳)의 증상이 대부분 속에 나타난다는 말은 대변이 설사나 이질로 나오거나 소변이 뿌옇고 흰색으로 나오거나 젖이나 밥을 토하거나 젖이나 밥을 넘기지 못한다는 의미이다. 또한 열감(熱疳)의 증상이 대부분 겉

으로 드러난다는 말은 코 아래가 빨갛게 짓무르거나 머리 가득히 병창(餅瘡)이 생기거나 온몸에 창이 난 채 심할 때와 관창을 때가 일정하지 않다는 의미이다.'라고 하였다. 이 말로 미루어 본다면 아이의 태창(胎瘡)이 몇 년이 지나도록 아물지 않는 경우는 역시 열감(熱瘡)의 한 종류인데, 감창(疔瘡)으로 몇 년이 되도록 낫지 않는 경우를 사람들은 오로지 태창으로 여겨 치료하고 있으니 어찌 틀린 치료가 아니겠는가. 전씨(錢氏)가 저두황련환 주석에서 이미 명확히 변별해 놓았다. 나는 소아의 감창 같은 병을 치료한 경력이 꽤 많은데 4-5살 아이가 열창(熱瘡)이 만연하여 5-6년 동안 아물지 않은 경우에는 섬서를 삶아 먹이거나, 혹은 약성이 남도록 태워 곱게 가루 낸 후 미음에 타서 먹이거나, 혹은 월섬환을 제법과 복용법대로 많이 쓰면 효과가 있었다. 좀 자란 아이의 경우 어릴 때 다리에 난 태창이 번지면서 낫지 않으면 치료하기 어렵다. [여름철에는 완전히 아물었다가 겨울철에 재발한다. 대체로 소아의 나력이 나 마도창(馬刀瘡)은 모두 열감의 한 종류이다.]

- 一士人子, 兒時素有疳氣, 年至十六, 猝得暑症, 大吐瀉之後, 胃氣虛弱, 津液燥耗, 仍以沈綿, 已逾一歲, 諸醫皆以爲陰虛火動, 用滋陰降火之劑, 諸症越添, 困倦無力, 飲啖全却. 余曰, 陰虛之症, 近於疳勞, 而但疳脈則數而虛軟無力, 腹脇脹硬便道無常, 此內傷脾胃, 疳氣中滿, 非比陰虛之症也. 滋陰之劑, 胃家所忌, 宜異功散 [方見吐瀉] 、肥兒丸之類, 加減用之, 主家不信, 而治以陰虛, 竟不救.
- [의안] 어떤 양반의 아들이 어려서부터 평소에 감질 기가 있다가 16살 때 갑자기 더위를 먹어 크게 토하고 설사한 후 위의 기운이 허약해지고 진액이 말라붙었다. 그 후로 증상이 낫지 않은채 이미 1년이 지났다. 여러 의원들이 모두 음허화동(陰虛火動)으로 여기고는 음기를 북돋고 화기 내리는 약을 썼으나 증상들이 더 심해져 힘없이 늘어지고 식음을 전폐하게 되었다. 내가 말하였다. "음허증은 감질과 비슷하지만 감질의 맥은 삭(數)하고 허연(虛軟)하면서 힘이 없습니다. 배와 옆구리가 똥똥하고 단단하면서 대변이 정상적이지 않으므로 이는 비장과 위가 손상된 상태에서 감질 기 때문에 뱃속이 그득한 것이지 음허증에

부합하는 것이 아닙니다. 음기를 복돋는 약은 위가 손상된 환자에게는 금기입니다. 이공산 [처방은 토사문에 나온다] 이나 비아환 같은 약을 가감하여 써야 합니다.” 그러나 집안 사람들이 내 말을 믿지 못하고 음허증에 쓰는 약으로 치료했고 결국 생명을 구하지 못하였다.

- 按. 二十歲以上曰勞, 二十歲以下曰疳, 疳之爲病, 身熱咳嗽, 潮熱盜汗, 寒熱往來等症, 與陰虛火動, 大概相似, 而陰虛者, 色慾過多, 勞傷腎經也, 疳疾者, 飲食過度, 內傷脾胃也. 二者之治法, 不啻天淵, 俗醫不分病源, 輒以爲早婚傷色之致, 枉治不救者多, 庸醫殺人之誚, 烏得免也.
- [안어] 20살 이상은 노(勞)라고 하고 20살 이하는 감(疳)이라고 한다. 감질이란 병은 몸통이 뜨겁고 기침을 하며 조열·도한·한열왕래 같은 증상이 있어 음허 화동과 대부분 비슷하다. 그러나 음허화동은 색욕이 과다하여 신장의 경맥이 손상된 것이고, 감질은 음식이 적절하지 않아 비장과 위가 손상된 것이다. 2가지 경우의 치료법은 하늘과 땅 차이이다. 그런데 대부분의 의원들은 원인을 분간하지 못하고 그저 일찍 결혼한 탓에 색욕으로 상한 결과라고 여기고는 틀리게 치료하여 생명을 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니 용렬한 의원이 사람을 죽인다는 비웃음을 어찌 면할 수 있겠는가.
- 李清風子, 吐瀉之後, 身熱腹脹, 逾月不已, 肌肉羸瘦, 煩渴引飲, 困倦無力, 衆醫皆以爲暑熱未淨, 用清暑之劑, 諸症倍加. 余曰, 此胃虛津乾, 欲成疳疾也, 補脾生津, 乃可責效, 四君子湯 [方見吐瀉], 加葛根·蓮肉等分, 地骨皮半減, 入烏梅, 連用七劑, 煩渴遂止, 繼用肥兒丸而愈.
- [의안] 이 청풍(李清風)의 아들이 구토하고 설사한 후 몸통이 뜨겁고 배가 빵빵해진 채 한 달 남짓 낫지 않아 살이 바싹 마르고 번갈로 물을 찾으며 힘없이 피곤해했다. 여러 의원들이 모두 서열(暑熱)이 깨끗이 사라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여기고는 서열을 없애는 약을 썼지만 증상들이 더 심해졌다. 내가 “이는 위가 허하고 진액이 말라 감질이 되려고 하는 상태입니다. 비장을 보하고 진액을

만다는 약을 쓰면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라고 말하고는 사군자탕 [처방은 토사문에 나온다] 에 갈근·연육 각각 같은 양을 더하고 지골피는 절반으로 줄이며 오매를 넣어서 연달아 7첩을 썼더니 번갈이 마침내 멎었다. 그리고 이어서 비아환을 쓰니 나았다.

- 洪進士 [維漢] 女, 素有疢病, 服五福化毒丹、胡黃連丸, 大勢稍減, 後忽恐怖如人將捕者然, 匿伏於乳母懷中, 驚懼之聲, 不絕於口, 以安神丸、至寶丹之類, 治心鎮驚, 終無應效, 用牛黃瀉心湯 [方見癰疾], 數次泄下, 遂無驚怖之症, 此蓋心疢也.
- [의안] 진사(進士) 홍유한(洪維漢)의 딸이 본래 감질이 있었는데 오복화독단·호황련환을 복용하고 위중한 증상은 조금 줄어들었다. 그 후에 갑자기 다른 사람이 자기를 잡으러 쫓아오는 것처럼 놀라 유모의 품 속에 파고들고는 비명 소리가 입에서 끊이지 않았다. 안신환·지보단 같은 약으로 마음을 안정시키려 했지만 끝내 아무런 효과가 없었다. 우황사심탕 [처방은 간질문에 나온다] 을 써서 여러 번 설사를 시켰더니 드디어 놀라는 증상이 없어졌다. 이는 아마도 심감(心疢)인 것 같다.

1. 【疢+平】: 痺 ※규장각본 ↩

2. 內: 肉 ※규장각본 ↩

3. 枯: 結 ※규장각본 ↩

4. 湖: 糊 ※문맥상 ↩

5. 醫: 醫 ※문맥상 ↩

6. 熟: 熱 ※규장각본 ↩

7. 薰 : 薰 ※규장각본 <

8. 槌 : 槌 ※규장각본 <

9. 息 : 瘳 ※규장각본 <

10. 或 : 惑 ※규장각본 <

11. 研 : 砥 ※규장각본 <

12. 亡 : 無 ※규장각본 <

13. 疫 : 痘 ※규장각본 <

14. 免 : 兌 ※규장각본 <

15. 傳 : 轉 ※규장각본 <

16. 自 : 皆 ※규장각본 <

17. 胃 : 脾 ※규장각본 <

18. 丁 : 木 ※규장각본 <

19. 妙 : 炒 ※문맥상 <

20. 【屯+佳】 : 雌 ※규장각본 <

21. 桶 : 筒 ※규장각본 <

22. 帑 : 袋 ※규장각본 <

23. 繫 : 係 ※규장각본 <

24. 注 : 走 ※규장각본 <

25. 腎 : 胃 ※규장각본 <

26. 疾 : 病 ※규장각본 <

27. 稍 : 消 ※규장각본 [↩](#)

28. 吃 : 訖 ※규장각본 [↩](#)

29. 俾 : 脾 ※문맥상 [↩](#)

30. 骨 : 胃 ※규장각본 [↩](#)



魃病 기병

魃, 小鬼也, 謂妊婦被惡神, 導其腹中, 妬嫉小兒, 令生此病, 故字以鬼也. 然非必專歸於鬼神之咎, 乃婦人先有兒, 未能行而有娠, 使兒飲此乳, 則作魃病, 又或夫婦同寢之時, 以勞乳飲兒, 亦作魃病, 其症黃瘦骨立, 寒熱往來, 毛髮鬖鬖, 宜龍膽湯.

기(魃)는 새끼 귀신이란 뜻이니 악귀가 임신부에게 들어온 후 뱃속으로 흘러가 태아를 질투하기 때문에 이 병이 생긴다. 그러므로 글자에 귀(鬼)자가 들어간다. 그러나 반드시 귀신의 탓으로 돌릴 일만은 아니다. 부인이 애초에 아이를 낳은 후 아직 걷지도 못할 때 다시 임신을 한 상태에서 아이에게 젖을 물리게 되면 기병이 생기게 된다. 혹은 부부가 동침한 후 피로한 상태에서 아이에게 젖을 먹여 기병이 생기기도 한다. 기병의 증상은 누렇게 마르면서 뼈가 드러나고 한열왕래가 있으며 머리카락이 더부룩한 것이다. 용담탕을 써야 한다.

○龍膽湯

○용담탕

大黃(煨) 二錢, 草龍膽、柴胡、黃芩、桔梗、釣藤皮、赤芍藥、赤茯苓、甘草 各一錢, 蜣螂 二箇.

대황(재에 묻어 굽는다) 2돈, 초롱담、시호、황금、길경、조구등피、적작약、적복령、감초 각 1돈, 강랑 2개.

右剉, 水一升, 煎至半, 去滓溫服, 一歲兒服一合, 十歲以下服二三合, 得下痢即止.

이상을 썰어 물 1되에 넣고 절반이 되도록 달인 후 찌꺼기를 제거하고 따뜻하게 데워서 복용한다. 1살 아이는 1홉, 10살 이하 아이는 2 - 3홉을 복용한다. 설사를 하게 되면 증상이 멎는다.

一方, 伏翼灸熟嚼哺兒, 或燒灰細末, 米飲調下, 日四五次, 又以紅囊盛夜明砂佩之.

어떤 서적에는 복익(伏翼)을 구워서 씹은 후 아이에게 먹이거나 복익 태운 재를 곱게 가루 내어 미음에 타서 하루 4 - 5차례 넘기게 한다고 하였다. 또한 붉은 주머니에 야명사를 담아 차고다니게 한다고도 하였다.



諸積 제적

小兒之積, 皆因乳哺不節, 或過食生冷堅硬之物, 脾胃不能剋化, 停滯中焦, 外爲風寒所傷, 或因夜臥失被風冷, 外束榮衛不能順行, 臟腑亦不能宣通, 結而爲積聚, 外症, 面黃肌瘦, 脇腹脹痛, 或泄或吐, 噫氣吞酸, 眼胞微腫, 不思飲食, 大便酸臭, 小便如泔, 至夜發熱, 天明復涼, 肌熱肚熱尤甚, 昏困無氣, 如睡抱起, 實者下之, 虛者補之, 有先下而後補者, 有先補而後下者, 惟在臨症, 詳審治之.

소아의 적취는 모두 젖을 너무 많이 먹이거나, 혹은 생랭(生冷)하거나 단단한 음식을 많이 먹여 비위가 제대로 소화시키지 못하고 중초(中焦)에서 정체된 상태에서 걸로 풍사나 한사에 상하여 생긴다. 혹은 밤에 자면서 이불을 차서 찬 바람을 맞은 후 몸 외부에 돌아야 하는 영기와 위기가 제대로 돌지 못하고 오장육부도 잘 소통되지 못하게 되어 뭉친 것이 적취가 되기도 한다. 걸로 드러나는 증상으로는 얼굴이 누레지면서 살이 마르고, 옆구리와 배가 뻥뻥해지면서 아프고, 설사나 구토를 하기도 하며, 트림과 신물이 올라오고, 눈두덩이 살짝 부으며, 음식 생각이 없고, 대변에서 신내가 나며, 소변은 쌀뜨물 같고, 밤에는 열이 났다가 날이 밝으면 다시 내리는데 피부와 배가 유난히 뜨거우며, 정신이 혼미해지면서 숨을 쉬지 않는데 마치 자는 아이를 안아 일으키는 것 같다. 실증인 경우에는 하법을 쓰고, 허증인 경우에는 보해주어야 한다. 먼저 하법을 쓴 후에 보해야 하는 경우도 있고, 먼저 보한 후에 하법을 써야 하는 경우도 있으니 오직 증상에 따라 자세히 살펴 치료해야 한다.

乳積者, 吐乳瀉乳, 其氣酸臭, 皆由啼叫未已飲乳, 而滯膈不下, 或乳母偏臥, 一向乳兒, 不能迴轉兒, 亦母睡任乳, 乳脹中脘, 因茲結聚成積, 雖未喫穀而有癖痞者, 是也. 宜消乳食丸、大安丸.

유적(乳積)은 젖을 토하거나 젖을 설사할 때 신내가 나는 것이다. 병의 원인은 울음이 덜 멈추었을 때 젖을 먹다가 흉격에서 막혀 내려가지 않거나, 유모가 옆으로 누운 채 한 방향으로 젖을 물려 아이를 움직이지 못하는 상태에서 유모

도 잠들면서 젖을 떼어내지 못하여 젖이 아이 중완(中脘) 부근에 가득 차기 때문에 적취가 된다. 비록 곡류를 먹지 않았더라도 벽적(癖積)이나 비괴(痞塊)가 생기는 것은 이 때문이다. 소유식환이나 대안환을 써야 한다.

○消積丸

○소적환

治乳食積, 腹脹痛, 氣急咳嗽, 吐乳瀉乳, 頭身俱熱, 面有浮氣.

유적(乳積)이나 식적(食積)으로 배가 똥똥해지면서 아파하고 숨이 가쁘면서 기침을 하며 젖을 토하거나 젖을 설사하고 머리와 몸통에 모두 열이 나며 얼굴에 붓기가 생기는 증상을 치료한다.

丁香、縮砂(炒) 各二十枚, 烏梅肉、巴豆(去油) 各三箇, 使君子(肉) 五箇.

정향·축사(볶는다) 각 20개, 오매육·파두(기름을 제거한다) 각 3개, 사군자(과육) 5개.

右細末, 飯丸麻子大, 每二三丸, 量兒大小, 橘皮煎湯下. ○錢氏方, 無使君子.

이상을 곱게 가루 낸 후 밥에 개어 마자 크기로 환을 빚고 한 번에 2-3환씩 아이의 몸집을 가늠하여 굴피 달인 물로 넘긴다. ○전씨(錢氏)의 책에는 사군자가 없다.

○大安丸

○대안환

治小兒乳滯膈間, 咳嗽氣喘, 吐乳瀉乳, 頭熱額汗, 昏睡困倦.

아이가 젖을 먹고 흉격 부근에 막혀 기침을 하면서 숨을 헐떡거리고 젖을 토하거나 젖을 설사하며 머리가 뜨거우면서 이마에 땀이 흐르고 정신이 혼미해지며 노곤해하는 경우를 치료한다.

橘皮 二錢, 茯苓、白朮 各一錢半, 神麴(炒)、麥芽(炒)、山楂肉、砂仁(炒)、蘿菔子(微炒) 各一錢, 枳實 七分.

굴피 2돈, 복령·백출 각 1.5돈, 신국(볶는다)·맥아(볶는다)·산사육·사인(볶는다)·나복자(살짝 볶는다) 각 1돈, 지실 7푼.

右末如飛麵, 糊丸桐子大, 每一丸, 白湯化下.

이상을 비라면(飛羅麵)처럼 곱게 가루 낸 후 꿀에 개어 오동자 크기로 환을 빚고 한 번에 1환씩 끓인 물에 녹여 먹인다.

○消乳食丸

○소유식환

治宿食不消, 消乳積食積.

먹었던 음식이 소화되지 않는 경우를 치료한다. 유적(乳積)·식적(食積)을 없앤다.

便香附 一兩, 砂仁(炒)、橘皮、三稜(煨)、神麴(炒)、蓬朮(煨)、麥芽(炒) 各五錢.

변향부자 1냥, 사인(볶는다)·굴피·삼릉(재에 묻어 굽는다)·신국(볶는다)·봉출(재에 묻어 굽는다)·맥아(볶는다) 각 5돈.

右極細末, 神麴糊和丸芡實大, 每一丸, 量兒大小, 清米飲調服. ○一名消食丸.

이상을 아주 곱게 가루 낸 후 신국을 넣어 쏘 밀가루풀에 개어 검실 크기로 환을 빚는다. 한 번에 1환씩 아이의 몸집을 가늠하여 맑은 미음에 타서 복용한다.
○소식환이라고도 한다.

食積者, 過餐肉食生冷堅硬之物, 胸膈堵塞, 脹痛悶亂, 以消積丸、進食丸之類, 急下之, 概乳食滯¹, 噎氣吞酸, 或吐或瀉, 身與頭腦皆熱, 夜間發熱者, 因循不治, 漸成乳癖食痞, 脇腹脹硬, 五心煩熱, 甚則寒熱如瘧, 宜平胃散、內消散之類, 消導行

氣, 勿爲過治以傷胃和之氣.

식적(食積)은 고기나 밥이나 생랭(生冷)하거나 단단한 음식을 너무 많이 먹어
홍격이 막히고 똥똥해지면서 아프고 답답한 병이다. 소적환·진식환 같은 약
으로 급히 설사시켜야 한다. 대개 젖이나 음식이 홍격에 막히면 트림을 하면서
신물이 올라오고 구토나 설사를 하기도 하며 몸통과 머리와 뒤통수까지 모두
뜨겁다. 밤에 열이 나는 경우에 시간을 끌며 치료하지 못하면 점점 유벽(乳癖)
이나 식비(食痞)로 발전하여 옆구리나 배가 똥똥해지고 단단해지면서 오심번
열이 나는데 심하면 학질처럼 한열왕래가 생긴다. 평위산·내소산 같은 약을
써서 대변으로 빼주고 기운을 소통시키되 지나치게 약을 써서 위기(胃氣)의
안정을 상하게 해서는 안된다.

○消食散

○소식산

治食積, 胸腹脹痛.

식적으로 가슴과 배가 똥똥해지고 아픈 증상을 치료한다.

白朮(陳壁土炒) 二錢半, 麥芽(炒)、縮砂(炒研)、山楂肉 各一錢, 青皮、神麴(炒)、
橘紅、便香附 各七分, 甘草 五分.

백출(오래 묵은 벽의 흙과 함께 볶는다) 2.5돈, 맥아(볶는다)、축사(볶아서 간
다)、산사육 각 1돈, 청피、신곡(볶는다)、굴홍、변향부자 각 7푼, 감초 5푼.

右麤末, 每一二錢, 入薑三片, 水一盞半, 煎至一盞服.

이상을 거칠게 가루 낸 후 한 번에 1 - 2돈씩을 생강 3조각과 함께 물 1.5잔에
넣고 1잔이 되도록 달여 복용한다.

○木香丸

○목향환

治乳食積, 心腹脹悶, 身熱, 嘔瀉腹痛.

유적(乳積)이나 식적(食積)으로 배가 똥똥하면서 답답하고 몸통이 뜨거우며 구토와 설사를 하면서 배가 아픈 증상을 치료한다.

木香、蓬朮(煨)、砂仁(炒)、青皮、朱砂、代赭石(醋淬) 各二錢, 巴豆(爲霜)、丁香 各一錢.

목향、봉출(재에 묻어 굽는다)、사인(볶는다)、청피、주사、대자석(식초에 담금질 한다) 각 2돈, 파두(파두상으로 만들어 쓴다)、정향 각 1돈.

右細末, 麵糊丸麻子大, 每二三丸, 乳積乳汁下, 食積米飲下, 氣積橘皮湯下, 下後調理脾胃.

이상을 곱게 가루 낸 후 밀가루풀에 개어 마자 크기로 환을 빚는다. 한 번에 2 - 3환씩 복용하되 유적(乳積)에는 젖으로 넘기고, 식적(食積)에는 미음으로 넘기고, 기적(氣積)에는 굴피탕으로 넘긴다. 설사를 한 후에는 비장과 위를 잘 조리해주어야 한다.

○平胃散

○평위산

治脾胃不和, 飲食不進, 心腹脹痛, 嘔吐惡心, 面黃肌瘦, 怠惰嗜臥, 身熱, 五心煩熱等症.

비장과 위가 편안하지 못하여 음식을 넘기지 못하며 배가 똥똥하면서 아프거나 구토와 오심이 있거나 얼굴이 누레지면서 살이 마르고 힘없이 자꾸 누우려고 하거나 몸통이 뜨겁고 오심번열이 있는 증상 등을 치료한다.

蒼朮 二錢, 陳皮 一錢四分, 厚朴 一錢, 甘草 六分.

창출 2돈, 진피 1.4돈, 후박 1돈, 감초 6푼.

右剉, 入姜三棗二, 水煎服, 或細末, 每二錢, 薑湯調服. ◯夾外感, 加蘇葉一錢, 青皮半減. ◯胸腹脹痛, 加香附、砂仁、桔梗、枳實. ◯惡心嘔吐, 加半夏、砂仁、白豆蔻. ◯痰滯膈痞, 飲食不下, 加半夏、茯苓、香附、砂仁、枳實、木香. ◯此方決烈耗散之劑, 實非補脾之藥, 能瀉土氣之敦阜, 使之平胃耳, 胃氣和平則便止, 不可常服也. ◯加乾姜, 名厚朴湯. ◯加茯苓、白朮、丁香, 名調胃湯. ◯合六一散, 名黃白散. ◯加半夏、藿香, 名不換金正氣散.

이상을 썬 후 생강 3조각과 대조 2개를 넣고 물에 달여 복용한다. 혹은 곱게 갈아 2돈씩 생강탕에 타서 복용한다. ◯외감을 겸한 경우에는 소엽 1돈을 더하고 청피를 절반으로 줄인다. ◯가슴과 배가 똥똥하면서 아픈 경우에는 향부자、사인、길경、지실을 더한다. ◯오심과 구토가 있으면 반하、사인、백두구를 더한다. ◯가래가 끼고 흉격이 답답하면서 음식을 넘기지 못하는 경우에는 반하、복령、향부자、사인、지실、목향을 더한다. ◯이 처방은 매우 강렬하면서 원기를 소모시키는 약이니 실로 비장을 보하는 약이 아니다. 그저 비토의 과한 기운을 설사로 빼내어 위를 안정되게 할 뿐이니 위의 기운이 편안해지면 바로 복용을 멈춰야 하며 자주 복용해서는 안된다. ◯건강을 더하면 후박탕이라고 부른다. ◯복령、백출、정향을 더하면 조위탕이라고 부른다. ◯육일산과 합하면 황백산이라고 부른다. ◯반하、곽향을 더하면 불환금정기산이라고 부른다.

◯香砂平胃散

◯향사평위산

治傷食不化痞滿, 胸腹作痛.

식상(食傷)으로 소화되지 않고 속이 답답하면서 그득하며 가슴과 배가 아픈 증상을 치료한다.

蒼朮 二錢, 陳皮、便香附 各一錢, 枳實、藿香 各八分, 厚朴、砂仁(炒研) 七分, 木香、甘草 各五分.

창출 2돈, 진피、변향부자 각 1돈, 지실、곽향 각 8푼, 후박、사인(볶아서 간다) 7푼, 목향、감초 각 5푼.

右麤末, 每二錢, 入姜三, 水一盞半, 煎至一盞服.

이상을 거칠게 가루 낸 후 한 번에 2돈씩을 생강 3조각과 함께 물 1.5잔에 넣고 1잔이 되도록 달여 복용한다.

◦內消散

◦내소산

治傷食生冷硬物, 痞滿脹痛.

생랭(生冷)하거나 단단한 음식을 먹고 생긴 식상(食傷)으로 속이 답답하면서 그득하고 배가 똥똥하면서 아픈 증상을 치료한다.

陳皮、半夏、白茯苓、枳實、山楂、神麴(炒)、砂仁(炒)、便香附、三稜(煨)、蓬朮(煨)、乾姜(炒) 各一錢.

진피、반하、백복령、지실、산사、신곡(볶는다)、사인(볶는다)、변향부자、삼릉(재에 묻어 굽는다)、봉출(재에 묻어 굽는다)、건강(볶는다) 각 1돈.

右麤末, 每二三錢, 水煎服.

이상을 거칠게 가루 낸 후 한 번에 2 - 3돈씩 물에 달여 복용한다.

◦消滯散

◦소체산

治宿食痞滯, 開胃扶脾.

먹었던 음식이 속에서 막힌 증상을 치료한다. 음식을 먹게 하며 비기(脾氣)를 도와준다.

山楂肉、神曲(炒)、麥芽(炒)、半夏曲、陳皮、蓮肉 各一錢, 枳實、縮砂(炒)、甘草 各五分.

산사육·신곡(볶는다)·맥아(볶는다)·반하곡·진피·연육 각 1돈, 지실·축사(볶는다)·감초 각 5푼.

右麤末, 每二錢, 入薑二, 水一盞半, 煎至半服.

이상을 거칠게 가루 낸 후 한 번에 2돈씩을 생강 2조각과 함께 물 1.5잔에 넣고 절반이 되도록 달여 복용한다.

○枳朮丸

○지출환

治食積胸膈痞滯, 強胃消食.

식적(食積)으로 가슴이 팍 막힌 증상을 치료한다. 위를 튼튼하게 하고 음식을 소화시킨다.

白朮 一兩, 枳實(製) 五錢.

백출 1냥, 지실(법제한다) 5돈.

右末, 荷葉裹燒, 飯和丸梧子大, 白湯化服. 仲景方枳朮湯, 加橘皮, 名橘皮枳朮丸, 加半夏, 名半夏枳朮丸, 加神曲·麥芽, 名麴蘖枳朮丸, 加木香, 名木香枳朮丸, 各加, 與本方, 白朮半減.

이상을 가루 내어 연잎에 싸서 태운 후 밥에 개어 오동자 크기로 환을 빚고 끓인 물에 녹여 복용한다. 장중경의 책에서는 지출탕에 굴피를 더하여 굴피지출환, 반하를 더하여 반하지출환, 신곡·맥아를 더하여 국열지출환, 목향을 더하

여 목향지출환이라고 부른다. 각각을 더할 때에는 지출환 본방에서 백출을 절반으로 줄인다.

○太和散

○태화산

治內傷乳食, 肚腹脹滿, 外感風寒, 頭疼發熱.

속으로 젖이나 음식에 상하여 배가 똥똥해진 데다가, 겉으로 풍사나 한사에 감촉되어 머리가 아프고 열이 나는 경우를 치료한다.

蘇葉、陳皮、便香附、羌活、蒼朮、川芎、枳殼、山楂肉、神曲(炒)、麥芽(炒)、甘草 各等分.

소엽、진피、변향부자、강활、창출、천궁、지각、산사육、신국(볶는다)、맥아(볶는다)、감초 각각 같은 양.

右麤末, 每二三錢, 入薑三, 水煎服.

이상을 거칠게 가루 낸 후 한 번에 2 - 3돈씩을 생강 3조각과 함께 물에 달여 복용한다.

○萬安膏

○만안고

治傷食吐瀉, 心腹絞痛, 或痢疾腹痛.

음식에 상하여 구토와 설사를 하면서 배가 쥐어짜듯 아프거나 이질로 배가 아픈 경우를 치료한다.

平胃散煎湯, 調蘇合丸二三丸, 入蜜少許, 不拘時服.

평위산 달인 물에 소합환 2 - 3환을 풀고 꿀을 조금 넣어 시간에 상관없이 복용한다.

◦香砂養胃湯

◦향사양위탕

治內傷飲食積滯, 心腹痞痛, 能調和脾胃, 能升降陰陽, 成天地交之泰.

속으로 음식이 적체되어 배가 답답하면서 아픈 증상을 치료한다. 이 약은 비장과 위를 조화롭게 만들고 음기와 양기의 승강을 도와 《주역》에서 말하는 천지가 교통하는 태괘(泰卦)의 형상을 만들어 준다.

白朮、陳皮、半夏、白茯苓 各一錢, 便香附、砂仁(炒研)、木香、枳實、藿香、厚朴、白豆蔻(煨) 各七分, 甘草 三分.

백출, 진피, 반하, 백복령 각 1돈, 변향부자, 사인(볶아서 간다), 목향, 지실, 곽향, 후박, 백두구(재에 묻어 굽는다) 각 7푼, 감초 3푼.

右麤末, 每三四錢, 入薑二棗一, 水煎服.

이상을 거칠게 가루 낸 후 한 번에 3 - 4돈씩을 생강 2조각과 대조 1개와 함께 물에 달여 복용한다.

◦補脾散

◦보비산

治內傷, 脾胃俱虛, 困倦無力, 自汗多睡, 乳食不進.

내상으로 비장과 위가 모두 허해져 힘없이 늘어지고 자한이 있으면서 계속 자려고 하며 젖이나 음식을 넘기지 못하는 증상을 치료한다.

人參、白朮、黃芪(蜜炒)、白茯苓、山藥(炒)、黃粟米(炒)、甘草(炙) 各等分.

인삼、백출、황기(꿀을 묻혀 볶는다)、백복령、산약(볶는다)、황속미(볶는다)、자감초 각각 같은 양.

右麤末, 每二錢, 入薑一棗一, 水煎服.

이상을 거칠게 가루 낸 후 한 번에 2돈씩 생강 1조각과 대조 1개와 함께 물에 달여 복용한다.

○消食餅

○소식병

治小兒傷食, 皮黃肌瘦, 肚腹脹大. 用此焦餅, 令兒常食之.

아이가 음식에 상하여 피부가 누레지면서 살이 마르고 배가 똥똥해지는 증상을 치료한다. 이 구운 전병을 아이에게 자주 먹게 한다.

芡仁(炒)、山查肉、蓮肉、山藥(炒)、白茯苓、神曲(炒)、麥芽(炒)、白扁豆(炒) 各等分.

검인(볶는다)、산사육、연육、산약(볶는다)、백복령、신곡(볶는다)、맥아(볶는다)、백편두(볶는다) 각각 같은 양.

右細末, 合四兩, 入麵一斤, 以水和勻, 烙焦如煎餅, 使兒食之.

이상을 곱게 가루 낸다. 약가루 4냥에 밀가루 1근을 넣고 물로 반죽한 후 구워서 전병처럼 만들고 아이에게 먹게 한다.

氣積者, 腹痛啼叫, 痢如蟹渤, 或發熱肚膨體瘦, 飲食不爲肌膚, 皆由觸忤其氣, 榮衛不和, 淹然日久得之, 五味木香散 [方見內釣].

기적(氣積)은 배가 아파 울면서 게거품 같은 설사를 지리고 간혹 열이 나면서 배가 똥똥해지거나 몸이 마르거나 음식을 먹어도 살이 붙지 않기도 한다. 이는 모두 기가 손상되어 영기와 위기의 조화가 깨진 상태로 시간을 끌면서 오래 지

났기 때문에 생긴다. 오미목향산 [처방은 내조(內釣)문에 나온다] 을 써야 한다.

○行氣丸

○행기환

治氣積, 蟹渤叫啼過.

기적(氣積)으로 게거품 같은 설사를 지리고 심하게 소리지르며 우는 증상을 치료한다.

木香、檳榔、丁香、枳殼、甘松香、使君子(肉)、神曲(炒)、麥芽(炒) 各二錢半, 三稜(煨)、蓬朮(煨)、青皮、陳皮、香附(製) 各五錢, 胡黃連 一錢.

목향、빈랑、정향、지각、감송향、사군자(과육)、신국(볶는다)、맥아(볶는다) 각 2.5돈, 삼릉(재에 묻어 굽는다)、봉출(재에 묻어 굽는다)、청피、진피、향부자(법제한다) 각 5돈, 호황련 1돈.

右細末, 麵糊丸黍米大, 每三十丸, 米飲下. 有汗, 去青皮.

이상을 곱게 가루 낸 후 밀가루풀에 개어 서미 크기로 환을 빚고 한 번에 30환 씩 미음으로 넘긴다. 땀이 나는 경우에는 청피를 뺀다.

驚積者, 受驚日久, 復有乳食積, 泄下青色, 或如米泔汁, 時時腹中跳動, 心神不平, 時常啼哭, 小便淋瀝, 肌肉瘦乾, 宜錢氏利驚丸 [方見急驚], 治驚後, 以消積丸、木香丸之類下之, 參考驚風.

경적(驚積)은 놀란 지 한참 지난 후에 다시 유적(乳積)이나 식적(食積)이 생겨 푸른 설사나 쌀뜨물 같은 설사를 하고 가끔씩 뱃속이 불뚝불뚝 뛰고 정신이 평온하지 않으며 계속 울고 소변이 짙검짙검 나오며 살이 마르게 된다. 전씨이경환 [처방은 급경(急驚)문에 나온다] 을 써야 한다. 경풍을 치료한 후에는 소적환、목향환 같은 약으로 하법을 써야 한다. 경풍(驚風)문을 참고하라.

今人養兒, 因乏乳, 過飼粥飯雜食, 以致疳積而夭者多, 可勝嗟歎, 古方取家馴諸獸之乳哺之, 此亦次於人乳, 抑且傷食脹悶, 則多煎神曲、麥芽, 代茶常服, 麥芽、神曲, 雖云消穀之料, 本性燥烈, 疳瘦之兒, 豈無血液益耗之患乎, 但秋麥性溫無毒, 爲五臟穀, 久食, 頭髮不白, 調中益氣, 補虛止瀉, 消食下氣, 秋大麥陳粳米, 作末, 相等和勻, 量宜, 煮粥常食, 而或老鼠、蝦蟆、鮒魚、石魚 [乾者退鹹用] 之類, 烹爛熟水, 和漿煮粥, 則亦勝於他粥, 而又有治疳滋補之功矣, 間間量宜服之, 或陳米飲, 亦可.

요즘 사람들은 아이를 키울 때 젖이 모자란다면서 죽이나 밥이나 여러 가지 음식을 너무 많이 먹여서 감질이나 적취가 되어 요절하는 경우가 많으니 참으로 답답하고 통탄스러운 일이다. 옛 방서에서는 '집에서 기르는 여러 가축의 젖을 구하여 먹인다'고 하였으나 이 또한 사람의 젖보다는 차선이다. 또한 음식에 상하여 배가 빵빵하면서 답답한 경우에는 신국·맥아를 많이 달여 차처럼 늘 복용해야 한다. 맥아·신국이 비록 곡류를 소화시키는 약재이긴 하지만 본래의 약성은 조열(燥烈)하므로 감질로 마른 아이에게 어찌 혈과 진액이 점점 소모되는 부작용이 없겠는가. 다만 가을보리는 약성이 따뜻하고 독이 없어 오장에 이로운 곡식이 되니 오래 먹으면 머리카락이 세지 않고 속을 편안하게 하면서 기운을 더하며 허로를 보하고 설사를 멈추며 음식을 소화시키고 기운을 내린다. 가을보리와 묵은 갱미를 가루 내고 골고루 잘 섞은 후 아이의 몸집을 가늠하여 죽을 쑤어 자주 먹이면서 간혹 쥐나 개구리나 붕어나 조기 [말린 것을 소금기를 빼고 쓴다] 같은 것을 뜨거운 물에 푹 삶아 장을 넣고 죽을 쑤어 먹이면 다른 죽 보다 낫고 감질을 치료하면서 기운을 보하는 효과까지 있을 것이다. 치료하는 사이사이에 아이의 몸집을 가늠하여 먹인다. 혹은 묵은 쌀로 쑤 미음도 무방하다.

夫積者, 積漸凝結而成形, 故一結之後, 腸胃壯實者, 猶難消化, 況小兒乎, 蓋小兒綳縛而臥, 身無動作, 榮衛不能疾運, 兒又多啼, 則氣逆不下, 加以卽與乳飽之, 乳味太甘, 亦易於戀膈, 小兒之積, 皆由於此, 錢氏方中白餅子、紫霜丸、消積丸、進食丸

之峻攻通快, 雖甚神妙, 然揆積之法方, 其萌作之初, 量其輕重虛實而施之, 若或因循時日, 元氣已虛, 積勢益盛, 則難以用下, 比如養虎遺患, 追悔莫及.

적취는 쌓인 음식이 점점 뭉쳐서 덩어리가 되는 병이다. 그러므로 한 번 뭉친 후에는 장위가 튼튼한 사람이라도 소화시키기 어려운데 하물며 소아는 어떻겠는가. 대체로 소아는 천으로 싸매어 눕혀 놓아 몸을 움직일 수 없기 때문에 영기와 위기가 빨리 운행되지 못하는데, 아이가 계속 울면 기가 치밀어 올라 내려가지 않게 된다. 게다가 곧바로 젖을 물려 먹이면 젖의 성미가 매우 달기 때문에 쉽게 흥격에 멎히게 된다. 소아의 적취는 모두 이 때문에 생긴다. 전씨의 방서 중에 백병자·자상환·소적환·진식환의 강하게 설사시키는 효능은 매우 신묘하기는 하다. 그러나 적취를 없애는 방법은 기미가 보이는 초기에 병증의 경중과 허실을 가늠하여 치료하는 것이니 만약 혹시라도 시일을 질질 끌게 되어 원기가 이미 허해지고 적취가 더욱 왕성해지면 손을 쓰기가 어렵게 될 것이다. 비유컨대 호랑이를 키워 근심을 남긴 후에는 후회해도 소용 없는 것과 같다.

- 一小兒重患紅疹後, 胃氣未復, 肌肉不生, 主家欲爲食補, 作蝦蟆羹軟白飯, 盡量飽喫, 而腹脹喘悶, 昏睡不醒, 身熱如火, 吐瀉并作, 用消積丸泄下, 繼用異功散 [方見吐瀉], 倍人參, 加香、砂、神曲、山楂等分, 枳實半減, 連服五劑而愈.
- (의안) 어떤 아이가 마진을 심하게 앓은 후에 위기(胃氣)가 회복되지 않아 살이 붙지 않았다. 그 집에서는 음식으로 원기를 보충해주려고 개구리국과 흰 쌀밥을 지어 더 먹을 수 없을 정도로 배불리 먹였다. 그러자 배가 빵빵해지면서 숨을 헐떡이며 답답해하고 정신을 잃은 채 깨어나지 못하며 몸통이 불같이 뜨거워지고 구토와 설사를 하게 되었다. 소적환을 써서 설사를 시킨 후 이어서 이공산 [처방은 토사문에 나온다] 에 인삼을 2배로 하고 향부자·사인·신곡·산사 각각 같은 양을 더하고 지실은 절반의 양으로 하여 5첩을 연달아 복용하게 했더니 좋아졌다.

- 一小兒傷乳食, 吐瀉身熱, 心腹脹痛, 服消乳食丸, 吐瀉腹痛雖減, 而身熱引飲未除, 更用錢氏白朮散 [方見吐瀉] 而愈.
- [의안] 어떤 아이가 젖과 음식에 상하여 구토와 설사를 하고 몸통이 뜨거우며 배가 똥똥해지면서 아파했다. 소유탕을 복용하게 했더니 구토와 설사와 복통은 좀 줄었지만 몸통이 뜨겁고 물을 찾는 증상은 없어지지 않았다. 다시 전씨백출산 [처방은 토사문에 나온다] 을 썼더니 좋아졌다.
- 趙教官 [榮謹] 子五歲, 過食肉餅等物, 胸膈填塞作痛, 呼吸喘促, 頃刻之間, 遍身浮脹, 症甚危惡, 以薑湯服消積丸五丸, 有間, 吐下所食而安.
- [의안] 교관(教官) 조영근(趙榮謹)의 아들이 5살 때 고기와 떡 같은 음식을 너무 많이 먹고서는 흉격이 막혀 아파하면서 호흡이 가빠지고 순식간에 온몸이 탕탕 부어 증세가 매우 위급하였다. 생강탕으로 소적환 5환을 먹었더니 조금 후에 먹었던 음식을 토하고 설사하면서 편안해졌다.

1. 脾 : 膈 ※문맥상 ←

癖積 벽적

癖積者, 癖於兩脇之下, 痞塊者, 否於中脘之上, 原因乳哺失調, 乳食停滯, 結而爲癖痞, 或水飲停蓄中脘, 不能宣行, 爲瘀爲痰, 冷氣搏之, 結而爲癖痞 [久瘧多有瘧母之症], 多藏於腹脇隱僻處, 時時作痛, 寒熱如瘧, 咳嗽吐痰, 但飲乳而不食, 面黃腹脹, 大便溏泄色青, 小便如油, 腹中虛鳴, 夜間發熱, 宜辨虛實, 實者, 取癖丸下之, 虛者, 肥兒丸, 加稜朮, 量宜加減, 補脾消積.

벽적(癖積)은 양 옆구리 아래에 생기는 덩어리이고, 비괴(痞塊)는 중완혈 윗부분에 막힌 덩어리이다. 발병 원인은 젖을 너무 많이 먹여 젖이나 음식이 정체되고 그대로 뭉쳐서 벽적이거나 비괴가 되는 것이다. 혹은 물을 마신 후 중완혈 부근에 정체되어 흐르지 못하면 어혈이나 담음이 되는데 그 상태에서 냉기가 침범하면 뭉쳐서 벽적이거나 비괴가 되기도 한다. [구학(久瘧)은 대부분 학모(瘧母) 증상이 있다.] 대부분 배나 옆구리의 구석진 곳에 숨었다가 때때로 통증을 일으키는데, 학질과 비슷하게 한열왕래가 생기며 기침을 하면서 담음을 토하게 된다. 다만 젖을 빨기만 하고 삼키지 않으며 얼굴이 누레지면서 배가 빵빵해지고 푸른 대변을 지리며 기름처럼 끈적한 소변을 누고 뱃속에서 꼬르륵 소리가 나며 밤에 열이 난다. 벽적은 허실을 변별하여 치료해야 하니 실증이면 취벽환으로 하법을 쓰고, 허증이면 비아환에 삼릉·봉출을 더하여 쓰되 아이의 몸집에 따라 가감하여 비장을 보하면서 적취를 없애야 한다.

○取癖丸

○취벽환

治乳癖食癥, 肚腹脹硬牽痛, 多啼.

유벽(乳癖)이나 식징(食癥)으로 배가 빵빵하고 단단하면서 당기고 아프며 계속 우는 증상을 치료한다.

甘遂、芫花、牽牛、官桂、蓬朮(煨)、青皮、五靈脂(醋炒)、木香、桃仁 各二錢, 巴豆(不去油) 一錢.

감수、원화、견우、관계、봉출(재에 묻어 굽는다)、청피、오령지(식초에 축여 볶는다)、목향、도인 각 2돈, 파두(기름을 제거하지 않는다) 1돈.

右末, 入巴豆, 研勻飛麵, 糊丸麻子大, 薑蜜煎湯下二三丸.

이상을 가루 낸 후 파두를 넣고 가루가 날릴 정도로 골고루 간다. 이 가루를 풀에 개어 마자 크기로 환을 빚고 생강과 꿀 달인 물로 2 - 3환을 넘긴다.

◦進食丸

◦진식환

消癖痞.

벽적(癖積)이나 비괴(痞塊)를 없앤다.

木香、枳殼、當歸、代赭石(煨醋淬三次)、朱砂 各三錢, 巴豆霜 一錢, 麝香 五分.

목향、지각、당귀、대자석(불에 달구었다가 식초에 담금질 하기를 3차례 한다)、주사 각 3돈, 파두상 1돈, 사향 5푼.

右細末, 糲糊丸黍米大, 每一二丸米飲下.

이상을 곱게 가루 낸 후 밀가루풀에 개어 서미 크기로 환을 빚고 한 번에 1 - 2 환씩 미음으로 넘긴다.

◦淨腑湯

◦정부탕

治一切癖塊, 發熱口乾, 小便赤, 或瀉泄或嘔咳, 肌熱面黃, 頭汗多睡, 腹中虛鳴.

벽적과 비괴로 열이 나면서 입이 마르고 소변이 붉으며 간혹 설사를 지리거나 구토나 기침을 하기도 하고 살갗이 뜨거우며 얼굴이 노랗고 머리에서 땀이 나면서 계속 자려고 하고 뺨속에서 꾸르륵 소리가 나는 증상을 치료한다.

白茯苓、柴胡、猪苓(去皮)、莪朮、三稜(并醋炒)、澤瀉、山楂肉 各一錢, 黃芩、白朮、半夏(製)、人參 各八分, 胡黃連、甘草 各三分.

백복령、시호、저령(껍질을 제거한다)、아출、삼릉(2가지 모두 식초에 축여 볶는다)、택사、산사육 각 1돈, 황금、백출、반하(법제한다)、인삼 각 8푼, 호황련、감초 각 3푼.

右麤末, 每二三錢, 量兒大小, 入薑二棗一, 煎服.

이상을 거칠게 가루 낸 후 한 번에 2 - 3돈씩 아이의 몸집을 가늠하여 복용하되 생강 2조각과 대조 1개를 함께 넣고 달여서 복용한다.

○七聖丸

○칠성환

治乳癖食痞.

유벽(乳癖)이나 식비(食痞)를 치료한다.

三稜、蓬朮(竝醋炒)、川練肉、莞花、杏仁(泥)、青皮、陳皮 各等分.

삼릉、봉출(2가지 모두 식초에 축여 볶는다)、천련육、원화、행인(질게 간다)、청피、진피 각각 같은 양.

右先用醋浸莞花一宿, 炒漸乾, 次入蓬稜, 同炒赤色, 又入陳練, 再炒令微焦, 爲末, 入杏仁泥和勻, 醋糊丸黍米大, 每二三丸, 臨臥溫湯下, 所食之物盡化, 永無疳疾, 能使黃瘦兒, 頓作化生兒.

위 약재 중 미리 식초에 하루밤 담갔던 원화를 볶아서 말린다. 그다음 삼릉과 봉출을 넣고 적색이 되도록 함께 볶는다. 그다음 진피와 천련육을 넣고 살짝 타도록 다시 볶는다. 이것을 가루 내고 질게 간 행인을 넣어 골고루 섞은 후 식초를 넣어 쉰 풀에 개어 서미 크기로 환을 빚는다. 한 번에 2 - 3환씩 자기 전에 따뜻한 물로 넘긴다. 그러면 먹었던 음식이 모두 소화되면서 영영 감질에 걸리지 않을 것이며 누렇게 마른 아이가 갑자기 생생한 아이로 변하게 될 것이다.

○三稜散

○삼릉산

治癖瘡, 身熱面黃肌瘦.

벽적이나 비괴로 몸통이 뜨겁고 얼굴이 누레지며 살이 마르는 증상을 치료한다.

三稜(炮)、赤茯苓、當歸、鱉甲(醋灸黃去裙) 各一兩, 枳殼、木香、白朮 各半兩.

삼릉(습지에 써서 굽는다)、적복령、당귀、별갑(식초에 축여 누렇게 구워서 아랫부분을 제거한다) 각 1냥, 지각、목향、백출 각 0.5냥.

右麤末, 每三四錢, 入薑三, 水一盞半, 煎至九合, 溫服.

이상을 거칠게 가루 낸 후 한 번에 3 - 4돈씩 생강 3조각과 함께 물 1.5잔에 넣고 9홉이 되도록 달여 따뜻하게 데워서 복용한다.

○六味三稜丸

○육미삼릉환

治未喫食兒有癖瘡.

아직 밥을 먹이지 않는 어린아이에게 벽적이나 비괴가 생긴 경우를 치료한다.

三稜、蓬朮(并醋炒)、神曲(炒)、麥芽(炒)、青皮、陳皮 各等分.

삼릉、봉출(2가지 모두 식초에 축여 볶는다)、신곡(볶는다)、맥아(볶는다)、
청피、진피 각각 같은 양.

右末, 麵糊丸菉豆大, 米飲或白湯下一二十丸.

이상을 가루 낸 후 밀가루풀에 개어 녹두 크기로 환을 빚고 미음이나 끓인 물
로 10 - 20환을 넘긴다.

○白餅子

○백병자

腹中有癖則不食, 但飲乳, 用此下之.

뱃속에 벽적이 있으면 음식을 먹지 못하고 젖만 빨려고 하는데 이 약을 써서
벽적을 대변으로 빼준다.

滑石、輕粉、白附子(炮)、南星(炮) 各一錢, 巴豆 二十四粒(去皮膜爲霜).

활석、경분、백부자(습지에 싸서 굽는다)、남성(습지에 싸서 굽는다) 각 1돈,
파두 24알(겉질과 피막을 제거하고 파두상으로 만들어 쓴다).

右研勻, 糯米飯丸菉豆大, 捏作餅子, 三歲以上三五丸, 三歲以下一二丸, 葱白湯下.

○人乳味甘, 戀膈易於停積, 小兒之病, 多繫於此, 此方南星豁痰, 輕粉、滑石瀉濕,
巴豆去積, 所以爲妙也.

이상을 골고루 갈고 찰밥에 개어 녹두 크기로 환을 빚은 후 꼭 눌러서 병자(餅子)로 만든다. 3살 이상은 3 - 5환을, 3살 이하는 1 - 2환을 총백 달인 물로 넘긴다. ○사람의 젖은 성미가 달기 때문에 흥격에서 쉽게 적체되니 소아의 병은 대부분 여기에서 시작된다. 이 처방에서 남성은 담음을 뚫어 주고, 경분과 활석은 습사를 내보내며, 파두는 적취를 제거하기 때문에 신묘한 효과가 있다.

○厚腸丸

○후장환

治乳食積, 腹脹黃瘦, 身熱不食.

유적(乳積)이나 식적(食積)으로 배가 똥똥하면서 누렇게 마르고 몸통이 뜨거우며 음식을 먹지 못하는 증상을 치료한다.

枳實、麥芽、神曲(并炒) 各一錢, 橘紅、半夏、蒼朮、人參 各五分, 厚朴、青皮 各三分.

지실, 맥아, 신곡(3가지 모두 볶는다) 각 1돈, 귤홍, 반하, 창출, 인삼 각 5푼, 후박, 청피 각 3푼.

右末, 麵糊丸麻子大, 溫水下二三十丸.

이상을 가루 낸 후 밀가루풀에 개어 마자 크기로 환을 빚고 따뜻한 물에 20 - 30환을 넘긴다.

○化痞丸

○화비환

治痞癖, 和胃進食, 止渴殺蟲.

감질로 생긴 벽적(癖積)을 치료한다. 위를 편안하게 하여 음식을 넘어가게 하며 갈증을 멎게 하고 충을 죽인다.

木香、人參、黃芪、當歸、桔梗、黃連、三稜、莪朮(并醋炒)、鱉甲(醋灸)、夜明砂(炒)、綠礬、枳實、使君子(肉)、苦練根(白皮)、訶子 各一兩, 蝦蟆灰 七錢半.

목향, 인삼, 황기, 당귀, 길경, 황련, 삼릉, 아출(모두 식초에 축여 볶는다), 별갑(식초에 축여 굽는다), 야명사(볶는다), 녹반, 지실, 사군자(과육), 고련근(속껍질), 가자 각 1냥, 하마회 7.5돈.

右末, 蜜丸菉豆大, 每二三十丸米飲下, 忌生冷雜果發脾之物, 大人癥癖, 去夜明砂、蝦蟆、黃連, 爲丸梧子大用.

이상을 가루 낸 후 꿀에 개어 녹두 크기로 환을 빚고 한 번에 20 - 30환씩 미음으로 넘긴다. 생랭(生冷)한 음식이나 여러 과일이나 비장을 손상시키는 음식을 피해야 한다. 어른의 징벽(癥癖)에는 야명사、하마、황련을 빼고 오동자 크기로 환을 빚어 쓴다.

○抑肝扶脾散

○역간부비산

治小兒癖積日久, 元氣虛弱, 肌肉消瘦, 肚大脚小, 發熱口乾, 肚腹脹滿.

아이의 벽적이 오래되어 원기가 허약해지고 살이 바싹 마르며 배는 커지면서 다리는 얇아지고 열이 나면서 입이 마르고 배가 똥똥해지는 증상을 치료한다.

黃連(薑炒) 一錢, 白朮(土炒)、草龍膽(炒)、白芥子(炒)、山查肉、白茯苓 各八分, 陳皮、青皮(油炒)、神曲(炒) 各六分, 人參 五分, 柴胡、胡黃連、甘草 各三分.

황련(생강즙에 축여 볶는다) 1돈, 백출(흙과 함께 볶는다)、초롱담(볶는다)、백개자(볶는다)、산사육、백복령 각 8푼, 진피、청피(기름에 볶는다)、신국(볶는다) 각 6푼, 인삼 5푼, 시호、호황련、감초 각 3푼.

右剉, 入薑三棗二, 水煎服.

이상을 썬 후 생강 3조각과 대조 2개를 넣고 물에 달여 복용한다.

○柴胡鱉甲飲

○시호별갑음

治小兒癖積, 寒熱如瘧.

아이가 벽적으로 한열왕래가 있어 학질같은 경우를 치료한다.

柴胡、赤茯苓、人參、白朮、鱉甲(醋灸去裙) 各五錢.

시호、적복령、인삼、백출、별갑(식초에 축여 구워서 아랫부분을 제거한다)
각 5돈.

右麤末, 每二三錢, 入薑三, 水一盞半, 煎至一盞服.

이상을 거칠게 가루 낸 후 한 번에 2 - 3돈씩을 생강 3조각과 함께 물 1.5잔에
넣고 1잔이 되도록 달여 복용한다.

○鱉甲散

○별갑산

治小兒癖痞, 寒已復熱, 熱已復寒, 日久不差.

아이가 벽적이나 비괴로 한열이 왕래하면서 오랫동안 낫지 않는 경우를 치료
한다.

鱉甲 一枚(醋灸黃色去裙).

별갑 1개(식초에 축여 누렇게 구워서 아랫부분을 제거한다).

右細末, 每一錢, 以童便一盞, 煎至半, 量兒大小, 分二三次調服.

이상을 곱게 가루 낸다. 한 번에 1돈씩 동변 1잔에 넣고 절반이 되도록 달인 후
아이의 몸집을 가늠하여 2 - 3차례로 나누어 저어서 복용한다.

小兒癖積, 三稜不拘多少濃煎水, 入米麵作粥, 與乳母食, 每取一棗大喫兒, 不問新
生百日四五歲兒, 皆可服, 有效.

아이의 벽적(癬積)에는 삼릉을 듬뿍 넣고 진하게 달인 물에 쌀이나 밀가루로 죽을 쑨 후 유모에게 먹이고 그때마다 대추 1개 크기만큼 아이에게 먹인다. 갓 난아이든 백일 된 아이든 4 - 5살 된 아이든 모두에게 먹이면 효과가 있다.

○貼瘡膏

○칩비고

貼小兒癬瘡.

아이의 벽적이나 비괴가 생긴 부분에 붙인다.

水紅花子 二錢, 大黃、朴硝、山梔(炒)、石灰 各一錢, 酒酵 一塊(鷄子大).

수홍화자 2돈, 대황·박초·산치인(볶는다)·석회 각 1돈, 주효 1덩이(달걀 크기).

右末, 共搗成膏, 用布攤開, 貼瘡塊上, 再用熨斗火熨之, 以紬勒之, 三日揭起, 肉色如黑, 是其效也.

이상을 가루 내고 함께 찼어 고약처럼 만든 후 천에 펴 발라 비괴에 붙인다. 그리고 다리미 불로 찜질한 후 천으로 묶었다가 3일 후에 떼다. 살이 검게 변하면 효과가 있는 것이다.

一方, 馬牙硝一兩, 獨頭蒜一箇, 大黃末一錢, 入醋少許, 搗爛作餅, 貼瘡塊上, 以消爲度.

어떤 서적에는 '마아초 1냥, 독두산 1개, 대황가루 1돈에 식초를 약간 넣고 짓 찼어 떡처럼 뭉친 후 비괴에 붙인다. 비괴가 없어질 때까지 한다.'고 되어 있다.

灸法

뜸 뜨는 방법

小兒癖瘡久不差者, 灸中脘一穴, 章門二穴, 各七壯. ○章門穴, 在大橫外直臍傍季脇肋端, 側臥曲上足伸下足舉臂取之. ○中脘穴, 在心蔽骨下至臍中, 共作折半, 任脈中取, 若心蔽骨無, 自岐骨下至臍中, 共作九寸, 除一寸, 作八寸, 上下各四寸, 當中點取用. ○又法, 對臍脊骨上, 灸七壯, 癖瘡自消.

소아의 벽적과 비괴가 오랫동안 낫지 않는 경우에는 중완 1혈과 장문 2혈에 각 7장씩 뜸 뜬다. ○장문혈은 대횡혈 바깥쪽 수직이면서 배꼽 옆 마지막 갈비뼈 끝에 있으니 옆으로 누워 허벅지를 구부리고 종아리는 편 채 팔뚝을 들고 취혈한다. ○중완혈은 심폐골(心蔽骨) 아래부터 제중혈 사이 절반이 되는 지점에 있고 임맥 중에서 취혈한다. 심폐골을 찾지 못하면 기골(岐骨)부터 아래로 제중혈에 이르는 선을 9등분으로 나누어 1등분을 빼고 8등분을 만든 후 위아래가 각각 4등분이 되는 중심점을 취하여 쓴다. ○또 다른 방법. 배꼽 정 반대편 척골(脊骨)에 7장 뜸을 뜨면 벽적과 비괴가 저절로 없어진다.

又法, 小兒背脊中, 自尾骶骨, 將手揣摸脊骨兩傍, 有血筋發動處, 是兩穴, 每一穴, 用銅錢三文, 壓在穴上, 用艾炷, 安孔中, 各灸七壯, 此是癖之根, 貫血之所, 灸之, 瘡即發, 即可效, 不着血筋, 則瘡不發而不效矣. ○癖瘡, 滿腹堅硬, 鍼藥無效者, 癖瘡當中一二處, 先以墨記, 艾炷, 日灸七壯至三七壯, 其效如神.

또 다른 방법. 소아의 등 부분 미저골(尾骶骨)에서 손으로 척골 양 옆을 더듬어서 핏줄이 뛰는 곳이 있으면 그 양쪽 혈 중 1혈씩 동전 3개를 혈 위에 올려 놓은 채 쑥싹지를 구멍 속에 넣고 각 7장 뜸을 뜬다. 여기가 바로 벽적의 뿌리가 혈맥을 꿰뚫고 지나간 곳이니 뜸을 뜨면 창이 즉시 생겼다가 곧 효과가 나타난다. 핏줄이 만져지지 않으면 창이 생기지 않고 효과도 없을 것이다. ○벽적과 비괴가 뱃속 가득하면서 단단하고 침도 약도 효과가 없는 경우에는 벽적이나 비괴가 있는 1 - 2곳에 미리 먹물로 표시한 후 쑥싹지로 하루 7장에서 3 · 7장 뜸 뜨면 그 효과가 귀신 같다.

昔賢云, 嬰兒始生, 稟賦未完, 失於繼祿之不謹, 乳哺之不節, 外爲六氣侵襲, 內因五臟氣虛冷, 乳食結滯爲痞癖, 皆不能消磨之致也, 神曲麥芽, 雖云腐化之物, 耗傷胃中生發之氣, 況三稜蓬朮乎, 況又牽牛大黃巴豆乎. 脾氣一受傷於食, 再受傷於藥, 則所存幾何. 今人不知兒之虛實、病之輕重, 猛施下劑, 往往不救. 夫剋食之藥, 不可多用, 通快之藥, 亦不可不審, 若用而泄不止, 卽與冷米飲止之, 繼以四君子湯、異功散、補中益氣湯之類加減, 調補脾胃, 勿使有益陷之患, 可也.

옛 성현이 말하기를 '막 태어난 갓난아이는 타고난 기질이 완성되지 않았으므로 포대기에 싸는 일을 부지런히 하지 않거나 젖을 먹이는 일을 적절하게 하지 않으면 밖으로 육기(六氣)의 침범을 받거나 안으로 오장의 기가 허랭(虛冷)해져 젖이나 음식이 뭉쳐서 비괴나 벽적이 된다.'고 하였으니 이는 모두 음식을 소화시키지 못한 결과이다. 신국과 맥아는 비록 음식을 녹이는 약재이나 위 속의 생발지기(生發之氣)를 소모시키니 하물며 삼릉과 봉출은 어떻고, 또 견우와 대황과 파두는 어떻겠는가. 비장의 기운이 한 번 음식에 상하고 다시 약재에 상하면 남아날 것이 얼마나 되겠는가. 요새 사람들은 소아의 허실이나 병의 경중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설사시키는 약을 강하게 쓰다가 종종 목숨을 구하지 못하고 있다. 음식을 소화시키는 약은 많이 쓰면 안되는 법이고, 시원하게 빼내는 약도 환자의 상태를 제대로 살피지 않으면 안되는 법이다. 만약 약을 쓴 후에 설사가 멎지 않으면 즉시 식힌 미음을 먹여 설사를 멈추고, 이어서 사군자탕·이공산·보중익기탕 같은 약을 가감하여 써서 비위를 잘 조리하고 보함으로써 더 심한 상태로 빠지는 일이 생기게 해서는 안된다.

- 按, 癖痞鍼治之法, 不載於古方諸書, 而唯我國, 專以鍼治爲主, 然昔之善鍼者, 不過一二鍼, 輒有奇效, 今則鍼之累度, 或至閱月經歲, 而未見其效者, 何也. 蓋乳食停滯於皮裏膜外, 結成癖痞, 故以鍼刺穿皮膜, 則停蓄之氣, 隨鍼解散, 病以之卽愈, 今顧不然, 鍼頭僅入皮膚, 不及於膜, 所以不效, 況又散鍼皮膚, 或鍼別穴, 散鍼則不能專一, 別穴則未必得當者乎, 況又凡兒有病, 不究病源, 而皆謂之腹瘧, 專以鍼刺爲務, 荏苒歲月, 病根益痼者乎. 昔肅廟朝, 大醫知事崔公有泰, 別提吳公鼎和, 皆得許任傳授之鍼法, 有名當世, 余於二公, 得聞其緒餘,

故詳記之.

- [안어] 벽적이나 비괴를 침으로 치료하는 방법은 옛 방서나 요즘 책들에 실려 있지 않으나 유독 우리나라에서는 오로지 침을 위주로 치료하고 있다. 그러나 옛날에 침을 잘 놓는 이는 침 1 - 2번을 넘지 않아도 문득 신기한 효과가 있었으나 지금은 침을 여러 번 놓으면서 간혹 한 달이나 한 해가 되도록 효과를 보지 못하는 경우도 있으니 왜 그럴까? 아마도 젖이나 음식은 피부 안쪽과 격막 바깥쪽 사이에 정체되어 벽적이나 비괴로 뭉치기 때문에 침으로 피부와 격막 사이를 찢어 뚫으면 정체된 기운이 침을 따라 풀어지고 병도 그 때문에 즉시 좋아졌던 듯하다. 생각건대 요즘은 그렇게 하지 않고 침 끝이 겨우 피부에만 들어가고 격막에는 닿지 않으니 이것이 효과가 없는 이유일 것이다. 게다가 피부 여기저기에 침을 놓거나 별혈(別穴)에 침을 놓기도 하는데, 여기저기에 침을 놓으면 효력이 모이지 않고 별혈에 놓으면 적당한 곳이 아닐 수도 있지 않겠는가. 또한 모든 소아의 병에 대해 근본적인 원인을 궁리하지 않고 모두들 복학(腹癰)이라 말하면서 오로지 침을 놓기만 힘쓰며 세월을 보내니 병의 뿌리가 더욱 깊어지지 않겠는가. 예전 숙종때 태의였던 지사 최윤택(崔有泰) 공과 별제 오정화(吳鼎和) 공은 모두 허임(許任)이 전해 준 침법을 깨닫고 당대에 유명했었던 분이 다. 내가 두 분께 이런 이야기를 들었었기에 자세히 적어 놓는다.
- 李相國 [健命] 一歲孫兒, 午後發熱, 夜則尤甚, 多啼不乳, 到曉稍歇, 如是者經月, 衆醫或以爲外感未解, 或以爲肝熱之盛, 議論紛紜, 余曰, 此乳哺過多, 內傷胃氣, 乳癖以之作祟, 當以補脾消導爲主, 朝服異功散 [方見吐瀉], 夕用消乳食丸 [方見諸積], 旬餘, 諸症漸減, 而唯身熱盜汗不止, 乃用補中益氣湯 [方見吐瀉], 加桂枝, 而愈.
- [의안] 상국(相國) 이건명(李健命, 1663 - 1722)의 한 살배기 손주가 오후에 열이 나서 밤이면 더욱 심해지면서 계속 울고 젖을 먹지 않다가 새벽이 되면 좀 편안해졌다. 이렇게 된 지 한 달 정도였다. 여러 의원들 중 어떤 이는 외감병이 덜 풀려서 그렇다고 여기고, 어떤 이는 간장의 열이 왕성하여 그렇다고 여기며 논

의가 분분하였다. 내가 말하였다. "이는 젖을 너무 많이 먹어서 속으로 위의 기운이 상했기 때문에 유벽(乳癖)이 생겼다가 사수(邪祟)로 변한 것이니 비장을 보하면서 벽적을 빼주는 약을 위주로 쓰는 것이 마땅합니다." 아침에는 이공산 [처방은 토사문에 나온다] 을 복용하고 저녁에는 소유식환 [처방은 제적(諸積)문에 나온다] 을 쓰면서 열흘 남짓 지나자 여러 증상들이 점점 줄어들었으나 오직 몸통이 뜨겁고 도한(盜汗)이 멎지 않는 증상은 없어지지 않았다. 그래서 보중익기탕 [처방은 토사문에 나온다] 에 계지를 더하여 쓰니 좋아졌다.

- 一小兒, 生纔周歲, 乳食不節, 腹脇脹滿, 身熱咳嗽, 夜則多啼不寐, 到曉方歇, 余曰, 此癖積也, 當以白餅子下之, 然後調補脾胃, 主家不信, 專用鍼治, 幾四五朔, 元氣漸敗, 癖氣倍肆, 余曰, 溫補脾胃, 不可少緩也, 衆醫以爲身熱煩燥, 夜不能寐, 皆熱也, 而參朮補劑, 決不可用, 乃服牛黃、月經等涼劑, 身熱漸加, 嘔泄并發, 脇癖堅硬如石, 病家悶之, 廣問醫士, 有一鄉醫, 以鍼點烙於癖塊, 一醫以鍼裂破魚際, 一醫又鍼中脘, 而竟不救. [古方化癖如神散, 入蟾酥、巴豆、硃砂, 作丸如菜子, 以鍼刺破患處, 納一丸, 用藥貼上, 一伏時揭起, 其癖化膿血出盡而愈. 我國俗方, 驚草、白頭翁, 貼癖塊上, 腐爛肌肉, 亦化癖之類耶, 概肌肉潰破, 內結之氣, 通泄解散, 不無其理, 鄉醫之點烙, 亦灸之類, 至於鍼破裂缺, 極甚無理也.]
- [의안] 어떤 아이가 태어난지 겨우 1년 정도일 때 젖이나 음식을 너무 많이 먹여 배와 옆구리가 빵빵해지면서 몸통이 뜨겁고 기침을 하며 밤에는 계속 울면서 잠들지 못하다가 새벽이 되면 그제야 괜찮아졌다. 내가 말하였다. "이는 벽적이니 마땅히 백병자(白餅子)로 하법을 쓴 후에 비장과 위를 잘 조리해야 합니다." 그 집에서는 내 말을 믿지 않고 오로지 침으로 치료하였다. 그렇게 거의 4 - 5달 정도 지나니 원기가 점점 무너지고 병세는 몇 배나 심해졌다. 내가 말하였다. "비장과 위를 따뜻하게 하면서 보해주는 약을 조금도 늦춰서는 안됩니다." 여러 의원들은 몸통이 뜨겁고 번조증이 있으며 밤에 잠들지 못하는 이유가 모두 열 때문이니 인삼과 백출 같이 보하는 약을 결단코 써서는 안된다고 여기

고는 우황이나 월경수 같은 냉한 약을 복용하게 하였다. 그러자 몸통이 뜨거운 증상은 점점 심해지고 구토와 설사까지 났으며 옆구리의 벽적이 돌처럼 단단해졌다. 그 집에서는 걱정하면서 널리 의원을 구하였다. 어떤 한 시골 의원은 침을 달궈 벽적을 지졌고, 한 의원은 침으로 어제혈을 찔으며, 한 의원은 중완혈에 침을 놓았으나 모두 끝내 목숨을 구하지 못하였다. [옛 방서의 화벽여신산. 섬수·파두·망사로 채자(菜子, 채소의 씨앗)처럼 환을 빚어 침으로 환부를 찌고 1환을 넣은 후 고약을 그 위에 붙인다. 1복시(伏時) 동안 붙여 놓으면 벽적이 녹아 피고름이 전부 나오면서 좋아진다. 우리나라의 민간에서 별초(鰲草)·백두옹을 벽적이나 비괴 위에 붙이면 살이 짓무른다고 했으니 이 또한 벽적을 녹이는 것과 비슷하지 않겠는가. 대개 살이 터져야 속에 뭉쳐있던 기운이 빠져나오며 풀리는 것이니 이치에 맞는다. 시골 의원이 침을 달궈 지진 것은 뜸과 비슷하지만 침으로 찌는 것은 정말 도무지 이치에 맞지 않는다.]

及幼方卷之八 금유방 권8

橫城 趙廷俊重卿 集

황성 조정준(趙廷俊, 字 重卿) 편저



腹痛 복통

腹痛者, 有積痛、蟲痛、疝痛、內釣痛, 並考本門治之, 又有熱痛、冷痛、冷熱不調而痛者, 皆邪氣與正氣相搏而痛也.

복통에는 적통(積痛)、충통(蟲痛)、산통(疝痛)、내조통(內釣痛)이 있으니 각 각 해당 문을 함께 참고하여 치료해야 한다. 그리고 열통(熱痛)、냉통(冷痛)과 냉감과 열감이 일정하지 않으면서 아픈 경우도 있으니 모두 사기(邪氣)와 정기(正氣)가 서로 부딪혀 통증이 생기는 것이다.

熱腹痛者, 面赤身熱, 口渴脣焦, 手足熱, 大便秘, 小便赤, 腹中常覺有熱, 而暴痛暴止, 宜四順清涼飲 [方見大便], 加羌活、升麻, 或三黃丸、黃芩芍藥湯 [方見痢疾].

열복통(熱腹痛)은 얼굴이 벌겋고 몸통이 뜨거우며 입과 입술이 마르고 손발이 뜨거우며 대변이 잘 나오지 않고 소변이 붉으며 배속에 늘 열기가 느껴지면서 갑자기 아프다가 갑자기 멎는 증상이다. 사순청량음 [처방은 대변문에 나온다] 에 강활、승마를 더하여 쓰거나 삼황환、황금작약탕 [처방은 이질문에 나온다] 을 써야 한다.

○茯苓丸

○복령환

治積熱腹痛.

적열(積熱)로 배가 아픈 증상을 치료한다.

赤茯苓、黃連 各一兩.

적복령、황련 각 1냥.

右爲末, 蜜丸黍米大, 每一二十丸, 人參煎湯或米飲, 量兒大小加減服.

이상을 가루 낸 후 꿀에 개어 서미 크기로 환을 빚고 한 번에 10 - 20환씩 인삼 달인 물이나 미음으로 아이의 몸집에 따라 가감하여 복용한다.

冷腹痛者, 面色靑白, 手足冷, 口氣亦冷, 綿綿不絕, 而痛甚則嘔吐泄瀉, 四肢逆冷, 宜益黃散, 或理中湯 [二方見吐瀉]、古芎歸湯、五味木香散 [方見內弔] .

냉복통(冷腹痛)은 낮빛이 창백해지고 손발이 냉하며 날숨도 냉하고 통증이 계속 끊이지 않는데 통증이 심해지면 구토와 설사를 하고 사지 끝부터 냉해진다. 익황산을 쓰거나 혹은 이중탕 [앞 2개 처방은 토사문에 나온다]、고궁귀탕、오미목향산 [처방은 내조(內弔)문에 나온다] 을 쓴다.

◦當歸散

◦당귀산

治臟寒腹痛, 面靑, 手足冷, 夜啼不寐.

장한(臟寒)으로 배가 아프고 얼굴이 파래지며 손발이 냉하고 밤에 울면서 잠 들지 못하는 증상을 치료한다.

當歸、白芍藥(炒)、桔更、乾薑(炒)、陳皮 各一錢, 官桂(去麤皮)、甘草(炙) 各七分, 木香 五分.

당귀、백작약(볶는다)、길경、건강(볶는다)、진피 각 1돈, 관계(겉껍질을 제거한다)、자감초 각 7푼, 목향 5푼.

右麤末, 每二錢, 水煎服.

이상을 거칠게 가루 낸 후 한 번에 2돈씩 물에 달여 복용한다.

○寬中湯

○관중탕

治冷腹痛不可忍.

참기 어려운 정도의 냉복통(冷腹痛)을 치료한다.

良姜、木香 各五分, 丁香、青皮(炒)、桔更、甘草(炙) 各三分.

양강、목향 각 5푼, 정향、청피(볶는다)、길경、자감초 각 3푼.

右細末, 每半錢, 溫酒調服, 煎服亦可. ○加當歸、吳茱萸, 名香橘散.

이상을 곱게 가루 낸 후 한 번에 0.5돈씩 따뜻한 술에 타서 복용한다. 달여서 복용해도 무방하다. ○당귀、오수유를 더하면 향굴산이라고 부른다.

冷熱腹痛者, 冷熱不調, 或痛或不痛, 或泄或不泄, 寒熱往來, 惡心嘔逆.

냉열복통(冷熱腹痛)은 냉감(冷感)과 열감(熱感)이 일정하지 않으면서 배가 아팠다가 아프지 않았다가 하고 설사도 했다가 하지 않았다가 하며 한열왕래가 있고 오심과 구역질이 나는 것이다.

○桔更枳殼湯

○길경지각탕

治冷熱不調痛.

냉감과 열감이 일정하지 않으면서 배가 아픈 증상을 치료한다.

桔更、枳殼、青皮、陳皮、當歸、甘草 各五分, 木香 二分半.

길경、지각、청피、진피、당귀、감초 각 5푼, 목향 2.5푼.

右剉, 入薑三, 水煎服.

이상을 썬 후 생강 3조각을 넣고 물에 달여 복용한다.

○七氣湯

○칠기탕

治氣滯腹痛, 陰陽不能升降, 氣道壅遏, 痰涎結滯, 膈痞胸滿, 惡心嘔吐, 乳食不進.

기체(氣滯)로 배가 아프고, 음양의 기운이 제대로 오르내리지 못하여 기의 운행이 막히면서 담연이 뭉치게 되므로 가슴이 막혀 답답하고, 오심과 구토가 생겨 젓이나 음식을 넘기지 못하는 증상을 치료한다.

半夏、陳皮、便香附、桔更、益智仁 各一錢, 官桂、甘草(炙) 各五分.

반하、진피、변향부자、길경、익지인 각 1돈, 관계、자감초 각 5푼.

右麤末, 每一二錢, 水一盞半, 入薑三棗二, 煎至半, 空心服.

이상을 거칠게 가루 낸 후 한 번에 1 - 2돈씩 물 1.5잔에 생강 3조각과 대조 2개를 함께 넣고 절반이 되도록 달여 빈속에 복용한다.

○小建中湯

○소건중탕

治感冷腹痛, 泄痢肢冷, 或胃中虛冷作痛.

주변의 냉기에 감촉되어 배가 아프고 설사를 하며 사지가 냉해지고 간혹 위 속이 허랭(虛冷)하여 아프기도 한 증상을 치료한다.

白芍藥 五錢, 桂枝 三錢, 甘草(炙) 一錢.

백작약 5돈, 계지 3돈, 자감초 1돈.

右剉, 入薑五棗四, 水煎至半, 去滓, 入飴糖一兩, 再煎融化服. ◦加黃芪一錢, 名黃芪建中湯, 治氣虛腹痛自汗. ◦加當歸一錢, 名當歸健中湯, 治血虛腹痛. ◦一方, 白芍藥酒炒二錢半, 桂枝皮一錢半, 薑香、甘草炙各一錢, 入薑五棗三, 煎服, 名加減健中湯. [治肝氣盛, 臍中及左右上下動氣築築然作痛.]

이상을 썬 후 생강 5조각과 대조 4개를 넣고 물에 달여 절반이 되면 찌꺼기를 제거한다. 이당(飴糖) 1냥을 넣고 다시 달이다가 이당이 녹으면 복용한다. ◦황기 1돈을 더하면 황기건중탕이라 부르는데 기허(氣虛)로 배가 아프면서 자한이 나는 증상을 치료한다. ◦당귀 1돈을 더하면 당귀건중탕이라 부르는데 혈허(血虛)로 배가 아픈 증상을 치료한다. ◦어떤 서적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다. '백작약(술에 축여 볶는다) 2.5돈, 계지피 1.5돈, 곽향·자감초 각 1돈. 생강 5조각과 대조 3개를 넣고 물에 달여 복용한다. 가감건중탕이라 부른다. [간장의 기운이 왕성하여 배꼽과 그 주위가 불뚝불뚝 뛰면서 아픈 증상을 치료한다.]'

◦芍藥甘草湯

◦작약감초탕

治諸般腹痛.

여러 가지 복통을 치료한다.

白芍藥 二錢, 甘草 一錢.

백작약 2돈, 감초 1돈.

右剉, 水煎服. ◦稼穡作甘, 甘者己也, 曲直作酸, 酸者甲也, 甲己化土, 此仲景妙法也, 酸以收之, 甘以緩之.

이상을 썰어 물에 달여 복용한다. ◦가색(稼穡, 곡식)은 단맛이 되니 단맛은 기(己)에 해당하며, 곡직(曲直, 나무)은 신맛이 되니 신맛은 갑(甲)에 해당한다. 갑과 기는 토(土)로 변화한다. 이는 장중경의 신묘한 방법으로 신맛으로 수렴 시키고 단맛으로 이완시키는 것이다.

一方, 小兒熱腹痛, 眞熊膽豆許, 溫水調化服. ◦虛冷, 心腹刺痛, 泄青, 肢冷, 桂枝去麤皮細切二三錢, 濃煎服, 或酒煎服. ◦腹中虛冷作痛不可忍, 狗肉半斤, 入椒薑鹽醬, 煮粥食. ◦腹冷脹痛, 桔梗一兩, 葱白五莖, 濃煎服.

어떤 서적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다. '소아의 열복통(熱腹痛)에는 진품 응담을 콩알 만큼 따뜻한 물에 녹여 복용한다. ◦허랭(虛冷)으로 배가 찌르듯이 아프면서 푸른 설사를 하고 사지가 냉한 경우에는 계지(겉껍질을 제거하고 잘게 썬다) 2-3돈을 진하게 달여 복용하거나 술에 달여 복용한다. ◦뱃속이 허랭하여 참을 수 없이 아픈 경우에는 개고기 0.5근에 산초, 생강, 소금, 장을 넣고 죽처럼 끓여 먹인다. ◦배가 냉하면서 똥똥해지고 아픈 경우에는 길경 1냥과 총백 5줄기를 진하게 달여 복용한다.'

- 一小兒, 生纔九朔, 忽身口俱熱, 仰身搐掣而痛, 或劇或渴¹, 余曰, 此熱腹痛也, 二便不利, 疎通乃安, 用歸牛散 [方見疳症], 便利而痛減.
- [의안] 태어난 지 겨우 9달 된 어떤 아이가 갑자기 몸통과 입속이 모두 뜨겁고 몸을 뒤로 젖히고 경직하면서 복통이 있었는데 간혹 심할 때도 있고 간혹 덜할 때도 있었다. 내가 "이는 열복통(熱腹痛)입니다. 대소변이 잘 나오지 않아 그런 것이니 소통시키면 편안해질 것입니다."라고 말하였다. 귀우산 [처방은 산증(疳症)문에 나온다] 을 쓰니 대소변이 소통되면서 통증이 줄어들었다.
- 一小兒, 無身熱等症, 而但大便滯泄, 時時啼叫, 或哺乳之時, 攢蹙兩眉, 含乳而啼, 止則遊戲, 一日之內, 如是者數, 肌膚瘦黃, 余曰, 此冷熱不調腹痛也, 桔梗、枳殼、葱白煎水, 調服蘇合丸, 後用敗毒散, 加當歸、木香, 升降陰陽而愈.
- [의안] 어떤 아이가 몸통이 뜨거운 증상은 없었으나 다만 대변을 지리며 가끔

씩 소리지르면서 울었다. 간혹 젖을 먹일 때 양 미간을 찡그리면서 젖을 입에 문 채 울기도 했으나 울음을 멈추면 잘 놀았다. 하루에 몇 번씩 이렇게 발작하면서 살이 여위며 누레졌다. 내가 "이는 냉감과 열감이 일정하지 않은 복통입니다."라고 말하였다. 길경·지각·총백 달인 물에 소합환을 타서 복용하게 한 후 패독산에 당귀·목향을 더해 썼더니 음양의 기운이 제대로 오르내리며 좋아졌다.

- 申營將子, 年七歲, 臍腹堅硬刺痛, 手不可近, 嘔吐不食, 用香砂平胃散、理中、健中之屬, 不效, 更用四順清涼飲之類, 痛勢倍加, 余曰, 此多食生冷, 關格不散之致也, 用木香丸 [方見食積], 數次大泄而愈.
- [의안] 신 영장(申營將)의 7살 된 아들이 배꼽 부근이 단단하면서 찢르듯이 아파 손도 못대게 하고 구토하면서 음식을 먹지 못했다. 향사평위산·이중탕·건중탕 같은 약을 썼지만 효과가 없었다. 다시 사순청량음 같은 약을 썼지만 통증이 더 심해졌다. 내가 "이는 생랭(生冷)한 음식을 많이 먹어 관격(關格)이 풀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라고 말하였다. 목향환 [처방은 식적문에 나온다] 을 쓰니 여러 번 크게 설사하고는 좋아졌다.

1. 渴 : 𩚑歇 ※문맥상 ↗

盤腸痛 반장통

盤腸痛者, 因寒鬱小腸, 臍腹刺痛, 與內釣相似, 但盤腸則曲腰乾啼額汗爲異, 急以葱白搗爛炒, 熨臍腹間, 良久, 尿自出, 其痛立止, 有乳食傷腹痛多啼者, 沈乳感應丸, 或消積丸 [方見諸積], 傷冷腹痛者, 理中湯 [方見吐瀉], 或古芎歸湯 [方見上], 量宜加減用之, 蓋飲食失節, 成蠱亂而痛者, 多矣.

반장통(盤腸痛)은 한기가 소장에 울체되어 배꼽과 그 부근이 찌르듯이 아픈 증상으로 내조(內釣)와 비슷하지만 반장통은 허리를 구부리고 눈물 없이 울면서 이마에 땀이 난다는 점이 다르다. 급히 총백을 짓찧어 볶은 후 배꼽과 그 부근을 찜질하면 얼마 후에 오줌이 나오면서 통증이 곧바로 멎는다. 또한 젖이나 음식에 상하여 배를 아파하면서 계속 우는 경우도 있는데 침유감응환이나 소적환 [처방은 제적(諸積)문에 나온다] 을 써야 한다. 주변의 냉기에 상하여 배가 아픈 경우에는 이중탕 [처방은 토사문에 나온다] 을 쓰거나 고궁귀탕 [처방은 앞에 나온다] 을 아이의 몸집에 따라 가감하여 써야 한다. 대개 음식을 너무 많이 먹여 팽만이 되면서 아픈 경우가 많다.

○豆砂散

○두사산

治盤腸腹痛.

반장통을 치료한다.

白豆蔻(煨)、砂仁(炒研)、青皮、陳皮、香附子(炒)、莪朮(煨)、甘草(炙) 各一錢.

백두구(재에 묻어 굽는다)、사인(볶아서 간다)、청피、진피、향부자(볶는다)、아출(재에 묻어 굽는다)、자감초 각 1돈.

右細末, 紫蘇煎湯, 量兒大小, 加減調服.

이상을 곱게 가루 낸 후 자소 달인 물에 타서 복용하되 아이의 몸집에 따라 가감한다.

◦乳香散

◦유향산

治盤腸內釣, 諸氣冷痛衝上.

반장(盤腸)·내조(內釣) 및 온갖 산기(疝氣)로 생긴 냉복통이 위로 치미는 증상을 치료한다.

乳香、沒藥 各一分.

유향、몰약 각 1푼.

右乳沒細末, 取木香一塊, 於乳鉢內, 磨水一分許, 滾數沸, 調二藥末服之, 只一服卽效.

위의 유향과 몰약을 곱게 갈아 놓는다. 목향 1덩이를 유발(乳鉢) 안에 넣고 물 1푼 정도와 함께 갈다가 그대로 몇 ¹소습 끓인다. 여기에 유향과 몰약 가루를 타서 복용한다. 단 한 번만 복용해도 즉시 효과가 있다.

內釣、盤腸、絞腸砂、疝症、蛔蟲等症, 所因雖殊, 其腹內刺痛則一也, 卒發之際, 不知何莖症候, 而難以救急, 先以麝香蘇合元, 量兒大小, 淡薑湯調服, 以行壅滯之氣然後, 辨其何痛而治之.

내조(內釣)·반장(盤腸)·교장사(絞腸砂)·산증(疝症)·회충(蛔蟲) 등의 증상의 경우에 원인은 다르지만 뱃속이 찌르듯이 아프다는 점은 동일하다. 갑자기 증상이 나타날 때 어떤 증상인지 알지 못하여 급히 치료하기 어렵다면 우선 사향소합원을 아이의 몸집에 따라 묽은 생강탕에 타서 복용시켜 울체된 기를 소통시킨 후에 무슨 증상인지 변별하여 치료해야 한다.

一方, 乾腹痛, 吳茱萸炒末三四分, 生薑湯, 和蜜調服. ○生薑根一握洗去沙土, 濃煎, 和蜜頓服. ○牛糞水煮, 去滓, 和小蒜搗汁一二匕, 微溫服. ○夏月暑熱, 腹內切痛, 臘雪水, 和蜜薑汁, 微溫快服. ○冬月寒腹痛, 黑糖入乾薑炒末, 量宜嚼食, 以葱白生薑煎湯壓下. ○血燥脾虛腹痛, 當歸五錢, 川芎二錢, 白芍藥炒黃、甘草灸各一錢, 水煎, 量宜服.

어떤 서적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다. '건복통(乾腹痛)에는 오수유를 볶아 가루 낸 것 3 - 4푼을 꿀을 넣은 생강탕에 타서 복용한다. ○생노근 1줌의 흙을 씻어 내고 진하게 달여 꿀을 타서 모두 복용한다. ○쇠똥을 물에 달여 찌꺼기를 제거한 후 달래 찌른 즙 1 - 2술을 타서 미지근하게 데워 복용한다. ○여름철의 더위로 뱃속이 끓어지듯 아프면 납설수에 꿀과 생강즙을 넣고 미지근하게 데워 바로 복용한다. ○겨울철의 추위로 배가 아프면 흑당(黑糖)에 건강(볶아서 가루 낸다)을 넣고 아이의 몸집에 따라 씹어 먹게 한 후 총백과 생강 달인 물을 마셔 삼키게 한다. ○혈이 마르고 비장이 허하여 생긴 복통에는 당귀 5돈, 천궁 2돈, 백작약(누렇게 볶는다)·자감초 각 1돈을 물에 달여 아이 몸집에 따라 복용한다.'

1. 소솜 : 약을 달일 때 약이 끓어 솟는 횟수를 세는 단위이다. ※《우리말샘》↪

霍亂 곽란

霍亂者, 皆由於飲食不調, 以致積滯腸胃, 鬱而爲熱成酸, 心腹卒痛, 狀若神靈所付, 躁悶不安, 甚則筋轉拘攣, 肢體厥冷, 急以蘇合丸, 薑湯調服, 蓋霍亂有乾濕之異, 乾霍亂者, 上不得吐, 下不得瀉, 所傷之物, 壅閉正氣, 關格不通, 故死者多, 濕霍亂者, 所食之物, 盡爲吐利, 故死者少, 是故薑鹽湯探吐之法, 大勝於諸治法也. ○轉筋霍亂者, 胃與大腸, 以養宗筋, 暴吐暴瀉, 津液驟亡, 宗筋失其所養, 故輕者兩脚轉筋而已, 重者遍體轉筋而入腹, 手足冰冷, 危急風燭, 倉卒之際, 以鹽填臍中, 艾灸不計壯數, 雖已死而胸中有煖氣者, 立甦. 參考食積治之.

곽란(霍亂)은 음식을 조절하지 못하여 결국 장이나 위에 적체되고 그대로 율체되어 열이나 신물이 생기면서 배가 갑자기 아픈 것으로, 마치 귀신이 붙은 것처럼 조급하면서 불안해하는 모습을 보인다. 심하면 전근(筋轉)과 경련이 생기고 사지와 몸이 끝부터 냉해지니 급히 소합환을 생강탕에 타서 복용해야 한다. 곽란은 건곽란과 습곽란이 있다. 건곽란은 토할 수 없으면서 설사도 나오지 않는 것으로 원인이 된 음식이 정기(正氣)를 막아 관격(關格)으로 소통되지 않기 때문에 죽는 이가 많다. 습곽란은 원인이 된 음식을 전부 토하거나 설사하기 때문에 죽는 이가 적다. 그렇기 때문에 강염탕(薑鹽湯)을 먹인 후 목구멍을 더듬어 토하게 하는 방법이 다른 치료법 보다 매우 좋다. ○전근곽란(轉筋霍亂)은 위와 대장에서 종근(宗筋)을 길러주어야 하는데 심하게 토하거나 설사하여 진액이 갑자기 없어지게 되기 때문에 종근을 길러줄 방법이 없어지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증세가 가벼운 경우에는 양 다리에만 전근이 생기지만, 증세가 심한 경우에는 온몸에 전근이 생겨서 뱃속까지 들어가게 되고 손발이 얼음처럼 차가워진다. 이는 바람 앞의 등잔불 같이 위급한 상황이니 서둘러 배꼽에 소금을 채운 후 쑥뜸을 많이 뜨면 이미 죽었더라도 가슴에 온기가 남은 사람은 곧 살아날 것이다. 식적문을 참고하여 치료하라.

○木莢散

○목유산

治霍亂吐瀉, 肢體轉筋, 手足厥冷.

곽란으로 구토와 설사를 하고 사지와 몸에 전근(轉筋)이 생기며 손발 끝부터
냉해지는 증상을 치료한다.

木瓜、吳茱萸、食鹽 各五錢.

목과、오수유、식염 각 5돈.

右同炒, 水三升煎至二升, 微溫服. ○一方, 桔礬末一錢, 白湯調服, 或鹽一捻, 醋一盞,
同煎服.

이상의 약재를 함께 볶아 물 3되에 넣고 2되가 되도록 달인 후 미지근하게 데
워 복용한다. ○어떤 서적에는 '고백반(가루) 1돈을 끓인 물에 타서 복용한다.
혹은 소금 1념(捻)과 식초 1잔을 함께 달여 복용한다.'라고 되어 있다.

○木瓜湯

○목과탕

治霍亂轉筋.

곽란으로 전근(轉筋)이 생긴 경우를 치료한다.

木瓜 四錢, 吳茱萸 二錢, 茴香(炒) 一錢, 甘草 四分.

목과 4돈, 오수유 2돈, 회향(볶는다) 1돈, 감초 4푼.

右剉, 入薑三烏梅一箇鹽一撮, 同煎服.

이상을 썬 후 생강 3조각과 오매 1개와 소금 1촬(撮)을 넣고 함께 달여 복용한
다.

○回生散

○회생산

治霍亂吐瀉過多, 但一點胃氣存者服之, 回生.

곽란으로 구토와 설사를 심하게 하는 경우를 치료한다. 단 한 점의 위기(胃氣)라도 남아 있는 경우에 이 약을 복용하면 살아난다.

藿香、陳皮 各五錢.

곽향、진피 각 5돈.

右剉, 水煎溫服.

이상을 썬 후 물에 달여 따뜻하게 복용한다.

○加味姜附湯

○가미강부탕

治霍亂吐瀉, 肢體冰冷, 不省人事.

곽란으로 구토와 설사를 하고 사지와 몸이 얼음처럼 차가우며 인사불성인 증상을 치료한다.

附子(炮)、乾薑(炮)、人參 各一錢半, 甘草(炙) 七分.

부자(습지에 써서 굽는다)、건강(습지에 써서 굽는다)、인삼 각 1.5돈, 자감초 7푼.

右剉, 水一升半煎至半, 微冷服. ○一名四順附子湯.

이상을 썬 후 물 1.5되에 달여 절반이 되면 약간 식혀서 복용한다. ○사순부자탕이라고도 한다.

○椒豆散

○초두산

治霍亂吐瀉, 水漿不入口, 大渴煩燥.

곽란으로 구토와 설사를 하면서 물도 넘기지 못하고 갈증이 심하며 번조 증상이 있는 경우를 치료한다.

胡椒、菉豆 各四十九粒, 研細, 新汲水調服, 或煎服亦可.

호초、녹두 각 49알을 곱게 간 후 신급수(新汲水)에 타서 복용한다. 혹은 달여서 복용해도 무방하다.

○薑鹽湯

○강염탕

治霍亂, 吐利不發, 死在須臾.

곽란에 구토와 설사를 하지 않아 곧 죽게 될 것 같은 경우를 치료한다.

鹽 一兩, 生薑(切) 五錢.

소금 1냥, 생강(썬다) 5돈.

右同炒色變, 以童便二盞, 同煎至半, 分二次服, 探吐.

위 약재를 함께 볶아 색깔이 변하면 동변 2잔에 넣고 절반이 되도록 달인다. 2번에 나누어 복용한 후 손가락으로 목구멍을 더듬어 토하게 한다.

絞腸砂, 卽乾霍亂也, 古法, 患人兩臂腕中, 有紫色血絡, 以鍼擊刺出血, 其痛立止, 今俗之所謂殺腹痛刺腕中尺澤穴血絡出血者, 亦此法也. ○古方, 北人刺青筋出血, 南人刮胸背手足, 以行氣血, 又法, 患人十脂頭爪甲下去韭葉刺出血, 或委中穴血絡刺出血, 皆是良法, 此刺血絡出血, 與汗出同.

교장사(絞腸砂)는 건곽란이다. 옛 치료법에 '환자 양 팔뚝의 자색 핏줄이 있는 곳을 침으로 찔러 피를 내면 통증이 즉시 그친다.'고 하였다. 요즘 얘기하는 '복통을 줄이려면 팔뚝 척맥혈의 핏줄에 피를 낸다.'는 것도 이와 같은 치료법이다. 옛 방서에서 '북쪽 지방 사람은 푸른 핏줄을 찔러 피를 내고, 남쪽 지방 사람은 가슴과 등과 팔다리를 긁어 기와 혈을 운행시킨다.'고 하였다. 또한 치료법에 '환자의 열 손가락 끝 손톱의 부추잎만큼 아래를 찔러 피를 내거나 위중혈의 핏줄을 찔러 피를 낸다.'고 하였으니 이는 모두 좋은 치료법이다. 여기에서 핏줄을 찔러 피를 내는 원리는 땀을 내는 원리와 같다.

夏秋濕熱盛行之時, 大小兒吐瀉之症, 亦霍亂之類, 以消導行氣爲先, 祛濕熱助胃氣爲次, 間夾雜症者, 當臨時意會焉.

여름부터 가을까지 습열이 성행할 때 큰 아이나 작은 아이가 구토와 설사를 하는 증상 역시 곽란과 비슷한 종류이다. 소화·배출시키고 기를 소통시키는 것이 우선이며, 습열을 제거하고 위기(胃氣)를 돕는 것은 그 다음이다. 중간 중간 다른 증상이 새로 생기면 상황에 맞게 치료해야 한다.

- 一小兒, 盛夏多食生冷麵餅之物, 胸腹大痛, 面青肢冷, 薑鹽湯探吐, 紅蓼煎服, 皆無應效, 用消積丸, 吐下所食而愈.
- [의안] 어떤 아이가 한여름에 생랭(生冷)한 음식이나 밀가루·떡을 많이 먹고는 가슴과 배가 매우 아프고 얼굴이 파래지면서 사지가 냉하였다. 강염탕을 먹고 손으로 목구멍을 더듬어 토하게 한 후 홍료(紅蓼)를 달여 복용했으나 모두 아무 반응이 없었다. 소적환을 쓰니 먹었던 음식을 토하고 설사하더니 좋아졌다.
- 一小兒年七歲, 夕飯訖即睡, 至夜, 胸腹大痛, 吐瀉兼發, 試以治霍之藥, 並無效, 蒼朮濃煎湯, 調用百草霜末, 痛勢即止, 以香砂平胃散調治而愈.
- [의안] 어떤 7살 아이가 저녁에 밥을 먹고 바로 잠들었는데 밤이 되자 가슴과 배가 몹시 아프면서 구토와 설사를 하였다. 시험 삼아 곽란을 치료하는 약을 썼

으나 모두 효과가 없었다. 창출을 진하게 달인 물에 백초상 가루를 타서 쓰니 통증이 즉시 멈추었고, 향사평위산으로 조리하니 좋아졌다.

- 金主簿三歲兒, 忽患吐瀉, 撓身曲腰, 手足搐掣, 疾聲啼哭, 痛不能已, 此霍亂腹痛, 用回生散, 而煩渴倍加, 遂用猪糞炒黑浸, 白茅根煎湯取汁, 和薑蜜少許, 微溫快服, 卽止.
- [의안] 김 주부(金主簿)의 3살 된 아이가 갑자기 구토와 설사를 하고 몸을 웅크린 채 손발이 경직되면서 아프다고 소리를 질렀으나 쉽게 통증이 그치지 않았다. 이 증상은 곽란으로 배가 아픈 증상이었다. 회생산을 쓰자 번갈아 몇 배 심해졌다. 결국 돼지똥을 검게 볶아 물에 가라앉히고 백모근과 함께 물에 달인 후 여기에 생강즙과 꿀을 약간 섞고 마지근하게 데워 쪽 먹이니 금세 증상이 멎었다.

蛔蟲痛 회충통

蟲痛者, 小兒缺乳, 早食肉飯肥甘等物, 濕熱交滯, 化而成蟲, 或過食生冷, 胃寒而蟲動, 心腹俱痛, 症與盤腸內釣相似, 但口出涎沫, 發作無時, 肩背引痛, 食則加痛, 溫胃、理中、殺蟲、追蟲之法, 臨症隨治.

충통(蟲痛)은 아이에게 먹일 것이 나오지 않아 일찌감치 고기나 밥처럼 기름지고 단 음식을 먹이게 되면 습기와 열기가 섞이면서 몸속에서 정체되는데, 이것이 변하여 충이 되는 것이다. 혹은 생랭(生冷)한 음식을 너무 많이 먹고 위가 차가워져서 충이 움직이게 되면 배 전체가 아프기도 한다. 증상은 반장(盤腸)이나 내조(內釣)와 비슷하지만 입에서 끈적한 거품이 흐르고 발작이 일정하지 않으며 어깨부터 등까지 당기면서 아프고 음식을 먹으면 더 아프다. 위를 따뜻하게 하거나, 속을 편안하게 하거나, 충을 죽이거나, 충을 내쫓는 방법을 증상에 따라 적절히 치료해야 한다.

○理中安蛔湯

○이중안회탕

治脾胃寒冷, 蟲動, 心腹俱痛, 惡心嘔吐.

비장과 위가 차가워져 충이 움직이기 때문에 배 전체가 아프면서 오심과 구토가 있는 경우를 치료한다.

白朮 一錢, 白茯苓、人參、乾薑(炒) 各七分, 花椒(炒去目) 三分, 烏梅 二箇.

백출 1돈, 백복령、인삼、건강(볶는다) 각 7푼, 화초(볶은 후 눈을 제거한다) 3푼, 오매 2개.

右剉, 水煎服. ○一方, 乾薑炒二錢, 參朮苓各一錢, 椒三分, 梅二箇, 嘔吐, 加半夏、白豆蔻煨各等分, 丁香、官桂半減, 煎服.

이상을 썬 후 물에 달여 복용한다. ◦어떤 서적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다.
'건강(볶는다) 2돈, 인삼·백출·복령 각 1돈, 천초 3푼, 오매 2개. 구토에는 반하·백두구(습지에 싸서 굽는다) 각각 같은 양, 정향·관계는 그 절반의 양을 더하고 달여 복용한다.'

◦烏梅丸

◦오매환

治蛔厥, 心腹痛如刀刺.

회궤(蛔厥)로 배가 칼로 찌르듯이 아픈 증상을 치료한다.

烏梅 十五箇, 黃連 七錢半, 當歸、川椒(去目)、細辛、附子(炮)、桂心、人參、黃柏(炒) 各三錢.

오매 15개, 황련 7.5돈, 당귀·천초(눈을 제거한다)·세신·부자(습지에 싸서 굽는다)·계심·인삼·황백(볶는다) 각 3돈.

右細末, 米醋浸烏梅去核爛搗, 和丸菉豆大, 每二三十丸, 早朝空心, 米飲下.

이상을 곱게 가루 낸 후 오매(쌀식초에 담갔다가 씨를 빼고 짓찧은 것)와 잘 섞어 녹두 크기로 환을 빚는다. 한 번에 20 - 30환씩 이른 아침 빈속에 미음으로 넘긴다.

◦追蟲散

◦추충산

治蟲積痛不可忍.

충적(蟲積)으로 참을 수 없이 아픈 증상을 치료한다.

使君子(肉) 二錢(殼) 五分, 檳榔 一錢, 石雄黃 五分.

사군자(과육) 2돈, 사군자(껍데기) 5푼, 빈랑 1돈, 석유향 5푼.

右細末, 每服一錢, 苦練根煎湯, 空心調服.

이상을 곱게 가루 낸 후 한 번에 1돈씩 고령근 달인 물에 타서 빈속에 복용한다.

◦椒梅湯

◦초매탕

治蟲痛

충통(蟲痛)을 치료한다.

烏梅、花椒(炒去目)、檳榔、枳實、木香、香附、川練子、砂仁、肉桂、厚朴、乾薑(炮)、甘草 各等分.

오매、화초(볶은 후 눈을 제거한다)、빈랑、지실、목향、향부자、천련자、사인、육계、후박、건강(습지에 싸서 굽는다)、감초 각각 같은 양.

右剉, 入生薑一片, 水煎服.

이상을 썬 후 생강 1조각을 넣고 물에 달여 복용한다.

◦下蟲散

◦하충산

治諸蟲痛.

여러 가지 충통(蟲痛)을 치료한다.

使君子(肉)、檳榔 各一錢, 大黃 五分.

사군자(과육)、빈랑 각 1돈, 대황 5푼.

右末, 苦練根煎湯, 空心調服.

이상을 가루 낸 후 고런근 달인 물에 타서 빈속에 복용한다.

◦靈礬散

◦영반산

治蛔厥, 心痛欲絕.

회궤(蛔厥)로 가슴이 끓어질 듯 아픈 증상을 치료한다.

五靈脂(醋炒) 二錢, 枯白礬 五分.

오령지(식초에 축여 볶는다) 2돈, 고백반 5푼.

右細末, 水煎和滓服, 吐出蟲即愈.

이상을 곱게 가루 낸 후 물에 달여 건더기째 복용하면 회충을 토하면서 즉시 좋아진다.

◦練陳湯

◦연진탕

治小兒蟲痛, 惡心嘔吐痰涎.

아이가 충통(蟲痛)으로 오심과 구토와 담연이 있는 경우를 치료한다.

苦練根(皮) 二錢, 陳皮、半夏、赤茯苓 各一錢, 甘草 五分.

고런근(속껍질) 2돈, 진피、반하、적복령 각 1돈, 감초 5푼.

右剉, 入薑五, 水煎服. 嘔吐, 加白豆蔻、砂仁. ◦蛔交心痛不可忍, 加乾薑一錢, 丁香半減.

이상을 썬 후 생강 5조각을 넣고 물에 달여 복용한다. 구토에는 백두구·사인을 더한다. ◦회충으로 가슴이 참을 수 없이 아픈 경우에는 건강 1돈과 정향 0.5돈을 더한다.

◦妙應丸

◦묘응환

治蟲積久不差.

충적(蟲積)이 오랫동안 낫지 않는 경우를 치료한다.

檳榔 一兩二錢, 黑丑(炒, 頭末) 三錢, 大黃、雷丸、錫灰、蕪荑、使君子(肉)、木香 各一錢.

빈랑 1.2냥, 흑축(볶은 후 만물가루를 쓴다) 3돈, 대황·뇌환·석회(錫灰)·무이·사군자(과육)·목향 각 1돈.

右末, 葱白湯露宿, 和丸粟米大, 每二三錢, 五更頭葱白湯下, 取寸白蟲, 以石榴根皮煎湯下, 小兒量宜加減服.

이상을 가루 낸 후 하룻밤 밖에 내놓은 촌백 달인 물에 개어 속미(粟米) 크기로 환을 빚는다. 이것을 한 번에 2 - 3돈씩 새벽녘에 촌백 달인 물로 넘긴다. 촌백 충을 빼내려면 석류나무 뿌리의 껍질을 달인 물로 넘기되, 아이의 몸집에 따라 가감하여 복용한다.

◦二聖丸

◦이성환

治腹內蟲積, 及疳積、食積、痰積、癥瘕等症, 如神.

뱃속의 충적(蟲積)·감적(疳積)·식적(食積)·담적(痰積)·벽적(癥積)·비괴(痞塊) 같은 증상을 귀신같이 치료한다.

檳榔 一兩, 巴豆 十五箇(去皮膜心, 存油, 極研細).

빈랑 1냥, 파두 15개(껍질과 피막과 심은 제거하고 유지 부분은 남겨 둔 채 아주 곱게 간다).

右細末, 麵糊丸菉豆大, 每服七十七丸, 至九十九丸, 用茶清, 空心, 五更初吞下, 蟲盡下, 進稀米粥, 自安, 小兒量其大小服.

이상을 곱게 가루 낸 후 밀가루풀에 개어 녹두 크기로 환을 빚고 한 번에 77 - 99환씩 차청으로 빈속에 복용한다. 새벽녘에 삼켜 회충이 모두 나온 후 묽은 쌀죽을 먹이면 속이 편안해진다. 소아는 몸집을 가늠하여 복용해야 한다.

○苦練丸

○고련환

治小兒多食膏粱甘味, 化爲虵蟲, 經年不愈.

아이가 기름지고 단 음식을 많이 먹었기 때문에 그것이 변하여 회충이 된 후 몇 년 동안 낫지 않는 경우를 치료한다.

苦練根、鶴蝨、朱砂 各一兩, 檳榔 五箇, 麝香 一錢.

고련근、학슬、주사 각 1냥, 빈랑 5개, 사향 1돈.

右細末, 麵糊丸小豆大, 每三丸白湯下, 日三.

이상을 곱게 가루 낸 후 밀가루풀에 개어 소두 크기로 환을 빚고 한 번에 3환씩 끓인 물로 하루 3번 넘긴다.

○連麝丸

○연사환

治疳蟲發作, 日久不愈.

감충(疳蟲)이 발작하여 오랫동안 낫지 않는 경우를 치료한다.

胡黃連、白蕪荑 各一兩, 麝香 一錢, 黃連、木香 各半兩, 辰砂 五分.

호황련·백무이 각 1냥, 사향 1돈, 황련·목향 각 0.5냥, 진사 5푼.

右末, 麵糊丸菉豆大, 米飲下五七丸, 三五歲兒十五丸, 空心服.

이상을 가루 낸 후 밀가루풀에 개어 녹두 크기로 환을 빚고 미음으로 5 - 7환을 넘긴다. 3 - 5세 아이는 15환을 빈속에 복용한다.

○大蘆薈丸

○대노회환

治疳, 殺蟲和胃止瀉.

감질을 치료한다. 충을 죽이고 위를 편안하게 하며 설사를 멎게 한다.

胡黃連、黃連、白蕪荑(去扇)、蘆薈(煨)、木香、草龍膽、雷丸(破開赤者不用)、鶴蝩(炒)、使君子(肉) 各一兩.

호황련·황련·백무이(날개를 제거한다)·노회(불에 달군다)·목향·초롱담·뇌환(쪼개 봐서 붉은 것은 쓰지 않는다)·학슬(볶는다)·사군자(과육) 각 1냥.

右末, 粟米糊和丸菉豆大, 每一二十丸, 米飲下.

이상을 가루 낸 후 좁쌀풀에 개어 녹두 크기로 환을 빚고 한 번에 10 - 20환씩 미음으로 넘긴다.

○金蟾丸

○금섬환

治小兒蛭疳及五疳, 羸瘦腹大.

아이가 회감(蛭疳)이나 오감(五疳)으로 바싹 마르면서 배가 빵빵한 증상을 치료한다.

胡黃連、黃連、苦練根(白皮)、使君子(肉)、蕪荑、雷丸、蝦蟆(燒存性)、肉豆蔻(煨)、蘆薈(煨)、雄黃(半入半衣)、貫衆 各三錢.

호황련·황련·고련근(속껍질)·사군자(과육)·무이·뇌환·하마(약성이 남도록 태운다)·육두구(재에 묻어 굽는다)·노회(불에 달군다)·웅황(절반은 넣고, 절반은 겉에 입힌다)·관중 각 3돈.

右末, 麵糊丸菉豆大, 雄黃爲衣, 每十五丸, 米湯下.

이상을 가루 낸 후 밀가루풀에 개어 녹두 크기로 환을 빚고 웅황을 겉에 입힌다. 한 번에 15환씩 쌀 끓인 물로 넘긴다.

○夜明砂丹

○야명사단

治五疳, 腹脹羸瘦, 蛔蟲作痛, 又治肝熱, 目赤雲翳, 身熱煩渴.

오감(五疳)으로 배가 빵빵하면서 바싹 마르고 회충으로 배가 아픈 경우를 치료한다. 또한 간열(肝熱)로 눈이 충혈되면서 구름 같은 예막이 생기고 몸통이 뜨거우며 번갈이 있는 증상도 치료한다.

夜明砂(炒)、胡黃連、草龍膽(酒洗炒)、苦練根(白皮) 各五錢, 蝦蟆 五箇(燒存性), 蘆薈(煨)、青黛 各二錢, 貫衆 一兩.

야명사(볶는다)·호황련·초롱담(술로 씻은 후 볶는다)·고련근(속껍질) 각 5돈, 하마 5개(약성이 남도록 태운다), 노회(불에 달군다)·청대 각 2돈, 관중 1냥.

右末, 粳米飯丸黍米大, 每一二十丸, 米飲下.

이상을 가루 낸 후 갱미로 지은 밥에 개어 서미(黍米) 크기로 환을 빚고 한 번에 10 - 20환씩 미음으로 넘긴다.

○安蟲丸

○안충환

治蛔蟲, 心腹痛不可忍, 諸藥無效, 一服即愈.

회충으로 배 전체가 참을 수 없이 아픈 증상을 치료한다. 여러 가지 약이 효과가 없을 때 한 번만 복용해도 금세 좋아진다.

乾漆二分, 雄黃、巴豆(爲霜) 各一錢.

건칠 2푼, 옹황·파두(파두상으로 만들어 쓴다) 각 1돈.

右末, 糊丸黍米大, 每五七丸或廿丸, 發時, 取東行石榴根煎湯, 痛甚, 苦練根或蕪荑煎湯下, 量兒大小服.

이상을 가루 낸 후 풀에 개어 서미 크기로 환을 빚고 한 번에 5 - 7환씩(혹은 20환씩) 복용하되 증상이 발작할 때 동쪽으로 뻗은 석류나무 뿌리를 달인 물로 넘긴다. 통증이 심하면 고련근이나 무이 달인 물로 넘긴다. 아이의 몸집에 따라 가감하여 복용한다.

○朱砂丸

○주사환

治小兒一切疳病, 黃瘦腹脹, 有蟲作痛瀉痢等症.

아이가 여러 가지 감질로 누렇게 마르면서 배가 뽕뽕하고 충이 있어 배가 아프고 설사하는 등의 증상을 치료한다.

石菖蒲、漏蘆 各一兩, 乾蟾 五箇(醋灸黃), 雄黃 二錢, 朱砂 五分, 麝香 一分.

석창포、누로 각 1냥, 건섬 5개(식초에 축여 누렇게 굽는다), 옹황 2돈, 주사 5
푼, 사향 1푼.

右末, 粟米飯丸麻子大, 每一二十丸, 空心, 米飲下.

이상을 가루 낸 후 좁쌀밥에 개어 마자(麻子) 크기로 환을 빚는다. 10 - 20환씩
빈속에 미음으로 넘긴다.

一方, 黑鉛熔化作灰, 檳榔半減, 爲末, 少嚼肉片後, 米飲或淡蜜水, 量宜調服, 蟲盡
死而下. ◦白頸蚯蚓不拘多少, 焙乾作末, 空心, 米飲調服, 或取汁服, 亦效. ◦使君子
肉三四錢, 濃煎湯, 調雄黃末一錢, 空心服. ◦青黛末一匕, 空心, 水調服. ◦熊膽豆許,
溫水化服, 竝治蟲痛. ◦俗方, 生地龍一條吞下, 治蛔痛, 極驗云.

어떤 서적에는 다음과 내용이 있다. '흑연(녹여서 재로 만든다)과 빈랑(흑연 분
량의 절반)을 가루 낸다. 고기를 조금 씹은 후 미음이나 묽은 꿀물에 타서 아이
의 몸집에 따라 먹이면 충이 모두 죽어서 나온다. ◦백경구인(白頸蚯蚓)을 분
량에 상관 없이 곁불에 말려 가루 낸 후 미음에 타서 빈속에 복용한다. 혹은 백
경구인 즙을 복용해도 효과가 있다. ◦사군자육 3 - 4돈을 진하게 달인 물에 옹
황 가루 1돈을 타서 빈속에 복용한다. ◦청대 가루 1술을 물에 타서 빈속에 복
용한다. ◦웅담 콩알만큼 따뜻한 물에 녹여 복용하면 충통(蟲痛)까지 치료한
다.' ◦민간에서는 '생지렁이 1개를 삼키면 회통을 치료하는데 아주 효험이 좋
다.'고 한다.

凡蟲, 食甘則作痛 [蜜飴糖之類], 聞酸則止 [烏梅石榴之類], 見苦則安 [黃栢熊
膽之類], 得辛則頭伏於下 [胡椒生姜之類].

모든 충은 단 음식을 먹으면 통증을 일으키고 [꿀이나 엿 등], 신맛을 느끼면
움직임을 멈추고 [오매나 석류 등], 쓴맛을 느끼면 잠잠해지고 [황백이나
웅담 등], 매운맛을 느끼면 머리를 아래로 내린다. [호초나 생강 등].

殺蟲藥, 當於月初望前, 曉頭空心, 先嚼肉片, 或糖蜜之類少許, 嚥下後服之, 則有效, 蓋蟲望前頭向上, 望後頭向下, 望後勿服, 可也.

충을 죽이는 약은 초하루에서 보름까지 새벽녘에 빈속인 상태에서 우선 고기를 씹거나 엿이나 꿀 같이 단 음식을 조금 삼킨 후에 복용하면 효과가 있다. 아마 충은 보름 이전에는 머리가 위쪽을 향해 있다가 보름 이후에는 머리가 아래쪽을 향하게 되므로 보름 이후에는 복용하지 않는 편이 좋은 것 같다.

- 按. 古方諸書, 治蟲之法最多, 而年久蟲痛, 子母相生, 已成老蟲, 諸藥無效者, 理中安蛔湯, 或異功散, 加減多服, 溫補脾胃, 則蟲安其所, 調理飲食, 使無飢飽, 則無復發之患矣. [古方, 老蛔靈異, 凡殺蟲藥, 勿使病人知之, 可也.]
- [안어] 옛 방서나 요즘의 여러 서적에는 충을 치료하는 방법이 아주 많지만 헛수가 오래 된 충통인 경우에는 충의 새끼까지 이미 성충이 되어버려 여러 가지 약들이 효과가 없는 경우가 있다. 이 때에는 이중안회탕을 쓰거나 혹은 이공산을 가감하여 많이 복용하면서 비장과 위를 따뜻하게 하고 보해주면 충이 그곳에 편안히 있게 된다. 이 상태에서 음식으로 잘 조리하면서 충을 배부르게도 배고프게도 만들지 않는다면 다시 재발할 염려가 없을 것이다. [옛 방서에서 '성충은 영리하기 때문에 충을 죽이는 약을 쓰는 경우에는 모두 환자가 모르게 복용하게 하는 편이 좋다.'고 하였다.]
- 一士人子年八歲, 四肢陽莖陰囊, 俱浮通明, 而腹痛兼發, 劇歇無常, 間有嘔吐, 衆醫皆以清熱利水爲主, 余曰, 恣食厚味, 脾胃損傷, 土不能制水, 而腎水反剋, 故爲浮腫也, 且腹痛者, 胃寒蟲動之致, 理中湯 [方見吐瀉], 加藿香、木香、縮砂、桂皮, 溫補脾胃, 使土氣復勝, 腎水反和然後, 蟲安其所, 衆議紛爭, 主家不能用, 竟至不救, 及死, 蚘蟲從口鼻下竅, 亡數亂出云.
- [의안] 어떤 양반의 8살 된 아들이 사지와 고추와 불알이 모두 탕탕 붓고 복통까지 있었는데 심할 때와 덜할 때가 일정하지 않으며 간간이 구토를 하기도 하였다. 여러 의원들이 모두 열을 없애고 수기를 빼주는 것을 위주로 치료하였다.

내가 말하였다. "기름진 음식을 너무 많이 먹은 후 비장과 위가 손상되어 비토(脾土)가 신수(腎水)를 제어하지 못하고 신수가 반작용으로 왕성해졌기 때문에 부은 것입니다. 그리고 복통은 위가 차가워져 충이 꿈틀대기 때문입니다. 이충탕 [처방은 토사문에 나온다] 에 곽향·목향·측사·계피를 더하여 써서 비장과 위를 따뜻하게 하면서 보하면 비토가 다시 우세해지고 신수가 반작용으로 평화로워질 것이며, 그 후에야 충이 그 자리를 편안하게 여길 것입니다." 여러 의원들의 의견이 분분하여 그 집에서는 내 말을 따르지 않았고 결국 목숨을 구하지 못하게 되었다. 그 아이가 죽을 때 회충이 입과 코와 항문에서 무수히 나왔다고 한다.

- 李新昌子, 積年蟲痛, 飢肉瘦脫, 每飲食, 痛勢倍加, 故雖粥飲之物, 亦不敢進, 余曰, 人飢則蟲亦飢, 承此時, 當投殺蟲之藥, 乃於使君子煎湯, 和砂糖少許, 調錫灰細末五錢, 曉頭空心, 先炙肥豬肉, 小嚼後頓服之, 大小虵蟲, 盡死而下, 遂不復痛.
- [의안] 이 신창(李新昌)의 아들이 여러 해 동안 충통(蟲痛)이 있어 살이 바싹 말랐는데 음식을 먹을 때마다 복통이 몇 배나 심해졌기 때문에 죽이나 미음 같은 음식이라도 함부로 넘기지 못하였다. 내가 "사람이 배고프면 회충도 배고픈 법이니 이 기회를 틈타 회충을 죽이는 약을 먹어야 합니다."라고 말하였다. 그리고 사군자 달인 물에 설탕을 조금 섞고 곱게 가루 낸 석회(錫灰) 5돈을 타놓았다. 새벽녘 빈속일 때 우선 기름진 돼지고기를 구워 조금 씹게한 후 약을 모두 복용하게 하였더니 크고 작은 회충들이 모두 죽어서 대변으로 나온 후 드디어 다시 아프지 않았다.
- 洪都事子, 年五六歲, 得蛔疳十餘年, 一日飽喫肉餅, 旋即困睡, 忽然關格, 吐下不得, 藥水粥物, 入口即出, 灸檀中、巨闕百餘壯, 亦無應, 如是五日, 氣乏力盡, 奄奄難保, 余曰, 通塞而後, 可冀萬一, 安蟲丸 [方見上], 苦練煎湯化灌, 盡吐, 更用十丸, 過數時後, 大吐大瀉, 大小蛔蟲, 無數放下, 遂於異功散 [方見吐

瀉], 倍人參, 加香砂、神曲、木香、乾薑, 連服三劑, 繼用參苓白朮散 [方見吐瀉], 調理脾胃而安.

- [의안] 홍 도사(洪都事)의 아들이 5 - 6살 때부터 10여년 동안 회감(蛔疳)을 앓고 있었다. 하루는 고기와 떡을 배불리 먹고 곧바로 곤하게 잠들었는데 갑자기 관격(關格) 증상을 보이며 구토도 설사도 하지 못하였고 약이든 물이든 죽이든 입에 들어가면 즉시 내뱉었다. 전중혈과 거궤혈에 100여장 뚫을 떠보았으나 전혀 반응이 없었다. 이렇게 5일이 지나니 기력이 다하여 숨이 간당간당하며 살기 어려워보였다. 내가 "막힌 것을 뚫은 후에야 만에 하나라도 기대할 수 있을 겁니다."라고 말하고, 안충환 [처방은 앞에 나온다] 을 고련근 달인 물에 녹여서 입에 흘려 넣으니 약을 모두 토하였다. 다시 10환을 그렇게 먹이니 몇 시간이 지난 후에 크게 토하면서 설사했는데 크고 작은 회충들이 무수히 대변으로 쏟아져 나왔다. 그리하여 이공산 [처방은 토사문에 나온다] 에서 인삼을 2배로 늘리고 향부자、사인、신곡、목향、건강을 더하여 연달아 3첩을 복용시켰고, 이어서 삼령백출산 [처방은 토사문에 나온다] 을 써서 비장과 위를 잘 조리하니 편안해졌다.

- 徐洗馬 [命膺] 子, 素有疳氣, 年十歲, 過食肥甘生冷之物, 胸腹刺痛, 用香砂養胃湯 [方見諸積] 而愈. 過六七朔後, 不慎飲食, 前症復發, 比前有加, 余以爲食滯脾胃, 久而不消, 必化爲蟲, 試用使君子、貫衆、石雄黃等殺蟲之劑, 翌日果下蛔蟲, 痛勢少止, 未久又發, 更用溫胃安蟲之劑, 繼用異功散 [方見吐瀉], 加乾薑、砂仁、神曲, 兼服八味元 [方見解顛], 漸次而安.
- [의안] 세마(洗馬) 서명응(徐命膺)의 아들은 본래 감질기가 있었다. 10살 때 기름지고 단 음식과 생랭(生冷)한 음식을 너무 많이 먹고서는 가슴과 배가 찢르듯이 아파서 향사양위탕 [처방은 제적(諸積)문에 나온다] 을 쓰니 좋아졌다. 그로부터 6 - 7달 후에 또 음식을 지나치게 먹어 같은 증상이 다시 생겼는데 그전보다 더 심했다. 나는 음식이 비위에 정체되어 오랫동안 소화되지 않아서 분명 회충으로 변한 것이라 생각하고 우선 사군자、관중、석유향 등 충을 죽이는 약

을 써보니 다음날에 과연 회충을 대변으로 쏟아내며 통증이 좀 멎었다. 하지만 얼마 후에 재발하였기에 이번에는 비위를 따뜻하게 하면서 회충을 편안하게 하는 약을 쓰고, 이어서 이공산 [처방은 토사문에 나온다] 에 건강·사인·신국을 더하여 쓰면서 동시에 팔미원 [처방은 해로(解顱)문에 나온다] 을 복용하게 했더니 점점 편안해졌다.

- 命膺之子浩修, 生孩多病, 自二歲至十三, 瘡疥滂泄、浮脹痿瘦之症, 蓋無所不有, 他醫以爲熱, 而趙老以爲寒, 他醫以爲實, 而趙老以爲虛, 有時輟已煎之藥, 而改以他劑, 轉危爲安、回死爲生者, 不知其幾遭矣. 比年以來, 失於飲啖, 復得胸脇之痛, 方其疾作之時, 握拳張目, 旁觀者爲之膽慄, 而凡國之以醫名者, 皆歸之不治, 獨趙老始終無異說, 治之有序, 不亟不遲, 今已爲全人, 是則生兒者父母, 活兒者趙老, 其頂踵毛髮, 無非趙老之力也, 趙老於吾家, 有三世之舊, 吾兄弟群從之, 受恩亦無異乎吾兒, 而吾兒乃其最者, 故特記其詳以附於此, 使後之覽是書者, 知書之所載, 皆真實經歷之事, 而非得之耳目傳聞之末也. 戊辰流火月下浣, 弘齋徐命膺君受書.
- [의안] '세마(洗馬) 서명응(徐命膺)의 아들 호수(浩修)는 갓난아이 때부터 병치레가 잦았다. 2살부터 13살까지 창개(瘡疥)·당설(滂泄)·부창(浮脹)·위수(痿瘦) 같은 증상들을 앓고 있지 않을 때가 없었을 것이다. 그 의원은 열증이라고 했으나 조 의원(저자인 조정준)은 한증이라고 하고, 그 의원은 실증이라고 했으나 조 의원은 허증이라고 하면서, 때로는 달여 둔 약을 치운 후 다른 약으로 바꿔 전화위복이 되고 기사회생한 경우도 부지기수였다. 요즘 들어 음식을 절제하지 않아 다시 가슴과 옆구리에 통증이 생겼는데 그 증상이 나타날 때가 되면 주먹을 쥐고 눈을 부릅뜨기 때문에 옆에서 보면 간담이 서늘할 정도였다. 온 나라의 명의들이 모두 다녀갔으나 치료하지 못했거늘 오직 조 의원만은 시종일관 다른 말 없이 차근차근 치료하면서 너무 빠르지도 더디지도 않았기 때문에 아들이 지금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있었다. 이런 일을 통해 보면 아이를 낳은 것은 부모였지만 아이를 살린 것은 조 의원이었으니 아이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터럭 하나라도 조 의원 덕이 아닌 것이 없다. 조 의원은 우리 집안에 3대에 걸친 친분이 있다. 우리 형제들도 그와 친하게 지내면서 은혜를 입은 것도 우리 아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아이가 그 중에 가장 큰 은혜를 받았으므로 특별히 그 일화를 기록하여 여기에 붙인다. 훗날에 이 책을 보는 이가 이해한 책의 내용은 모두 실제로 겪었던 일이며 전해 들은 이야기가 아니다.’ 무진년 6월 하순, 홍재(弘齋) 서명응 군에게 받은 편지의 내용이다.



嘔吐 구토

初生小兒, 三日內或月內, 嘔吐黃水者, 生下口中惡物, 未卽拭淨, 嚥入胃中, 化爲痰涎, 去來胸膈間之致也, 輕者木瓜丸, 甚者朱砂丸下後, 以朱沈煎調之. ○初生, 吐瀉壯熱, 不思乳食, 大便色白, 或不通者, 停乳, 先宜朱砂丸, 或白餅子、紫霜丸之類下後, 以香橘餅調之.

갓난아이가 3일 안에 혹은 1달 안에 누런 물을 구토하는 경우는 태어났을 때 입 속의 더러운 것을 즉시 씻어내지 않았기 때문에 아이가 삼켜서 위 속으로 들어간 후 그것이 담연으로 변하여 흉격 부근에서 왔다갔다 하는 것이다. 증상이 가벼운 경우에는 목과환을 쓰고, 심한 경우에는 주사환으로 하법을 쓴 후 주침전으로 잘 조리해야 한다. ○갓난아이가 구토와 설사를 하면서 열이 심하고 젖도 물려 하지 않으며 변 색이 희거나 변을 누지 못하는 경우에는 젖을 물리지 말고 우선 주사환이나 백병자·자상환 같은 약으로 하법을 쓴 후에 향굴병으로 잘 조리시켜야 한다.

○木瓜丸

○목과환

治初生惡物未下, 但吐黃汁者.

갓난아이가 태어났을 때 입 속의 더러운 것을 닦아주지 않아 삼키게 된 후 누런 물을 토하는 경우를 치료한다.

木瓜、膩粉〔卽輕粉〕、木香、檳榔、麝香 各一字.

목과、이분〔경분이다〕、목향、빈랑、사향 각 1자.

右細末如飛麵, 糊丸黍米大, 每一二丸, 甘草煎湯下.

이상을 비라면(飛羅麵) 정도로 곱게 가루 낸 후 풀에 개어 서미 크기로 환을 빚고 한 번에 1 - 2환씩 감초 달인 물로 넘긴다.

○朱砂丸

○주사환

治初生三日內, 嘔吐黃水, 或瀉不止, 此因穢惡入胃中所致, 用此下後, 以朱沈煎調之.

태어난 지 3일 안에 누런 물을 토하고 간혹 설사가 멎지 않기도 하는 증상을 치료한다. 이는 더러운 것이 위 속에 들어갔기 때문이니 이 약으로 설사시킨 후에 주침전으로 잘 조리시킨다.

朱砂、南星、巴豆霜 各等分.

주사、남성、파두상 각각 같은 양.

右細末, 糊丸黍米大, 以薄荷湯化下二三丸, 後以朱沈煎調之.

이상을 곱게 가루 낸 후 풀에 개어 서미 크기로 환을 빚고 박하탕에 2 - 3환을 녹여서 넘긴다. 그 후에 주침전으로 잘 조리시킨다.

○朱沈煎

○주침전

朱砂 二錢, 藿香 三錢, 滑石 五錢, 丁香 十四粒.

주사 2돈, 곱향 3돈, 활석 5돈, 정향 14알.

右末如麵, 以新汲水一盞, 入麻油滴成花, 抄藥末五分在上, 須臾墜下, 澄去水¹, 別用溫水化服.

이상을 밀가루처럼 곱게 가루 낸다. 신급수 1잔에 참기름을 떨어뜨려 꽃처럼 퍼지면 약가루 5푼을 떠서 그 위에 놓는다. 조금 후 약가루가 가라앉으면 옷물을 따라 버리고 별도의 따뜻한 물에 녹여 복용한다.

- 一小兒, 初生三日內, 嘔吐黃水, 不得飲乳, 面皮縮青, 氣息欲絕, 肢末厥冷, 奄奄欲絕, 朱砂丸, 如法用之, 其效如神.
- [의안] 어떤 아이가 태어난 지 3일 안에 누런 물을 토하면서 젖을 빨지 못하고 얼굴이 파래지면서 찡그리며 사지 끝이 냉하여 숨이 간당간당 끊어질 듯 하였다. 주사환을 정해진 방법대로 쓰니 효과가 귀신 같았다.

○和中散

○화중산

和胃, 止吐瀉, 定煩渴.

위를 편안하게 하고 구토와 설사를 멈추며 번갈을 진정시킨다.

人參、白朮、白茯苓、乾葛、黃芪、白扁豆(炒)、藿香、甘草(炙) 各二分半.

인삼、백출、백복령、건갈、황기、백편두(볶는다)、곽향、자감초 각 2.5푼.

右麤末, 入薑五棗二, 水煎服. ○一方, 腹痛泄瀉, 厚朴一錢, 白朮五分, 乾薑炒、甘草各三分, 水煎服.

이상을 거칠게 가루 낸 후 생강 5조각과 대조 2개를 넣고 물에 달여 복용한다.

○어떤 서적에는 '복통와 설사에는 후박 1돈, 백출 5푼, 건강(볶는다)、감초 각 3푼을 물에 달여 복용한다.'라고 하였다.

○枳連丸

○지련환

治月內兒傷熱乳，嘔吐黃水，身熱，不思乳食。

태어난 지 한 달이 못된 아이가 열기가 있는 것에 상하여 누런 물을 토하고 몸
통이 뜨거우며 젖이나 음식 먹을 생각을 하지 않는 경우를 치료한다.

黃連(薑炒)、赤茯苓、枳殼 各等分。

황련(생강즙에 축여 볶는다)、적복령、지각 각각 같은 양.

右細末，麵糊丸桐子大，每一二丸，紫蘇子湯，或木瓜生薑煎湯化服，或剉細，入木瓜
、生薑，水煎，小小灌服。

이상을 곱게 가루 낸 후 밀가루풀에 개어 오동자 크기로 환을 빚고 한 번에 1 -
2환씩 자소자 달인 물이나 목과와 생강 달인 물에 녹여 복용한다. 혹은 잘게 썰
어 목과、생강을 넣고 물에 달여 조금씩 흘려 넣어 복용시킨다.

◦定中湯

◦정중탕

治胃熱嘔吐，鎮墜逆氣。

위열(胃熱)로 구토하는 증상을 치료한다. 치밀어 오르는 기를 아래로 누르는
효능이 있다.

眞黃土不雜砂石者一塊，置砂碗內，以白沸湯²泡之，以蓋合定，候澄清，一鍾子水，
和石雄黃末一錢，朱砂末五分，入砂糖少許調勻，分四五次，溫服。

모래나 돌이 섞이지 않은 좋은 황토 1덩이를 사발 안에 놓은 상태에서 백비탕
(白沸湯)을 붓고 뚜껑을 잘 덮은 후 옷물이 맑아지기를 기다린다. 맑은 옷물 1
종지에 석웅황 가루 1돈과 주사 가루 5푼을 타고 사당(砂糖)을 약간 넣어 잘 섞
는다. 이것을 4 - 5번에 나누어 따뜻하게 데워 복용한다.

○定吐飲

○정토음

治傷冷乳, 胃寒嘔吐, 諸藥不效.

냉한 것에 상하여 위가 차가워지면서 구토할 때 다른 약들이 효과 없는 경우를 치료한다.

半夏(切片) 二兩, 生薑(洗淨和皮) 一兩, 薄桂(去粗皮) 三錢.

반하(절편으로 썬다) 2냥, 생강(껍질째 깨끗하게 씻는다) 1냥, 박계(겉껍질을 제거한다) 3돈.

右生薑, 切作小方塊, 如菉豆大, 同半夏和勻, 入小鑊內, 慢火順手炒, 令香熟帶乾, 方下桂再炒勻, 微有香氣, 以紙攤開地上, 去火毒候冷, 略搗去黑焦, 爲末, 入薑三, 水一盞煎至半, 小小緩服.

위 약재 중 생강을 녹두 크기만큼 작게 썰고 반하와 함께 잘 섞어 작은 솥 안에 넣은 후 약한 불에 살살 볶아 향이 나면서 마르면 그때 박계를 넣고 다시 골고루 볶는다. 약간 향이 나면 바닥에 종이를 깔고 그 위에 펼쳐 놓아 화독을 없애면서 식기를 기다리고 검게 탄 부분은 대충 털어낸다. 이것을 가루 낸 후 생강 3조각과 함께 물 1잔에 넣고 절반이 되도록 달여 조금씩 천천히 복용한다.

○定吐紫金核

○정토자금핵

治胃中虛冷, 嘔吐不止.

위가 허랭하여 구토가 멎지 않는 경우를 치료한다.

半夏、人參、白朮、木香、丁香、藿香 各三錢.

반하、인삼、백출、목향、정향、곽향 각 3돈.

右細末, 姜汁打糊丸如棗核大, 以沈香、朱砂各一錢爲衣, 陰乾, 每一丸, 用棗去核, 納丸在內, 薑片夾濕紙裹煨熟, 去薑紙, 與兒嚼服, 以米飲壓之.

이상을 곱게 가루 낸 후 생강즙을 넣어 쏘 풀에 개어 조핵(棗核) 크기로 환을 빚고 침향·주사 각 1돈을 곁에 입혀 그늘에서 말린다. 한 번에 1환씩 씨를 발라 낸 대추 속에 넣고 생강 조각으로 막은 후 습지로 싸서 잿불에 익힌다. 생강과 종이를 제거하고 아이에게 주어 씹어 먹게 한 후 미음으로 약기운을 눌러 준다.

○生薑半夏湯

○생강반하탕

治諸般嘔吐惡心不食, 眩暈.

여러 가지 증상에 수반된 구토나 오심으로 음식을 먹지 못하며 현훈이 있는 증상을 치료한다.

生薑(留皮) 五錢, 半夏(製) 三錢.

생강(껍질째 쓴다) 5돈, 반하(법제한다) 3돈.

右剉, 水煎服. ○熱嘔, 加山梔、竹茹, 寒嘔, 加丁香、白豆蔻.

이상을 썬 후 물에 달여 복용한다. ○열증으로 구토하는 경우에는 산치인·죽여를 더하고 한증으로 구토하는 경우에는 정향·백두구를 더한다.

○薑橘湯

○강귤탕

治嘔吐不止, 脾慢胃冷.

구토가 멎지 않아 비장이 약해지고 위가 냉해진 경우를 치료한다.

橘皮 一兩, 乾薑(炮) 二錢, 甘草 五分.

굴피 1냥, 건강(습지에 싸서 굽는다) 2돈, 감초 5푼.

右剉焙細末, 每半錢, 棗湯調, 空心, 細細緩服.

이상을 썰어 결불에 말린 후 곱게 간다. 한 번에 0.5돈씩 대추 달인 물에 타서
빈속일 때 조금씩 천천히 복용한다.

◦半粟散

◦반속산

治胃冷, 嘔吐涎沫或白綠水者.

위가 냉하여 끈적한 거품이나 희고 푸른 물을 토하는 증상을 치료한다.

半夏(製) 二錢, 陳粟米 一錢, 生薑 十片(留皮).

반하(법제한다) 2돈, 진속미 1돈, 생강 10조각(껍질째 쓴다).

右作一貼, 水煎, 小小呷服.

이상을 1첩으로 물에 달여 조금씩 후루룩 복용한다.

◦竹茹湯

◦죽여탕

治胃熱, 心煩喜冷, 嘔吐不止.

위에 열이 있어 심번(心煩)으로 차가운 음식을 좋아하고 구토가 멎지 않는 경
우를 치료한다.

葛根、竹茹、山梔(薑炒) 各七分, 甘草 三分, 加半夏一錢.

갈근、죽여、산치인(생강즙에 죽여 볶는다) 각 7푼, 감초 3푼에 반하를 1돈 더 한다.

右剉, 入薑五片, 水煎微冷, 細細服.

이상을 썬 후 생강 5조각을 넣고 물에 달인 후 약간 식으면 조금씩 복용한다.

一方, 初生小兒, 嘔吐黃水不止, 木瓜一片, 生薑三片, 水煎, 細細服. ○嘔吐不乳, 白豆蔻, 酒浸煨, 細末, 每少許, 乳汁調塗舌上. ○大半夏七枚四破浸薑汁, 丁香三枚去蒂, 入生薑五片, 水煎, 細細服, 治胃寒嘔吐. ○橘皮一錢, 乾薑七分, 麤末, 水煎服, 治胃冷腹痛嘔吐.

어떤 서적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다. '갓난아이가 누런 물을 멈추지 않고 토하면 목과 1조각과 생강 3조각을 물에 달여 조금씩 먹인다. ○구토하면서 젖을 빨지 않으면 백두구를 술에 담갔다가 잿불에 익힌 후 곱게 갈고 조금씩 젖에 타서 혀 위에 발라 준다. ○대반하 7개(4개로 찌개어 생강즙에 담근다), 정향 3개(꼭지를 제거한다)에 생강 5조각을 넣고 물에 달여 조금씩 먹이면 위가 차가워서 구토하는 증상을 치료한다. ○굴피 1돈과 건강 7푼을 거칠게 가루 낸 후 물에 달여 복용하면 위가 냉하여 배가 아프면서 구토하는 증상을 치료한다.'

1. 澄去水 : 去澄水 ※문맥상 ↵

2. 白沸湯 : 百沸湯 ※문맥상 ↵

泄瀉 설사

小兒自初生至六七箇月,泄便色如藍汁,日下十餘次,或二三十次,小小放下,而神氣不至虛脫,此乃胎熱泄出,不必以藥治之,熱減則自止.○小兒有驚氣泄蒼色者,肝木乘脾土,宜至聖保命丹、黃芪湯.〔二方見驚風〕

아이가 갓 태어나면서부터 6 - 7개월 될 때까지 쪽물 같은 똥을 하루 10여 번 혹은 20 - 30번에 나누어 조금씩 누긴 하지만 정신과 기운이 허약해지지 않는 경우는 바로 태열(胎熱)이 빠져 나가는 것이므로 굳이 약으로 치료하지 않아도 된다. 열이 떨어지면 저절로 멎는다. ○아이가 경기를 일으키며 푸른 설사를 하는 경우는 간목(肝木)이 비토(脾土)를 올라탄 형국이다. 지성보명단·황기탕을 써야 한다. [두 처방은 경풍(驚風)문에 나온다]

吐瀉 토사

夫小兒吐瀉之症, 皆乳食過飽, 生冷不節, 傳化失常之致也. 古方云, 脾虛則瀉, 胃虛則吐, 脾胃俱虛, 吐瀉不止, 久則變成慢驚與疳病, 究其病原, 分其虛實, 按法治之.

대체로 아이가 구토하고 설사하는 증상은 모두 젖이나 음식을 너무 많이 먹거나 생랭(生冷)한 음식을 절제하지 않아 소화가 제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옛 방서에서 '비장이 허하면 설사하고, 위가 허하면 토하며, 비장과 위가 모두 허하면 구토와 설사가 멈추지 않고, 오래 되면 만경풍이나 감질로 변하니 병의 원인을 궁리하고 증상의 허실을 구분하여 이치에 따라 치료해야 한다.'고 하였다.

內傷寒乳, 或外感風寒, 瀉青白, 吐腥臊, 身涼不渴者, 乃寒也, 宜益黃散, 或理中湯. 先瀉而後吐者, 虛冷, 宜四君子湯, 加減用之.

속으로 차가운 젖에 상하거나 혹은 겉으로 풍한의 사기에 감촉되어 희고 푸르스름한 설사를 하고 비린내 나는 것을 토하며 몸이 서늘하면서 갈증이 없는 경우는 바로 한증이다. 익황산이나 이중탕을 써야 한다. 먼저 설사를 한 후에 토하는 경우는 비위가 허랭하기 때문이다. 사군자탕을 가감하여 써야 한다.

○益黃散

○익황산

治脾臟虛寒, 腹痛嘔吐泄瀉.

비장이 허한(虛寒)하여 배가 아프면서 구토·설사하는 증상을 치료한다.

陳皮 一兩, 青皮、訶子(煨)、甘草(炙) 各五錢, 丁香 二錢.

진피 1냥, 청피·가자(재에 묻어 굽는다)·자감초 각 5돈, 정향 2돈.

右麤末, 每一二錢, 水煎服. ○一名補脾散.

이상을 거칠게 가루 낸 후 한 번에 1 - 2돈씩 물에 달여 복용한다. ○보비산이라고도 한다.

○四君子湯

○사군자탕

治脾虛胃弱, 飲食不進, 困倦無力, 嘔吐泄瀉.

비장과 위가 허약하여 음식을 잘 넘기지 못하고 늘 힘없이 피곤해 하며 구토와 설사를 하는 증상을 치료한다.

白朮、白茯苓 各二錢, 人參 一錢, 甘草 六分.

백출、백복령 각 2돈, 인삼 1돈, 감초 6푼.

右剉, 入薑三棗二, 水煎服. 有汗去薑. ○此藥性緩不暴, 有熱用, 不助虛陽, 故稱君子, 惟血虛, 不可單服, 宜加歸芍用之. ○吐不止, 加藿香、丁香, 瀉不止, 加訶子、肉豆蔻. ○陽虛, 加附子、官桂. ○脾胃虛弱, 困倦無力, 加白扁豆、蓮肉、山藥. ○胃冷, 加乾薑、藿香. ○氣短喘促, 加麥門冬、五味子, 倍人參. ○虛汗, 加黃芪、防風. ○癖積, 加三稜、蓬朮. ○外感寒熱, 冬加桂枝, 三時加羌活、防風, 熱, 加葛根、黃芩. ○小便不利, 加豬苓、澤瀉. ○渴, 加木瓜、烏梅. ○驚風, 加全蝎、白附子、釣藤鉤. ○脾虛生風多困, 加半夏曲、沒石子等分, 冬瓜仁半減.

이상을 썬 후 생강 3조각과 대조 2개를 넣고 물에 달여 복용한다. 땀이 나면 생강을 뺀다. ○이 약은 약성이 완만하며 거세지 않기 때문에 열이 날 때 써도 허열을 나게 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군자라는 명칭을 쓴다. 오직 혈허(血虛)인 경우에는 그대로 복용해서는 안되고 당귀와 작약을 더해 써야 한다. ○구토가 많지 않으면 곽향·정향을 더하고, 설사가 많지 않으면 가자·육두구를 더한다. ○양허(陽虛)에는 부자·관계를 더한다. ○비장과 위가 허약하여 늘 힘없이 피

곤한 경우에는 백편두·연육·산약을 더한다. 〇위가 냉하면 건강·곽향을 더한다. 〇숨을 헐떡이면 맥문동·오미자를 더하고 인삼을 2배로 쓴다. 〇허한(虛汗)에는 황기·방풍을 더한다. 〇벽적(癥積)에는 삼릉·봉출을 더한다. 〇외감으로 오한발열이 있는 경우에, 겨울에는 계지를 더하고 나머지 세 계절에는 강활·방풍을 더한다. 열이 있으면 갈근·황금을 더한다. 〇소변이 잘 나오지 않으면 저령·택사를 더한다. 〇갈증이 있으면 목과·오매를 더한다. 〇경풍(驚風)이 있으면 전갈·백부자·조구등을 더한다. 〇비기(脾氣)가 허하여 생긴 풍증으로 계속 피곤해 하는 경우에는 반하국·몰석자 각각 같은 양과 동과인 절반 분량을 더한다.

東垣曰, 補腎不若補脾, 蓋胃爲水穀之海, 六腑之源, 人身氣血臟腑, 俱由胃氣而生焉, 在小兒, 則尤當補胃, 胃氣一虛, 四臟俱失所養, 故小兒最多有脾胃之疾, 專以四君子湯, 增減用之, 如氣不運化, 加木香開之, 泄瀉久不止, 面黃¹瘦, 加肉豆蔻、破古紙, 小加肉桂, 以補命門之火, 生脾土, 溫蒸水穀爲宜, 久泄諸藥無效, 用八味丸 [方見解顛] 者, 亦火生土之義也.

동원(東垣)은 "신장을 보하는 것보다 비장을 보하는 것이 낫다."고 말하였다. 이는 아마도 위는 음식이 모여드는 곳으로 육부의 근원이 되니 몸의 기혈과 오장육부가 모두 위기(胃氣)로부터 생기기 때문일 것이다. 소아에 있어서는 더욱 마땅히 위를 보해야 한다. 위의 기운이 한 번 허해지면 간장·심장·폐장·신장이 모두 기운을 공급받지 못한다. 그러므로 소아의 병 중에서 가장 많은 것이 비위의 병이다. 오로지 사군자탕을 가감하여 써야 하니 만약 기가 잘 운행되지 않으면 목향을 더하여 열어주고, 설사가 오랫동안 멎지 않아 얼굴이 누렇게 뜨고 살이 여위면 육두구·파고지와 육계를 약간 더하여 써서 명문(命門)의 화(火)를 보함으로써 비토(脾土)를 살려서 먹은 음식을 따뜻하게 소화시킬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이 좋다. 오랜 설사에 여러 약들이 효과가 없을 때 팔미환 [처방은 해로(解顛)문에 나온다] 을 쓰는 것도 명문의 화로 비토를 살리는 의미이다.

○六君子湯

○육군자탕

卽四君子湯, 加半夏、陳皮. ○治氣虛痰盛, 惡心不食, 頭目昏眩, 上燥下寒. ○加柴胡、黃芩, 名柴胡六君子湯.

사군자탕에 반하·진피를 더한 것이다. ○기허(氣虛)로 담음이 왕성해지고 오심으로 음식을 먹지 못하며 현훈이 생기고 상부는 건조하면서 하부는 차가운 경우를 치료한다. ○시호·황금을 더하면 시호육군자탕이라고 한다.

○異功散

○이공산

治脾胃虛弱, 嘔吐泄瀉, 飲食不進.

비장과 위가 허약하여 구토와 설사를 하며 음식을 넘기지 못하는 증상을 치료한다.

白朮、人參、白茯苓、陳皮 各一錢, 甘草 五分.

백출·인삼·백복령·진피 각 1돈, 감초 5푼.

右剉, 入薑三棗二, 水煎服. ○一方, 加木香.

이상을 썬 후 생강 3조각과 대조 2개를 넣고 물에 달여 복용한다. ○어떤 서적에는 목향이 추가되어 있다.

○理中湯

○이중탕

治臟寒腹痛, 嘔吐泄瀉, 四肢厥冷.

장한(臟寒)으로 배가 아프면서 구토와 설사를 하며 사지가 끝부터 냉해지는 증상을 치료한다.

乾薑(炮) 二錢, 人參、白朮、甘草(炙) 各一錢.

건강(습지에 싸서 굽는다) 2돈, 인삼、백출、자감초 각 1돈.

右剉, 水煎服.

이상을 썬 후 물에 달여 복용한다.

○理中丸

○이중환

卽上方爲末, 糊丸彈子大, 米飲化服. ○加枳實一錢, 名枳實理中丸.

위 처방(이중탕) 약재를 가루 낸 후 꿀에 개어 탄자 크기로 환을 빚고 미음에 녹여 복용한다. ○지실 1돈을 더하면 지실이중환이라고 부른다.

○四順理中湯

○사순이중탕

卽理中湯, 倍甘草, 以甘緩之義也, 作丸彈子大, 名四順理中丸.

이중탕에서 감초를 2배로 한 것이니 단맛으로 약효를 늦춘다는 의미이다. 탄자 크기의 환으로 빚으면 사순이중환이라고 부른다.

○附子理中湯

○부자이중탕

卽理中湯, 加附子一錢, 治中寒, 口噤身強直, 四肢厥逆, 吐利不渴.

이중탕에 부자 1돈을 더한 것이다. 한사에 맞아 입을 악다물면서 몸이 강직되고 사지 끝부터 냉해지며 구토와 설사를 하지만 갈증은 없는 경우를 치료한다.

○治中湯

○치중탕

卽理中湯, 加陳皮、青皮等分.

이중탕에 진피、청피 각각 같은 양을 더한 것이다.

○加減溫六丸

○가감온육환

治小兒吐瀉, 腹痛虛煩.

아이가 구토와 설사를 하면서 배가 아프고 허번(虛煩)이 있는 경우를 치료한다.

白朮、滑石 各一兩半, 乾薑(炒) 三錢, 橘皮、甘草(炙) 各二錢.

백출、활석 각 1.5냥, 건강(볶는다) 3돈, 귤피、자감초 각 2돈.

右極細末, 糊丸黃豆大, 每一二丸, 米飲化服.

이상을 아주 곱게 가루 낸 후 꿀에 개어 황두(黃豆) 크기로 환을 빚고 한 번에 1 - 2환씩 미음에 녹여 복용한다.

○勻胃散

○균위산

治三焦不調, 膈上停寒, 乳食不消, 痞滿喘逆, 吐瀉.

삼초가 잘 소통되지 않을 때 흉격에 한기가 정체되어 젖이나 음식이 소화되지 않고 속이 짝 막혀서 숨을 헐떡이며 구토와 설사를 하는 경우를 치료한다.

人參、乾薑(炮)、白豆蔻(煨)、藿香、厚朴、木香、丁香 各一錢, 甘草(炙) 三分.

인삼、건강(습지에 써서 굽는다)、백두구(재에 묻어 굽는다)、곽향、후박、목향、정향 각 1돈, 자감초 3푼.

右麤末, 每一二錢, 入薑三, 水一盞, 煎至半服.

이상을 거칠게 가루 낸 후 한 번에 1 - 2돈씩을 생강 3조각과 함께 물 1잔에 넣고 절반이 되도록 달여 복용한다.

內傷熱乳, 或外感暑熱, 身熱面赤, 瀉黃赤, 吐酸臭者, 乃熱也, 宜玉露散, 或益黃散, 合四苓散 [二方見暑症], 先吐而後瀉者, 熱在脾胃, 白虎湯 [方見外感] .

속으로 뜨거운 것에 상하거나 혹은 겉으로 더위에 감촉되어 몸통이 뜨겁고 얼굴이 붉으며 누렁거나 붉은 설사를 하고 신물을 토하는 경우는 바로 열증이다. 옥로산을 쓰거나 익황산과 사령산을 합하여 써야 한다. [두 처방은 서증문에 나온다] 먼저 토하고 그 후에 설사하는 경우는 열이 비위에 있기 때문이니 백호탕을 써야 한다. [처방은 외감문에 나온다] .

○玉露散

○옥로산

治暑月吐瀉, 身熱煩渴.

여름철에 구토와 설사를 하고 몸통이 뜨거우며 번갈 증상이 있는 경우를 치료한다.

石膏、寒水石 各五錢, 生甘草 一錢.

석고、한수석 각 5돈, 생감초 1돈.

右細末, 或半錢或一錢, 井水和蜜任下. ○石膏、寒水石各一兩, 甘草五錢, 爲末, 糊丸黃豆大, 每一丸, 冷水下, 或薑湯下, 名玉露丸.

이상을 곱게 가루 낸 후 0.5 - 1돈을 우물물에 꿀과 함께 타서 먹는 만큼 먹인다. ○석고、한수석 각 1냥, 감초 5돈을 가루 낸 후 풀에 개어 황두(黃豆) 크기로 환을 빚고 한 번에 1환씩 냉수나 생강탕으로 넘긴다. 이것을 옥로환이라고 부른다.

○古連栢丸

○고연백환

治熱泄久不止, 身熱, 煩渴飲水.

열로 생긴 설사가 오랫동안 멎지 않고 몸통이 뜨거우며 번갈로 자꾸 물을 마시는 증상을 치료한다.

黃連、黃栢 各一兩.

황련、황백 각 1냥.

右細末, 入猪膽汁內煮丸黍米大, 每一二十丸, 量兒, 米飲下.

이상을 곱게 가루 낸 후 저담즙(猪膽汁)을 넣어 쏘 풀에 개어 서미 크기로 환을 빚고 한 번에 10 - 20환씩 아이의 몸집에 따라 미음으로 넘긴다.

○五苓散

○오령산

治吐瀉煩渴, 小便不利.

구토와 설사를 하고 번갈이 있으며 소변이 잘 나오지 않는 경우를 치료한다.

澤瀉 二錢, 赤茯苓、猪苓、白朮 各一錢半, 桂心 五分.

택사 2돈, 적복령 ㆍ저령 ㆍ백출 각 1.5돈, 계심 5푼.

右剉, 煎服, 或細末, 燈心煎湯調服.

이상을 썬 후 달여 복용한다. 혹은 곱게 갈아 등심 달인 물에 타서 복용한다.

◦柴苓湯

◦시령탕

卽五苓散, 合小柴胡湯 [方見外感] .

오령산에 소시호탕을 합한 것이다. [처방은 외감문에 나온다]

◦胃苓湯

◦위령탕

卽五苓散, 合平胃散 [方見諸積] .

오령산에 평위산을 합한 것이다. [처방은 제적(諸積)문에 나온다]

◦四苓散

◦사령산

卽五苓散, 去桂.

오령산에서 육계를 뺀 것이다.

◦春澤湯

◦춘택탕

卽四苓散, 加入參一錢.

사령산에 인삼 2돈을 더한 것이다.

○雄黃膏

○응황고

治夏月傷暑熱吐瀉, 又治傷風壯熱.

여름철 더위에 상하여 구토와 설사하는 증상을 치료한다. 또한 풍사에 상하여 열이 심한 증상도 치료한다.

雄黃 小棗大(用獨莖蘿菈根, 水竝醋共一盞, 煎至汁盡), 寒水石 五錢, 甜硝·甘草 各三錢, 朱砂 五分, 龍腦 一字.

응황 작은 대추 크기만큼(홀뿌리인 나복의 뿌리를 식초 넣은 물 1잔에 넣고 국물이 없어질 때까지 달인다), 한수석 5돈, 침초·감초 각 3돈, 주사 5푼, 용뇌 1자.

右細末, 蜜丸皂子大, 薄荷湯, 量兒化服.

이상을 곱게 가루 낸 후 꿀에 개어 조각자 크기로 환을 빚고 아이의 몸집에 따라 박하탕에 녹여 복용한다.

○土龍膏 [俗方]

○토롱고 [민간의 처방]

治暑熱入心肺, 身熱煩渴, 吐瀉, 小便不利.

더위가 심장과 폐장으로 들어가 몸통이 뜨겁고 번갈이 있으며 구토와 설사를 하고 소변이 잘 나오지 않는 경우를 치료한다.

地龍大者十餘條, 入黃土泥餅中, 作團如鵝鴨卵, 慢火煨熟, 浸香薷煎湯, 或車前子、糯米同炒煎湯, 澄取用, 微溫, 和些蜜頻服. ○一方, 眞黃土化水, 煎數沸, 入地龍, 旋即傾出, 待清取用.

큰 지렁이 10마리를 황토 진흙덩이 속에 넣고 거위알이나 오리알처럼 만든다. 이것을 약한 숯불에 묻어 익히고 향유 달인 물에 담그거나 혹은 차전자와 찹쌀을 함께 볶아 달인 물에 담가 맑은 옷물만 쓴다. 이 물을 미지근하게 데우고 꿀을 조금 타서 자주 복용한다. ○어떤 서적에는 '좋은 황토를 물에 타서 몇 소끔 달인 후 지렁이를 넣고 즉시 물을 따라 내어 황토가 가라앉으면 그 옷물을 쓴다.'고 하였다.

吐瀉身溫, 或乍寒乍熱, 不思乳食, 或乳食難化, 上實下虛, 宜用四君子湯, 並加減用. ○古方, 吐瀉身熱作渴者, 錢氏白朮散. ○吐瀉身涼不渴者, 觀音散 [二方見慢驚].

구토와 설사를 하지만 몸통은 따뜻하고 간혹 한열왕래가 있으며 젖이나 음식을 먹으려 하지 않는 경우나, 혹은 젖이나 음식이 소화되지 않아 상초는 실하고 하초는 허한 경우에는 사군자탕을 가감하여 써야 한다. ○옛 방서에 '구토와 설사를 하고 몸통이 뜨거우며 갈증이 있는 경우에는 전씨백출산을 쓴다. ○구토와 설사를 하고 몸이 냉하며 갈증이 없는 경우에는 관음산을 쓴다.'고 하였다. [두 처방은 만경(慢驚)문에 나온다].

傷風吐瀉者, 風木好侵脾土, 故多作吐瀉, 外症增寒壯熱, 時有頭疼咳嗽氣促, 概熱者, 宜先服釣藤散 [方見天鈞], 或人參羌活散 [方見外感] 發散, 後服益黃散補脾, 冷者, 先服益黃散, 或異功散補脾, 後服釣藤散 [方見天鈞²]、人參羌活散發散, 如吐驟或瀉完穀者, 乃傷風甚也, 大半夏湯, 或麻黃桂枝湯 [方見外感].

상풍(傷風)으로 구토와 설사를 하는 경우는 풍의 목(木) 기운이 비토(脾土)를 침범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대부분 구토와 설사가 생긴다. 겉으로 나타나는 증상으로는 심한 오한발열이 있고 가끔씩 두통과 기침과 혈떡거림이 생긴다. 열증인 경우에는 먼저 조등산 [처방은 천조(天鈞)문에 나온다] 이나 인삼강활산 [처방은 외감문에 나온다] 으로 발산시킨 후에 익황산을 복용하여 비장

을 보해야 한다. 냉증인 경우에는 먼저 익황산이나 이공산으로 비장을 보한 후에 조등산 [처방은 천조문에 나온다] 이나 인삼강활산을 복용하여 발산시켜야 한다. 갑자기 토하거나 소화되지 않은 음식을 설사하는 까닭은 바로 상풍이 심하기 때문이다. 대반하탕이나 마황계지탕 [처방은 외감문에 나온다] 을 써야 한다.

○蒼朮防風湯

○창출방풍탕

治傷風飧泄, 乳食不化.

상풍(傷風)으로 손설(飧泄)을 하고 젖이나 음식이 소화되지 않는 경우를 치료한다.

蒼朮 二錢, 麻黃 七分, 防風 三分半.

창출 2돈, 마황 7푼, 방풍 3.5푼.

右剉, 入薑三, 水煎服.

이상을 썬 후 생강 3조각을 넣고 물에 달여 복용한다.

○防風芍藥湯

○방풍작약탕

治傷風飧泄, 身熱腹鳴, 煩渴引飲.

상풍(傷風)으로 손설(飧泄)을 하고 몸통이 뜨거우면서 배에서 꾸르륵 소리가 나며 번갈로 물을 찾는 증상을 치료한다.

白芍藥、防風 各三錢, 黃芩 一錢.

백작약、방풍 각 3돈, 황금 1돈.

右剉, 水煎服.

이상을 썬 후 물에 달여 복용한다.

○大半夏湯

○대반하탕

治傷食吐瀉.

음식에 상하여 구토와 설사를 하는 증상을 치료한다.

半夏(製) 三錢, 陳皮、赤茯苓 各二錢.

반하(법제한다) 3돈, 진피、적복령 각 2돈.

右剉, 入薑五, 水煎服.

이상을 썬 후 생강 5조각을 넣고 물에 달여 복용한다.

內傷乳食吐瀉者, 乳食不化, 面黃腹脹, 如抱壞鷄卵臭, 宜消乳食丸 [方見諸積]. ○
小便不清者, 胃苓湯, 加肉豆蔻, 爲丸, 米飲化下. ○腹痛吐乳者, 萬安膏 [方見諸
積]. ○挾痰者, 二陳湯 [方見咳嗽], 加枳實、神麴、麥芽、烏梅, 熱加芩連, 寒加
乾薑, 危甚者, 燒鍼丸.

속으로 젖이나 음식에 상하여 구토와 설사를 하는 것은 젖이나 음식이 소화되지 않기 때문에 얼굴이 누렇게 되면서 배가 똥똥해지고 설사에서 달걀 썩는 냄새 같은 것이 난다. 소유식환 [처방은 제적(諸積)문에 나온다] 을 써야 한다. ○소변이 탁한 경우에는 위령탕에 육두구를 더하여 환으로 빻고 미음에 녹여 넘긴다. ○배가 아프면서 젖을 토하는 경우에는 만안고 [처방은 제적문에 나온다] 를 쓴다. ○담음을 겸한 경우에는 이진탕 [처방은 해수문에 나온다] 에 지실、신곡、맥아、오매를 더해 쓴다. 열증에는 황금、황련을 더하고, 한증에는 건강을 더한다. 매우 위급한 경우에는 소침환을 쓴다.

◦香橘餅

◦향굴병

治一切冷積吐瀉, 又治初生停乳, 或乳食積, 嘔吐泄瀉.

모든 냉적(冷積)으로 구토와 설사를 하는 증상을 치료한다. 또한 갓난아이가 젖을 먹고 체하거나 혹은 유적(乳積)이나 식적(食積)으로 구토와 설사를 하는 증상도 치료한다.

厚朴、神曲(炒)、麥芽(炒)、砂仁(炒) 各五錢, 木香、橘皮、青皮 各二錢半.

후박、신곡(볶는다)、맥아(볶는다)、사인(볶는다) 각 5돈, 목향、귤피、청피 각 2.5돈.

右細末, 蜜丸芡實大, 每一丸, 紫蘇煎湯或米飲化下, 瀉甚, 加肉豆蔻、訶子並煨各一錢, 吐甚, 加白豆蔻、丁香各一錢.

이상을 곱게 가루 낸 후 꿀에 개어 검실 크기로 환을 빚고 한 번에 1환씩 자소 달인 물이나 미음에 녹여서 넘긴다. 설사가 심하면 육두구、가자(2가지 모두 잿불에 묻어 굽는다) 각 1돈을 더한다. 구토가 심하면 백두구、정향 각 1돈을 더한다.

◦消乳食丹

◦소유식단

治傷食吐瀉, 乳食不化, 面黃肌瘦腹脹, 瀉如抱鷄卵臭.

음식에 상하여 구토와 설사를 하고 젖이나 음식이 소화되지 않으며 얼굴이 누렇게 되면서 살이 마르고 배가 똥똥하며 썩은 달걀 냄새가 나는 설사를 하는 경우를 치료한다.

丁香、木香、青皮、肉豆蔻(煨)、三稜、蓬朮(並煨) 各等分.

정향、목향、청피、육두구(재에 묻어 굽는다)、삼릉、봉출(2가지 모두 잿불에 묻어 굽는다) 각각 같은 양.

右細末, 糊丸麻子大, 每五丸, 米飲下.

이상을 곱게 가루 낸 후 풀에 개어 마자 크기로 환을 빚고 한 번에 5환씩 미음으로 넘긴다.

○燒鍼丸

○소침환

治內傷乳食, 吐瀉不止, 此藥清鎮脾胃, 專治痰飲吐瀉.

속으로 젖이나 음식에 상하여 구토와 설사가 멎지 않는 증상을 치료한다. 이 약은 비장과 위를 씻어 내고 진정시키면서 오로지 담음과 구토와 설사만을 치료한다.

黃丹、白礬(枯) 各等分.

황단、고백반 각각 같은 양.

右末, 棗肉和丸芡實大, 每一丸, 以鍼桃³於燈焰上, 燒存性, 每一丸, 乳汁或清米飲化服.

이상을 가루 낸 후 대추 과육과 섞어 검실 크기로 환을 빚는다. 1환을 바늘에 꽂아 등불에 약성이 남도록 태운 후 한 번에 1환씩 젖이나 맑은 미음에 녹여 복용한다.

- 按. 錢氏燒鍼丸, 黃丹一味, 入門燒鍼丸, 黃丹、枯白礬, 醫鑑燒鍼丸, 黃丹、枯白礬、朱砂, 三方不同, 何也. 古方, 朱砂經火則殺人, 錢氏入門之不入朱砂者, 以此耶, 又云以毒相制, 醫鑑之入朱砂者, 抑或以此耶, 未知其詳也, 然既有殺人之忌, 則依錢氏入門而不入朱砂, 似可矣.
- [안어] 《소아약증직결》의 소침환은 황단 1가지이고, 《의학입문》의 소침환은

황단과 고백반 2가지이며, 《동의보감》의 소침환은 황단과 고백반과 주사 3가지이다. 세 책이 같지 않은 이유는 무엇일까? 옛 방서에서 '불에 달은 주사는 사람을 죽인다.'고 하였으니 《소아약증직결》과 《의학입문》에는 주사를 넣지 않은 것은 이런 이유 때문이 아닐까? 또 '독성은 독성으로 제어한다.'고도 하였으니 《동의보감》에서 주사를 넣은 이유는 혹시 이 때문이 아닐까? 잘 모르겠다. 그러나 이미 불에 달은 주사는 사람을 죽인다는 금기가 존재하니 《소아약증직결》과 《의학입문》을 근거로 주사를 넣지 않는 편이 괜찮을 것 같다.

傷濕吐瀉者, 身重腹脹, 小便不利, 瀉下如水傾出, 腹不痛爲異, 平胃散 [方見諸積], 虛者異功散. ◦吐瀉作渴尿澁者, 五苓散. ◦壯熱體重, 瀉濁吐酸者, 濕兼熱也, 羌活散. ◦夏月傷暑吐瀉者, 考暑症治之.

습기에 상하여 구토와 설사를 하는 경우에는 몸이 무거우면서 배가 똥똥해지고 소변이 잘 나오지 않으며 물을 따라내는 것처럼 짹짹 설사를 하지만 배가 아프지 않다는 점이 특이하다. 평위산 [처방은 제적(諸積)문에 나온다] 을 쓴다. 허증인 경우에는 이공산을 쓴다. ◦구토와 설사로 갈증을 느끼고 소변이 잘 나오지 않는 경우에는 오령산을 쓴다. ◦열이 심하고 몸이 무거우며 탁한 설사를 하고 신물을 토하는 경우에는 습사에 열사까지 겹친 것이니 강활산을 쓴다. ◦여름철 더위에 상하여 구토와 설사를 하는 경우에는 서증(暑症)문을 참고하여 치료하라.

◦瀉濕湯

◦사습탕

治濕熱洞泄.

습사와 열사로 동설(洞泄)하는 경우를 치료한다.

白朮(炒) 三錢, 白芍藥(炒) 二錢, 陳皮(炒) 一錢半, 防風 一錢, 升麻 五分.

백출(볶는다) 3돈, 백작약(볶는다) 2돈, 진피(볶는다) 1.5돈, 방풍 1돈, 승마 5
푼.

右剉, 水煎服.

이상을 썬 후 물에 달여 복용한다.

○萬病五苓散

○만병오령산

治傷濕泄瀉, 水多而腹不痛, 腹響雷鳴, 脈細, 身重困倦.

습사에 상하여 설사할 때 물처럼 많이 나오지만 배는 아프지 않고 배에서 꾸루
룩 큰 소리가 나며 맥은 세(細)하고 몸이 무거우면서 피곤한 경우를 치료한다.

赤茯苓、白朮、猪苓、澤瀉、山藥(炒)、陳皮、蒼朮、縮砂(炒研)、肉豆蔻(煨)、
訶子(煨) 各八分, 桂皮、甘草 各五分.

적복령、백출、저령、택사、산약(볶는다)、진피、창출、축사(볶아서 간다)
、육두구(재에 묻어 굽는다)、가자(재에 묻어 굽는다) 각 8푼, 계피、감초 각
5푼.

右剉, 入薑二, 烏梅一箇, 燈心一團, 空心, 水煎服.

이상을 썬 후 생강 2조각, 오매 1개, 등심 1단을 넣고 물에 달여 빈속에 복용한
다.

○三白散

○삼백산

治一切泄瀉.

여러 가지 설사를 치료한다.

白朮、白茯苓、白芍藥 各一錢半, 甘草(炙) 五分.

백출、백복령、백작약 각 1.5돈, 자감초 5푼.

右剉, 煎服.

이상을 썬 후 물에 달여 복용한다.

○燥濕湯

○조습탕

治泄瀉, 理脾.

설사를 치료한다. 비장을 다스리는 약이다.

白朮 二錢, 白茯苓、白芍藥(炒) 各一錢半, 陳皮 一錢, 甘草(炙) 五分.

백출 2돈, 백복령、백작약(볶는다) 각 1.5돈, 진피 1돈, 자감초 5푼.

右剉, 水煎服. ○一名朮苓芍藥湯.

이상을 썬 후 물에 달여 복용한다. ○출령작약탕이라고도 부른다.

○升陽除濕湯

○승양제습탕

治氣虛泄瀉, 不思飲食, 困倦無力.

기허(氣虛)로 설사하고 음식 먹을 생각이 없으며 힘없이 피곤해지는 증상을 치료한다.

蒼朮 一錢半, 升麻、柴胡、羌活、防風、神麴(炒)、澤瀉、猪苓 各七分, 陳皮、麥芽(炒)、甘草(炙) 各五分.

창출 1.5돈, 승마·시호·강활·방풍·신국(볶는다)·택사·저령 각 7푼, 진피·맥아(볶는다)·자감초 각 5푼.

右剉, 水煎服.

이상을 썬 후 물에 달여 복용한다.

○羌活散

○강활산

治壯熱體重, 濕熱泄瀉, 又治風泄.

열이 심하고 몸이 무거우며 습사와 열사로 설사하는 경우를 치료한다. 또한 풍사로 설사하는 증상도 치료한다.

羌活、黃芩、蒼朮、甘草 各一錢, 防風 七分.

강활·황금·창출·감초 각 1돈, 방풍 7푼.

右剉, 水煎服.

이상을 썬 후 물에 달여 복용한다.

○麴朮元

○국출원

治暑濕吐瀉.

서사와 습사로 구토와 설사를 하는 증상을 치료한다.

神麴(炒)、蒼朮(製) 各等分.

신국(볶는다)·창출(법제한다) 각각 같은 양.

右細末, 麵糊和丸小豆大, 米飲下.

이상을 곱게 가루 낸 후 밀가루풀에 개어 소두(小豆) 크기로 환을 빚고 마음으로 넘긴다.

吐瀉久不止者, 乃清氣下陷, 胃⁴陽虛, 飲食少進, 四肢無力, 宜升陽益胃湯, 虛渴者, 錢氏白朮散 [方見慢驚].

구토와 설사가 오랫동안 멎지 않는 까닭은 바로 청기(清氣)가 무너져서 위 속이 양허해지고 음식을 거의 넘기지 못하여 사지에 힘이 없어지는 것이다. 승양익위탕을 써야 한다. 허증과 갈증이 있는 경우에는 전씨백출산 [처방은 만경문에 나온다] 을 쓴다.

◦益胃升陽湯

◦익위승양탕

治內傷諸症, 蓋血脫益氣, 古聖人之法也, 先理脾胃, 以助生發之氣.

내상(內傷)의 여러 증상을 치료한다. 대체로 혈이 바닥났을 때는 기운을 더하는 것이 옛 성인의 치료법이니 우선 비장과 위를 다스려 생기가 살아나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白朮 一錢半, 黃芪 一錢, 人參、神麴(炒) 各七分半, 當歸身、陳皮、甘草(炙) 各五分, 柴胡、升麻 各三分, 生黃芩 二分.

백출 1.5돈, 황기 1돈, 인삼·신곡(볶는다) 각 7.5푼, 당귀신·진피·자감초 각 5푼, 시호·승마 각 3푼, 생황금 2푼.

右剉, 水煎服.

이상을 썬 후 물에 달여 복용한다.

◦補中益氣湯

◦보중익기탕

治勞役太甚, 或飲食失節, 身熱而煩, 自汗困倦.

일을 너무 심하게 했거나 혹은 음식을 절제하지 못하여 몸통이 뜨거우면서 답답하고 자한(自汗)이 나며 피곤한 경우를 치료한다.

黃芪 一錢半, 人參、白朮、甘草 各一錢, 當歸身、陳皮 各五分, 柴胡、升麻 各三分.

황기 1.5돈, 인삼·백출·감초 각 1돈, 당귀신·진피 각 5푼, 시호·승마 각 3푼.

右剉, 水煎服. ◦虛汗, 去升柴, 加桂枝、麻黃根.

이상을 썬 후 물에 달여 복용한다. ◦허한(虛汗)에는 승마·시호를 빼고 계지·마황근을 더한다.

◦升陽益胃湯

◦승양익위탕

治內傷脾胃症, 秋燥濕熱少退, 飲食無味, 體重口燥, 大小便不調, 或洒淅惡寒, 乃陽氣不伸故也.

내상(內傷)으로 비장과 위가 약해진 경우를 치료한다. 가을의 건조함 덕에 습사와 열사가 조금 물러났으나 음식을 먹어도 맛이 없고 몸이 무거우며 입이 마르고 대소변이 잘 나오지 않고 간혹 으슬으슬 오한이 나는 것은 양기가 제대로 퍼지지 못하기 때문이다.

黃芪 二錢, 人參、半夏、甘草 各一錢, 羌活、獨活、防風、白芍藥 各七分, 陳皮 五分, 柴胡、白朮、赤茯苓、澤瀉 各三分, 黃連 二分.

황기 2돈, 인삼·반하·감초 각 1돈, 강활·독활·방풍·백작약 각 7푼, 진피 5푼, 시호·백출·적복령·택사 각 3푼, 황련 2푼.

右剉, 入薑三棗二, 水煎服.

이상을 썬 후 생강 3조각과 대조 2개를 넣고 물에 달여 복용한다.

○胃風湯

○위풍탕

治腸胃濕毒, 腹痛泄瀉, 下如黑豆汁, 或下瘀血.

장과 위의 습독(濕毒)으로 배가 아프고 설사를 하면서 검은 콩물 같은 것을 쏟아내거나 어혈을 쏟아내는 경우를 치료한다.

人參、白茯苓、川芎、桂皮、當歸、白芍藥、白朮、甘草 各等分.

인삼、백복령、천궁、계피、당귀、백작약、백출、감초 각각 같은 양.

右剉, 入粟米一撮, 水煎服.

이상을 썬 후 속미(粟米) 1찰(撮)을 넣고 물에 달여 복용한다.

吐瀉日久, 臟寒氣脫, 面青肢冷者, 四君子湯, 加木香、訶子、肉豆蔻、陳皮, 或真人養臟湯 [方見痢疾], 直射濺流, 或穀食不化, 或下之如桶漉瀉, 昏睡露睛, 口鼻氣冷, 欲作慢驚者, 附子理中湯、金液丹, 或雙金丸 [二方見慢驚], 溫補脾胃, 速生胃氣, 可免慢驚之患. ○范文正公家傳方, 小兒吐瀉日久, 腸胃虛損, 手足厥冷, 精神昏睡露睛, 口鼻氣冷, 欲成慢驚, 石硫黃淡黃通明者, 研末, 盛砂合內, 以細沙泥固濟, 炭火中煅, 取出埋地中, 出火毒, 細末, 每一二錢, 米飲入薑汁少許調灌服, 又方, 小兒胃冷脾寒, 吐瀉厥冷, 欲成慢驚, 生白朮酒磨濃汁, 以溫酒調, 空心服.

오랫동안 구토와 설사를 하느라 속이 차면서 기운이 바닥나고 얼굴이 푸르며 사지가 냉한 경우에는 사군자탕에 목향、가자、육두구、진피를 더해 쓰거나 진인양장탕 [처방은 이질문에 나온다] 을 쓴다. 먹자 마자 짹짹 쏟거나 음식이 소화되지 않거나 물을 엮은 것처럼 설사하면서 혼수상태로 눈이 뒤집히고 입과 코의 숨이 서늘하여 만경풍이 될 것 같은 경우에는 부자이중탕、금액단

혹은 쌍금환 [처방은 만경문에 나온다] 을 써서 비장과 위를 따뜻하게 보하고 위기(胃氣)를 재빨리 살린다면 만경풍이 될 염려에서 벗어날 것이다. ○문정공(文正公) 범중엄(范仲淹)의 가전방(家傳方) 내용이다. '아이가 오랫동안 구토와 설사를 하여 장과 위가 허손하고 손발이 끝부터 냉하며 혼수상태로 눈이 뒤집히고 입과 코의 숨이 서늘하며 만경풍이 될 것 같은 경우의 치료법. 석유황(선명한 담황색인 것)을 갈아서 가루 낸 후 사기 반합에 담고 고운 진흙을 발라 봉한다. 반합을 숯불에서 달궜다가 꺼낸 후 땅 속에 묻어 화독을 없앤다. 석유황을 곱게 가루 내고 1 - 2돈씩 생강즙을 약간 넣은 미음에 타서 입에 흘려 넣는다. 또 다른 처방. 아이가 위가 냉하고 비장이 차가워 구토와 설사를 하고 사지 끝부터 냉해지면서 만경풍이 되려고 하는 경우에는 생백출을 술에 갈아 진하게 즙을 낸 후 따뜻한 술에 타서 빈속에 복용한다.'

- 趙相國 [顯命] 子, 得吐瀉, 度數無算, 日漸危篤, 面色青白, 四肢厥冷, 昏睡不醒, 欲成慢驚, 相國以爲無可爲, 而棄之不省, 余用附子理中湯, 加丁香、木香, 日再服, 吐瀉漸稀, 手足微溫, 繼用黃芪益黃散 [方見慢驚], 調理脾胃而愈.
- [의안] 상국(相國) 조현명(趙顯命)의 아들이 구토와 설사를 셀 수 없을 정도로 계속하면서 나날이 점차 위독해져 얼굴이 창백하고 사지 끝부터 냉하며 혼수상태로 깨어나지 못하면서 만경풍이 되려고 하였다. 상국께서는 어찌 할 수 없다 여기고는 포기하고 돌보지 않으셨다. 내가 부자이중탕에 정향·목향을 더하여 하루 2번 복용하게 했더니 구토와 설사가 점점 줄어들면서 손발도 약간 따뜻해졌다. 이어서 황기익황산 [처방은 만경문에 나온다] 을 쓰면서 비위를 잘 조리 시키니 좋아졌다.
- 徐黃州 [宗壁] 子, 三歲得吐瀉危劇, 面青肢冷, 作一殭屍, 諸醫却走, 主家亦治瘞藏之具, 余適至, 視之仍思, 吐瀉之後, 土敗木賊, 必成慢驚, 而此則無驚氣, 有如中寒陽氣暴絕者然, 是陰厥陽不伸之致也, 乃用生附四君子湯 [方見慢脾], 有頃, 冷氣稍解, 仍以差安.
- [의안] 황주(黃州) 수령 서종벽(徐宗壁)의 아들이 3살 때 구토와 설사가 극심했

는데 얼굴이 창백하고 사지가 냉해 그저 하나의 시체 같았다. 여러 의원이 발길을 돌리고 그 집에서도 장례 용구를 준비하였다. 내가 그때 도착하여 환자를 보고는 생각하였다. '구토와 설사 후에는 비토(脾土)가 쇠약하고 간목(肝木)이 왕성하여 반드시 만경풍이 되는 법인데 이 아이는 경풍의 기미가 없으니 마치 중한(中寒)으로 양기가 갑자기 끊긴 것 같다. 이는 음결(陰厥)로 양기가 퍼지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고는 생부사군자탕 [처방은 만비(慢脾)문에 나온다] 을 쓰니 조금 후에 냉기가 점점 풀리면서 결국 좋아졌다.

○木香散

○목향산

治臟寒, 直射水穀, 又治上熱下冷, 口瘡瘰癧.

장한(臟寒)으로 물이나 음식을 먹자마자 설사하는 경우를 치료한다. 또한 상부는 뜨겁고 하부는 냉하면서 입에 창이 생기고 바싹 마르는 경우도 치료한다.

木香、破古紙(炒) 各一兩, 良姜、縮砂(炒)、厚朴 各七錢半, 赤芍藥、陳皮、肉桂、白朮 各五錢, 吳茱萸、胡椒 各二錢半, 肉豆蔻(煨) 四箇, 檳榔 一箇.

목향、파고지(볶는다) 각 1냥, 양강、축사(볶는다)、후박 각 7.5돈, 적작약、진피、육계、백출 각 5돈, 오수유、호초 각 2.5돈, 육두구(재에 묻어 굽는다) 4개, 빈랑 1개.

右細末, 每三錢, 猪肝四兩, 批開重重糝藥末, 漿水一椀, 入醋少許, 蓋覆煮熟, 入鹽少許, 葱白三莖, 生薑彈子大, 同煮, 水欲盡, 空心, 作一服, 冷食之, 初微瀉泄不妨, 經年滑泄與冷痢, 只一服即止, 渴則飲粥湯.

이상을 곱게 가루 낸다. 한 번에 3돈씩 칼집을 겹겹이 낸 저간(猪肝) 4냥에 뿌리고 장수(漿水) 1사발에 식초를 조금 넣고 뚜껑을 덮어 불에 올린 후 소금 약간과 총백 3줄기와 탄자 크기의 생강을 넣고 함께 달인다. 물이 거의 졸아들면

1번 먹을 분량으로 만들어 빈속에 식혀서 먹는다. 약을 먹은 초기에 약간 똥을 지리는 것은 상관 없다. 오랫동안 설사 또는 냉痢(冷痢)을 한 경우에도 1번만 복용하면 즉시 멎는다. 갈증이 나면 죽이나 뜨거운 물을 마신다.

○實腸散

○실장산

治虛冷泄瀉, 身冷腹痛.

비장과 위가 허랭하여 설사하면서 몸이 냉하고 배가 아픈 증상을 치료한다.

厚朴(製) 一錢半, 肉豆蔻(煨)、訶子(炮)、縮砂(炒)、陳皮、蒼朮、赤茯苓 各一錢, 木香、甘草 各五分.

후박(법제한다) 1.5돈, 육두구(재에 묻어 굽는다)、가자(습지에 싸서 굽는다)、축사(볶는다)、진피、창출、적복령 각 1돈, 목향、감초 각 5푼.

右剉, 入薑三棗二, 水煎服.

이상을 썬 후 생강 3조각과 대조 2개를 넣고 물에 달여 복용한다.

○沒石子丸

○몰석자환

治泄痢久不止, 又治痞痢滾瀉.

설사와 이질이 오랫동안 멎지 않는 경우를 치료한다. 또한 감리(痞痢)나 설사도 치료한다.

沒石子 一箇, 白豆蔻(煨) 五箇, 訶子(炮) 二箇, 木香、黃連 各一錢.

몰석자 1개, 백두구(재에 묻어 굽는다) 5개, 가자(습지에 싸서 굽는다) 2개, 목향、황련 각 1돈.

右細末, 飯丸麻子大, 每十五丸, 米飲下.

이상을 곱게 가루 낸 후 밥에 개어 마자 크기로 환을 빚고 한 번에 15환씩 미음으로 넘긴다.

○固腸丸

○고장환

治泄痢日久滑數不止, 肌膚日漸瘦削.

설사나 이질이 오랫동안 잦고 그치지 않아 살이 날마다 점점 야위는 경우를 치료한다.

龍骨(煨)、附子(炮)、枯礬、訶子皮 各五錢, 丁香、良姜、赤石脂、白豆蔻(煨)、砂仁(炒研) 各二錢半, 木香 一錢半.

용골(불에 달군다)、부자(습지에 싸서 굽는다)、고백반、가자피 각 5돈, 정향、양강、적석지、백두구(재에 묻어 굽는다)、사인(볶아서 간다) 각 2.5돈, 목향 1.5돈.

右細末, 醋糊丸菉豆大, 粟米飲下一二十丸.

이상을 곱게 가루 낸 후 식초를 넣어 쑨 풀에 개어 녹두 크기로 환을 빚고 좁쌀로 쑨 미음으로 10 - 20환을 넘긴다.

○朝眞丹

○조진단

治寒盛, 洞泄不止, 腸鳴腹痛, 手足厥冷, 脈微弱.

몸에 한기가 왕성하여 설사가 멎지 않고 꾸룩 소리가 나면서 배가 아프고 손발이 끝부터 냉해지며 맥이 미약(微弱)한 경우를 치료한다.

硫黃(生研) 三兩, 白礬(煨) 七錢半, 朱砂 三錢(爲衣).

유황(생것을 간다) 3냥, 백반(불에 달군다) 7.5돈, 주사 3돈(겉에 입힌다).

右細末, 水浸蒸餅和丸梧子大, 朱砂爲衣, 米飲下三十丸.

이상을 곱게 가루 낸 후 물에 담갔던 증병(蒸餅)에 개어 오동자 크기로 환을 빚고 주사를 겉에 입힌다. 미음으로 30환을 넘긴다.

- 李參判 [眞淳] 子, 生未百日, 得吐瀉, 津液枯竭, 身熱大渴, 慢驚之成, 正在頃刻, 一日之內, 用錢氏白朮散 [方見慢驚], 加肉豆蔻、白扁豆、山藥, 三貼餘, 諸症頓減而痊, 此錢氏方中, 不問陰陽, 多煎滿意取足用之, 彌多彌好之法也.
- [의안] 참판(參判) 이진순(李眞淳)의 아들이 태어난 지 100일도 안되었을 때 구토와 설사를 하면서 진액이 마르고 몸통이 뜨거우며 갈증이 심한 상태로 만경풍이 되기 일보직전이었다. 하루 사이에 전씨백출산 [처방은 만경(慢驚)문에 나온다] 에 육두구·백편두·산약을 더하여 쓰니 3첩 정도를 복용하고는 증상들이 급감되면서 나았다. 이 전씨백출산은 음증과 양증을 불문하고 많이 달여 만족할 때까지 쓰는데 많이 쓸수록 더욱 좋은 치료법이다.

小兒吐瀉, 脾元虛損者, 大宜溫補以回陽氣, 唯尋常時行吐瀉, 不可遽投熱藥, 瀉止痢作無疑, 宜以平和順利之劑, 調治之.

아이가 구토와 설사로 위기(胃氣)가 허약해진 경우에는 따뜻하게 보하여 양기를 회복시키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 오직 일상적으로 유행하는 구토와 설사만큼은 갑자기 뜨거운 성질의 약을 갑자기 투여하지 않아야 하니 설사는 몇지만 이질이 생길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속을 편안하게 하면서 순리대로 소통시키는 약으로 잘 조리하면서 치료해야 한다.

○參苓蓮朮散

○삼령연출산

治氣虛泄瀉, 昏困無力, 飲食不進, 大病後調理脾胃.

기허(氣虛)로 설사하면서 힘없이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음식을 넘기지 못하는 경우를 치료한다. 큰 병을 앓은 후에 비장과 위를 조리하는 약이다.

人參、白朮、白茯苓、山藥(炒)、蓮肉、陳皮 各一錢, 砂仁(炒)、藿香、訶子(炮)、肉豆蔻(煨)、乾薑(炮)、甘草(炙) 各五分.

인삼、백출、백복령、산약(볶는다)、연육、진피 각 1돈, 사인(볶는다)、곽향、가자(습지에 싸서 굽는다)、육두구(재에 묻어 굽는다)、건강(습지에 싸서 굽는다)、자감초 각 5푼.

右剉, 入烏梅一箇, 燈心一團, 水煎服, 或麤末, 每二錢, 入薑棗各一, 煎服.

이상을 썬 후 오매 1개, 등심 1단을 넣고 물에 달여 복용한다. 혹은 거칠게 가루 낸 후 한 번에 2돈씩 생강 1조각과 대조 1개를 넣고 물에 달여 복용한다.

○參苓白朮散

○삼령백출산

治內傷脾胃虛弱, 飲食不進, 或吐瀉, 凡大病後, 調助脾胃, 此藥極妙.

내상으로 비장과 위가 허약해져 음식을 넘기지 못하고 간혹 구토와 설사를 하는 증상을 치료한다. 대체로 큰 병을 앓은 후에 비장과 위를 조리하는 데는 이 약이 매우 좋다.

人參、白朮、白茯苓、山藥(炒)、甘草(炙) 各三錢, 薏苡仁、蓮肉、桔更、白扁豆(炒)、砂仁(炒) 各一錢半.

인삼、백출、백복령、산약(볶는다)、자감초 각 3돈, 의이인、연육、길경、백편두(볶는다)、사인(볶는다) 각 1.5돈.

右細末, 每二錢, 棗湯點服, 或剉, 取二錢, 入薑棗各二, 煎服.

이상을 곱게 가루 낸 후 한 번에 2돈씩 대추 달인 물에 타서 복용한다. 혹은 약재를 썬 후 2돈을 생강 2조각과 대조 2개와 함께 물에 넣고 달여 복용한다.

◦助胃膏

◦조위고

治小兒吐瀉，和脾胃，進乳食，大病後調理最妙.

아이가 구토와 설사를 하는 증상을 치료한다. 이 약은 비장과 위를 편안하게 하여 젖이나 음식을 잘 먹을 수 있게 한다. 큰 병을 앓은 후 비위를 조리하는 데 가장 좋다.

山藥(炒) 五錢, 人參、白朮、白茯苓、陳皮、甘草 各二錢半, 木香 一錢, 砂仁(炒) 二十箇, 白豆蔻(煨) 七箇, 肉豆蔻(煨) 二箇.

산약(볶는다) 5돈, 인삼、백출、백복령、진피、감초 각 2.5돈, 목향 1돈, 사인(볶는다) 20개, 백두구(재에 묻어 굽는다) 7개, 육두구(재에 묻어 굽는다) 2개.

右細末, 蜜丸梔子大, 每一丸, 米飲化下, 或爲末, 一二錢, 木瓜煎湯調服. ◦一方, 加官桂、藿香、丁香.

이상을 곱게 가루 낸 후 꿀에 개어 조각자 크기로 환을 빚고 한 번에 1환씩 미음에 녹여서 넘긴다. 혹은 가루 내어 1 - 2돈을 목과 달인 물에 타서 복용한다. ◦어떤 서적에는 관계、곽향、정향이 추가되어 있다.

◦和胃丸

◦화위환

治吐瀉不止，脾虛生風，欲成慢驚.

구토와 설사가 멎지 않아 비장이 허해져서 생긴 풍증이 만경풍으로 되려고 하는 경우를 치료한다.

丁香、白朮 各一兩, 半夏 五錢, 藿香、蝎尾 各一錢.

정향·백출 각 1냥, 반하 5돈, 곽향·갈미 각 1돈.

右末, 薑汁糊丸梧子大, 一歲兒十丸, 薑湯化下.

이상을 가루 낸 후 생강즙을 넣어 쏘 풀에 개어 오동자 크기로 환을 빚는다. 1살 아이 기준으로 10환을 생강탕에 녹여 넘긴다.

◦養元散

◦양원산

治泄瀉少食腹脹, 肌膚黃瘦, 困倦無氣.

설사를 하고 음식을 잘 먹지 못하여 배가 똥똥하고 살이 누렇게 뜨면서 여위며 기운 없이 피곤해하는 경우를 치료한다.

糯米 一升(水浸一宿, 濾乾, 慢火炒極熟, 爲細末), 山藥(炒末) 一兩, 胡椒(末) 少許.

나미 1되(물에 하룻밤 재웠다가 걸러서 말린다. 약한 불에 볶아 완전히 익으면 곱게 가루 낸다), 산약(볶은 후 가루 낸다) 1냥, 호초(가루) 약간.

右和勻, 每日侵晨, 用半盞, 再入砂糖二匙, 滾湯調服, 其味極佳, 大有滋補, 或加蓮肉、芡仁炒末, 尤佳.

이상을 골고루 섞고 매일 새벽 0.5잔에 사당 2술을 더 넣은 후 끓인 물에 타서 복용한다. 맛이 아주 좋으면서 기운을 북돋는 힘이 크다. 혹은 볶아서 가루 낸 연육과 검인을 더하면 더욱 효과가 좋다.

◦啓脾散

◦계비산

百病愈後, 俱用此藥調脾.

온갖 병이 나은 후에는 모두 이 약을 써서 비장을 조리한다.

蓮肉 一兩, 白朮、白茯苓、山藥(炒)、神麴(炒)、山楂肉 各五錢, 人參、猪苓(去皮)、澤瀉(蒸)、藿香、木香、當歸(身)、白芍藥(微炒)、砂仁(炒) 各三錢, 肉豆蔻(煨) 三箇, 陳皮 二錢, 甘草 一錢.

연육 1냥, 백출·백복령·산약(볶는다)·신국(볶는다)·산사육 각 5돈, 인삼·저령(겉질을 제거한다)·택사(찢다)·곽향·목향·당귀(신)·백작약(살짝 볶는다)·사인(볶는다) 각 3돈, 육두구(재에 묻어 굽는다) 3개, 진피 2돈, 감초 1돈.

右末, 薑湯任意調服. ◦驚風後, 加辰砂、滑石各二錢.

이상을 가루 낸 후 생강탕에 타서 먹고 싶은 만큼 복용한다. ◦경풍(驚風)을 앓은 후에는 진사·활석 각 2돈을 더한다.

◦三和散

◦삼화산

治吐瀉後, 津液焦燥, 煩渴引飲.

구토와 설사 후에 몸의 진액이 바짝 말라 번갈로 물을 찾는 경우를 치료한다.

蓮肉 三錢, 木瓜 一錢, 烏梅 二箇(去核).

연육 3돈, 목과 1돈, 오매 2개(씨를 제거한다).

右剉, 水煎, 和砂糖或白蜜少許, 時時呷服.

이상을 썰어 물에 달인 후 사당이나 꿀을 약간 타서 자주 복용한다.

◦守胃散

◦수위산

治陰陽不和, 吐瀉不止, 服此藥, 預防慢驚.

음기와 양기가 고르지 않아 구토와 설사가 멎지 않는 증상을 치료한다. 이 약을 복용하면 만경풍을 예방할 수 있다.

人參、白朮、白茯苓、山藥(炒)、白扁豆(炒)、葛根、藿香、南星(切片, 瓦器盛, 東壁土同醋煮少時, 焙乾)、防風、天麻、甘草(炙) 各一錢.

인삼、백출、백복령、산약(볶는다)、백편두(볶는다)、갈근、곽향、남성(절편으로 썰고 질그릇에 담은 후 동벽토와 함께 식초에 잠깐 달이고 결불에 말린다)、방풍、천마、자감초 각 1돈.

右麤末, 每二錢, 水一鍾, 入薑三, 冬瓜仁五十粒碎, 煎至半, 空心溫服, 如瀉不止, 加沈香、白豆蔻, 同煎服.

이상을 거칠게 가루 낸 후 한 번에 2돈씩 물 1잔에 생강 3조각과 동과인(부순다) 50알과 함께 넣고 절반이 되도록 달여 빈속에 따뜻하게 데워서 복용한다. 그래도 설사가 멎지 않으면 침향、백두구를 더하여 함께 달여 복용한다.

○調氣散

○조기산

治冷熱不調, 乳哺不節, 冷氣與眞氣相擊, 上攻心, 下攻腹, 吐利不止.

주변의 온도가 적절하지 않을 때 젖을 너무 많이 먹인 후 냉기와 진기가 부딪혔다가 냉기가 위로는 심장을 침범하고 아래로는 배를 침범하여 구토와 설사가 멎지 않는 경우를 치료한다.

白朮、白茯苓、人參、桔梗 各五分, 厚朴、甘草(炙) 各四分.

백출、백복령、인삼、길경 각 5푼, 후박、자감초 각 4푼.

右麤末, 每一二錢, 入薑一片, 水一盞, 煎至六分, 溫服.

이상을 거칠게 가루 낸 후 한 번에 1 - 2돈씩을 생강 1조각과 함께 물 1잔에 넣고 6할이 되도록 달인다. 따뜻하게 데워서 복용한다.

夏月蒸炎之時, 乳食後即入睡, 夜臥失被, 風冷之氣, 侵入臍腹, 脹滿雷鳴, 暴泄如水者, 六一散 [方見暑症], 加蒼朮、神曲并炒各一錢, 細末, 薑茶湯調服, 或蒼朮防風湯, 加神麴、麥芽.

폭폭 찢는 여름철에 젖이나 음식을 먹은 후 곧바로 잠들었다가 밤에 자면서 옷이나 이불을 건어서 찬바람이 배꼽 부근으로 들어가면 배가 뽕뽕해지고 꾸르륵 소리가 나며 물 같은 설사를 심하게 한다. 이 경우에는 육일산 [처방은 서증(暑症)문에 나온다] 에 창출·신국(모두 볶는다) 각 1돈을 더하여 곱게 가루 낸 후 생강이나 차 달인 물에 타서 복용한다. 혹은 창출방풍탕에 신국·맥아를 더하여 쓴다.

腎泄者, 即晨泄, 每夜五更, 或早朝洞泄, 此脾腎虛冷之致, 以破故紙、乾薑、肉桂、木香、當歸之類, 溫補脾腎.

신설(腎泄)은 새벽에 설사하는 것이다. 한밤중이나 이른 아침마다 줄줄 설사하는 것은 비장과 신장이 허랭하기 때문이다. 파고지·건강·육계·목향·당귀 같은 약재로 비장과 신장을 따뜻하게 보해야 한다.

○二神丸

○이신환

治脾腎虛泄.

비장과 신장이 허하여 설사하는 경우를 치료한다.

破故紙(炒) 四兩, 肉豆蔻(生) 二兩.

파고지(볶는다) 4냥, 육두구(생것) 2냥.

右爲末, 肥棗四十九枚, 生薑四兩切片, 同煮爛, 去薑取棗肉, 入藥末和勻, 丸如梧子大, 空心, 鹽湯下一二十丸.

이상을 가루 낸다. 통통한 대조 49개와 절편으로 썬 생강 4냥을 함께 달이다가 푹 익으면 생강을 버리고 대추 과육만 건진다. 이 대추 과육을 약가루와 잘 섞어 오동자 크기로 환을 빻은 후 빈속에 끓인 소금물로 10 - 20환을 넘긴다.

○三神丸

○삼신환

二神丸, 加木香一兩. ○破故紙補腎, 肉豆蔻補脾, 木香順氣, 脾實腎枉, 而氣能斡旋, 泄何有之.

이신환에 목향 1냥을 더한 것이다. ○파고지는 신장을 보하고, 육두구는 비장을 보하며, 목향은 기를 순조롭게 운행시킨다. 비장이 튼튼해지고 신장이 왕성해지면서 기가 순조롭게 운행되면 설사가 어떻게 있을 수 있겠는가.

○四神丸

○사신환

治脾腎虛泄, 及經年晨泄.

비장과 신장이 허하여 설사하는 증상과 몇 년 동안 새벽마다 설사하는 경우를 치료한다.

破故紙(酒浸炒) 四兩, 肉豆蔻(煨)·五味子(炒) 各二兩, 吳茱萸(湯泡炒) 一兩.

파고지(술에 담갔다가 볶는다) 4냥, 육두구(재에 묻어 굽는다)·오미자(볶는다) 각 2냥, 오수유(끓는 물에 담갔다가 볶는다) 1냥.

二方製服法, 上二神丸同, 而但生薑八兩棗百枚同煮, 去薑取棗和丸.

이 2가지 처방(삼신환, 사신환)의 제법과 복용법은 위에 나온 이신환과 같다.
다만 생강 8냥과 대조 100개를 함께 달이다가 생강은 버리고 대조만 건져 환을
빚는다는 점이 다르다.

六神丸

육신환

治脾腎俱虛泄瀉.

비장과 신장이 모두 허하여 설사하는 증상을 치료한다.

肉豆蔻(煨)、破故紙(炒)、白朮、白茯苓 各一錢半, 木香、甘草(炙) 各七分.

육두구(재에 묻어 굽는다)、파고지(볶는다)、백출、백복령 각 1.5돈, 목향、
자감초 각 7푼.

右剉, 入薑三棗二, 空心, 煎服.

이상을 썬 후 생강 3조각과 대조 2개를 넣고 달여 빈속에 복용한다.

五味子散

오미자산

治腎泄, 每於五更或天明, 洞泄一次, 謂之晨泄.

신설(腎泄)을 치료한다. 한밤 중이나 이른 아침마다 한 번씩 줄줄 설사하는 것
을 신설(晨泄)이라고 한다.

五味子 二兩, 吳茱萸(湯泡) 五錢.

오미자 2냥, 오수유(끓는 물에 담근다) 5돈.

右并炒香, 爲細末, 每二錢, 空心, 米飲調下.

이상을 모두 향이 나도록 볶은 후 곱게 가루 낸다. 한 번에 2돈씩 미음에 타서 빈속에 넘긴다.

- 蜜雲君 [壘] 子, 三四歲時, 泄瀉頻數, 若飲食失宜, 輒致洞泄, 而每朝放二三次以爲常, 如是者四五年, 形體瘦弱, 間用如聖丸之類, 以治洞瀉而無效, 又用四神丸之類, 以治腎泄, 而亦暫止, 不能久效, 八味元 [方見解顱], 加訶子、肉豆蔻、破故紙, 以補元陽, 而遂得差安.
- [의안] 밀운군(密雲君) 이훈(李壘)의 아들이 3 - 4살 때 설사를 자주 했다. 음식이 적절하지 않다 싶으면 줄줄 설사를 하곤 했는데 매일 아침마다 2 - 3번 하는 것이 보통이었다. 이렇게 4 - 5년이 지나니 몸이 마르고 허약해졌다. 그동안 감질로 생긴 설사라고 여기고 여성환 같은 약을 써서 치료하려 했으나 효과가 없었고, 신설(腎泄)이라고 여기고 사신향 같은 약을 써서 치료하려 했으나 그 또한 잠시 멎었을 뿐 효과가 계속되지 않았다. 팔미원 [처방은 해로(解顱)문에 나온다] 에 가자·육두구·파고지를 더하여 써서 원기와 양기를 보해주었더니 드디어 좋아졌다.

古方, 小兒吐瀉, 因乳食傷者多矣, 宜節其乳, 一日三四次, 或四五次, 不可過飽, 蓋乳味太甘, 易滯不下, 仍成嘔泄, 既傷於乳, 而又復過乳, 是何異於以薪救火, 宜頻與米飲, 調和脾胃, 凡病調治皆然, 而至於吐瀉, 尤當慎飲乳, 切不可過飽, 奪食乃已, 此損其乳食, 調理脾胃之一道也.

옛 방서에 이런 말이 있다. '아이가 구토와 설사를 하는 이유는 젖이나 음식에 상한 경우가 대부분일 것이다. 젖을 적절하게 먹어야 하니 하루 3 - 4번 혹은 4 - 5번까지 먹이되 너무 배불리 먹어서는 안된다.' 젖의 성미는 너무 달기 때문에 정체되어 내려가지 않기가 쉽고 결국 구토나 설사가 되고 만다. 이미 젖에 상한 상태에서 다시 젖을 지나치게 먹인다면 쉼을 지고 불에 뛰어드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는가. 자주 미음을 먹여서 비위의 기운을 조리해야 한다. 모든 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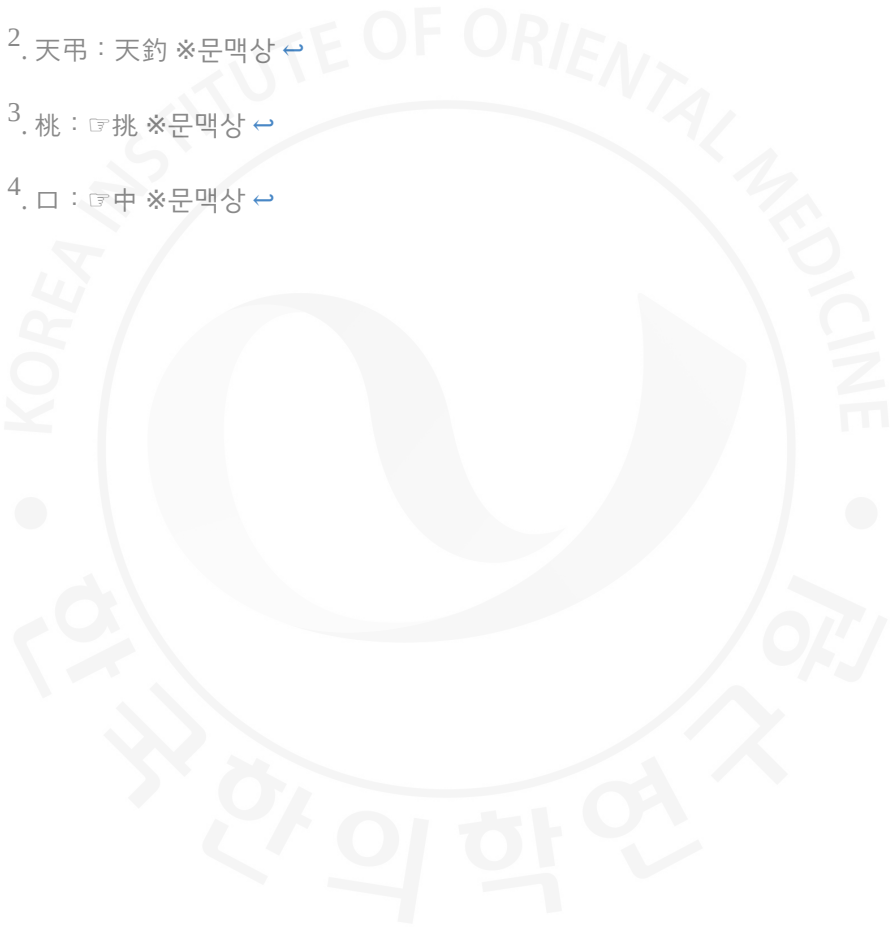
의 조리법이 다 같지만 구토와 설사에 있어서는 더욱 젓 먹이는 것을 조심해야 한다. 절대 너무 배불리 먹여서는 안되니 음식을 뺏아서라도 멈춰야 한다. 이 것이 젓이나 음식에 손상되었을 때 비위를 조리하는 첫번째 방법이다.

1. 肥 : 肌 ※문맥상 [↩](#)

2. 天弔 : 天鈞 ※문맥상 [↩](#)

3. 桃 : 𣎵挑 ※문맥상 [↩](#)

4. 口 : 𣎵中 ※문맥상 [↩](#)



痢疾 이질

小兒痢疾, 與大科同, 但所異者, 驚痢疳痢, 參考本門, 其他諸痢, 若初發惡寒頭疼身熱者, 挾外感也, 宜解散表邪, 倉稟散, 外感挾食者, 不換金正氣散 [方見外感], 腹痛後重甚, 感應丸, 或消積丸 [方見諸積], 暑月, 解暑清熱利濕爲主.

아이의 이질은 성인과 대부분 같지만 경리(驚痢)와 감리(疳痢)가 있다는 점이 다르니 각 문을 참고해야 한다. 나머지 여러 이질의 경우 초기에 오한·두통·신열(身熱)이 있으면 외감을 겸한 것이니 표부의 사기를 흠어 주는 창름산을 써야 한다. 외감에 식상(食傷)을 겸한 경우에는 불환금정기산 [처방은 외감문에 나온다] 을 쓴다. 배가 아프면서 뒤가 묵직한 증상이 심하면 감응환이나 소적환 [처방은 제적(諸積)문에 나온다] 을 쓴다. 여름철에는 더위를 풀고 열을 내리며 습사를 빼는 치료를 위주로 해야 한다.

熱痢者, 與暑痢同, 身熱煩渴, 臍腹刺痛, 裏急後重, 下純血或赤白膿血, 輕者黃芩芍藥湯, 重者導滯湯.

열리(熱痢)는 서리(暑痢)와 같다. 몸통이 뜨겁고 번갈이 있으며 배꼽 부근이 찌르듯이 아프고 뱃속이 당기면서 뒤가 묵직하며 피나 적백색 피고름을 싣다. 증상이 가벼운 경우에는 황금작약탕을 쓰고, 무거운 경우에는 도체탕을 쓴다.

黃芩芍藥湯

황금작약탕

治下痢膿血, 身熱腹痛.

이질로 피고름을 지리고 몸통이 뜨거우면서 배가 아픈 증상을 치료한다.

黃芩、白芍藥 各二錢, 甘草 一錢.

황금、백작약 각 2돈, 감초 1돈.

右剉, 水煎服.

이상을 썬 후 물에 달여 복용한다.

導滯湯

도체탕

治熱痢膿血, 身熱作渴, 裏急後重, 度數無筭.

열리(熱痢)로 피고름을 지리고 몸통이 뜨거우면서 갈증이 나고 뱃속이 당기면서 뒤가 묵직하며 지리는 횟수가 셀 수 없이 많은 경우를 치료한다.

白芍藥 二錢, 當歸、黃芩、黃連 各一錢, 大黃、桂心、木香、檳榔、甘草 各三分.

백작약 2돈, 당귀·황금·황련 각 1돈, 대황·계심·목향·빈랑·감초 각 3푼.

右剉, 水煎服.

이상을 썬 후 물에 달여 복용한다.

黃連阿膠湯

황련아교탕

治熱毒, 下痢膿血, 或如爛肉汁.

열독으로 피고름을 지리거나 썩은 고기의 즙 같은 것을 지리는 경우를 치료한다.

黃連、阿膠珠、黃栢(酒炒)、梔子(炒) 各一錢二分半.

황련·아교주·황백(술에 축여 볶는다)·치자(볶는다) 각 1.25돈.

右剉, 水煎服.

이상을 썬 후 물에 달여 복용한다.

寧胃散

영위산

治赤白熱痢, 腹痛後重.

적백리나 열리(熱痢)로 배가 아프면서 뒤가 묵직한 경우를 치료한다.

白芍藥 二錢, 黃芩、黃連、木香、枳殼 各一錢半, 陳皮 一錢, 甘草(炙) 五分.

백작약 2돈, 황금、황련、목향、지각 각 1.5돈, 진피 1돈, 자감초 5푼.

右剉, 水煎服. ¹ 去木香, 加白茯苓, 名清熱化滯湯.

이상을 썬 후 물에 달여 복용한다. ○목향을 제거하고 백복령을 더하면 청열화체탕이라고 부른다.

解毒金花散

해독금화산

治熱毒膿血痢.

열독으로 피고름 지리는 것을 치료한다.

黃連、黃栢、白朮、黃芩、赤茯苓、赤芍藥 各一錢.

황련、황백、백출、황금、적복령、적작약 각 1돈.

右剉, 水煎服.

이상을 썬 후 물에 달여 복용한다.

地榆散

지유산

治熱毒, 下純血, 或赤白膿血痢.

열독으로 피를 싸거나 적백리나 적백색의 피고름을 지리는 경우를 치료한다.

地榆、犀角、黃連(炒)、葛根、黃芩 各一錢, 梔子(炒) 五分.

지유、서각、황련(볶는다)、갈근、황금 각 1돈, 치자(볶는다) 5푼.

右剉, 入薤白五莖, 水煎服.

이상을 썬 후 해백 5줄기를 넣고 물에 달여 복용한다.

烏梅丸

오매환

治熱痢, 腹痛下純血.

열리(熱痢)로 배가 아프면서 피를 지리는 경우를 치료한다.

黃連 一兩半, 烏梅肉、枳殼、當歸 各一兩.

황련 1.5냥, 오매육、지각、당귀 각 1냥.

右細末, 醋糊丸菉豆大, 每二三十丸, 米飲下.

이상을 곱게 가루 낸 후 식초를 넣어 썬 풀에 개어 녹두 크기로 환을 빚고 한 번
에 20 - 30환씩 미음으로 넘긴다.

白痢者, 積冷毒也, 乳母冒寒與乳, 或觸冷而發, 感應丸挨去冷毒後, 調和脾胃, 或小建中湯 [方見腹痛].

백리(白痢)는 냉기가 축적되었기 때문에 생긴다. 유모가 추워하는 상태에서 젖을 물리거나 혹은 서늘한 곳에 있다가 발병한다. 감응환으로 냉기를 밀어낸 후에 비위를 조리시켜야 한다. 혹은 소견중탕 [처방은 복통문에 나온다] 을 쓴다.

赤白痢者, 冷熱不調, 赤白相半也, 順氣和中, 則腹痛裏急自除, 宜蘇感元.

적백리(赤白痢)는 주위의 온도가 일정하지 않아 적색과 백색이 절반씩 섞인 피고름을 지리는 것이다. 기운을 잘 소통시키며 속을 편안하게 하면 배가 아프고 뱃속이 당기던 증상이 저절로 없어진다. 소감원을 써야 한다.

小駐車元

소주거원

治赤白痢, 腹痛裏急後重.

적백리로 배가 아프고 뱃속이 당기면서 뒤가 묵직한 증상을 치료한다.

黃連 三兩, 阿膠珠 一兩半, 當歸 一兩, 乾薑 五錢.

황련 3냥, 아교주 1.5냥, 당귀 1냥, 건강 5돈.

右末, 醋糊丸菉豆大, 空心, 米飲下二三十丸.

이상을 가루 낸 후 식초를 넣어 쏘 풀에 개어 녹두 크기로 환을 빚고 빈 속일 때 미음에 20 - 30환을 넘긴다.

香連丸

향련환

治赤白痢, 腹痛後重, 及一切諸痢.

적백리로 배가 아프면서 뒤가 묵직한 증상 및 여러 가지 이질을 치료한다.

黃連 一兩(以吳茱萸五錢同炒, 去茱萸), 木香 二錢半.

황련 1냥(오수유 5돈과 함께 볶은 후 오수유는 제거한다), 목향 2.5돈.

右末, 醋糊丸小豆大, 空心, 米飲下二三十丸. ◦加啞芙蓉一錢, 名加味香連丸.

이상을 가루 낸 후 식초를 넣어 쏘 풀에 개어 소두(小豆) 크기로 환을 빚고 빈 속일 때 미음을 20 - 30환을 넘긴다. ◦아부용(啞芙蓉) 1돈을 더하면 가미향련 환이라고 부른다.

立效散

입효산

治赤白, 膿血腹痛, 裏急後重.

적백리로 피고름을 지리고 배가 아프며 뱃속이 당기고 뒤가 묵직한 증상을 치료한다.

黃連 四兩(以吳茱萸二兩, 水拌同炒, 去茱萸), 枳殼(夫炒) 二兩.

황련 4냥(오수유 2냥을 물에 버무려 함께 볶은 후 오수유는 제거한다), 지각(밀기울과 함께 볶는다) 2냥.

右末, 每一二錢, 空心, 黃酒送下.

이상을 가루 낸 후 한 번에 1 - 2돈씩 빈속에 황주(黃酒)로 넘긴다.

積痢者, 食積乳滯而發, 狀如魚腦漿, 肚熱脹痛, 裏急後重, 比他痢有加, 一日下百餘度, 以通利爲主, 蓋無積不成痢, 小兒之痢, 皆由於乳食積滯, 宜感應丸下之, 參考諸積門.

적리(積痢)는 식적(食積)이나 유체(乳滯)로 생긴다. 증상은 물고기 내장 같은 것을 지리고 배가 뜨거우면서 똥똥해지며 아프고 뱃속이 당기며 뒤가 묵직하다. 다른 이질보다 심하여 하루에 100여번 지리는데, 배출하는 것을 위주로 치

료해야 한다. 적체되지 않으면 이질이 생기지 않는 법이니 아이들의 이질은 모두 젖이나 음식이 적체되어 생긴다. 감응환으로 하법을 써야 한다. 제적(諸積)문을 참고하라.

感應元

감응원

治積痢腹痛, 痢²急後重, 度數無算.

적리(積痢)로 배가 아프고 뱃속이 당기면서 뒤가 묵직하며 셀 수 없을 정도로 지리는 경우를 치료한다.

肉豆蔻(煨)、白薑(炮)、百草霜 各二兩, 木香 一兩半, 萆澄茄、三稜(炮)、丁香 各一兩, 巴豆 百粒(爲霜), 杏仁 百粒(夫炒), 黃蠟(酒煮) 四兩, 清油 一兩.

육두구(재에 묻어 굽는다)、백강(습지에 싸서 굽는다)、백초상 각 2냥, 목향 1.5냥, 필징가、삼릉(습지에 싸서 굽는다)、정향 각 1냥, 파두 100알(파두상으로 만들어 쓴다), 행인 100알(밀기울과 함께 볶는다), 황랍(술에 넣고 끓인다) 4냥, 청유 1냥.

右七味細末, 入巴豆、杏仁末, 先將油煎蠟令熔化, 拌和藥末, 每一兩, 分作十錠, 每一錠或半錠, 米飲調服, 或作丸菉豆大, 每十丸, 白湯下.

앞에서부터 7개 약재를 곱게 갈고 파두、행인 가루를 넣는다. 미리 청유에 황랍을 달이다가 황랍이 녹으면 약가루와 잘 섞는다. 섞은 것 1냥을 나누어 10알로 만들고 한 번에 1알이나 0.5알씩 미음에 타서 복용한다. 혹은 녹두 크기로 환을 빻은 후 한 번에 10환씩 끓인 물에 넘긴다.

蘇感元

소감원

治赤痢, 腹內緊痛, 能行氣下積. ◦麝香蘇合元四分, 感應元六分, 研勻, 丸服如上法.

적리(赤痢)로 뱃속이 당기면서 아픈 증상을 치료한다. 이 약은 기를 운행시키고 적취를 배출시킨다. ◦사향소합원 4푼과 감응원 6푼을 갈아서 잘 섞고 환으로 빚은 후 위의 감응원과 같은 방법으로 복용한다.

水浸丹

수침단

治痢疾, 先鋒之藥.

이질을 치료할 때 선봉 역할을 하는 약이다.

黃丹 一兩(細研), 巴豆 四十九粒(去皮肉心, 不去油).

황단 1냥(곱게 간다), 파두 49알(껍질과 과육과 심은 제거하고 기름진 부분은 제거하지 않는다).

右細末, 清油二錢, 黃蠟半兩, 熔化拌勻, 丸菉豆大, 每二三丸, 米飲吞下, 或化服.

이상을 곱게 가루 낸 후 청유 2돈에 황랍 0.5냥을 녹여 잘 섞은 것에 개어 녹두 크기로 환을 빚는다. 한 번에 2 - 3환씩 미음으로 넘기거나 혹은 미음에 녹여서 복용한다.

生熟飲子

생숙음자

治大人諸痢, 及小兒虛積痢, 日夜度數無算.

성인의 여러 가지 이질 및 아이가 허리(虛痢)와 적리(積痢) 때문에 밤낮으로 셀 수 없이 지리는 경우를 치료한다.

鷲栗殼大者 四箇(去膿蒂, 半生半炙), 陳皮 二片(半生半炒), 甘草 二寸(半生半炙), 烏梅 二箇(半生半煨), 大棗 二枚(半生半煨), 木香 一錢(作兩片, 半生半煨), 訶子大者 二箇(半生半煨), 黑豆 六十粒(半生半炒), 黃芪 二寸(半生半炙), 白朮 二塊(半生半煨), 當歸 二寸(半生半煨), 生薑 二塊(半生半煨).

앵속각 큰 것 4개(속과 꼭지를 제거한다. 절반은 생것, 절반은 굽는다.), 진피 2조각(절반은 생것, 절반은 볶아 쓴다), 감초 2촌(절반은 생것, 절반은 굽는다), 오매 2개(절반은 생것, 절반은 재에 묻어 굽는다), 대조 2개(절반은 생것, 절반은 재에 묻어 굽는다), 목향 1돈(2조각으로 나누어 절반은 생것, 절반은 재에 묻어 굽는다), 가자 큰 것 2개(절반은 생것, 절반은 재에 묻어 굽는다), 흑두 60알(절반은 생것, 절반은 볶아 쓴다), 황기 2촌(절반은 생것, 절반은 굽는다), 백출 2덩이(절반은 생것, 절반은 재에 묻어 굽는다), 당귀 2촌(절반은 생것, 절반은 재에 묻어 굽는다), 생강 2덩이(절반은 생것, 절반은 재에 묻어 굽는다).

右剉, 和勻, 每服五錢, 水一盞半, 煎至半服, 小兒一二合.

이상을 썬 후 골고루 섞고 한 번에 5돈씩 물 1.5잔에 넣고 절반이 되도록 달여 복용한다. 아이는 1 - 2홉을 복용한다.

○此方分生熟均冷熱, 冷熱既散, 腸胃既厚, 則水穀自分, 何患瀉痢哉. [方中藥料一寸一塊者, 或云以一錢爲准.]

○이 처방은 생것과 익힌 것을 나누고 약성이 서늘한 것과 뜨거운 것을 골고루 조합하였다. 몸의 냉기와 열기가 흩어지고 장과 위가 튼튼해지면 대소변이 저절로 분리될 것이니 어찌 설사나 이질을 앓겠는가. [처방의 약재 중 1촌과 1덩이인 것은 어떤 이가 말하길 1돈에 준하면 된다고 하였다.]

虛痢者, 氣弱困倦, 乳食不化, 竝無努責, 與滑痢同, 血虛者, 四物湯 [方見血], 加參、朮、升麻, 氣虛者, 補中益氣湯 [方見泄瀉], 加黃連、木香.

허리(虛痢)는 기가 허약하고 몸이 피곤하여 젖이나 음식을 소화시키지 못하고 힘을 주지 않아도 대변이 나오는 것으로 활리(滑痢)와 증상이 같다. 혈이 허한 경우에는 사물탕 [처방은 혈문에 나온다] 에 인삼、백출、승마를 더하여 쓰고, 기가 허한 경우에는 보중익기탕 [처방은 설사문에 나온다] 에 황련、목향을 더하여 쓴다.

真人養臟湯

진인양장탕

治赤白痢, 日久不止.

적백리가 며칠 동안 멎지 않는 경우를 치료한다.

鷲栗殼(蜜炒) 一錢, 甘草 九分, 白芍藥 八分, 木香 七分, 訶子(炮) 六分, 肉桂、人參、當歸、白朮、肉豆蔻(煨) 各三分.

앵속각(꿀을 묻혀 볶는다) 1돈, 감초 9푼, 백작약 8푼, 목향 7푼, 가자(습지에 싸서 굽는다) 6푼, 육계、인삼、당귀、백출、육두구(재에 묻어 굽는다) 각 3푼.

右剉, 水煎, 空心, 量宜服.

이상을 썬 후 물에 달여 아이 몸집에 따라 빈속에 복용한다.

水煮木香膏

수자목향고

治一切諸痢, 日久虛脫.

여러 가지 이질이 며칠 동안 계속되어 기운이 허약해진 경우를 치료한다.

驚栗殼(蜜炒) 三兩, 縮砂、肉豆蔻(煨)、乳香 各七錢半, 木香、丁香、訶子(煨)、藿香、當歸、黃連、厚朴、陳皮、青皮、白芍藥、甘草(炙) 各五錢, 枳實、乾薑(炮) 各二錢半.

앵속각(꿀을 묻혀 볶는다) 3냥, 축사·육두구(재에 묻어 굽는다)·유향 각 7.5돈, 목향·정향·가자(재에 묻어 굽는다)·곽향·당귀·황련·후박·진피·청피·백작약·자감초 각 5돈, 지실·건강(습지에 싸서 굽는다) 각 2.5돈.

右末, 蜜丸彈子大, 水一盞, 棗一枚同煎, 至七分, 去棗, 和滓服. ○上二方, 溫澁之劑, 無腹痛後重裏急然後, 用此斷下.

이상을 가루 낸 후 꿀에 개어 탄자 크기로 환을 빚는다. 이것을 물 1잔에 대조 1개와 함께 달여 7할이 되면 대조를 빼고 건더기째 복용한다. ○위 2개 처방은 뱃속을 따뜻하게 하면서 잡아주는 약이니 복통과 뒤가 묵직하며 뱃속이 당기는 증상이 사라진 후에 이 약을 써서 이질을 끊어야 한다.

溫六丸

온륙환

治白痢及虛痢. ○益元散一劑, 入乾薑末一兩, 和勻, 飯丸梧子大, 白湯下三五十丸, 或米飲化服.

백리(白痢)와 허리(虛痢)를 치료한다. ○익원산 1첩에 건강 가루 1냥을 넣고 곱고루 섞은 후 밥에 개어 오동자 크기로 환을 빚는다. 끓인 물에 30 - 50환을 넘기거나 혹은 미음에 녹여서 복용한다.

清六丸

청륙환

治濕熱食滯, 暑泄痢. ○益元散三兩, 入神麴末半兩炒, 製服法上同, 或生薑雀舌煎湯吞下, 亦可.

습사와 열사로 체하거나 더위로 설사나 이질이 생긴 경우를 치료한다. ○익원산 약재 3냥에 신국 가루 0.5냥(볶는다)을 넣는다. 제법과 복용법은 위 처방(온룩환)과 동일하다. 혹은 생강과 작설차 달인 물로 삼켜도 무방하다.

噤口痢者, 熱毒上熏心肺, 噤口不食也, 宜參苓白朮散 [方見泄瀉], 去山藥, 加石菖蒲, 爲末, 粳米飲調服, 或石蓮肉二錢, 人參、赤茯苓各一錢, 桂心、木香各五分, 石菖蒲一分半煎服, 胸次一開, 自然思食.

금구리(噤口痢)는 열독이 심장과 폐장을熏증하여 입을 악다문 채 음식을 먹지 못하는 것이다. 삼령백출산 [처방은 설사문에 나온다]에서 산약을 빼고 석창포를 더하여 가루 낸 후 갱미로 쏜 미음에 타서 복용한다. 혹은 석련육 2돈, 인삼·적복령 각 1돈, 계심·목향 각 5푼, 석창포 1.5푼을 물에 달여 복용하면 가슴이 한 번 뚫리면서 자연히 음식 생각이 나게 된다.

倉稟散

창릉산

治心煩手足熱頭痛, 此乃毒氣上衝心肺, 所以嘔而不食.

가슴이 답답하면서 손발이 뜨겁고 머리가 아픈 증상을 치료한다. 이 증상은 열독이 심장과 폐장으로 치받기 때문에 구역질하면서 먹지 못하는 것이다.

石蓮肉 七枚, 黃連、羌活、獨活、柴胡、桔梗、枳殼、前胡、川芎、赤茯苓、人參、甘草 各一錢.

석련육 7개, 황련·강활·독활·시호·길경·지각·전호·천궁·적복령·인삼·감초 각 1돈.

右剉, 入薑三棗二, 陳倉米百粒同煎服, 量兒大小, 錢數加減用之.

이상을 썬 후 생강 3조각과 대조 2개를 넣고 진창미(陳倉米) 100알과 함께 달여 복용하되 아이의 몸집을 가늠하여 분량을 가감하여 쓴다.

參蓮湯

삼련탕

治噤口痢, 胃口熱甚.

금구리(噤口痢)로 위 속에 열이 심한 경우를 치료한다.

黃連 三錢, 人參、石蓮肉 各二錢.

황련 3돈, 인삼·석련육 각 2돈.

右剉, 水煎取濃汁, 細細呷之, 如吐再喫, 但得一呷下咽, 便開胸次.

이상을 썬 후 물에 진하게 달여 조금씩 먹인다. 토하면 다시 먹인다. 한 번 먹어서 넘기기만 하면 곧 가슴을 뚫어 준다.

石蓮散

석련산

治噤口痢, 仍以罨臍.

금구리(噤口痢)를 치료한다. 복용 후에는 엄제법(罨臍法)을 쓴다.

石蓮子搗去殼留心, 併肉研爲末, 每二錢, 陳米飲調服, 此疾由毒氣上衝心肺, 借此以通心氣, 便覺思食, 仍以東壁土炒、橘皮, 爲末, 入薑棗, 略煎服, 佐之.

석련자의 껍데기를 부수고 심은 남긴 채 과육과 함께 갈아 가루 낸 후 한 번에 2돈씩 묽은 쌀로 썬 미음에 타서 복용한다. 금구리는 열독이 위로 심장과 폐장을 치받아 생기는데 이 약으로 심장의 기운을 소통시키면 곧 음식 생각이 들

것이다. 그 후에 동벽토(볶는다)와 굴피를 가루 내고 생강과 대조를 넣어 살짝 달여 복용함으로써 약기운을 돕는다.

開噤湯

개금탕

治噤口痢.

금구리(噤口痢)를 치료한다.

砂糖 七錢, 細茶 五錢, 縮砂(炒) 一錢.

사당 7돈, 세다(細茶) 5돈, 축사(볶는다) 1돈.

右細末, 入薑五片, 水煎, 露一宿, 次早溫服. ○外用, 木鱉子去殼三錢, 麝香二分, 共搗, 罨臍中, 卽思食.

이상을 곱게 가루 낸 후 생강 5조각을 넣고 물에 달인다. 이것을 하룻밤 밖에 내놓았다가 다음날 아침에 따뜻하게 데워서 복용한다. ○외치법. 목별자(깍데기를 제거한다) 3돈과 사향 2푼을 함께 찧어 배꼽에 덮어 놓으면 곧 음식 생각이 난다.

實腸散

실장산

治久痢, 不分赤白, 用此藥, 換出黃糞來.

구리(久痢)를 치료한다. 적리와 백리에 상관없이 이 약을 쓰면 누런 똥으로 바뀌어 나온다.

山藥(炒) 一兩, 黃米(炒) 一合.

산약(볶는다) 1냥, 황미(볶는다) 1홉.

右細末, 用砂糖調熱湯, 和勻藥末, 適稀稠, 漸漸服, 後用清米湯漱口, 最效. [黃米卽生粟米]

이상을 곱게 가루 낸 후 사당을 탄 뜨거운 물에 잘 섞어서 적당히 걸쭉하게 하고 천천히 복용한다. 그 후에 청미탕(淸米湯)³으로 입을 헹구면 매우 효과가 좋다. [황미는 생좁쌀이다]

休息痢者, 乍發乍止, 經年不愈, 此脾腎虛弱, 不能收斂之致, 宜四君子湯 [方見泄瀉], 加破故紙、肉豆蔻, 或真人養臟湯.

휴식리(休息痢)는 발작했다가 멈추기를 반복하면서 오랫동안 낫지 않는 이질이다. 이 병은 비장과 신장이 허약하여 기운을 제대로 수렴하지 못하기 때문에 생긴다. 사군자탕 [처방은 설사문에 나온다] 에 파고지·육두구를 더하여 쓰거나 진인양장탕을 써야 한다.

三根飲

삼근음

治休息痢, 如神.

휴식리(休息痢)를 귀신 같이 치료한다.

五倍木根、蒼耳草根、臭樗木根(并刮取白皮) 各等分.

오배목근·창이초근·취저목근(모두 속껍질을 벗겨서 쓴다) 각각 같은 양.

右剉, 每服五六錢, 入薑三棗二, 黑豆三十六粒, 糯米四十九粒, 同煎, 量宜服.

이상을 썬 후 한 번에 5 - 6돈씩을 생강 3조각, 대조 2개, 흑두 36알, 나미 49알과 함께 달여 아이 몸집에 따라 복용한다.

疫痢者, 夏秋濕熱盛行之時, 一方長幼相似, 卽時行痢也, 宜用人參敗毒散 [方見外感], 加陳皮、白芍藥.

역리(疫痢)는 여름부터 가을까지 습기와 열기가 왕성할 때 한 지역에 어른과 아이가 비슷한 증상이 생기는 것이니 곧 유행성 이질이다. 인삼패독산 [처방은 외감문에 나온다] 에 진피 · 백작약을 더하여 써야 한다.

薑茶湯

강다탕

治疫痢腹痛, 長幼相似.

역리(疫痢)로 배가 아프며 어른과 아이의 증상이 비슷한 경우를 치료한다.

老生薑、春茶葉 等分.

늙은 생강 · 봄에 딴 찻잎 각각 같은 양.

右濃煎服. ○薑能助陽, 茶能助陰, 解暑毒酒食毒, 不問赤白冷熱疫痢, 腹痛通用. ○生薑, 留皮則涼, 去皮則溫, 熱痢留皮, 冷痢去皮.

이상을 물에 진하게 달여 복용한다. ○생강은 양기를 돕고 찻잎은 음기를 돕기 때문에 서독(暑毒) · 주독(酒毒) · 식독(食毒)을 풀어 준다. 적백리 · 냉리 · 열리 · 역리(疫痢)를 불문하고 배가 아플 때 통용하는 약이다. ○생강은 껍질째 쓰면 약성이 서늘하고 껍질을 벗기면 약성이 따뜻하므로 열리(熱痢)에는 껍질째 쓰고 냉리(冷痢)에는 껍질을 벗겨서 쓴다.

小兒脾胃虛弱, 有積而成痢者, 以苦寒之劑妄下, 則重竭胃氣, 變成浮腫脹滿, 有熱而煩痛者, 以溫澁之藥誤補, 則裏急後重, 反劇難治, 概順氣則腹痛自止, 和中則裏急自除, 小兒之痢, 尤宜次第緩治, 以免此患.

비장과 위가 허약한 아이의 경우 체한 후 이질이 되었을 때 고한(苦寒)한 약으로 하법을 잘못 쓰면 위기(胃氣)가 거둬 소모되어 온몸이 부으면서 배가 빵빵해지게 되고, 열이 나면서 답답하고 배가 아플 때 온습(溫澁)한 약으로 잘못 보하면 뱃속이 당기고 뒤가 묵직해지면서 도리어 증상이 심해져 치료가 어렵게

된다. 기운을 잘 돌게 하면 복통은 저절로 멎는 법이고, 속을 편안하게 하면 뱃속이 당기는 증상은 저절로 없어지는 법이다. 소아의 이질에는 더욱 차근차근 천천히 치료해야만 이와 같은 염려가 없을 것이다.

裏急者, 裏氣窘迫急痛也, 後重者, 虛坐努責, 欲便不便也.

뱃속이 당긴다(裏急)는 것은 뱃속의 기운이 거의 남아있지 않아 당기면서 아픈 것이고, 뒤가 묵직하다(後重)는 것은 한없이 앉아 힘만 주면서 대변을 보고 싶어도 대변이 나오지 않는 것이다.

大孔痛者, 濕熱下流, 肛門大痛也, 以瓦片圓如銅錢大, 入火燒紅, 投童便中, 急取令乾, 紙裹安肛痛處. ○又法, 灸枳殼慰肛痛⁴, 炒鹽慰之, 亦可.

대공통(大孔痛)은 습기와 열기가 흘러 내려와 항문이 몹시 아픈 것이다. 동전만한 기와 조각을 불에 넣어 빨갛게 달군 후 동변에 집어 넣었다가 바로 꺼내어 말리고 종이에 싸서 항문의 아픈 부분에 대고 있다. ○다른 방법. 지각을 불에 구워 항문의 아픈 부분에 찜질한다. 소금을 볶아 찜질해도 괜찮다.

脫肛者, 毒痢後重, 用力太過, 或氣虛下陷, 不能升提也, 宜補中益氣湯、升陽益胃湯 [二方見泄瀉], 又東壁土、葱白、艾葉同煎湯, 薰洗, 以五倍子細末, 或枯白礬細末, 糝附脫肛, 托入, 或五倍子濃煎湯, 薰洗, 服真人養臟湯, 氣虛脫肛, 推入即下, 色黑生殼者, 用巴豆殼燒灰末糝付, 或芭蕉自然汁者, 入朴硝少許, 洗之, 白礬煨過, 龍骨少許, 細末, 乾糝, 用芭蕉葉托入, 勿令便去, 出入令人抱定.

탈항(脫肛)은 독한 이질로 뒤가 묵직하여 힘을 너무 많이 주거나 혹은 중기(中氣)가 무너져 다시 끌어올릴 수 없는 것이다. 보중익기탕、승양익위탕 [두 처방은 설사문에 나온다] 을 써야 한다. 또는 동벽토、총백、애엽을 함께 달인 물로 훈증하고 씻은 후 곱게 간 오배자나 곱게 간 고백반을 항문에 뿌려 집어 넣어야 한다. 혹은 오배자를 진하게 달인 물로 훈증하고 씻은 후 진인양장탕을 복용한다. 기허(氣虛)로 탈항되었을 때 밀어 넣어도 금세 빠지고 검게 변하면서 딱지가 생긴 경우에는 파두 껍질 태운 재를 가루 내어 뿌린다. 혹은 파초 자

연즙에 박초를 약간 넣어 씻고 백반(충분히 달군다)과 용골 약간씩을 곱게 가루 내어 뿌린 후 파초의 잎을 대고 밀어 넣어 곧바로 떼지 말게 하고, 출입할 때도 다른 사람에게 잘 붙들고 있게 해야 한다.

治痢之法, 邪熱未盡, 腹痛後重尚在者, 以溫澁之劑斷下, 則腸胃閉塞, 大渴脹悶, 宜腹痛後重止息然後, 乃用斷下之法.

이질을 치료하는 방법. 열독이 완전히 없어지지 않아 배가 아프면서 뒤가 묵직한 증상이 여전히 남아 있을 때 온삽(溫澁)한 약으로 설사를 끊어버리면 장과 위가 막혀서 갈증이 심해지고 배가 똥똥하면서 답답해진다. 반드시 배가 아프면서 뒤가 묵직한 증상이 없어진 후에 설사를 끊는 치료법을 써야 한다.

一方, 小兒毒痢, 煩渴引飲, 度數無筭, 烏梅六七箇, 槌碎去核, 水煎, 和白蜜半斤, 細細呷之. ○臘雪水一升, 和白蜜、薑汁少許, 微溫快服, 治夏月熱痢, 煩渴引飲, 度數無筭, 裏急後重. ○藍葉搗取汁, 和薑蜜少許, 微溫服. ○馬齒莧, 如上法服, 並治夏月血痢. ○乾柿炒末一兩, 糯米炒黃末一合, 作粥飲, 此收澁止痢之藥也. ○白草霜一二錢, 調赤豆粥, 和蜜服. ○眞木炭末, 如上法服, 並治血痢, 腹痛後重. ○錢氏方, 小兒熱痢下血, 黃栢五錢, 赤芍藥四錢, 細末, 飯丸麻子大, 食前, 米飲下二三十丸, 大者加數. ○小兒傷於夏秋間暴冷之氣, 忽患白痢, 乍寒乍熱, 胡粉黃豆大研, 合鷄子一枚, 共調煮作餅, 任意, 羸弱不堪服藥, 宜用此餅. ○傷暑熱, 純下血, 心神煩悶, 地榆、黃栢炒、白茯苓各一兩, 細末, 蜜丸麻子大, 米飲下二三十丸, 或煮服亦可. ○五色痢, 腹痛後重, 厚朴、當歸酒浸、黃栢以鷄子白塗灸焦黃各等分, 細末, 蜜丸麻子大, 每三四十丸, 厚朴煎湯或米飲下. ○久痢, 無腹痛, 後重, 晝夜頻數, 或泄下, 用鶯粟殼大者五錢去蒂蜜水炒, 川芎酒炒二錢半, 細末, 每一錢或二錢, 量兒大小, 米飲調服以斷之.

어떤 서적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다. '아이가 독한 이질에 걸려 번갈로 물을 찾고 셀 수 없이 지리는 경우에는 오매 6 - 7개를 부수어 씨를 제거한 후 물에 달이고 꿀 0.5근을 타서 천천히 먹인다. ○납설수(臘雪水) 1되에 꿀과 생강즙을 조금 타고 미지근하게 데워 모두 먹으면 여름철 열리(熱痢)에 걸려 번갈

로 물을 찾고 셀 수 없이 지리며 뺏속이 당기면서 뒤가 묵직한 증상을 치료한다. ○쪽잎 짓찧은 즙에 생강즙과 꿀을 조금 타고 미지근하게 데워 복용한다. ○마치현을 앞의 방법대로 복용하면 두 경우 모두 여름철의 혈리(血痢)를 치료한다. ○꽃감(볶아서 가루 낸다) 1냥과 찹쌀(누렇게 볶아서 가루 낸다) 1홉으로 죽을 쑤면 대변을 잡아주고 이질을 멎게 하는 약이 된다. ○백초상 1 - 2돈을 팔죽에 섞은 후 꿀을 타서 복용한다. ○참나무 숯가루를 앞의 방법대로 복용하면 두 경우 모두 혈리(血痢)로 배가 아프면서 뒤가 묵직한 증상을 치료한다.' ○전씨의 책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다. '아이가 열리(熱痢)로 피를 싸는 경우에는 황백 5돈과 적작약 4돈을 곱게 간 후 밥에 개어 마자 크기로 환을 빚고 식전에 미음으로 20 - 30환을 넘긴다. 성인은 숫자를 늘린다. ○여름부터 가을 동안 아기가 갑자기 서늘한 기운에 상한 후 문득 백리(白痢)에 걸려 오한이 나다가 열이 나다가 하는 경우에는 황두만한 호분을 갈아 달걀 1개를 넣은 후 잘 섞으면서 끓여 떡처럼 덩어리로 만들고 임의로 복용한다. 너무 마르고 허약하여 약을 감당할 수 없을 때 이 약을 쓴다. ○더위에 상하여 피를 싸면서 정신이 미칠듯이 답답한 경우에는 지유·황백(볶는다)·백복령 각 1냥을 곱게 간 후 꿀에 개어 마자 크기로 환을 빚고 미음에 20 - 30환을 넘긴다. 혹은 달여서 복용해도 무방하다. ○오색리(五色痢)로 배가 아프면서 뒤가 묵직한 경우에는 후박·당귀(술에 담근다)·황백(달걀 흰자를 발라 누렇게 굽는다) 각각 같은 양을 곱게 간 후 꿀에 개어 마자 크기로 환을 빚고 30 - 40환씩 후박 달인 물이나 미음으로 넘긴다. ○구리(久痢)로 복통은 없으나 뒤가 묵직하고 밤낮으로 자주 지리거나 설사를 하는 경우에는 앵속각 큰 것 5돈(꼭지를 제거하고 꿀물을 문혀 볶는다), 천궁(술에 축여 볶는다) 2.5돈을 곱게 간 후 1 - 2돈씩 미음에 타서 아이의 몸집에 따라 복용함으로써 설사를 끊어 준다.'

小兒泄痢等症, 身熱如火, 手足冰冷, 及脣與口丹如塗朱者, 并不治.

아이가 설사나 이질 등의 증상이 있을 때 몸통이 불처럼 뜨거우면서 손발은 얼음처럼 차갑거나 입술과 입 속이 주사를 바른 것처럼 빨간 경우는 모두 불치증이다.

- 李參奉三歲子, 得五色痢, 腹痛後重, 比他痢有如⁵, 睡則咬牙面青, 手足跳動, 諸藥罔效, 余曰, 此兒頭額有青筋, 手絡脈微動, 此驚積痢也, 茯神湯 [方見慢驚], 化朱砂安神丸 [方見癇疾] 而愈.
- [의안] 이 참봉(李參奉)의 세 살배기 아들이 오색리(五色痢)에 걸렸는데 배가 아프면서 뒤가 묵직한 증상이 보통 이질에 비하여 심했고 잠들면 이를 갈고 얼굴이 창백해지며 손발을 바둥거렸다. 여러 약을 썼으나 모두 효과가 없었다. 내가 "이 아이는 머리와 이마에 푸른 핏줄이 보이고 손의 맥이 미약하게 움직이므로 이 병은 경풍과 식적으로 생긴 이질입니다."라고 하였다. 복신탕 [처방은 만경문에 나온다] 에 주사안신환 [처방은 간질문에 나온다] 을 녹여서 쓰니 좋아졌다.
- 朴新溪 七歲子, 患熱毒痢, 鮮血點滴, 腹痛後重, 惡心嘔逆等症苦劇, 諸藥無驗, 漸益危重, 清肝湯 [方見諸熱], 加黃連七分以吳茱萸煎汁浸炒, 石菖蒲一分半, 連用五劑, 日漸減而愈.
- [의안] 박 신계(朴新溪)의 7살 된 아들이 열리(熱痢)에 걸려 선홍색 피를 지리면서 배가 아프고 뒤가 무거우며 오심과 구역질 등의 증상으로 매우 힘들어하였다. 여러 약을 썼으나 모두 효과가 없어 점점 위중한 상태가 되었다. 청간탕 [처방은 제열(諸熱)문에 나온다] 에 황련(오수유 달인 물에 담갔다가 볶는다) 7푼, 석창포 1.5푼을 더하여 연달아 5첩을 쓰니 날로 점점 증상이 줄어들며 좋아졌다.
- 趙大諫 [趾彬] 子, 得暑感, 身熱煩躁, 或吐或瀉, 服二香散, 表症稍解, 而仍成赤白膿痢, 腹痛後重, 度數無算, 用寧胃散, 數劑, 腹痛倍加, 更用蘇感元, 通泄反成泄瀉, 遂於異功散, 加黃連、木香服, 數劑, 便道幾調, 而虛汗不止, 困倦無力, 繼用補中益氣湯, 加桂枝七分, 麝末, 每二錢, 朝夕煎服, 連用三劑乃安.
- [의안] 대간(大諫) 조지빈(趙趾彬)의 아들이 더위를 먹어 몸통이 뜨겁고 번조 증상을 보이며 간혹 구토나 설사를 하였다. 이향산을 복용하니 표증은 좀 풀어

졌으나 적백리가 생겨 배가 아프고 뒤가 묵직하면서 셀 수 없을 정도로 똥을 지렸다. 영위산을 쓰니 몇 첩을 먹은 후 복통이 몇 배나 심해졌다. 다시 소감원을 썼더니 통설(通泄)이 도리어 설사가 되었다⁶. 마침내 이공산에 황련·목향을 더하여 복용하게 했더니 몇 첩을 먹고 대변은 거의 회복되었으나 허한(虛汗)이 계속 나면서 힘없이 피곤해 하였다. 이어서 보중익기탕 약재에 계지 7푼을 더하고 거칠게 가루 낸 후 한 번에 2돈씩 아침저녁으로 달여 복용하게 했다. 연달아 3첩을 복용하고는 편안해졌다.

1. 글자없음 : ○※문맥상 ↩

2. 痢 : ㉠裏 ※문맥상 ↩

3. 청미탕(淸米湯) : 미상 ↩

4. 글자없음 : *處 ※문맥상 ↩

5. 如 : ㉠餘 ※문맥상 ↩

6. 통설(通泄)이 도리어 설사가 되었다 : 미상 ↩

腹脹 복창

小兒腹脹, 有虛實二症, 有積而喘急悶亂者, 實也, 宜紫霜丸 [方見癰疾] 下之, 無積而不喘者, 虛也, 宜六君子湯 [方見吐瀉] 補脾, 小便不利, 五苓散 [方見吐瀉], 俾上下分消, 仍忌香燥熱藥, 若誤下, 脾肺俱虛, 面目四肢浮腫, 誤補, 氣道壅遏, 呼吸喘急, 燥悶不眠, 蓋疳疾小兒, 脾虛胃敗, 多有此症, 依疳脹治之. 腎水乘肺, 大喘氣麤四肢冷者, 難治.

소아의 복창(腹脹)은 허증과 실증 2가지가 있다. 체한 후에 헐떡거리면서 속이 답답한 경우는 실증이니 자상환 [처방은 간질문에 나온다] 으로 하법을 써야 한다. 체하지도 않고 헐떡거리지도 않으면 허증이니 육군자탕 [처방은 토사문에 나온다] 으로 비장을 보해야 한다. 소변이 잘 나오지 않으면 오령산 [처방은 토사문에 나온다] 을 써서 상초와 하초로 나누어 배출시키는 한편, 향 종류나 조열(燥熱)한 성질의 약재를 피해야 한다. 만약 하법을 잘못 쓰면 비장과 폐장이 모두 허해져 얼굴과 눈과 사지가 붓고, 보하는 약을 잘못 쓰면 기도가 막혀 호흡이 가빠지고 답답해하면서 잘 자지 못하게 된다. 대체로 감질이 있는 아이는 비장이 허하고 위가 약해져서 대부분 배가 똥똥해진다. 감창(疳脹)에 의거하여 치료해야 한다. 신수(腎水)가 폐금(肺金)을 올라타 크게 숨을 헐떡이면서 사지가 냉한 경우는 치료하기 어렵다.

塌氣丸

답기환

治小兒虛汗腹脹.

아이가 허한(虛汗)을 흘리면서 배가 똥똥해지는 증상을 치료한다.

胡椒 一兩, 蝎稍 五錢.

호초 1냥, 갈초 5돈.

右爲末, 麵糊丸粟米大, 每五六丸, 量兒大小, 米飲下. ○脹甚, 加蘿菔子.

이상을 가루 낸 후 밀가루풀에 개어 속미 크기로 환을 빚는다. 한 번에 5 - 6환씩 아이의 몸집을 가늠하여 미음으로 넘긴다. ○배가 심하게 똥똥하면 나복자를 더한다.

四聖丸

사성환

治小兒心腹虛脹, 惡心不食, 腹痛時時作痛.

아이의 배 전체가 똥똥해지고 오심으로 음식을 먹지 못하며 배가 자주 아픈 경우를 치료한다.

全蝎(炒) 五錢, 胡椒、木香、青皮(去白) 各一錢二分半.

전갈(볶는다) 5돈, 호초、목향、청피(흰 부분을 제거한다) 각 1.25돈.

右細末, 飯丸菉豆大, 每五七丸, 薑橘湯下.

이상을 곱게 가루 낸 후 밥에 개어 녹두 크기로 환을 빚고 한 번에 5 - 7환씩 강굴탕으로 넘긴다.

分氣紫蘇飲

분기자소음

治男婦小兒, 脾胃不和, 臍腹脹滿, 氣促喘急.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비위가 편안하지 않아 배꼽 부근이 똥똥해지면서 숨을 헐떡거리는 경우를 치료한다.

蘇葉 一錢六分, 大腹皮(酒洗)、桑白皮、桔更、草果(煨)、赤茯苓、甘草、五味子 各二分.

소엽 1.6돈, 대복피(술로 씻는다)、상백피、길경、초과(재에 묻어 굽는다)、적복령、감초、오미자 각 2푼.

右剉, 入薑三, 鹽少許, 水煎, 溫服.

이상을 썬 후 생강 3조각과 소금 약간을 넣고 물에 달여 따뜻할 때 복용한다.

大異香散

대이향산

治穀脹氣脹, 又治小兒食積脹.

곡창(穀脹)과 기창(氣脹)을 치료한다. 또한 아이가 식적으로 배가 똥똥해지는 증상도 치료한다.

三稜、蓬朮(并醋炒)、青皮、陳皮、半夏麴、藿香、桔更、益智仁、便香附、枳殼 各一錢, 甘草 二分半.

삼릉、봉출(모두 식초에 축여 볶는다)、청피、진피、반하국、곽향、길경、익지인、변향부자、지각 각 1돈, 감초 2.5푼.

右剉, 入薑五棗二, 水煎服.

이상을 썬 후 생강 5조각과 대조 2개를 넣고 물에 달여 복용한다.

芩蓮枳梗湯

금련지경탕

治小兒腹脹, 日久不得宣通, 上攻胸脇, 按之即痛, 時發壯熱, 服此, 利去黃涎即安.

아이의 배가 똥똥해져서 오랫동안 빠지지 않고 가슴과 옆구리까지 치밀어 오르면서 누르면 아프며 가끔 열이 심한 증상을 치료한다. 이 약을 복용하면 누런 담연을 싸면서 금세 편안해진다.

枳殼、桔梗 各五分, 半夏、黃芩、瓜蒌仁、黃連 各三分.

지각、길경 각 5푼, 반하、황금、과루인、황련 각 3푼.

右剉, 入麥門冬小許, 薑三片, 水煎服. ◦熱甚, 加大黃.

이상을 썬 후 맥문동 약간과 생강 3조각을 넣고 물에 달여 복용한다. ◦열이 심하면 대황을 더한다.

消脹散

소창산

治小兒疳脹, 飢食口渴咳喘.

아이가 감창(疳脹)으로 탐식하고 갈증이 있으며 콜록대면서 헐떡이는 증상을 치료한다.

蘿菔子(炒研)、蘇梗、葛根、陳皮、枳殼 各等分, 甘草 少許.

나복자(볶아서 간다)、소경(蘇梗)、갈근、진피、지각 각각 같은 양, 감초 약간.

右剉, 水煎服. ◦食少, 加白朮.

이상을 썬 후 물에 달여 복용한다. ◦음식을 거의 먹지 못하면 백출을 더한다.

塌氣散

타기산

治小兒腹脹氣麤, 竝疳積面目浮腫, 二便不利.

아이의 배가 똥똥하면서 숨이 거칠거나 감질과 적취로 얼굴과 눈이 붓고 대소변이 잘 나오지 않는 경우까지 모두 치료한다.

木香 一錢, 靑皮 五錢, 巴豆 三十粒(竝同炒, 豆黃色, 去巴豆).

목향 1돈, 청피 5돈, 파두 30알(모두 함께 볶다가 파두가 누렇게 되면 파두를 제거한다).

右爲末, 米飲調下, 一歲兒一字, 二三歲次次加數.

이상을 가루 낸 후 미음에 타서 넘긴다. 1살 아이 기준으로 1자를 복용하고 2-3살 아이부터는 차차 분량을 늘린다.

楊氏塌氣散

양씨타기산

治同上.

위와 같이 아이의 배가 똥똥하면서 숨이 거칠거나 감질과 적취로 얼굴과 눈이 붓고 대소변이 잘 나오지 않는 경우까지 모두 치료한다.

陳皮(炒黃) 一合, 靑皮(去白, 同巴豆二十一粒炒黃, 去巴豆)、甘草(炙) 各五錢, 黑丑(半生半炒, 頭末) 二錢, 肉豆蔻 二箇(煨).

진피(누렇게 볶는다) 1홉, 청피(흰 부분을 제거하고 파두 21알과 함께 누렇게 볶은 후 파두를 제거한다)、자감초 각 5돈, 흑축(절반은 생것, 절반은 볶아서 쓰되 말물가루를 쓴다) 2돈, 육두구 2개(재에 묻어 굽는다).

右細末, 每五分, 米飲調下, 加檳榔一箇, 亦好.

이상을 곱게 가루 낸 후 한 번에 5푼씩 미음에 타서 넘긴다. 빈랑 1개를 더해도 좋다.

消脹丸

소창환

治腹脹喘急，快利寬中，去積消腫。

배가 뽕뽕하면서 숨을 헐떡이는 증상을 치료한다. 이 약은 대소변을 잘 나오게 하고 속을 편안하게 하며 적취와 부종을 없앤다.

黑丑(炒頭末)、蘿菔子(炒)、木香、檳榔 各等分。

흑축(볶아서 쓰되 만물가루를 쓴다)、나복자(볶는다)、목향、빈랑 각각 같은 양.

右細末，滴水和丸麻子大，每十丸，米飲或薑湯下。

이상을 곱게 가루 낸 후 물을 조금씩 떨어뜨리며 마자 크기로 환을 빚고 한 번에 10환씩 미음이나 생강탕으로 넘긴다.

小兒腹脹，有疳脹、積脹、氣脹、寒脹、熱脹、蛔脹，名雖各異，究其本，則皆生於脾不消磨，乳¹食壅，氣道閉塞，不得升降也。錢氏曰，病有新舊虛實，治有輕重緩急，年久氣虛生脹者，當宜補脾消導，如一時壅滯，膨脹悶急者，急下通塞，其他不大病不吐瀉而腹脹者，量宜虛實，補下之。潔古曰，大小腹脹之疾，不用下劑，而專以補脾爲主，不殺人者，鮮矣。

소아의 복창(腹脹)에는 감창(疳脹)、적창(積脹)、기창(氣脹)、한창(寒脹)、열창(熱脹)、회창(蛔脹)이 있다. 명칭은 각각 다르지만 그 원인을 궁리해보면 모두 비장이 소화를 시키지 못하여 젖이나 음식이 정체되고 기도가 막혀 기가 오르내리지 못하기 때문이다. 전율은 "병에는 신구(新舊)와 허실의 구별이 있으며, 치료법에는 경중과 완급의 차이가 있다. 오랫동안 기가 허하여 복창이 생긴 경우에는 비장을 보하고 대변으로 빼주는 치료를 해야한다. 만약 갑자기 체하여 복창이 생기면서 답답한 경우에는 급히 하법을 써서 막힌 것을 소통시켜야 한다. 그밖에 큰 병도 아니고 구토와 설사를 하지도 않는데 복창이 생긴

경우에는 허증인지 실증인지 따져서 보하든지 하법을 쓰든지 해야 한다."고 하였다. 장원소는 "성인이나 소아의 복창에 하법을 쓰지 않고 오로지 비장 보하는 약을 위주로 쓰면 사람을 죽이게 되는 경우가 많을 것이다."고 하였다.

一方, 大棗三十枚, 大戟二兩, 同煮熟, 去大戟, 只與棗, 使兒嚼之, 微利脹下. ◦蝦蟆一箇去腸, 入螻蛄七介, 新瓦上焙焦乾, 細末, 酒調服, 或燈心煎湯調服, 治腹脹小便不利. ◦秋麥爲末, 作粥或作飯食之. ◦蘿菔子炒研, 水煮, 如茶常服, 其陳根亦煮服. 蔓青子治脹之功, 大勝於蘿菔子, 一兩研爛, 水一升, 煮數沸, 濾取汁, 量兒大小, 微溫服, 或吐或利或汗出, 腹中自寬.

어떤 서적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다. '대조 30개와 대극 2냥을 함께 달여 익힌 후 대극을 제거하고 대조만 아이에게 씹어 먹게 하면 살짝 설사를 하면서 복창이 빠진다. ◦개구리 1마리의 내장을 빼고 땅강아지 7마리를 넣어 새 기와 위에서 결불에 바짝 말린다. 이것을 곱게 가루 내고 술에 타서 복용하거나 등심 달인 물에 타서 복용하면 배가 똥똥하면서 소변을 잘 누지 못하는 증상을 치료한다. ◦가을보리를 가루 내 죽으로 만들어 먹거나 밥을 지어 먹는다. ◦나복자를 볶아서 간 후 물에 달여 차처럼 늘 복용하고, 묵은 뿌리도 달여서 복용한다. 만창자는 복창을 치료하는 효과가 나복자보다 아주 뛰어나다. 1냥을 질게 갈아 물 1되에 넣고 몇 소끔 달인 후 찌꺼기를 거른다. 그 국물을 아이의 몸집에 따라 미지근하게 데워 복용하면 토하거나 설사하거나 땀이 나면서 뱃속이 어느새 편안해진다.'

- 洪進士 五歲子, 腹脹盜汗發渴, 肌瘦面黃, 大便不利, 呼吸微喘, 服橘丸子 [方見疳疾] 一劑, 大便調順, 飲食不貪, 腹脹漸下, 而盜汗發渴未除, 乃服連膽丸 [方見疳疾], 一劑, 諸症俱安.
- [의안] 홍 진사(洪進士)의 다섯 살 아들이 복창으로 도한이 나며 갈증이 생기면서 살이 마르고 얼굴이 누레지며 대변이 잘 나오지 않고 숨을 약간 헐떡였다. 갈환자 [처방은 감질문에 나온다] 1첩을 복용하니 대변이 잘 나오고 음식을 탐하지 않으며 똥똥했던 배가 점점 가라앉았으나 도한과 갈증은 없어지지 않았

다. 그래서 연담환 [처방은 감질문에 나온다] 을 복용하게 했더니 1첩을 복용하고는 그 증상들까지 모두 편안해졌다.

- 李平山 三歲兒, 寒月喫生柿, 因得咳嗽, 寒熱往來, 大便或泄或秘, 乳食全廢, 瘦敗骨立之餘, 浮脹卒發, 已至無可爲之境, 余曰, 何可束手待斃, 第試塌氣散, 先用一字, 少無利害, 又加用二字, 略泄而止, 翌日, 用白餅子五丸, 以葱白煎湯吞下, 五六次吐瀉, 自此二便通利, 浮脹漸消, 用參苓白朮散, 調理而愈.
- [의안] 이 평산(李平山)의 세 살배기 아이가 겨울철에 홍시를 먹고는 해수에 걸렸다. 한열왕래가 있으며 설사를 하거나 변비가 생겨 젖과 음식을 모두 먹지 못했기 때문에 바싹 말라 뼈가 앙상하게 되는데다가 부종과 복창까지 갑자기 생겨 어찌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내가 "왜 손을 놓고 죽음만 기다리고 있습니까? 다만 탐기산이라도 먹여봅시다."라고 말하고는 우선 1자를 먹였으나 조금도 반응이 없었다. 다시 2자를 더 먹이자 약간 설사를 하다가 멎었다. 다음날 백병자 5환을 총백 달인 물로 삼키게 했더니 5 - 6번 구토와 설사를 하고는 그 때부터 대소변을 보면서 부종과 복창이 점차 사그라들었고, 삼령백출산을 쓰면서 잘 조리시켰더니 좋아졌다.

1. 滯 : ㄱ滯 ※문맥상 →

及幼方卷之九 금유방 권9

橫城 趙廷俊重卿 集

황성 조정준(趙廷俊, 字 重卿) 편저



浮腫 부종

小兒浮腫, 久瀉久痢久瘧積等症, 羸瘦之餘, 皆患此, 蓋脾土虛弱, 腎水反勝之致也, 補脾利水爲主, 但飲食積滯, 久患失治, 變成水腫, 不可全責補脾, 量宜通塞, 或重觸風寒, 表鬱而發者, 解散風寒, 人參敗毒散、升麻葛根湯〔二方見外感〕, 俱加麻黃、蒼朮.

소아의 부종은 구사(久瀉), 구리(久痢), 구학(久瘧), 감적(痞積) 같은 증상으로 바싹 마른 끝에 이 병을 앓게 된다. 아마도 비토(脾土)가 허약해져 신수(腎水)가 반대로 왕성해지기 때문일 것이다. 비장의 기운을 보하고 수기를 빼주는 것을 위주로 치료해야 한다. 다만, 음식이 적체되었거나 혹은 병을 오래 앓는 중에 잘못된 치료를 받아 수종(水腫)이 된 경우에는 비장의 기운을 보하기만 해서는 안되고 증상에 따라 막힌 곳을 뚫어주어야 한다. 간혹 여러 번 풍사나 한사에 감촉된 것 때문에 표부가 울체되어 부종이 생긴 경우에는 풍사나 한사를 먼저 풀어주어야 한다. 인삼패독산·승마갈근탕 [두 처방은 외감에 나온다] 두 처방에 모두 마황과 창출을 더해 써야 한다.

補中治濕湯

보중치습탕

祛濕熱, 補脾胃, 利水道, 通治水病.

습사와 열사를 없애고 비장과 위를 보하며 소변을 소통시키며 수기(水氣)로 생긴 증상을 두루 치료한다.

人參、白朮(土炒) 各一錢, 蒼朮、陳皮、赤茯苓、木通、麥門冬、當歸 各七分, 黃芩 五分, 厚朴、升麻 各三分.

인삼、백출(흑과 함께 볶는다) 각 1돈, 창출、진피、적복령、목통、맥문동、당귀 각 7푼, 황금 5푼, 후박、승마 각 3푼.

右剉, 水煎, 空心服.

이상을 썬 후 물에 달여 빈속에 복용한다.

澤瀉散

택사산

治水腫初發, 濕熱壅盛, 二便不利.

수종 초기에 습열이 뭉쳐서 대소변이 잘 나오지 않는 경우를 치료한다.

澤瀉、赤茯苓、枳殼、猪苓、防己、檳榔、黑丑(炒, 頭末) 各二錢.

택사、적복령、지각、저령、방기、빈랑、흑축(볶아서 쓰되 맷돌가루를 쓴다) 각 2돈.

右細末, 每一二錢, 入薑三葱二, 煎湯, 調服.

이상을 곱게 가루 낸 후 한 번에 1 - 2돈씩을 생강 3조각과 총백 2줄기를 넣고 달인 물에 타서 복용한다.

導滯通經湯

도체통경탕

通治浮腫, 行濕利水.

부종을 두루 치료한다. 습사를 밀어내 소변으로 빼준다.

赤茯苓、澤瀉 各二錢, 陳皮、桑白皮、白朮、木香 各一錢.

적복령、택사 각 2돈, 진피、상백피、백출、목향 각 1돈.

右剉, 水煎服.

이상을 썬 후 물에 달여 복용한다.

- ¹ 許魯齋因霖雨所傷, 肢體浮腫, 腹脹痛, 先服平胃散, 而後用此藥, 全愈.
- ◦(의안) 허노재(許魯齋)가 장마비를 맞고는 사지와 몸통에 부종이 생기고 배가 똥똥해지면서 아팠다. 먼저 평위산을 복용하고 그다음 이 약을 썼더니 모든 증상이 좋아졌다.

牽牛散

견우산

治小兒諸般浮脹.

소아의 여러 가지 부종을 치료한다.

黑牽牛(半生半炒, 取頭末), 每一二錢, 桑白皮煎湯磨木香汁, 調服.

흑견우(절반은 생것, 절반은 볶아서 쓰되 맷물가루를 쓴다). 한 번에 1 - 2돈씩 상백피 달인 물로 간 목향즙에 타서 복용한다.

越脾湯

월비탕

治腰上浮腫, 咳喘.

상반신이 붓고 기침하면서 헐떡이는 증상을 치료한다.

麻黃 三錢半, 蒼朮 二錢, 石膏、甘草 各一錢.

마황 3.5돈, 창출 2돈, 석고、감초 각 1돈.

右剉, 入薑五棗二, 水煎服.

이상을 썬 후 생강 5조각과 대조 2개를 넣고 물에 달여 복용한다.

五皮散

오피산

治因他病, 變作水腫浮脹.

다른 병 때문에 수종이 생기면서 붓는 증상을 치료한다.

大腹皮(酒洗)、赤茯苓皮、生薑皮、桑白皮、陳皮 各一錢.

대복피(술로 씻는다)、적복령피、생강피、상백피、진피 각 1돈.

右剉, 水煎服.

이상을 썬 후 물에 달여 복용한다.

赤小豆湯

적소두탕

治氣血俱熱, 生瘡疥, 變爲浮腫脹滿.

기와 혈이 모두 뜨거워져 창개(瘡疥)가 생겼다가 부종(浮腫)과 창만(脹滿)으로 변한 경우를 치료한다.

赤小豆、猪苓、桑白皮、防己、連翹(去²麋)、澤瀉、當歸、商陸、赤芍藥 各一錢.

적소두、저령、상백피、방기、연교(속을 제거한다)、택사、당귀、상륙、적작약 각 1돈.

右剉, 入薑五片, 水煎服.

이상을 썬 후 생강 5조각을 넣고 물에 달여 복용한다.

退腫散

퇴종산

治水腫, 補脾行氣.

수종(水腫)을 치료한다. 비장을 보하고 기를 잘 운행시킨다.

赤小豆、陳皮、蘿藦子(炒研) 各五分, 甘草、木香 各三分.

적소두、진피、나복자(볶아서 간다) 각 5푼, 감초、목향 각 3푼.

右麤末, 入薑三棗一, 水煎服.

이상을 거칠게 가루 낸 후 생강 3조각과 대조 1개를 넣고 물에 달여 복용한다.

清消散

청소산

治濕熱浮腫身重, 小便不利.

습열로 부종이 생기고 몸이 무거우며 소변이 잘 나오지 않는 증상을 치료한다.

黃芩 二錢半, 白朮、蘇梗 各一錢半, 山梔(炒)、桑白皮 各一錢.

황금 2.5돈, 백출、소경 각 1.5돈, 산치인(볶는다)、상백피 각 1돈.

右麤末, 每二錢, 入薑二片, 水煎服.

이상을 거칠게 가루 낸 후 한 번에 2돈씩 생강 2조각과 함께 물에 달여 복용한다.

太效神功丸

대효신공환

治小兒喘急, 肢體浮腫, 腹脹膨悶, 乍熱乍寒, 或瀉或秘, 皆由積久, 榮衛不順, 用此推去陳積.

아이가 숨을 헐떡이면서 사지와 몸통이 붓고 배가 빵빵하며 더워했다 추워했다 하고 간혹 설사를 하기도 하고 변비가 되기도 하는 경우는 모두 적취가 오래되어 영기와 위기가 제대로 돌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 약으로 묵은 적취를 몰아내야 한다.

乾薑 二錢, 雄黃、朱砂 各一錢, 巴豆 二十一粒(去殼).

건강 2돈, 옹황·주사 각 1돈, 파두 21알(껍데기를 제거한다).

右米醋一盞, 入巴豆、乾薑煮, 令乾, 去薑不用, 將巴豆和雄黃、朱砂研勻, 以雪糕糊丸麻子大, 一歲兒三丸, 以赤芍藥少許酒³侵酒吞下.

이상을 쌀식초 1잔에 파두·건강을 넣고 달였다가 말린 후 건강은 빼고 사용하지 않는다. 파두와 옹황과 주사를 골고루 갈고 설고(雪糕)로 썬 풀에 개어 마자 크기로 환을 빚는다. 1살 아이 기준으로 3환을 복용하되 적작약 약간을 담갔던 술로 넘긴다.

四苓五皮散

사령오피산

治因他病, 變爲浮腫, 脹滿喘渴, 二便不利.

다른 병이 있다가 부종으로 변하여 배가 빵빵해지고 숨을 헐떡이면서 갈증이 나고 대소변이 잘 나오지 않는 경우를 치료한다.

桑白皮、地骨皮、蒼朮、茯苓皮、生薑皮、大腹皮(酒洗)、豬苓、澤瀉、青皮、車前子(炒研)、白朮、陳皮 各一錢.

상백피, 지골피, 창출, 복령피, 생강피, 대복피(술로 씻는다), 저령, 택사, 청피, 차전자(볶아서 간다), 백출, 진피 각 1돈.

右剉, 水煎服.

이상을 썬 후 물에 달여 복용한다.

瀣川丸

준천환

治水腫, 及單腹膨脹, 氣喘不臥, 食不下膈, 或身面俱浮, 二便不通.

수종(水腫) 및 배만 빵빵하고 숨을 헐떡거리며 잘 자지 못하고 음식을 먹어도 넘기지 못하며 간혹 몸통과 얼굴까지 모두 부으면서 대소변이 나오지 않는 경우를 치료한다.

大戟、芫花(醋炒)、沈香、檀香、木香、檳榔、蓬朮(煨)、大腹皮(酒洗)、桑白皮(炒) 各半兩, 黑白丑(竝曬研, 取生末) 一兩, 巴豆(去殼心膜, 存油) 三十五粒.

대극, 원화(식초에 축여 볶는다), 침향, 단향, 목향, 빈랑, 봉출(재에 묻어 굽는다), 대복피(술로 씻는다), 상백피(볶는다) 각 0.5냥, 흑축과 백축(모두 별에 말렸다가 간다. 익히지 않은 가루를 쓴다) 1냥, 파두(껍데기와 심과 피막은 제거하고 기름은 남겨 둔다) 35알.

右細末, 和勻, 麵糊丸麻子大, 每二三丸, 量兒大小加減, 葱白煎湯, 空心下, 去水未盡, 停一日再服, 症退即止, 單腹脹甚, 能食, 氣實者, 加甘遂. ○峻攻通利之方, 無逾於此也, 蓋腫與脹, 皆壅滯之疾, 非通腸胃順榮衛, 何以治之, 我國俗方, 竹節草, 峻攻洞泄, 無異於瀣川丸, 常漢之患浮腫腹脹, 煎服, 大泄而愈者最多, 概藥須瞑眩然後, 乃可以撥亂反正也. [竹節草, 一名竹菜, 本草所載名未詳, 而我國處處有之.]

이상을 곱게 가루 낸 후 골고루 섞고 밀가루풀에 개어 마자 크기로 환을 빚는다. 한 번에 2 - 3환씩 아이의 몸집을 가늠하여 가감하여 복용하되 총백 달인 물로 빈속에 넘긴다. 수종이 전부 빠지지 않았으면 하루 쉬었다가 다시 복용한다. 증상이 잦아들면 곧바로 복용을 멈춘다. 배만 심하게 똥똥해지면서 음식을 먹을 수 있다면 기가 실한 경우이니 감수를 더하여 써야 한다. ○매우 강하게 대소변으로 빼내는 처방 중에 이보다 뛰어난 것은 없다. 대체로 부종과 복창은 모두 무언가 응체된 병이니 장과 위를 뚫어 주고 영기와 위기를 잘 돌게하는 방법이 아니고는 어떻게 치료하겠는가. 우리나라의 민간 처방에서 죽절초(竹節草)를 쓰는데 이것은 약성이 매우 강하여 먹은 것을 그대로 설사시키니 준 천환과 다르지 않다. 상민들이 부종이나 복창에 걸렸을 때 달여 먹으면 크게 설사하면서 낫는 경우가 매우 많다. 대체로 약이란 모름지기 어지러운 후에 난리를 다스리고 정상으로 되돌릴 수 있는 법이다. [죽절초는 죽채(竹菜)라고도 한다. 《본초(本草)》에 실린 이름은 알 수 없으나 우리나라 곳곳에 있다.]

胎瘡, 小兒觸感風寒, 表鬱而內氣不泄, 面目肢體浮腫, 寒熱往來者, 宜敗毒散 [方見外感], 去人參, 加荊芥、蘇葉以發散之, 小便不通, 通心飲 [方見癰⁴風], 大便秘, 四順清涼飲 [方見大便], 並合消毒飲, 夾食者, 消積丸 [方見諸積] 下之, 瘡毒盛者, 宜消毒飲, 加紫草茸酒洗, 若不分表裏, 而先以治熱爲主, 則內氣愈結, 終成難救之疾.

태창(胎瘡)은 아이가 풍사나 한사에 감촉된 후 표부가 울체되면서 몸속의 기가 빠져나가지 못하기 때문에 얼굴이나 눈이나 사지나 몸통이 붓고 한열왕래가 생기는 것이다. 패독산 [처방은 외감문에 나온다] 에서 인삼을 빼고 형개와 소엽을 더하여 발산시켜야 한다. 소변이 나오지 않는 경우에는 통심음 [처방은 제풍문에 나온다] 을 쓴다. 대변이 나오지 않는 경우에는 사순청량음 [처방은 대변문에 나온다] 을 쓴다. 대소변이 모두 나오지 않으면 소독음을 쓴다. 태창에 식상을 겸한 경우에는 소적환 [처방은 제적(諸積)문에 나온다] 을 써서 대변으로 빼주어야 한다. 창독(瘡毒)이 심한 경우에는 소독음에 자초

용(술로 씻는다)을 더하여 쓴다. 만약 표증과 이증이 구분되지 않는 경우에 무턱대고 열을 다스리는 것을 위주로 하면 몸속의 기가 더욱 울결되기 때문에 결국 목숨을 구하기 어려운 상태가 되어 버린다.

一方, 小兒浮腫, 大便不利, 郁李仁、薏苡仁等分, 爲末, 和煮粥飲. ○浮腫小便不利, 赤小豆三合, 桑白皮一兩, 濃煮飲. ○小兒頭面陰囊浮腫, 使君子一兩蜜炒, 爲末, 每二錢, 米飲調服, 日三. 又蝦蟆三四箇, 雄豬肚方寸許, 入酒少許, 同煮食. ○浮腫喘促, 小便不利, 蟬蛻全者, 不見日焙乾, 細研, 入縮砂末半減, 酒調服, 或燈心煎湯調服.

어떤 서적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다. '아이가 붓고 대변을 잘 누지 못하면 옥리인、의이인 각각 같은 양을 가루 낸 후 섞어 미음을 섞어 준다. ○붓고 소변을 잘 누지 못하면 적소두 3홉과 상백피 1냥을 진하게 달여서 마신다. ○아이의 머리나 얼굴이나 음낭이 붓는 경우에는 사군자(꿀을 묻혀 볶는다) 1냥을 가루 낸 후 하루 3번 2돈씩 미음에 타서 복용한다. 또는 개구리 3 - 4마리와 수태지 밥통 1방촌비 정도에 술을 약간 넣고 한꺼번에 끓여서 먹는다. ○붓고 배가 똥똥해지며 숨을 헐떡이고 소변이 잘 나오지 않는 경우에는 땅강아지를 통째로 볶을 쏘이지 않은 상태에서 겉불에 말려 곱게 간 후 축사가루 절반 분량을 넣고 술에 타거나 등심 달인 물에 타서 복용한다.'

不治症

불치증

久病羸瘦之餘, 腹脹喘急不得臥. ○腹大身熱, 大便泄下, 小便不通, 兼瘡者. ○腹脹臍突, 脈大, 身熱肢冷, 足掌平滿者, 竝皆不治.

오랜 병으로 바싹 마른 후에 배가 똥똥해지고 숨을 헐떡이면서 잠들지 못하는 경우. ○배가 똥똥하면서 몸통이 뜨겁고 대변은 쏟아내지만 소변은 나오지 않으며 학질을 겸한 경우. ○배가 똥똥하여 배꼽이 튀어나오고 맥은 대(大)하며 몸통은 뜨겁고 사지는 냉하며 발바닥이 평평하면서 부은 경우. 이런 경우는 모두 불치증이다.

- 一小兒三朔, 泄利之餘, 肢體俱浮, 小便不利, 用導滯通經湯, 浮氣益加, 呼吸喘高, 余曰, 此兒脾胃虛弱, 宿食未消, 當補脾, 不可瀉肺, 異功散, 加香附、砂仁, 小加升柴, 連用七劑, 浮氣漸消, 小便自調, 繼用參苓白朮散, 調理而愈.
- [의안] 생후 3달된 어떤 아기가 설사와 이질을 앓은 후 사지와 몸통이 모두 붓고 소변이 잘 나오지 않기에 도체통경탕을 썼으나 붓기가 더욱 심해지고 숨을 헐떡거리게 되었다. 내가 "이 아기는 비장과 위가 허약하여 체한 음식이 소화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비장을 보해야지 폐장을 사해서는 안됩니다."라고 하고는 이공산에 향부자와 사인을 더하고 승마와 시호를 약간 더하여 썼다. 연달아 7첩을 복용하니 붓기가 점점 가라앉고 소변도 저절로 관촬아졌다. 이어서 삼령백출산을 쓰면서 잘 조리하게 했더니 좋아졌다.

1. 글자없음 : ○※문맥상 ←

2. 臍 : 瓢 ※문맥상 ←

3. 侵 : 浸 ※문맥상 ←

4. 癢 : 諸 ※문맥상 ←

黃疸 黃달

黃疸者, 濕熱宿食, 鬱滯脾胃, 薰蒸肌肉, 故身面爪甲盡黃, 譬如 麤之狀, 此症多生於小兒疳腫積聚浮脹之餘, 或不因病, 而身面目俱黃者, 胎熱發疸也, 治法, 大便自利, 小便不長黃濁者, 茵陳四苓散, 寒熱兼發, 柴苓湯 [方見吐瀉], 加茵陳、山梔, 或茵陳丸.

황달(黃疸)은 습열이나 체한 음식이 비장과 위에 울체되어 기육(肌肉)을 훈증하기 때문에 생긴다. 그러므로 몸통과 얼굴과 손톱까지 모두 누렇게 된다. 비유하자면 누룩을 덮어 싸고 있는 형상이다. 이 병증은 대부분 아이가 감질이 나 부종이나 적취나 복창 같은 병을 앓은 후에 생긴다. 간혹 다른 병 때문에 생기지 않고 몸통이나 얼굴이나 눈이 모두 누레지는 경우는 태열(胎熱)로 황달이 발작한 것이다. 치료법은 다음과 같다. 대변을 지리고 탁하면서 누런 소변이 조금씩 나오는 경우에는 인진사령산을 쓴다. 오한발열이 동시에 생기는 경우에는 시령탕 [처방은 토사문에 나온다] 에 인진과 산치인을 더하여 쓰거나 혹은 인진환을 쓴다.

退黃散

퇴황산

治濕熱黃疸, 身面如金色, 小便如黃栢汁.

습열 때문에 생긴 황달로 몸통과 얼굴이 황금처럼 누렇게 되고 소변이 황백 즙처럼 누런 경우를 치료한다.

柴胡、升麻、草龍膽(酒炒)、茵陳、黃芩、黃連、山梔(炒)、黃栢、木通、滑石 各一錢, 甘草 五分.

시호、승마、초롱담(술에 축여 볶는다)、인진、황금、황련、산치인(볶는다)
、항백、목통、활석 각 1돈, 감초 5푼.

右剉, 入燈心一握, 水煎服.

이상을 썬 후 등심 1주먹과 함께 물에 달여 복용한다.

一淸飲

일청음

治黃疸濕熱, 身面俱黃.

습열 때문에 생긴 황달로 몸통과 얼굴이 모두 누레지는 증상을 치료한다.

柴胡 三錢, 赤茯苓 二錢, 川芎、桑白皮 各一錢, 甘草 五分.

시호 3돈, 적복령 2돈, 천궁、상백피 각 1돈, 감초 5푼.

右剉, 入薑三棗二, 水煎服.

이상을 썬 후 생강 3조각과 대조 2개를 넣고 물에 달여 복용한다.

茵陳五苓散

인진오령산

治濕熱, 小便不利, 遍身深黃色.

습열 때문에 소변이 잘 나오지 않고 온몸이 섯노랗게 된 경우를 치료한다.

茵陳 二錢, 猪苓、澤瀉、赤茯苓、白朮 各一錢, 桂心 三分.

인진 2돈, 저령、택사、적복령、백출 각 1돈, 계심 3푼.

右末, 每一二錢, 燈心煎湯或米飲調服, 或剉, 水煎服.

이상을 가루 낸 후 한 번에 1 - 2돈씩 등심 달인 물이나 미음에 타서 복용한다.
혹은 썰어서 물에 달여 복용한다.

茵陳平胃散

인진평위산

治食積濕熱發黃.

식적이나 습열로 황달이 생긴 경우를 치료한다.

茵陳 二錢, 白朮(炒) 一錢, 蒼朮、山查肉 各七分, 神曲(炒)、厚朴、山梔(炒) 各五分, 青皮、甘草 各三分.

인진 2돈, 백출(볶는다) 1돈, 창출、산사육 각 7푼, 신국(볶는다)、후박、산치인(볶는다) 각 5푼, 청피、감초 각 3푼.

右剉, 入薑三, 水煎服.

이상을 썬 후 생강 3조각을 넣고 물에 달여 복용한다.

萬金丸

만금환

治疸, 磨積退黃, 利水去濕.

감질을 치료하고 식적을 마멸시키며 황달을 없애고 소변을 잘 나가게 하여 습기를 제거한다.

蒼朮 二兩, 陳皮、厚朴、夜明砂(炒) 各一兩.

창출 2냥, 진피、후박、야명사(볶는다) 각 1냥.

右末, 將綠礬二兩化水, 入醋少許煮麵糊丸, 或煮棗肉搗丸菉豆大, 每十五丸, 米飲下. ○一方, 加使君子一兩, 枳實、黃連、訶子各五錢, 並細切, 用巴豆十粒去殼同炒, 令紫色, 去巴豆不用, 再入蝦蟆灰末五錢, 苦練根皮二錢半, 爲末, 麵糊丸菉豆大, 量兒大小, 加減其丸數.

이상을 가루 낸다. 녹반 2냥을 물에 녹이고 식초를 약간 넣고 썬 밀가루풀로 환을 빚거나 혹은 삶은 대추 과육을 찢은 것과 섞어 녹두 크기로 환을 빚는다. 한 번 복용할 때 15환씩 미음으로 넘긴다. ○어떤 서적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다. '사군자 1냥, 지실、황련、가자 각 5돈을 더하고 모두 잘게 썬 후 파두(겉데기를 제거한다) 10알과 함께 볶다가 보랏빛이 되면 파두는 버리고 쓰지 않는다. 여기에 다시 개구리 태운 잿가루 5돈과 고련근피 2.5돈을 넣고 가루 낸 후 밀가루풀에 개어 녹두 크기로 환을 빚는다. 아이의 몸집에 따라 환 수를 가감하여 쓴다.'

瘴疸丸

장달환

治天行疫癘發黃, 及瘴瘧發黃. ○一名茵陳丸, 臘製有之.

유행성 전염병으로 누렇게 되거나 장학(瘴瘧)으로 누렇게 된 경우를 치료한다. ○일명 인진환이라고도 한다. 설달에 만들어서 가지고 있다.

一方, 小兒熱病後, 通身黃色, 小便如黃栢汁, 煩渴引飲, 猪糞燒存性, 細末, 一二匙, 茵陳煎水調服. ○臘雪水, 調白蜜或砂糖, 溫服, 日四五次, 治熱疸. ○小兒過飽飲食, 胃熱發黃, 名食疸, 山梔一二錢薑炒, 入竹葉五片, 燈心一團, 水煎服. ○急黃內黃, 腹結不通, 取蔓菁子研細一二錢, 量兒加減, 和水微煎服之, 瀉出惡物黃水砂石草髮而乃安. ○水芹治五種黃病, 搗取汁飲之, 或煮食. ○鮒魚鯉魚白烏鷄等物, 如食治法, 常食之, 並治諸疸.

어떤 서적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다. '아이가 열병을 앓은 후에 온몸이 누렇게 되면서 소변은 황백 즙처럼 누렇게 번갈로 물을 찾는 경우에는 저분(약성이 남도록 태운다)을 곱게 가루 낸 후 1 - 2술을 인진 달인 물에 타서 복용한다. ◦납설수에 백밀(白蜜)이나 사당(砂糖)을 타서 하루 4 - 5번 따뜻하게 데워 복용하면 열달(熱疸)을 치료한다. ◦아이가 너무 배불리 음식을 먹은 후 속이 뜨거우면서 누렇게 되는 증상은 식달(食疸)이라고 부른다. 산치인(생강즙에 축여 볶는다) 1 - 2돈에 죽엽 5장과 등심 1주먹을 넣고 물에 달여 복용한다. ◦급황(急黃)이나 내황(內黃)으로 뱃속이 뭉쳐서 꿈쩍도 안하는 경우에는 만청자(곱게 간다) 1 - 2돈을 아이의 몸집에 따라 가감하여 물에 탄 후 살짝 끓여 복용하면 더러운 것이나 누런 물이나 모래나 돌이나 풀이나 머리카락 같은 것을 쏟아내면서 곧 편안해진다. ◦수근(水芹)은 5가지 황달을 치료한다. 수근 찢은 즙을 마시거나 물에 달여 먹는다. ◦붕어나 잉어나 백계(白鷄)나 오계(烏鷄) 같은 음식을 식치법대로 늘 먹으면 여러 가지 황달을 치료한다.'

瘧疾 학질

瘧者, 風寒暑濕傷於外, 飲食生冷壅於內, 正氣與邪氣相搏而發, 初起手足冷而呵欠, 身體拘急而怕寒, 繼以寒慄鼓額, 未幾寒去, 發熱身烘, 煩渴汗出, 而熱退身涼, 概邪淺者, 一日一發, 或間日一發, 邪深者, 間二三日一發, 先寒後熱, 或先熱後寒, 而有寒多熱小者, 有熱多寒小者, 或有單熱而無寒者, 或有單寒而無熱者, 小兒之瘧, 食瘧熱瘧, 十居七八, 傷於風寒者, 亦次之.

학질(瘧疾)은 겉으로 풍·한·서·습에 상하거나, 몸속으로 생랭(生冷)한 음식이 적체되어 정기(正氣)와 사기(邪氣)가 서로 부딪혀 발병한다. 발병 초기에는 손발이 냉하면서 소리 내어 하품하고 몸이 긴장되면서 추위를 싫어한다. 이어서 추위로 턱을 부딪히며 덜덜 떨다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추위는 없어지고 열이 나면서 몸이 뜨거워지며 번갈아 있으면서 땀이 나고는 열이 떨어지면서 몸이 식는다. 대체로 사기가 얇은 부분을 침범한 경우에는 하루 1번 발작하거나 이틀에 1번 발작하고, 사기가 깊은 부분까지 침범한 경우에는 2-3일에 1번 발작한다. 먼저 오한이 있는 후에 발열이 있거나 혹은 먼저 발열이 있는 후에 오한이 있게 된다. 오한이 더 많고 발열이 적은 경우도 있고, 발열이 더 많고 오한이 적은 경우도 있다. 혹은 발열만 있고 오한이 없는 경우도 있고, 오한만 있고 발열이 없는 경우도 있다. 소아의 학질은 식학(食瘧)과 열학(熱瘧)이 열 명 중에 7-8명이고 풍사나 한사에 상하여 생긴 학질이 그 다음이다.

熱瘧者, 陽明經瘧也, 傷於暑熱, 或飲熱乳而發, 身熱煩渴, 惡心嘔吐, 小便黃赤, 熱多寒少, 宜白虎湯 [方見外感]、桂苓甘露飲 [方見暑症], 熱甚者, 活龍飲 [方見外感].

열학(熱瘧)은 양명증의 학질이니 더위에 상하거나 열이 있는 것을 먹고 생기게 된다. 몸통이 뜨겁고 번갈아 있으며 오심과 구토가 있고 소변이 누렇게 나 붉으며 발열이 더 많고 오한은 적다. 백호탕 [처방은 외감문에 나온다]이나

계령감로음 [처방은 서증문에 나온다] 을 써야 한다. 열이 심하면 활롱음
[처방은 외감문에 나온다] 을 써야 한다.

桂枝石膏湯

계지석고탕

治太陽陽明合病, 間日瘧, 熱多寒少.

태양증과 양명증이 합쳐져 생긴 이틀거리로 발열이 더 많고 오한은 적은 경우
를 치료한다.

石膏(煨)·知母 各三錢, 黃芩 二錢, 桂枝 一錢.

석고(불에 달군다)·지모 각 3돈, 황금 2돈, 계지 1돈.

右剉, 水煎服.

이상을 썬 후 물에 달여 복용한다.

桂枝黃芩湯

계지황금탕

治上症, 加嘔吐惡心, 寒熱轉甚者.

위의 계지석고탕 증상에 더하여 구토와 오심이 있고 한열왕래가 더 심해진 경
우를 치료한다.

柴胡 二錢, 石膏(煨)·知母 各一錢半, 黃芩·人參·半夏·甘草 各一錢二分, 桂枝
一錢.

시호 2돈, 석고(불에 달군다)·지모 각 1.5돈, 황금·인삼·반하·감초 각 1.2
돈, 계지 1돈.

右剉, 入薑三片, 水煎服.

이상을 썬 후 생강 3조각을 넣고 물에 달여 복용한다.

柴胡知母湯

시호지모탕

治熱瘡及瘡癰.

열학(熱瘡)과 장학(瘡癰)을 치료한다.

柴胡、知母 各一錢半, 葛根、黃芩、蒼朮、陳皮、半夏、川芎 各一錢, 甘草 七分.

시호、지모 각 1.5돈, 갈근、황금、창출、진피、반하、천궁 각 1돈, 감초 7푼.

右剉, 入薑三片, 烏梅二, 水煎, 清晨午前再服. ○久瘡, 加參歸.

이상을 썬 후 생강 3조각과 오매 2개와 함께 물에 달여 맑은 날 새벽과 오전에 2번 복용한다. ○구학(久瘡)에는 인삼과 당귀를 더한다.

龍虎湯

용호탕

治熱瘡火盛, 舌卷, 脣焦口渴, 鼻如煙薰, 六脈洪緊.

열학(熱瘡)으로 열이 심하여 혀가 말리고 입술이 바싹 마르면서 목이 마르며 코는 연기를 쥔 것 같이 맵고 육맥이 모두 홍긴(洪緊)한 경우를 치료한다.

石膏 二錢半, 柴胡、黃連 各一錢半, 黃芩、知母、黃栢 各一錢, 梔子 八分, 半夏 七分, 粳米 百粒.

석고 2.5돈, 시호、황련 각 1.5돈, 황금、지모、황백 각 1돈, 치자 8푼, 반하 7푼, 갱미 100알.

右剉, 入薑三棗二, 水煎服.

이상을 썬 후 생강 3조각과 대조 2개를 넣고 물에 달여 복용한다.

食瘧者, 乳食不節, 內傷脾胃, 或瓜果生冷飽喫, 結滯成積, 或吐或瀉, 吞酸噫氣, 胸膈不利, 寒已復熱, 熱已復寒, 寒熱交併, 脇腹脹痛, 肚熱尤甚, 苦飢不食, 食則吐出, 實者, 紫霜丸 [方見癰疾], 或消積丸 [方見癖積] 下之, 虛者, 小柴胡湯 [方見外感], 合四君子湯 [方見吐瀉]、人參養胃湯 [方見外感], 隨症加減.

식학(食瘧)은 젓이나 음식을 절제하지 않아 비장과 위가 상하거나, 혹은 야채나 과일이나 생랭(生冷)한 음식을 너무 많이 먹어 정체된 적취 때문에 생긴다. 간혹 토하기도 하고 간혹 설사하기도 하며 탄산(吞酸)과 애기(噫氣)가 있고 가슴이 답답하며 오한이 있다가 열이 나기도 하고 열이 있다가 오한이 나기도 하면서 오한과 발열이 교대로 생기며 옆구리와 배가 똥똥해지면서 아프고 배가 특히 뜨거우며 배가 고프지만 먹지 못하면서 먹으면 곧 토해 내는 증상이 있다. 실증인 경우에는 자상환 [처방은 간질문에 나온다] 이나 소적환 [처방은 벽적(癖積)문에 나온다] 으로 하법을 써야 한다. 허증인 경우에는 소시호탕 [처방은 외감문에 나온다] 에 사군자탕 [처방은 토사문에 나온다] 을 합하여 쓰거나 인삼양위탕 [처방은 외감문에 나온다] 을 쓰되 증상에 따라 가감하여 써야 한다.

柴平湯

시평탕

治食瘧, 腹痛嘔吐惡心, 寒熱終日不已.

식학(食瘧)으로 배가 아프면서 구토하고 오심이 나며 한열왕래가 하루종일 그치지 않는 경우를 치료한다.

柴胡、蒼朮 各二錢, 厚朴、陳皮、半夏、黃芩 各一錢, 人參、甘草 各五分.

시호、창출 각 2돈, 후박、진피、반하、황금 각 1돈, 인삼、감초 각 5푼.

右剉, 入薑三棗二, 烏梅一箇, 水煎服. ○一方, 加枳實、神麴、山楂、青皮, 名平胡飲子.

이상을 썬 후 생강 3조각과 대조 2개와 오매 1개를 넣고 물에 달여 복용한다. ○ 어떤 서적에는 '지실、신국、산사、청피를 더한 것을 평호음자라고 부른다'고 하였다.

草果平胃散

초과평위산

治食瘧, 生冷過飽, 脾胃虛冷, 嘔吐瀉利腹痛, 飲食不進, 不問寒熱先後, 宜用此.

식학(食瘧)을 치료한다. 생랭(生冷)한 음식을 너무 많이 먹어 비장과 위가 허랭해진 것 때문에 구토와 설사를 하면서 배가 아프고 음식을 넘기지 못하는 경우에는 오한과 발열의 선후를 불문하고 이 약을 써야 한다.

蒼朮 二錢, 厚朴、陳皮、青皮、大腹皮(酒洗)、檳榔、草果(煨) 各一錢, 甘草 五分.

창출 2돈, 후박、진피、청피、대복피(술로 씻는다)、빈랑、초과(재에 물어 굽는다) 각 1돈, 감초 5푼.

右剉, 入薑三棗二, 水煎服.

이상을 썬 후 생강 3조각과 대조 2개를 넣고 물에 달여 복용한다.

清脾飲

청비음

治食瘧

식학(食瘧)을 치료한다.

柴胡、半夏、黃芩、草果(煨)、赤茯苓、白朮、厚朴、青皮 各一錢, 甘草 五分.

시호、반하、황금、초과(재에 묻어 굽는다)、적복령、백출、후박、청피 각 1돈, 감초 5푼.

右剉, 入薑三棗二, 水煎服. ○此方, 小柴胡、平胃、二陳湯, 合爲也.

이상을 썬 후 생강 3조각과 대조 2개를 넣고 물에 달여 복용한다. ○이 처방은 소시호탕、평위산、이진탕을 합하여 만든 것이다.

小清脾湯

소청비탕

治胃瘧及寒瘧.

위학(胃瘧)이나 한학(寒瘧)을 치료한다.

厚朴 二錢, 半夏、青皮、良姜、烏梅肉 各一錢, 草果(煨)、甘草(炙) 各五分.

후박 2돈, 반하、청피、양강、오매육 각 1돈, 초과(재에 묻어 굽는다)、자감초 각 5푼.

右剉, 入薑三棗二, 水煎服.

이상을 썬 후 생강 3조각과 대조 2개를 넣고 물에 달여 복용한다.

加減清脾湯

가감청비탕

治諸瘧, 卽小柴胡湯與人參養胃湯 [二方見外感], 合和也, 寒多熱少, 多用養胃湯, 熱多寒少, 多用小柴胡湯, 寒熱均則平用, 每貼, 入薑五棗二, 桃柳枝各三寸, 水煎, 空心服.

여러 가지 학질을 치료한다. 이 처방은 소시호탕과 인삼양위탕 [두 처방은 외감문에 나온다] 을 합한 것이다. 오한이 더 많고 발열이 적은 경우에는 인삼양위탕을 더 많이 넣고, 발열이 더 많고 오한이 적은 경우에는 소시호탕을 더 많이 넣으며, 오한과 발열이 비슷하면 똑같은 분량을 쓴다. 매 첩마다 생강 5조각, 대조 2개, 복숭아나무 가지와 버드나무 가지 각 3촌을 함께 물에 넣고 달여 빈속에 복용한다.

平陳湯

평진탕

治食瘧.

식학(食瘧)을 치료한다.

蒼朮、半夏 各二錢, 厚朴、陳皮、赤茯苓 各一錢二分半, 甘草 五分.

창출、반하 각 2돈, 후박、진피、적복령 각 1.25돈, 감초 5푼.

右剉, 入薑三棗二, 水煎服.

이상을 썬 후 생강 3조각과 대조 2개를 넣고 물에 달여 복용한다.

風瘧者, 少陽瘧也, 感風而發, 身熱頭痛, 煩渴引飲, 嘔吐泄瀉, 先熱後寒, 無汗, 宜散邪湯, 有汗, 宜正氣湯, 通用麻黃白朮湯.

풍학(風瘧)은 소양증의 학질이니 풍사에 감촉되어 발병한다. 몸통이 뜨거우며 머리가 아프고 번갈로 물을 찾으며 구토와 설사를 하는데 먼저 열이 난 후에 오한이 있다. 땀이 없으면 산사탕을 복용해야 하고, 땀이 있으면 정기탕을 복용해야 한다. 두루 쓰려면 마황백출탕을 쓴다.

散邪湯

산사탕

治風瘧初起, 頭疼身熱.

풍학(風瘧) 초기에 머리가 아프고 몸통이 뜨거운 경우를 치료한다.

川芎、白芷、麻黃、白芍藥、防風、荊芥穗、蘇葉、羌活 各一錢, 甘草 五分.

천궁、백지、마황、백작약、방풍、형개수、소엽、강활 각 1돈, 감초 5푼.

右剉, 入薑葱各三, 水煎, 露一宿, 早晨溫服.

이상을 썬 후 생강 3조각과 총백 3줄기와 함께 물에 달이고 하룻밤 밖에 내놓았다가 다음날 이른 새벽에 따뜻하게 데워 복용한다.

正氣湯

정기탕

治上同.

위와 같이 풍학(風瘧) 초기에 머리가 아프고 몸통이 뜨거운 경우를 치료한다.

柴胡、前胡、川芎、白芷、半夏、麥門冬、檳榔、草果(煨)、青皮、赤茯苓、桂枝、甘草 各五分.

시호、전호、천궁、백지、반하、맥문동、빈랑、초과(재에 묻어 굽는다)、청피、적복령、계지、감초 각 5푼.

右剉, 入薑三棗二, 水煎服.

이상을 썬 후 생강 3조각과 대조 2개를 넣고 물에 달여 복용한다.

柴胡加桂湯

시호가계탕

治風瘧, 往來寒熱, 極驗.

풍학(風瘧)으로 한열왕래가 있는 증상을 치료한다. 매우 효과가 좋았다.

柴胡 三錢, 黃芩、桂枝 各二錢, 半夏 一錢, 甘草 四分.

시호 3돈, 황금·계지 각 2돈, 반하 1돈, 감초 4푼.

右剉, 入薑三棗二, 水煎服.

이상을 썬 후 생강 3조각과 대조 2개를 넣고 물에 달여 복용한다.

寒瘧者, 太陽瘧也, 感寒而得頭痛身熱, 腰脊强, 寒多熱少, 宜桂枝羌活湯, 或人參養胃湯 [方見外感].

한학(寒瘧)은 태양증의 학질이다. 한사에 감촉되어 머리가 아프고 몸통이 뜨거우며 허리와 등줄기가 뻣뻣해지고 오한이 더 많고 발열이 적다. 계지강활탕이나 인삼양위탕 [처방은 외감문에 나온다] 을 써야 한다.

桂枝羌活湯

계지강활탕

治太陽瘧, 頭疼身熱, 脊强, 自汗惡風.

태양증의 학질(한학寒瘧)로 머리가 아프면서 몸통이 뜨겁고 등줄기가 뻣뻣하며 자한이 나면서 오풍이 있는 경우를 치료한다.

桂枝、羌活、防風、甘草 各一錢半.

계지、강활、방풍、감초 각 1.5돈.

右剉, 水煎服. ◦無汗, 去桂, 加麻黃, 名麻黃羌活湯.

이상을 썬 후 물에 달여 복용한다. ◦땀이 없는 경우에는 육계를 빼고 마황을 더한다. 이것을 마황강활탕이라고 부른다.

草果飲

초과음

治寒瘧, 腹痛嘔吐泄瀉, 乳食不進.

한학(寒瘧)으로 배가 아프면서 구토와 설사를 하고 젖이나 음식을 넘기지 못하는 경우를 치료한다.

草果(煨)、白芷、良薑、青皮、川芎、蘇葉、甘草(炙) 各一錢.

초과(재에 묻어 굽는다)、백지、양강、청피、천궁、소엽、자감초 각 1돈.

右剉, 入薑三, 水煎服.

이상을 썬 후 생강 3조각을 넣고 물에 달여 복용한다.

雙解飲子

쌍해음자

治寒瘧及瘴瘧.

한학(寒瘧)이나 장학(瘴瘧)을 치료한다.

肉豆蔻、草豆蔻 各二箇(一箇煨, 一箇生用), 厚朴 二寸(一寸薑汁浸炙, 一寸生用), 甘草 大者二兩(一半炙, 一半生), 生薑 二塊(一煨, 一生).

육두구、초두구 각 2개(1개는 재에 묻어 굽고, 1개는 생것을 쓴다), 후박 2촌(1촌은 생강즙에 담갔다가 굽고, 1촌은 생것을 쓴다), 감초 큰 것 2냥(절반은 굽고, 절반은 생것을 쓴다), 생강 2덩이(하나는 재에 묻어 굽고, 하나는 생것을 쓴다).

右各剉, 合分二貼, 入棗二梅一, 水煎, 空心服. ○一名交解飲.

이상의 약을 각각 썰어 두 첩으로 나눈 후 대조 2개와 오매 1개를 넣고 물에 달여 빈속에 먹인다. 〇교해음이라고도 한다.

痰瘧者, 因內傷乳食, 未即消解, 鬱而爲痰, 心膈痞脹, 氣逆不下, 吐食嘔乳, 肌肉跳動, 甚則昏迷卒倒, 終夕乃解, 宜二陳湯 [方見咳嗽], 加白豆蔻、草果, 或導痰湯加減, 或竹瀝, 調膽星抱龍丸服.

담학(痰瘧)은 젖이나 음식에 상한 후 즉시 풀어주지 않았기 때문에 울체되어 답음이 된 것이다. 가슴이 답답하면서 부풀고 기가 거슬러 올라 내려가지 않으며 음식이나 젖을 토하고 살이 불뚝불뚝 뛴다. 심하면 정신이 혼미해지면서 졸도해서는 저녁까지 깨어나지 못하게 된다. 이진탕 [처방은 해수문에 나온다] 에 백두구와 초과를 더해 써야 한다. 혹은 도담탕을 가감하여 쓰거나, 죽력에 담성포룡환을 타서 복용해야 한다.

露薑飲

노강음

治痰瘧, 嘔吐, 膈間跳動.

담학(痰瘧)으로 구토하면서 가슴 부근이 불뚝불뚝 뛰는 경우를 치료한다.

生薑四兩, 連皮搗取自然汁, 若明日當發, 隔夜露一宿, 五更初, 取澄者飲之, 或有痰吐出, 露薑養胃湯, 卽人參養胃湯 [方見外感], 合露薑飲也, 治久瘧三四日一發.

생강 4냥을 껍질째 짓찧어 자연즙을 만든다. 만약 다음날 발작할 차례라면 전날 밖에서 하룻밤 재우고 이른 새벽에 맑은 옷물을 모아 마신다. 간혹 가래를 토해 내는 경우가 있다. 노강양위탕은 바로 인삼양위탕 [처방은 외감문에 나온다] 에 노강음을 합한 것이니 구학(久瘧)으로 3 - 4일에 1번 발작하는 경우를 치료한다.

柴陳湯

시진탕

治痰瘧, 嘔吐不食, 眩暈.

담학(痰瘧)으로 구토하면서 먹지 못하고 현훈이 있는 경우를 치료한다.

柴胡、半夏 各二錢, 人參、黃芩、陳皮、赤茯苓 各一錢, 甘草 五分.

시호、반하 각 2돈, 인삼、황금、진피、적복령 각 1돈, 감초 5푼.

右剉, 入薑三棗二, 水煎服.

이상을 썬 후 생강 3조각과 대조 2개를 넣고 물에 달여 복용한다.

四獸飲

사수음

治痰瘧, 氣虛, 久不止.

담학(痰瘧)이 있을 때 기가 허하여 오랫동안 멎지 않는 경우를 치료한다.

人參、白茯苓、陳皮、半夏、草果(煨)、甘草、白朮、烏梅、生薑、大棗 各一錢.

인삼、백복령、진피、반하、초과(재에 묻어 굽는다)、감초、백출、오매、
생강、대조 각 1돈.

右剉, 作一貼, 拌鹽少許, 淹食頃, 以皮紙包裹, 水浸濕, 慢火煨香熟, 取出, 水煎服,
未發前, 連進數貼.

이상을 썰고 1첩으로 만든다. 소금을 약간 쳐서 한 식경 정도 재워 두었다가 얇은 종이로 싸 후 물에 담가 적시고 약한 불의 재 속에 묻어 향이 날 정도로 익힌다. 이것을 꺼내어 물에 달여 복용한다. 학질 증상이 발작하기 전에 연달아 몇 첩 복용하게 한다.

疫瘧者, 一方長幼相似, 或染時行, 變成寒熱, 宜不換金正氣散 [方見外感] .

역학(疫瘧)은 한 지방에서 어른이나 아이나 비슷하게 앓거나 혹은 전염병이 변하여 한열왕래가 되는 것이다. 불환금정기산 [처방은 외감문에 나온다] 을 써야 한다.

三解湯

삼해탕

治時行瘧, 長幼相似.

전염성 학질로 어른이나 아이가 비슷하게 앓는 경우를 치료한다.

麻黃、柴胡、澤瀉 各一錢半.

마황、시호、택사 각 1.5돈.

右剉, 入薑三, 水煎服.

이상을 썬 후 생강 3조각을 넣고 물에 달여 복용한다.

濕瘧者, 冒雨沾濕, 或汗出澡浴, 或久處濕地得之, 身重尿短, 面浮腹脹, 食少嘔泄, 寒熱相等, 宜五苓散 [方見吐瀉], 加蒼朮、羌活、防風, 或平胃散 [方見諸積], 加豬苓、澤瀉, 熱多, 令小柴胡湯 [方見外感] .

습학(濕瘧)은 비를 맞아 젖거나 땀을 흘리고 목욕을 하거나 습한 곳에서 오래 머물러서 생기게 된다. 몸이 무겁고 소변이 짙끔짙끔 나오며 얼굴이 붓고 배가 빵빵해지며 적게 먹고 구토와 설사를 하며 오한과 발열의 비율이 비슷하다. 오령산 [처방은 토사문에 나온다] 에 창출、강활、방풍을 더하여 쓰거나, 혹은 평위산 [처방은 제적(諸積)문에 나온다] 에 저령、택사를 더하여 써야 한다. 열이 많으면 소시호탕 [처방은 외감문에 나온다] 을 써야 한다.

三陰經瘧, 謂之溫瘧, 傷之重者也, 或云秋冬發者、夜發者, 皆謂之溫瘧也.

태음·厥음·소음증의 학질을 온학(溫瘧)이라고 부르니 막중하게 상한 경우이다. 혹자는 가을이나 겨울에 발생하거나 밤에 발작하는 학질을 모두 온학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麻黃黃芩湯

마황황금탕

治夜發瘧.

밤에 발작하는 학질을 치료한다.

麻黃 三錢, 黃芩 二錢, 甘草 一錢半, 桂心 一錢, 桃仁 十五粒.

마황 3돈, 황금 2돈, 감초 1.5돈, 계심 1돈, 도인 15알.

右剉, 水煎, 臨臥服. ○肝者血之海, 血受邪則肝氣燥, 經云, 肝苦急, 急食甘以緩之, 夜發熱, 陰邪深入, 桃仁苦甘辛, 故用此散血中風邪也.

이상을 썬 후 물에 달여 자기 전에 복용한다. ○간장은 혈이 모이는 곳이므로 혈이 사기에 상하면 간기(肝氣)가 건조해진다. 《경(經)》에서 '간장이 피곤하고 급박한 경우에는 급히 단맛을 먹어 이완시켜야 한다'고 하였다. 밤에 열이 발작하는 이유는 사기가 음경(陰經)으로 깊이 들어갔기 때문이다. 도인은 성미가 쓰면서 달면서 매우므로 이 약재로 혈 속의 풍사를 흩어야 한다.

柴胡四物湯

시호사물탕

治三陰經夜發瘧.

태음·厥음·소음증의 학질이 밤에 발작하는 경우를 치료한다.

柴胡、乾芩 各二錢, 人參、半夏、黃芩、川芎、當歸、赤芍藥、甘草 各一錢.

시호、건지황 각 2돈, 인삼、반하、황금、천궁、당귀、적작약、감초 각 1돈.

右剉, 入薑三棗二, 水煎服.

이상을 썬 후 생강 3조각과 대조 2개를 넣고 물에 달여 복용한다.

瘡母者, 瘡久不愈, 痰飲水飲, 結成癖塊, 藏於脇肋間, 脹硬牽痛, 治法無愈於灸, 參考癖積門治之.

학모(瘡母)는 학질이 오랫동안 낫지 않고 담음이나 습기가 뭉쳐 덩어리가 된 채 옆구리와 갈비뼈 부근에 자리 잡아 살이 단단하게 붙어나고 당기면서 아픈 것이다. 치료법으로는 뜸보다 좋은 것이 없다. 벽적(癖積)문을 참고하여 치료하라.

消癖元

소벽원

治瘡瘻, 彌年不愈, 腹脇間結爲癥癖, 堅硬牽痛, 面色萎黃, 肚大脚細.

학질이 몇 년 동안 낫지 않고 배와 옆구리 부근이 뭉치면서 징벽(癥癖)이 된 채 살이 단단해지면서 당기고 아프며 얼굴이 누렇게 뜨고 배가 똥똥해지며 다리가 가늘어지는 경우를 치료한다.

芫花(醋炒)、朱砂 各等分.

원화(식초에 축여 볶는다)、주사 각각 같은 양.

右末, 蜜丸小豆大, 每一二十丸, 棗湯, 量兒服.

이상을 가루 낸 후 꿀에 개어 소두 크기로 환을 빚는다. 아이의 몸집에 따라 한 번에 10 - 20환씩 대조탕으로 복용한다.

鰐甲飮子

별갑음자

治老瘡, 腹脇結癥癖, 時有牽痛, 名曰瘡母.

학질이 오래 되어 배와 옆구리 부근이 뭉치면서 징벽(癥癖)이 되고 가끔 당기면서 아픈 경우를 치료한다. 이것을 학모(瘡母)라고 부른다.

鰐甲(醋灸) 二錢, 白朮、黃芩、草果(煨)、檳榔、川芎、陳皮、厚朴、白芍藥 各一錢, 甘草 五分.

별갑(식초에 축여 굽는다) 2돈, 백출、황금、초과(재에 묻어 굽는다)、빈랑、천궁、진피、후박、백작약 각 1돈, 감초 5푼.

右剉, 入薑三棗二, 烏梅一, 水煎服.

이상을 썬 후 생강 3조각과 대조 2개와 오매 1개를 넣고 물에 달여 복용한다.

鬼瘡者, 寒熱日作, 多生恐怖, 進退無常.

귀학(鬼瘡)은 한열왕래가 날마다 발작하고 계속 무언가를 무서워하며 앞으로 가다가 갑자기 뒤로 물러나는 것이다.

雄朱丹

웅주단

治鬼瘡.

귀학(鬼瘡)을 치료한다.

黑豆 大者四十九粒(約五錢重, 端午日, 以冷水浸, 從早至巳, 去皮曬乾), 信石(醋煮三次) 一錢.

흑두 큰 것 49알(약 5돈을 단오날 새벽부터 사시巳時까지 냉수에 담갔다가 겹질을 제거하고 벌에 말려 쓴다), 신석(식초에 달이기를 3차례 한다) 1돈.

右細末, 麵糊丸, 少壯人梧子大, 老人黃豆大, 小兒菉豆大, 雄黃朱砂爲衣, 曬乾貯收, 臨發五更, 面東, 井水下一丸. ○一名瘡靈丹. ○古方截瘡之法, 用信石, 吐出黃水痰涎而愈, 蓋信石 [卽砒礬也] 大熱大毒, 壯實人猶且慎用, 況小兒乎, 兒有大小, 未周歲兒, 或久瘡元氣虛敗者, 慎勿輕用.

이상을 곱게 가루 낸 후 밀가루풀에 개어 젊은이는 오동자 크기로, 노인은 황두(黃豆) 크기로, 아이는 녹두 크기로 환을 빚는다. 그리고 옹황과 주사를 곁에 입혀 벌에 말린 후 저장해 놓는다. 발작하는 날 새벽에 동쪽을 향한 상태에서 우물물로 1환을 넘긴다. ○일명 학령단이라고도 한다. ○옛 방서에서 학질을 끊는 방법. 신석을 써서 누른 물과 담연(痰涎)을 토해 내게 하면 좋아진다. 대체로 신석 [비상이다] 은 성미가 매우 뜨겁고 독성이 강하여 건장한 사람이라도 매우 조심히 써야 하는 약재인데 하물며 아이에게는 어떻겠는가. 아이 중에는 몸집이 큰 아이와 작은 아이가 있고 돌도 지나지 않은 아이도 있고 간혹 오랜 학질로 원기가 바닥난 경우도 있으니 이 방법은 매우 조심하여 함부로 쓰지 말아야 한다.

禁忌

금기

瘡發日, 勿飽食, 亦勿帶熱飽食. ○瘡方來時, 不可服藥, 蓋服藥在於未發前一二時, 否則病藥交爭, 轉爲深害. ○勿食猪羊牛肉生冷等物.

학질이 발작하는 날에는 배불리 먹지 말아야 한다. 또한 열이 나는 상태에서는 배불리 먹지 말아야 한다. ○학질이 막 발작하기 시작할 때에는 약을 복용해서는 안된다. 대체로 복약은 발작하기 1 - 2시진(時辰) 전에 해야 하니 그렇지 않으면 병과 약이 서로 부딪혀 도리어 극심한 피해가 될 것이다. ○돼지고기나 양고기나 소고기나 생랭(生冷)한 음식을 먹지 말아야 한다.

一方, 夜明砂炒, 爲細末, 每一錢, 未發前, 冷茶調服, 治小兒諸瘡. ○小兒熱瘡, 口舌焦燥, 大渴引飲, 生葛根淨洗, 搗爛取汁, 和薑蜜少許, 微溫服. ○青蘘童便浸一宿, 曬乾, 每一二錢, 水煎服, 治諸瘡. ○芫花細末, 每二三分, 以鷄子一箇, 破頂作孔, 入末攪勻, 紙糊頂口, 外用濕紙包裹, 慢火煨熟, 與兒嚼吃. ○小兒瘡間日一發, 或逐日一發, 大寒戰大發熱, 煩燥不安, 人糞蜜塗灸存性, 細末, 每一二錢, 量兒大小, 薄荷煎湯調服, 數次. ○臘雪水和薑蜜, 調清心丸快服.

어떤 서적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다. '야명사(볶는다)를 곱게 간 후 한 번에 1돈씩 아직 발작하지 않은 상태에서 식은 차에 타서 복용하면 소아의 여러 가지 학질을 치료한다. ○아이가 열학(熱瘡)으로 입과 혀가 바짝 마르고 심한 갈증으로 물을 찾을 때는 생갈근을 깨끗하게 씻고 짓찧어 즙을 낸 후 생강즙과 꿀을 조금 타서 미지근하게 데워 복용한다. ○청호를 동변에 하룻밤 담갔다가 별에 말린 후 1 - 2돈씩 물에 달여 복용하면 여러 가지 학질을 치료한다. ○원화를 곱게 가루 낸다. 달걀 1개의 꼭대기에 구멍을 내고 원화가루 2 - 3푼을 넣어 골고루 섞은 후 종이를 구멍에 붙인다. 달걀 겉을 습지로 싸서 약한 불의 재 속에서 익힌다. 이것을 아이에게 주어 씹어 먹게 한다. ○아이가 학질로 이틀에 1번 발작하거나 하루에 1번 발작하면서 오한과 발열이 심하고 번조로 불안해하는 경우의 치료법. 인분에 꿀을 발라 약성이 남도록 구운 후 곱게 가루 낸다. 한 번에 1 - 2돈씩 아이의 몸집에 따라 박하 달인 물에 타서 몇 번 복용한다. ○납설수(臘雪水)에 생강즙과 꿀을 타고 청심환을 풀어서 꼭 먹인다.'

- 申校理 [靖夏] 二歲兒, 一日朝寒戰發熱, 移時乃定, 連三日如期而至, 衆醫皆以爲腹瘡痛, 欲以鍼治之, 余曰, 腹瘡與瘡同有寒熱, 而腹瘡則日晡身熱呻吟, 夜間發熱肚熱尤甚, 到曉稍定, 而翌日亦然也, 瘡者寒戰後發熱, 發熱後汗出身涼, 此非腹瘡, 乃太陽寒瘡也, 宜乳道用草果飲以溫脾, 消導行氣, 主家不信而鍼治, 月餘, 元氣漸敗, 腹脇脹滿, 四末有浮氣, 更問於余, 余以柴胡六君子湯 [方見吐瀉], 加草果、砂仁, 連用五劑, 寒熱等症減歇, 而虛汗不止, 繼用補中益氣湯 [方見吐瀉], 調補脾胃而痊.
- [의안] 교리(校里) 신정하(申靖夏)의 두 살배기 아이가 어느 날 아침 오한으로

떨면서 열이 나다가 시간이 지나니 곧 진정되었는데 연달아 3일 동안 일정하게 반복하였다. 여러 의원들이 모두 복학(腹瘧)으로 아픈 것이라 여기고는 침으로 치료하려고 하였다. 나는 "복학은 학질과 똑같이 한열왕래가 있지만 낮 동안에는 몸이 뜨거워 신음하며 아파하다가 밤에는 열이 나는데 특히 배가 뜨겁고 새벽이 되면서 좀 진정되었다가 다음날 또다시 반복됩니다. 학질은 오한으로 떨다가 그 후에 열이 나고, 열이 난 후에는 땀을 흘리면서 몸이 식습니다. 이 아이는 복학이 아니라 바로 태양증의 한학(寒瘧)입니다. 그러니 젖과 함께 초과음을 먹여 비장을 따뜻하게 해주고 적취를 빼주면서 기를 잘 운행시켜야 합니다."라고 말하였으나 그 집 사람들은 내 말을 믿지 않고 침으로 치료하겠다고 하였다. 한 달 남짓 지나자 아이의 원기가 점점 바닥나고 배와 옆구리가 뻥뻥해지며 사지가 통통 부어 다시 나에게 진료를 청하였다. 내가 시호육군자탕 [처방은 토사문에 나온다] 에 초과와 사인을 더하여 연달아 5첩을 썼더니 오한과 발열 등의 증상이 줄어들었지만 허한(虛汗)은 멎지 않았다. 이어서 보중익기탕 [처방은 토사문에 나온다] 을 써서 비장과 위를 잘 조리하니 병이 나았다.

及幼方卷之十 금유방 권10

橫城 趙廷俊重卿 集

황성 조정준(趙廷俊, 字 重卿) 편저



外感 外感

小兒傷寒，陰陽表裏，與大科同，但所異者，夾驚挾乳食傷而已，雜病亦然，推此治之。

소아의 상한에 있어서 음증·양증, 표증·리증은 성인과 동일하다. 다만 다른 점은 경풍을 겸한 경우 또는 젖이나 음식에 상한 식상을 겸한 경우가 있다는 것이다. 외감 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병증도 마찬가지로 이 점을 미루어 치료해야 한다.

傷寒初起，未發熱時，惡寒無汗，手足微冷，畏人喜暖，貪睡密衣，面顴身痛，呵吹頓悶，左額有青紋，人迎脈盛，手背熱，發熱則晝夜不止，宜量體汗之。

상한 초기에 아직 열이 나기 전에는 오한이 나고 땀이 없으며 손발은 약간 냉하고 사람을 피하며 따뜻한 곳을 좋아하고 계속 자려고 하며 옷을 계속 여미고 얼굴이 칙칙해지며 몸살이 생기고 소리 내면서 하품하며 갑자기 답답해하고 왼쪽 이마에 푸른 핏줄이 드러나며 인영맥이 왕성해지고 손등이 뜨겁다. 발열 후에는 밤낮으로 열이 떨어지지 않는다. 아이의 몸집에 따라 땀을 내주어야 한다.

傷風初起，惡風自汗，身熱氣促，鼻塞聲重，咳嗽噴嚏，面光發熱，治與傷寒同，但傷風有汗只解肌，切忌大汗〔左額青紋，手背熱，人迎盛，傷寒同〕，痰盛者，參蘇飲，氣弱者，惺惺散，壯熱者，升麻葛根湯。

상풍 초기에는 오풍(惡風)과 자한이 있고 몸통이 뜨거우면서 숨을 헐떡이며 코가 막히면서 목이 잠기고 기침이나 재채기를 하며 얼굴이 붉어지면서 열이 난다. 치료법은 상한의 치료법과 동일하다. 다만 상풍은 땀이 나도 해기시키는 정도로만 해야지 절대 크게 땀을 내서는 안된다. [왼쪽 이마에 푸른 핏줄이 드러나고 손등이 뜨거우며 인영맥이 왕성한 점은 상한과 같다.] 담음이 왕성한 경우에는 삼소음을 쓰고, 기가 허약한 경우에는 성성산을 쓰며, 열이 심한 경우에는 승마갈근탕을 쓴다.

夾食傷寒者, 頭額肚腹熱甚, 兼嘔吐腹痛, 右額角青筋, 如小葱葉, 宜人參羌活散, 加青皮、蘇葉, 或藿香正氣散, 內傷生冷, 外感風寒, 寒熱如瘧者, 人參養胃湯.

상한에 식상을 겸한 경우에는 머리와 이마와 배에 열이 심하고 구토·복통까지 생기며 오른쪽 이마 끝에 쪽파 잎 같이 푸른 핏줄이 드러난다. 인삼강활산에 청피와 소엽을 더하여 쓰거나 곽향정기산을 써야 한다. 속으로 생랭(生冷)한 음식에 상하고 겉으로 풍사나 한사에 감촉되어 학질처럼 한열왕래가 있는 경우에는 인삼양위탕을 쓴다.

夾驚傷寒者, 面色青紅, 掌心有汗, 時作驚惕, 夜睡不安, 手絡脈微動, 額正中有青紋, 發熱者驚熱也, 宜脫甲散、紅綿散, 或人參羌活散, 加殭蠶、全蝎、白附子、麻黃、蟬退, 便閉, 加大黃, 或錢氏利驚丸、龍腦安神丸 [二方見驚風], 驚輕者, 先發表而後安神.

상한에 경풍을 겸한 경우에는 얼굴이 파랗거나 붉고 손바닥에 땀이 나며 가끔씩 깜짝 놀라고 밤에 편히 잠들지 못하며 손의 맥박이 미약하게 뛰고 이마 정중앙에 푸른 핏줄이 나타난다. 열이 나는 경우는 경풍으로 생긴 열이다. 탈갑산·홍면산을 쓰거나 혹은 인삼강활산에 백강잠·전갈·백부자·마황·선향을 더하여 써야 한다. 변비인 경우에는 대황을 더해 쓰거나 혹은 전씨이경환이나 용뇌안신환 [두 처방은 경풍문에 나온다] 을 써야 한다. 경풍이 가벼운 경우에는 우선 발표약(發表藥)을 쓰고 그 후에 안신약(安神藥)을 써야 한다.

夫傷寒者, 霜降後至春分前, 凡有寒邪觸冒, 卽病者也, 感冒者, 四時之氣不正, 調理失宜, 乍暖脫衣, 乍熱飲冷, 坐臥當風, 侵傷肌膚, 入于腠理, 令人微有頭疼, 身溫沈困, 鼻塞聲重, 咳嗽噴嚏, 不可便認爲傷寒妄投藥餌, 只宜從輕和解.

상한은 상강(霜降)부터 춘분 사이에 한사에 감촉된 직후에 생기는 병이다. 감모는 사계절 중 날씨가 이상할 때 몸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잠깐 따듯하다고 옷을 벗거나 잠깐 덥다고 냉수를 마시거나 앉거나 누운 채 바람을 쐬어 사기가 피부로 침입하고 주리까지 들어간 것으로 머리가 약간 아프고 몸이 따

뜻해지면서 까라지며 코가 막혀 목이 잠기고 기침이나 재채기를 하는 병이다.
2가지 모두 상한으로 오인하고 함부로 약을 쓰지 않아야 하니 그저 가벼운 증
상부터 풀어주면 된다.

太陽傷寒, 頭疼身熱, 脊強, 惡寒無汗, 宜麻黃湯, 惡風自汗, 宜桂枝湯.

태양증의 상한은 머리가 아프면서 몸이 뜨겁고 등줄기가 뻣뻣하다. 오한이 있
고 땀이 나지 않으면 마황탕을 쓰고, 오풍과 자한이 있으면 계지탕을 써야 한
다.

○麻黃湯

○마황탕

治太陽傷寒, 頭疼身痛, 百節俱痛, 無汗, 惡風寒而喘.

태양증의 상한으로 머리가 아프고 몸이 쭈시며 온 마디가 모두 아프고 땀이 없
으며 오풍과 오한이 있으면서 숨을 헐떡이는 증상을 치료한다.

麻黃 三錢, 桂枝 二錢, 甘草 六分, 杏仁 十枚.

마황 3돈, 계지 2돈, 감초 6푼, 행인 10개.

右剉, 入薑三蔥白二, 水煎溫服, 須臾, 啜稀粥一盞, 以助藥力, 令遍身微汗之, 卽解.

[陶氏麻黃湯, 本方, 加升麻、川芎、白芷、防風、羌活、藁本, 入姜蔥豆豉煎, 熱
服, 如上法.]

이상을 썬 후 생강 3조각과 총백 2줄기를 넣고 물에 달여 따뜻하게 복용한다.
잠시 후에 묽은 죽 1잔을 먹어 약기운을 돕고 온몸에 살짝 땀이 나게 만들면 금
세 풀린다. [도씨마황탕은 본방에 승마、천궁、백지、방풍、강활、고본을
더하고 생강、총백、두시와 함께 달인 후 뜨겁게 데워 복용하되 나머지는 앞
의 복용법과 같다.]

○桂枝湯

○계지탕

治太陽傷風, 自汗, 惡風寒.

태양증의 상풍으로 자한, 오통, 오한이 있는 증상을 치료한다.

桂枝 三錢, 白芍藥 二錢, 甘草 一錢.

계지 3돈, 백작약 2돈, 감초 1돈.

右剉, 入薑三棗二, 水煎溫服. [陶氏桂枝湯, 本方, 加防風、川芎、羌活、藁本, 姜棗煎, 臨熟, 入飴糖二匙, 熱服, 微汗之, 卽解.]

이상을 썬 후 생강 3조각과 대조 2개를 넣고 물에 달여 따뜻하게 복용한다.

[도씨계지탕은 본방에 방풍, 천궁, 강활, 고본을 더하고 생강, 대조와 함께 달인 후 거의 달여졌을 때 이당(飴糖) 2술을 넣는다. 뜨겁게 데워 복용하고 살짝 땀을 내면 금세 풀린다.]

○九味羌活湯

○구미강활탕

不問四時, 但有頭疼骨節痛, 發熱惡寒, 無汗, 脈浮緊, 宜用此以代麻黃, 爲穩當.

사계절을 불문하고 단지 머리가 아프고 뼈마디가 아프며 열이 나고 오한이 있으며 땀은 없고 맥이 부긴(浮緊)한 경우에는 이 약을 써서 마황탕을 대신하는 것이 옳다.

羌活、防風 各一錢半, 蒼朮、川芎、白芷、黃芩、生芩 各一錢二分, 細辛、甘草 各五分.

강활、방풍 각 1.5돈, 창출、천궁、백지、황금、생지황 각 1.2돈, 세신、감초 각 5푼.

右剉, 入薑三葱棗各二, 水煎服. 一名羌活沖和湯. ◦有汗, 不得服麻黃, 無汗, 不得服桂枝, 若誤服, 則其變不可勝言, 故立此法, 使不犯三陽禁忌, 乃解表神方也. ◦羌活, 治太陽肢節痛, 乃撥亂反正之主也, 防風, 治一身盡痛, 聽將軍命令而行, 蒼朮, 雄壯上行之氣, 能除濕氣下安太陰, 甘草, 緩裏急, 和諸藥, 川芎, 治厥陰頭痛在腦, 生芎, 治少陰心熱在內, 黃芩, 治太陰肺熱在胸, 白芷, 治陽明頭痛在額, 細辛, 治少陰腎經苦頭痛.

이상을 썬 후 생강 3조각, 총백 2줄기, 대조 2개를 넣고 물에 달여 복용한다. 강활충화탕이라고도 한다. ◦땀이 나는 경우에는 마황탕을 복용하지 말아야 하고, 땀이 나지 않는 경우에는 계지탕을 복용하지 말아야 한다. 만약 잘못 복용하면 그 변고를 다 말할 수 없을 정도이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기준을 세워 세 가지 양증에 대한 금기를 범하지 않도록 해야만 표부를 풀어주는 신묘한 처방이 될 것이다. ◦강활은 태양증일 때 사지와 관절의 통증을 치료하니 바로 반란을 평정하여 정상으로 되돌리는 주역이다. 방풍은 몸 전체의 통증을 치료하니 장군의 명령을 받아 행동하는 역할이다. 창출은 웅장하게 위로 올라가는 기운이 있으므로 습사를 제거하고 아래쪽으로는 족태음비경을 안정시키는 역할이다. 감초는 뱃속이 당기는 증상을 완화시키며 여러 약재를 조화시키는 역할이다. 천궁은 궤음증의 두통이 머릿속까지 들어간 증상을 치료하는 역할이다. 생지황은 소음증일 때 심장의 열이 속에 남아있는 증상을 치료하는 역할이다. 황금은 태음증일 때 폐열이 가슴에 남아있는 증상을 치료하는 역할이다. 백지는 양명증일 때 두통이 이마까지 이어진 증상을 치료하는 역할이다. 세신은 소음증일 때 신장이 피곤하여 생긴 두통을 치료하는 역할이다.

◦人參敗毒散

◦인삼패독산

治傷寒時氣發熱, 頭痛項強, 肢體煩疼, 及傷風咳嗽, 鼻塞聲重.

유행성 상한으로 열이 나고 머리가 아프며 뒷목이 뻣뻣해지고 사지와 온몸이 미친듯이 쑤시는 경우를 치료한다. 또한 상풍으로 기침을 하고 코가 막히며 목이 잠기는 증상도 치료한다.

羌活、獨活、柴胡、前胡、桔梗、枳殼、川芎、赤茯苓、人參 甘草 各一錢.

강활、독활、시호、전호、길경、지각、천궁、적복령、인삼 감초 각 1돈.

右剉, 入薑三葱二, 薄荷少許, 水煎服.

이상을 썬 후 생강 3조각과 총백 2줄기와 박하 약간을 넣고 물에 달여 복용한다.

○荊防敗毒散

○형방패독산

上方, 加荊芥、防風各等分, 製服亦同.

위의 인삼패독산에서 형개、방풍 각각 같은 양을 더한다. 제법과 복용법도 인삼패독산과 같다.

○麻黃桂枝湯

○마황계지탕

治太陽病八九日, 發熱惡寒, 寒熱如瘧.

태양증의 상한으로 8-9일째 열이 나고 오한이 생기며 학질처럼 한열왕래가 있는 경우를 치료한다.

桂枝、白芍藥 各二錢, 麻黃 一錢二分, 甘草 一錢, 杏仁 八分.

계지·백작약 각 2돈, 마황 1.2돈, 감초 1돈, 행인 8푼.

右剉, 入薑五棗二, 水煎服.

이상을 썬 후 생강 5조각과 대조 2개를 넣고 물에 달여 복용한다.

陽明症, 目痛鼻乾不眠, 身熱惡寒, 爲表邪, 宜葛根解肌湯, 煩渴自汗, 狂譫潮熱, 大小便秘, 爲裏熱, 調胃承氣湯.

양명증의 상한은 눈이 아프고 코가 마르며 잘 자지 못하고 몸통이 뜨거우면서 오한이 나는데 이는 표부의 사기 때문이니 갈근해기탕을 써야 한다. 번갈, 자한, 광증, 섬어, 조열이 있으면서 대소변이 나오지 않는 경우는 몸속의 열 때문이니 조위승기탕을 써야 한다.

○葛根解肌湯

○갈근해기탕

治陽明經, 目痛鼻乾, 不得臥, 宜解肌.

양명증의 상한으로 눈이 아프고 코가 마르며 잠들지 못하는 경우를 치료한다.
이 때는 해기(解肌)시켜야 한다.

葛根、柴胡、黃芩、赤芍藥、羌活、石膏、升麻、白芷、桔梗 各一錢, 甘草 五分.

갈근·시호·황금·적작약·강활·석고·승마·백지·길경 각 1돈, 감초 5푼.

右剉, 入薑三棗二, 水煎服. ○一名柴葛解肌湯.

이상을 썬 후 생강 3조각과 대조 2개를 넣고 물에 달여 복용한다. ○일명 시갈해기탕이라고도 한다.

○升麻葛根湯

○승마갈근탕

治陽明經表症, 及四時感冒風寒, 頭痛身熱, 咳嗽鼻涕, 又治痘瘡麻疹初症.

양명증 상한의 표증 및 사계절과 무관하게 풍사나 한사에 감촉되어 두통, 몸살, 기침, 콧물이 생긴 경우를 치료한다. 또한 두창이나 마진의 초기 증상도 치료한다.

葛根 二錢, 白芍藥、升麻、甘草 各一錢.

갈근 2돈, 백작약、승마、감초 각 1돈.

右剉, 入薑三蔥二, 水煎服.

이상을 썬 후 생강 3조각과 총백 2줄기를 넣고 물에 달여 복용한다.

○白虎湯

○백호탕

治陽明經, 汗多煩渴, 脈洪大.

양명증의 상한으로 땀이 많이 나고 번갈이 있으며 맥이 홍대(洪大)한 경우를 치료한다.

石膏 五錢, 知母 二錢, 甘草 七分, 粳米 半合.

석고 5돈, 지모 2돈, 감초 7푼, 갱미 0.5홉.

右剉, 水煎服.

이상을 썬 후 물에 달여 복용한다.

○人參白虎湯

○인삼백호탕

上方, 加人參一錢.

위 백호탕에서 인삼 1돈을 더한다.

○蒼朮白虎湯

○창출백호탕

白虎湯, 加蒼朮一錢.

백호탕에서 창출 1돈을 더한다.

○竹葉石膏湯

○죽엽석고탕

治傷寒解後餘熱, 及陽明自汗煩渴, 并治差後虛煩等症.

상한에 해기시킨 후 남아 있는 열이 있는 경우와 양명증의 상한으로 자한과 번갈이 있는 경우를 치료한다. 또한 병이 나은 후에 허번 등의 증상이 있는 경우도 치료한다.

石膏 四錢, 人參 二錢, 麥門冬 一錢半, 半夏 一錢, 甘草 七分.

석고 4돈, 인삼 2돈, 맥문동 1.5돈, 반하 1돈, 감초 7푼.

右剉, 入竹葉七片, 粳米百粒, 水煎, 入姜汁二匙, 溫服.

이상을 썰고 죽엽 7조각, 갱미 100알과 함께 물에 달인 후 생강즙 2술을 넣고 따뜻하게 데워 복용한다.

○猪苓湯

○저령탕

治陽明症, 小便不利, 脈浮而渴.

양명증의 상한으로 소변이 잘 나오지 않고 맥이 부(浮)하면서 갈증이 나는 경우를 치료한다.

赤茯苓、猪苓、澤瀉、阿膠珠、滑石 各一錢.

적복령、저령、택사、아교주、활석 각 1돈.

右剉, 水煎, 臨熟, 入阿膠煎烱, 溫服.

이상을 썬 후 물에 달이다가 거의 달여졌을 때 아교를 넣고 녹인다. 따뜻하게 데워서 복용한다.

少陽症半表半裏, 寒熱往來, 頭疼身熱, 口苦耳聾, 脇痛乾嘔, 宜和解.

소양증 상한의 반표반리증으로 한열왕래가 있고 두통과 몸살이 나며 입이 쓰고 귀가 잘 들리지 않으며 옆구리가 아프고 헛구역질이 나는 경우에는 화해시켜야 한다.

○小柴胡湯

○소시호탕

治少陽症半表半裏, 寒熱往來, 能和其內熱, 解其外邪, 傷寒方之正道也.

소양증의 상한의 반표반리증으로 한열왕래가 있는 경우를 치료한다. 몸속과 몸 밖에서 침입한 사기를 화해시킬 수 있으니 상한증 처방의 표준 치료법이다.

柴胡 三錢, 黃芩 二錢, 人參、半夏 各一錢, 甘草 五分.

시호 3돈, 황금 2돈, 인삼、반하 각 1돈, 감초 5푼.

右剉, 入薑三棗二, 水煎服. ○一名和解散. ○少陽半表症裏多者, 用黃芩湯. [方見痢疾門. 卽黃芩芍藥湯.]

이상을 썬 후 생강 3조각과 대조 2개를 넣고 물에 달여 복용한다. ○일명 화해산이라고도 한다. ○소양증 상한의 반표반리증 중 이증이 더 많은 경우에는 황금탕을 쓴다. [처방은 이질문에 나온다. 황금작약탕과 같다.]

○十棗湯

○십조탕

治少陽症, 脇下引痛, 蓋懸飲伏飲, 壅於中焦也, 用此下之.

소양증 상한으로 옆구리 아래가 당기면서 아픈 경우를 치료하니 이 증상은 아마 현음(懸飲)이나 복음(伏飲)이 중초에 응체되었기 때문일 것이다. 이 약을 써서 대변으로 빼내야 한다.

莞花(微炒)·甘遂·大戟(炒) 等分.

원화(살짝 볶는다)·감수·대극(볶는다) 각각 같은 양.

右細末, 別取大棗十枚, 水一盞, 煎至半, 去棗, 調藥末, 量其大小虛實服之, 乃泄水之聖藥, 然慎不可輕用也.

이상을 곱게 가루 낸다. 약재와 별개로 대조 10개를 물 1잔에 달이다가 절반이 되면 대조를 건져 내고 약가루를 탄다. 아이의 몸집이나 허실에 따라 복용시킨다. 이 약은 수기(水氣)를 빼내는 명약이지만 함부로 쓰지 말고 조심해야 한다.

太陰症, 腹滿自利不渴, 宜理中湯 [方見吐瀉], 脣青肢冷, 脈沈細, 四逆湯, 或身熱腹脹, 煩渴不寐, 大小便不通, 譫語, 坐臥不安, 宜下, 大柴胡湯, 兼有發黃, 茵陳蒿湯.

태음증의 상한에 배가 더부룩하고 설사를 하지만 갈증이 없는 경우에는 이중탕 [처방은 토사문에 나온다] 을 써야 한다. 입술이 파래지면서 사지가 냉하고 맥이 침세(沈細)한 경우에는 사역탕을 써야 한다. 간혹 몸통이 뜨겁고 복창

이 있으며 번갈로 잠들지 못하고 대소변이 나오지 않으며 섬어를 하고 앉거나 누워도 편하지 않는 경우에는 하법을 써야 하니 대시호탕을 복용한다. 황달을 겸한 경우에는 인진호탕을 써야 한다.

○茵陳蒿湯

○인진호탕

治太陰症, 胃府濕熱盛, 發黃.

태음증의 상한으로 위에 습사와 열사가 왕성해져 황달이 된 경우를 치료한다.

茵陳 三錢, 大黃(炒) 一錢半, 山梔(炒研) 一錢.

인진 3돈, 대황(볶는다) 1.5돈, 산치인(볶아서 간다) 1돈.

右剉, 水二盞, 先煎茵陳, 至半, 納二藥, 又煎至半, 去滓, 溫服, 日再服.

이상을 썬 후 물 2잔에 우선 인진을 달이다가 절반이 되면 나머지 2가지 약재를 넣고 다시 절반이 되도록 달인다. 찌꺼기를 제거하고 따뜻하게 데워서 하루 2번 복용한다.

少陰症, 舌乾口燥, 或下利清水, 譫語便閉, 宜小承氣湯, 面寒脣青, 四肢厥冷, 指甲青黑者, 姜附湯.

소음증의 상한으로 혀와 입이 마르고 간혹 묽은 설사를 하거나 섬어를 하거나 대변이 나오지 않기도 한 경우에는 소승기탕을 써야 한다. 얼굴이 시리고 입술이 파래지며 사지 끝이 냉하면서 손발톱이 검푸른 색인 경우에는 강부탕을 써야 한다.

○姜附湯

○강부탕

治傷寒陰症, 及中寒.

상한의 음증 및 중한(中寒)을 치료한다.

乾姜(炮) 一兩, 附子(炮) 一枚.

건강(습지에 써서 굽는다) 1냥, 부자(습지에 써서 굽는다) 1개.

右剉, 每五錢, 水煎服. ○附子生用, 名白通湯.

이상을 썬 후 5돈씩 물에 달여 복용한다. ○생부자를 쓰면 백통탕이라고 부른다.

○眞武湯

○진무탕

治小陰病, 腹滿痛, 小便利, 或下利嘔吐.

소음증의 상한으로 배가 더부룩하면서 아프고 소변은 잘 나오며 간혹 설사나 구토를 하는 경우를 치료한다.

赤茯苓、赤芍藥、附子(炮) 各三錢, 白朮 二錢.

적복령、적작약、부자(습지에 써서 굽는다) 각 3돈, 백출 2돈.

右剉, 入薑三片, 水煎服.

이상을 썬 후 생강 3조각을 넣고 물에 달여 복용한다.

厥陰症, 手足厥冷, 小腹滿痛, 煩懣囊縮, 脈微欲絕, 宜當歸四逆湯, 或小腹脹痛, 二便不通, 譫語煩渴, 宜下, 小承氣湯.

궤음증의 상한으로 손발 끝부터 냉해지고 아랫배가 더부룩하면서 아프며 미칠듯이 답답하고 음낭이 쪼그라들며 맥이 미약하여 끊어질 듯한 경우에는 당귀사역탕을 써야 한다. 혹은 아랫배가 똥똥하면서 아프고 대소변이 모두 잘 나

오지 않고 섬어와 번갈아 있는 경우에는 하법을 써야 하니 소승기탕을 복용한다.

○當歸四逆湯

○당귀사역탕

治厥陰症, 手足逆冷, 脈微欲絕.

궤음증의 상한으로 손발의 끝부터 냉해지고 맥이 미약하여 끊어질 듯한 경우를 치료한다.

當歸、白芍藥 各二錢, 桂枝 一錢半, 細辛、通草、甘草 各一錢.

당귀、백작약 각 2돈, 계지 1.5돈, 세신、통초、감초 각 1돈.

右剉, 入棗二, 水煎服.

이상을 썬 후 대조 2개를 넣고 물에 달여 복용한다.

傷寒陽症初起, 發熱惡寒, 頭痛身熱, 無汗, 脈浮緊, 皆屬於三陽表症, 宜汗以散之.

상한의 양증 초기에는 열이 나고 오한이 있으며 두통과 몸살이 있고 땀은 나지 않으며 맥은 부긴(浮緊)하다. 모두 세 양경(陽經)의 표증에 속하므로 땀을 내서 사기를 흩어 주어야 한다.

○麻黃杏仁飲

○마황행인음

治傷寒太陽經初症, 脈浮緊.

태양증의 상한 초기에 맥이 부긴(浮緊)한 경우를 치료한다.

麻黃、桔梗、前胡、黃芩、陳皮、半夏 各一錢,杏仁、細辛 各八分,防風 七分,甘草 四分.

마황、길경、전호、황금、진피、반하 각 1돈,행인、세신 각 8푼,방풍 7푼,
감초 4푼.

右剉,入薑三,水煎服.

이상을 썬 후 생강 3조각을 넣고 물에 달여 복용한다.

○香蘇散

○향소산

治四時傷寒,頭疼身痛,發熱惡寒,及傷寒傷風傷濕,時氣瘟疫.

사계절과 무관하게 상한으로 두통, 몸살, 발열, 오한이 있는 경우 및 상한, 상
풍, 상습(傷濕), 유행성 온역을 치료한다.

便香附、蘇葉 各二錢,蒼朮 一錢半,陳皮 一錢,甘草(炙) 五分.

변향부자、소엽 각 2돈,창출 1.5돈,진피 1돈,자감초 5푼.

右剉,入薑三葱白二,水煎服.

이상을 썬 후 생강 3조각과 총백 2줄기를 넣고 물에 달여 복용한다.

○芎芷香蘇散

○궁지향소산

上方,加川芎、白芷,治風寒,頭痛項強,百節俱痛,表裏陰陽未分,皆可服.

위 향소산에 천궁·백지를 더한 것이다. 풍사나 한사에 상하여 머리가 아프고 뒷목이 뻣뻣하며 온 관절이 아픈 경우를 치료한다. 표증·이증, 음증·양증, 표리나 음양이 구분되지 않는 경우에 모두 복용할 수 있다.

○十神湯

○십신탕

治兩感風寒, 頭痛身熱, 無汗惡寒.

풍사와 한사로 생긴 양감상한(兩感傷寒)으로 머리가 아프고 몸통이 뜨거우며 땀은 나지 않고 오한이 있는 경우를 치료한다.

便香附、蘇葉、升麻、赤芍藥、麻黃、陳皮、川芎、乾葛、白芷、甘草 各一錢.

변향부자·소엽·승마·적작약·마황·진피·천궁·건갈·백지·감초 각 1돈.

右剉, 入薑三葱白二, 水煎服.

이상을 썬 후 생강 3조각과 총백 2줄기를 넣고 물에 달여 복용한다.

○香葛湯

○향갈탕

治傷寒, 不問陰陽兩感, 頭痛身熱, 寒熱往來.

상한음증, 상한양증, 양감상한을 불문하고 머리가 아프고 몸통이 뜨거우며 한 열왕래가 있는 경우를 치료한다.

蒼朮、蘇葉、白芍藥、便香附、升麻、陳皮、葛根 各一錢, 川芎、白芷、甘草 各五分.

창출, 소엽, 백작약, 변향부자, 승마, 진피, 갈근 각 1돈, 천궁, 백지, 감초 각 5푼.

右剉, 入薑三葱白二, 豆豉七粒, 水煎服.

이상을 썬 후 생강 3조각과 총백 2줄기와 두시 7알을 넣고 물에 달여 복용한다.

○葱白散

○총백산

治四時傷寒傷風, 頭痛身疼, 惡寒體熱, 煩渴.

사계절과 무관하게 상한이나 상풍으로 두통, 몸살, 오한, 번갈이 있으며 몸이 뜨거운 경우를 치료한다.

麻黃 二錢, 蒼朮、白芷、川芎 各一錢半, 石膏、葛根、甘草 各七分半.

마황 2돈, 창출, 백지, 천궁 각 1.5돈, 석고, 갈근, 감초 각 7.5푼.

右剉, 入薑三葱白二, 水煎服.

이상을 썬 후 생강 3조각과 총백 2줄기를 넣고 물에 달여 복용한다.

○參蘇飲

○삼소음

治感冒風寒, 頭痛發熱咳嗽, 及內傷七情, 痰盛胸滿, 潮熱.

풍사나 한사에 감촉되어 두통, 발열, 기침이 있는 경우와 속으로 칠정(七情)에 상하여 가래가 심해지고 가슴이 답답하며 조열이 있는 경우를 치료한다.

人參、蘇葉、前胡、半夏、乾葛、赤茯苓 各一錢, 陳皮、桔梗、枳殼、甘草 各七分半.

인삼、소엽、전호、반하、건갈、적복령 각 1돈, 진피、길경、지각、감초 각 7.5푼.

右剉, 入薑三棗二, 水煎服.

이상을 썬 후 생강 3조각과 대조 2개를 넣고 물에 달여 복용한다.

○惺惺散

○성성산

治傷風, 發熱痰嗽煩渴.

상풍으로 열이 나고 가래 기침을 하며 번갈이 있는 증상을 치료한다.

人參、白朮、白茯苓、桔梗、川芎、白芍藥、瓜蒌根、甘草 各二分半, 細辛、薄荷 各一分.

인삼、백출、백복령、길경、천궁、백작약、과루근、감초 각 2.5푼, 세신、박하 각 1푼.

右剉, 入薑二, 水煎服.

이상을 썬 후 생강 2조각을 넣고 물에 달여 복용한다.

○加減惺惺散

○가감성성산

蒼朮、荊芥、防風、川芎、白芷、羌活、甘草、當歸、天花粉、赤芍藥、桔梗 各等分, 細辛、薄荷 各半減.

창출、형개、방풍、천궁、백지、강활、감초、당귀、천화분、적작약、길경 각각 같은 양, 세신、박하 각각 절반 분량.

右剉, 入姜三, 水煎服.

이상을 썬 후 생강 3조각을 넣고 물에 달여 복용한다.

○脫甲散

○탈갑산

治小兒傷寒夾驚, 發熱頭痛, 日久不瘥.

소아의 상한에 경풍이 겸하여 열이 나고 머리가 아픈 상태로 며칠 지나도록 낫지 않는 경우를 치료한다.

麻黃、柴胡、當歸、知母、草龍膽 各三分, 赤茯苓 二分半, 人參、川芎 各二分, 甘草 四分.

마황、시호、당귀、지모、초롱담 각 3푼, 적복령 2.5푼, 인삼、천궁 각 2푼, 감초 4푼.

右剉, 入薑二葱白一, 水煎服. ○表未解, 加蘇葉, 裏未解, 加大黃.

이상을 썬 후 생강 2조각과 총백 1줄기를 넣고 물에 달여 복용한다. ○표증이 풀리지 않았으면 소엽을 더하고, 이증이 풀리지 않았으면 대황을 더한다.

○紅綿散

○홍면산

治小兒夾驚傷寒, 及痘疹初症, 發驚搐.

소아의 상한에 경풍이 겸한 경우 및 두진(痘疹) 초기 증상으로 경축(驚搐)이 생긴 경우를 치료한다.

天麻、麻黃、全蝎(炒去毒)、荊芥、甘草 各等分.

천마、마황、전갈(볶아서 독성을 없앤다)、형개、감초 각각 같은 양.

右剉, 水煎服.

이상을 썬 후 물에 달여 복용한다.

○加減紅綿散

○가감홍면산

本方, 去甘草, 加蟬退、紫草茸、薄荷等分, 入葱白, 水煎服, 治痘症驚搐.

본방인 홍면산에서 감초를 빼고 설했, 자초용, 박하 각각 같은 양을 더한 후 총백과 함께 물에 달여 복용한다. 두창으로 경축(驚搐)이 생긴 경우를 치료한다.

○人參羌活湯

○인삼강활탕

治傷寒傷風, 發熱驚搐.

상한이나 상풍으로 열이 나면서 경축이 생긴 경우를 치료한다.

人參、羌活、獨活、柴胡、前胡、桔梗、枳殼、川芎、赤茯苓、甘草 各二分半,
天麻、地骨皮 各一分半.

인삼、강활、독활、시호、전호、길경、지각、천궁、적복령、감초 각 2.5
푼, 천마、지골피 각 1.5푼.

右剉, 入薄荷三葉, 水煎服.

이상을 썬 후 박하잎 3장을 넣고 물에 달여 복용한다.

○羌活膏

○강활고

治外感風寒, 驚氣內積, 發熱驚搐, 咳嗽潮熱, 及痘疹初症, 發熱搐搦.

겉으로 풍사나 한사에 감촉되거나 경기(驚氣)가 몸속에 쌓여 열이 나면서 경
축(驚搐)이 나타나고 기침을 하며 조열이 나는 경우 및 두창이나 마진 초기 증
상에 열이 나면서 축닉(搐搦)이 있는 경우를 치료한다.

人參、羌活、獨活、川芎、前胡、桔梗、天麻 各五錢, 地骨皮、薄荷 各一錢, 甘草
二錢.

인삼、강활、獨활、천궁、전호、길경、천마 각 5돈, 지골피、박하 각 1돈,
감초 2돈.

右細末, 煉蜜和丸芡實大, 每一丸, 姜湯化下.

이상을 곱게 가루 낸 후 연밀에 개어 검실 크기로 환을 빚는다. 한 번에 1환씩
생강탕에 녹여서 넘긴다.

○冲和散

○충화산

治四時感冒風寒.

사계절과 무관하게 풍사나 한사에 감촉된 경우를 치료한다.

蒼朮 四錢, 荊芥 二錢, 甘草 一錢.

창출 4돈, 형개 2돈, 감초 1돈.

右剉, 入薑三葱白二, 水煎服.

이상을 썬 후 생강 3조각과 총백 2줄기를 넣고 물에 달여 복용한다.

○小青龍湯

○소청룡탕

治傷寒表不解, 因心下有水氣, 乾嘔氣逆, 發熱咳喘.

상한의 표증이 풀어지지 않은 채 명치에 담음이 생겨 헛구역질을 하고 기운이 거슬러오르며 열이 나고 심하게 기침하는 경우를 치료한다.

麻黃(去節)、赤芍藥、五味子、半夏 各一錢半, 細辛、乾姜(炮)、桂枝、甘草(炙) 各一錢.

마황(마디를 제거한다)、적작약、오미자、반하 각 1.5돈, 세신、건강(습지에 싸서 굽는다)、계지、자감초 각 1돈.

右剉, 入姜三葱二, 水煎服.

이상을 썬 후 생강 3조각과 총백 2줄기를 넣고 물에 달여 복용한다.

○消風百解散

○소풍백해산

治感傷風寒, 頭身俱痛, 鼻塞聲重.

상풍이나 상한으로 머리와 몸이 모두 아프고 코가 막히면서 목이 잠기는 경우를 치료한다.

荊芥、蒼朮、白芷、陳皮、麻黃 各一錢, 甘草 五分.

형개、창출、백지、진피、마황 각 1돈, 감초 5푼.

右剉, 入薑三葱白二, 水煎服.

이상을 썬 후 생강 3조각과 총백 2줄기를 넣고 물에 달여 복용한다.

○神朮散

○신출산

治傷寒傷風, 頭痛身熱, 惡寒發熱, 無汗.

상한이나 상풍으로 머리가 아프고 몸통이 뜨거우며 오한과 열이 나며 땀은 나지 않는 경우를 치료한다.

蒼朮 二錢, 荊芥、藁本、葛根、麻黃(去節)、甘草(炙) 各一錢.

창출 2돈, 형개, 고본, 갈근, 마황(마디를 제거한다), 자감초 각 1돈.

右剉, 入薑三蔥二, 水煎服.

이상을 썬 후 생강 3조각과 총백 2줄기를 넣고 물에 달여 복용한다.

○雙解散

○쌍해산

治傷寒表裏不解.

상한의 표증과 이증이 풀리지 않는 경우를 동시에 치료한다.

滑石 三錢, 甘草 一錢, 石膏、黃芩、桔更 各七分, 防風、川芎、當歸、赤芍藥、大黃、薄荷、連翹(去膜)、芒硝、荊芥、白朮、山梔(炒)、麻黃 各五分.

활석 3돈, 감초 1돈, 석고, 황금, 길경 각 7푼, 방풍, 천궁, 당귀, 적작약, 대황, 박하, 연교(속을 제거한다), 망초, 형개, 백출, 산치인(볶는다), 마황 각 5푼.

右剉, 入薑三蔥二, 豉半合, 同煎服, 此方乃益元散, 與通聖散合劑也, 益元散通裏, 通聖散發表, 兩得其宜也.

이상을 썬 후 생강 3조각과 총백 2줄기와 두시 0.5홉을 넣고 한꺼번에 달여 복용한다. 이 처방은 바로 익원산과 통성산을 합한 것이다. 익원산은 이증을 소통시키고 통성산은 표증을 발산시키므로 양쪽 모두 치료하기에 적합하다.

傷寒陰症初起, 四肢厥冷, 吐利不渴, 靜謐, 脈沈, 皆屬於三陰裏症, 宜溫散, 五積散, 甚者, 眞武湯.

상한음증 초기에는 사지 끝부터 냉해지고 구토와 설사를 하되 갈증은 없으며 가만히 웅크려 있고 맥은 침(沈)하다. 이 증상은 모두 세 음경(陰經)의 이증에 속하므로 따뜻하게 해주면서 풀어주어야 하니 오적산을 써야 한다. 증상이 심한 경우에는 진무탕을 쓴다.

○五積散

○오적산

治感傷風寒, 頭痛身疼, 四肢逆冷, 胸腹作痛, 嘔吐泄瀉, 或內傷生冷, 外感風寒, 並皆主之.

상한이나 상풍으로 머리가 아프고 몸이 쭈시며 사지 끝부터 냉해지고 가슴과 배가 아프며 구토와 설사를 하는 경우를 치료한다. 혹은 속으로 생랭(生冷)한 음식에 상하거나 겉으로 풍사나 한사에 감촉된 경우도 모두 치료한다.

蒼朮 二錢, 麻黃、陳皮 各一錢, 厚朴、桔梗、枳殼、當歸、乾姜(炮)、白芍藥、白茯苓 各八分, 白芷、川芎、半夏、桂皮 各七分, 甘草 六分.

창출 2돈, 마황·진피 각 1돈, 후박·길경·지각·당귀·건강(습지에 싸서 굽는다)·백작약·백복령 각 8푼, 백지·천궁·반하·계피 각 7푼, 감초 6푼.

右剉, 入薑三蔥白三, 水煎服. ○一方, 除白芷、桂皮, 餘材慢火炒, 令色變, 攤冷, 入桂芷, 名曰熟料五積散, 不炒, 名曰生料五積散.

이상을 썬 후 생강 3조각과 총백 3줄기를 넣고 물에 달여 복용한다. ◦어떤 서적에는 '백지·계피를 제외한 나머지 약재를 모두 약한 불에 볶다가 색깔이 변하면 펼쳐 놓아 식힌 후에 백지와 계피를 넣은 것을 숙료오적산, 볶지 않고 쓴 것을 생료오적산이라고 한다.'고 되어 있다.

◦辛黃三白湯

◦신황삼백탕

治陰症傷寒在表者.

상한음증의 표증을 치료한다.

人參、白朮、白芍藥 各二錢, 白茯苓、當歸 各一錢, 細辛、麻黃 各五分.

인삼·백출·백작약 각 2돈, 백복령·당귀 각 1돈, 세신·마황 각 5푼.

右剉, 入薑三棗二, 水煎服.

이상을 썬 후 생강 3조각과 대조 2개를 넣고 물에 달여 복용한다.

◦人參養胃湯

◦인삼양위탕

治傷寒陰症, 及外傷風寒, 內傷生冷, 增寒壯熱, 頭疼身痛.

상한음증을 치료한다. 또한 겉으로 풍사나 한사에 상하거나 속으로 생랭(生冷)한 음식에 상하여 오한발열이 심하고 머리가 아프며 몸이 쑤시는 경우도 치료한다.

蒼朮 一錢半, 陳皮、厚朴、半夏 各一錢二分半, 赤茯苓、藿香 各一錢, 人參、草果(煨)、甘草(炙) 各五分.

창출 1.5돈, 진피·후박·반하 각 1.25돈, 적복령·곽향 각 1돈, 인삼·초과(재에 묻어 굽는다)·자감초 각 5푼.

右剉, 入薑三棗二, 烏梅一箇, 水煎服, 令微汗濺濺, 自然解散, 若有餘熱, 以參蘇飲, 款款調之.

이상을 썬다. 생강 3조각, 대조 2개, 오매 1개를 넣고 물에 달여 복용한 후 살짝 축축해질 정도로 땀을 내면 자연스레 풀어진다. 만약 열이 모두 없어지지 않으면 삼소음으로 천천히 조리시킨다.

◦藿香正氣散

◦곽향정기산

治傷寒陰症, 頭疼身痛, 如不分表裏症, 以此導引經絡, 不致變動.

상한음증으로 머리가 아프고 몸이 쑤시는 경우를 치료한다. 표증과 이증이 구분되지 않는 경우에는 이 약을 써서 경락으로 인도해야만 역증이 되지 않는다.

藿香 一錢半, 紫蘇葉 一錢, 白芷、大腹皮、白茯苓、厚朴、白朮、陳皮、半夏、桔更、甘草(炙) 各五分.

곽향 1.5돈, 자소엽 1돈, 백지·대복피·백복령·후박·백출·진피·반하·길경·자감초 각 5푼.

右剉, 入薑三棗二, 水煎服.

이상을 썬 후 생강 3조각과 대조 2개를 넣고 물에 달여 복용한다.

◦不換金正氣散

◦불환금정기산

治傷寒陰症, 頭疼身痛, 或寒熱往來.

상한음증으로 머리가 아프고 몸이 쭈시며 간혹 한열왕래가 있는 경우를 치료한다.

蒼朮 二錢, 厚朴、陳皮、藿香、半夏、甘草(炙) 各一錢.

창출 2돈, 후박、진피、곽향、반하、자감초 각 1돈.

右剉, 入薑三棗二, 水煎服.

이상을 썬 후 생강 3조각과 대조 2개를 넣고 물에 달여 복용한다.

傷寒熱入裏者, 不惡寒, 反惡熱, 煩燥發渴, 揚手躑足, 譫語不得眠, 手足汗出, 大便秘, 小便赤, 宜小下, 小承氣湯, 或白虎湯和胃, 甚者, 熱毒在胃, 併入於心, 神昏不定, 言動急速, 妄語妄笑, 發狂出外, 宜大下, 大承氣湯, 或調胃承氣湯, 又有陽極似陰者, 是陽厥也, 熱氣深入伏於內, 故四肢厥逆, 狀若陰症, 但身冷而不欲近衣, 神昏而氣色光潤, 脈必沈滑而有力也, 便認爲陰症, 投以熱藥, 則禍如反掌, 宜大承氣、調胃承氣湯之類, 承熱服之, 或破棺散、活龍散, 量宜用之.

상한으로 열이 몸속에 들어가면 오한이 아니라 도리어 오열이 생기면서 번조와 갈증이 생기고 손발을 가만히 있지 못하며 섬어를 하고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며 손발에서 땀이 나고 변비가 생기며 소변이 붉게 된다. 이 때는 약하게 하법을 써야 하니 소승기탕이나 백호탕으로 위를 편안하게 해야 한다. 증상이 심한 경우에는 열독이 위에 있다가 심장까지 들어가게 되어 정신이 혼미하고 말이나 행동이 빨라지며 혼자 말하고 웃으며 미친듯이 밖으로 뛰쳐 나가게 된다. 이 때는 강하게 하법을 써야 하니 대승기탕이나 조위승기탕을 써야 한다. 그리고 양증이 심하여 마치 음증 같은 경우도 있으니 이것이 상한양궤(傷寒陽厥)이다. 열기가 깊숙이 들어가 몸속에 숨어있기 때문에 사지 끝부터 냉해져 증상이 마치 음증 같다. 다만 몸통이 냉한데도 옷을 입으려 하지 않고 정신이 혼미한데도 기색은 멀쩡하며 맥은 반드시 침활(沈滑)하면서 힘이 있다. 문득

음증이라고 생각하여 뜨거운 성질의 약을 주게 되면 화를 당하기가 손바닥을 뒤집는 일처럼 쉬울 것이다. 대승기탕이나 조위승기탕 같은 약을 뜨겁게 데워 복용해야 한다. 혹은 파관산이나 활룡산을 아이의 몸집에 따라 써야 한다.

○大黃丸

○대항환

治風熱內實，口中氣熱，大小便閉，飲水不止。

풍사나 열사가 몸속에 가득하여 입의 숨이 뜨겁고 대소변이 나오지 않으며 물을 계속 마시는 증상을 치료한다.

大黃(酒炒) 一兩，黑丑(頭末) 五錢，川芎 五分，甘草 一分。

대항(술에 축여 볶는다) 1냥, 흑축(만물가루) 5돈, 천궁 5푼, 감초 1푼.

右細末，糊丸麻子大，每十丸，量兒大小虛實，蜜湯調下。

이상을 곱게 가루 낸 후 풀에 개어 마자 크기로 환을 빚고 한 번에 10환씩 꿀물에 타서 넘기되 아이의 몸집과 허실에 따라 가감한다.

○小承氣湯

○소승기탕

傷寒裏症，小熱小實小滿，宜緩下者，用此。

상한 이증(裏症)에 약간 열이 나고, 약간 실증이며, 약간 더부룩한 경우에는 부드럽게 하법을 써야 하니 이 약을 쓴다.

大黃 四錢，厚朴、枳實 各一錢半。

대황 4돈, 후박·지실 각 1.5돈.

右剉, 水煎服.

이상을 썬 후 물에 달여 복용한다.

○大承氣湯

○대승기탕

傷寒裏症, 大熱大實大滿, 宜急下者, 用此.

상한 이증(裏症)에 열이 심하고, 실증이 심하며, 매우 더부룩한 경우에는 강하게 하법을 써야 하니 이 약을 쓴다.

大黃 四錢, 芒硝、厚朴、枳實 各二錢.

대황 4돈, 망초、후박、지실 각 2돈.

右剉, 水二大盞, 先煎枳朴, 煎至一盞, 乃下大黃, 煎至七分, 去渣, 入硝再煎一沸, 溫服.

이상을 썬다. 물 2대잔(大盞)에 우선 지실과 후박을 달이다가 1잔이 되면 대황을 넣고 7할이 되도록 달인다. 찌꺼기를 제거하고 망초를 넣은 후 다시 1소끔 달이고 따듯할 때 복용한다.

○調胃承氣湯

○조위승기탕

治傷寒裏症, 大便堅硬, 小便赤澀, 潮熱狂譫.

상한 이증(裏症)에 대변이 딱딱하게 굳고 소변은 빨갛고 잘 나오지 않으며 조열과 광증과 섬어가 있는 경우를 치료한다.

大黃 四錢, 芒硝 二錢, 甘草 一錢.

대황 4돈, 망초 2돈, 감초 1돈.

右剉, 先煎大黃、甘草, 至半去渣, 入硝, 再煎一沸, 溫服.

이상을 썬다. 먼저 대황·감초를 달여 절반이 되면 찌꺼기를 제거하고 망초를 넣어 다시 1소속 달인다. 따뜻할 때 복용한다.

○大柴胡湯

○대시호탕

治傷寒病, 少陽轉屬陽明, 身熱, 不惡寒反惡熱, 大便堅, 小便赤, 譫語腹脹, 潮熱煩渴.

소양증에서 양명증으로 전변된 상한으로 몸통이 뜨겁고 오한이 나지 않으면서 도리어 오열이 있으며 대변이 딱딱하게 굳고 소변이 빨갛게 되며 섬어, 복창, 조열, 변갈이 있는 경우를 치료한다.

柴胡 四錢, 黃芩、赤芍藥 各二錢半, 大黃 二錢, 枳實 一錢半, 半夏 一錢.

시호 4돈, 황금·적작약 각 2.5돈, 대황 2돈, 지실 1.5돈, 반하 1돈.

右剉, 入薑三棗二, 水煎服. ○小柴胡, 去人參、甘草, 加芍藥、大黃、枳實也, 以芍藥下安太陰, 使邪氣不納, 以大黃去地道不通, 以枳實去心下痞悶也.

이상을 썬 후 생강 3조각과 대조 2개를 넣고 물에 달여 복용한다. ○소시호탕에서 인삼·감초를 빼고 작약·대황·지실을 더한 것이다. 작약은 아래쪽으로 족태음비경을 편안하게 하여 사기가 들어오지 못하게 만들고, 대황은 대변이 나오지 않는 증상을 없애며, 지실은 명치가 답답한 증상을 제거한다.

○三一承氣湯

○삼일승기탕

治傷寒雜病, 熱入裏之深, 大小便不通者.

여러 가지 상한으로 열이 몸속 깊이 들어가 대소변이 나오지 않는 경우를 치료한다.

甘草 三錢, 大黃、厚朴、枳實、芒硝 各錢半.

감초 3돈, 대황、후박、지실、망초 각 0.5돈.

右剉, 入薑三, 煎至半, 去渣, 入硝再煎一沸, 溫服.

이상을 썬다. 생강 3조각과 함께 물에 달여 절반이 되면 찌꺼기를 제거하고 망초를 넣어 다시 1소끔 달인다. 따뜻할 때 복용한다.

○六一順氣湯

○육일순기탕

治傷寒, 熱邪傳裏, 大便結實, 口燥咽乾, 譫語發狂, 潮熱自汗, 胸腹脹滿等症. ○以代大小調胃三一承氣大柴胡大陷胸等湯之神方也.

상한에 열사가 몸속으로 침입하여 대변이 꼭 막히고 입과 목이 건조하며 섬어, 광증, 조열, 자한이 있고 가슴과 배가 뻥뻥해지는 증상을 치료한다. ○대승기탕、소승기탕、조위승기탕、삼일승기탕、대시호탕、대함흉탕 같은 처방을 대신할 수 있는 명방이다.

大黃 二錢, 枳實、厚朴、芒硝、柴胡、黃芩、赤芍藥、甘草 各一錢.

대황 2돈, 지실、후박、망초、시호、황금、적작약、감초 각 1돈.

右剉, 入姜三, 水煎, 入鐵鑪水三匙調服. [鐵鑪水, 鐵上赤衣刮浸水用, 性沈重, 最能墜熱.]

이상을 썬 후 생강 3조각을 넣고 물에 달여 철수수(鐵鑪水) 3술을 타서 복용한다. [철수수는 쇠에 손 녹을 굽어 물에 담갔다가 그 물을 쓰는 것으로 무겁고 가라앉는 성질이 있으므로 열을 떨어뜨리는 데 매우 탁월하다.]

○陶氏黃龍湯

○도씨황룡탕

治熱邪傳裏胃中, 燥糞結實, 心下硬痛, 純下清水.

열사가 위 속에 타고 들어가서 생긴 조시(燥屎) 때문에 배가 단단하면서 아픈 채 멀건 물만 싸는 경우를 치료한다.

大黃 二錢, 芒硝 一錢半, 枳實、厚朴 各一錢, 人參、當歸、甘草 各五分.

대황 2돈, 망초 1.5돈, 지실·후박 각 1돈, 인삼·당귀·감초 각 5푼.

右剉, 入姜三棗二, 水煎溫服.

이상을 썬 후 생강 3조각과 대조 2개를 넣고 물에 달여 따뜻할 때 복용한다.

陽毒發痧者, 三陽經熱深, 變爲發痧如錦紋, 面赤咽痛, 六脈洪大有力, 輕者, 消痧青黛飲 [方見癰疹], 重者, 大承氣湯下之, 又有春溫發痧, 謂之溫毒發痧, 夏熱發痧, 謂之熱毒發痧, 時行發痧, 謂之時毒發痧, 名雖不同, 皆歸於熱也, 心火胃熱承肺, 發點於皮膚間, 切忌發汗, 或小兒外感風寒, 身熱頭痛, 二三日後發痧者, 仍以升麻葛根湯, 加玄參、連翹, 或加牛蒡子、荊芥, 發散解肌, 則身涼而自愈.

상한의 양독발반(陽毒發痧)은 세 양경(陽經)의 열이 깊어 비단 무늬 같은 반점으로 변한 것으로 얼굴이 붉고 목구멍이 아프며 육맥은 홍대(洪大)하면서 힘이 있다. 증상이 가벼운 경우에는 소반청대음 [처방은 은진문에 나온다] 을 쓰고, 심한 경우에는 대승기탕을 써서 대변으로 빼낸다. 그리고 따뜻한 봄에 생기는 반점을 온독발반(溫毒發痧)이라고 하고 더운 여름에 생기는 반점을 열독발반(熱毒發痧)이라고 하며, 유행성으로 생기는 반점을 시독발반(時毒發痧)

癍)이라고 한다. 명칭은 다르지만 모두 열 때문이라는 점은 같다. 심장의 화기나 위의 열이 폐로 전해지게 되면 피부에 점이 생기는데 이 때에는 절대 땀을 내는 치료를 금해야 한다. 간혹 아이가 풍사나 한사에 감촉되어 몸통이 뜨거우면서 머리가 아프다가 2-3일 후에 반점이 생기는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승마갈근탕을 쓰되 현삼과 연교를 더해 쓰거나 혹은 우방자와 형개를 더하여 발산시키고 해기시키면 몸이 식으면서 저절로 좋아진다.

○三黃石膏湯

○삼황석고탕

治傷寒陽毒發癍, 身黃眼赤, 狂叫欲走譫語, 六脈洪大.

상한의 양독발반으로 몸이 누레지면서 눈이 충혈되고 미친듯이 소리치르면서 뛰려고 하고 섬어를 하며 육맥이 홍대(洪大)한 경우를 치료한다.

石膏 三錢, 黃芩、黃連、黃柏、山梔仁 各一錢半, 麻黃 一錢, 香豉 半合.

석고 3돈, 황금、황련、황백、산치인 각 1.5돈, 마황 1돈, 향두시 0.5홉.

右剉, 入姜三, 細茶一撮, 水煎服.

이상을 썬 후 생강 3조각과 세다 1찰을 넣고 물에 달여 복용한다.

○陽毒升麻湯

○양독승마탕

治傷寒陽毒, 面赤狂言, 或見鬼, 脈大而數.

상한의 양독발반으로 얼굴이 붉어지면서 미친 소리를 하고 간혹 귀신을 보기도 하며 맥은 대(大)하면서 삭(數)한 경우를 치료한다.

黃芩 二錢, 升麻、射干、人參 各一錢, 犀角 一錢半, 甘草 七分.

황금 2돈, 승마·사간·인삼 각 1돈, 서각 1.5돈, 감초 7푼.

右剉, 水煎服, 出汗則解.

이상을 썬 후 물에 달여 복용하고 땀을 내면 증상이 풀린다.

○陽毒梔子湯

○양독치자탕

治陽毒, 大渴煩燥, 面紅眼赤.

상한의 양독발반으로 갈증이 심하고 번조가 있으며 얼굴이 붉어지면서 눈이 충혈되는 경우를 치료한다.

石膏 二錢, 升麻、黃芩、杏仁、柴胡 各一錢, 梔子、赤芍藥、知母、大青 各七分, 甘草 五分.

석고 2돈, 승마·황금·행인·시호 각 1돈, 치자·적작약·지모·대청 각 7푼, 감초 5푼.

右剉, 入薑五, 香豉百粒, 同煎服.

이상을 썬 후 생강 5조각과 향두시 100알을 넣고 한꺼번에 달여 복용한다.

○三黃巨勝湯

○삼황거승탕

治陽毒, 發狂極甚, 用此劫之, 卽前三黃石膏湯, 去麻黃、香豉, 加大黃、芒硝, 入姜一棗二, 臨熟, 入泥漿清水二匙調服. [泥土中清水]

상한의 양독발반으로 발광이 극심한 경우를 치료하려면 이 약으로 억눌러야 한다. 이 약은 바로 앞에 나온 삼황석고탕에서 마황·향두시를 빼고 대황·망초를 더한 것으로 생강 1조각과 대조 2개를 함께 넣고 복용하되, 거의 익을 무

럽 이장청수(泥漿清水) 2술을 넣고 섞어 복용한다. [이장청수는 진흙물의 맑은 옷물이다.]

○活龍散

○활룡산

治陽毒發癍如錦紋, 神昏譫狂.

상한의 양독발반으로 비단 무늬 같은 것이 생기고 정신이 혼미하며 섬어와 광증이 생긴 경우를 치료한다.

地龍大者四五條, 洗淨, 研取汁, 入薑汁少許, 薄荷汁及蜜各一匙, 新汲水調和, 徐徐灌盡, 漸次涼快, 若熱熾, 則加片腦少許.

지렁이 큰 것 4 - 5마리를 깨끗하게 씻고 갈아서 즙으로 만든다. 여기에 생강즙 약간과 박하즙·꿀 각 1술을 넣고 신급수에 잘 섞어 약 전부를 천천히 입에 흘려 넣으면 점점 정신이 돌아온다. 열이 치성한 경우에는 편뇌를 약간 더한다.

○破棺散

○파관산

治傷寒熱病, 發狂心燥, 言語不定, 不省人事, 人屎乾者, 燒存性水漬, 飲汁一二盞, 卽甦, 或細研如麪, 新汲水, 和些蜜二三盞調服, 俗名野人乾水.

상한의 열독으로 발광하고 가슴이 두근거리며 말을 진정하지 못하고 인사불성 된 경우의 치료법. 사람의 똥 마른 것을 약성이 남도록 태우고 물에 담갔다가 그 물을 1 - 2잔 마시면 금세 정신을 차린다. 혹은 사람의 똥 마른 것을 밀가루처럼 곱게 간 후 꿀을 약간 탄 신급수에 섞어 복용하기도 한다. 흔히 야인건수(野人乾水)라고 부른다.

水漬法

수지법

治陽毒大熱, 發狂不能制伏, 青布五六尺疊摺, 新水浸之, 搭病人胸上, 須臾蒸熱, 又浸水, 又搭之, 日數十易. ○又法, 菉豆煮湯一鍋, 稍溫, 用青布數重, 蘸湯, 搭於胸膈, 冷則再蘸湯搭之, 日數十易, 被覆得汗而愈.

상한의 양독으로 열이 심하여 제압할 수 없을 정도로 발광하는 경우의 치료법. 파란색 천 5 - 6자를 몇 겹으로 접고 신급수에 담갔다가 환자의 가슴에 붙인다. 조금 후에 뜨거워지면 다시 물에 담갔다가 다시 붙인다. 이렇게 하루에 수십 번 바꿔준다. ○또 다른 치료법. 녹두 달인 물 1술을 조금 따뜻할 때 몇 겹으로 접은 파란색 천에 적서 가슴에 붙인다. 천이 식으면 다시 적셔서 붙인다. 이렇게 하루에 수십 번 바꿔주고 옷이나 이불을 덮어 땀을 내주면 좋아진다.

○黃連解毒湯

○황련해독탕

治傷寒大熱, 煩躁不得眠, 及一切熱毒.

상한으로 열이 심하고 번조로 제대로 자지 못하는 경우 및 열독 일체를 치료한다.

黃連、黃芩、黃柏、梔子 各一錢二分半.

황련、황금、황백、치자 각 1.25돈.

右剉, 入薑三, 水煎服. ○一名解毒湯.

이상을 썬 후 생강 3조각을 넣고 물에 달여 복용한다. ○해독탕이라고도 한다.

傷寒表未解, 而早下之, 熱入裏膈內, 心下硬痛滿悶, 手不可近, 謂之大結胸, 心下按之則痛, 謂之小結胸, 水飲結於胸脇牽痛, 謂之水結胸, 小青龍湯, 有寒實結胸者, 無熱症, 而二便自調, 宜枳實理中丸 [方見吐瀉] .

상한의 표증이 아직 풀리지 않았을 때 너무 일찍 하법을 쓰면 열독이 몸속이나 흉격 속으로 들어가는데 명치가 단단하면서 아프고 더부룩하면서 답답하여 손도 못대게 한다. 이것을 대결흉(大結胸)이라고 한다. 명치를 꼭 눌렀을 때 아픈 경우는 소결흉(小結胸)이라고 한다. 담음이 가슴이나 옆구리에 뭉쳐 당기고 아픈 경우는 수결흉(水結胸)이라고 한다. 소청룡탕을 써야 한다. 한실결흉(寒實結胸)도 있는데 이 때는 열증도 없고 대소변도 정상이다. 지실이중환 [처방은 토사문에 나온다] 을 써야 한다.

○大陷胸湯

○대함흉탕

治大結胸.

대결흉(大結胸)을 치료한다.

大黃 三錢, 芒硝 二錢, 甘遂(末) 五分.

대황 3돈, 망초 2돈, 감수(가루) 5푼.

右剉, 分二貼, 每取一貼, 先煎大黃, 至六分, 納硝再煎一二沸, 去滓, 納甘遂末攪服, 快利.

이상을 썬 후 2첩으로 나눈다. 한 번에 1첩씩 우선 대황을 달이다가 6할이 되면 망초를 넣고 1 - 2소속 다시 달인다. 찌꺼기를 제거하고 감수가루를 넣고 저어서 복용하면 시원하게 설사한다.

○小陷胸湯

○소함흉탕

治小結胸.

소결흉(小結胸)을 치료한다.

半夏 五錢, 黃連 二錢半, 瓜蒌 大者四分一.

반하 5돈, 황련 2.5돈, 과루 큰것의 4분의 1 분량.

右剉, 作一貼, 水二盞, 先煎瓜蒌, 至一盞, 乃入半夏、黃連再煎, 至半, 去滓溫服, 未利再服. ○一方, 加枳實、黃芩、桔更, 尤好. ○瓜蒌, 惟剉其殼, 勿剉其子. ○合小柴胡湯, 名柴陷湯.

이상을 썬 후 1첩으로 하여 물 2잔에 우선 과루를 달이다가 1잔이 되면 반하와 황련을 넣고 다시 달인다. 다시 절반이 되면 찌꺼기를 제거하고 따뜻할 때 복용한다. 설사를 하지 않으면 다시 복용한다. ○어떤 서적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다. '지실、황금、길경을 더하면 더욱 좋다. ○과루는 껍질만 썰고 씨는 썰지 말아야 한다. ○소시호탕과 합하면 시험탕이라고 부른다.'

○三物白散

○삼물백산

治寒實結胸.

한실결흉(寒實結胸)을 치료한다.

桔更、貝母 各三錢, 巴豆(去皮殼心, 研如脂) 一錢.

길경、패모 각 3돈, 파두(껍질과 껍데기와 심을 제거한 후 끈적하게 간다) 1돈.

右末, 和勻, 白湯和服半錢, 量其大小加減服, 未利, 飲熱粥, 利不止, 飲冷粥.

이상을 가루 낸 후 골고루 섞고 끓인 물에 타서 0.5돈을 복용하되 아이의 몸집에 따라 가감한다. 설사를 하지 않으면 뜨거운 죽을 마시고, 설사가 멎지 않으면 식은 죽을 마신다.

傷寒嘔而發熱者, 若心下滿而不痛, 此爲痞氣也, 通用桔更枳殼湯.

상한에 구역질을 하면서 열이 나는 경우에 만약 명치가 더부룩하지만 아프지는 않다면 이는 비기(痞氣)이다. 길경지각탕을 통용한다.

○半夏瀉心湯

○반하사심탕

治嘔吐, 心下痞滿.

구토하고 명치가 꼭 막힌 듯하면서 더부룩한 경우를 치료한다.

半夏二錢, 黃芩、人參、甘草 各一錢半, 乾姜(炒) 一錢, 黃連 五分.

반하 2돈, 황금、인삼、감초 각 1.5돈, 건강(볶는다) 1돈, 황련 5푼.

右剉, 入薑三棗二, 水煎服.

이상을 썬 후 생강 3조각과 대조 2개를 넣고 물에 달여 복용한다.

○桔更枳殼湯

○길경지각탕

治胸滿痞氣, 又治傷寒結胸.

가슴이 그득한 증상이나 비기(痞氣)를 치료한다. 또한 한실결흉도 치료한다.

桔更、枳殼 各二錢, 甘草 一錢.

길경、지각 각 2돈, 감초 1돈.

右剉, 入姜五, 水煎服.

이상을 썬 후 생강 5조각을 넣고 물에 달여 복용한다.

- 李進士子, 年十餘歲, 過食灸燂熱物, 仍得外感, 四五日後, 胸腹大痛, 用萬億丸, 數次泄下, 痛勢倍加, 雜試治熱之藥, 而少無應效, 柴陷湯, 加枳實、桔更, 連用二劑, 諸症頓愈.
- [의안] 이 진사(李進士)의 10살 남짓한 아들이 굵거나 지지거나 뜨거운 음식을 너무 먹은 데다가 감기까지 걸렸다. 4 - 5일 후에 가슴과 배가 뻥뻥해지면서 아프기에 만억환을 써서 몇 번 설사를 시키니 통증이 몇 배나 심해졌다. 열증에 쓰이는 여러 가지 약을 먹여 보았으나 조금도 반응이 없었다. 시험탕에 지실·길경을 더하여 연달아 2첩을 쓰니 여러 증상들이 확 좋아졌다.

傷寒陰症者, 三陰經病深, 變爲陰毒, 其症, 四肢厥冷, 吐利不渴, 靜謐引衣自覆, 脈沈微而不數, 無頭痛身熱等症, 而外似惺惺, 宜當歸四逆湯, 或理中湯 [方見吐瀉], 甚者, 咽痛鄭聲, 加以頭痛, 冷汗不止, 眼睛內痛, 不欲見光, 面脣爪甲青黑, 心下結硬, 臍腹築痛, 身如被杖, 其脈附骨取之則有, 按之則無, 以藥不可救, 灸氣海、關元、臍中等穴, 各二三百壯, 以正陽散助之, 如手足不和煖者, 不治.

상한음증(傷寒陰症)은 세 음경(陰經)의 병이 깊어져 음독(陰毒)으로 변한 것이다. 그 증상으로는 사지 끝부터 냉해지고 구토와 설사를 하지만 갈증은 없으며 조용히 웅크린 채 옷을 찾아 덮고 맥은 침미(沈微)하면서 삭(數)하지 않으며 두통이나 신열 등의 증상이 없기 때문에 겉으로는 뽕뽕해 보인다. 당귀사역탕이나 이중탕 [처방은 토사문에 나온다] 을 써야 한다. 증상이 심한 경우에는 목구멍이 아프고 중얼거리는 데다가 두통이 있으며 식은땀이 그치지 않고 눈알이 아파 빛을 보려하지 않으며 얼굴이나 입술이나 손발톱이 검푸른 색을 띄고 명치가 단단하게 뭉쳐 있으며 배꼽 부근이 불뚝불뚝 뛰면서 아프고 몸이 몽둥이로 맞은 것 같다. 맥은 뼈에 대고 잡으면 뛰고 있지만 살짝 누르면 잡히

지 않으니 약으로는 생명을 구할 수 없고 기해·관원·제중혈에 각 200 - 300
장 뜸을 뜨면서 정양산으로 보조해야 한다. 만약 손발이 따뜻해지지 않는다면
치료하지 못한다.

○正陽散

○정양산

治傷寒陰毒.

상한음독을 치료한다.

附子(炮) 一兩, 乾姜(炮) · 甘草(炙) 各二錢半, 皂角 一挺, 麝香 一錢.

부자(습지에 싸서 굽는다) 1냥, 건강(습지에 싸서 굽는다) · 자감초 각 2.5돈,
조각 1정(挺), 사향 1돈.

右末, 每二錢, 水一盞, 煎至五分, 和渣熱服, 或白湯調服.

이상을 가루 낸 후 한 번에 2돈씩 물 1잔에 달이다가 5할이 되면 건더기째 뜨거
울 때 복용한다. 혹은 끓인 물에 타서 복용한다.

○四逆湯

○사역탕

治傷寒陰症要藥也, 凡三陰脈遲, 身痛, 四肢厥冷, 竝用.

상한음증을 치료하는 중요한 약이다. 대체로 세 음경(陰經)의 맥이 지(遲)하거
나 몸살이 있거나 사지 끝부터 냉해지는 경우에 모두 쓴다.

甘草(炙) 六錢, 乾姜(炮) 五錢, 附子(生) 一枚.

감초(굽는다) 6돈, 건강(습지에 싸서 굽는다) 5돈, 부자(생것) 1개.

右剉, 分二貼, 水煎服.

이상을 썬 후 2첩으로 나누어 물에 달여 복용한다.

◦甘草湯

◦감초탕

治傷寒陰毒.

상한음독을 치료한다.

甘草(炙)、升麻、當歸、桂枝 各一錢, 雄黃、川椒(去目) 各一錢半, 鱉甲(酥炙) 三錢.

감초(굽는다)、승마、당귀、계지 각 1돈, 웅황、천초(눈을 제거한다) 각 1.5돈, 벌갑(연유를 문혀 굽는다) 3돈.

右剉, 水煎服, 毒從汗出, 未汗再服.

이상을 썬 후 물에 달여 복용하면 독기가 땀으로 나온다. 땀이 나지 않으면 다시 복용한다.

◦復陽丹

◦복양단

治陰毒, 面青肢冷, 脈沈.

상한음독으로 얼굴이 파랗게 되고 사지가 냉하며 맥이 침(沈)한 경우를 치료한다.

萆澄茄、木香、吳茱萸、全蝎(炮去毒)、附子(炮)、硫黃 各五錢, 乾姜(炮) 一錢.

필징가、목향、오수유、전갈(습지에 싸서 구워 독성을 없앤다)、부자(습지에 싸서 굽는다)、유황 각 5돈, 건강(습지에 싸서 굽는다) 1돈.

右細末, 酒糊丸梧子大, 薑湯下三十丸, 復以熱酒投之, 取汗.

이상을 곱게 가루 낸 후 술을 넣어 쑨 풀에 개어 오동자 크기로 환을 빚는다. 생강탕으로 30환을 넘긴 후 다시 뜨거운 술을 먹어 땀을 낸다.

◦回陽救急湯

◦회양구급탕

治傷寒陰症及陰毒, 四肢厥冷, 脈沈細, 脣青面黑.

상한음증 및 상한음독으로 사지 끝부터 냉해지고 맥은 침세(沈細)하며 입술이 파랗게 되고 얼굴이 거멓게 되는 경우를 치료한다.

人參、白朮、白茯苓、陳皮、半夏、乾姜(炮)、肉桂、附子(炮)、五味子、甘草(炙) 各一錢.

인삼、백출、백복령、진피、반하、건강(습지에 싸서 굽는다)、육계、부자(습지에 싸서 굽는다)、오미자、자감초 각 1돈.

右剉, 入薑七片, 水煎服.

이상을 썬 후 생강 7조각을 넣고 물에 달여 복용한다.

灸臍法

배꼽에 뜸 뜨는 방법

治陰毒危急, 體冷無脈, 氣息欲絕, 或不省人事, 大葱白把切去葉, 搗作餅, 厚二三寸許, 連作五餅, 先將麝香、硫黃各一字填臍內, 放葱餅於臍上, 以熨斗火熨之, 如餅爛, 再換新餅又熨之, 以葱氣入腹爲效, 手足溫者, 有汗卽差, 更服四逆湯, 以溫其內.

◦又法, 醃醋拌麝皮, 炒熱, 納布袋中, 蒸熱熨之, 尤速效.

상한음독으로 위급하여 몸이 냉하면서 맥이 짙이지 않고 숨이 끊어지려 하며 간혹 인사불성되는 경우에는 큰 총백을 잘라 얇은 버리고 찢어서 떡처럼 2-3촌 정도 두께로 뭉치되 연달아 5덩이를 만든다. 미리 사향과 유황 각 1자씩을 배꼽 안에 채워 놓고 총백 덩이를 배꼽에 놓은 후 울두(熨斗)로 찜질한다. 총백 덩이가 뭉개지면 다시 새로운 것으로 바꿔서 다시 찜질한다. 총백의 기운이 뱃속으로 들어가야 효과가 있다. 손발이 따뜻한 경우에는 땀이 나면 곧 차도가 생기니 사역탕을 복용시켜 몸속을 따뜻하게 해야 한다. ○또 다른 방법. 강한 식초에 밀기울을 섞고 뜨겁게 볶아서 포대 속에 넣은 후 뜨거울 때 배꼽에 찜질하면 효과가 더욱 빠르다.

○芍藥甘草湯

○작약감초탕

治汗後惡寒.

땀을 흘린 후에 오한이 나는 경우를 치료한다.

桂枝 二錢, 甘草(炙) 一錢半, 赤芍藥、白朮、附子(炮) 各一錢.

계지 2돈, 감초(굽는다) 1.5돈, 적작약、백출、부자(습지에 싸서 굽는다) 각 1돈.

右剉, 水煎服.

이상을 썬 후 물에 달여 복용한다.

○甘草乾姜湯

○감초건강탕

治陰極發燥, 吐利而厥.

상한음증이 극심하여 번조가 생기고 구토와 설사를 하면서 사지 끝이 냉해지는 경우를 치료한다.

甘草(炙) 四錢, 乾姜(炮) 二錢.

감초(굽는다) 4돈, 건강(습지에 써서 굽는다) 2돈.

右剉, 水煎服.

이상을 썬 후 물에 달여 복용한다.

傷寒戰慄, 戰者, 身振而動也, 慄者, 心戰而惕也, 邪正相爭, 正氣勝則戰, 邪氣勝則慄, 戰則病欲愈, 慄則病欲甚, 戰屬陽, 故大汗而解, 慄屬陰, 陽爲陰所制, 故心寒足跣, 鼓頤厥冷, 便尿妄出, 不知人事, 宜理中湯 [方見吐瀉], 或四逆湯.

상한전율(傷寒戰慄)의 전(戰)은 몸이 떨리면서 가만히 있지 않는 것이고, 율(慄)은 심장이 떨리면서 두려워하는 것이다. 사기와 정기가 부딪혔을 때 정기가 우세하면 전(戰)이 되고 사기가 우세하면 율(慄)이 되는 법이니 전은 병이 나으려는 상태이고 율은 병이 심해지려는 상태이다. 전은 양증에 속하기 때문에 크게 땀을 내어 풀어주고, 율은 음증에 속하면서 양증은 음증의 통제를 받기 때문에 가슴이 차가워지면서 발을 웅크리고 턱을 덜덜 떨면서 사지 끝부터 냉해지며 대소변이 제멋대로 나오고 인사불성된다. 이중탕 [처방은 토사문에 나온다] 이나 사역탕을 써야 한다.

傷寒過經後, 心下動悸, 叉手¹冒心, 或神昏撮空, 甚則身振振欲擗地, 此陽氣虛脫也.

상한으로 육경에 맞는 날짜를 지난 후에는 명치가 불뚝불뚝 뛰는 것 때문에 손을 포개어 가슴을 감싸고 간혹 정신이 혼미해져 손을 허공에 휘두른다. 증상이 심해지면 몸이 심하게 떨리며 땅을 치려고 하는데 이는 양기가 바닥났기 때문이다.

◦桂枝甘草湯

◦계지감초탕

治心悸, 欲得按胸.

심장이 두근거리 손으로 가슴을 누르려고 하는 경우를 치료한다.

桂枝 四錢, 甘草(炙) 二錢.

계지 4돈, 감초(굽는다) 2돈.

右剉, 水煎服.

이상을 썬 후 물에 달여 복용한다.

◦茯苓桂甘湯

◦복령계감탕

治臍下悸, 欲作奔豚.

배꼽 아래 부분이 파르르 떨리면서 분돈(奔豚)이 생기려고 하는 경우를 치료한다.

桂枝 四錢, 甘草(炙) 二錢, 茯苓 六錢.

계지 4돈, 감초(굽는다) 2돈, 복령 6돈.

右剉, 入棗五枚, 以甘爛水二種, 先煎茯苓, 減二分, 納諸藥, 煎至一鍾子服, 日三貼.

[甘爛水者, 水斗許盛盆, 以枝揚之數百遍, 水上作珠泡用.]

이상을 썬 후 대조 5개와 함께 감란수(甘爛水) 2종지에 넣는다. 먼저 복령을 달이다가 절반으로 줄면 나머지 약을 넣고 달인다. 1종지가 되면 복용하되 하루 3첩을 먹는다. [감란수는 물 1말 정도를 동이에 담고 나뭇가지로 수백 번 휘저어 물 위에 거품을 만들어 쓰는 것이다.]

○陶氏升陽散火湯

○도씨승양산화탕

治撮空證, 此因肝熱承肺, 元氣虛弱, 不能主持, 以致譫語神昏, 又手²冒心, 或撮空摸床.

손으로 허공을 잡으려는 증상을 치료한다. 이 증상은 간장의 열독이 폐장으로 전해져 원기가 허약해졌기 때문에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다가 결국 섬어가 생기고 정신이 혼미해지면서 손을 포개어 가슴을 감싸거나 손으로 허공을 잡으려고 하거나 침상을 더듬게 되는 것이다.

人參、當歸、赤芍藥、柴胡、黃芩、白朮、麥門冬、陳皮、赤茯苓、甘草 各一錢.

인삼、당귀、적작약、시호、황금、백출、맥문동、진피、적복령、감초 각 1돈.

右剉, 入姜三棗二, 入熟金, 同煎服.

이상을 썬 후 생강 3조각과 대조 2개를 넣고 법제한 금과 함께 달여 복용한다.

壞症者, 傷寒過經, 大勢小差後雜症也.

상한 괴증(壞症)은 육경의 날수를 지나면서 큰 증상이 조금 나아진 후 여러 증상이 생기는 것이다.

○知母麻黃湯

○지모마황탕

治傷寒差後, 經久精神不守, 言語錯謬, 潮熱頰赤, 寒熱如瘧, 皆由於汗下未盡, 毒留心胞間所致也.

상한이 나은 후 오랫동안 맑은 정신을 유지하지 못하거나 말이 뒤섞이거나 조열로 땀이 붉어지거나 학질처럼 한열왕래가 있는 경우를 치료한다. 이는 모두 한법이나 하법이 미진하여 열독이 심포경에 머무르고 있기 때문이다.

知母 三錢, 麻黃、赤芍藥、黃芩、桂心、甘草(炙) 各一錢.

지모 3돈, 마황·적작약·황금·계심·자감초 각 1돈.

右剉, 水煎服, 微汗即愈. ○一方, 去桂心, 代桂枝.

이상을 썬 후 물에 달여 복용하고 살짝 땀을 내면 곧 좋아진다. ○어떤 서적에는 계심 대신 계지가 있다.

○參胡芍藥湯

○삼호작약탕

傷寒十四日外, 餘熱未退, 或渴或煩, 不能安臥, 不思飲食, 大便不快, 小便黃赤, 此爲壞症也, 宜用此.

상한에 걸린 지 14일 후에도 남아 있는 열이 없어지지 않아 갈증이 나거나 답답하거나 편히 자지 못하거나 음식 생각이 없거나 대변을 시원하게 보지 못하거나 소변이 누렇거나 붉은 증상을 치료한다. 이는 상한괴증(壞症)이 된 것이니 이 약을 써야 한다.

生芩 一錢半, 人參、柴胡、赤芍藥、黃芩、知母、麥門冬 各一錢, 枳殼 八分, 甘草 三分.

생지황 1.5돈, 인삼·시호·적작약·황금·지모·맥문동 각 1돈, 지각 8푼, 감초 3푼.

右剉, 入薑三, 水煎服.

이상을 썬 후 생강 3조각을 넣고 물에 달여 복용한다.

○驚甲散

○별갑산

治壞症, 餘熱未退, 精神未爽, 潮熱, 煩渴不寐.

상한괴증(壞症)으로 남은 열이 없어지지 않거나 정신이 맑지 못하거나 조열이 있거나 번갈로 잠들지 못하는 경우를 치료한다.

驚甲(酒灸) 二錢, 犀角、前胡、黃芩、生芎 各一錢, 枳殼 八分, 烏梅 二箇.

별갑(술에 축여 굽는다) 2돈, 서각·전호·황금·생지황 각 1돈, 지각 8푼, 오매 2개.

右剉, 水煎服.

이상을 썬 후 물에 달여 복용한다.

傷寒勞復者, 傷寒新差後, 津液未復, 氣血尙虛, 或梳洗, 言動大早, 仍成勞復也.

상한노복(傷寒勞復)은 상한이 나은 직후에 진액이 덜 회복되어 기와 혈이 아직 허약한 상태에서 머리를 감거나 말이나 활동을 너무 빨리 시작하여 결국 노복이 된 것이다.

傷寒食復者, 大病後, 胃氣尙弱, 若恣飲食, 不能剋化, 依前發熱.

상한식복(傷寒食復)은 큰 병을 앓은 후 위의 기운이 아직 허약할 때 음식을 함부로 먹어 소화시키지 못한 채 이전처럼 열이 나는 것이다.

○麥門冬湯

○맥문동탕

治勞復, 氣欲絕, 能起死回生.

상한노복으로 숨이 끊어질 듯한 경우를 치료한다. 기사회생하게 만드는 약이다.

甘草(炙) 三錢, 麥門冬 二錢, 粳米 一合.

감초(굽는다) 3돈, 맥문동 2돈, 갱미 1홉.

右, 水二盞, 先煎粳米, 令熟去米, 入二藥, 及棗二竹葉十片, 煎至一盞, 溫服, 加入參, 尤好.

이상의 약재 중 먼저 갱미를 물 2잔에 달이다가 익으면 건져내고 나머지 두 약재와 대조 2개와 죽엽 10장을 넣고 1잔이 되도록 달인다. 따뜻할 때 복용한다. 인삼을 더하면 더욱 효과가 좋다.

○梔豉枳實湯

○치시지실탕

治勞復發熱.

상한노복으로 열이 나는 경우를 치료한다.

梔子、枳實 各二錢, 香豉 五錢.

치자、지실 각 2돈, 향두시 5돈.

右剉, 水煎服, 微汗.

이상을 썬 후 물에 달여 복용하고 살짝 땀을 낸다.

○梔豉枳黃湯

○치시지황탕

治食復發熱.

상한식복으로 열이 나는 경우를 치료한다.

梔子、枳實、柴胡 各一錢, 香豉 五錢, 大黃 三錢.

치자、지실、시호 각 1돈, 향두시 5돈, 대황 3돈.

右剉, 煎服. ○脹, 加厚朴, 傷肉, 加山查肉, 傷麵飯, 加神曲.

이상을 썬 후 물에 달여 복용한다. ○복창에는 후박을 더하고, 고기에 상한 경우에는 산사육을 더하며, 밀가루나 밥에 상한 경우에는 신곡을 더한다.

○七味葱白散

○칠미총백산

治勞復食復.

상한으로 생긴 노복과 식복을 치료한다.

葱白(連根) 三莖, 乾葛、麥門冬、熟苻 各二錢, 香豉 半合, 生薑(切) 一合.

총백(뿌리까지 썬다) 3줄기, 건갈·맥문동·숙지황 각 2돈, 향두시 0.5홉, 생강(썬다) 1홉.

右剉, 以甘爛水四升煎至³, 三分去二分, 去滓, 分二服.

이상을 썬 후 감란수(甘爛水) 4되에 넣고 달이다가 3분의 1이 되도록 달여 찌꺼기를 제거하고 2번에 나누어 복용한다.

○益氣養神湯

○익기양신탕

治勞復, 宜養氣血.

상한노복을 치료한다. 기와 혈을 길러주기 알맞은 처방이다.

人參、當歸、白芍藥(酒炒)、麥門冬、知母、梔子(炒) 各一錢, 白茯苓、前胡 各七分, 陳皮 五分, 升麻、甘草 各三分.

인삼、당귀、백작약(술에 축여 볶는다)、맥문동、지모、치자(볶는다) 각 1돈, 백복신、전호 각 7푼, 진피 5푼, 승마、감초 각 3푼.

右剉, 入棗二枚, 水煎服.

이상을 썬 후 대조 2개를 넣고 물에 달여 복용한다.

傷寒差後昏沈者, 無寒熱, 而但神昏, 終日不醒如醉, 或睡中獨語一二句, 目赤脣焦, 不飲水, 稀粥與之則噤, 不與則不思, 大小便如常, 此餘熱未淨也, 知母麻黃湯, 或辰砂益元散 [方見暑症] .

상한이 나은 후에 정신이 혼미하여 까라지는 경우도 있다. 이 때는 오한발열은 없으나 정신만 혼미하여 하루 종일 취한 듯이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간혹 자는 도중에 한 두 마디 혼잣말을 하기도 한다. 눈은 충혈되어 있고 입술은 바짝 말라 있으며 물을 마시지 않는다. 묶은 죽을 주면 먹지만 주지 않으면 먹을 생각을 하지 않고 대소변은 정상이다. 이 증상은 상한 후에 남은 열이 완전히 없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지모마황탕이나 진사익원산 [처방은 서증문에 나온다] 을 써야 한다.

○瀉心導赤散

○사심도적산

治差後昏沈.

상한이 나은 후에 정신이 혼미하여 까라지는 경우를 치료한다.

黃芩、黃連、梔子、知母、麥門冬、赤茯苓、犀角、人參、滑石 各一錢, 甘草 五分.

황금、황련、치자、지모、맥문동、적복신、서각、인삼、활석 각 1돈, 감초 5푼.

右剉, 入薑一棗二, 燈心一握煎, 入生芩汁三匙服. ○一名陶氏導赤各半湯.

이상을 썬 후 생강 1조각, 대조 2개, 등심 1줌과 함께 달이고 생지황즙 3술을 넣어 복용한다. ○일명 도씨도적각반탕이라고도 한다.

○酸棗仁湯

○산조인탕

治傷寒後, 虛煩不得眠.

상한이 나은 후 허번으로 제대로 자지 못하는 경우를 치료한다.

酸棗仁(炒) 二錢, 麥門冬、知母 各一錢半, 赤茯苓、川芎 各一錢, 乾姜(炮)、甘草(炙) 各二分半.

산조인(볶는다) 2돈, 맥문동、지모 각 1.5돈, 적복령、천궁 각 1돈, 건강(습지에 싸서 굽는다)、자감초 각 2.5푼.

右剉, 水煎服.

이상을 썬 후 물에 달여 복용한다.

○烏梅湯

○오매탕

治虛煩不得眠, 心中懊懣.

허번으로 제대로 자지 못하고 가슴이 답답하면서 진정되지 못하는 경우를 치료한다.

柴胡 二錢, 梔子(炒)、黃芩、甘草(炙) 各一錢, 烏梅 二箇.

시호 2돈, 치자(볶는다)、황금、자감초 각 1돈, 오매 2개.

右剉, 入薑三, 香豉五十枚, 同煎服.

이상을 썬 후 생강 3조각과 향두시 50개를 넣고 한꺼번에 달여 복용한다.

○辰砂五苓散

○진사오령산

治傷寒發熱, 狂言譫語, 及差後熱不退, 虛煩等症.

상한으로 발열, 광증, 섬어가 있는 경우와 상한이 나은 후에 열이 완전히 없어지지 않고 허번 등의 증상이 있는 경우를 치료한다.

澤瀉、赤茯苓、猪苓、白朮 各二錢半, 肉桂、辰砂 各五分.

택사、적복령、저령、백출 각 2.5돈, 육계、진사 각 5푼.

右細末, 每二錢, 沸湯, 點服.

이상을 곱게 가루 낸 후 한 번에 2돈씩 끓인 물에 타서 복용한다.

外感挾內傷者, 十居七八, 蓋邪之所湊, 其氣必虛, 只用補中益氣湯 [方見吐瀉], 出入加減, 以補元氣, 兼爲發散, 不可以一例汗下治之也.

외감병에 내상을 겸한 경우가 10명 중에 7 - 8명 정도 된다. 아마 사기가 한 곳으로 몰려들면 그곳의 기가 분명 허해지기 때문일 것이다. 그저 보중익기탕 [처방은 토사문에 나온다] 을 병증의 출입에 따라 가감하여 원기를 보하면서 동시에 사기를 발산시켜야 하며 한법이나 하법 등 한 가지 방법으로만 치료해서는 안된다.

○陶氏補中益氣湯

○도씨보중익기탕

治內傷氣血, 外感風寒, 頭痛身熱, 惡寒自汗, 沈困無力.

속으로 기나 혈이 상하고 겉으로 풍사나 한사에 상하여 머리가 아프고 몸통이 뜨거우며 오한과 자한이 있고 힘없이 축 까라져있는 경우를 치료한다.

人參、生芡、黃芪、當歸、川芎、柴胡、陳皮、羌活、白朮、防風 各七分, 細辛、甘草 各五分.

인삼、생지황、황기、당귀、천궁、시호、진피、강활、백출、방풍 각 7푼, 세신、감초 각 5푼.

右剉, 入薑三棗二葱白二, 水煎服, 如元氣不足, 加升麻三分.

이상을 썬 후 생강 3조각과 대조 2개와 총백 2줄기를 넣고 물에 달여 복용한다. 원기가 부족한 상태라면 승마 3푼을 더한다.

○十味和解湯

○십미화해탕

治外感內傷, 頭痛身熱.

외감에 내상을 겸하여 머리가 아프고 몸통이 뜨거운 경우를 치료한다.

白朮 四錢, 桔更 二錢, 當歸、陳皮、枳殼、防風、白芍藥、厚朴、人參、甘草 各五分.

백출 4돈, 길경 2돈, 당귀、진피、지각、방풍、백작약、후박、인삼、감초 각 5푼.

右剉, 入薑葱白各三, 水煎服.

이상을 썬 후 생강 3조각과 총백 3줄기를 넣고 물에 달여 복용한다.

○加味益氣湯

○가미익기탕

治勞身感寒.

몸을 쓴 후에 한사에 감촉된 경우를 치료한다.

羌活 一錢半, 人參、黃芪、防風、柴胡 各一錢, 白朮、陳皮、當歸 各七分, 甘草 五分, 升麻、黃柏(酒炒) 各二分.

강활 1.5돈, 인삼、황기、방풍、시호 각 1돈, 백출、진피、당귀 각 7푼, 감초 5푼, 승마、황백(술에 축여 볶는다) 각 2푼.

右剉, 入薑三, 水煎服. 熱甚, 加酒炒黃芩三分.

이상을 썬 후 생강 3조각을 넣고 물에 달여 복용한다. 열이 심하면 황금(술에 축여 볶는다) 3푼을 더한다.

傷寒治法, 惟在汗吐下三法, 毫釐不可差誤, 在表宜汗, 在裏宜下, 在半表裏宜和解, 表裏俱見, 隨症兩解, 兼施補瀉.

상한의 치료법은 오직 한법, 토법, 하법 3가지에 달려 있으니 조금도 착오가 있어서는 안된다. 표증에는 한법을 쓰고, 이증에는 하법을 쓰며, 반표반리증에는 화해키시고, 표증과 이증이 모두 나타나면 증상에 따라 양쪽을 풀어주면서 보법과 사법을 병행해야 한다.

傷寒不治症

상한의 불치증

○汗下後, 復發熱, 脈躁疾, 下利不止者, 死. ○口乾舌黑, 脈躁疾者, 死. ○口張目陷, 循衣摸空者, 不治. ○脣青舌卷, 耳聾囊縮者, 不治. ○直視譫語喘滿者, 死.

○한법이나 하법을 쓴 후에 다시 열이 나면서 맥이 실새 없이 빠르게 뛰고 설사가 멎지 않는 경우는 사증이다. ○입이 마르고 혀가 검게 되며 맥이 실새 없이 빠르게 뛰는 경우는 사증이다. ○입을 꼭 다물고 눈이 움푹하며 웃이나 허공을 더듬는 경우는 불치증이다. ○입술이 파래지고 혀가 말리며 귀가 먹고 음낭이 쪼그라든 경우는 불치증이다. ○눈에 초점이 없고 섬어를 하며 숨을 헐떡이고 배가 그득한 경우는 사증이다.

○一方, 傷寒初症, 頭痛身熱, 煩渴, 惡寒發熱, 葛根、蘇葉各一兩, 葱白十五莖, 水二升, 入酒少許, 煎數沸, 承熱量宜服, 取汗, 此發表之大法也.

○어떤 서적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다. '상한 초기 증상으로 머리가 아프고 몸통이 뜨거우며 번갈, 오한, 발열이 있는 경우의 치료법. 갈근·소엽 각 1냥을 총백 15줄기와 함께 물 2되에 넣고 술을 약간 넣어 몇 소끔 달인다. 뜨거울 때 아이의 몸집에 따라 복용하고 땀을 낸다. 이 방법은 표부의 사기를 발산시키는 중요한 방법이다.'

- 按. 東垣曰, 西北二方, 肅殺之氣, 外傷者甚多, 東南二方, 溫和之地, 外傷者甚少, 千百而一二也, 然則小兒外無大風大寒之傷, 豈有六經傳變之傷寒乎, 古之小兒傷寒科, 條列六經之陰陽表裏、寒熱虛實者, 乃設病機, 以立後世之規範, 今之粗率者, 不知其意, 徒知其某經當用某藥, 隨試諸方, 反使輕者重重者不救, 其害可勝言哉, 又有大小兒之別, 一二歲兒, 與三四歲兒有異, 四五歲兒, 與六七歲兒亦異, 八九至十餘歲, 比諸小兒, 氣血強弱, 大有不同, 治病之法, 用藥之道, 實爲懸殊, 夫一二歲兒, 所謂感冒者, 或挾胎熱, 或挾變蒸而發, 輕者, 勿藥自愈, 重者, 從輕微解, 三四歲則或內傷乳食, 或外觸驚氣, 夾感而發, 先審何證之輕重而治之, 十歲以上, 參以大科治之, 而其或過飽飲食, 或不節生冷, 觸感風寒而挾發者, 多有之, 唯在臨症意會, 而凡小兒外感之類, 切不可峻治, 學幼科者, 尚慎施哉.
- [안어] 동원(東垣)이 말하길 "서쪽 지방과 북쪽 지방 두 곳은 가혹한 날씨 때문에 외감되는 이가 매우 많고, 동쪽 지방과 남쪽 지방 두 곳은 따뜻한 지역이기

때문에 외감되는 이가 매우 적어 천 명 백 명 중에 1 - 2명 정도이다.”라고 하였다. 마찬가지로 소아는 겉으로 심한 풍사나 한사에 상하는 경우가 없으니 어찌 육경이 전변되는 상한이 있겠는가. 옛 소아과 의서의 상한문에서는 육경의 음양·표리·한열·허실에 따라 조목조목 나열하고 병의 원인을 정리하여 후세의 규범을 세웠다. 요즘 의술이 서투른 자들은 그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그저 어떤 육경증에 어떤 약을 쓴다는 것만 알고 처방들을 쓰다가 도리어 증상이 가벼운 경우를 악화시키고 증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목숨을 잃게 만들고 있으니 그 해악을 이루 말할 수 있겠는가. 또한 몸집이 큰 아이와 작은 아이의 구별도 있어야 하니 1 - 2살 아이와 3 - 4살 아이도 다르고 4 - 5살 아이와 6 - 7살 아이도 다르다. 8 - 9살과 10살 아이는 다른 어린아이와 비교하면 기혈의 강함과 약함이 크게 다르므로 병을 치료하는 방법이나 약을 쓰는 방법도 실로 현격하게 다르다. 1 - 2살 아이가 감기에 걸렸을 경우 태열(胎熱)을 검하거나 변·증(變蒸)을 검하여 생기기도 한다. 병세가 가벼운 경우에는 약을 쓰지 말고 저절로 좋아질 기다리고, 심한 경우에는 가벼운 증상부터 살짝 풀어주어야 한다. 3 - 4살 아이가 감기에 걸렸을 경우에는 속으로 젖이나 음식에 상했거나 겉으로 경기를 할 때 한사나 풍사에 감촉되어 생긴다. 우선 증상의 경중을 따져 치료해야 한다. 10살 이상의 아이는 성인의 경우를 참고하여 치료하되, 과식이나 생랭(生冷)한 음식을 많이 먹었을 때 풍사나 한사에 감촉되어 생기는 경우가 많다. 오직 증상에 대한 이해에 달려 있으나 소아의 모든 외감병은 절대 강한 약으로 치료하지 않아야 한다. 소아과를 공부하는 자여 더욱 조심할지이다.

- 李相國 [頤命] 五歲孫兒, 得外感, 經月彌留, 寒熱如瘧, 咳嗽喘促, 胸脇牽痛, 或泄或嘔, 夜則發熱, 肌熱尤甚, 煩悶不寐, 雜試發散清解之劑, 而非徒無效, 反有害焉, 余曰, 此兒之病, 外感挾食, 結滯胸脇, 非下法, 不可除之, 主家及衆醫皆不信, 相國之侄喜之, 獨是余議, 力勸用消食丸 [方見諸積], 十五丸, 泄下數次, 諸症如失.
- [의안] 상국(相國) 이이명(李頤命)의 5살 손주가 외감으로 한 달 넘도록 낫지

얇은 채 학질처럼 한열왕래가 있고 기침을 하면서 숨을 헐떡이며 가슴과 옆구리가 당기며 아프고 간혹 설사를 하거나 구역질을 하며 밤에는 열이 나되 피부의 열이 특히 심했고 답답하며 제대로 잠들지 못했다. 발산시키는 약과 열을 떨어뜨리는 약을 여러 가지 써보았으나 효과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도리어 악화되었다. 내가 "이 아이의 병은 외감에 식상을 겸한 경우로 가슴과 옆구리 부분에 음식이 뭉쳐 있으므로 하법을 쓰지 않으면 없앨 수 없습니다."라고 하였으나 그 집안 사람들과 다른 의원들도 모두 믿지 않았다. 상국의 조카만이 기뻐하며 홀로 내 의견을 옳다고 하기에 소식환 [처방은 제적(諸積)문에 나온다] 을 쓰기를 힘써 권하였다. 15환을 썼더니 몇 번 설사를 하고는 여러 증상들이 씻은 듯이 사라졌다.

- 錦平尉 [朴弼成] 六歲孫, 得外感, 彌留三十餘日, 身熱煩渴, 微有腹脇痛, 嘔泄不食, 發熱無時, 其發熱之時, 耳聾眼矇, 精神昏憤, 煩渴引飲忒重焉, 一日之內, 如是者四五次, 此肝心實熱也, 瀉心導赤散, 加柴胡、牡丹皮, 連服三劑, 諸症俱退, 而惟煩渴不寐之症未減, 更用竹葉石膏湯而愈.
- 〔의안〕 금평위(錦平尉) 박필성(朴弼成)의 6살 손주가 외감으로 30일을 넘도록 낫지 않은 채 몸통이 뜨겁고 번갈이 있으며 배와 옆구리가 약간 아프고 구토와 설사로 먹지 못하였다. 시도 때도 없이 열이 났는데 열이 날 때에는 귀도 들리지 않고 눈도 흐려지며 정신도 혼미해졌으며 번갈로 물을 찾는 증상이 매우 심하였다. 하루 동안 이런 증상이 4 - 5번 정도 생겼다. 이 병은 간장과 심장의 실열 때문이다. 사심도적산에 시호와 목단피를 더하여 연달아 3첩을 복용하니 여러 증상들이 모두 줄어들었으나 오직 번갈로 제대로 잠들지 못하는 증상은 줄어들지 않았다. 다시 죽엽석고탕을 쓰니 좋아졌다.

1. 叉手 : 叉手 ※문맥상 ↩

2. 又手 : 叉手 ※문맥상 ↩

3. 至 : 之 ※《동의보감》 ↩



暑症 서증

夏月感寒者, 乃取凉之過也, 因暑熱之時, 或納凉於深堂大廈, 以傷其外, 飲食生冷, 復傷其內, 其病頭疼身痛, 發熱惡寒, 或惡心嘔吐, 腹痛泄瀉, 此外感內傷也, 宜藿香正氣散 [方見外感], 外感重, 去白朮, 加蒼朮、羌活、川芎, 內傷重, 加神曲、砂仁, 感風搖擗者, 人參羌活散 [方見外感], 加香薷、黃連並姜炒, 或二香散, 痰塞喘嗽者, 六和湯, 倍半夏, 加羌活、川芎.

여름철에 한사에 감촉되는 경우는 바로 찬 음식을 너무 많이 찾기 때문이다. 더운 날씨 때문에 깊은 곳이나 대청마루에서 서늘하게 있다가 외감된 상태에서 생랭(生冷)한 음식을 먹어 다시 내상을 입게 되는 경우이다. 그 증상으로는 두통, 몸살, 발열, 오한이 있고 간혹 오심, 구토, 복통, 설사가 있기도 하다. 이는 외감과 내상이 모두 있기 때문이다. 곽향정기산 [처방은 외감문에 나온다] 을 써야 한다. 외감이 더 심한 경우에는 백출을 빼고 창출、강활、천궁을 더한다. 내상이 더 심한 경우에는 신곡、사인을 더한다. 풍사에 감촉되어 축닉(擗)이 생긴 경우에는 인삼강활산 [처방은 외감문에 나온다] 에 향유、황련(2가지 모두 생강즙에 축여 볶는다)을 더하여 쓰거나 이향산을 쓴다. 가래가 목에 막혀 기침이나 숨을 헐떡이는 경우에는 육화탕에 반하를 2배로 넣고 강활、천궁을 더하여 쓴다.

○二香散

○이향산

治感冒暑風, 身熱頭痛, 或寒熱吐瀉.

서사나 풍사에 감촉되어 몸통이 뜨겁고 머리가 아프며 간혹 오한발열이나 구토와 설사가 있는 경우를 치료한다.

香附子、香薷 各二錢, 紫蘇葉、陳皮、蒼朮 各一錢, 白扁豆(炒)、厚朴、甘草 各五分.

향부자、향유 각 2돈, 자소엽、진피、창출 각 1돈, 백편두(볶는다)、후박、감초 각 5푼.

右剉, 入薑三片, 葱白二莖, 木瓜二片, 水煎服.

이상을 썬 후 생강 3조각, 총백 2줄기, 목과 2조각과 함께 물에 달여 복용한다.

○六和湯

○육화탕

治暑傷心脾, 嘔吐泄瀉, 或藿亂轉筋, 及浮腫瘡痢.

더위로 심장과 비장이 상하여 구토와 설사를 하고 간혹 광란으로 전근(轉筋)이 생기기도 하는 경우를 치료한다. 또한 부종이나 학질이나 이질도 치료한다.

香薷、厚朴 各一錢半, 赤茯苓、藿香、白扁豆(炒)、木瓜 各一錢, 縮砂(炒研)、半夏、杏仁(夫炒)、人參、甘草 各五分.

향유、후박 각 1.5돈, 적복령、곽향、백편두(볶는다)、목과 각 1돈, 축사(볶아서 간다)、반하、행인(밀기울과 함께 볶는다)、인삼、감초 각 5푼.

右剉, 入薑三棗二, 水煎服. ○加夫炒黃連一錢, 名清暑六和湯, 治暑傷心胞.

이상을 썬 후 생강 3조각과 대조 2개를 넣고 물에 달여 복용한다. ○황련(밀기울과 함께 볶는다) 1돈을 더하면 청서육화탕이라고 하는데 더위로 심포경이상한 경우를 치료한다.

○黃連香薷散

○황련향유산

治中暑熱渴.

중서(中暑)로 생긴 열갈(熱渴)을 치료한다.

香薷 三錢, 厚朴 一錢半, 黃連 七分半.

향유 3돈, 후박 1.5돈, 황련 7.5푼.

右剉, 入酒少許, 水煎, 沈冷服.

이상을 썬 후 술을 약간 넣고 물에 달여 찬물에 식혀서 복용한다.

中熱者, 爲日中暴陽所傷, 必苦頭痛, 肌膚大熱, 大渴引飲, 燥悶不安, 乃爲天熱外傷肺氣也, 白虎湯、竹葉石膏湯 [二方見外感], 或生脈散加減.

중열(中熱)은 낮에 내리쬘는 햇볕에 상한 것으로 반드시 두통으로 괴롭고 피부가 몹시 뜨거우며 심한 갈증으로 물을 찾고 답답하여 가만히 있지 못하게 되니 바로 뜨거운 날씨에 폐기(肺氣)가 상했기 때문이다. 백호탕·죽엽석고탕 [두 처방은 외감문에 나온다] 을 쓰거나 혹은 생맥산을 가감하여 써야 한다.

○玉露散

○옥로산

治暑渴煩躁, 肌膚大熱.

더위로 갈증이 나며 번조가 있고 피부가 매우 뜨거운 경우를 치료한다.

寒水石、滑石、石膏、天花粉 各一兩, 甘草 五錢.

한수석·활석·석고·천화분 각 1냥, 감초 5돈.

右末如粉, 每二三錢, 井水調下, 和蜜亦可.

이상을 분가루처럼 곱게 가루 낸 후 한 번에 2-3돈씩 우물물에 타서 넘긴다.

꿀을 타서 먹어도 괜찮다.

○益元散

○익원산

治中暑, 身熱吐瀉, 腸澼下利, 生津液, 止煩渴, 解百藥酒食毒, 通水道, 去濕熱.

중서(中暑)로 몸통이 뜨거우면서 구토와 설사를 하고 장벽(腸澼)으로 설사를 하는 경우를 치료한다. 이 약은 진액을 생기게 하고 번갈을 멎게 하며 여러 약재의 독성이나 주독이나 식독을 풀어주고 소변을 잘 나가게 하여 습열을 제거한다.

軟滑石(水飛) 六兩, 甘草(炙) 一兩.

연활석(수비한다) 6냥, 자감초 1냥.

右細末, 每二三錢, 溫蜜水調服, 欲冷飲者, 井水調下. ○一名天水散. ○一名六一散.

이상을 곱게 가루 낸 후 한 번에 2 - 3돈씩 따뜻한 꿀물에 타서 복용한다. 시원하게 마시고 싶은 경우에는 정화수에 타서 넘긴다. ○일명 천수산이라고도 한다. ○일명 육일산이라고도 한다.

○辰砂六一散

○진사육일산

六一散一劑, 入辰砂一錢.

육일산(익원산) 1번 만들 분량에 진사 1돈을 넣는다.

○牛黃六一散

○우황육일산

辰砂六一散, 入牛黃三分, 片腦一片, 服法與六一散同. ○治熱不退, 狂言譫語, 煩渴躁悶不得眠.

진사육일산에 우황 3푼, 편뇌 1조각을 넣은 것이다. 복용법은 육일산과 동일하다. ◦열이 떨어지지 않으면서 광증, 섬어, 번갈이 있고 가슴이 뛰고 답답하여 제대로 잠들지 못하는 경우를 치료한다.

張都事 [震煥] 六歲兒, 素多胎熱, 夏月暴陽中, 遊戲庭中, 忽昏倒不省, 移時乃醒, 身熱如火, 口舌焦黑, 大渴躁悶不寧, 用玉露散、牛黃六一散、月經之類, 煩渴愈甚, 乃用活龍散 [方見外感]、猪糞汁, 直攻其熱, 以清快胸膈爲度, 於是熱退身涼而安.

도사(都事) 장진환(張震煥)의 6살 아이가 평소 태열(胎熱)이 자주 있었다. 여름철 햇볕이 강할 때 마당에서 놀다가 갑자기 쓰러져 인사불성 되었는데 시간이 좀 지나자 깨어났으나 몸이 불덩이 같고 입과 혀가 바짝 마르면서 검어졌으며 갈증이 심하고 가슴이 뛰고 답답하여 가만히 있지 못했다. 옥로산, 우황육일산, 월경수 같은 약을 써보았으나 번갈이 더욱 심해졌다. 그래서 활롱산 [처방은 외감문에 나온다] 과 저분즙(猪糞汁)을 써서 열을 잡으면서 가슴이 시원해질 때까지 계속 했더니 열이 떨어지고 몸이 식으면서 좋아졌다.

伏暑者, 卽冒暑久而藏伏三焦腸胃之間, 變出, 寒熱往來, 或藿亂吐瀉, 或瘧痢煩渴, 或腹痛下血等症.

복서(伏暑)는 더위를 먹고 오래 지나 서사(暑邪)가 삼초나 장이나 위 부근에 잠복했다가 악화되는 병이다. 한열왕래가 있으면서 간혹 토사곽란이 있기도 하고 혹은 학질이나 이질이나 번갈이 생기기도 하고 혹은 복통이나 하혈 같은 증상이 생기기도 한다.

◦酒蒸黃連丸

◦주증황련환

治伏暑, 嘔渴惡心, 及年深暑毒不差.

복서(伏暑)로 구토, 갈증, 오심이 생기는 경우와 몇 년 동안 더위 먹은 것이 낫지 않는 경우를 치료한다.

黃連 四兩(淸酒七合浸之, 蒸乾, 以酒盡爲度)

황련 4냥(청주 7홉에 담갔다가 찐 후 말린다. 이 과정을 술이 없어질 때까지 반복한다)

右細末, 麵糊丸小豆大, 每三十丸, 熟水吞下, 以涼膈不渴爲驗.

이상을 곱게 가루 낸 후 밀가루풀에 개어 소두(小豆) 크기로 환을 빚고 한 번에 30환씩 끓인 물로 삼킨다. 가슴이 식으면서 갈증이 없어질 때까지 복용하면 효과가 있다.

○消暑元

○소서원

治伏暑, 氣欲絕.

복서(伏暑)로 숨이 끊어질 듯한 경우를 치료한다.

半夏 八兩, 赤茯苓、甘草 各四兩.

반하 8냥, 적복령·감초 각 4냥.

右, 以醋二升半, 煮半夏, 醋盡熬乾, 爲末, 以薑汁糊¹丸小豆大, 每五十丸, 熟水吞下, 藥下卽甦.

위 약재 중에서 반하를 식초 2.5되에 넣고 달이다가 식초가 모두 없어질 때까지 졸이면서 말린다. 이것을 나머지 약재와 함께 가루 낸 후 생강즙을 넣어 쏘풀에 개어 소두 크기로 환을 빚는다. 한 번에 50환씩 끓인 물로 삼킨다. 약이 넘어가면 즉시 살아난다.

○桂苓甘露飲

○계령감로음

治伏暑, 煩渴引飲, 泄痢.

잠복한 서사(暑邪)로 번갈이 생기면서 물을 찾고 설사나 이질이 있는 경우를 치료한다.

滑石 二兩, 赤茯苓、澤瀉、石膏、寒水石、甘草 各一兩, 白朮、猪苓、肉桂 各五錢.

활석 2냥, 적복령, 택사, 석고, 한수석, 감초 각 1냥, 백출, 저령, 육계 각 5돈.

右末, 每一錢, 姜湯調下. ○桂苓甘露散, 上方, 去猪苓, 加乾葛、人參、藿香、木香.

이상을 가루 낸 후 한 번에 1돈씩 생강탕에 타서 넘긴다. ○계령감로산은 위 계령감로음에서 저령을 빼고 건갈, 인삼, 곽향, 목향을 더한 것이다.

長夏濕熱盛行之時, 陽浮於外, 陰伏於內, 人身元氣虛弱, 當此之時, 四肢困倦, 精神短少, 懶於動作, 身熱煩渴, 小便黃數, 大便溏泄, 不思飲食, 自汗喘嗽者, 以補氣爲主, 補中益氣湯 [方見泄瀉], 去升麻, 加麥門冬, 五味子二十粒酒炒, 黃栢一二分, 煎服.

여름철 습기와 열기가 왕성할 때에는 양기가 겉으로 뜨고 음기가 몸속으로 잠복하여 사람의 원기가 허약해진다. 이럴 때에는 사지가 피곤해지고 정신력이 부족해지고 움직이기 귀찮아하며 몸통이 뜨겁고 번갈이 생기며 소변이 누레지면서 자주 나오고 대변은 소화되지 않은 설사로 나오며 음식 먹을 생각이 없어지고 자한을 흘리며 기침을 하게 된다. 이 경우에는 기를 보하는 것을 위주로 치료해야 한다. 보중익기탕 [처방은 설사문에 나온다] 에서 승마를 빼고 맥문동, 오미자 20알, 황백(술에 축여 볶는다) 1 - 2푼을 더하고 달여서 복용한다.

○清暑益氣湯

○청서익기탕

治長夏濕熱蒸人, 四肢困倦, 精神短少, 身熱煩渴, 小便黃數, 大便溏泄, 不思飲食, 氣促自汗.

여름철 습기와 열기가 사람을 푹푹 찌게 만들어 사지가 피곤하고 정신력이 부족해지며 몸통이 뜨겁고 번갈아 생기며 소변이 누레지면서 자주 나오고 대변은 소화되지 않은 설사로 나오며 음식 먹을 생각이 없어지고 자한을 흘리며 숨을 헐떡이는 경우를 치료한다.

蒼朮 一錢半, 黃芪、升麻 各一錢, 人參、白朮、陳皮、神曲(炒)、澤瀉 各五分, 黃栢(酒炒)、當歸、青皮、麥門冬、乾葛、甘草 各三分, 五味子 九粒.

창출 1.5돈, 황기、승마 각 1돈, 인삼、백출、진피、신국(볶는다)、택사 각 5푼, 황백(술에 축여 볶는다)、당귀、청피、맥문동、건갈、감초 각 3푼, 오미자 9알.

右剉, 水煎服.

이상을 썬 후 물에 달여 복용한다.

○黃芪湯

○황기탕

治中喝, 脈虛弱.

중갈(中喝)일 때 맥이 허약한 경우를 치료한다.

人參、白朮、白茯苓、甘草、黃芪、白芍藥 各一錢.

인삼、백출、백복령、감초、황기、백작약 각 1돈.

右剉, 入薑三, 水煎服.

이상을 썬 후 생강 3조각을 넣고 물에 달여 복용한다.

○三白香薷飲

○삼백향유음

驅暑清熱, 壯元氣, 免霍亂, 止吐利.

더위를 몰아내고 열을 씻어내며 원기를 튼튼하게 하고 곽란을 없어지게 하며 구토와 설사를 멎게 한다.

白朮 一錢半, 人參 一錢二分, 麥門冬、白芍藥、白茯苓 各一錢, 知母(炒)、陳皮、香薷 各七分, 甘草(炙) 五分, 黃芩(炒) 三分, 五味子 十粒.

백출 1.5돈, 인삼 1.2돈, 맥문동·백작약·백복령 각 1돈, 지모(볶는다)·진피·향유 각 7푼, 자감초 5푼, 황금(볶는다) 3푼, 오미자 10알.

右剉, 入薑三, 水煎服. ○一名却暑清健湯.

이상을 썬 후 생강 3조각을 넣고 물에 달여 복용한다. ○일명 각서청건탕이라고도 한다.

○十味香薷飲

○십미향유음

清暑和胃補氣.

더위를 없애고 위를 편안하게 하며 기를 보한다.

香薷 一錢半, 厚朴、白扁豆(炒)、人參、白朮、白茯苓、黃芪、木瓜、甘草 各七分.

향유 1.5돈, 후박·백편두(볶는다)·인삼·백출·백복령·황기·목과·감초
각 7푼.

右剉, 水煎服, 或爲末, 每二錢, 熱湯或冷水調服.

이상을 썬 후 물에 달여 복용한다. 혹은 가루 낸 후 한 번에 2돈씩 뜨거운 물이
나 냉수에 타서 복용한다.

○清肺生脈飲

○청폐생맥음

治暑傷肺, 咳嗽煩渴氣促.

더위로 폐장이 상하여 기침을 하고 번갈이 있으며 숨을 헐떡이는 증상을 치료
한다.

黃芪 二錢, 當歸、生芩、人參、麥門冬 各一錢, 五味子 十粒.

황기 2돈, 당귀·생지황·인삼·맥문동 각 1돈, 오미자 10알.

右剉, 水煎服.

이상을 썬 후 물에 달여 복용한다.

○濯熱散

○탁열산

治暑熱煩渴, 及霍亂後大渴, 最妙.

더위로 생긴 번갈이나 또한 객란을 앓은 후에 생긴 심한 갈증을 치료하는 데
매우 좋다.

白礬、五倍子、烏梅肉、甘草 各一兩.

백반、오배자、오매육、감초 각 1냥.

右細末, 入白麵四兩, 拌勻, 每二錢, 新汲水調下.

이상을 곱게 가루 낸 후 백면(白麵) 4냥을 골고루 섞고 한 번에 2돈씩 신급수에 타서 넘긴다.

○生脈散

○생맥산

流金燦石之日, 寒水絕體, 於斯時也, 用此, 滋生精氣, 培養眞元.

쇠나 돌까지 녹일듯한 날에 찬물은 몸에 해롭다. 이런 날씨에는 생맥산으로 몸의 정기를 기르고 원기를 북돋아 준다.

麥門冬 二錢, 人參、五味子 各一錢.

맥문동 2돈, 인삼、오미자 각 1돈.

右剉, 水煎服. ○夏月代茶飲之, 或加黃芪、甘草各一錢, 酒黃栢二分服之, 則令人氣力湧出.

이상을 썬 후 물에 달여 복용한다. ○여름철에 차를 대신하여 마신다. 혹은 황기、감초 각 1돈과 황백(술로 법제한다) 2푼을 더하여 복용하면 기력이 용솟음치게 만든다.

夏月, 多喫生冷氷漿, 腹痛嘔吐泄瀉者, 香薷散, 加藿香、縮砂, 或萬安膏 [方見諸積], 挾感, 二香散, 加藿香、草果, 或暑毒入腸胃, 嘔吐泄瀉, 解暑三白散, 合六一散.

여름철에 생랭(生冷)한 음식이나 얼음물을 많이 먹어 복통, 구토, 설사가 생긴 경우에는 향유산에 곱향、축사를 더하여 쓰거나 혹은 만안고 [처방은 제적문에 나온다] 를 쓴다. 감기를 겸한 경우에는 이향산에 곱향、초과를 더하여 쓴

다. 간혹 더위가 장과 위까지 들어가 구토하면서 설사하는 경우에는 해서삼백 산에 육일산을 합하여 쓴다.

○香薷散

○향유산

治一切暑病, 霍亂吐瀉.

여러 가지 더위로 생긴 객란과 토사를 치료한다.

香薷 三錢, 厚朴、白扁豆 各一錢半.

향유 3돈, 후박·백편두 각 1.5돈.

右剉, 入酒少許, 水煎服. ○加赤茯苓一錢半, 甘草五分, 名香薷湯. [古方, 香薷性溫, 夏月勿多服.]

이상을 썬 후 술을 약간 넣고 물에 달여 복용한다. ○적복령 1.5돈, 감초 5푼을 더한 것을 향유탕이라고 부른다. [옛 방서에서 향유는 약성이 따뜻하기 때문에 여름철에는 많이 먹지 말라고 하였다.]

○消暑十全飲

○소서십전음

治傷暑, 身熱惡寒, 頭疼泄瀉, 腹痛煩渴.

더위에 상하여 몸통이 뜨겁고 오한, 두통, 설사, 복통, 번갈이 있는 경우를 치료한다.

香薷 一錢半, 白扁豆、厚朴、蘇葉、白朮、赤茯苓、藿香、木瓜、白檀香 各一錢, 甘草 五分.

향유 1.5돈, 백편두、후박、소엽、백출、적복령、곽향、목과、백단향 각 1돈, 감초 5푼.

右剉, 水煎服.

이상을 썬 후 물에 달여 복용한다.

○解暑三白散

○해서삼백산

治暑熱, 引飲過多, 以致吐瀉.

더위로 너무 자주 물을 마셔서 구토와 설사를 하게 된 경우를 치료한다.

澤瀉、白茯苓、白朮 各二錢.

택사、백복령、백출 각 2돈.

右剉, 入薑三, 燈心二十莖, 水煎服.

이상을 썬 후 생강 3조각과 등심 20줄기를 넣고 물에 달여 복용한다.

○縮脾飲

○축비음

治夏月內傷生冷, 腹痛吐瀉.

여름철에 생랭(生冷)한 음식으로 몸속이 상하여 복통, 구토, 설사가 생긴 경우를 치료한다.

砂仁(炒研) 一錢半, 草果(煨)、烏梅肉、香薷、甘草 各一錢, 白扁豆(炒)、葛根 各七分.

사인(볶아서 간다) 1.5돈, 초과(재에 묻어 굽는다)·오매육·향유·감초 각 1돈, 백편두(볶는다)·갈근 각 7푼.

右剉, 入薑五, 水煎服.

이상을 썬 후 생강 5조각을 넣고 물에 달여 복용한다.

◦桂苓元

◦계령원

治夏月傷冷濕, 吐瀉.

여름철에 서늘하고 습한 환경에 상하여 구토와 설사를 하는 경우를 치료한다.

桂心、赤茯苓 各等分.

계심·적복령 각각 같은 양.

右細末, 煉蜜和丸, 兩作八丸, 井水和服一丸.

이상을 곱게 가루 낸 후 연밀에 개어 환으로 빚는다. 1냥으로 8 - 9환을 만들고 정화수에 1환씩 풀어서 복용한다.

注夏病者, 人遇春末夏初, 頭痛脚弱, 食小體熱, 陰虛元氣不足也, 宜補中益氣湯 [方見吐瀉], 加減用之.

주하병(注夏病)은 늦봄이나 초여름에 머리가 아프고 다리에 힘이 없어지며 적게 먹게 되고 몸통이 뜨거워지는 것으로 이는 음기가 허약해져 원기가 부족하기 때문에 발생한다. 보중익기탕 [처방은 토사문에 나온다] 을 가감하여 써야 한다.

◦參歸益元湯

◦삼귀익원탕

治注夏病, 頭眩眼花, 脚弱, 五心煩熱, 口苦舌乾, 精神短少, 困倦好睡, 飲食減少, 脈數無力.

주하병(注夏病)으로 머리가 어지러우면서 눈에 꽃 같은 것이 보이고 다리에 힘이 없으며 오심번열이 있고 입이 쓰면서 혀가 마르며 정신력이 부족해지고 피곤해하면서 자꾸 자려고 하며 먹는 양이 줄어들고 맥이 삭(數)하면서 힘이 없는 경우를 치료한다.

當歸、白芍藥、熟地黃、白茯苓、麥門冬 各一錢, 陳皮、知母、黃栢(并酒炒) 各七分, 人參 五分, 五味子 十粒, 甘草 三分.

당귀、백작약、숙지황、백복령、맥문동 각 1돈, 진피、지모、황백(2가지 모두 술에 축여 볶는다) 각 7푼, 인삼 5푼, 오미자 10알, 감초 3푼.

右剉, 入棗一, 粳米一撮, 水煎服.

이상을 썬 후 대조 1개와 갱미 1찰을 넣고 물에 달여 복용한다.

一方, 夏月煩渴心悶, 紅蓼濃煎服. ○石膏末一兩, 煮取汁, 和好蜜, 任服. ○臘月馬糞乾者, 水煎服, 局方馬通茶, 以馬通, 入香薷、胡椒, 濃煎, 用預防暑症. ○甜瓜, 暑月食之, 不中暑氣. ○中暑, 精神昏迷, 生姜急嚼, 以冷水送下, 大蒜亦可. ○中暑昏倒, 急扶, 在陰涼處, 切勿與冷水, 以布巾或衣物之類, 蘸熱湯慰臍中及氣海 [穴名, 在臍下一寸半.], 如倉卒無熱湯, 掬道上熱土, 積於臍上, 冷則易之, 臍中熱土作窩, 令人尿其中, 雖死即活.

어떤 서적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다. '여름철에 번갈이 있고 가슴이 답답한 경우에는 홍료(紅蓼)를 진하게 달여 복용한다. ○석고가루 1냥을 달여서 국물로 만들고 좋은 꿀을 타서 원하는 만큼 복용한다. ○설탕에 마른 말뚝을 구하여 물에 달여 복용한다. 《화제국방》의 마통차(馬通茶). 마통(馬通, 말뚝)에 향유와 호초를 넣고 진하게 달여 복용하면 서증을 예방한다. ○침과(수박)를 여름철에 먹으면 더위를 타지 않는다. ○더위를 먹어 정신이 혼미해졌을 때는 생강을 얼른 씹어 냉수로 넘긴다. 마늘도 괜찮다. ○더위를 먹어 쓰러졌을 때는 얼

큰 부축해서 시원한 그늘로 데려가고 절대 찬물을 주지 말아야 한다. 천이나 옷 같은 것을 뜨거운 물에 적서 배꼽과 기해혈 [배꼽 아래 1.5촌 아래에 있다] 에 찜질해야 한다. 갑자기 뜨거운 물을 구하기 어려우면 길거리의 뜨거운 흙을 떠서 배꼽에 쌓아 두었다가 흙이 식으면 바꿔준다. 배꼽에 뜨거운 흙을 등지처럼 쌓고 다른 사람들이 움푹한 중앙에 오줌을 누게 한다. 이렇게 하면 이미 죽었더라도 즉시 살아난다!

1. 糊 : ※연문 ←

及幼方卷之十一 급유방 권11

橫城 趙廷俊重卿 集

황성 조정준(趙廷俊, 字 重卿) 편저



咳嗽 해수

病機云, 咳謂無痰而有聲, 肺氣傷而不清也, 嗽謂無聲而有痰, 脾濕動而爲痰也, 咳嗽有聲有痰也, 因傷肺氣動於脾濕, 故咳而嗽也, 大抵有風嗽、寒嗽、熱嗽、痰嗽、食積嗽、天行嗽, 條陳于下.

《소문병기기의보명집(素問病機氣宜保命集)》에 '해(咳)는 가래 없이 소리만 나는 기침이니 폐장의 기운이 상하여 깨끗하지 못하기 때문에 생긴다. 수(嗽)는 소리 없이 가래만 나오는 기침이니 비장의 습사가 발동하여 가래가 되기 때문에 생긴다. 해수는 소리도 나고 가래도 있는 것으로 폐장의 기운이 상한 데다가 비장의 습사도 발동하기 때문에 해와 수가 함께 나타나는 것이다.'라고 하였다. 해수에는 풍수(風嗽)、한수(寒嗽)、열수(熱嗽)、담수(痰嗽)、식적수(食積嗽)、천행수(天行嗽)가 있으니 각 조목은 아래에 나열하였다.

傷風咳嗽者, 脈浮, 增寒壯熱, 自汗惡風, 口乾煩躁, 鼻流清涕, 欲語未竟而咳.

상풍해수(傷風咳嗽)는 맥이 부(浮)하고 오한발열이 심하며 자한과 오풍이 있고 입이 마르면서 번조가 있으며 맑은 콧물이 나고 말을 하다가 마치기 전에 기침을 한다.

○神朮散

○신출산

治傷風, 頭痛鼻塞聲重, 咳嗽噴嚏.

상풍으로 머리가 아프고 코가 막히며 목이 잠기고 기침이나 재채기를 하는 경우를 치료한다.

蒼朮 二錢, 羌活、川芎、白芷、細辛、甘草 各一錢.

창출 2돈, 강활、천궁、백지、세신、감초 각 1돈.

右剉, 入薑三葱白一, 水煎服.

이상을 썬 후 생강 3조각과 총백 1줄기를 넣고 물에 달여 복용한다.

○金沸草散

○금비초산

治肺感風寒, 身熱頭痛, 寒熱往來, 咳嗽聲重, 痰塞咽膈.

폐장이 풍사나 한사에 감촉되어 몸통이 뜨겁고 머리가 아프며 한열왕래가 있고 기침을 하며 목이 잠기고 가래가 목구멍과 흉격을 막은 경우를 치료한다.

荊芥穗 二錢, 旋覆花、前胡 各一錢半, 麻黃、赤茯苓 各一錢, 半夏 七分半, 細辛、甘草 各三分.

형개수 2돈, 선복화·전호 각 1.5돈, 마황·적복령 각 1돈, 반하 7.5푼, 세신·감초 각 3푼.

右剉, 入薑三棗一梅一, 水煎, 綿濾去滓服. [旋覆花有刺, 刺咽故綿濾.]

이상을 썬 후 생강 3조각, 대조 1개, 오매 1개를 넣고 물에 달여 천으로 찌꺼기를 걸러 내고 복용한다. [선복화는 가시 같은 것이 있어서 그것이 목구멍을 찌르므로 천으로 거르는 것이다.]

○三拗湯

○삼요탕

治感風寒, 咳嗽鼻塞, 聲重失音.

풍사나 한사에 감촉되어 기침을 하고 코가 막히며 목이 잠기고 목소리가 잘 나오지 않는 경우를 치료한다.

麻黃(不去根節)、杏仁(不去皮尖)、甘草(不炙不去皮) 各一錢半.

마황(뿌리와 마디를 제거하지 않는다)·행인(껍질과 뾰족한 부분을 제거하지 않는다)·감초(겉지 않고, 껍질을 제거하지 않는다) 각 1.5돈.

右剉, 入薑五, 水煎服.

이상을 썬 후 생강 5조각을 넣고 물에 달여 복용한다.

○五拗湯

○오요탕

治感風寒, 咳嗽, 聲重咽痛. 三拗湯, 加荊芥、桔更各一錢煎, 服如上法.

풍사나 한사에 감촉되어 기침을 하고 목이 잠기며 목구멍이 아픈 경우를 치료한다. 삼요탕에 헝개와 길경을 각 1돈씩 더하여 달인다. 복용법은 위의 삼요탕과 같다.

加減三拗湯

가감삼요탕

治感風寒, 喘咳, 身熱頭痛, 惡風自汗

풍사나 한사에 감촉되어 숨을 헐떡이며 기침을 하고 몸통이 뜨거우며 두통, 오한, 자한이 있는 경우를 치료한다.

麻黃 二錢, 杏仁、桑白皮 各一錢半, 甘草 一錢, 蘇子(炒研)、前胡 各六分.

마황 2돈, 행인·상백피 각 1.5돈, 감초 1돈, 소자(볶아서 간다)·전호 각 6푼.

右剉, 入薑三, 水煎服.

이상을 썬 후 생강 3조각을 넣고 물에 달여 복용한다.

感寒咳嗽者, 增寒壯熱, 無汗惡寒, 煩躁不渴, 或遇寒而咳.

감한해수(感寒咳嗽)는 오한발열이 심하고 땀이 나지 않으면서 오한이 있으며 번조가 있으면서 갈증은 없고 간혹 찬바람을 쐬면 기침을 하는 것이다.

○華蓋散

○화개산

治肺感寒邪, 咳嗽上氣, 鼻塞聲重.

폐장이 한사에 감촉되어 기침을 하면서 상기되고 코가 막히며 목이 잠기는 경우를 치료한다.

麻黃 二錢, 赤茯苓、蘇子、陳皮、桑白皮、杏仁 各一錢, 甘草(炙) 五分.

마황 2돈, 적복령、소자、진피、상백피、행인 각 1돈, 자감초 5푼.

右剉, 入薑三棗二, 水煎服.

이상을 썬 후 생강 3조각과 대조 2개를 넣고 물에 달여 복용한다.

○紫蘇飲子

○자소음자

治肺脾虛寒, 頭痛身熱, 痰盛咳嗽.

폐장과 비장이 허한(虛寒)하여 머리가 아프고 몸통이 뜨거우며 가래가 끓는 기침을 하는 경우를 치료한다.

蘇葉、桑白皮、麻黃、陳皮、杏仁、青皮、五味子、甘草 各一錢, 人參、半夏 各六分.

소엽、상백피、마황、진피、행인、청피、오미자、감초 각 1돈, 인삼、반하 각 6푼.

右剉, 入薑三, 水煎服.

이상을 썬 후 생강 3조각을 넣고 물에 달여 복용한다.

○解表散

○해표산

治傷風感冷, 咳嗽痰喘, 嘔吐瀉利, 驚悸, 有熱症在表裏, 并服兩解.

풍사에 상하고 냉기에 감촉되어 가래가 끓는 심한 기침을 하며 구토, 설사, 경계(驚悸) 증상이 있는 경우를 치료한다. 열증이 표리에 모두 있는 경우에 복용하면 양쪽 모두 풀어준다.

麻黃(去節, 湯泡, 焙乾)、杏仁、赤茯苓 各一錢, 川芎、防風、枳殼 各一錢半, 甘草(半生半炙) 七分.

마황(마디를 제거하고 끓는 물에 담갔다가 겉불에 말린다)、행인、적복령 각 1돈, 천궁、방풍、지각 각 1.5돈, 감초(절반은 생것, 절반은 굽는다) 7푼.

右剉, 入薑三葱白二, 水煎, 量大小服.

이상을 썬 후 생강 3조각과 총백 2줄기를 넣고 물에 달여 아이의 몸집에 따라 복용한다.

○和解散

○화해산

治小兒四時感冒寒邪, 壯熱煩躁, 鼻塞多涕, 驚悸自汗, 肢體疼痛, 瘡疹已發未發, 皆可服.

계절에 관계 없이 아이가 한사에 감촉되어 열이 심하고 번조가 있으며 코가 막힌 상태에서 계속 콧물이 흐르고 경계와 자한이 있으며 사지와 온몸이 쭈시고 아픈 경우를 치료한다. 창진(瘡疹)이 이미 돋은 경우와 돋지 않은 경우까지 모두 복용할 수 있다.

羌活、防風、川芎 各一錢, 乾葛、升麻、蘇葉、白芍藥、甘草 各五分.

강활、방풍、천궁 각 1돈, 건갈、승마、소엽、백작약、감초 각 5푼.

右剉, 入薑二棗一, 水煎, 量宜加減服. ◦頭痛, 加荊芥, 無汗, 加麻黃, 咳嗽, 加杏仁、五味子、桔梗.

이상을 썬 후 생강 2조각과 대조 1개를 넣고 물에 달여 복용하되, 아이의 몸집에 따라 가감한다. ◦두통에는 형개를 더한다. 땀이 없는 경우에는 마황을 더한다. 기침에는 행인、오미자、길경을 더한다.

◦杏子湯

◦행자탕

治感風寒, 咳嗽痰盛, 又治形寒飲冷, 傷肺咳嗽, 尤宜.

풍사나 한사에 감촉되어 기침을 하고 가래가 많은 경우를 치료한다. 또한 몸이 찼 때 냉수를 마셔 폐장이 상한 것 때문에 기침하는 경우를 치료하는 데 매우 적합하다.

人參、半夏、赤茯苓、白芍藥、細辛、乾薑(炮)、桂枝、杏仁、五味子 各一錢, 甘草 五分.

인삼、반하、적복령、백작약、세신、건강(습지에 써서 굽는다)、계지、행인、오미자 각 1돈, 감초 5푼.

右剉, 入薑五梅一, 水煎服, 加麻黃, 尤妙.

이상을 썬 후 생강 5조각과 오매 1개를 넣고 물에 달여 복용한다. 마황을 더하면 더욱 효과가 좋다.

○杏蘇湯

○행소탕

治傷冷, 咳嗽痰盛.

서늘한 환경에 상하여 기침을 하고 가래가 많은 경우를 치료한다.

蘇葉、杏仁、桑白皮、陳皮、半夏、貝母(去心, 干炒)、白朮、五味子 各一錢, 甘草 五分.

소엽、행인、상백피、진피、반하、패모(심을 제거하고 생강즙에 축여 볶는다)、백출、오미자 각 1돈, 감초 5푼.

右剉, 入薑五, 水煎服.

이상을 썬 후 생강 5조각을 넣고 물에 달여 복용한다.

○溫肺湯

○온폐탕

治肺虛客寒, 喘咳, 嘔吐痰沫, 喉膈水飲停蓄有聲.

폐장이 허약할 때 한사가 침입하여 기침을 심하게 하고 가래와 거품을 토하며 목구멍과 흉격에 수기나 담음이 멎쳐 가래 끓는 소리가 나는 경우를 치료한다.

乾薑(炮)、桂皮、半夏、陳皮、五味子、杏仁(製)、甘草 各一錢, 細辛、阿膠珠 各五分.

건강(습지에 써서 굽는다)、계피、반하、진피、오미자、행인(법제한다)、감초 각 1돈, 세신、아교주 각 5푼.

右剉, 入薑三棗二, 水煎服.

이상을 썬 후 생강 3조각과 대조 2개를 넣고 물에 달여 복용한다.

◦飴薑元

◦이강원

治冷嗽.

냉수(冷嗽)를 치료한다.

黑糖 一斤, 乾薑(細末) 四兩.

흑당 1근, 건강(곱게 가루 낸다) 4냥.

右, 先熔糖, 次下薑末化勻, 待凝作片, 常常嚙下.

위 약재 중에서 우선 흑당을 녹이고 그다음 건강가루를 넣고 잘 섞는다. 굳은 후에 작은 조각으로 만들어 놓고 자주 씹어 먹는다.

熱嗽者, 脈數洪緊, 身熱面赤, 口燥咽乾, 痰涎稠粘, 聲嘶咯血, 胸腹常熱, 惟足時或乍冷, 甚則喘急面腫, 吐食昏瞢.

열수(熱嗽)는 맥이 삭(數)하면서 홍긴(洪緊)하고 몸통이 뜨거우며 얼굴이 붉어지고 입과 목구멍이 마르며 끈적한 담연이 나오고 목이 쉬며 기침에 피가 섞여 나오고 가슴과 배가 계속 뜨거우면서 발만 가끔 냉해진다. 증상이 심해지면 숨을 헐떡이면서 얼굴이 붓고 음식을 토하며 정신이 혼미해진다.

◦柴胡石膏湯

◦시호석고탕

治熱嗽, 壯熱惡風, 頭疼體痛, 心胸煩滿, 痰稠涎粘, 渴飲索水.

열수(熱嗽)로 열이 심하고 오풍, 두통, 몸살이 있으며 가슴이 답답하면서 그득하고 끈적한 담연이 나오며 갈증으로 물을 찾는 경우를 치료한다.

柴胡、葛根、前胡、石膏(煨)、赤芍藥 各二錢半, 桑白皮、黃芩 各一錢七分半, 荊芥穗 一錢半, 升麻 一錢二分半.

시호、갈근、전호、석고(불에 달군다)、적작약 각 2.5돈, 상백피、황금 각 1.75돈, 형개수 1.5돈, 승마 1.25돈.

右麤末, 每二三錢, 入薑二, 豆豉十粒, 水煎服.

이상을 거칠게 가루 낸 후 한 번에 2 - 3돈씩 생강 2조각과 두시 10알을 넣고 물에 달여 복용한다.

○洗肺散

○세폐산

治熱嗽, 痰盛, 肺氣不清利.

열수(熱嗽)로 가래가 많아 폐기(肺氣)가 시원스럽지 못한 경우를 치료한다.

半夏 三錢, 黃芩 二錢, 天門冬、麥門冬、五味子 各一錢半, 杏仁 一錢, 甘草 五分.

반하 3돈, 황금 2돈, 천문동、맥문동、오미자 각 1.5돈, 행인 1돈, 감초 5푼.

右剉, 入薑五, 水煎服.

이상을 썬 후 생강 5조각을 넣고 물에 달여 복용한다.

○人參瀉肺湯

○인삼사폐탕

治熱嗽, 心胸煩滿, 痰涎稠濁. ○涼膈散 [方見外感], 去朴硝, 加入參、枳殼、桔更、杏仁、桑白皮等分, 煎服.

열수(熱嗽)로 가슴이 답답하면서 그득하고 끈적한 담연이 나오는 경우를 치료한다. ○양격산 [처방은 외감문에 나온다] 에서 박초를 빼고, 인삼、지각、길경、행인、상백피 각각 같은 양을 더한 후 달여서 복용한다.

○貝母散

○패모산

治熱嗽久不止, 降火潤肺.

열수(熱嗽)가 오랫동안 그치지 않는 경우를 치료한다. 화기를 내려 폐장을 윤택하게 만든다.

杏仁 三錢, 款冬花 二錢, 知母 一錢半, 貝母(去心, 姜炒)、桑白皮、五味子、甘草 各一錢.

행인 3돈, 관동화 2돈, 지모 1.5돈, 패모(심을 제거하고 생강즙에 축여 볶는다)、상백피、오미자、감초 각 1돈.

右剉, 入薑三, 水煎服.

이상을 썬 후 생강 3조각을 넣고 물에 달여 복용한다.

○參朮調中湯

○삼출조중탕

除熱補氣, 止嗽定喘, 和脾胃, 進飲食.

열을 없애고 기를 보하며 기침을 멎게 하고 혈떡거림을 진정시키며 비장과 위를 편안하게 하여 음식을 넘어가게 한다.

桑白皮 一錢, 黃芪 八分, 人參、白朮、白茯苓、甘草 各六分, 地骨皮、麥門冬、陳皮 各四分, 青皮 二分, 五味子 二十粒.

상백피 1돈, 황기 8푼, 인삼·백출·백복령·감초 각 6푼, 지골피·맥문동·진피 각 4푼, 청피 2푼, 오미자 20알.

右剉, 水煎服.

이상을 썬 후 물에 달여 복용한다.

○清金降火湯

○청금강화탕

治熱嗽, 能瀉肺胃之火, 火降則痰消嗽止.

열수(熱嗽)를 치료한다. 폐장과 위의 화기를 빼주니 화기가 내려가면 가래가 없어지고 기침도 멎게 된다.

陳皮、杏仁 各一錢半, 赤茯苓、半夏、桔梗、貝母(去心, 姜炒)、前胡、瓜蒌仁、黃芩、石膏 各一錢, 枳殼 八分, 甘草 三分.

진피·행인 각 1.5돈, 적복령·반하·길경·패모(심을 제거하고 생강즙에 축여 볶는다)·전호·과루인·황금·석고 각 1돈, 지각 8푼, 감초 3푼.

右剉, 入薑三, 水煎服.

이상을 썬 후 생강 3조각을 넣고 물에 달여 복용한다.

○清肺湯

○청폐탕

治肺熱肺脹嗽喘, 胸腹煩熱脹悶, 渴飲, 小便短赤.

폐장이 열 때문에 부풀어 기침을 심하게 하고 가슴과 배에 번열이 있으면서 땀 뻘해지고 답답하며 갈증이 나고 붉은 소변을 짙끔짙끔 누는 경우를 치료한다.

黃芩 一錢半, 桔更、赤茯苓、桑白皮、陳皮、貝母 各一錢, 當歸、天門冬、梔子、杏仁、麥門冬 各七分, 五味子 七粒, 甘草 三分.

황금 1.5돈, 길경·적복령·상백피·진피·패모 각 1돈, 당귀·천문동·치자·행인·맥문동 각 7푼, 오미자 7알, 감초 3푼.

右剉, 入薑三棗二, 水煎服.

이상을 썬 후 생강 3조각과 대조 2개를 넣고 물에 달여 복용한다.

○小黃丸

○소황환

治熱痰, 咳嗽面赤煩渴.

열담(熱痰)으로 기침을 하고 얼굴이 붉어지며 번갈이 있는 경우를 치료한다.

黃芩 一兩半, 南星、半夏(并製) 各一兩.

황금 1.5냥, 남성·반하(2가지 모두 법제한다) 각 1냥.

右末, 薑汁浸蒸餅和丸小豆大, 薑湯或米飲下五六十丸.

이상을 가루 낸 후 생강즙에 담귀 놓았던 증병(蒸餅)에 개어 소두 크기로 환을 빚는다. 생강탕이나 미음에 50 - 60환을 넘긴다.

○葶牛丸

○정우환

治熱嗽, 面赤身熱, 口燥煩渴, 稠痰填胸, 呼吸喘悶, 起臥不安, 大便堅硬, 小便短赤.

열수(熱嗽)로 얼굴이 붉어지고 몸통이 뜨거우며 입이 마르고 번갈아 나며 끈적한 가래가 가슴에 가득하여 숨을 헐떡거리면서 답답해하고 앓건 눕건 불편해하며 대변이 단단하게 굳고 붉은 소변을 짙끔거리는 경우를 치료한다.

葶藶子(洗去砂土, 瓦上炒)・黑丑(炒, 頭末)・杏仁・防風 各等分.

정력자(모래와 흙을 씻어 내고 기와에 올려 볶는다)・흑축(볶은 후 맷돌가루를 쓴다)・행인・방풍 각각 같은 양.

右末, 棗肉和丸麻子大, 每三五十丸, 薑湯下, 或化服.

이상을 가루 낸 후 대추살에 개어 마자 크기로 환을 빚는다. 한 번에 30 - 50환씩 생강탕으로 넘기거나 혹은 녹여서 복용한다.

○四汁膏

○사즙고

止咳嗽, 潤心肺, 消痰降火.

기침을 멎게 하고 심장과 폐장을 촉촉하게 하며 가래를 없애고 화기를 내린다.

雪梨(汁)・生蘿菔(汁)・生藕(汁)・生薄荷(汁).

설리(즙)・생나복(즙)・생우(즙)・생박하(즙).

右等分, 入砂糖屑・薑汁少許, 和勻, 熬成膏, 量宜服.

위 약재 각각 같은 양에 사당가루와 생강즙을 약간 넣어 골고루 섞은 후 졸여서 고약처럼 만든다. 아이의 몸집에 따라 복용한다.

乳積嗽者, 乳食過飽, 結滯生痰, 或啼叫未定, 喫乳以致氣逆不下, 戀膈爲痰, 干肺而發咳嗽, 宜二陳湯, 加神曲・麥芽・枳殼・山楂肉, 或抱龍丸 [方見驚風], 甚者, 白餅子 [方見癖積] 下之.

유적수(乳積嗽)는 너무 많이 먹인 것이나 음식이 뭉쳐 담음이 생긴 후에 혹은 울음이 진정되지 않았을 때 젖을 먹여 기운이 거슬러 올라 내려가지 않게 되어 흥격에 머물러 담음이 된 후에 담음이 폐장을 간섭하여 기침이 발작하는 것이다. 이진탕에 신국·맥아·지각·산사육을 더해 쓰거나 포룡환 [처방은 경풍(驚風)문에 나온다] 을 써야 한다. 증상이 심한 경우에는 백병자 [처방은 벽적(癖積)문에 나온다] 로 하법을 써야 한다.

○二母寧嗽湯

○이모영수탕

治傷食, 胃火上炎, 衝逼肺氣, 嗽喘久不愈.

식상(食傷)으로 위의 화기가 위로 타올라 폐장을 침범하여 생긴 심한 기침이 오랫동안 낫지 않는 경우를 치료한다.

石膏 二錢, 貝母(去心, 薑炒)、知母 各一錢半, 梔子、黃芩 各一錢二分, 桑白皮、赤茯苓、瓜婁仁、陳皮 各一錢, 枳實 七分, 甘草 二分.

석고 2돈, 패모(심을 제거하고 생강즙에 축여 볶는다)·지모 각 1.5돈, 치자·황금 각 1.2돈, 상백피·적복령·과루인·진피 각 1돈, 지실 7푼, 감초 2푼.

右剉, 入薑三, 五味子十粒, 水煎服.

이상을 썬 후 생강 3조각과 오미자 10알을 넣고 물에 달여 복용한다.

○溫脾湯

○온비탕

治食飽則咳.

과식 후에 생긴 기침을 치료한다.

甘草 四兩, 大棗 二十枚.

감초 4냥, 대조 20개.

右剉, 水五升, 煎至二升, 分三服.

이상을 썬 후 물 5되에 넣고 달이다가 2되가 되면 3번에 나누어 복용한다.

- 趙瑞興 [景彬] 子, 生纔月餘, 稠痰常在喉中, 啼不能聲, 飲乳卽吐, 咳嗽苦劇, 呼吸不通, 面青汗流, 幾窒而甦, 余曰, 此乳積嗽, 非白餅子 [方見癖積], 不能救, 乃用三丸, 吐痰瀉痰而愈.
- 〔의안〕 서흥(瑞興) 수령 조경빈(趙景彬)의 한 달 남짓 된 아들이 찢든한 가래가 항상 목구멍에 끼있어 울어도 소리를 내지 못하고 젖을 물려도 즉시 토했으며 기침을 괴로울 정도로 하고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하여 얼굴이 파래지면서 땀을 흘리고 거의 질식할 듯하다가 살아났다. 내가 "이 병은 유적수(乳積嗽)니 백병자 [처방은 벽적(癖積)문에 나온다] 가 아니면 목숨을 구할 수 없습니다."라고 하고 곧 백병자 3환을 썼더니 가래를 토하며 답음을 설사하고는 좋아졌다.

痰嗽者, 嗽動便有痰聲, 痰出則嗽止, 竹瀝入薑汁少許, 調抱龍丸 [方見急驚], 時時服, 稠痰戀膈不下, 胡麻油, 或胡桃油之類, 微溫服, 貝母浸童便去心, 薑汁炒, 細末, 每少許, 竹根煎湯調, 薑汁和服.

담수(痰嗽)는 기침을 시작하면 곧 가래 끓는 소리가 나고 가래가 나오면 기침이 멎는 것이다. 죽력에 생강즙을 약간 넣고 포롱환 [처방은 급경(急驚)문에 나온다] 을 풀어서 자주 복용한다. 찢든한 가래가 흥격에 머물러 내려가지 않는 경우에는 호마유 혹은 호도유 같은 기름을 살짝 데워서 복용한다. 또는 패모(동변에 담갔다가 심을 제거한다)를 생강즙에 축여 볶고 곱게 가루 낸 후 한 번에 조금씩을 대나무 뿌리 달인 물에 타고 생강즙을 섞어 복용한다.

○二陳湯

○이진탕

通治痰飲諸疾, 及嘔吐惡心, 頭眩心悸, 或發寒熱, 或痰飲流注作痛, 痰咳喘急.

담음으로 생기는 여러 병을 두루 치료한다. 또한 구토, 오심, 현훈, 경계가 있고 간혹 오한발열이 생기거나 담음이 흘러 다니며 통증이 생기는 경우나 가래로 심하게 기침하는 경우도 치료한다.

半夏 二錢, 橘紅、赤茯苓 各一錢, 甘草(炙) 五分.

반하 2돈, 귤홍·적복령 각 1돈, 자감초 5푼.

右剉, 入薑三, 水煎服. ○半夏豁痰燥濕, 橘紅消痰利氣, 茯苓降氣滲濕, 甘草補脾和中, 眞治痰之聖劑也.

이상을 썬 후 생강 3조각을 넣고 물에 달여 복용한다. ○반하는 담음을 뚫어주면서 습기를 말리고, 귤홍은 담음을 삭히면서 기를 소통시키며, 복령은 기를 아래로 내리면서 습기를 배출시키고, 감초는 비장을 보하면서 뱃속을 편안하게 하니 참으로 담음을 치료하는 명약이다.

氣虛嗽者, 肺氣虛也, 氣短喘促, 面青自汗, 乳食不進, 宜補中益氣湯, 或六君子湯 [二方見吐瀉], 并加減用之.

기허수(氣虛嗽)는 폐장의 기운이 허하기 때문에 생기는 것으로 숨이 짧아지면서 혈떡이고 얼굴에 파래지며 자한이 나고 젖이나 음식을 넘기지 못한다. 보중익기탕이나 육군자탕 [두 처방은 토사문에 나온다] 을 쓰되 2가지 모두 가감하여 써야 한다.

○阿膠散

○아교산

治肺虛痰盛, 氣短喘嗽, 乳食不進.

폐허(肺虛)로 담음이 왕성해지고 숨이 짧아지면서 심하게 기침하며 젖이나 음식을 넘기지 못하는 경우를 치료한다.

阿膠珠 七分半, 白茯苓、馬兜鈴(蜜炒)、糯米(炒) 各二分半, 甘草(炙) 二分, 杏仁(麩炒) 十粒.

아교주 7.5푼, 백복령·마두령(꿀을 묻혀 볶는다)·나미(볶는다) 각 2.5푼, 자감초 2푼, 행인(밀기울과 함께 볶는다) 10알.

右剉, 水煎服. ○一方, 阿膠珠 二錢, 鼠粘子(炒研)、糯米(炒) 各一錢二分, 馬兜鈴 七分, 甘草(炙) 五分, 杏仁(麩炒) 九粒.

이상을 썬 후 물에 달여 복용한다. ○어떤 서적에는 '아교주 2돈, 서점자(볶아서 간다)·나미(볶는다) 각 1.2돈, 마두령 7푼, 자감초 5푼, 행인(밀기울과 함께 볶는다) 9알.'이라고 되어 있다.

○三子養親湯

○삼자양친탕

治咳嗽氣急, 養脾進食, 行氣破痰.

기침을 하면서 숨이 급해진 경우를 치료한다. 비기(脾氣)를 길러주어 음식을 넘길 수 있게 하고 기를 운행시키며 담음을 흩어낸다.

紫蘇子、蘿菔子、白芥子 各一錢.

자소자·나복자·백개자 각 1돈.

右并紙上微炒研, 煮湯飲, 勿煎太過, 味苦.

위 약재 모두를 종이 위에서 살짝 볶아서 간 후 물에 달여 마신다. 너무 오래 달이지 말아야 하니 맛이 써지기 때문이다.

天行嗽者, 時氣不正, 人多感之, 此與四時感冒稍異, 宜參蘇飲 [方見外感]、杏子湯 [方見上].

천행수(天行嗽)는 날씨가 좋지 않을 때 걸리는 사람들이 많다. 천행수는 사시감모(四時感冒)와 조금 다르다. 삼소음 [처방은 외감문에 나온다] 이나 행자탕 [처방은 위에 나온다] 을 써야 한다.

○人參飮子

○인삼음자

治天行咳嗽, 痰盛寒熱.

천행수(天行嗽)로 가래가 끓고 오한과 발열이 나는 경우를 치료한다.

人參、桔梗、五味子、赤茯苓、半夏 各一錢半, 枳殼、甘草 各七分.

인삼、길경、오미자、적복령、반하 각 1.5돈, 지각、감초 각 7푼.

右剉, 入薑五, 水煎服.

이상을 썬 후 생강 5조각을 넣고 물에 달여 복용한다.

○一服散

○일복산

治時行暴嗽.

유행성으로 갑자기 기침하는 증상을 치료한다.

大半夏 三箇, 杏仁 七枚, 鷲栗殼、烏梅 各二箇, 阿膠珠 二片, 生薑 十片, 蘇葉 十葉, 甘草 一錢.

대반하 3개, 행인 7개, 맹속각·오매 각 2개, 아교주 2조각, 생강 10조각, 소엽 10장, 감초 1돈.

右剉, 水煎服.

이상을 썬 후 물에 달여 복용한다.

○參花散

○삼화산

治上同.

위와 같이 유행성으로 갑자기 기침하는 증상을 치료한다.

人參、天花粉 各等分.

인삼、천화분 각각 같은 양.

右末, 每五分, 蜜水調下. ○咳嗽唾鮮血, 瓜蒌根細末, 每五六分, 蜜水調服.

이상을 가루 낸 후 한 번에 5푼씩 꿀물에 타서 넘긴다. ○기침을 하면서 선혈이 섞여 나오는 경우에는 과루근을 곱게 가루 낸 후 한 번에 5-6푼씩 꿀물에 타서 복용한다.

咳嗽通治之法, 咳而有痰, 以南星、半夏, 勝其痰, 嗽而無痰, 以杏仁、甘草, 潤其肺, 痰盛嗽甚而能食者, 白餅子 [方見癖積] 下之, 不能食者, 六君子湯 [方見吐瀉] 爲主治, 而治痰治嗽, 莫如行氣利膈, 加枳殼、蘇子各等分, 少加皂角, 脇下牽痛, 加青皮、白芥子, 疎利肝氣, 多食生冷冰漿之類, 水飲停蓄膈間, 咳嗽喘促, 頭額汗多, 以小青龍湯 [方見外感], 溫以散之.

여러 가지 기침을 두루 치료하는 방법. 기침을 하면서 가래가 있으면 남성과 반하로 가래를 공략해야 한다. 기침을 하면서 가래가 없으면 행인과 감초로 폐장을 촉촉하게 해야 한다. 가래와 기침이 심하지만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경우

에는 백병자 [처방은 벽적(癖積)문에 나온다] 로 하법을 써야 하고, 음식을 먹을 수 없는 경우에는 육군자탕 [처방은 토사문에 나온다] 을 위주로 치료해야 한다. 그리고 가래나 기침 치료에는 기를 운행시켜 흉격을 소통시키는 것만한 것이 없으니 지각과 소자 각각 같은 양과 조각을 약간 더해 쓴다. 옆구리 아래가 당기면서 아픈 경우에는 청피와 백개자를 더해 써서 간기(肝氣)를 소통시켜야 한다. 생랭(生冷)한 음식이나 얼음물을 많이 먹은 후 수기가 흉격에 정체되어 기침을 심하게 하면서 숨을 헐떡이고 머리와 이마에 땀이 많이 나는 경우에는 소청룡탕 [처방은 외감문에 나온다] 을 써서 따뜻한 성미의 약재로 풀어 주어야 한다.

○清金飲

○청금음

通治諸般咳嗽.

여러 가지 기침을 두루 치료한다.

杏仁、白茯苓 各一錢, 橘紅 六分, 五味子、桔更、甘草 各五分.

행인、백복령 각 1돈, 귤홍 6푼, 오미자、길경、감초 각 5푼.

右剉, 水煎服. ○挾外感, 加蘇葉, 挾熱, 加黃芩, 挾內傷生冷, 加神曲、砂仁、麥芽、山查, 量宜加減.

이상을 썬 후 물에 달여 복용한다. ○외감증을 겸한 경우에는 소엽을 더하고, 열증을 겸한 경우에는 황금을 더하며, 생랭(生冷)한 음식을 먹어 내상을 겸한 경우에는 신국、사인、맥아、산사를 더하되 이 모든 경우 아이의 몸집에 따라 가감해야 한다.

○貝母散

○패모산

治小兒諸般咳嗽氣急.

아이가 여러 가지 기침을 하면서 숨이 급한 경우를 치료한다.

貝母(去心, 姜炒)·杏仁(去皮尖, 夫炒)·麥門冬·款冬花 各五分, 紫菀 一錢.

패모(심을 제거하고 생강즙에 축여 볶는다)·행인(껍질과 뾰족한 부분을 제거하고 밀기울과 함께 볶는다)·맥문동·관동화 각 5푼, 자완 1돈.

右麤末, 每一錢, 水煎服, 或細末, 少許, 乳汁調服.

이상을 거칠게 가루 낸 후 한 번에 1돈씩 물에 달여 복용한다. 혹은 곱게 갈아 약간씩 젖에 타서 복용한다.

○團參飲

○단삼음

治小兒諸嗽, 及肺虛喘.

아이의 여러 가지 기침 및 폐허(肺虛)로 숨을 헐떡이는 경우를 치료한다.

阿膠珠·人參 各等分, 皂角(炙黃) 半減.

아교주·인삼 각각 같은 양, 조각(누렇게 굽는다) 절반 분량.

右麤末, 每五分, 水煎服, 或細末, 乳汁調服.

이상을 거칠게 가루 낸 후 한 번에 5푼씩 물에 달여 복용한다. 혹은 곱게 갈아 젖에 타서 복용한다.

○蜜梨噙

○밀리금

治諸般咳嗽.

여러 가지 기침을 치료한다.

甘梨一箇, 以刀切開口, 刮去裏核, 入蜜於內, 以麵裹煨熟, 去麵任嚼. ○梨一箇, 刺作五十孔, 每孔入胡椒一粒, 麵裹煨熟, 停冷, 去椒嚼之.

감리(甘梨) 1개를 칼로 잘라 구멍을 따고 속에 있는 씨를 긁어 낸 후 속에 꿀을 넣는다. 밀가루 반죽으로 전체를 싸서 잣불에 묻어 굽다가 익으면 밀가루 반죽을 떼고 먹을 만큼 씹어 먹는다. ○배 1개에 구멍을 50개 뚫고 구멍마다 호초 1알을 넣은 후 밀가루 반죽으로 전체를 싸서 잣불에 묻어 구워 익힌다. 배가 식으면 호초를 빼고 씹어 먹는다.

一方, 猪肺一大片, 洗去血水, 以竹簽穿眼五六孔, 每眼入杏仁一箇, 麻扎, 入水煮熟, 去杏仁, 只吃肺, 治肺虛咳嗽唾血. ○甘草一兩四破, 猪膽汁浸五日, 炙爲細末, 蜜丸麻子大, 每二三十丸, 薄荷生薑湯下, 治熱咳久不止. ○貝母不拘大小, 童便浸三日, 取出, 去心焙乾, 細末, 每三五分, 砂糖水調服, 治熱痰嗽. ○南星大者, 去皮臍切片, 浸薑汁一晝夜, 取出, 麵裹煨熟, 細末, 每少許, 竹瀝薑汁調服, 治痰嗽.

어떤 서적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다. '돼지의 허파를 썰어 큰 것 1개를 씻어 핏물을 빼고 대나무 꼬챙이로 5 - 6개 구멍을 낸다. 구멍마다 행인 1개씩을 넣고 칭칭 묶어 물에 넣고 달이다가 익으면 행인을 꺼내고 허파만 먹는다. 이렇게 하면 폐허(肺虛)로 기침을 하면서 피가 섞여 나오는 증상을 치료한다. ○1냥 정도 되는 감초를 4쪽으로 쪼개 저담즙에 5일 동안 담갔다가 불에 굽고 곱게 가루 낸 후 꿀에 개어 마자 크기로 환을 빚는다. 한 번에 20 - 30환씩 박하와 생강 달인 물로 넘기면 열과 기침이 오랫동안 멎지 않는 증상을 치료한다. ○패모를 분량에 상관 없이 동변에 3일 동안 담갔다가 꺼내어 심을 빼내고 곱볼로

말린 후 곱게 가루 낸다. 한 번에 3 - 5푼씩 설탕물에 타서 복용하면 열담(熱痰)으로 기침하는 증상을 치료한다. ◦남성 큰 것의 껍질과 배꼽을 제거하여 절편처럼 썰고 생강즙에 만 하루 동안 담갔다가 꺼낸 후 밀가루 반죽으로 전체를 싸고 잣불로 익혀 곱게 가루 낸다. 한 번에 약간씩 생강즙을 넣은 죽력에 타서 복용하면 담수(痰嗽)를 치료한다.'

- 李氏子年六歲, 得輪嗽, 日漸月加者, 已逾三朔矣, 方其咳嗽發作, 喉血出而呼吸不通, 握拳瞪目, 頭汗如流, 仍以氣窒, 移時乃醒, 一日之內如是者, 幾十餘次, 同時, 得此嗽不救者甚多, 余曰, 此運氣所關, 火邪燦金之致, 宜補土生金, 乃可責效, 補中益氣湯, 加阿膠珠、馬兜鈴蜜炒, 連服十劑而愈.
- [의안] 이씨의 6살 된 아들이 유행성 기침에 걸려 나날이 점점 심해진 지 벌써 3달이 넘었다. 기침이 막 발작할 때에는 목구멍에서 피가 나오면서 숨도 잘 쉬지 못하고 주먹을 불끈 쥐 채 눈에 초점이 없어지며 머리에 땀이 흐르듯이 나고 그 후에는 숨이 막혔다가 조금 후에 곧 깨어났다. 하루 동안 이런 발작을 몇십 번 반복했다. 당시에 이와 같은 기침에 걸려 목숨을 구하지 못한 이가 매우 많았다. 내가 "이 병은 운기(運氣)와 관련된 것으로 화(火)가 금(金)을 녹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마땅히 토(土)를 보하여 금(金)을 소생시켜야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라고 말하고는 보중익기탕에 아교주와 마두령(꿀을 문혀 볶는다)을 더하여 처방하였고 연달아 10첩을 복용하니 좋아졌다.

喘 천(喘)

喘者,呼吸急促,哮者,喉中有聲響也,概肺主氣,肺傷則氣逆不下而喘喝,甚則張口擡肩,搖身滾肚,感冒風寒者,宜參蘇飲[方見外感],或解表二陳湯[方見上],過食生冷者,杏子湯[方見咳嗽],有積氣麤面赤¹,痰盛發熱而喘悶者,白餅子[方見諸積]下之,氣虛嘔吐驚悸,困倦自汗而喘者,六君子湯[方見吐瀉],加減用之,古方,肺虛則喘,脾虛則脹,故喘必生脹,脹必生喘,是脾肺子母,二經不能相榮,而生喘脹也,考腹脹參治.

천(喘)은 숨을 헐떡이는 것이며 효(哮)는 목구멍에서 소리가 나는 것이다. 대체로 폐장은 기를 주관하는 법이니 폐장이 상하게 되면 기가 거슬러올라 내려가지 못하므로 숨을 헐떡이게 된다. 심하면 입을 벌리면서 어깨를 들썩이고 몸을 흔들면서 배를 움직인다. 풍사나 한사에 감모된 경우에는 삼소음[처방은 외감문에 나온다]이나 해표이진탕[처방은 위에 나온다]을 쓴다. 생랭(生冷)한 음식을 너무 많이 먹은 경우에는 행자탕[처방은 해수문에 나온다]을 쓴다. 적체된 기 때문에 얼굴이 거칠어지면서 붉어지고 담음이 왕성하여 열이 나면서 숨을 헐떡이는 경우에는 백병자[처방은 제적(諸積)문에 나온다]로 하법을 써야 한다. 기허(氣虛)로 구토와 경계 증상이 있고 피곤해하면서 자한이 있으면서 숨을 헐떡이는 경우에는 육군자탕[처방은 토사문에 나온다]을 가감하여 써야 한다. 옛 방식에서 '폐장이 허하면 천이 생기고, 비장이 허하면 복창이 생긴다. 그러므로 천이 있으면 반드시 복창이 생기고, 복창이 있으면 반드시 천이 생긴다.'고 하였다. 이는 비장과 폐장은 모자(母子) 관계라서 두 경맥이 서로 길러주지 못하기 때문에 천이나 복창이 생기게 된다는 의미이다. 복창문을 참고하여 치료하라.

○紫蘇子湯

○자소자탕

治形寒飲冷, 傷肺, 氣逆不下, 痰結喘促, 或胸膈 逆.

몸이 찼 때 찬 것을 마셔 폐장이 상하고 그 때문에 기가 거슬러올라 내려가지 못하게 되어 답음이 멎치고 숨을 헐떡이며 간혹 코고는 소리가 나거나 딸꾹질을 하는 경우를 치료한다.

蘇子、訶子(炮)、蘿菔子(微炒研)、杏仁(夫炒)、木香、人參 各一錢, 甘草(炙)、青皮 各五分.

소자、가자(습지에 싸서 굽는다)、나복자(살짝 볶은 후 간다)、행인(밀기울과 함께 볶는다)、목향、인삼 각 1돈, 자감초、청피 각 5푼.

右剉, 入薑三, 水煎服.

이상을 썬 후 생강 3조각을 넣고 물에 달여 복용한다.

○解表二陳湯

○해표이진탕

治感冒風寒, 痰咳喘急.

풍사나 한사에 감모되어 가래 끓는 기침을 하면서 숨을 헐떡이는 경우를 치료한다.

半夏、陳皮 各一錢, 赤茯苓、蘇葉、麻黃 各七分, 杏仁(夫炒)、桑白皮、紫菀茸、貝母(去心, 薑炒)、桔梗 各五分.

반하、진피 각 1돈, 적복령、소엽、마황 각 7푼, 행인(밀기울과 함께 볶는다)、상백피、자완용、패모(심을 제거하고 생강즙에 축여 볶는다)、길경 각 5푼.

右剉, 入薑三, 水煎服.

이상을 썬 후 생강 3조각을 넣고 물에 달여 복용한다.

○千緡湯

○천민탕

治痰喘氣急不能臥.

가래가 끓고 숨을 헐떡이며 숨이 급하기도 하여 누워있을 수 없는 경우를 치료한다.

半夏 七枚(四破, 湯泡), 皂角(灸), 甘草(灸) 各一寸, 南星(炮) 一錢.

반하 7개(4등분하여 끓는 물에 담근다), 조각(굽는다), 감초(굽는다) 각 1촌, 남성(습지에 싸서 굽는다) 1돈.

右剉, 入薑五, 水煎服.

이상을 썬 후 생강 5조각을 넣고 물에 달여 복용한다.

○千緡導痰湯

○천민도담탕

治痰盛咳嗽喘急, 又治馬脾風. 卽千緡湯, 加陳皮、赤茯苓、枳殼各一錢.

가래가 끓는 기침을 하고 숨을 헐떡이는 경우를 치료한다. 또한 마비풍(馬脾風)도 치료한다. 이 약은 바로 천민탕에 진피, 적복령, 지각 각 1돈을 더한 것이다.

○麥門冬湯

○맥문동탕

治痰喘, 肺氣欲絕.

담천(痰喘)으로 폐기(肺氣)가 끊어질 것 같은 경우를 치료한다.

麥門冬 三錢, 半夏 二錢, 人參 一錢, 粳米 一合, 甘草 五分.

맥문동 3돈, 반하 2돈, 인삼 1돈, 갱미 1홉, 감초 5푼.

右剉, 入棗三, 水煎服.

이상을 썬 후 대조 3개를 넣고 물에 달여 복용한다.

○麻黃石膏湯

○마황석고탕

治傷寒, 表鬱而喘者.

상한으로 표부가 울체되어 숨을 헐떡이는 경우를 치료한다.

麻黃(去節) 二錢, 杏仁(夫炒) 十箇, 石膏 四錢, 甘草(炙) 一錢.

마황(마디를 제거한다) 2돈, 행인(밀기울과 함께 볶는다) 10개, 석고 4돈, 자감초 1돈.

右剉, 每二錢, 水一盞六合, 煎至一盞, 溫服.

이상을 썬 후 한 번에 2돈씩 물 1.6잔이 1잔이 되도록 달이고 따뜻할 때 복용한다.

○坎離湯

○감리탕

治多食生冷, 或冷氣吸入, 膈間鬱而爲熱痰, 呼吸喘急, 晝輕夜重, 食減神昏.

생랭(生冷)한 음식을 많이 먹거나 서늘한 공기를 들이 마신 것이 흉격 부근에 울체되어 생긴 열담(熱痰)으로 숨을 헐떡이는 것이 낮에는 덜하지만 밤에는 심해지고 먹는 양이 줄며 정신이 혼미해지는 경우를 치료한다.

半夏、蘇子(炒研) 各二錢, 白朮、白茯苓、木香、葶澄茄、石菖蒲、甘草(炙) 各一錢.

반하、소자(볶아서 간다) 각 2돈, 백출、백복령、목향、필징가、석창포、자감초 각 1돈.

右剉, 每二錢, 水一盞半, 煎至一盞, 溫服.

이상을 썬 후 한 번에 2돈씩 물 1.5잔이 1잔이 되도록 달여 따뜻할 때 복용한다.

○枳實湯

○지실탕

治傷風傷寒, 胸滿喘促, 咳嗽痰盛, 乳食吐出.

상풍이나 상한으로 가슴이 그득하면서 숨을 헐떡이고 가래 끓는 기침을 하며 젖이나 음식을 토해 내는 경우를 치료한다.

桔更 七分半, 半夏 七分, 赤茯苓、枳實、甘草 各六分.

길경 7.5푼, 반하 7푼, 적복령、지실、감초 각 6푼.

右剉, 入薑三, 水一盞半, 煎至一盞, 溫服.

이상을 썬 후 생강 3조각을 넣고 물 1.5잔이 1잔이 되도록 달여 따뜻할 때 복용한다.

○定喘飲

○정천음

治挾風痰喘氣促, 不拘冷熱二症, 并皆服之.

담천(痰喘)으로 숨을 헐떡이는 증상에 풍증까지 겸한 경우를 치료한다. 냉증이나 열증에 상관 없이 모든 경우에 복용한다.

人參、麻黃、防己、訶子(去核)、半夏、甘草 各一錢半.

인삼、마황、방기、가자(씨를 제거한다)、반하、감초 각 1.5돈.

右剉, 每二錢, 入薑二片, 水一盞, 煎七分, 溫服.

이상을 썬 후 한 번에 2돈씩 생강 2조각과 함께 물 1잔에 넣고 달여 7할이 되면 따뜻할 때 복용한다.

○如神散

○여신산

治哮喘.

효천(哮喘)을 치료한다.

阿膠珠、馬兜鈴、半夏、杏仁、甘草 各一錢半, 人參 五分.

아교주、마두령、반하、행인、감초 각 1.5돈, 인삼 5푼.

右麤末, 每二錢, 水煎, 食後服.

이상을 거칠게 가루 낸 후 한 번에 2돈씩 물에 달여 식후에 복용한다.

- 李參奉 子年三歲, 猝患哮喘, 聲聞于外, 用解表治痰之劑, 少無應, 余曰, 肺與大腸, 乃雌雄經也, 此兒大便閉者五日, 此肺大腸氣壅閉, 不能升降之致, 用白餅子 [方見諸積], 泄數次, 喘聲漸下而安.
- 〔의안〕 이 참봉(李參奉)의 세 살배기 아들이 갑자기 효천(哮喘)을 앓아 기침 소리가 집 밖에까지 들렸다. 표부를 풀어주고 담을 치료하는 약을 썼으나 조금도 반응이 없었다. 내가 "폐장과 대장은 짝이 되는 경맥입니다. 이 아이는 대변이 막힌 지 5일이 되었으니 이는 폐장과 대장의 기가 막혀있어 제대로 오르내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라고 말하고는 백병자 [처방은 제적(諸積)문에 나온다]
를 써서 몇 번 설사를 시키니 기침 소리가 점점 낮아지며 좋아졌다.

- 一小兒, 得外感, 發汗之後, 喘急猝發, 搖頭肩息, 躁悶不貼, 頭面汗出淋漓, 余曰, 此多服發散之藥, 汗泄眞氣而然也, 人參二錢, 桂枝一錢, 鷲栗殼蜜炒五分, 濃煎服, 諸症減六七分, 更用補中益氣湯, 加桂枝・麻黃根而愈.
- [의안] 어떤 아이가 외감병에 걸려 땀을 낸 후에 갑자기 숨을 헐떡이고 머리를 떨면서 어깨로 숨을 쉬며 답답하여 가만히 있지 못하고 머리와 얼굴에는 땀이 나와 줄줄 흘렀다. 내가 "이는 발산시키는 약을 많이 복용하여 땀으로 진기가 새서 그런 것입니다."라고 하고는 인삼 2돈, 계지 1돈, 앵속각(꿀을 문혀 볶는다) 5푼을 진하게 달여 먹였더니 여러 증상들이 6-7할 정도 줄어들었다. 다시 보중익기탕에 계지와 마황근을 더하여 쓰니 좋아졌다.

1. 麤面赤 : 面麤赤 ※문맥상 ←

馬脾風 마비풍

馬脾風者, 重傷風寒, 寒邪停留肺膈, 寒化爲熱, 亦生痰喘, 逆上氣, 肺脹胸滿, 若不速治, 立見危亡, 輕者, 解表二陳湯 [方見咳嗽], 或抱龍丸 [方見急驚], 重者, 白餅子 [方見諸積] 下之.

마비풍(馬脾風)은 풍사나 한사에 심하게 상하여 한사가 폐수(肺膈)에 머무르기 때문에 생긴다. 한사는 변화하여 열이 되고 또한 담천(痰喘)을 생기게 하며 딸꾹질로 기가 거슬러 올라가게 되어 폐장이 부풀면서 코 고는 소리가 나는 것이다. 만약 속히 치료하지 않으면 즉시 위태로운 상황을 당하게 된다. 증상이 가벼운 경우에는 해표이진탕 [처방은 해수문에 나온다] 이나 포룡환 [처방은 급경(急驚)문에 나온다] 을 쓰고, 심한 경우에는 백병자 [처방은 제적(諸積)문에 나온다] 로 하법을 써야 한다.

○馬脾風散

○마비풍산

治小兒肺脹, 胸滿喘急, 兩脇扇動, 兩鼻竅張, 痰涎潮塞, 悶亂喘喝, 死在須臾.

아이의 폐가 부풀어 가슴이 더부룩하면서 숨을 헐떡이고 양 옆구리가 펄럭펄럭 뛰며 양 콧구멍이 넓어지고 담연이 조수처럼 밀려와 목구멍을 막아 속이 답답하며 숨을 킁킁하면서 곧 죽을 것 같은 경우를 치료한다.

辰砂 二錢半, 甘遂 一錢半, 輕粉 五分.

진사 2.5돈, 감수 1.5돈, 경분 5푼.

右細末, 每取一字, 以溫漿水少許, 上滴香油一點, 抄藥在油花上, 待沈下, 却漿水灌之.

이상을 곱게 가루 낸다. 따뜻한 장수(漿水) 약간을 그릇에 따르고 그 위에 참기름 1방울을 떨어뜨린 후 기름 방울 위에 약가루 1자를 뿌린다. 약가루가 가라앉으면 곧 장수를 입에 흘려 넣는다.



及幼方卷之十二 급유방 권12

橫城 趙廷俊重卿 集

황성 조정준(趙廷俊, 字 重卿) 편저



大便不通 대변불통

大便不通者, 胃與大腸有伏熱, 燥結不下, 宜郁李仁丸 [方見下] 、四順清涼飲之類, 潤以下之, 又有寒結下焦, 腹痛不大便者, 以神保元 [方見疝症], 逐寒疎利.

대변불통(大便不通)은 위와 대장에 잠복하고 있는 열이 있어 대변이 마르고 뭉치면서 내려가지 못하는 것이다. 옥리인환 [처방은 아래에 나온다] 이나 사순청량음 같은 처방으로 대변을 촉촉하게 하여 내려야 한다. 또한 한사가 하초에 올체되어 배가 아프면서 대변을 보지 못하는 경우도 있으니 신보원 [처방은 산증에 나온다] 을 써서 한사를 몰아내고 소통시켜야 한다.

小兒自初生至一二歲, 大便燥結, 三四日一放, 或六七日一放者, 是胎熱耗液, 宜生地黃湯, 或多啼氣逆, 肺氣不下, 不能放下者, 枳梗湯.

갓난아이부터 1 - 2살까지 아이가 대변이 마르고 뭉쳐 3 - 4일에 1번 누거나 혹은 6 - 7일에 1번 누는 경우는 바로 태열(胎熱)로 진액이 소모되었기 때문이니 생지황탕을 써야 한다. 간혹 계속 울면서 기가 거슬러 올라 폐기(肺氣)가 내려가지 못하는 것 때문에 대변을 누지 못하는 경우에는 지경탕을 써야 한다.

四順清涼飲

사순청량음

治腸胃積熱, 津液燥乾, 大便焦結, 不能順放.

장과 위에 쌓인 열로 진액이 마르고 대변이 굳어 순순히 누지 못하는 경우를 치료한다.

大黃(酒蒸)、當歸、赤芍藥、甘草(炙) 各一錢二分半.

대황(술로 찐다)、당귀、적작약、자감초 각 1.25돈.

右剉, 入薄荷十葉, 水煎服.

이상을 썬 후 박하잎 10장을 넣고 물에 달여 복용한다.

生地黃湯

생지황탕

治血虛津乾, 燥結不放.

혈허(血虛)로 진액이 말라 대변이 굳은 채 잘 나오지 않는 경우를 치료한다.

生芩(酒洗)、赤芍藥、川芎、當歸、瓜蒌仁 各一錢.

생지황(술로 씻는다)、적작약、천궁、당귀、과루인 각 1돈.

右剉, 水煎, 乳母食後服, 略與飼兒.

이상을 썬 후 물에 달여 유모에게 식후에 복용하게 하고 아이에게도 약간 먹인다.

枳梗湯

지경탕

治膈痰氣不順下, 或多啼氣逆便秘.

흥격에 응체된 담음으로 기가 제대로 내려가지 못하거나 혹은 계속 울면서 기가 거슬러 올라 변비가 생긴 경우를 치료한다.

枳殼、桔梗 各一錢, 甘草 五分, 皂角(灸) 二分.

지각、길경 각 1돈, 감초 5푼, 조각(굽는다) 2푼.

右剉, 入薑一, 水一盞, 煎至七分服.

이상을 썬 후 생강 1조각과 함께 물 1잔에 넣고 7할이 되도록 달여 복용한다.

通幽湯

통유탕

通治大便不通.

대변이 나오지 않는 증상을 두루 치료한다.

升麻、桃仁(泥)、當歸身 各一錢半, 生芡、熟芡 各七分, 甘草(炙)、紅花 各三分, 檳榔(末) 五分.

승마、도인(질게 간다)、당귀신 각 1.5돈, 생지황、숙지황 각 7푼, 자감초、홍화 각 3푼, 빈랑(가루) 5푼.

右剉, 水煎, 調檳榔末, 空心服.

이상을 썬 후 물에 달이고 빈랑가루를 타서 빈속에 복용한다.

當歸潤燥湯

당귀윤조탕

治血燥, 大便秘澁.

혈이 말라붙어 대변이 나오지 않는 경우를 치료한다.

當歸、大黃、熟芡、桃仁、麻仁、生甘草 各一錢, 生芡、升麻 各七分, 紅花 二分.

당귀、대황、숙지황、도인、마인、생감초 각 1돈, 생지황、승마 각 7푼, 홍화 2푼.

右剉, 先取七味, 作一貼, 煎至半, 入桃仁、麻仁, 更煎至半, 空心服.

이상을 썬다. 우선 도인과 마인을 제외한 7가지 약재를 1첩 분량으로 만들고 물에 넣어 절반이 되도록 달인 후 도인과 마인을 넣고 다시 달이다가 절반이 되면 빈속에 복용한다.

潤腸湯

윤장탕

治大便秘澁, 久不通.

대변이 잘 나오지 않아 오랫동안 누지 못한 경우를 치료한다.

麻子仁 一盞半(細研, 水浸濾去皮, 取汁), 芝麻 半盞(細研, 水浸絞取汁), 桃仁 一兩(研爲泥), 荊芥穗 一兩(細末).

마자인 1.5잔(곱게 간 후 물에 담가 껍질을 걸러 내고 그 물을 쓴다), 지마 0.5잔(곱게 간 후 물에 담갔다가 천에 넣고 짜서 그 물을 쓴다), 도인 1냥(질게 간다), 형개수 1냥(곱게 가루 낸다).

右和合, 入鹽少許, 同煎, 代茶飲之, 以通利爲度.

이상을 잘 섞고 소금을 약간 넣어 한꺼번에 달인다. 차를 대신하여 마시되 대변이 나올 때까지 반복한다.

一方, 胡麻、胡桃、栢子仁、麻子仁類, 取油, 微溫, 空心服, 或作粥食. ○桃仁研取汁, 作粥食, 治大便秘澁不通, 桃葉搗取汁, 和蜜, 微溫服, 卽通.

어떤 서적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다. '호마、호도、백자인、마자인 같은 것을 기름으로 짠 후 미지근하게 데워 빈속에 복용한다. 혹은 죽을 쑤어 먹는다. ○도인(桃仁) 간 즙으로 죽을 쑤어 먹으면 대변이 굳어 나오지 않는 경우를 치료한다. 도엽(桃葉) 찢은 즙에 꿀을 타서 살짝 데워 복용하면 즉시 대변이 나온다.'

導便法

도변법

大便不通, 草烏極細末, 葱白一枚切去鬚, 其頭上有汁, 蘸草烏末, 納肛門中, 卽通, 名霹靂箭. ○煉蜜調厚黃色, 傾入冷水中, 急捻如指大, 隨用皂角末爲衣, 以油塗之, 深納穀道, 大便卽通. ○猪膽一箇, 入醋少許在內, 用竹管, 入猪膽內相接, 以綿¹竹管一頭, 插入穀道中, 以手撚膽, 令膽汁直射腸內, 少頃卽通. ○大便不通多日, 百方無效, 令人口含香油, 以小竹筒長三四寸許, 一頭插入肛門中, 一頭口含吹油, 病人自覺其油, 如蚯蚓漸漸上行, 片時下黑糞, 清漿和眞油, 如上法用之. ○生桔更削尖, 塗油, 插入肛門內二三寸許, 或葱白如上法, 以手扎一二時, 卽放.

대변이 나오지 않는 경우의 치료법. 초오를 아주 곱게 가루 내고 총백 1줄기를 잘라 뿌리를 제거한 후 그 끝에 맺힌 즙에 초오가루를 찍어 항문 속에 넣으면 즉시 대변이 통한다. 벽력전(霹靂箭)이라고 부른다. ○꿀을 저으면서 졸이다가 샛노란색이 되면 냉수에 따라 넣고 재빨리 비벼 손가락 모양으로 만든다. 그리고 조각가루를 곁에 입히고 기름을 바른 후 항문에 깊숙이 넣으면 대변이 즉시 통한다. ○저담 1개 속에 식초를 약간 넣고 대나무 대롱을 저담 속에 꽂은 후 숨으로 대나무 대롱 한쪽 끝을 막은 채 항문에 꽂는다. 손으로 저담을 움켜 잡아 저담즙이 대장 속으로 곧바로 분사되게 하면 조금 후에 즉시 대변이 통한다. ○대변이 나오지 않은 채 며칠 되었을 때 온갖 방법이 효과가 없는 경우의 치료법. 다른 사람에게 입에 참기름을 머금게 한다. 길이가 3 - 4촌 정도 되는 얇은 대나무 대롱의 한쪽 끝을 항문에 꽂고 다른 쪽 끝에서 입에 머금었던 참기름을 불어 넣는다. 마치 지렁이가 점점 위로 기어오는 것처럼 환자가 기름이 들어오는 것을 느끼면 조금 후에 검은 똥을 싣다. 청장(淸漿)에 참기름을 섞어서 같은 방법으로 하기도 한다. ○생도라지를 뽕죽하게 깎아 기름을 바르고 항문 속에 2 - 3촌 정도 꽂아 넣거나 총백을 꽂아 넣고 손으로 1 - 2시진 잡고 있으면 즉시 대변을 본다.

- 一小兒, 重痘後, 大便不通, 而大渴喘脹, 痘醫治以淸熱, 余曰, 此自初至終, 過服寒涼, 胃中寒鬱津乾之致, 四物湯, 加枳實、檳榔各五分, 木香、吳茱萸炒各三分, 連服數劑而愈.
- [의안] 어떤 아이가 심하게 두창을 앓은 후에 대변이 나오지 않으면서 갈증이

심하고 숨을 헐떡이며 배가 똥똥해졌다. 두과(痘科) 의원은 열을 씻어 내는 치료를 했다고 한다. 내가 "이는 두창 초기부터 끝날 때까지 한량(寒凉)한 약을 너무 많이 복용하여 뱃속에 한기가 뭉쳐지고 진액이 말랐기 때문입니다."라고 말하였다. 사물탕에 지실과 빈랑 각 5푼, 목향과 오수유(볶는다) 각 3푼을 더하여 쓰니 연달아 몇 첩 복용하고 좋아졌다.

- 一小兒年七歲, 外感彌留, 腹痛嘔吐, 大便不通者, 六七日, 雜試諸方, 無效, 余謂外觸風寒, 內傷生冷, 寒鬱便閉而然也, 不換金正氣散, 加乾薑、檳榔, 用數劑而愈.
- [의안] 어떤 7살 아이가 외감병이 오랫동안 낫지 않아 배가 아프고 구토하며 대변이 나오지 않은 지 6 - 7일 되었다. 그동안 여러 방법을 써보았으나 효과가 없었다. 내가 "겉으로 풍사나 한사에 감촉되고 안으로 생랭(生冷)한 음식에 상하였으니 한기가 울체되어 대변이 막힌 것입니다."라고 일러 주었다. 불환금정기산에 건강과 빈랑을 더하여 쓰니 몇 첩을 먹고 좋아졌다.
- 一小兒年十三, 頷下腫赤, 大便不通, 腹脹喘急, 用清涼飲、當歸潤燥湯, 皆不應, 余謂腸胃積熱, 病實藥微, 用大承氣湯一劑, 大泄通利, 頷腫亦隨而減.
- [의안] 어떤 13살 아이가 턱 아래가 벌겋게 붓고 대변이 나오지 않으며 배가 똥똥해지면서 숨을 헐떡였다. 청량음과 당귀윤조탕을 썼으나 모두 반응이 없었다. 내가 "장과 위에 쌓인 열 때문에 생긴 병입니다. 심한 실증에 비해 약성이 미약해서 그렇습니다."라고 일러 주었다. 대승기탕 1첩을 쓰니 크게 설사를 하면서 대변이 나오더니 턱 아래 부은 것도 함께 줄어들었다.

1. 札 : 扎 ※문맥상 ←



小便不通 소변불통

小便不通, 心小腸熱也, 導赤散, 加黃連、山梔煎服, 概渴而小便不通者, 熱在上焦氣分, 肺不宣化, 宜清肺湯, 不渴而小便不通者, 熱在下焦血分, 腎不潤行, 四物湯 [方見諸血], 加知母、黃柏鹽炒, 如泄瀉小便不利或短小, 宜分利水道, 五苓散, 或六一散 [方見暑症] .

소변불통(小便不通)은 심장과 소장의 열 때문이다. 도적산에 황련과 산치인을 더하고 달여서 복용한다. 대체로 갈증이 나면서 소변이 나오지 않는 경우는 열이 상초와 기분(氣分)에 있어 폐기(肺氣)가 제대로 퍼지지 못하기 때문에 생긴다. 청폐탕을 써야 한다. 갈증이 나지 않으면서 소변이 나오지 않는 경우는 열이 하초와 혈분(血分)에 있어 신기(腎氣)가 매끄럽게 돌지 못하기 때문에 생긴다. 사물탕 [처방은 제혈(諸血)문에 나온다] 에 지모、황백(소금과 함께 볶는다)을 더하여 써야 한다. 설사를 하면서 소변이 잘 나오지 않거나 찝끔거리는 경우에는 소변이 소변으로 잘 나오게 해야 한다. 오령산이나 육일산 [처방은 서증(暑症)문에 나온다] 을 쓴다.

木通散

목통산

治心經積熱, 小便不通, 腹脹啼叫, 時或驚惕.

수소음심경에 쌓인 열로 소변이 나오지 않고 배가 똥똥하며 소리 지르며 울고 가끔씩 깜짝 놀라는 경우를 치료한다.

木通、滑石 各一錢, 黑丑(炒頭末) 五分.

목통、활석 각 1돈, 흑축(볶아서 쓰되 만물가루를 쓴다) 5푼.

右, 先將木通, 入燈心一團, 葱白一莖, 小煎, 去滓, 調黑丑、滑石末, 空心服.

위 약재 중 우선 목통에 등심 1단과 총백 1줄기를 넣고 조금 달이다가 찌꺼기를 제거한 후 흑축과 활석가루를 타서 빈속에 복용한다.

清肺散

청폐산

治熱在上焦, 渴而小便不利.

열이 상초에 있어 갈증이 나면서 소변이 잘 나오지 않는 경우를 치료한다.

車前子(炒研)、木通 各一錢, 篇蓄、瞿麥 各七分, 赤茯苓、猪苓、澤瀉、麥門冬、山梔仁(炒研) 各五分.

차전자(볶아서 간다)、목통 각 1돈, 편축、구맥 각 7푼, 적복령、저령、택사、맥문동、산치인(볶아서 간다) 각 5푼.

右剉, 每二三錢, 入燈心一團, 水一盞半, 煎至一盞, 空心服.

이상을 썬 후 한 번에 2 - 3돈씩 등심 1단과 함께 물 1.5잔에 넣고 달이다가 1잔이 되면 빈속에 복용한다.

八正散

팔정산

治膀胱積熱, 小便不通, 及諸淋莖中澀痛.

방광에 쌓인 열로 소변이 나오지 않는 경우 및 여러 가지 임질로 음경이 까끌거리면서 아픈 경우를 치료한다.

大黃(炒)、木通、瞿麥、篇蓄、滑石、車前子(炒研)、山梔(炒研)、甘草 各一錢.

대황(볶는다)、목통、구맥、편축、활석、차전자(볶아서 간다)、산치인(볶아서 간다)、감초 각 1돈.

右剉, 入燈心一團, 水煎, 空心服.

이상을 썬 후 등심 1단을 넣고 물에 달여 빈속에 복용한다.

梔子湯

치자탕

治小便不通, 臍腹脹痛, 心神煩鬱.

소변이 나오지 않고 배꼽 부근이 똥똥해지면서 아프고 기분이 매우 답답한 경우를 치료한다.

山梔仁 五枚(炒研), 茅根、冬葵子 各五錢, 甘草(炙) 二錢.

산치인 5개(볶아서 간다), 모근·동규자 각 5돈, 자감초 2돈.

右麤末, 每一錢, 小煎, 空心服.

이상을 거칠게 가루 낸 후 한 번에 1돈씩 물에 넣고 조금 달여 빈속에 복용한다.

捻頭湯

염두탕

治小兒小便不通.

아이의 소변이 나오지 않는 증상을 치료한다.

玄胡索(酒炒)、苦練根 等分.

현호색(술에 축여 볶는다)、고련근 각각 같은 양.

右細末, 每半錢或一錢, 捻頭湯調服. [捻頭湯, 百沸湯中, 滴油數點, 攪和用.]

이상을 곱게 가루 낸 후 한 번에 0.5 - 1돈씩 염두탕에 타서 복용한다. [염두탕은 백비탕(百沸湯)에 기름을 몇 방울 떨어뜨리고 잘 섞어서 쓰는 것이다.]

神通散

신통산

治小便淋瀝不通.

소변이 찢끔거리며 잘 나오지 않는 증상을 치료한다.

孩兒茶細末一錢, 篇蓄煎湯調, 空心服.

해아다 곱게 간 것 1돈을 편축 달인 물에 타서 빈속에 복용한다.

一方, 小兒小便不通, 取車前草莖葉根洗去沙土, 搗取汁, 熬成膏, 燈心麥門冬湯化服. ○小兒小便不通, 腹脹牽痛, 葱白搗爛炒, 熨臍下, 或鹽二三合炒熱, 入袋, 熨臍中及小腹.

어떤 서적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다. '아이의 소변이 나오지 않는 경우에는 차전초의 줄기와 잎과 뿌리를 깨끗하게 씻어 흙을 제거하고 찢어서 즙을 낸 후 줄여서 고약처럼 만든다. 이것을 등심과 맥문동 달인 물에 녹여서 복용한다. ○아이가 소변이 나오지 않고 배가 똥똥하며 당기면서 아픈 경우에는 총백을 짓찧고 볶아 배꼽 아래 부분을 찜질한다. 혹은 소금 2 - 3홉을 뜨겁게 볶아 자루에 넣은 후 배꼽과 아랫배를 찜질한다.'

大小便不通 대소변불통

小兒大小便不通者, 肺胃俱熱也, 大便通快, 則小便自利, 宜四順清涼飲 [方見下], 或調胃承氣湯, 或心熱承肺, 二便不利, 黃連解毒湯 [二方見外感], 或辰砂六一散 [方見暑症].

아이가 대소변이 나오지 않는 경우는 폐장과 위에 모두 열이 있기 때문이다. 대변이 시원하게 나오면 소변은 저절로 나오게 된다. 사순청량음 [처방은 아래에 나온다] 이나 조위승기탕을 써야 한다. 혹 심장의 열이 폐장으로 흘러 들어가 대소변이 잘 나오지 않는 경우에는 황련해독탕 [두 처방은 외감문에 나온다] 이나 진사육일산 [처방은 서증(暑症)문에 나온다] 을 써야 한다.

郁李仁丸

옥리인환

治緇襮小兒裹, 熱壅遏, 大小便不通, 以此微泄.

아이를 포대기에 싸서 열이 빠져나가지 못하고 막혀 대소변이 나오지 않는 경우를 치료한다. 이 약을 써서 살짝 설사를 시켜야 한다.

郁李仁(去皮)·大黃(酒浸, 蒸, 焙乾) 各一兩, 滑石 五錢.

옥리인(껍질을 제거한다)·대황(술에 담갔다가 찌고 겉불에 말린다) 각 1냥, 활석 5돈.

右細末, 先將郁李仁研成膏, 和二藥末, 蜜丸黍米大, 量兒大少, 以乳汁或薄荷湯下.

이상을 곱게 가루 낸다. 우선 옥리인을 갈아서 고약처럼 만들고 나머지 2가지 약가루를 섞은 후 꿀에 개어 서미 크기로 환을 빚는다. 아이의 몸집에 따라 젓이나 박하탕으로 넘긴다.

神弓丸

신궁환

治風熱壅滯, 身熱煩渴, 大小便不通, 腹脹氣急, 驚搐不寐.

풍사나 열사가 응체되어 몸통이 뜨겁고 번갈이 있으며 대소변이 나오지 않고 배가 똥똥해지면서 숨이 급하며 경축(驚搐)이 있어 제대로 잠들지 못하는 경우를 치료한다.

大黃(生)、黃芩 各一兩, 黑丑(生, 頭末) 五錢, 滑石 二兩, 黃連、薄荷、川芎 各二錢半.

대황(생것)、황금 각 1냥, 흑축(생것. 만물가루를 쓴다) 5돈, 활석 2냥, 황련、박하、천궁 각 2.5돈.

右細末, 滴水丸小豆大, 每三四十丸, 溫水下.

이상을 곱게 가루 낸 후 물을 똑똑 떨어뜨리면서 소두 크기로 환을 빚는다. 한 번에 30 - 40환씩 따뜻한 물로 넘긴다.

芍藥散

작약산

治小兒實熱, 面赤身熱, 大小便不通.

아이가 실열증으로 얼굴이 붉고 몸이 뜨거우며 대소변이 나오지 않는 경우를 치료한다.

赤芍藥、大黃(酒炒)、甘草、當歸、朴硝 各一錢.

적작약、대황(술에 축여 볶는다)、감초、당귀、박초 각 1돈.

右麤末, 每一錢, 水一盞半, 煎至一盞, 去滓溫服.

이상을 거칠게 가루 낸 후 한 번에 1돈씩 물 1.5잔에 달이다가 1잔이 되면 찌꺼기를 제거하고 따뜻하게 복용한다.

罨臍法

엄제법

治大小便不通.

대소변이 나오지 않는 경우를 치료한다.

田螺 四十九箇, 葱根(帶土) 七箇, 豆豉 二十二粒, 鹽 二匙.

전락 49개, 총근(흙이 묻은 채로 쓴다) 7개, 두시 22알, 소금 2술.

右搗爛, 炒熨臍中. 葱白二斤連根帶土, 細剉, 炒熱, 以帕包分兩裹, 更替熨臍下. ○炒鹽一二合, 入袋, 熨臍下, 即通. ○以鹽先填臍中, 葱白細切厚鋪鹽上, 用大艾炷灸之, 熱氣直入於腹內, 即通.

이상을 짓찧고 뜨겁게 볶아 배꼽에 찜질한다. 총백 2근을 흙 묻은 뿌리째 잘게 썰고 뜨겁게 볶아 천으로 싸되 2개로 나눈 후 바뀔가면서 배꼽 아래를 찜질한다. ○소금 1 - 2홉을 볶아 자루에 넣고 배꼽 아래를 찜질하면 즉시 대소변이 나온다. ○소금을 먼저 배꼽에 채워 넣고 총백 잘게 썬 것을 두껍게 소금 위에 펼친다. 썩뚝 큰 것으로 땀을 떠서 열기가 곧장 뱃속으로 들어가면 즉시 대소변이 나온다.

一方, 大小便不通, 腹脹, 牛膝濃煎水, 調蜜油各五匙, 生薑汁少許, 溫服, 即通. ○生芡汁一盞, 郁李仁去皮研細一錢, 同和勻, 煎五六沸, 每四五匙, 薄荷煎湯溫服. ○大小便不通, 諸藥無效, 赤皮甘遂末, 麥門冬燈心煎湯, 量兒大小, 調服.

어떤 서적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다. '대소변이 나오지 않고 배가 똥똥한 경우에는 우슬을 진하게 달인 물에 꿀과 기름 각 5술씩과 생강즙을 약간 타서 따뜻할 때 복용하면 즉시 대소변이 나온다. ○생지황즙 1잔과 옥리인(겉질을

까고 곱게 간다) 1돈을 함께 골고루 섞고 5 - 6소송 달인다. 한 번에 4 - 5술씩 박하 달인 물에 타서 따뜻할 때 복용한다. ○대소변이 나오지 않을 때 여러 약이 효과가 없으면 감수(붉은 껍질)를 가루 내고 맥문동과 등심 달인 물에 타서 아이의 몸집에 따라 복용한다.'

- 一女兒, 大小便不通三日, 臍下脹痛堅硬, 手不可近, 坐臥悶亂, 余曰, 久坐冷地, 寒氣內結也, 葱艾慰臍下, 葱白煎湯吞神保元而愈.
- [의안] 어떤 여자 아이가 대소변이 나오지 않은 지 3일이 지나 배꼽 아래가 빵빵해졌는데 딱딱하고 아파 손도 못대게 하고는 앉거나 누운 채 답답해하였다. 내가 "찬 곳에 오래 앉아 있다가 한기가 몸속에서 뭉쳤기 때문입니다."라고 말하고는 총백과 쑥으로 배꼽 아래에 찜질하고, 총백 달인 물로 신보원을 삼키게 했더니 좋아졌다.
- 金雲山子十五歲, 大小便不通, 腹脹喘悶, 水漿不入口, 潮熱咳嗽, 夜則驚悸不寐, 用大承氣湯、導水丸之類, 峻攻通下, 而少無應, 又以加味導赤散, 倍加郁李仁用之, 乍通旋閉, 余曰, 此兒沖年, 腎水未旺, 過傷色慾, 津血枯乾, 又相思未已, 心肺之氣結而不行也, 六味元, 加黃連、知栢作湯, 調辰砂, 未服三劑, 於是二便漸通, 連用五劑, 諸症隨減, 古庵心腎丸、六味丸加減, 兼服清心補血湯而愈, 至十七有室後, 前症復發, 如前治, 別加調攝, 乃得蘇完.
- [의안] 김 운산(金雲山)의 15살 아들이 대소변이 나오지 않고 배가 빵빵해지면서 숨을 헐떡이며 물이나 국도 입에 넣지 못하고 조열과 기침이 있으며 밤에는 경계(驚悸)로 잘 자지 못하였다. 대승기탕과 도수환 같은 약을 써서 하법을 강하게 썼으나 조금도 반응이 없었다. 다시 가미도적산에 옥리인을 2배로 늘려 썼더니 잠깐 대소변이 나왔다가 곧바로 막혀버렸다. 내가 "이 아이는 어려서 신수(腎水)가 아직 왕성해지지 않았는데 색욕에 너무 빠져서 진액과 혈이 고갈되었습니다. 또한 상사병이 멈추지 않아 심장과 폐장의 기운이 뭉쳐서 제대로 운행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것입니다."라고 말하였다. 육미원에 황련과 지모와 황백을 더하여 탕약으로 만든 후 진사를 타서 복용하라고 하였다. 3첩을 미처 먹기

도 전에 대소변이 점점 나오기 시작했고 연달아 5첩을 먹고는 여러 증상들이 점점 줄어들었다. 고암심신환과 육미환을 가감하여 쓰면서 동시에 청심보혈탕을 복용하니 좋아졌다. 17살이 되어 아내를 맞은 후에 같은 증상이 재발하여 전과 동일하게 치료하면서 추가로 몸을 조리하도록 했더니 완전히 살아났다.

- 一小兒生纔三七日, 大小便不通, 多啼不乳, 雜施諸方, 皆無效, 導赤散, 加郁李仁煎服, 小便通利後, 乳食眠睡如常, 但大便不通者十餘日, 而腹不脹, 此肺氣不能下行之致也, 杏仁、桔更各等分, 枳實半減, 煎服, 大便自順而安.
- [의안] 어떤 아이가 태어난 지 겨우 삼칠일만에 대소변이 나오지 않아 계속 울면서 젖을 먹지 못했다. 여러 처방을 두루 써보았으나 모두 효과가 없었다. 도적산에 옥리인을 더하여 달여 먹이니 소변이 나온 후로 먹고 자는 것은 정상으로 돌아왔으나 대변만은 나오지 않았다. 이렇게 10여일이 지났으나 배는 똥똥해지지 않았다. 이는 폐기(肺氣)가 아래쪽으로 운행되지 못하기 때문이다. 행인、길경 각각 같은 양과 지실 절반 분량을 달여서 복용하게 하니 대변이 자연히 나오면서 편안해졌다.

疝症 산증

古方云, 諸疝者, 陰氣積于內, 復爲寒氣所傷, 榮衛不調, 成此疾, 又曰, 有因父服熱藥, 以致氣滯於下者, 有因孕婦悲傷多啼, 冷氣吸入胎中, 或怒傷肝氣, 菟結不散而得者, 兒亦多啼不已, 冷氣吸入小腸, 傳流腎經釣痛者有之, 或久坐濕冷之地, 或衣被過涼, 寒邪侵入膀胱小傷¹, 鬱而不散, 痛連心脇者有之, 先宜逐腎邪利二便, 歸牛散、神保元, 次用散寒溫臟之藥, 釣藤膏、古芎歸湯 [二方見上], 按穴灸之, 有木腎, 有腎腫, 有腎癰, 有偏墜, 有癰疝, 有奔豚, 有疝瘕, 與大科同 [七疝之中熱疝者少] .

옛 방서에서 '여러 산증(疝症)은 음기가 몸속에 쌓인 데다가 한사의 침입을 받아 영기와 위기가 제대로 돌지 못하기 때문에 생긴다.'고 하였다. 또한 '아버지가 뜨거운 성미의 약을 복용하여 기가 하초에 응체되어 생기는 경우도 있고, 임신부가 슬픔에 상한 후 계속 울다가 냉기가 태아에게 흘러들어 생기는 경우도 있고, 분노로 간기(肝氣)가 상한 후 멎쳐서 헤어지지 못해 생기는 경우도 있다.'고 하였다. 아이의 경우에는 계속 울면서 그치지 않아 냉기가 소장까지 들어가게 된 후 족소음신경까지 흘러 들어가 내조통(內釣痛)이 생기는 경우도 있고, 혹은 오랫동안 습하고 서늘한 곳에 앉거나 옷이나 이불이 너무 얇아 한사가 방광이나 소장을 침범한 후 울체된 채 헤어지지 않고 통증이 가슴과 옆구리까지 이어진 경우도 있다. 우선 신장의 사기를 몰아내 대소변으로 빼내야 하니 귀우산이나 신보원을 써야 한다. 그다음 한사를 흘리고 오장을 따뜻하게 하는 약인 조등고나 고귀궁탕 [두 처방은 위에 나온다] 을 쓰고 취혈하여 땀을 땀어야 한다. 소아의 산증에는 목신(木腎), 신종(腎腫), 신옹(腎癰), 편추(偏墜), 퇴산(癰疝), 분돈(奔豚), 산가(疝瘕)가 있으니 치료법은 성인과 동일하다. [7가지 산증 중 소아가 열산(熱疝)인 경우는 드물다.] .

歸牛散

귀우산

治疝氣, 陰囊腫痛, 大小便秘, 腹脹, 臍腹疔痛.

산증으로 음낭이 붓고 아프며 대소변이 막히고 배가 똥똥해지며 배꼽 부근이 당기면서 아픈 경우를 치료한다.

肉桂、黑丑(炒頭末) 各五錢, 大黃(炒)、當歸、桃仁 各二錢半, 全蝎(炒, 去毒) 一錢.

육계、흑축(볶은 후 맷돌가루를 쓴다) 각 5돈, 대황(볶는다)、당귀、도인 각 2.5돈, 전갈(볶아서 독성을 없앤다) 1돈.

右麤末, 每一錢, 入蜜小許, 水煎服, 利後, 以香橘散 [方見下] 和胃.

이상을 거칠게 가루 낸 후 한 번에 1돈씩 꿀을 약간 넣고 물에 달여 복용한다. 설사를 한 후에는 향굴산 [처방은 아래에 나온다] 을 써서 위를 편안하게 해야 한다.

神保元

신보원

治諸氣注痛, 及寒氣上衝, 心胸痛不可忍, 二便不利等症.

여러 가지 기가 돌아다니며 아픈 경우를 치료한다. 또한 한사가 위로 치받아 가슴이 참을 수 없이 아픈 경우나 대소변이 잘 나오지 않는 경우도 치료한다.

全蝎(全者) 七枚, 巴豆 十粒(爲霜), 木香、胡椒 各二錢半, 辰砂 一錢(半入半衣).

전갈(전체) 7개, 파두 10알(파두상으로 만들어 쓴다), 목향、호초 각 2.5돈, 진사 1돈(절반은 넣고, 절반은 겉에 입힌다).

右細末, 蒸餅和丸麻子大, 朱砂爲衣, 薑湯或溫酒, 量宜下之.

이상을 곱게 가루 낸 후 증병(蒸餅)과 섞어 마자 크기로 환을 빚고 주사를 곁에 입힌다. 생강탕이나 따뜻한 술로 아이의 몸집에 따라 복용하여 설사를 시킨다.

川練丸

천련환

治小兒癰疝, 小腹痛引腰脊, 曲身不能直.

아이가 퇴산(癰疝)으로 아랫배 아픈 것이 허리와 등줄기까지 이어져 몸을 구부린 채 곧게 펴지 못하는 경우를 치료한다.

木香、檳榔、三稜(煨)、青皮、陳皮(竝去白)、川練肉、芫花(醋浸炒) 各半兩, 官桂(去麤皮)、黑丑(生取頭末) 各三錢, 巴豆(不去油) 一錢.

목향、빈랑、삼릉(재에 묻어 굽는다)、청피、진피(2가지 모두 흰 부분을 제거한다)、천련육、원화(식초에 담갔다가 볶는다) 각 0.5냥, 관계(겉껍질을 제거한다)、흑축(생것. 말물가루를 쓴다) 각 3돈, 파두(기름진 부분을 제거하지 않는다) 1돈.

右細末飛麵, 糊爲丸麻子大, 每三丸, 空心, 薑湯下.

이상을 비라면(飛羅麵)처럼 곱게 가루 낸 후 밀가루풀에 개어 마자 크기로 환을 빚는다. 한 번에 3환씩 빈속에 생강탕으로 넘긴다.

金鈴散

금령산

治疝痛, 曲腰乾啼, 肢冷額汗, 外腎釣上, 陰囊偏大.

산증의 통증으로 허리를 굽힌 채 눈물 없이 울고 사지가 냉하며 이마에 땀이 나고 고추가 위로 서면서 음낭이 한쪽만 커지는 경우를 치료한다.

川練肉 二兩半, 砂仁(炒) 三錢半, 萹澄茄、木香 各二錢半.

천련육 2.5냥, 사인(볶는다) 3.5돈, 필징가、목향 각 2.5돈.

右細末, 每一錢大者二錢, 鹽湯或溫酒, 空心調服.

이상을 곱게 가루 낸 후 한 번에 1돈씩(몸집이 큰 아이는 2돈씩) 엽탕이나 따뜻한 술에 타서 빈속에 복용한다.

蟠葱散

반충산

治脾胃虛冷, 心腹連脇牽痛, 膀胱小腸腎氣作痛.

비위가 허랭(虛冷)하여 명치부터 옆구리까지 당기면서 아프고 방광기나 소장기나 신기(腎氣)로 통증이 있는 경우를 치료한다.

蒼朮、甘草 各一錢, 三稜、蓬朮(并煨)、白茯苓、青皮 各七分, 砂仁(炒研)、丁香皮、檳榔 各五分, 玄胡索(醋炒)、肉桂、乾薑(炮) 各三分.

창출、감초 각 1돈, 삼릉、봉출(2가지 모두 재에 묻어 굽는다)、백복령、청피 각 7푼, 사인(볶아서 간다)、정향피、빈랑 각 5푼, 현호색(식초에 축여 볶는다)、육계、건강(습지에 싸서 굽는다) 각 3푼.

右麤末, 每一二錢, 入葱白一莖, 水煎服.

이상을 거칠게 가루 낸 후 한 번에 1-2돈씩 총백 1줄기를 넣고 물에 달여 복용한다.

香橘散

향귤산

治疝氣上衝, 用下藥泄, 後以此藥調和脾胃.

산증기가 위로 치받는 경우를 치료하려면 하법을 써서 설사를 시킨 후에 이 약으로 비위를 잘 조리해야 한다.

橘皮、白茯苓 各等分, 砂仁(炒研)、木香、青皮、甘草 各半減.

굴피, 백복령 각각 같은 양, 사인(볶아서 간다), 목향, 청피, 감초 각각 절반 분량.

右麤末, 每一二錢, 入干三, 水煎服.

이상을 거칠게 가루 낸 후 한 번에 1 - 2돈씩 생강 3조각과 함께 물에 달여 복용한다.

古董桂湯

고강계탕

治寒疝上衝, 心胸刺痛, 四肢冰冷.

한산(寒疝)이 위로 치받아 가슴이 찌르는 듯이 아프고 사지가 얼음처럼 찬 경우를 치료한다.

乾薑(炮)、桂皮 各二錢.

건강(습지에 써서 굽는다), 계피 각 2돈.

右剉, 水煎冷服.

이상을 썬 후 물에 달였다가 식혀서 복용한다.

四神丸

사신환

治冷疝痛不可忍.

냉산(冷疝)으로 참을 수 없이 아픈 경우를 치료한다.

吳茱萸(一半酒浸炒, 一半醋浸炒)、萸澄茄、青皮 各五錢, 香附子 一兩.

오수유(절반은 술에 담갔다가 볶고, 절반은 식초에 담갔다가 볶는다)·필징가·청피 각 5돈, 향부자 1냥.

右末, 糊丸小豆大, 米飲下四五十丸.

이상을 가루 낸 후 꿀에 개어 소두 크기로 환을 빚고 미음에 40 - 50환을 넘긴다.

烏桂湯

오계탕

治腹痛, 及初生嬰孩, 臍下冷痛疝氣等症.

복통을 치료한다. 또한 갓난아이가 배꼽 아래 부분이 냉하고 아프거나 산증기가 있는 증상도 치료한다.

烏梅(去核)、玄胡索(醋炒)、甘草(半生半炙) 各五錢, 乳香、沒藥、釣鉤藤 各二錢半.

오매(씨를 제거한다)·현호색(식초에 축여 볶는다)·감초(절반은 생것, 절반은 굽는다) 각 5돈, 유향·몰약·조구등 각 2.5돈.

右麤末, 每一二錢, 水煎, 空心服.

이상을 거칠게 가루 낸 후 한 번에 1 - 2돈씩 물에 달여 빈속에 복용한다.

勻氣散

균기산

治冷疝腹痛, 氣滯不和, 及利後調理脾胃.

냉산(冷疝)으로 배가 아프고 기가 웅체되어 잘 흐르지 못하는 경우를 치료한다. 또한 설사 후에 비위를 조리하는 약이기도 하다.

桔梗 二兩炒, 橘紅 一兩, 砂仁(炒) 三錢, 乾薑(炮) 二錢半, 甘草(炙) 四錢, 茴香 五錢.

길경(볶는다) 2냥, 귤홍 1냥, 사인(볶는다) 3돈, 건강(습지에 싸서 굽는다) 2.5돈, 자감초 4돈, 회향 5돈.

右焙爲末, 每半錢, 鹽湯或溫水, 空心調服.

이상을 곁불에 말려 가루 낸 후 한 번에 0.5돈씩 염탕이나 따뜻한 물에 타서 빈속에 복용한다.

白芍藥湯

백작약탕

治冷疝腹痛, 并宜先服.

냉산(冷疝)으로 배가 아픈 경우를 치료하려면 모든 경우에 우선 이 약을 복용해야 한다.

白芍藥 五錢, 澤瀉 二錢三分半, 甘草(炙) 一錢, 薄桂 七分半.

백작약 5돈, 택사 2.35돈, 자감초 1돈, 박계 7.5푼.

右麤末, 每二錢, 水煎, 空心服. ○誤汗下, 加人參、當歸, 臍下痛, 加乾薑、木香.

이상을 거칠게 가루 낸 후 한 번에 2돈씩 물에 달여 빈속에 복용한다. ◦한법이
나 하법을 잘못 쓴 경우에는 인삼·당귀를 더하고, 배꼽 아래가 아픈 경우에는
건강·목향을 더한다.

木香飲

목향음

治小兒小腸氣痛.

아이가 소장기(小腸氣)로 아픈 경우를 치료한다.

川練肉 十箇(用巴豆七粒, 同炒色黃, 去巴豆不用), 茴香(炒)·玄胡索(醋炒) 各五錢,
木香·史君子(肉) 各二錢.

천련육 10개(파두 7알과 함께 볶다가 누레지면 파두는 제거하고 쓰지 않는다),
회향(볶는다)·현호색(식초에 축여 볶는다) 각 5돈, 목향·사군자(과육) 각 2
돈.

右極細末, 每一錢, 米飲調服.

이상을 아주 곱게 가루 낸 후 한 번에 1돈씩 미음에 타서 복용한다.

蝎²散

갈회산

治疝氣上衝, 胸脇小腹刺痛.

산증기가 위로 치받아 가슴과 옆구리와 아랫배가 찌르듯이 아픈 경우를 치료
한다.

全蝎 七箇(炒, 去毒), 砂仁 二十一枚(炒), ³香(炒) 一錢, 荔枝核 十枚.

전갈 7개(볶아서 독성을 없앤다), 사인 21개(볶는다), 회향(볶는다) 1돈, 여지핵 10개.

右細末, 每半錢, 葱白湯調服.

이상을 곱게 가루 낸 후 한 번에 0.5돈씩 총백탕에 타서 복용한다.

一方, 桂心末一錢, 溫酒調服, 治寒疝臍腹疔痛, 四肢逆冷. ○沙參·葱白各一握, 好酒濃煎, 承熱服之, 疝氣衝上, 卽下. ○炒慰痛處, 亦好. ○兒多啼吸冷氣, 或處冷臟寒, 疝氣衝上, 啼叫不乳, 玄胡索鹽炒一錢, 全蝎四分炒, 細末, 溫酒調服. ○⁴香鹽炒一錢, 枳殼五分, 桂心三分, 水煎服, 治冷疝. ○川練子四十九箇, 巴豆四十九箇, 同炒, 以練子色黃爲度, 去巴豆, 取練子, 細末, 大人二錢, 小兒半錢, 溫酒調服, 通利大小便, 疝痛卽止. ○山梔仁鹽炒黑研一二錢, 空心煎服, 治熱疝, 川練肉, 量宜煎服, 亦可.

어떤 서적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다. '계심가루 1돈을 따뜻한 술에 타서 복용하면 한산(寒疝)으로 배꼽 부근이 당기면서 아프고 사지 끝부터 냉해지는 경우를 치료한다. ○사삼·총백 각 1줌씩을 좋은 술에 진하게 달여 뜨거울 때 복용하면 산증기가 치받는 증상을 즉시 내린다. ○사삼과 총백을 볶아서 아픈 곳에 찜질해도 효과가 좋다. ○아이가 계속 울면서 서늘한 공기를 마시거나, 서늘한 곳에 있다가 오장에 한사가 침입하여 산증기가 치받아 소리지르며 울면서 젖을 먹지 않는 경우의 치료법. 현호색(소금과 함께 볶는다) 1돈과 전갈(볶는다) 4푼을 곱게 가루 낸 후 따뜻한 술에 타서 복용한다. ○회향(소금과 함께 볶는다) 1돈, 지각 5푼, 계심 3푼을 물에 달여 복용하면 냉산(冷疝)을 치료한다. ○천련자 49개, 파두 49개를 함께 볶다가 천련자가 누렇게 되면 파두를 버리고 천련자만 모아 곱게 가루 낸다. 성인은 2돈, 소아는 0.5돈을 따뜻한 술에 타서 복용하면 대소변이 나오고 산증의 통증이 금세 멎는다. ○산치인(소금과 함께 볶다가 검은 색이 되면 간다) 1 - 2돈을 물에 달여 빈속에 복용하면 열산(熱疝)을 치료한다. 천련육을 아이 몸집에 따라 물에 달여 복용해도 괜찮다.'

灸法

구법

小兒諸疝上衝, 痛不可忍, 取大敦穴、行間穴, 灸各七壯, 立差, 口角穴、氣衝、關元等穴灸之, 皆效.

아이가 여러 가지 산증기가 위로 치받아 참을 수 없이 아픈 경우에는 대둔혈과 행간혈을 취혈하여 각 7장씩 뜸을 뜨면 즉시 좋아진다. 구각·기충·관원에 뜸을 떠도 모두 효과가 있다.

- 一小兒, 生不滿二七, 忽然多啼不乳, 手足跳掣, 面青額汗, 眼上竄, 解棍視之, 一偏囊丸釣起, 色微赤, 此胎疝也, 用乳香散, 一服, 痛聲立止.
- 〔의안〕 어떤 아이가 태어난 지 14일도 되지 않았는데 갑자기 계속 울면서 젖을 먹지 않고 손발을 바둥거리며 얼굴이 파랗게 되면서 이마에 땀이 나고 눈을 위로 치켜 떴다. 아랫도리를 풀어서 보니 한쪽 음낭이 당겨 올라가고 약간 붉은 색이었다. 이 병은 뱃속에서 생긴 산증이였다. 유향산을 써서 한 번 복용하니 아파하는 소리가 금세 멎었다.
- 一小兒年六歲, 腹下股間, 結核堅硬, 如鷄子大, 上下作痛, 手不可近, 二便不通, 腹脇脹痛者六七日, 諸醫皆以爲腸癰, 外貼促膿之藥, 內服消腫之劑, 痛勢尤劇, 入夜轉甚, 余曰, 此陰寒之氣結聚, 如奔豚之類也, 用川練丸, 大泄數次, 快愈.
- 〔의안〕 어떤 6살 아이가 배 아래와 사타구니 사이에 달걀만한 단단한 멍울이 생겨서 위아래로 움직였는데 아파서 손도 못대게 하고 대소변이 잘 나오지 않으며 배와 옆구리가 똥똥해지면서 아픈 지 6-7일 정도 되었다. 여러 의원이 모두 장옹(腸癰)이라고 생각하고 곁에 고름이 빨리 터지게 하는 약을 붙이면서 부종 삭히는 약을 복용하게 하였다. 그러자 통증이 더욱 심해졌으며 밤이 되면 그보다 더 심해졌다. 내가 "이 병은 음기나 한기가 뭉친 것이니 분돈(奔豚)과 비슷한 병입니다."라고 말하였다. 천련환을 썼더니 몇 차례 크게 설사하고 금세 좋아졌

다.

- 一小兒, 多啼不乳, 手足搐掣, 時作時止, 頭汗而身不熱, 面青而便數色青, 或以爲蟲痛, 用殺蟲之劑, 不效, 余曰, 蟲痛則嘔吐涎沫, 食則痛加, 此兒無此症, 而曲腰乾啼, 小腹堅硬, 必寒疝上衝也, 用五味木香散 [方見內釣] 而愈.
- [의안] 어떤 아이가 계속 울면서 젖을 먹지 않고 손발의 경직이 때때로 생겼다가 없어지며 머리에 땀은 나지만 몸통은 뜨겁지 않고 얼굴이 파랗게 되면서 푸른 대변을 자주 보곤 했다. 혹자는 충통(蟲痛)으로 여겨 충 죽이는 약을 썼으나 효과가 없었다. 나는 "충통은 끈적한 거품을 토하고 음식을 먹으면 통증이 심해 집니다. 이 아이는 충통 증상은 없고 허리를 굽힌 채 눈물 없이 울고 아랫배가 단단하니 분명 한산(寒疝)이 위로 치받는 것입니다."라고 말하였다. 오미목향산 [처방은 내조(內釣)문에 나온다] 을 쓰니 좋아졌다.
- 一童行, 臍腹急痛, 上衝心胸, 不得俯仰, 口不能言, 手足厥冷, 冷汗自流, 余曰, 此寒疝上衝也, 急灸口角、行間兩穴, 用古薑桂湯, 衝氣卽降, 繼用四神丸而愈.
- [의안] 어떤 아이가 길을 가다가 배꼽 부근이 당기고 아프면서 위로 가슴까지 치받아 몸을 굽히지도 펴지도 못하고 말을 제대로 못하며 손발 끝부터 냉해지고 식은땀이 났다. 내가 "이는 한산(寒疝)이 위로 치받기 때문입니다."라고 말하고는 급히 구각과 행간 두 혈에 급히 뜸을 뜬 후 고강계탕을 쓰니 치받던 통증이 즉시 내려갔다. 이어서 사신환을 쓰니 좋아졌다.

1. 傷 : 腸 ※문맥상 ←

2. : 茴 ※문맥상 ←

3. : 茴 ※문맥상 ←

4. : 茵 ※문맥상 [↩](#)



陰囊腫痛 음낭종통

小兒陰囊, 結核腫大, 此由父服熱藥, 或乳母怒動肝火, 傳氣於兒, 濕熱下流, 仍成膿潰, 皮脫如鷄卵殼, 日夜多啼, 初發之時, 先服桃仁丸、三白散下之, 如不愈, 仍成膿潰, 柴胡清肝湯 [方見諸熱], 或龍膽瀉肝湯, 外以紫蘇葱白煎湯淋洗, 硫黃細末, 糝付患處, 貼黃臘膏 [方見胎腫], 或荷葉裹之, 如寒熱小便不利, 柴苓湯, 或五苓散 [二方見吐瀉], 以薏苡煎湯調服.

아이의 음낭이 크게 부으면서 멍울이 생기는 것은 아버지가 뜨거운 성미의 약을 복용하거나 유모가 너무 분노하여 생긴 간화(肝火)가 아이에게 전해졌기 때문에 습열이 아래로 흘러가 결국 고름이 생긴 것이다. 피부가 벗겨져 마치 달걀 껍질같이 되면서 밤낮으로 계속 울게 된다. 초기에는 우선 도인환이나 삼백산으로 하법을 쓴다. 만약 낫지 않고 다시 고름이 차면 시호청간탕 [처방은 제열(諸熱)문에 나온다] 이나 용담사간탕을 쓰면서 외용약으로는 자소와 총백 달인 물로 씻은 후 곱게 간 유황가루를 환부에 뿌리고 황랍고 [처방은 태종(胎腫)문에 나온다] 를 붙이거나 연잎으로 싼다. 오한발열이 있고 소변이 잘 나오지 않으면 시령탕을 복용하거나 혹은 오령산 [두 처방은 토사(吐瀉)문에 나온다] 을 익이인 달인 물에 타서 복용한다.

桃仁丸

도인환

治乳母怒動肝火, 兒仍爲怒氣, 閉繫於下, 結聚不散, 而成陰核.

유모가 분노하여 생긴 간화(肝火) 때문에 아이 역시 영향을 받아 하초에 습열이 뭉치게 되고 결국 음낭에 멍울이 생긴 경우를 치료한다.

桃仁(去皮尖, 麩炒) 三錢, 桂皮、黑丑(炒, 頭末)、蒺藜、牡丹皮、大黃 各二錢.

도인(껍질과 뽕족한 부분을 제거하고 밀기울과 함께 볶는다) 3돈, 계피·흑축(볶은 후 매향가루를 쓴다)·질려·목단피·대황 각 2돈.

右末, 煉蜜丸如黍米大, 用青皮·木香·葱白, 入鹽少許, 同煎湯, 食前下二三十丸.

이상을 가루 낸 후 연밀에 개어 서미 크기로 환을 빚는다. 청피·목향·총백과 소금을 약간 넣고 함께 달인 물로 식전에 20 - 30환을 넘긴다.

三白散

삼백산

治小兒陰囊腫大, 膀胱熱結, 大小便不利, 臍腹腫脹牽痛.

아이의 음낭이 크게 붓고 방광에 열이 뭉쳐 대소변이 잘 나오지 않으며 배꼽 부근이 붓고 똥똥해지면서 당기고 아픈 경우를 치료한다.

桑白皮(炒)·白朮·木通(去皮節)·陳皮(去白) 各二錢半, 白牽牛(頭末) 一兩.

상백피(볶는다)·백출·목통(껍질과 마디를 제거한다)·진피(흰 부분을 제거한다) 각 2.5돈, 백견우(매향가루) 1냥.

右剉, 二三錢, 水煎服, 或細末, 每一二錢, 薑湯或葱白湯下.

이상을 썬 후 2 - 3돈을 물에 달여 복용한다. 혹은 곱게 갈아 한 번에 1 - 2돈씩 생강탕이나 총백탕으로 넘긴다.

龍膽瀉肝湯

용담사간탕

治肝經濕熱, 男子陰挺腫脹, 婦人陰戶癢痒, 或陰莖濕痒, 出膿水.

간경(肝經)의 습열로 남자는 음낭에 멍울이 생기면서 붓고 여자는 음부에 창이 생기면서 가렵고 간혹 음경에 습선이 생기면서 고름이 나오는 경우를 치료한다.

龍膽草(酒拌, 炒黃)、柴胡、澤瀉 各一錢, 車前子(炒研)、木通、山梔(炒)、生地黃(酒拌)、當歸、赤茯苓、黃芩(炒)、甘草 各五分.

용담초(술에 버무려 누렇게 볶는다)、시호、택사 각 1돈, 차전자(볶아서 간다)、목통、산치인(볶는다)、생지황(술에 버무린다)、당귀、적복령、황금(볶는다)、감초 각 5푼.

右剉, 水煎, 食前服.

이상을 썬 후 물에 달여 식전에 복용한다.

小兒陰腫皮退, 囊丸垂下, 膿汁不止, 日夜啼叫, 葱艾煎湯洗後, 紫蘇葉細末, 香油調敷患處, 外以荷葉裹之, 或松皮灰, 入輕粉少許, 清油調付, 加味黃臘膏裹之 [方見胎瘡].

아이가 음낭이 부으면서 피부가 벗겨지고 아래로 축 늘어진 채 고름이 멎지 않으며 밤낮으로 소리치며 우는 경우의 치료법. 총백과 쑥 달인 물로 환부를 씻은 후 곱게 가루 낸 자소엽에 참기름을 섞어 환부에 바르고 걸을 연잎으로 싸 놓는다. 혹은 소나무 껍질 태운 재에 경분을 약간 넣고 참기름과 섞어 환부에 바른 후 가미항랍고 [처방은 태창(胎瘡)문에 나온다] 를 덮어 놓는다.

小兒陰囊腫痛, 如拳大, 用甘草煎汁, 調地龍糞末塗之, 立消, 兒坐濕冷之地, 或蟲蟻吹着腎莖, 頭浮腫如蠶繭者, 蟬退煎湯浸洗牡蠣粉, 鷄子清調付, 或乾地龍爲末, 唾調敷之, 如不愈, 青木香枳殼等分, 甘草半減, 水煎, 空心服. ○皮脫潰爛, 葱椒湯洗, 烏賊魚骨細末, 糝付患處.

아이가 음낭이 주먹만한 크기로 붓고 아픈 경우에는 감초 달인 물에 지렁이똥 가루 낸 것을 개어 바르면 곧 사그라든다. 아이가 습하고 서늘한 곳에 앉아 있거나 혹 벌레가 고추를 물어 고추 끝이 누에고치처럼 부은 경우에는 설탕 달인 물에 담갔다가 씻은 모려분을 달걀흰자에 개어 바른다. 혹은 말린 지렁이를 가루 내고 침에 개어 바른다. 만약 그래도 낫지 않으면 청목향과 지각 각각 같은 양과 감초 절반 분량을 물에 달여 빈속에 복용한다. ○음낭의 피부가 벗겨지면서 짓무르는 경우에는 총백과 호초 끓인 물로 씻은 후 곱게 간 오적어골 가루를 환부에 뿌린다.

一方, 小兒陽莖陰囊俱浮, 焮腫痒痛, 槐白皮濃煎湯洗, 後蛇床子細末, 杏仁去皮, 搗爛爲泥, 入蠟油膏和勻, 青絢上攤, 厚貼腫處. ○桃葉搗爛, 炒溫, 裹莖囊, 桃仁研爲泥, 桃葉汁化開, 貼患處. ○陽囊腫硬痒痛, 川椒、葱白煎湯浸洗, 後¹香、蛇床子爲末等分, 鷄子清調和, 溫付腫處. ○陽莖或陰囊皮脫, 汁流痒痛, 以狼牙、川椒、艾葉、槐枝濃煎湯浸洗, 後硫黃、蛇床子并炒等分, 枯白礬、石雄黃半減, 俱細末, 同和勻, 調鷄子清, 攤青絢上, 貼患處, 內服牛膝、地膚子等分煎湯.

어떤 서적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다. '아이의 음경과 음낭이 모두 붓고 쓰라리며 가렵고 아픈 경우의 치료법. 회화나무 속껍질을 진하게 달인 물로 환부를 씻는다. 그다음 사상자(곱게 간다)와 행인(껍질을 제거하고 짓찧어 질게 만든다)을 납유고에 넣고 잘 섞는다. 이것을 푸른 천에 두껍게 바르고 부은 곳에 붙여 놓는다. ○복숭아나무 잎을 짓찧고 따뜻하게 볶은 후 음경과 음낭을 싸 든다. 복숭아씨를 질게 갈고 복숭아나무 잎 찌른 즙과 섞어 환부에 붙인다. ○음경과 음낭이 단단하게 붓고 가렵고 아픈 경우의 치료법. 천초와 총백 달인 물에 환부를 담근 채 씻는다. 그다음 회향과 사상자 각각 같은 양을 가루 내고 달걀흰자와 섞어 따뜻하게 데운 후 환부에 바른다. ○음경이나 음낭의 피부가 벗겨지고 고름이 흐르면서 가렵고 아픈 경우의 치료법. 낭아(狼牙)·천초·애엽·괴지(槐枝)를 진하게 달인 물에 환부를 담근 채 씻는다. 그다음 유황·사상

자(2가지 모두 볶는다) 각각 같은 양, 고백반·석유향 절반 분량을 모두 곱게 갈아 한꺼번에 골고루 섞고 달걀흰자에 갠 후 푸른 천에 발라 환부에 붙여 놓는다. 내복약으로는 우슬과 지부자 각각 같은 양을 달여 복용한다.'

小兒肛門，濕爛成瘡，或痛痒或不痛，而久不完全，惡肉突起如菌，名曰疳蠱，即肺疳也，或鼻下赤爛，外以荊芥、艾葉、川椒煎湯洗瘡，後苦參、槐皮各三錢，石雄黃二錢，爲末，艾葉一大塊，和合，燒煙熏之。○瘡中生細蟲痒痛不可忍，狼牙、蛇床子、苦參煎湯淋洗，拭乾，五倍子、海螵蛸各三錢，枯白礬一錢，乳香、銅綠各五分，輕粉、藜蘆各二分半，極細末，塗瘡處，內服瀉白散，加芩、連、犀角煎服。

아이의 항문이 짓무르면서 창이 생겼을 때 간혹 아프고 가렵다가도 간혹 아프지 않기도 하면서 오랫동안 완전히 아물지 않은 채 징그러운 살이 버섯처럼 튀어나오는 것을 감닉(疳蠱)이라고 한다. 폐감(肺疳)이라고도 하며 간혹 코 아래가 빨갛게 짓무르기도 한다. 외용법으로는 형개·애엽·천초 달인 물로 환부를 씻은 후 고삼·괴피(槐皮) 각 3돈, 석유향 2돈을 가루 낸 후 애엽 큰 덩이 1개와 잘 섞어 태우고 그 연기로 환부를 훈증한다. ○감닉창 속에 생긴 작은 벌레 때문에 참을 수 없이 가렵고 아픈 경우의 치료법. 낭아(狼牙)·사상자·고삼 달인 물을 환부에 부으면서 씻은 후 수건으로 닦아 말린다. 오배자·해표초 각 3돈, 고백반 1돈, 유향·동록 각 5푼, 경분·여로 각 2.5푼을 아주 곱게 가루 낸 후 환부에 바른다. 내복약으로는 사백산에 황금·황련·서각을 더해 달인 후 복용한다.

- 一女兒，陰戶腫痛，焮熱搔痒，四畔潰爛，痛不忍堪，先以蛇床子煎湯或葱椒湯洗，後以苦參、枳實粗末，炒熱，入布袋，頻熨瘡處，仍服鐵落浸水取汁，調牛黃六一散，塗烏賊魚骨、五倍子末而愈。
- [의안] 어떤 여자 아이가 음부가 붓고 아프며 화끈거리고 가려우며 사방이 짓물러 참을 수 없이 아파했다. 우선 사상자 달인 물이나 총백과 호초 달인 물로 환부를 씻게 하고, 그다음 고삼과 지실을 거칠게 가루 내어 뜨겁게 볶은 후 자루에 넣고 자주 환부를 찜질하게 하였다. 동시에 철락(鐵落) 담갔던 물에서 물만

모으고 우황육일산을 타서 복용하게 하는 한편 오적어골과 오배자를 가루 내어 환부에 바르게 하니 좋아졌다.

1. : 茴 ※문맥상 ↩



諸淋 제림(諸淋)

小兒諸淋, 皆屬於腎與膀胱熱也, 小便淋瀝澀痛, 欲去, 不去而又來也, 最不可用補藥, 若補則水道閉遏, 反益甚焉, 宜導赤散 [方見急驚], 加黃栢、知母, 或五淋散. ○石淋者, 腎熱則水結爲石, 內塞水道, 莖中割痛, 砂石自小便中出. ○膏淋者, 小便有肥脂似膏, 而浮於小便上, 此腎虛不能制其肥液而下行也. ○血淋者, 熱之甚也, 小便不快, 時下鮮血, 莖中痛, 宜四物湯 [方見諸血], 加減用之. ○熱淋者, 下焦有熱, 熱氣傳于腎, 流入於胞, 小便熱而赤濁, 淋瀝不快, 臍下急痛, 宜滋腎丸 [方見諸熱], 加山梔仁, 或益元散 [方見暑症], 空心白湯, 量宜調服. ○冷淋者, 冷氣入胞, 與正氣交爭, 故先寒慄, 而後小便也, 古方, 諸淋皆屬於熱, 而雖有冷淋, 蓋千百之一也, 又曰諸淋痛澀, 諸藥無效者, 用導水丸, 以通利爲度.

아이의 여러 임증(淋症)은 모두 신장과 방광의 열 때문이다. 소변이 찢끔찢끔 잘 나오지 않고 아파서 화장실에 가려다가는 가지 않고 다시 돌아오곤 한다. 보하는 약을 절대 쓰지 말아야 한다. 만약 보하는 약을 쓰면 소변이 아예 막히게 되어 도리어 이전 보다 더욱 심해진다. 도적산 [처방은 급경문에 나온다] 에 황백·지모를 더하여 쓰거나 혹은 오림산을 써야 한다. ○석림(石淋)은 신장의 열사 때문에 수기가 멎쳐 돌이 된 것으로 몸속에서 소변을 막아 음경이 잘리는 듯 아프다가 작은 돌이 소변과 함께 나온다. ○고림(膏淋)은 소변에 고약과 비슷한 기름기가 있어서 소변에 똥똥 뜨는 것이다. 이것은 신장이 허하여 기름진 진액을 잡아주지 못하고 그대로 나오는 것이다. ○혈림(血淋)은 열이 심하기 때문에 생긴다. 소변을 보아도 시원하지 않고 가끔 붉은 피가 함께 나오기도 하며 음경이 아프다. 사물탕 [처방은 제혈문에 나온다] 을 가감하여 써야 한다. ○열림(熱淋)은 하초에 열이 있는 상태에서 그 열기가 신장으로 옮겨 갔다가 심포까지 흘러간 것이다. 소변이 뜨거우면서 탁한 붉은색을 띄고 찢끔거리면서 시원하지 않고 배꼽 아래 부분이 당기면서 아픈 증상이 있다. 자신했 [처방은 제열문에 나온다] 에 산치인을 더하여 쓰거나, 혹은 익원산 [처방

은 서증문에 나온다] 을 빈속에 끓인 물로 아이의 몸집에 따라 타서 복용해야 한다. ◦냉림(冷淋)은 바깥의 서늘한 기운이 심포로 들어가 정기(正氣)와 부딪혀 생긴다. 그러므로 오한이나 전율이 먼저 생겼다가 소변의 증상이 나중에 생긴다. 옛 방서에는 '여러 임증은 모두 열증에 속한다. 비록 냉림이 있기는 하지만 아마 천 명 백 명 중 하나일 것이다.'라고 하였다. 또한 '여러 임증으로 아프고 소변이 잘 나오지 않을 때 여러 가지 약이 모두 효과가 없으면 도수환을 소변이 나올 때까지 써야 한다.'고도 하였다.

五淋散

오림산

通治五淋.

오림(五淋)을 두루 치료한다.

赤芍藥、山梔仁(炒研) 各二錢, 當歸、赤茯苓 各一錢, 黃芩、甘草 各五分.

적작약、산치인(볶아서 간다) 각 2돈, 당귀、적복령 각 1돈, 황금、감초 각 5푼.

右剉, 水煎, 空心服.

이상을 썬 후 물에 달여 빈속에 복용한다.

增味導赤散

증미도적산

治血淋, 小便短澀, 莖中痛, 時下鮮血.

혈림(血淋)으로 소변이 잘 나오지 않으면서 음경이 아프고 가끔 붉은 피가 섞여 나오는 경우를 치료한다.

乾芩、木通、黃芩、車前子(炒研)、山梔仁(炒研)、川芎、赤芍藥、甘草 各一錢.

건지황、목통、황금、차전자(볶아서 간다)、산치인(볶아서 간다)、천궁、적작약、감초 각 1돈.

右剉, 入薑三, 竹葉十片, 燈心一團, 水煎, 空心服.

이상을 썬 후 생강 3조각, 죽엽 10장, 등심 1단과 함께 물에 달여 빈속에 복용한다.

黃芩湯

황금탕

治小便出血, 水道澁痛.

소변에 피가 섞여 나오고 잘 나오지 않으면서 아픈 경우를 치료한다.

生芩、車前子(炒研)、瞿麥、鬱金、滑石、芒硝 各五分.

생지황、차전자(볶아서 간다)、구맥、울금、활석、망초 각 5푼.

右麤末, 每二三錢, 水煎至半, 入硝熔化, 去滓服.

이상을 거칠게 가루 낸다. 한 번에 2 - 3돈씩 물에 달이다가 절반이 되면 망초를 넣어 녹인 후 찌꺼기를 제거하고 복용한다.

紫草湯

자초탕

治血淋熱淋.

혈림(血淋)이나 열림(熱淋)을 치료한다.

紫草、連翹、車前子(炒研) 各等分.

자초、연교、차전자(볶아서 간다) 각각 같은 양.

右剉, 水煎, 空心服.

이상을 썬 후 물에 달여 빈속에 복용한다.

蒲黃散

포황산

治膀胱熱甚, 小便赤澀, 莖中條痛¹.

방광의 열이 심하여 소변이 붉게 되면서 잘 나오지 않고 음경이 아픈 것을 치료한다.

蒲黃、冬葵子、生芩 各等分.

포황、동규자、생지황 각각 같은 양.

右剉, 水一盞, 煎至六合, 空心服.

이상을 썬 후 물 1잔이 6할이 되도록 달여 빈속에 복용한다.

滑石散

활석산

治砂石淋, 痛如刀割.

사림(砂淋)이나 석림(石淋)으로 음경이 아파 마치 칼로 자르는 듯한 경우를 치료한다.

滑石、石膏 各五錢, 石韋、瞿麥、木通、蜀葵子 各三錢.

활석、석고 각 5돈, 석위、구맥、목통、촉규자 각 3돈.

右細末, 每一二錢, 以葱白二莖, 燈心一握, 蜜二匙煎湯調, 空心服.

이상을 곱게 가루 낸 후 한 번에 1 - 2돈씩 총백 2줄기, 등심 1악(握), 꿀 2술을 달인 물에 타서 빈속에 복용한다.

魚石散

어석산

治砂石淋, 莖中作痛.

사림(砂淋)이나 석림(石淋)으로 음경 속이 아픈 경우를 치료한다.

石首魚頭中骨五對燬, 滑石五錢, 共爲細末, 每四五分, 燈心湯調服.

석수어(石首魚) 머리 속에 있는 뼈 5개(불에 달군다)와 활석 5돈을 한꺼번에 곱게 가루 낸다. 한 번 복용할 때 5푼씩 등심 달인 물에 타서 복용한다.

木香湯

목향탕

治冷淋, 小便短澁, 身體清冷.

냉림(冷淋)으로 소변이 짙끔짙끔 나오며 몸이 냉한 경우를 치료한다.

木通、木香、當歸、白芍藥、青皮、²香、檳榔、澤瀉、陳皮 甘草 各七分, 肉桂 三分.

목통、목향、당귀、백작약、청피、회향、빈랑、택사、진피 감초 각 7푼, 육계 3푼.

右剉, 入薑五片, 空心, 水煎服.

이상을 썬 후 생강 5조각을 넣고 물에 달여 빈속에 복용한다.

香兒散

향아산

治膏淋及血淋砂淋, 莖中痛如刀割.

고림(膏淋)이나 혈림(血淋)이나 사림(砂淋)으로 음경 속이 칼로 자르는 듯이 아픈 경우를 치료한다.

孩兒茶 一錢七分半, 琥珀 一分半, 眞麝香 一分.

해아다 1.75돈, 호박 1.5푼, 진사향 1푼.

右細末, 每一錢, 百沸湯, 入葱汁少許, 空心調服.

이상을 곱게 가루 낸 후 한 번에 1돈씩 총즙(葱汁)을 약간 넣은 백비탕에 타서 빈속에 복용한다.

海金砂散

해금사산

治小便淋瀝澀痛.

소변이 찢끔찢끔 나오면서 아픈 경우를 치료한다.

海金砂、鬱金、滑石 各一兩, 甘草 二錢半.

해금사、울금、활석 각 1냥, 감초 2.5돈.

右細末, 每一錢, 地膚子燈心煎湯調, 空心服.

이상을 곱게 가루 낸 후 한 번에 1돈씩 지부자와 등심 달인 물에 타서 빈속에 복용한다.

檳榔散

빈랑산

治氣淋膏淋.

기림(氣淋)과 고림(膏淋)을 치료한다.

赤芍藥 五錢, 檳榔 一枚(麴裹煨).

적작약 5돈, 빈랑 1개(밀가루 반죽을 입혀 불에 달군다).

右細末, 每一錢, 燈心一團, 大棗一枚, 煎湯, 調服.

이상을 곱게 가루 낸 후 한 번에 1돈씩 등심 1단과 대조 1개 달인 물에 타서 복용한다.

石韋散

석위산

治小兒諸淋, 水道中痛引臍腹.

아이가 여러 가지 임증(淋症)으로 소변이 나올 때 배꼽 부근까지 당기면서 아픈 경우를 치료한다.

石韋(去毛) 一錢, 冬葵子、木通、赤茯苓 各五分, 車前子(炒研)、瞿麥、榆白皮、滑石、甘草 各二分半.

석위(털을 제거한다) 1돈, 동규자、목통、적복령 각 5푼, 차전자(볶아서 간다) 、구맥、유백피、활석、감초 각 2.5푼.

右麴末, 每二三錢, 入葱白一莖, 水一盞, 煎至六分, 溫服, 如人行十里再服.

이상을 거칠게 가루 낸다. 한 번에 2 - 3돈씩 총백 1줄기와 함께 물 1잔에 넣고 6할이 되도록 달인 후 따뜻하게 데워서 복용한다. 사람이 10리를 갈 시간 정도 후에 다시 복용한다.

瀉腎湯

사신탕

治諸淋, 小腹脹急, 用此泄下.

여러 가지 임증(淋症)으로 아랫배가 똥똥해지면서 당기는 경우에는 이 약으로 설사시켜야 한다.

大黃 二錢(剉, 密器水浸一宿, 入磁石碎一錢六分), 石菖蒲、生芡 各一錢, 玄參、細辛 各八分, 芒硝、赤茯苓、黃芩 各六分, 甘草 四分.

대황 2돈(썰어서 밀봉할 수 있는 그릇으로 물에 하룻밤 담근 후 자석 부순 것 1.6돈을 넣는다), 석창포·생지황 각 1돈, 현삼·세신 각 8푼, 망초·적복령·황금 각 6푼, 감초 4푼.

右剉, 水二盞, 煎至一盞半, 入大黃, 煎至七分, 下芒硝, 去滓, 空心服. ○小兒諸淋, 皆腎膀胱熱也, 治法, 宜散熱利小便, 開鬱行氣, 蒲黃、牛膝破血, 生芡、黃柏滋陰, 然不如用瀉腎湯泄下也.

이상을 썬다. 물 2잔을 1잔 반이 되도록 달이다가 대황을 넣고 다시 7할이 되도록 달인다. 망초를 넣고 찌꺼기를 제거한 후 빈속에 복용한다. ○여러 가지 아이의 임증(淋症)은 모두 신장과 방광의 열사 때문이다. 치료법은 열사를 흘리고 소변을 소통시키며 울체된 기를 풀어 잘 운행되게 해야 한다. 포황과 우슬은 어혈을 풀고, 생지황과 황백은 음기를 길러준다. 그러나 사신탕을 써서 설사시키는 효과 보다는 못하다.

一方, 牛膝一兩剉, 水五盞, 煎至一盞, 入麝香少許, 空心服, 或酒煎服, 古方, 牛膝治淋之聖藥也. ○車前草採根莖葉, 搗取汁一盞, 入蜜一二匙, 微溫, 空心服. 地膚草, 及篇蓄生水邊開紫花者, 搗取汁服, 竝治諸淋. ○蚯蚓汁, 治小便淋瀝, 或不通, 空心, 一盞溫服. ○螻蛄, 治石淋, 通水道, 取七枚, 鹽二兩, 新瓦上焙, 去鹽, 爲末, 溫酒或燈心湯調服. ○桃膠取如棗核大, 夏月冷水, 冬月溫水, 空心和服, 日三.

어떤 서적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다. '우슬 1냥을 썰어 물 5잔에 넣고 달이 다가 1잔이 되면 사향을 약간 넣고 빈속에 복용한다. 혹은 술에 달여 복용하기도 한다. 옛 방서에서 우슬은 임증(淋症)을 치료하는 명약이었다. ○차전초를 뿌리와 줄기와 잎이 달린 채로 캔 후 짓찧어 즙을 낸다. 즙 1잔에 꿀 1 - 2술을 넣고 빈속에 살짝 데워서 복용한다. 지부초와 편축(물가에서 자라며 자주색 꽃이 핀 것) 짓찧은 즙을 복용하면 여러 가지 임증을 모두 치료한다. ○지령이 짓찧은 즙은 소변이 찢끔거리며 나오거나 혹은 아예 나오지 않는 증상을 치료한다. 빈속에 1잔을 따뜻하게 데워서 복용한다. ○땅강아지는 석림(石淋)을 치료하여 소변을 나오게 한다. 7마리를 잡아 소금 2냥과 함께 사용하지 않은 기와에 놓고 겉불에 말린 후 소금을 제거하고 가루 낸다. 따뜻한 술이나 등심 달인 물에 타서 복용한다. ○도교(桃膠, 복숭아나무 진)를 대추씨만큼 여름철에는 냉수에, 겨울철에는 따뜻한 물에 타서 하루 3번 빈속에 복용한다.'

- 十餘歲男兒, 因驚心氣下結, 小便淋瀝, 日夕下三四十次, 而漸覺黃瘦, 益智仁、赤茯苓各一錢, 石菖蒲一分, 水煎, 調辰砂二分, 空心服, 日數三次.
- 〔의안〕 10살 정도 되는 남자아이가 무언가에 놀라서 가슴에 있던 기운이 아래로 내려가 멎혀 소변이 찢끔거리며 나왔는데 하루저녁에 30 - 40번이나 누면서 점점 누렇게 여위어 갔다. 익지인·적복령 각 1돈과 석창포 1푼을 물에 달인 후 진사 2푼을 타서 하루 3 - 4번 빈속에 복용하게 하였다.

順經散

순경산

治小兒因驚小便淋瀝, 及腎虛冷頻數.

아이가 무언가에 놀란 후 소변이 찝끔거리며 나오는 경우나 신장이 허랭(虛冷)하여 소변을 자주 누는 경우를 치료한다.

韭子、琥珀、益智仁、金毛狗脊、白茯苓、石燕 各五錢, 石韋 一錢.

구자、호박、익지인、금모구척、백복령、석연 각 5돈, 석위 1돈.

右末, 每一錢, 韭子湯調, 日二次服.

이상을 가루 낸 후 한 번에 1돈씩 부추씨 달인 물에 타서 하루 2번 복용한다.

1. 條痛 : 作痛 ※문맥상

2. : 茴 ※문맥상

尿白濁 요백탁

小兒尿白如米泔者, 由乳哺失節, 有傷於脾, 致令清白不分而色白, 久則成泔, 或兒裏有熱, 而久坐冷地, 寒抱熱則尿白濁, 概泔疾小兒, 及癖積兒, 多有此症.

아이의 오줌이 쌀뜨물처럼 하얗게 된 것은 젖을 너무 많이 먹여 비장이 상하게 되고 결국 맑은 소변과 흰 것이 잘 나누어지지 않기 때문에 소변 색깔이 하얗게 된 것이다. 오래 되면 감질이 된다. 간혹 아이의 몸속에 열이 있는 상태에서 오랫동안 서늘한 곳에 앉아 있다가 한기가 열기를 감싸게 되어 오줌이 하얘지는 경우도 있다. 대체로 감질이나 벽적(癖積)이 있는 아이는 대부분 이 증상이 있다.

厚朴湯

후박탕

治小兒小便白濁, 久則黃瘦, 肥肉不長.

아이의 소변이 하얗다가 오래되어 누렇게 여윈 채 살이 붙지 않는 경우를 치료한다.

史君子(煨去殼)、厚朴、黃連 各一兩, 木香 三錢.

사군자(재에 묻어 구운 후 껍데기를 제거한다)、후박、황련 각 1냥, 목향 3돈.

右爲末, 蒸餅糊丸麻子大, 每四五十丸, 米湯下.

이상을 가루 낸 후 증병(蒸餅)으로 쏜 풀에 개어 마자 크기로 환을 빚고 한 번에 40 - 50환씩 쌀 끓인 물로 넘긴다.

赤茯苓散

적복령산

治乳食傷脾, 或心經伏熱, 小便白濁.

젖이나 음식에 비장이 상하거나 수소음심경에 열이 잠복하여 소변이 하얗진 경우를 치료한다.

三稜、蓬朮(并煨)、砂仁(炒研)、赤茯苓 各五錢半, 青皮、陳皮、滑石、甘草 各二錢半.

삼릉、봉출(2가지 모두 재에 묻어 굽는다)、사인(볶아서 간다)、적복령 각 5.5돈, 청피、진피、활석、감초 각 2.5돈.

右麤末, 每二錢, 水煎, 空心服.

이상을 거칠게 가루 낸 후 한 번에 2돈씩 물에 달여 빈속에 복용한다.

三稜散

삼릉산

小兒尿白, 久則成疳, 宜用此補脾消積.

아이의 오줌이 하얀 상태로 오래 되면 감질이 된다. 이 약으로 비장을 보하고 적취를 녹여야 한다.

三稜、蓬朮(并煨) 各一錢, 益智仁、神曲(炒)、麥芽(炒)、橘紅、甘草 各五分.

삼릉、봉출(2가지 모두 재에 묻어 굽는다) 각 1돈, 익지인、신국(볶는다)、맥아(볶는다)、귤홍、감초 각 5푼.

右細末, 每一錢, 白湯調下, 或糊丸服.

이상을 곱게 가루 낸 후 한 번에 1돈씩 끓인 물에 타서 넘기거나 환을 빚어 복용한다.

香砂丸

향사환

治嬰兒小便白濁.

갓난아이의 소변이 하얀 경우를 치료한다.

香附(製) 一兩, 三稜、蓬朮(并煨)、陳皮、麥芽(炒)、蘆薈 各五錢半, 縮砂(炒研) 五錢.

향부자(법제한다) 1냥, 삼릉、봉출(2가지 모두 재에 묻어 굽는다)、진피、맥아(볶는다)、노회 각 5.5돈, 축사(볶아서 간다) 5돈.

右細末, 麵糊丸黍米大, 每四五十丸, 空心, 米飲下.

이상을 곱게 가루 낸 후 밀가루풀에 개어 서미 크기로 환을 빚고 한 번에 40 - 50환씩 빈속에 미음으로 넘긴다.

遺尿 유뇨

遺尿者, 腎膀胱俱虛冷, 內氣不充, 故脬中不能禁約, 小便頻數, 或睡中不覺遺尿也, 宜六味元 [方見解顱], 去澤瀉, 加益智仁、菟絲子、五味子, 甚者, 大菟絲子丸, 下焦陽虛, 小便頻數者, 八味元 [方見解顱], 或氣不能約束者, 補中益氣湯 [方見嘔吐], 加益智仁、桂心.

유뇨(遺尿)는 신장과 방광이 모두 허랭(虛冷)하여 몸속의 기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방광에서 제대로 단속하지 못하고 소변을 자주 누거나 혹은 자다가 오줌을 지리는 것이다. 육미원 [처방은 해로(解顱)문에 나온다] 에서 택사를 빼고 익지인、토사자、오미자를 더하여 써야 한다. 증상이 심한 경우에는 대토사자환을 쓴다. 하초의 양기가 허하여 소변을 자주 누는 경우에는 팔미원 [처방은 해로문에 나온다] 을 쓴다. 간혹 양기 부족으로 방광에서 제대로 단속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보중익기탕 [처방은 구토문에 나온다] 에 익지인、계심을 더하여 쓴다.

鷄腸散

계장산

小兒遺尿不禁, 多因脬寒, 或稟受陽氣不足故也, 此藥主之.

아이가 오줌을 지리는 것은 대부분 방광이 차갑기 때문에 발생하며, 간혹 타고난 양기가 부족하기 때문에 발생하기도 한다. 이 약으로 치료한다.

鷄腸(燒存性)、牡蠣粉、白茯苓、桑螵蛸(蒸) 各五錢, 辣桂(去皮)、龍骨 各二錢半.

계장(약성이 남도록 태운다)、모려분、백복령、상표초(찜다) 각 5돈, 날계(껍질을 제거한다)、용골 각 2.5돈.

右細末, 每二錢, 米飲調服, 或入薑棗, 煎服.

이상을 곱게 가루 낸 후 한 번에 2돈씩 미음에 타서 복용한다. 혹은 생강과 대조를 넣고 달여서 복용한다.

鷄臍脰散

계비치산

治小兒膀胱虛冷, 夢中遺尿.

아이의 방광이 허랭(虛冷)하여 자다가 오줌을 지리는 경우를 치료한다.

鷄臍脰 一具, 鷄腸 一具(并燒存性), 猪脬 一具(灸焦).

계비치 1개, 계장 1개(2가지 모두 약성이 남도록 태운다), 저부 1개(겉에 굽는다).

右細末, 每一錢, 溫酒或米飲調服. ○男用雌, 女用雄.

이상을 곱게 가루 낸 후 한 번에 1돈씩 따뜻한 술이나 미음에 타서 복용한다. ○ 남자아이는 암탉을 쓰고, 여자아이는 수탉을 쓴다.

太兔絲子丸

대토사자환

治脬氣虛寒, 小便不禁遺尿.

방광의 기운이 허랭하여 소변을 참지 못하고 지리는 경우를 치료한다.

兔絲子(製)、肉蓯蓉(酒浸去甲) 各二兩, 牡蠣(煨)、五味子、附子(炮)、鹿茸(酒灸) 各一兩, 桑螵蛸(酒灸)、鷄臍脰(灸) 各五錢.

토사자(법제한다)、육종용(술에 담갔다가 겉껍질을 제거한다) 각 2냥, 모려(불에 달군다)、오미자、부자(습지에 싸서 굽는다)、녹용(술에 축여 굽는다) 각 1냥, 상표초(술에 축여 굽는다)、계비치(굽는다) 각 5돈.

右爲末, 酒糊丸小豆大, 每五七十丸, 溫酒或米飲下.

이상을 가루 낸 후 술을 넣어 쏘 풀에 개어 소두 크기로 환을 빚는다. 한 번에 50 - 70환씩 따뜻한 술이나 미음으로 넘긴다.

破故紙散

파고지산

治膀胱虛冷, 夜間遺尿, 或小便不禁.

방광이 허랭하여 밤에 오줌을 지리거나 오줌을 참지 못하는 경우를 치료한다.

破故紙炒細末, 每一錢, 溫酒或白湯調服.

파고지(북는다)를 곱게 갈아 한 번에 1돈씩 따뜻한 술이나 끓인 물에 타서 복용한다.

桂肝丸

계간환

治腎膀胱虛冷, 睡夢中遺尿, 自不覺.

신장과 방광이 허랭하여 자다가 자기도 모르게 오줌을 지리는 경우를 치료한다.

官桂(去麤皮, 細末)三錢, 雄鷄肝大者一具, 同搗爛, 丸小豆大, 每三四十丸, 溫酒或米飲, 空心調服.

관계(겉껍질을 제거하고 곱게 간다) 3돈과 수탉의 간 큰 것 1개를 함께 짓찧어 소두 크기로 환을 빚는다. 한 번에 30 - 40환씩 따뜻한 술이나 미음에 풀어서 빈속에 복용한다.

益智仁丸

익지인환

治腎脾虛冷, 心氣不足遺尿, 或小便白濁.

신장과 비장이 허랭하여 생긴 양기 부족으로 오줌을 지리거나 혹은 소변이 하얗게 되는 경우를 치료한다.

益智仁、赤茯苓、赤茯神 各等分.

익지인、적복령、적복신 각각 같은 양.

右細末, 蜜丸小豆大, 每五六十丸, 空心, 白湯下.

이상을 곱게 가루 낸 후 꿀에 개어 소두 크기로 환을 빚고 한 번에 50 - 60환씩 빈속에 끓인 물로 넘긴다.

一方, 小兒遺尿, 薏苡仁一合, 不去殼搥碎, 入鹽少許, 同炒色黃, 水煎, 空心服. 〇猪脬洗灸, 空心嚼, 以溫酒下, 或細末, 酒調服.

어떤 서적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다. '아이가 오줌을 지릴 때는 의이인 1홉을 껌데기를 부수지 않은 채로 소금을 약간 넣고 함께 볶다가 누렇게 되면 물에 달여 빈속에 복용한다. 〇돼지 오줌보를 깨끗이 씻어 구운 후 빈속에 씹다가 따뜻한 술로 넘긴다. 혹은 곱게 가루 낸 후 술에 타서 복용한다.'

- 李咸平子年十五, 遺溺不止, 嘗問余曰, 兒自乳無病, 乳食如常, 肥肉亦不肥不瘦, 而雖夏之短夜, 未嘗不遺溺, 多用加減地黃丸、鷄臍脰散之類, 亦無效, 余曰, 補腎而不約, 是心肺之氣不足也, 古方云, 肺虛則卒遺尿無度, 此降者多升者少也, 心虛則神昏夢煩, 知覺不敏也, 用大兔絲子丸, 加益智仁、破古紙蒸去皮、白茯神各二兩, 桂心三錢, 令心腎交濟而愈.
- [의안] 이 함평(李咸平)의 15살 된 아들이 오줌을 지리면서 참지 못하였다. 예전에 나에게 진료를 청하며 "우리 아이가 젖먹이 때부터 병이 없었고 젖이나 음

식은 멀쩡하게 먹었으며 살집도 너무 찌거나 마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름철 짧은 밤에도 오줌을 지리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황환을 가감하거나 계비치산 같은 약을 계속 썼으나 이 또한 효과가 없었습니다.”라고 하였다. 나는 ”신장을 보해도 방광이 오줌을 단속하지 못하는 것은 심장과 폐장의 기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옛 방서에 ‘폐장이 허하면 갑자기 오줌을 수없이 지린다.’고 하였으니 이는 내려갈 것은 많고 올라오는 것은 적기 때문입니다. 심장이 허하면 정신이 혼미해지며 꿈을 꾸고 답답하여 감각이 예민하지 못하게 됩니다.”라고 하였다. 대토사자환에 익지인·파고지(써서 껍질을 제거한다)·백복신 각 2냥, 계심 3돈을 더하여 써서 심장과 신장의 기운이 서로 돕도록 만들어주니 좋아졌다.

汗 汗

汗者, 心之所藏, 在內爲血, 發外爲汗, 乃心液也, 概小兒諸病後, 自額至臍汗出者, 氣虛也, 不經病, 而睡中頭腦汗出沾濕, 而覺則不復出者, 熱也, 驚惕心虛, 則頭額汗多, 痰熱, 則遍身盜汗, 厚衣重覆而汗多者, 喜汗, 務宜清涼自收, 氣虛, 補中益氣湯, 去升柴或蜜炒, 加桂枝, 血虛, 當歸補血湯, 熱者, 瀉心湯 [方見諸熱], 驚惕心虛, 團參飲, 痰熱者, 香瓜丸, 通用止汗散, 錢氏曰, 上至頭下至項者, 熱上蒸而出, 不須深治, 而但寒熱之後, 自汗身涼者, 不可不治也.

한(汗, 땀)은 심장에 간직된 것으로 몸속에서는 혈이 되고 몸밖으로 나오면 땀이 되니 바로 심장의 진액이다. 대체로 아이들이 여러 가지 병을 앓은 후에 이마에서 배꼽까지 땀이 나는 경우는 기가 허하기 때문이며, 병을 앓지 않았는데도 자면서 머리에서 땀이 나 축축하다가 잠에서 깨면 땀이 나지 않는 경우는 몸속의 열 때문이다. 깜짝 놀랄 때 심장이 허하면 머리와 이마에서 땀이 많이 난다. 담음 때문에 열이 나면 온몸에 도한(盜汗)이 난다. 옷이나 이불이 두꺼워서 땀이 많이 나는 경우는 땀이 잘 나는 체질이므로 시원하게 하여 저절로 멎도록 신경써주어야 한다. 기허로 땀이 나는 경우에는 보중익기탕에서 승마와 시호를 빼거나 아니면 꿀을 묻혀 볶아서 쓰고 계지를 더하여 써야 한다. 혈허로 땀이 나는 경우에는 당귀보혈탕을 쓴다. 열 때문에 땀이 나는 경우에는 사심탕 [처방은 제열(諸熱)문에 나온다] 을 쓴다. 깜짝 놀라서 심장의 기가 허해진 경우에는 단삼음을 쓰고, 담음 때문에 열이 나는 경우에는 향과환을 쓴다. 두루 치료하려면 지한산을 쓴다. 전씨가 "머리에서부터 목까지 땀이 나는 것은 열이 위로 썬서 땀이 나는 것이니 굳이 깊이 치료할 필요가 없고, 오히려 열 후에 자한(自汗)이 나면서 몸이 냉해지는 경우에는 반드시 치료해야 한다."라고 하였다.

止汗散

지한산

治小兒諸汗.

아이의 여러 가지 땀을 치료한다.

用古蒲扇灰, 研細, 每三錢, 溫酒調服. [如無蒲扇, 以菖蒲灰用.]

오래 된 포선(蒲扇)¹ 태운 재를 곱게 간 후 한 번에 3돈씩 따뜻한 술에 타서 복용한다. [포선이 없는 경우에는 창포 태운 재를 쓴다.]

團參湯

단삼탕

治小兒有驚, 心血溢出發汗, 或氣血俱虛中, 挾邪熱, 盜汗自汗, 此藥收斂心氣.

아이가 무언가에 놀라 심장의 혈이 넘쳐 땀이 나는 경우를 치료한다. 간혹 기와 혈이 모두 허한 상태에서 열사를 겸한 경우에 도한이나 자한이 나는 증상도 치료한다. 이 약으로 심장의 기를 수렴시켜야 한다.

人參、當歸 各一錢半.

인삼、당귀 각 1.5돈.

右剉細, 用雄猪心一箇, 切作四片, 每片入藥末, 水二盞, 同煎至半, 去滓, 食前服. ○一方, 黃芪、當歸各二錢, 猪心一片, 水煎服, 亦效.

이상을 곱게 썬다. 수태지의 심장 1개를 4조각으로 썰고 각 조각마다 위의 약가루를 넣는다. 물 2잔에 한꺼번에 넣고 달이다가 절반이 되면 건더기를 제거하고 식전에 복용한다. ○어떤 서적에는 '황기·당귀 각 2돈, 저심 1조각을 물에 달여 복용해도 효과가 있다.'고 하였다.

香瓜丸

향과환

治痰火盛, 遍身汗出者.

담음으로 생긴 열이 왕성해져 온몸에 땀이 나는 경우를 치료한다.

胡黃連、大黃、柴胡、鼈甲(炙)、黃栢(炒)、黃連、蘆薈(煨)、青皮 各等分.

호황련、대황、시호、별갑(굽는다)、황백(볶는다)、황련、노회(불에 달군다)、청피 각각 같은 양.

右末, 用黃瓜萐大者一箇, 割頂, 填入諸藥, 至滿却蓋口, 用柴插定, 慢火煨², 取出搗爛, 入麵糊, 丸菉豆大, 每三五七丸, 食後冷漿水下, 無過十丸.

이상을 가루 낸다. 누런 과루 큰 것 1개의 꼭대기를 자르고 그 속에 약가루를 채워 넣은 후 가득 차면 잘랐던 꼭대기를 덮는다. 나무꼬치로 꼭대기를 꽂아 고정한 채 약한 불의 잿불에 묻어 익히고 다 익으면 꺼내어 짓찧는다. 여기에 밀가루풀을 넣고 녹두 크기로 환을 빚는다. 한 번에 3 - 7환씩 식후에 시원한 장수(漿水)로 넘긴다. 10환 이상을 복용하지 말라.

黃芪湯

황기탕

治氣血虛自汗, 或病後或虛, 津液不固自汗.

기나 혈이 허하여 자한(自汗)이 나는 경우나, 혹은 병을 앓은 후나 기허 때문에 진액이 몸속에서 견고하지 못하여 자한이 나는 경우를 치료한다.

黃芪(蜜炒)、牡蠣、生芡 各等分.

황기(꿀을 묻혀 볶는다)、모려、생지황 각각 같은 양.

右剉, 每二錢, 入浮小麥一撮, 水煎服.

이상을 썬 후 한 번에 2돈씩 부소맥 1찰과 함께 물에 달여 복용한다.

白朮散

백출산

治自汗盜汗.

자한이나 도한을 치료한다.

白朮 三兩, 浮小麥 一合.

백출 3냥, 부소맥 1홉.

右, 水一大盞半, 煮乾, 去麥, 細末, 以黃芪煎湯, 量兒大小, 加減調服.

이상을 물 1.5대잔(大盞)에 넣고 달이다가 물이 마르면 부소맥을 빼고 곱게 간다. 아이의 몸집에 따라 가감하여 황기 달인 물에 타서 복용한다.

撲汗方

땀을 박멸하는 방법

治自汗不止, 或盜汗沾濕衣衾, 以牡蠣粉傅之, 或加貝母末, 亦可.

자한이 멎지 않거나 도한이 옷이나 이불을 적시는 경우를 치료하려면 모려분을 땀 나는 곳에 바른다. 혹은 패모가루를 더해도 괜찮다.

當歸六黃湯

당귀육황탕

治血虛盜汗, 或日晡潮熱, 面黃羸瘦.

혈허(血虛)로 도한이 나거나 간혹 해질녘에 조열(潮熱)이 나고 얼굴이 누레지면서 여위기도 하는 경우를 치료한다.

黃芪 二錢, 生芡、熟芡、當歸 各一錢, 黃芩、黃連、黃柏 各七分.

황기 2돈, 생지황·숙지황·당귀 각 1돈, 황금·황련·황백 각 7푼.

右剉, 水煎服. ○一方, 芡連柏, 皆炒黑用.

이상을 썬 후 물에 달여 복용한다. ○어떤 서적에는 '황금·황련·황백을 모두 검게 볶아서 쓴다.'고 되어 있다.

- 晉郎中子, 自嬰至童, 盜汗七年, 諸藥不效, 用涼膈散 [方見咽喉]、三黃丸 [方見諸熱], 三日病已, 蓋少陰心火, 上火入肺, 故皮毛以是而開, 玄府不閉而爲汗, 以涼膈散, 瀉胸中相火, 以三黃丸, 瀉少陰心火, 以助陰分, 其汗自止.
- [의안] 진 낭중(晉郎中)의 아들이 갓난아이 때부터 어린이 때까지 7년 동안 도한이 났으나 여러 약을 써보아도 효과가 없었다. 양격산 [처방은 인후문에 나온다]·삼황환 [처방은 제열(諸熱)문에 나온다] 을 쓰니 3일 만에 병세가 그쳤다. 아마 소음군화(少陰君火), 즉 심화(心火)가 위로 타올라 폐장으로 들어가게 되므로 피모(皮毛)가 열리고 현부(玄府, 땀구멍)가 닫혀지지 않아서 땀이 나는 것 같았다. 양격산으로 가슴 속의 상화(相火)를 사해주고, 삼황환으로 심화를 사하면서 음분(陰分)을 돕게 하니 도한이 자연스레 멎었다.

虎杖根散

호장근산

治實熱盜汗.

실열로 도한이 나는 경우를 치료한다.

虎杖根二三錢, 水煎服.

호장근 2 - 3돈을 물에 달여 복용한다.

桑葉散

상엽산

治盜汗.

도한(盜汗)을 치료한다.

靑桑葉第二番葉, 帶露採, 陰乾焙, 爲末, 米飲, 量宜調服.

뽕나무의 잎(여름이나 가을에 새로 난 것)을 이슬 맞은 채로 따서 그늘에서 말렸다가 다시 겉불에 말린 후 가루 낸다. 이것을 아이의 몸집에 따라 미음에 타서 복용한다.

1. 포선(蒲扇) : 포규(蒲葵)로 만든 부채로 부채 모양 때문에 흔히 파초선이라 부른다. ↩

2. 熱 : 熟 ※문맥상 ↩

咽喉痛 인후통

[附懸雍垂、穀賊、魚骨鯁、獸骨鯁、金銀銅鉛誤吞、毒蟲毒菌誤吞.]

[부록. 현응수(懸雍垂)、곡적(穀賊)、어골경(魚骨鯁)、수골경(獸骨鯁)、금
은동연오탄(金銀銅鉛誤吞)、독충독균오탄(毒蟲毒菌誤吞).]

咽喉腫痛者, 五臟熱上熏於手太陰肺之經也, 兩傍腫生痛者, 名雙蛾, 一傍腫生痛者,
名單蛾, 以藥吹塗, 或以鍼刺出血.

목구멍이 붓고 아픈 이유는 오장의 열이 위로 수태음폐경을 훈증하기 때문이
다. 목구멍 양 옆이 부으면서 통증이 생기는 것을 쌍아(雙蛾)라고 하고, 한쪽이
부으면서 통증이 생기는 경우를 단아(單蛾)라고 한다. 약가루를 붙여 넣고 바
르거나 혹은 침으로 찔러 피를 내야 한다.

甘桔湯

감길탕

治咽喉腫痛.

목구멍이 붓고 아픈 경우를 치료한다.

桔更 三錢, 甘草 一錢.

길경 3돈, 감초 1돈.

右剉, 水煎, 食後服.

이상을 썬 후 물에 달여 식후에 복용한다.

必用方甘桔湯

《필용방》의 감길탕

上方, 加荊芥、防風、黃芩各等分, 薄荷減半. ○治風熱咽喉腫痛.

위 감길탕 처방에서 형개, 방풍, 황금 각각 같은 양과 박하 절반 분량을 더한다. ○풍사나 열사로 목구멍이 붓고 아픈 경우를 치료한다.

凉膈散

양격산

治心肺積熱, 咽喉腫痛, 及口舌生瘡, 目赤鼻紅, 大小便秘澁.

심장과 폐장에 쌓인 열로 목구멍이 붓고 아픈 경우를 치료한다. 또한 입과 혀에 창이 생기거나 눈이 충혈되면서 코가 빨개지거나 대소변이 잘 나오지 않는 경우도 치료한다.

連翹 二錢, 大黃、芒硝、甘草 各一錢, 薄荷、黃芩、山梔 各五分, 青竹葉 七片.

연교 2돈, 대황, 망초, 감초 각 1돈, 박하, 황금, 산치인 각 5푼, 청죽엽 7조각.

右剉, 入蜜少許, 同煎至半, 入硝末熔化, 去滓服.

이상을 썬다. 이것을 물에 넣고 꿀 약간과 함께 달여 절반이 되면 망초가루를 넣어 녹인 후 찌꺼기를 제거하고 복용한다.

加減凉膈散

가감양격산

退六經之熱, 又治上焦積熱.

육경(六經)의 열을 떨어뜨린다. 또한 상초에 쌓인 열을 치료한다.

連翹 二錢, 甘草 一錢半, 山梔(炒)、黃芩(酒炒)、桔更、薄荷、竹葉 各五分.

연교 2돈, 감초 1.5돈, 산치인(볶는다)、황금(술에 축여 볶는다)、길경、박하、죽엽 각 5푼.

右, 水煎服.

이상을 물에 달여 복용한다.

加減消毒飲

가감소독음

治咽喉腫痛, 胸膈滿悶, 及遍身瘡毒.

목구멍이 붓고 아프고 가슴이 더부룩하면서 답답한 경우를 치료한다. 또한 온몸에 창독이 생긴 경우를 치료한다.

牛旁子(炒研) 二錢, 大黃(酒炒)、玄參(酒洗)、荊芥穗、桔更 各一錢, 黃芩(酒炒)、連翹(去瓢)、甘草 各五分, 薄荷 三分.

우방자(볶아서 간다) 2돈, 대황(술에 축여 볶는다)、현삼(술로 씻는다)、형개수、길경 각 1돈, 황금(술에 축여 볶는다)、연교(속을 제거한다)、감초 각 5푼, 박하 3푼.

右剉, 水煎, 量宜服.

이상을 썬 후 물에 달이고 아이 몸집을 가늠하여 복용한다.

吹喉散

취후산

治小兒咽喉腫痛, 閉塞不通, 聲如引鉅.

아이의 목구멍이 붓고 아프며 목이 막혀 통하지 않아 톱을 끄는 듯한 목소리가 나는 경우를 치료한다.

白礬、馬牙硝、鵬砂、山豆根 各一錢, 辰砂 五分, 膽礬 三分, 片腦 半字.

백반·마아초·붕사·산두근 각 1돈, 진사 5푼, 담반 3푼, 편뇌 0.5자.

右研如粉, 每少許, 入竹管中, 吹喉中.

이상을 분가루처럼 곱게 간다. 한 번에 약간씩 대나무 대롱에 넣어 목구멍에 불어 넣는다.

玉鑰匙

옥약시

治急喉痺, 及纏喉風咽瘡.

갑자기 목구멍이 막힌 경우를 치료한다. 또한 전후풍(纏喉風)으로 목구멍에 창이 생긴 경우를 치료한다.

馬牙硝 三錢七分, 鵬砂 一錢二分, 白殭蠶(炒) 七分, 片腦 半字.

마아초 3.7돈, 붕사 1.2돈, 백강잠(볶는다) 7푼, 편뇌 0.5자.

右末如麵, 每少許, 入竹管, 吹入喉中.

이상을 밀가루처럼 곱게 가루 낸 후 한 번에 약간씩 대나무 대롱에 넣고 목구멍에 불어 넣는다.

孫兆吹喉方

목구멍에 약을 불어 넣는 손조(孫兆)의 방법

治急喉閉.

갑자기 목구멍이 막힌 경우를 치료한다.

白礬、黃連、皂角各等分，細末，以竹管，吹入喉中.

백반、황련、조각 각각 같은 양을 곱게 간 후 대나무 대롱에 넣고 목구멍에 불어 넣는다.

牛黃涼膈元

우황양격원

治咽喉腫痛，口舌生瘡，頰頰赤腫，脣瘡鼻瘡，膈熱痰壅，調薄荷湯，細細呷之。[方在寶鑑咽喉]

목구멍이 붓고 아프거나, 입이나 혀에 창이 생기거나, 턱이나 뺨이 빨갛게 붓거나, 입술이나 코에 창이 생기거나, 가슴에 열담(熱痰)이 응체되는 경우를 치료한다. 박하탕에 풀어서 조금씩 삼킨다. [처방은 《동의보감》 인후문에 나온다.]

一方，小兒咽喉腫痛，乳食不嚙，以吉更二三錢，入烏梅一箇，濃煎，化砂糖一兩，微溫，以匙細細灌之。○生梨去皮核，搗取汁，化白蜜，終日細呷之，極良.

어떤 서적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다. '아이의 목구멍이 붓고 아파서 젖이나 음식을 삼키지 못하는 경우의 치료법. 길경 2 - 3돈에 오매 1개를 넣고 진하게 달인 후 사당 1냥을 녹인다. 미지근하게 데워서 손가락으로 조금씩 입에 흘려 넣는다. ○생배의 껍질과 씨를 제거하고 찢어서 즙을 낸 후 백밀(白蜜)을 넣는다. 하루 종일 조금씩 먹이면 매우 효과가 좋다.'

筆鍼. 名醫錄云，李王公主患喉腫，問醫，皆曰須用鍼破，公主哭不肯，有草澤醫曰，不用鍼，只用筆頭，蘸藥腫上，霎時便潰，公主喜令試之，兩次上藥，遂潰膿出，便寬供¹，其方云，乃以鍼係筆心中，輕輕劃破而潰之，無他方也.

필침(筆鍼). 《명의록》에 이런 내용이 있다. '이 왕(李王)의 공주가 후종(喉腫)을 앓아서 의원에게 진료를 청하였다. 모두들 "반드시 침으로 찌야합니다."라고 하니 공주가 울면서 내켜하지 않았다. 어떤 시골의 의원이 "침을 쓰지 않아도 됩니다. 그저 붓 끝을 약에 찍고 후종 위에 바르면 금세 고름이 나올 것입니다."라고 하자 공주가 기뻐하며 치료를 하게 하였다. 2번 약을 바르니 결국 고름이 나왔고 목이 시원해졌다. 그 방법은 바로 침을 붓 속에 매달고 툭툭 찌러 환부를 찌고 고름을 터지게 한 것이지 별다른 방법은 없다고 하였다.'

- 申生員 [尙華] 子, 未周歲, 身熱多啼不乳者五日, 而氣急不通, 目瞪口張, 若頃刻難保, 急請吳同知志哲, 視之曰, 喉腫也, 以手指, 先入喉間探擦然後, 以鍼挾指, 入刺破之, 果膿出而差, 蓋惟手法神速者, 能爲也.
- (의안) 생원(生員) 신상화(申尙華)의 돌도 안된 아들이 몸통이 뜨겁고 계속 울면서 젖을 빨지 않은 지 5일째였다. 숨이 급하여 잘 쉬지 못하고 눈에 찻점이 없으며 입을 벌리고 있었으므로 마치 당장이라도 목숨을 보전하지 못할 것 같았다. 급히 동지(同知) 오지철(吳志哲)에게 진료를 청하니 그가 와서 보고 "후종(喉腫)입니다."라고 말하였다. 그가 손가락으로 우선 목구멍 속을 휘저은 후에 침을 손가락에 낀 채 찌러서 환부를 찌니 과연 고름이 나오면서 상태가 좋아졌다. 아마도 의술이 뛰어나면서 빠르게 판단하는 사람이라야 할 수 있는 일일 것이다.

懸雍者 [俗²項也], 聲音之關, 臟腑伏熱, 上衝咽喉, 則懸雍或長而垂, 吞嚥有妨, 以食鹽, 化白礬枯, 細末, 以筋頭蘸, 塗其上, 卽差. ○懸雍垂長久不差, 甘吉湯, 加玄參三錢, 升麻一錢半, 煎服.

현옹(懸雍) [흔히 목젖이라고 한다.] 은 목소리가 나는 관문이다. 오장육부에 잠복한 열이 위로 올라와 목구멍에 부딪히면 목젖이 간혹 길게 늘어지기도 하면서 무언가를 삼킬 때 방해가 된다. 식염을 고백반과 섞어 곱게 가루 낸 후 젖

가락 끝에 찍어서 목젖에 바르면 즉시 차도가 생긴다. ○목젖이 길게 늘어져 오랫동안 낫지 않는 경우에는 감길탕에 현삼 3돈과 승마 1.5돈을 더하고 물에 달여 복용한다.

穀賊者, 稻麥芒之類, 兒吞而掛, 在咽間不下, 取白鵝口中涎灌之, 或飴糖作大丸吞之, 或嚼食之. ○馬牙硝研細, 綿裹半錢, 含化嚥津.

곡적(穀賊)은 벼나 보리의 까끄라기 같은 것을 아이가 삼켰다가 목구멍에 걸려 내려가지 않는 것이다. 흰 거위의 침을 구하여 아이의 입에 흘려 넣는다. 혹은 엿으로 큰 환을 만들어서 삼키게 하거나 씹어 먹게 한다. ○곶게 간 마아초 0.5돈을 천에 싸서 입에 물고 있게 한 후 침으로 녹여 삼키게 한다.

魚骨鯁誤吞, 在咽不下, 取諸魚膽, 如皂子大, 溫酒化呷之, 若得吐便出, 未吐更飲, 以吐爲度. ○鵬砂噉化, 其骨脫然而失. ○皂角末, 吹鼻得嚏, 卽出.

생선 가시를 삼키고 목구멍에 걸려 내려가지 않는 경우의 치료법. 아무 생선의 쓸개를 구하여 조각자 크기만큼 따뜻한 술에 녹여서 삼키게 한다. 만약 토하면 가시가 곧 나올 것이다. 토하지 않으면 다시 토할 때까지 마시게 한다. ○붕사를 입에 물고 녹이면 가시가 빠져서 사라질 것이다. ○조각가루를 코에 붙여 넣어 재채기를 하게 하면 즉시 가시가 나온다.

獸骨鯁在咽欲死者, 金鳳子研水, 細細呷, 或竹筒灌入咽中, 其骨卽下, 但不可經牙, 恐傷齒牙, [卽鳳仙花子, 其性急速, 能透骨而軟, 庖人烹魚獸骨肉硬, 投數粒, 易軟爛, 是其驗也. ○桑木蟲屑, 醋煮飲, 卽出.]

육고기의 뼈가 목에 걸려 죽을 듯한 경우에는 금봉자(金鳳子, 봉선화 씨)를 물에 갈아 조금씩 마시게 하거나 혹은 대나무 대롱으로 목구멍에 흘려 넣으면 걸린 뼈가 곧 내려간다. 단 이에 닿지 않게 해야 하니 이가 상하기 때문이다. [금봉자는 봉선화의 씨이다. 약성이 급하고 빠르므로 뼈를 뚫어 부드럽게 할 수

있다. 요리사가 생선이나 육고기의 단단한 뼈나 살을 삶을 때 몇 알 넣으면 쉽게 부드러워지는데 이것이 그 증거이다. ○뽕나무에 기생하는 벌레가 잡아먹을 때 나온 가루를 식초에 달여 마시면 즉시 뼈가 나온다.]

金銀銅鉛之物, 誤吞在腹中, 取水銀服之, 消烔出, 金見水銀則如泥. ○縮砂濃煎飲之, 銅銀自下. ○胡桃嚼食數升, 銅錢如泥而下. ○鉛丸兒誤吞, 肥猪肉或飴糖多食, 使兒臥而轉身左右不住, 若着在一處, 則穿腸胃.

금이나 은이나 구리나 납 같은 금속을 잘못 삼켜 뱃속에 들어간 경우에는 수은을 구하여 복용하면 금속이 녹아서 배출된다. 금은 수은에 닿으면 녹는다. ○축사를 진하게 달여 마시게 하면 구리나 은이 자연히 대변으로 배출된다. ○호도 몇 되 정도를 씹어 먹으면 동전이 녹으면서 대변으로 배출된다. ○납덩어리를 아이가 잘못 삼킨 경우에는 돼지 비계나 엿을 많이 먹이고 아이를 눕힌 다음 좌우로 데굴데굴 구르면서 멈추지 않게 한다. 만약 납덩어리가 한 곳에 붙으면 워나 장이 구멍난다.

竹木刺橫掛咽間, 鉅燒赤滓酒, 熱飲, 或鐵斧磨水, 灌下. ○弓弦搥碎, 令頭散, 吞而引之, 或綿子作塊吞引, 或肥猪肉一大塊, 嚼而用力吞之, 飴糖亦吞下.

대나무나 나무 가시가 목구멍에 걸렸을 때는 톱을 불에 빨갱게 달궈다가 술에 담금질한 후 술이 뜨거울 때 마신다. 혹은 쇠도끼 간 물을 입에 흘려 넣는다. ○활시위를 공으로 두드려서 한쪽 끝이 풀어지게 만들고 입에 삼킨 후 잡아 당긴다. 혹은 실을 뭉쳐서 삼키게 한 후 잡아 당긴다. 혹은 돼지 비계 큰 것 1덩이를 씹다가 억지로 삼키게 하고 엿도 삼켜 넘기게 한다.

小兒誤吞毒蟲毒菌中毒, 香油多灌服, 或蜜多服, 解毒殺蟲.

아이가 독충이나 독버섯을 잘못 먹어 중독된 경우에는 참기름을 입에 많이 흘려 넣거나 꿀을 많이 먹이면 독이 풀리면서 벌레가 죽는다.

- 一女兒, 大便欲放, 輒大哭驚跳, 幾至昏窒, 余試批開肛門, 有魚骨梗橫在肛中, 周回拔之, 兒即放便, 概小兒拾食雜物而致然也, 但未知如此大骨梗, 小兒何能

呑嚥, 可怪.

- (의안) 어떤 여자아이가 대변을 누려다가 갑자기 영영 울면서 놀라 도망갔는데 거의 정신이 혼미하고 숨이 막힌 듯한 상태였다. 내가 아이의 항문을 벌려보니 생선 가시가 항문에 가로질러 걸려있었다. 살살 돌리면서 가시를 빼니 아이가 즉시 대변을 누었다. 대체로 아이들은 이것저것을 주워 먹어 그렇게 된다. 다만 의아한 점은 이렇게 큰 가시를 아이가 어떻게 삼켰는가 하는 점이다. 참으로 이상한 일이다.

1. 寛供 : 寛洪 ※문맥상 ↩

2. 俗 : 俗자는 원본에 작은 글자가 아니지만 문맥상 작은 글자로 표현하였다.

↩

諸瘡 제창(諸瘡)

疥癬瘡, 皆血分熱燥, 以致風毒剋於皮膚也, 浮淺而如被甲狀者, 疥瘡, 沈深而如苔蘚狀者, 癬瘡, 乾疥者, 皮屑起, 濕疥者, 焮腫作痛, 汁流漓漓, 蟲疥者, 痒不知痛, 易於傳染, 并溫泉浴, 可也.

개창(疥瘡)과 선창(癬瘡)은 모두 혈분(血分)이 뜨겁고 건조해져 풍독(風毒)이 피부로 뚫고 나온 것이다. 피부 가까이에 딱지가 앉은 것 같은 모양을 한 것이 개창이고, 피부 깊숙이 이끼 낀 것 같은 모양을 한 것이 선창이다. 건개(乾疥)는 피부에 가루가 생기고, 습개(濕疥)는 화끈거리며 붓고 아프며 진물이 계속 흐르고, 충개(蟲疥)는 가렵기만 하고 아프지는 않으며 쉽게 옴는다. 모두 온천에 목욕을 하면 좋다.

神異膏

신이고

治一切疥癬瘡惡瘡, 浸淫不合.

개창(疥瘡), 선창(癬瘡), 악창(惡瘡) 등이 번져 아물지 않는 경우를 치료한다.

蛇床子、苦參 各二兩, 皂角 一兩, 雄黃(末) 七錢, 巴豆(去殼) 二十粒, 輕粉 一錢, 全蝎 三十箇.

사상자·고삼 각 2냥, 조각 1냥, 옹황(가루) 7돈, 파두(껍데기를 제거한다) 20알, 경분 1돈, 전갈 30개.

右剉, 先將香油五合煎, 入蛇床、苦參、皂角、巴、蝎熬, 至色焦黑去滓, 次入黃臘、松明脂各五兩, 更熬, 至滴水成珠, 入雄黃、輕粉, 攪勻成膏, 取出貯器, 先以藥水洗, 後染絁上攤膏貼之.

이상을 쓴다. 우선 참기름 5홉을 달이다가 사상자、고삼、조각、파두、전갈을 넣고 졸이고 색깔이 검어지면 찌꺼기를 제거한다. 그다음 황랍(黃臘)、송명지(松明脂) 각 5냥을 넣고 다시 졸인다. 물에 떨어뜨려 보아 구슬처럼 뭉쳐 있는 상태가 되면 옹황、경분을 넣고 잘 저으면서 고약처럼 만든다. 완성되면 꺼내어 그릇에 담아 놓는다. 사용할 때는 우선 약숫물로 환부를 씻은 후 천에 펴 바르고 천을 환부에 붙인다.

俗方, 治蟲疥, 以信石末少許, 入於熟艾中, 和勻, 如彈子大, 盛砂椀中, 脫衣擁衾, 燒煙熏之, 此藥至毒, 慎用之. ○苦參、吳茱萸、荊芥等分, 麝末, 和艾葉, 燒煙熏之, 如上法. ○羊蹄根洗去土, 搗爛, 和米醋, 入小缸內, 封口置溫處, 經一宿取出, 以汁塗瘡處, 日頻塗之.

민간요법. 총개(蟲疥)를 치료하려면 신석가루 약간을 숙애(熟艾)에 넣고 잘 섞어 탄자 크기 정도로 만든 후 사발에 담는다. 옷을 벗고 이불을 뒤집어 쓴 채로 숙애를 태워 그 연기로 훈증한다. 이 약은 매우 독하므로 조심하여 써야 한다. ○고삼、오수유、형개 각각 같은 양을 거칠게 가루 내고 애엽(艾葉)과 섞은 후 태워서 연기로 훈증하되 위와 같이 옷을 벗고 이불을 뒤집어 쓴 채로 훈증한다. ○양제근(羊蹄根)을 씻어 흙을 제거하고 짓찧은 후 쌀식초와 섞는다. 이것을 작은 항아리에 넣고 입구를 봉한 후 따뜻한 곳에 둔다. 하룻밤이 지나고 꺼내어 그 국물을 창이 난 곳에 자주자주 바른다.

洗法

창이 난 곳을 씻는 방법

何首烏、艾葉, 或葱白、川椒、槐枝之類濃煎, 浸而洗之, 荊芥、蒼、蛇毒草、苦參、桑、桃、柳、槐等枝煎洗, 亦可.

하수오、애엽이나 혹은 총백、천초、괴지(槐枝) 같은 것을 진하게 달인 후 환부를 담근 채 씻는다. 형개、희침、사매초、고삼이나 뽕나무、복숭아나무、버드나무、괴화나무의 나뭇가지를 달여서 씻어도 괜찮다.



楊梅瘡 양매창

[一名天泡瘡, 俗云唐瘡.]

[일명 천포창(天泡瘡)이라고도 한다. 민간에서는 당창(唐瘡)이라고 부른다.]

小兒楊梅瘡者, 乳母曾有此患, 自乳絡傳染於兒也, 與壯盛人交接傳染者, 有異, 兒漸長, 氣血充實, 病根自除, 勿用毒藥治之, 其瘡發於頭面, 或口吻, 或陽莖, 無處不生而不作痂, 涓涓不合, 治法, 天花粉・川芎各四兩, 槐花炒一兩, 細末, 蜜丸菉豆大, 空心, 米飲下四五十丸, 久服乃效. [小兒在胎中得此疾者重, 乳道傳者輕.]

소아의 양매창(楊梅瘡)은 유모가 예전에 이 병을 앓은 적이 있어서 젖을 통해 아이에게 전염된 것이다. 성인의 접촉 감염과는 다르다. 아이가 점차 자라면서 기와 혈이 충실해지면 병의 뿌리가 자연히 뽑힐 것이니 독한 약으로 치료하지 말아야 한다. 소아의 양매창은 머리나 얼굴에 나거나 입이나 입술 혹은 음경에 나면서 나지 않는 곳이 없고, 딱지가 생기지 않아 계속 진물이 흐르면서 아물지 않는다. 치료법은 다음과 같다. 천화분・천궁 각 4냥, 괴화(볶는다) 1냥을 곱게 가루 낸 후 꿀에 개어 녹두 크기로 환을 빚는다. 빈속일 때 미음으로 40 - 50환을 먹이되 오랫동안 복용해야 효과가 있다. [아이가 뱃속에 있을 때 이 병에 걸리면 증상이 심하고, 젖을 통해 전염되면 증상이 가볍다.]

換肌消毒散

환기소독산

治楊梅瘡, 不拘初患日久, 并皆服.

양매창을 치료한다. 병이 최근에 걸렸건 오래 전에 걸렸건 상관 없이 모두 복용한다.

土茯苓、當歸、白芷、白蘚皮、木瓜、薏苡仁、皂角刺、甘草 各等分.

토복령、당귀、백지、백선피、목과、의이인、조각자、감초 각각 같은 양.

右剉, 水煎, 令乳母服, 少許與兒服. ○我國土茯苓, 非真乃假也, 比諸中國, 大不相似.

이상을 썬 후 물에 달여 유모에게 복용하게 하고 아이에게도 약간 복용하게 한다. ○우리나라의 토복령은 진품이 아니라 하품이니 중국산에 비하면 약효가 크게 따라가지 못한다.

浸淫瘡者, 小兒胸脊腹脇腿脚上瘡如疥癬, 而皮脫汁流, 蔓延漸大浸淫, 久不合也, 宜貼神異膏 [方見上] .

침음창(浸淫瘡)은 아이의 가슴、등、배、옆구리、허벅지、다리에 개창이나 선창 같은 창이 생기면서 피부가 벗겨지고 진물이 흐르는 것인데 점점 번지고 진물이 나면서 오랫동안 아물지 않는다. 신이고 [처방은 위에 나온다] 를 환부에 붙여야 한다.

苦瓠散

고호산

治小兒浸淫瘡, 漸展不止.

아이의 침음창(浸淫瘡)이 점점 번지면서 멈추지 않는 경우를 치료한다.

苦瓠 二兩, 蛇蛻(燒灰)、蜂房(微炒) 各一兩半, 梁上塵 一合.

고호 2냥, 사태(태워서 재로 만든다)、봉방(살짝 볶는다) 각 1.5냥, 양상진 1홉.

右細末, 生豬脂調, 塗瘡上.

이상을 곱게 가루 낸 후 생저지(生豬脂)에 개어 환부에 바른다.

月食瘡, 耳後生瘡, 隨月盛衰, 久不完合.

월식창(月食瘡)은 귀 뒤에 창이 생겨 달의 모양에 따라 심해지거나 약해지면
서 오랫동안 아물지 않는 것이다.

胡粉散

호분산

治小兒耳後生瘡, 月滿則盛, 月虧則衰, 或穿孔膿出不合.

아이의 귀 뒤에 창이 생겨 달이 차면 증상이 심해지고, 달이 이지러지면 증상
이 약해지며 간혹 구멍이 뚫리면서 고름이 나와 아물지 않는 경우를 치료한다.

胡粉(炒黃)、枯礬、黃丹(煨)、黃連(炒) 各一錢, 乾胭脂 五分, 輕粉 三分, 麝香 少
許.

호분(누렇게 볶는다)、고반、황단(불에 달군다)、황련(볶는다) 각 1돈, 건연
지 5푼, 경분 3푼, 사향 약간.

右細末, 香油調付, 濕則乾糝, 有孔, 作錠舂入孔中.

이상을 곱게 가루 낸 후 참기름에 섞어 바른다. 환부가 습하면 가루만 뿌리고,
구멍이 있으면 약을 환으로 만들어 구멍에 삽입한다.

蛇纏瘡, 小兒背脇間, 生如粟米疹癩, 色赤焮痛, 手不可近, 漸至蔓延, 如蛇纏形, 此
熱毒瘡, 導赤散 [方見急驚], 加牛旁子、升麻煎服. ◦生芎或牛旁根, 搗爛貼之.

사전창(蛇纏瘡)은 아이의 등이나 옆구리 부근에 좁쌀같은 진절(疹癩)이 생기
면서 빨갱게 쓰라리며 아파 손도 못대게 하고 점점 번져서 마치 뱀이 휘감는
형태를 띠는 것이다. 이것은 열독 때문에 생기는 창이다. 도적산 [처방은 급경
(急驚)문에 나온다] 에 우방자、승마를 더하여 달여 먹인다. ◦생지황이나 우
방근(牛旁根)을 짓찧어 환부에 붙인다.

湯火瘡, 凡湯火燒傷, 初時急向火灸之, 忍一時, 卽不痛, 慎勿以冷物搗之, 熱毒不出, 潰爛, 以黃栢、大黃等分, 爲末, 鷄子清或井水調付. ○火燒傷, 以好酒洗後, 食鹽付之, 上皮脫者, 以阿膠酒, 熬塗之. ○白蜜塗之, 或生梨切片貼之, 不爛止痛, 生胡麻嚼付之, 并治湯火熱油傷. ○醋泥滓貼付, 無痕.

탕화창(湯火瘡)은 뜨거운 것이나 불에 데인 상처로 초기에 재빨리 불을 향해 뜨겁게 하면서 1시진 정도 참으면 금세 통증이 없어진다. 절대 차가운 것을 환부에 대지 말아야 하니 열독이 나오지 못하여 살이 문드러지기 때문이다. 황백과 대황 각각 같은 양을 가루 내고 달걀흰자나 정화수에 타서 환부에 바른다. ○불에 덴 상처는 좋은 술로 씻은 후에 식염을 바른다. 피부가 벗겨진 경우에는 아교주를 졸여서 바른다. ○백밀을 바르거나 혹은 생배를 썰어 붙이면 피부가 짓무르지 않고 통증이 멎는다. 생호마(生胡麻)를 씹어서 붙이면 뜨거운 것이나 불이나 기름에 데인 상처를 두루 치료한다. ○식초에 가라앉은 건더기를 환부에 붙이면 흉터가 남지 않는다.

凍瘡, 瘡潰汁流痒痛, 香油或猪油, 松脂、黃蠟同煮爲膏, 攪勻貯器, 以艾葉、川椒煎湯浸洗後, 塗瘡處. ○鷄雉兔等頭腦髓, 以五倍子煎湯洗後, 塗之. ○凍傷成瘡, 赤腫焮熱痒痛處, 以鍼刺去惡血後, 膏藥塗之, 或以乾馬糞裹封.

동창(凍瘡)으로 창이 문드러지면서 진물이 흐르고 가려우며 아픈 경우의 치료법. 참기름(혹은 돼지기름)과 송지、황랍을 한꺼번에 달여 고약처럼 만들면서 잘 저어준 후 그릇에 담아 놓는다. 애엽과 천초 달인 물에 환부를 담근 채 씻은 후 고약을 환부에 바른다. ○오배자 달인 물로 환부를 씻은 후 닭이나 꿩이나 토끼의 뇌수를 바른다. ○동상으로 창이 생긴 경우에는 빨갭게 부으면서 화끈거리고 가렵고 아픈 곳을 침으로 찔러 검은 피를 짜낸 후 고약을 바르거나 혹은 마른 말뚱으로 싸 놓는다.

漆瘡, 人有惡漆者見漆, 卽中毒, 皮生粟米搔痒, 仍成瘡癢, 蔓延肢體, 葱白、川椒、艾葉濃煎湯淋洗後, 取生蟹漿汁塗之, 或石蟹搗取汁塗之. ○柳葉煎湯洗後, 以生薑眞汁塗之, 或川椒、蘇葉煎湯洗後, 鷄子清塗之. ○謹避風寒, 勿犯惡氣, 嚴寒冬節,

貧賤子女, 滿體漆瘡, 不能調護, 仍成浮腫, 而不救者多矣.

칠창(漆瘡)은 옷을 타는 사람이 옷에 닿으면 중독되는 것으로 피부에 좁쌀 같은 것이 생기면서 가려운 데다가 창이(瘡癢)가 생기면서 온몸에 퍼지는 것이다. 총백·천초·애엽을 진하게 달인 물을 환부에 부으면서 씻은 후 익히지 않은 계장의 국물을 바르거나 혹은 가재 찢은 즙을 바른다. ○버들잎 달인 물로 환부를 씻은 후 생강 으깬 즙을 바른다. 혹은 천초와 소엽 달인 물로 씻은 후 달걀흰자를 환부에 바른다. ○칠창이 있으면 바람이나 찬 공기를 쐬지 말아야 하며 악기(惡氣)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 엄동설한에 가난한 아이들이 온몸에 칠창이 생기면 제대로 조리할 수 없어 결국 부종이 생기면서 목숨을 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雜病經驗 잡병경험

- 一村漢子六歲, 喫皮栢子, 猝有咳嗽, 晝夜不止者八年, 而食飲動作如常, 但形瘦骨立, 大便乾燥, 三四日或六七日一放, 余教以栢子仁作粥, 長服, 使潤肺脾, 始服大吐, 吐中有小片和出, 視之, 乃栢子殼也, 自此咳嗽頓失, 肥肉漸復, 大便如常, 因成完人, 概其咳嗽及大便乾燥, 以皮殼貼於喉肺間故也, 以此觀之, 古方泝源散之理, 可謂神妙矣.
- 〔의안〕 어떤 촌부(村夫)의 아들이 6살 때 잣을 껍질째 먹고는 갑자기 기침을 하면서 밤낮으로 그치지 않은 지 8년이 되었다. 음식을 먹는 것이나 움직이는 것은 멀쩡하고 다만 몸이 말라 뼈가 앙상하고 대변이 바짝 말라 3 - 4일이나 6 - 7일에 한 번 눈다고 하였다. 내가 잣죽을 쑤어 오랫동안 복용하면서 폐장과 비장을 촉촉하게 해주라고 일러주었다. 처음에 잣죽을 복용하고 크게 토했을 때 토 속에 작은 조각이 섞여 나왔기에 자세히 보니 잣의 껍데기였다. 이 때부터 기침이 급감하고 살이 다시 점점 붙었으며 대변도 정상으로 돌아와 결국 온전하게 성장하였다. 아마 그 아이가 기침을 하고 대변이 바짝 마른 것은 잣의 껍데기가 목구멍과 폐장 부근에 붙어있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이 일로 본다면 옛 방서에 나오는 소원산(泝源散, 제원산除源散을 말한다)의 이치가 참으로 신묘하다고 할 만하다.
- 一小兒, 聞隣家霹靂聲, 驚倒窒塞, 翌日午乃醒, 然神識殊不了了, 而發笑不止, 問其故, 答云, 有兒來戲於前, 如是月餘, 苦歇無常, 清心治痰鎮驚之劑, 累試罔效, 余曰, 此心虛, 神不守舍而致然, 若心氣實, 自無驚窒之患, 人參煎湯, 吞壯元丸, 兼服加減溫膽湯而愈.
- 〔의안〕 어떤 아이가 이웃집에서 나는 벽력과 같은 소리를 듣고 놀라 자빠지면서 숨이 막혔다가 다음날 오후에야 깨어났다. 그러나 정신이 거의 또렷하지 않고 웃음을 그치지 않아 왜 그런지 물어보니 '어떤 꼬마가 앞에 와서 놓고 있어

요.'라고 대답하였다고 한다. 이와 같은 상태로 한달 남짓을 보냈으나 증상이 심했다가 좀 덜했다가 하는 것이 일정하지 않았다. 가슴의 열을 씻어내거나 담음을 치료하거나 경기를 진정시키는 약을 누차 복용했으나 효과가 없었다. 내가 "이 증상은 심장의 기가 허약해져 정신이 제자리에 붙어있지 못하여 그런 것입니다. 만약 심장의 기가 충실해지면 자연히 경기나 숨이 막히는 증상이 없어질 것입니다."라고 말하고 인삼 달인 물로 장원환을 삼키게 하면서 동시에 가감온담탕을 복용하게 했더니 좋아졌다.

加減溫膽湯

가감온담탕

治痰迷心竅, 神不守舍, 驚恐傷心, 心不自安, 神出舍空, 使人驚悸, 怔忡煩亂, 叫罵奔走, 不識人.

담음이 심장의 구멍을 막아 정신이 제자리에 붙어있지 못하거나 깜짝 놀라거나 마음이 편안하지 못하거나 정신이 나가거나 다른 사람에게 놀라 떨거나 무서워하면서 불안해하거나 소리지르며 욕하면서 뛰어다니거나 사람들을 알아보지 못하는 경우를 치료한다.

赤茯苓、半夏、陳皮、枳實、梔子(炒)、白朮、麥門冬、黃連 各一錢, 當歸、酸棗仁(炒)、竹茹 各八分, 人參 六分, 辰砂(水飛) 五分, 甘草 三分.

적복령、반하、진피、지실、치자(볶는다)、백출、맥문동、황련 각 1돈, 당귀、산조인(볶는다)、죽여 각 8푼, 인삼 6푼, 진사(수비한다) 5푼, 감초 3푼.

右剉, 入薑三棗二, 烏梅一, 水一盞半, 煎至一盞, 調辰砂、竹瀝、薑汁服.

이상을 썬다. 생강 3조각, 대조 2개, 오매 1개와 함께 물 1.5잔에 넣고 달이다가 1잔이 되면 진사、죽력、생강즙을 타서 복용한다.

壯元丸

장원환

補心血, 寧神定志, 健忘怔忡, 及不善記多忘者, 服之.

심장의 혈을 보충하고 정신을 편안하고 안정되게 한다. 건망(健忘)이나 정충(怔忡)이나 기억을 잘 하지 못하고 계속 잊는 경우에 복용한다.

遠志(製)、龍眼肉、生乾苳(酒洗)、玄參(酒洗)、石菖蒲、朱砂 各三錢, 人參、白茯苓、當歸(酒洗)、酸棗仁(炒, 去皮)、麥門冬、栝子仁(去油) 各二錢, 金箔 三分.

원지(법제한다)、용안육、생건지황(술로 씻는다)、현삼(술로 씻는다)、석창포、주사 각 3돈, 인삼、백복신、당귀(술로 씻는다)、산조인(볶은 후 껍질을 제거한다)、맥문동、백자인(기름을 제거한다) 각 2돈, 금박 3푼.

右末, 獐猪心血, 和丸菉豆大, 金箔爲衣, 糯米湯下二三十丸, 金箔內入無妨.

이상을 가루 낸 후 분저(獐猪, 거세한 돼지) 심장의 피와 섞어 녹두 크기로 환을 빚고 금박을 입힌다. 찹쌀 끓인 물로 20 - 30환을 넘긴다. 금박은 입히지 않고 약재로 넣어도 무방하다.

- 趙大諫 [迪命] 子, 兒時善病, 聞雨聲則輒出見悲泣, 雨晴乃止, 余曰, 悲生於手太陰肺, 泣生於足厥陰肝, 淚生於手少陰心, 此乃三陰經, 陰盛陽微之致也, 四君子湯 [方見吐瀉], 加乾薑、肉桂、益智仁、遠志、石菖蒲煎服, 兼服定志丸, 合朱砂安神丸 [方見癰疾] 而安.
- [의안] 대간(大諫) 조적명(趙迪命)의 아들이 어릴 때 병에 잘 걸렸는데 빗소리를 들으면 갑자기 슬피 울다가 비가 개면 울음을 그쳤다. 내가 "슬픔은 수태음 폐경에서 생기고, 울음은 족궐음간경에서 생기며, 눈물은 수소음심경에서 생깁니다. 이 3가지는 바로 음경(陰經)이니 음기가 왕성해져 양기가 미약해진 것 같습니다."라고 말하고는 사군자탕 [처방은 토사문에 나온다] 에 건강、육계、익지인、원지、석창포를 더하여 달여 복용하게 하고 정지환과 주사안신환 [처방은 간질문에 나온다] 을 함께 복용하게 하니 편안해졌다.

定志丸

정지환

治心氣不足, 惓惓喜忘, 神魂不安, 驚悸恐恟.

심장의 기가 부족해져 깜빡깜빡 잘 잊고 정신이 불안하며 놀라서 떨고 두려워하는 경우를 치료한다.

人參、白茯苓、白茯苓 各三兩, 遠志(製)、石菖蒲 各二兩, 辰砂 一兩(半入半衣).

인삼, 백복신, 백복령 각 3냥, 원지(법제한다), 석창포 각 2냥, 진사 1냥(절반은 넣고, 절반은 겉에 입힌다).

右末, 蜜丸小豆大, 每五七十丸, 米飲下.

이상을 가루 낸 후 꿀에 개어 소두 크기로 환을 빚는다. 한 번에 5 - 10환씩 미음으로 넘긴다.

及幼方卷之十三 급유방 권13

橫城 趙廷俊重卿 集

황성 조정준(趙廷俊, 字 重卿) 편저



本草發明 본초발명

人參

인삼

人參甘溫, 神農云小寒. 又曰, 生參涼, 高秋清肅之氣, 天之陰也, 熟參溫, 陽春生發之氣, 天之陽也, 氣味俱薄, 氣之薄者, 生降熟升, 味之薄者, 生升熟降, 如土虛火旺之病, 則宜生參涼薄之氣, 以瀉火而補土, 脾虛肺怯之病, 則宜熟參甘溫之味, 以補土而生金. 又曰, 人參回元氣於無何有之鄉, 眞起死回生之聖藥. 本經曰, 參參也, 久服補元氣, 有參贊之功, 安魂定魄, 開心益智, 止驚悸, 除邪氣, 生津止渴, 輕身延壽. 凡勞傷肺脾, 陽氣不足, 喘促氣短少氣, 最妙, 惟陰虛火動, 咳嗽吐血, 及久病鬱火在肺者, 慎用, 久服, 輕身延年. [一名神草, 一名土精, 形如人者神, 竹刀刮暴乾, 勿見風, 和細辛密封, 經年不壞.]

인삼은 성미가 달고 따뜻하다. 《신농본초경》에서는 조금 차갑다고 하였다. 그리고 어떤 책에서 '생삼은 성미가 서늘하여 가을철의 숙살하는 기운과 같으니 천(天) 중에 음(陰)이요, 숙삼은 성미가 따뜻하여 봄철의 생발하는 기운과 같으니 천(天) 중에 양(陽)이다. 인삼은 기와 맛이 모두 얇다. 기가 얇은 약재는 생째로 쓰면 내려가고 익혀서 쓰면 올라가는 성질이 있다. 맛이 얇은 약재는 생째로 쓰면 올라가고 익혀서 쓰면 내려가는 성질이 있다. 비토(脾土)가 허하여 심화(心火)가 왕성한 병의 경우에는 생삼의 서늘하고 얇은 기를 써서 심화를 사해주면서 비토를 보해야 하고, 비장이 허하고 폐장이 약해진 병의 경우에는 숙삼의 달고 따뜻한 맛으로 비토를 보하면서 폐금(肺金)을 살려야 한다.'고 하였다. 또한 '인삼은 무하유지향(無何有之鄉)으로 원기를 되돌리므로 참으로 기사회생하게 만드는 성약이다.'라고도 하였다. 《본경》에서 말하였다. '인삼의 삼(參)자는 참여한다는 의미이다. 오랫동안 복용하면 원기를 보충하니 참여하여 돕는 공이 있다는 의미이다. 정신을 안정시키고 생각이 트이고 지혜가 더해

지며 경계(驚悸)를 멎게 하고 사기를 제거하며 진액을 만들어 갈증을 멈추고 몸을 가볍게 하며 수명을 연장시킨다. 허로로 폐장과 비장이 상하고 양기가 부족해져 숨을 헐떡이거나 호흡이 짧아지는 데 가장 좋다. 다만 음허화동으로 피가 섞인 기침을 하는 경우나 오랜 병으로 울체된 화가 폐장에 있는 경우에는 신중하게 사용해야 한다. 오래 복용하면 몸을 가볍게 하고 수명을 연장한다.' [신초(神草), 토정(土精)이라고도 부른다. 모양이 사람과 비슷한 것이 신효하다. 대나무칼로 잘라 벌레에 말려 쓰고 바람을 맞히지 말아야 한다. 세신과 함께 밀봉해 놓으면 몇 년이 지나도 썩지 않는다.]

- 按. 人參之性味治症, 詳載本草, 更無可論, 而但今人認人參, 爲大熱有毒之料, 用若不利, 輒以爲誤服人參之致, 由是而良工掣肘, 惟求免夫病家之怨, 病家亦以此說, 橫却胸臆, 至死不悟, 良可歎也, 蓋人參之宜用不宜用, 古亦有此說, 而豈有如今之甚者乎, 無¹乃術家之猜激而然耶, 抑或俗醫之不識藥性而然乎, 故引本草以明之.
- [안어] 인삼의 성미와 주치는 《본초》에 상세히 실려 있으니 따로 논할 필요가 없다. 다만 요즘 사람들이 인삼을 매우 뜨거우며 독이 있는 약재로 인식하기 때문에 약을 썼을 때 불리하게 되면 문득 인삼을 잘못 복용한 결과라고 여기는데 이런 일 때문에 좋은 의원도 팔짱을 낀 채 오직 환자의 원망에서 벗어나려고만 하고, 환자 쪽도 이런 소문을 가지고 멋대로 억측한 채 죽음에 이르러도 깨닫지 못하고 있으니 참으로 한심한 일이다. 아마 인삼이 적당한지 적당한지 않은지는 옛날에도 이런 소문이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어찌 요즘처럼 심한 경우가 있었겠는가. 도대체 알지 못하겠다. 의원들끼리 시기하고 감정이 격해져서 그런 것인가, 아니면 혹시 용렬한 의원들이 약성을 알지 못해 그런 것인가. 이런 일 때문에 《본초》의 내용을 인용하여 밝혀 놓는다.

沙參

사삼

沙參甘寒, 補中益氣, 安五臟, 解肌熱心腹結熱, 治卒疝氣下墜, 居常欲眠而多驚煩. ○易老常以此代人參, 取其味甘也, 時珍曰, 人參甘溫, 其體重實, 專補脾胃元氣, 因以益肺與腎, 故內傷元氣者宜之, 沙參甘淡, 其體輕虛, 專補肺氣, 因而益脾與腎, 故金能受火剋者宜之, 一補陽而生陰, 一補陰而生陽, 久服則利人. [卽今沙參非眞, 而惟我國豐川產者, 與中國沙參同, 是眞沙參也, 中國漂海人來, 採於我國, 西海邊沙場, 處處有之.]

사삼은 성미가 달고 차갑다. 위기(胃氣)를 보하고 기를 더하며 오장을 편안하게 하고 기육의 열이나 배에 뭉친 열을 풀어 준다. 갑자기 산증으로 음낭이 늘어지는 경우나 계속 자려고 하면서 자꾸 놀라며 답답한 경우를 치료한다. ○역로(易老, 장원소)는 항상 사삼으로 인삼을 대신했다고 하니 사삼의 성미가 달다는 점을 취한 것이다. 이시진이 말하였다. "인삼은 성미가 달고 따뜻하며 뿌리가 묵직하고 단단하여 오로지 비위의 원기를 보함으로써 결국 폐장과 신장까지 이롭게 만든다. 그러므로 내상으로 원기가 손상된 경우에 적합하다. 사삼은 성미가 달고 담박하며 뿌리가 가볍고 푸석푸석하여 오로지 폐장의 기운을 보함으로써 결국 비장과 신장까지 이롭게 만든다. 그러므로 폐금이 심화의 사기를 받게 된 경우에 적합하다. 인삼은 양기를 보하여 음기가 생기게 하고 사삼은 음기를 보하여 양기가 생기게 하니 오랫동안 복용하면 사람에게 이롭다." [요새 사삼이라고 하는 것들은 진품이 아니다. 오직 우리나라 풍천에서 나는 것만 중국의 사삼과 같으니 이것들만 사삼 진품이다. 중국 사람이 배를 타고 와서 캐간다. 우리나라 서해안 백사장 곳곳에 자란다.]

黃芪

황기

黃芪甘溫, 補五臟, 益元氣, 實腠理, 固表斂汗, 溫補脾胃, 止腹痛吐瀉, 托裏排膿, 俗呼爲羊肉, 生津止渴, 瀉陰火, 退虛熱, 治小兒百病. [肥白多汗者, 服之有功, 蒼黑表實者, 不可服, 瀉火生用, 肺虛蜜水浸炒用. ○得防風, 其功愈大. ○綿軟箭幹者佳.]

황기는 성미가 달고 따뜻하다. 오장을 보하고 원기를 더하며 주리를 튼실하게 하고 표부를 튼튼하게 하여 땀을 수렴시키며 비장과 위를 따뜻하게 하면서 보한다. 복통이나 구토나 설사를 멎게 하고 몸속을 튼튼하게 만들어 고름을 밀어낸다. 사람들이 '양고기'라고 부른다. 진액을 만들어 갈증을 멎게 하고 음화(陰火)를 사하며 허열을 떨어뜨린다. 소아의 여러 가지 병을 치료한다. [살찌고 피부가 희며 땀이 많은 사람이 복용하면 효과가 있다. 살이 검고 피부가 탱탱한 사람은 복용하지 않아야 한다. 화기를 사하려면 생것을 쓰고 폐기가 허하면 꿀물에 담갔다가 볶아서 쓴다. ○방풍과 함께 쓰면 약효가 더욱 커진다. ○숨처럼 부드럽고 화살처럼 줄기가 곧은 것이 진품이다.]

白朮

백출

白朮甘溫, 健脾胃, 止吐瀉, 除寒濕, 消浮脹痰結心痞, 破癥癖宿食, 治腹冷痛, 生津止渴. [生用瀉胃火, 黃土炒補脾.]

백출은 성미가 달고 따뜻하다. 비위를 튼튼하게 한다. 구토와 설사를 멎게 하고 한사와 습사를 없애며 부창(浮脹)과 담결(痰結)과 심비(心痞)를 사그라뜨리고 적벽(積癖)이나 묵은 음식을 깨뜨린다. 냉복통을 치료하고 진액을 만들어 갈증을 멎게 한다. [생으로 쓰면 위의 화기를 사하고, 황토와 함께 볶아서 쓰면 비장을 보한다.]

蒼朮

창출

蒼朮辛烈, 治風寒濕痺, 寬中發汗, 破痰水窠囊痼氣塊, 却瘴嵐, 止霍亂吐瀉, 消浮脹. [血虛怯弱者, 慎用. ○補中除濕, 力不及白, 寬中發汗, 功過於白.]

창출은 성미가 맵고 강렬하다. 풍비(風痺)·한비(寒痺)·습비(濕痺)를 치료한다. 뱃속을 편안하게 하고 땀을 내며 담음·멍울·현벽·기괴(氣塊)를 깨뜨린다. 산람장기를 물리치고 객란토사를 멎게 하며 부창(浮脹)을 사그라뜨린다.

[혈이 허하고 몸이 약한 사람은 조심하여 사용해야 한다. ◦증기를 보하고 습기를 없애는 효능은 백출에 미치지 못하고, 뱃속을 편안하게 하고 땀을 내는 효능은 백출보다 낫다.]

白茯苓

백복령

白茯苓甘平, 滲濕利小便, 開胸膈, 泄逆氣, 伐腎邪, 養心神, 益氣血. ◦赤者, 瀉心小腸火, 通水道, 分利水穀. [茯苓茯神, 俱忌醋酸物.]

백복령은 약성이 달고 평이하다. 습기를 배출하여 소변을 잘 나가게 하고 흉격을 시원하게 열어주며 거슬러 오르는 기를 배출하고 신장의 사기를 공격하며 정신을 길러주고 기와 혈을 더해준다. ◦적복령은 심장과 소장의 화기를 사하고 소변을 소통시키며 대소변을 제대로 나가게 한다. [복령과 복신은 모두 식초나 신 음식을 피해야 한다.]

白茯神

백복신

白茯神, 療驚悸善忘, 安神定魄, 開心益智, 消心下堅, 通小便, 辟不祥. [神農本草, 無赤白之分, 後添茯神之別, 而白補赤瀉之分.]

백복신은 경계나 건망을 치료하고 정신을 안정시키며 생각을 넓히면서 지혜를 더한다. 명치의 딱딱한 것을 사그라뜨리고 소변을 통하게 하며 상서롭지 못한 것을 물리친다. [《신농본초경》에는 적복신과 백복신의 구분이 없다. 훗날

에 복신의 구별이 추가되면서 백복신은 보하고 적복신은 사한다는 것으로 구분되었다.]

甘草

감초

甘草甘溫, 治腹中急痛, 咽喉腫痛, 補脾潤肺, 調和諸藥, 解百藥毒, 外赤內黃, 色兼坤離, 味厚氣薄, 資全土德, 協和群品, 有元老之功, 可謂藥中之良相, 大抵脾胃氣有餘, 如心下滿及腫脹, 嘔吐痢疾初作, 皆不可用, 下焦藥亦少用, 恐緩不能達, 凡藥宜少用, 多則泥膈. [生用瀉火, 炙用散寒.]

감초는 약성이 달고 따뜻하다. 뱃속이 당기면서 아프거나 목구멍이 붓고 아픈 경우를 치료한다. 비장을 보하고 폐장을 촉촉하게 하며 여러 약재를 조화시키고 약재의 독성을 풀어준다. 겉은 붉고 속은 노란색이므로 곤(坤)괘와 이(離)괘를 겸한 형상이고, 맛은 진하고 기는 얇으니 바탕은 토(土)의 덕을 온전히 갖추었다고 할 수 있다. 여러 가지를 아우르고 조화시키는 원로 같은 효과가 있으므로 약 중에 훌륭한 재상이라 할 만하다. 대체로 비위의 기가 남아돌아만 약 명치 부근이 더부룩하면서 붓고 뻥뻥해지거나 구토하거나 이질 초기에는 모두 쓰지 말아야 한다. 하초를 치료하는 약에 쓰는 경우도 드문데 약성이 느긋하여 하초까지 도달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감초는 모든 처방에 적게 써야 하니 분량이 많아지면 흥격을 끈적하게 만든다. [생것을 쓰면 화기를 사하고, 구워서 쓰면 한사를 흘린다.]

山藥

산약

山藥甘溫, 補虛勞, 充五臟, 長肌肉, 強筋骨, 開心竅, 安神志, 生津液, 除寒熱, 補腎強陰, 止夢泄. [或云, 山藥涼而能補, 狗肉溫而不補.]

산약은 약성이 달고 따뜻하다. 허로를 보하고 오장을 채워주며 살을 찌우고 근골을 튼튼하게 하며 정신을 편안하게 하고 진액을 만든다. 한사와 열사를 제거하고 신장을 보하며 음기를 튼튼하게 하고 몽설(夢泄)을 멎게 한다. [혹자는 '산약은 약성이 차가운데도 보하는 효능이 있고, 개고기는 약성이 따뜻한데도 보하는 효능이 없다.'고 하였다.]

蓮實

연실

蓮實甘寒, 瀉心熱, 補虛羸, 安心養神, 止渴生津, 療泄痢, 澀精滑. [沈水者石蓮, 白蓮佳. ◦藕溫甘無毒, 止吐血, 消瘀血, 蒸食, 補五臟, 和蜜食, 令人腹臟肥, 不生蟲.]

연실은 성미가 달고 차다. 심장의 열을 사하며 허약하고 여윈 몸을 보하며 마음을 안정시키고 정신을 길러주며 갈증을 없애고 진액을 만든다. 설사나 이질이나 정활(精滑)을 치료한다. [물에 잠겨 있는 것은 석련(石蓮)이다. 백련(白蓮)이 더 좋다. ◦연뿌리는 성미가 따뜻하며 달고 독이 없다. 토혈을 멎게 하고 어혈을 사그라뜨린다. 찌서 먹으면 오장을 보하고, 꿀과 함께 먹으면 뱃속의 오장을 살찌게 하면서 여러 충이 생기지 않게 한다.]

白扁豆

백편두

白扁豆甘平, 補脾和中, 止霍亂, 消暑毒. [炒去皮.]

백편두는 성미가 달고 평이하다. 비장을 보하고 뱃속을 편안하게 한다. 객란을 멎게 하고 더위 먹은 것을 없앤다. [볶은 후 껍질을 제거하고 쓴다.]

生地黃

생지황

生地黃大寒, 凉心血, 滋腎陰, 清肺氣, 養肝血, 治骨蒸勞熱, 五心煩熱, 止吐衄便血, 除小兒驚風, 通小便. ◦乾地黃, 與生地黃, 寒溫不同. [有生乾地黃, 日乾微寒, 焙乾微溫, 一名芑, 忌銅鐵.]

생지황은 성미가 매우 차갑다. 심장의 혈을 식혀주고 신장의 음기를 복돋아주며 폐장의 기운을 길러준다. 골증노열과 오심번열을 치료한다. 토혈이나 육혈이나 변혈을 멎게 하고 소아의 경풍을 없애며 소변을 잘 나오게 한다. ◦건지황과 생지황은 차갑고 따뜻한 성미가 같지 않다. [생건지황도 있다. 별에 말리면 성미가 약간 차갑고, 겉불에 말리면 성미가 약간 따뜻하다. 변(芑)이라고도 부른다. 구리와 철을 피해야 한다.]

熟地黃

숙지황

熟地黃甘溫, 大補血衰, 填骨髓, 長肌肉, 堅筋脈, 補虛勞, 療婦人胎產百病. [縮砂末拌, 浸薑汁用, 可免泥膈, 有痰中滿, 慎用, 勿食蘿菔, 髮白消腎.]

숙지황은 성미가 달고 따뜻하다. 혈이 쇠약해진 경우를 크게 보한다. 골수를 채워주고 살을 붙게 하며 근맥을 단단하게 하고 허로를 보한다. 부인의 임신 중이나 출산 후의 여러 가지 병을 치료한다. [축사가루에 버무려 생강즙에 담갔다가 쓰면 흥격을 끈적하게 만드는 부작용을 피할 수 있다. 담음증이 있으면서 뱃속이 더부룩한 경우에는 조심하여 써야 한다. 나복과 함께 먹지 말아야 하니 머리카락이 하얘지고 신기(腎氣)를 소모시키기 때문이다.]

當歸

당귀

當歸辛溫, 生血補血, 扶虛益損, 主三陰經, 心生血, 肝藏血, 脾裹血, 頭破血而上行, 身養血而中守, 尾止血而下流, 全活血和血, 去舊生新之劑也. [治上酒浸, 治外酒洗, 血病酒蒸, 瘀薑汁炒.]

당귀는 성미가 맵고 따뜻하다. 혈을 만들어 혈증을 보하고 허약한 경우를 복돋아준다. 세 음경(陰經)에 생긴 병을 치료하니 심장은 혈을 만들고, 간장은 혈을 저장하며, 비장을 혈을 빨아들이기 때문이다. 당귀두(當歸頭)는 어혈을 깨뜨리며 상초로 가고, 당귀신(當歸身)은 혈을 기르며 중초를 지키고, 당귀미(當歸尾)는 출혈을 멎게 하며 하초로 흘러간다. 당귀 전체를 한꺼번에 쓰면 혈을 잘 돌게 하면서 조화시키니 오래 된 혈을 없애고 새로운 혈을 만드는 약이다. [상초를 치료하려면 술에 담갔다가 쓰고, 외감을 치료하려면 술로 씻어서 쓰며, 혈병을 치료하려면 술에 찌서 쓰고, 담음을 치료하려면 생강즙에 축여 볶아서 쓴다.]

川芎

천궁

川芎辛溫, 治風寒入腦頭痛, 破宿血, 生新血, 開鬱行氣, 清利頭目, 血中氣藥. [去油用, 單服久服, 令人暴亡.]

천궁은 성미가 맵고 따뜻하다. 풍사나 한사가 머릿속으로 들어가 생긴 두통을 치료한다. 어혈을 깨뜨리면서 새로운 혈을 만들고 울체된 것을 뚫어 기를 운행시키며 머리와 눈을 맑게 한다. 혈약 중에서 기를 치료하는 약재이다. [기름을 제거하여 쓴다. 단미로 복용하거나 오랫동안 복용하면 갑자기 죽게 된다.]

白芍藥

백작약

白芍藥酸寒, 能收能補, 治血虛腹痛, 痢疾後重, 瀉肝補脾, 下氣和血. [胃虛, 炒或煨用.] ○赤者, 散邪行血破血, 利大小腸, 治赤眼腫痛. [酒浸升散, 生用偏降.]

백작약은 성미가 시고 차갑다. 수렴시키는 작용과 보하는 작용이 함께 있다. 혈허(血虛)로 배가 아프거나 이질로 뒤가 무거운 경우를 치료한다. 간기(肝氣)를 사하고 비기(脾氣)를 보하며 기운을 아래로 내리고 혈을 조화롭게 만든다. [술에 담갔다가 쓰면 상승시키고 흠는 작용이 있고, 생것을 쓰면 아래로 내리는 작용만 있다.]

天門冬

천문동

天門冬甘寒, 治喘嗽, 消痰, 止吐衄血, 療肺痿, 補腎鎮心, 潤五臟, 冷而能補. [去心用. ○和地黃爲使久服, 耐老, 頭不白, 補虛. ○浣衣, 白如玉.]

천문동은 성미가 달고 차갑다. 심한 기침을 치료하며 담음을 사그라뜨리고 토혈이나 육혈을 멎게 하며 폐위(肺痿)를 치료한다. 신기(腎氣)를 보하며 심기(心氣)를 진정시키고 오장을 촉촉하게 한다. 약성이 서늘한데도 보하는 작용이 있다. [심을 제거하고 쓴다. ○지황과 함께 사약(使藥)으로 써서 오랫동안 복용하면 노화를 막고 머리카락이 하얘지지 않게 하며 허로를 보한다. ○이것으로 옷을 빨면 옥처럼 하얗게 된다.]

麥門冬

맥문동

麥門冬甘寒, 解煩渴, 補心清肺, 治客熱肺痿咳嗽, 生津益精, 久服, 安五臟, 悅顏色, 令人健脾多子. [去心用.]

맥문동은 성미가 달고 차갑다. 번갈을 풀어준다. 심장을 보하고 폐장을 맑게 한다. 객열(客熱), 폐위(肺痿), 해수(咳嗽)를 치료한다. 진액을 만들고 정기를 더한다. 오랫동안 복용하면 오장을 편안하게 하고 안색을 좋게 하며 비장을 튼튼하게 만들고 아이를 많이 낳게 한다. [심을 제거하고 쓴다.]

黃連

황련

黃連苦寒, 瀉心胃火, 解諸熱毒, 除心下痞, 治暑毒膿血痢伏暑, 止煩渴. [生用瀉心熱, 酒炒厚腸胃, 薑炒止嘔吐.]

황련은 약성이 쓰고 차갑다. 심장이나 위의 화기를 사하고 여러 가지 열독을 풀며 명치가 꼭 막힌 것을 없앤다. 서독(暑毒), 농혈리(膿血痢), 복서(伏暑)를 치료하며 번갈을 멎게 한다. [생것을 쓰면 심장의 열을 사하고, 술에 축여 볶아서 쓰면 장과 위를 튼튼하게 하며, 생강즙에 축여 볶아서 쓰면 구토를 멎게 한다.]

黃芩

황금

黃芩苦寒, 瀉火清肺, 消膈上痰熱, 及胃中濕熱, 治骨蒸勞熱, 下痢膿血, 吐血下血. [片芩治上焦, 條芩治下焦, 酒炒上行, 豬膽汁浸炒, 除肝膽熱.]

황금은 성미가 쓰고 차갑다. 열을 사하고 폐장을 깨끗하게 하며 흉격에 맺힌 담음이나 열사와 위에 있는 습사나 열사를 사그라뜨린다. 골증노열이나 농혈리(膿血痢), 토혈, 하혈을 치료한다. [편금(片芩)은 상초를 치료하고, 조금(條芩)은 하초를 치료한다. 술에 축여 볶아서 쓰면 상초에 작용하고, 저담즙에 담갔다가 볶아서 쓰면 간장과 담부의 열을 제거한다.]

黃栢

황백

黃栢苦寒, 瀉腎火, 滋腎水, 除骨蒸勞熱, 五臟結熱, 下痢黃疸. [胃弱, 蜜炒或乳炒, 陰虛火動, 童便或鹽炒.]

황백은 성미가 쓰고 차갑다. 신장의 열을 사하고 신수(腎水)를 길러 준다. 골증 노열이나 오장에 맺힌 열과 이질과 황달을 없앤다. [위가 허약한 경우에는 꿀을 묻혀 볶거나 젖에 축여 볶아서 쓰고, 음허화동(陰虛火動)에는 동변이나 소금물에 축여 볶아서 쓴다.]

梔子

치자

梔子苦寒, 瀉三焦火, 清胃中濕熱, 屈曲下行, 從小便中出, 通利水道, 治傷寒勞復, 心煩懊惱不得眠, 吐衄血, 目赤發黃, 解鬱行氣. [仁治心熱, 皮治肌熱, 尋常生用. ○虛火及止血, 竝童便炒黑.]

치자는 성미가 쓰고 차갑다. 삼초의 열을 사하고 위 속의 습사나 열사를 씻어 내 구불구불 아래쪽으로 보내서 소변으로 배출시킨다. 소변을 잘 나가게 한다. 상한노복(傷寒勞復), 심번(心煩)이나 오농(懊惱)으로 잘 자지 못하는 것, 토혈, 육혈, 눈이 출혈되면서 황달기가 생기는 것을 치료한다. 울체된 기를 풀어 잘 운행되게 한다. [치자인은 심장의 열을 치료하고, 치자피는 기육의 열을 치료한다. 보통 생것으로 쓴다. ○허화(虛火)나 지혈에 쓸 때는 모두 동변에 축였다가 까맣게 되도록 볶아서 쓴다.]

連翹

연교

連翹苦寒, 散心火, 除客熱, 專治瘡癰毒, 小兒諸熱. [去心用.]

연교는 성미가 쓰고 차갑다. 심화(心火)를 흘리고 객열(客熱)을 없앤다. 창이나
옹저 및 소아의 열증을 특히 잘 치료한다. [심을 제거하고 쓴다.]

大黃

대황

大黃大寒味苦, 通腸胃, 快胸膈, 破瘀血積聚, 推陳致新, 安和五臟, 以致太平, 故有
將軍之號, 膏粱厚味積熱人, 大便燥結, 亦宜. [酒炒上至顛, 酒洗中至胃, 生用下行,
酒蒸治積熱.]

대황은 성미가 쓰고 매우 차갑다. 장과 위를 잘 통하게 하며 흥격을 시원하게
만들고 어혈이나 적취를 깨뜨려 묵은 것을 밀어내고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게
함으로써 오장을 편안하게 만들어 몸의 평정을 이룬다. 그러므로 '장군'이라는
호칭을 가지고 있다. 기름진 음식을 많이 먹어 열이 쌓인 사람의 대변이 마르
고 굳는 증상에도 적합하다. [술에 축여 볶아서 쓰면 약효가 위쪽으로 머리 꼭
대기까지 이르고, 술로 씻어 쓰면 약효가 중초의 위까지 이르고, 생것을 쓰면
하초에 작용한다. 술에 찌서 쓰면 쌓인 열을 치료한다.]

朴硝

박초

朴硝大寒小毒, 治大小便, 及女子經候不通, 通泄五臟百病六腑積聚. [芒硝、馬牙
硝、皮硝、風化硝、焰硝, 皆一物, 製法症治稍異.]

박초는 성미가 매우 차갑고 약간 독성이 있다. 대소변의 증상이나 여자가 월경
이 나오지 않는 경우를 치료한다. 오장의 여러 가지 병이나 육부의 적취를 대
변으로 빼준다. [망초、마아초、피초(皮硝)、풍화초(風化硝)、염초(焰硝)는
모두 같은 약재이나 제법이나 주치증이 조금씩 다르다.]

玄明粉

현명분

玄明粉辛寒, 治膈上虛熱, 心中煩燥, 小兒驚癇, 痰熱咳嗽. [製法, 冬月取朴硝和蘿菔各一斤, 同煮, 蘿菔熟爲度, 以紙濾過, 露結塊, 每斤, 入甘草生熟二兩, 爲末, 攪勻用, 其性和緩, 老弱應用硝者, 以此代用.]

현명분은 성미가 맵고 차갑다. 흉격의 허열이나 가슴의 번조나 소아의 경간(驚癇)이나 담음으로 생긴 열증이나 기침을 치료한다. [제법은 다음과 같다. 겨울 철에 박초와 나복 각 1근을 함께 달이다가 나복이 익으면 종이에 거른 후 밖에 내놓아 결정이 생기게 한다. 결정 1근마다 생감초·자감초 각 2냥을 넣고 가루 낸 후 잘 섞어서 쓴다. 약성은 온화하고 느리다. 노약자에게 어쩔 수 없이 망초를 써야하는 경우에 이것으로 대용한다.]

知母

지모

知母苦寒, 潤心肺, 滋化源, 止驚悸, 下氣消痰, 瀉腎胃火, 治有汗骨蒸熱, 止咳嗽煩渴. [腎火鹽水炒, 胃虛蜜炒.]

지모는 성미가 쓰고 차갑다. 심장과 폐장을 촉촉하게 만들고 생육의 근원인 비기(脾氣)를 길러준다. 경계(驚悸)를 멎게 하고 기운을 아래쪽으로 내리며 담음을 사그라뜨리고 신장과 위의 열을 사한다. 땀이 나는 골증열을 치료하고 기침과 번갈을 멎게 한다. [신장의 열을 치료하려면 소금물에 축여 볶아서 쓰고, 위의 허약한 경우에는 꿀을 묻혀 볶아서 쓴다.]

貝母

패모

貝母微寒, 散胸中鬱蒸, 消痰止嗽, 清心潤肺, 治肺痿唾膿血, 除煩渴. [去心薑汁炒.]

패모는 성미가 약간 차갑다. 흉격의 맺힌 것을 풀어주고 담음을 사그라뜨리며 기침을 멎게 한다. 심장을 깨끗하게 하고 폐장을 축축하게 한다. 폐위(肺痿), 타혈(唾血), 농혈(膿血)을 치료하고 번갈을 없앤다. [심을 제거하고 생강즙에 축여 볶아서 쓴다.]

石膏

석고

石膏大寒, 瀉胃火, 除煩渴, 解肌發汗, 治頭疼身熱. [煨研水飛, 和甘草用.]

석고는 성미가 매우 차갑다. 위의 열을 사하고 번갈을 없애며 해기시키면서 땀을 낸다. 머리가 아프고 몸통이 뜨거운 증상을 치료한다. [불에 달구고 갈아서 수비한 후 감초와 함께 쓴다.]

滑石

활석

滑石沈寒, 除脾燥, 瀉胃中濕熱, 利大小腸, 生津止渴. [白色者佳, 水飛.]

활석은 성미가 가라앉으려 하고 차갑다. 비장의 건조함을 없애고 위의 습열을 사하며 대소장을 소통시킨다. 진액을 만들어 갈증을 멎게 한다. [색이 하얀 것이 진품이다. 수비하여 쓴다.]

雄黃

웅황

雄黃甘寒, 主中惡腹痛鬼疰, 辟邪氣, 殺百蟲, 療惡瘡癰肉, 去腐生新. [赤如鷄冠者佳, 水飛用. ○佩雄黃入山, 鬼神不敢近, 百獸惡蟲, 不敢傷.]

웅황은 성미가 달고 차갑다. 중악(中惡), 복통, 귀주(鬼疰)를 치료한다. 사기를 물리치며 온갖 충을 죽인다. 악창이나 식육(癰肉)을 치료하고 썩은 살을 없애면서 새 살을 만든다. [닭의 벃처럼 빨간 것이 진품이다. 수비하여 쓴다. ○웅황을 몸에 매달고 산에 들어가면 귀신이 감히 접근하지 못하고 산짐승이나 독충이 물지 못한다.]

朱砂

주사

朱砂味甘, 鎮心養神, 驅邪殺鬼, 安魂定魄. [細研水飛用, 經火則殺人. ○瑩澈如鏡面者佳.]

주사는 성미가 달다. 마음을 진정시키고 정신을 길러주며 사기를 몰아내고 귀신을 죽인다. 영혼과 정신을 안정시킨다. [곱게 갈아서 수비하여 쓴다. 불을 거치면 사람을 죽인다. ○거울처럼 깨끗하고 빛나는 것이 진품이다.]

龍腦

용뇌

龍腦氣味清香, 爲百藥先, 下入湧泉, 上透百會, 人欲死者, 吞之氣散, 卽盡, 治目赤, 內外膚翳, 耳聾喉痺, 及時疾, 心煩狂躁. [腦屬火, 其性散甚, 故似乎寒.]

용뇌는 성미가 깨끗하고 향이 있어 모든 약재의 으뜸이 된다. 아래쪽으로는湧泉혈로 들어가고 위쪽으로는 백회혈에 닿는다. 사람이 죽어갈 때 이것을 삼키면 기가 흩어지므로 즉시 죽는다. 눈이 충혈되면서 안팎에 예막이 생기거나 귀

가 먹거나 목이 막히는 경우를 치료한다. 또한 전염병, 심번(心煩), 광증, 번조도 치료한다. [옹뇌는 오행 중 화(火)에 속하므로 흠어내는 약성이 강하다. 그 렇기 때문에 마치 차가운 것처럼 느껴진다.]

麝香

사향

麝香辛熱, 通開透竅, 上達肌膚, 內入骨髓, 除中惡心腸暴痛溫瘡, 殺百蟲, 療一切癰瘡, 小兒客忤驚癇.

사향은 성미가 맵고 뜨겁다. 막힌 곳을 열어주고 몸의 구멍을 뚫어주며 겉으로는 피부까지 작용하고 몸속으로는 골수까지 들어간다. 중악(中惡)으로 가슴이나 배가 갑자기 아픈 경우나 온학(溫瘡)을 제거하고 온갖 충을 죽인다. 웅어나 창 일체를 치료하고 소아의 객오(客忤)나 경간(驚癇)을 치료한다.

柴胡

시호

柴胡苦寒, 瀉肝膽三焦胞絡相火, 治外感內傷溫瘡, 寒熱往來, 頭疼脇痛, 耳聾口苦, 嘔逆, 小兒五疳羸瘦, 寒熱. [去蘆用, 此和解之劑.]

시호는 성미가 쓰고 차갑다. 간장이나 담부나 삼초나 심포락의 상화(相火)를 사한다. 외감, 내상, 온학(溫瘡), 한열왕래, 두통, 협통(脇痛), 이롱(耳聾), 구고(口苦), 구역질 및 소아가 오감(五疳)으로 바싹 마르면서 오한발열이 있는 경우를 치료한다. [노두를 제거하고 쓴다. 이것은 화해(和解)시키는 약재이다.]

前胡

전호

前胡苦寒, 治傷寒時氣, 內外俱熱, 頭痛, 胸脇痞悶, 消痰止嗽.

전호는 성미가 쓰고 차갑다. 상한이나 유행성 상한으로 몸 안팎이 모두 뜨겁고 머리가 아프며 가슴과 옆구리가 딱 막혀 답답한 경우를 치료한다. 담음을 사그라뜨리고 기침을 멎게 한다.

升麻

승마

升麻苦寒, 清心胃, 解熱毒, 升提下陷之氣, 療口瘡牙齒痛, 小兒痘瘡班疹. [凉心解毒, 與犀角同.]

승마는 성미가 쓰고 차갑다. 심장과 위를 깨끗하게 하고 열독을 풀어주며 내려앉은 중기를 끌어 올린다. 구창(口瘡)이나 치통이나 소아의 두창과 마진을 치료한다. [가슴을 식히고 독을 푸는 효능은 서각과 동일하다.]

葛根

갈근

葛根甘苦, 治傷寒頭疼, 解肌發汗, 目赤鼻乾, 生津止渴, 解酒毒, 清胃熱. [生汁大寒, 治熱病. ◦花主消酒毒, 小豆花等分, 爲末服, 飲酒不知醉.]

갈근은 성미가 달고 쓰다. 상한두통으로 해기시키고 땀을 내야 하는 경우와 눈이 충혈되고 코가 건조한 경우를 치료한다. 진액을 만들어 갈증을 없애고 주독(酒毒)을 풀며 위의 열을 없앤다. [생즙은 성미가 매우 차가우므로 열병을 치료한다. ◦갈화(葛花)는 주독을 없애니 소두화(小豆花)와 각각 같은 양을 가루 낸 후 복용하면 술을 마셔도 취하지 않게 된다.]

薄荷

박하

薄荷辛凉, 治傷風傷寒, 頭疼發汗, 清頭目, 利咽膈, 祛風化痰, 治小兒驚熱.

박하는 성미가 맵고 서늘하다. 상풍이나 상한으로 생긴 두통으로 땀을 내야 하는 경우를 치료한다. 머리와 눈을 맑게 하고 목구멍과 흉격을 뚫어주며 풍사를 없애고 담음을 녹인다. 소아가 경풍으로 열이 나는 경우를 치료한다.

麻黃

마황

麻黃辛溫, 治傷寒頭疼, 身熱惡寒, 解表發汗, 咳嗽喘急. [去節煮去沫用, 根止汗.]

마황은 성미가 맵고 따뜻하다. 상한으로 머리가 아프고 몸통이 뜨거우며 오한이 있어 표부를 풀어주면서 땀을 내야 하는 경우와 기침과 숨을 헐떡이는 경우를 치료한다. [마디를 제거하고 달이면서 거품을 걷어내고 쓴다. 마황 뿌리는 땀을 멎게 한다.]

紫蘇

자소

紫蘇辛溫, 風寒在表, 出汗發散, 寬胸利膈, 下氣消滯. [莖治濕痺骨痛, 及脚氣.]

자소는 성미가 맵고 따뜻하다. 풍사나 한사가 표부에 있어 땀을 내면서 발산시켜야 하는 경우에 쓴다. 흉격을 편안하고 잘 소통되게 하며 기운을 아래쪽으로 내리고 적체된 것을 사그라뜨린다. [자소 줄기는 습비(濕痺)로 뼈가 아픈 증상이나 각기를 치료한다.]

細辛

세신

細辛辛溫, 治少陰頭痛, 通開利竅, 祛頭面諸風. [不可多用, 單服半錢, 氣塞而死.]

세신은 성미가 맵고 따뜻하다. 상한 소음증의 두통을 치료한다. 몸의 구멍을 잘 소통되게 하고 머리와 얼굴에 생긴 여러 가지 풍증을 제거한다. [세신은 많이 쓰지 말아야 한다. 세신 한 약재를 0.5돈만 복용해도 숨이 막히면서 죽는다.]

荊芥

형개

荊芥辛溫, 治傷風傷寒, 頭疼肢節痛, 手足拘急, 瘡毒風疹, 產後血暈風痧, 小兒驚風癇疾. [去梗取穗用.]

형개는 성미가 맵고 따뜻하다. 상풍이나 상한으로 머리와 사지의 관절이 아픈 경우를 치료한다. 손발이 경직되거나 창독, 풍진(風疹), 출산 후의 혈훈(血暈)이나 풍치(風痧), 소아의 경풍이나 간질을 치료한다. [단단한 부분을 제거하고 이삭 부분을 쓴다.]

防風

방풍

防風甘溫, 治風邪在表惡寒, 周身骨節攣疼, 頭目昏眩. [此卒伍卑賤之料, 隨所引而至, 非爲君之任, 益黃散倍防風者, 土中瀉木之意也.]

방풍은 성미가 달고 따뜻하다. 풍사가 표부에 있어서 오한이 나거나 온몸의 뼈마디가 경직되며 아프거나 머리와 눈이 어지러운 경우를 치료한다. [이 약재는 일반 병사처럼 비천한 역할의 약재로 인도하는 대로 따라서 작용하니 군약의 역할을 하는 약재가 아니다. 익황산에 방풍을 2배로 넣은 이유는 비토(脾土)에서 간목(肝木)을 사해주려는 의도가 있기 때문이다.]

羌活

강활

羌活苦溫, 治傷風傷寒, 頭疼肢節痛, 解表發散, 祛風除濕, 舒筋活骨. [羌活氣雄, 獨活氣細, 古無二活之分, 而今人但始分, 紫色節²者, 爲羌活, 黃色作塊者, 爲獨活.]

강활은 성미가 쓰고 따뜻하다. 상풍이나 상한으로 머리가 아프고 사지와 관절이 아파서 표부를 풀어주고 발산시켜야 하는 경우를 치료한다. 풍사와 습사를 없애고 근골을 잘 움직이게 한다. [강활은 약성이 세고, 독활은 약성이 미세하다. 옛날에는 강활과 독활의 구분이 없었으나 요즘 사람들이 구분하기 시작했을 뿐이다. 자색이면서 마디가 촘촘한 것은 강활이고, 황색이면서 덩어리가 있는 것은 독활이다.]

獨活

독활

獨活甘苦, 治中風喎斜癱瘓, 百節攣痛, 膝脚痠痺. [此草得風則不搖, 無風則搖, 故一名獨搖草.]

독활은 성미가 달고 쓰다. 중풍, 구안와사, 탄탄풍이나 온 마디가 떨리고 아프거나 하체가 힘이 없으면서 저린 경우를 치료한다. [독활은 바람이 불 때는 흔들리지 않다가 바람이 없을 때 흔들린다. 그래서 독요초(獨搖草)라고도 부른다.]

白芷

백지

白芷辛溫, 治陽明頭疼, 風熱瘙癢, 排膿生肌, 婦人漏下.

백지는 성미가 맵고 따뜻하다. 상한 양명증의 두통 및 풍사나 열사 때문에 가려운 경우를 치료한다. 고름을 배출시키고 살을 돋게 한다. 부인의 붕루나 하혈을 치료한다.

陳皮

진피

陳皮苦辛, 順氣消痰, 寬胸開胃, 止吐瀉, 除寒濕. [留白補脾, 去白消痰, 名橘紅. ○肺燥, 童便或鹽水浸去白用. ○陳久者良.]

진피는 성미가 쓰고 맵다. 기를 잘 돌게 하고 담음을 사그라뜨리며 가슴을 편안하게 하고 음식을 잘 넘어가게 만든다. 구토와 설사를 멎게 하고 한사와 습사를 제거한다. [흰 부분째 쓰면 비장을 보한다. 흰 부분을 제거하면 담음을 사그라뜨리는데 이것을 굴홍이라고 부른다. ○폐장이 건조한 경우에는 동변이나 소금물에 담갔다가 흰 부분을 제거하고 쓴다. ○오래 묵은 것이 효과가 좋다.]

靑皮

청피

靑皮苦寒, 破滯氣, 消癥痞乳腫, 平肝膽之氣. [氣短者, 油炒用.]

청피는 성미가 쓰고 차갑다. 울체된 기를 깨뜨리고 벽적(癖積), 비괴(痞塊), 유종(乳腫)을 사그라뜨린다. 간장과 담부의 기를 평온하게 한다. [호흡이 짧은 경우에는 기름에 볶아서 쓴다.]

枳角

지각

枳角苦寒, 快氣寬胸, 消痰散滯逐水, 破癥癖. [水浸去膿麤炒, 氣弱者慎用. ◦實與殼一物也, 小則性酷, 大則性緩也.]

지각은 성미가 쓰고 차갑다. 기운을 상쾌하게 하고 흉격을 편안하게 한다. 담음을 사그라뜨리고 울체된 것을 흘리며 수기(水氣)를 배출시킨다. 징가(癥瘕)나 벽적(癖積)을 깨뜨린다. [물에 담갔다가 속을 파낸 후 밀기울과 함께 볶아서 쓴다. 기가 허약한 사람에게는 조심해서 써야 한다. ◦지실과 지각은 같은 식물이다. 크기가 작은 것은 약성이 세고, 큰 것은 약성이 부드럽다.]

枳實

지실

枳實苦寒, 消食除痞, 破積化痰, 有衝牆倒壁³之功. [水漬切片麤炒.]

지실은 약성이 쓰고 차갑다. 음식을 소화시키고 비괴(痞塊)를 제거하며 적취를 깨뜨리고 담음을 녹인다. 담장과 부딪혀 벽을 무너뜨리는 듯한 효능을 가지고 있다. [물에 적셔 절편으로 썬 후 밀기울과 함께 볶아서 쓴다.]

桔梗

길경

桔梗苦辛, 療咽腫, 胸脇痞痛, 肺氣嗽喘, 載藥上升, 乃舟楫之劑.

길경은 성미가 쓰고 맵다. 후종(喉腫)이나 가슴과 옆구리가 꼭 막히면서 아픈 증상이나 폐기(肺氣)가 손상되어 기침을 하거나 숨을 헐떡이는 경우를 치료한다. 다른 약재를 싣고 위로 올라가는 성질이 있으니 바로 배를 움직이는 역할의 약재이다.

縮砂

축사

縮砂辛溫, 調脾養胃, 行氣消食, 治嘔吐瀉泄, 通經安胎. [炒去皮研用. ◦與白豆蔻爲使, 則入肺, 與人參爲使, 入脾, 與茯苓爲使, 入腎, 與赤白石脂爲使, 入大小腸. ◦一名砂仁.]

축사는 약성이 맵고 따뜻하다. 비장과 위를 잘 길러주며 기를 소통시키고 음식을 소화시킨다. 구토와 설사를 치료한다. 월경을 제때 나오게 하며 태아를 안정시킨다. [볶은 후 껍질을 제거하고 갈아서 쓴다. ◦백두구와 함께 사약(使藥)으로 쓰면 폐장으로 인경하고, 인삼과 함께 사약으로 쓰면 비장으로 인경하며, 복령과 함께 사약으로 쓰면 신장으로 인경하고, 적석지나 백석지와 함께 사약으로 쓰면 대장과 소장으로 인경한다. ◦사인(砂仁)이라고도 부른다.]

香附

향부자

香附甘寒, 大能下氣, 快氣開鬱, 行氣止痛, 婦人經閉腹脹之仙方. [去毛童便浸煮, 搗碎炒用.]

향부자는 성미가 달고 차갑다. 기를 아래쪽으로 내리는 작용이 크다. 기운을 상쾌하게 하며 울체된 곳을 뚫고 기를 잘 소통시키며 통증을 멎게 한다. 부인이 월경이 나오지 않거나 복창(腹脹)이 있는 경우의 묘약이다. [잔털을 제거하고 동변에 담근 채 삶은 후 뺀아서 부수고 볶아서 쓴다.]

厚朴

후박

厚朴苦溫, 主積冷氣, 腹脹雷鳴, 消食下氣, 治霍亂吐瀉. [去皮甲剉, 薑汁浸炒用.]

후박은 성미가 쓰고 따뜻하다. 주변의 냉기가 몸속에 쌓여 복창(腹脹), 뇌명(雷鳴)이 생긴 경우를 치료한다. 음식을 소화시키고 기를 아래쪽으로 내린다. 토사곽란을 치료한다. [단단한 껍질을 벗기고 썬 후 생강즙에 담갔다가 볶아

서 쓴다.]

南星

남성

南星性熱有毒, 治風痰破傷風, 身強反張, 癲癇搐搦, 中風不語, 小兒驚風. [去皮臍, 薑湯泡透, 切片, 薑汁浸, 炒或炮煨用. ◦南星末一兩, 入臘月黑牛膽中, 攪勻, 懸風處吹乾, 名牛膽南星.]

남성은 성미가 뜨겁고 독이 있다. 풍담(風痰), 파상풍, 각궁반장, 전간(癲癇), 축닉(搐搦)을 치료한다. 증풍으로 말을 하지 못하는 경우와 소아의 경풍을 치료한다. [껍질과 배꼽을 제거하고 생강 달인 물에 충분히 담갔다가 절편으로 썬 후 생강즙에 다시 담근다. 볶아서 쓰거나 혹은 습지에 싸서 굽거나 잿불에 묻어 익혀서 쓴다. ◦남성가루 1냥을 설탕에 잡은 검은 소의 쓸개에 넣고 잘 섞은 후 바람이 잘 드는 곳에 매달아 말린 것을 우담남성이라고 부른다.]

半夏

반하

半夏味辛有毒, 燥濕祛痰, 泄逆氣, 除頭痛眩暈, 健脾止嘔. [生薑湯泡透, 切片, 再用薑汁浸炒用. ◦治風痰, 用皂角、白礬、生薑煎湯泡透, 炒乾用. ◦消渴血虛, 咽乾汗多者, 勿用.]

반하는 성미가 맵고 독이 있다. 습기를 말리고 담음을 없애며 거슬러 오르는 기를 배출시킨다. 두통과 현훈을 제거한다. 비장을 튼튼하게 하고 구역질을 멎게 한다. [생강 달이는 물에 충분히 담갔다가 절편으로 썬 후 다시 생강즙에 담갔다가 볶아서 쓴다. ◦풍담(風痰)을 치료하려면 조각·백반·생강을 달이는 물에 충분히 담갔다가 볶은 후 말려서 쓴다. ◦소갈(消渴), 혈허(血虛)가 있거나 목구멍이 건조하거나 땀이 많이 나는 경우에는 쓰지 말아야 한다.]

○半夏麴

○반하국

半夏不以多少, 爲末, 以生薑汁、白礬湯等分, 和勻造麴, 猪⁴葉包裹, 風乾用. ○風痰, 皂角汁去渣煉膏和. ○火痰老痰, 以竹瀝薑汁和. ○濕痰寒痰, 以薑湯化白礬, 作麴用. ○陳久者良.

반하를 분량에 상관 없이 가루 낸 후 생강즙과 백반탕 각각 같은 양과 잘 섞어 누룩을 만든다. 누룩을 닥나무잎으로 싸고 바람이 잘 드는 곳에서 말려서 쓴다. ○풍담(風痰)에는 조각 삶은 물에서 건더기를 제거하고 고약처럼 졸인 것과 섞어서 쓴다. ○화담(火痰)이나 노담(老痰)에는 죽력과 생강즙을 섞어서 쓴다. ○습담(濕痰)이나 한담(寒痰)에는 생강탕에 백반을 녹인 것과 섞은 후 누룩을 만들어 쓴다. ○오래 묵은 것이 효과가 좋다.

藿香

곽향

藿香辛溫, 發散風寒, 溫中, 止霍亂心腹痛, 嘔吐泄瀉.

곽향은 성미가 맵고 따뜻하다. 풍사나 한사를 발산시키고 뱃속을 따뜻하게 한다. 곽란, 심복통, 구토, 설사를 멎게 한다.

大腹皮

대복피

大腹皮微溫, 下膈氣, 安脾胃, 利大小腸, 消浮脹. [鳩棲于此, 酒洗, 仍以黑豆煎水洗, 焙乾用.]

대복피는 약성이 약간 따뜻하다. 흉격에 막힌 기를 내리며 비장과 위를 편안하게 하고 대장과 소장을 잘 소통시키며 부종이나 복창을 사그라뜨린다. [짐새(강한 독을 가진 새)가 이 나무에 서식하므로 술로 씻고 한 번 더 검은콩 달인 물로 씻은 후 겉불에 말려서 써야 한다.]

香薷

향유

香薷辛溫, 消暑濕, 煖胃氣, 止霍亂吐瀉, 消浮腫, 解煩熱. [香薷, 乃夏月解表之藥, 如冬月之用麻黃也, 氣虛者不可服, 暑傷元氣, 亦不可多服, 惟性熱, 宜冷服, 俾無拒格之患.]

향유는 성미가 맵고 따뜻하다. 서사나 습사를 없애고 위기(胃氣)를 따뜻하게 하며 토사곽란을 멎게 한다. 부종을 사그라뜨리고 번열을 풀어준다. [향유는 바로 여름철에 표부를 풀어주는 약재이니 겨울철에 마황을 쓰는 이유와 같다. 기허한 경우에는 복용하지 않아야 하며, 더위로 원기를 상한 경우에도 많은 분량을 복용하지 않아야 한다. 약성이 뜨거우므로 시원하게 복용해야만 막힐 염려가 없게 된다.]

猪苓

저령

猪苓味淡, 除濕熱, 利水道, 消浮腫, 止嘔吐泄瀉. [去黑皮.]

저령은 성미가 담박하다. 습사와 열사를 제거하고 소변을 잘 통하게 하며 부종을 사그라뜨리고 구토와 설사를 멎게 한다. [검은 껍질을 제거하고 쓴다.]

澤瀉

택사

澤瀉苦寒, 消浮腫, 逐膀胱邪水, 除濕, 通五淋. [久服, 損目. ○入丸藥, 酒蒸用, 小便頻, 慎用.]

택사는 성미가 쓰고 차갑다. 부종을 사그라뜨리고 방광의 습사를 몰아낸다. 습사를 제거하므로 오림(五淋)에 두루 쓴다. [오랫동안 복용하면 눈을 손상시킨다. ○환약에 넣을 때는 술에 찌서 쓴다. 소변이 잦은 경우에는 조심해서 써야 한다.]

木通

목통

木通性寒, 治熱閉小腸, 小便不通, 消浮腫, 利脚膝, 出聲音. [一云, 防己瀉濕, 尤速.]

목통은 성미가 차갑다. 열이 소장(小腸)에 막혀 있는 경우나 소변이 잘 나오지 않는 경우를 치료한다. 부종을 사그라뜨리며 다리나 무릎을 유연하게 하고 목소리를 잘 나오게 한다. [흑자는 방기가 습기를 배출시키는 것보다 효과가 더욱 빠르다고 한다.]

車前子

차전자

車前子性寒, 止暴泄, 利水道, 分清濁, 消浮腫. [略炒研.]

차전자는 성미가 차갑다. 갑작스런 설사를 멎게 하고 소변을 잘 통하게 하며 방광의 청수(淸水)와 탁수(濁水)를 분리하고 부종을 사그라뜨린다. [살짝 볶은 후 갈아서 쓴다.]

枸杞

구기자

枸杞甘溫, 添精固髓, 強陰壯陽, 養血明目, 安神不老. [酒洗用.]

구기자는 성미가 달고 따뜻하다. 정기를 더하고 골수를 잘 간직하게 한다. 음기를 튼튼하게 하여 양기까지 굳세게 만든다. 혈을 길러주고 눈을 밝게 하며 정신을 편안하게 하고 노화를 방지한다. [술로 씻어서 쓴다.]

山茱萸

산수유

山茱萸溫酸, 補腎澁精, 益髓興陽, 療耳鳴腰膝痛. [酒浸蒸去核用, 核反能澁⁵精.]

산수유는 성미가 따뜻하고 시다. 신장의 기를 보하고 정액을 잡아주며 골수를 더하고 양기를 복돋는다. 이명이나 허리와 무릎의 통증을 치료한다. [술에 담갔다가 찢 후 씨를 제거하고 쓴다. 씨는 반대로 정액을 새게 한다.]

杜冲

두충

杜冲辛甘, 益腎固精, 治腰膝酸疼, 陰囊濕痒, 小便餘瀝. [去皮, 酒和薑汁炒, 去絲.]

두충은 성미가 맵고 달다. 신장의 기를 더하고 정액을 잘 간직하게 한다. 허리나 무릎이 시큰거리거나 음낭이 축축하면서 가렵거나 소변을 눌 때 속에 남아서 찝끔거리는 경우를 치료한다. [겉껍질을 제거하고 술과 생강즙 섞은 것에 축여 볶은 후 실같은 것을 제거하고 쓴다.]

破古紙

파고지

破古紙大溫, 治傷腎敗髓, 冷精自流, 腰痛膝冷, 陰下濕痒, 小便淋瀝. [一名補骨脂, 酒浸微炒.]

파고지는 성미가 매우 따뜻하다. 신장의 기가 상하여 골수가 무너지거나, 정액이 식은 채 저절로 흘러 나오거나, 허리가 아프고 무릎이 냉하거나, 음낭이 축축하면서 가렵거나, 소변이 짙끔짙끔 나오는 경우를 치료한다. [보골지(補骨脂)라고도 부른다. 술에 담갔다가 살짝 볶아서 쓴다.]

兔絲子

토사자

兔絲子甘平, 添精益髓, 止夢泄, 治弱數口渴, 腰痛膝冷. [水淘煮爛搗成餅, 曬乾再搗用.]

토사자는 성미가 달고 평이하다. 정액과 골수를 더한다. 몽설(夢泄)을 멎게 한다. 소변이 잣거나 입이 바짝 마르거나 허리가 아프거나 무릎이 냉한 경우를 치료한다. [물에 일어서 삶은 후 짓찧어 덩어리로 만들고 벌레에 말렸다가 다시 빻아서 쓴다.]

肉蓯蓉

육종용

肉蓯蓉甘溫, 峻補精血, 强筋骨, 煖腰膝, 令人多子. [忌鐵, 酒洗去甲, 多服反便滑.]

육종용은 성미가 달고 따뜻하다. 정기와 혈을 강하게 보한다. 근골을 튼튼하게 하고 허리와 무릎을 따뜻하게 하며 자식을 많이 낳게 만든다. [철을 피해야 한다. 술로 씻은 후 비늘 같은 것을 제거하고 쓴다. 많이 복용하면 도리어 소변이 새어 나온다.]

鹿茸

녹용

鹿茸甘溫, 益氣滋陰, 療腎虛, 腰脊酸痛, 遺精崩帶. [形如茄子如馬鞍者佳, 酥灸用.]

녹용은 성미가 달고 따뜻하다. 기운을 더하고 음기를 길러준다. 신허(腎虛)로 허리와 등줄기가 시큰거리고 아픈 경우나 유정(遺精), 봉루, 대하를 치료한다. [가지나 말 안장 같은 모양이 진품이다. 연유를 묻혀 불에 구워 쓴다.]

牛膝

우슬

牛膝苦酸, 除濕痿痺, 填精强筋, 利小便, 莖中痛, 破痰下胎. [酒洗, 忌牛肉.]

우슬은 성미가 쓰고 시다. 습사로 다리가 힘 없이 저린 증상을 없앤다. 정기를 채우며 힘줄을 튼튼하게 한다. 소변을 잘 나가게 하고 음경의 통증을 치료한다. 담음을 깨뜨리고 태아를 내린다. [술에 씻어 쓴다. 소고기를 피해야 한다.]

巴戟

파극

巴戟辛溫, 大補虛損, 治精滑夢遺, 强筋固本. [酒浸搥碎, 去骨曬乾用.]

파극은 성미가 맵고 따뜻하다. 허손을 강하게 보한다. 정활(精滑), 몽설(夢泄), 유정(遺精)을 치료한다. 힘줄을 튼튼하게 하고 원기를 굳건하게 한다. [술에 담갔다가 몽둥이로 뺀아 목질을 제거한 후 벌에 말려 쓴다.]

胡蘆巴

호로파

胡蘆巴苦溫, 治腎臟虛冷, 腹脇脹痛, 面色黑. [酒洗微炒, 得茴香・桃仁, 治膀胱氣痛, 甚效.]

호로파는 약성이 쓰고 따뜻하다. 신장이 허랭하여 배나 옆구리가 뻥뻥해지면 서 아프고 얼굴이 검은빛이 된 경우를 치료한다. [술로 씻은 후 살짝 볶아서 쓴다. 회향・도인과 함께 쓰면 방광기로 아픈 경우를 치료하는데 매우 효과가 좋다.]

川練子

천련자

川練子苦寒, 治膀胱疝氣, 傷寒熱狂, 利水殺蟲. [酒浸蒸, 取肉曬乾用.]

천련자는 성미가 쓰고 차갑다. 방광기나 산증기가 있는 경우 및 상한으로 생긴 발열이나 광증을 치료한다. 수기(水氣)를 소통시키며 충을 죽인다. [술에 담갔다가 찢 후 과육을 벌에 말려서 쓴다.]

地骨皮

지골피

地骨皮苦寒, 治有汗之骨蒸, 瀉血中之火, 解肌退熱, 益精止渴. [忌鐵, 痼疾人勿用.]

지골피는 성미가 쓰고 차갑다. 땀이 나는 골증열을 치료한다. 혈 속의 화기를 배출시킨다. 해기시키면서 열을 떨어뜨린다. 정기를 더하고 갈증을 멎게 한다. [철을 피해야 한다. 고질병이 있는 사람에게는 쓰지 말아야 한다.]

木瓜

목과

木瓜酸溫, 治濕腫脚氣, 轉筋霍亂, 足膝無力. [忌鐵.]

목과는 성미가 시고 따뜻하다. 습사로 생긴 부종이나 각기를 치료한다. 전근(轉筋)이나 곽란이나 다리와 무릎에 힘이 없는 경우를 치료한다. [철을 피해야 한다.]

牡丹皮

목단피

牡丹皮苦寒, 治無汗之骨蒸, 散腹胃之熱, 凉心補腎, 破血通經. [忌鐵.]

목단피는 성미가 쓰고 차갑다. 땀이 나지 않는 골증열을 치료한다. 배와 뱃속의 열을 흘린다. 가슴을 식히고 신장의 기를 보하며 어혈을 깨뜨리고 월경을 제때 하게 한다. [철을 피해야 한다.]

玄參

현삼

玄參苦寒, 清三焦無根之火, 除骨蒸勞熱, 消癍疹丹毒, 瘰癧瘡毒. [酒蒸用, 忌鐵.]

현삼은 성미가 쓰고 차갑다. 삼초의 무근지화(無根之火)를 깨끗이 없애고 골증노열을 제거하며 반진(癍疹), 단독(丹毒), 나력(瘰癧), 창독(瘡毒)을 사그라뜨린다. [술에 찌서 쓴다. 철을 피해야 한다.]

苦參

고삼

苦參苦寒, 治癰腫瘡疥, 腸風下血, 眉脫, 赤白癩瘡. [不入湯, 用丸劑. ◦米泔浸一宿, 炒煙起用.]

고삼은 성미가 쓰고 차갑다. 웅저나 부종이나 창절이나 개창을 치료한다. 장풍(腸風)으로 하혈하거나 눈썹이 빠지거나 붉거나 흰 악창을 치료한다. [탕약에는 넣지 않고 환약으로 써야 한다. ◦쌀뜨물에 하룻밤 담갔다가 연기가 나도록 볶아서 쓴다.]

龍膽草

용담초

龍膽草苦寒, 瀉肝膽之熱, 除胃中伏熱, 療赤眼腫痛. [酒炒用.]

용담초는 성미가 쓰고 차갑다. 간장과 담부의 열을 배출시키고 위 속에 잠복한 열을 제거하며 눈이 충혈되면서 붓고 아픈 경우를 치료한다. [술에 축여 볶아서 쓴다.]

五加皮

오가피

五加皮辛溫, 益氣添精, 强筋骨, 健脚力, 治小兒行遲. [取白皮用.]

오가피는 성미가 맵고 따뜻하다. 기를 더하고 정기를 보태며 근골을 강하게 하고 다리를 튼튼하게 한다. 아이가 걷는 것이 더딘 경우를 치료한다. [흰 껍질을 쓴다.]

地榆

지유

地榆甘寒, 治血熱血痢腸風, 下血崩帶. [胃弱少用.]

지유는 성미가 달고 차갑다. 혈에 열이 있어 생기는 혈리(血痢), 장풍(腸風), 하혈, 봉루, 대하를 치료한다. [위가 약한 사람에게는 조금만 써야 한다.]

遠志

원지

遠志苦溫, 止驚悸, 安心神, 療健忘, 令人多記.

원지는 성미가 쓰고 따뜻하다. 경계(驚悸)를 멎게 하고 정신을 편안하게 한다. 건망을 치료하고 기억을 잘하게 만든다.

石菖蒲

석창포

石菖蒲辛溫, 開心竅, 通血脈, 聰耳目, 出聲音, 祛風除濕, 治小兒溫瘧, 身熱不解, 作湯浴. [一名昌陽, 生水澤, 一寸九節者良, 露根不用.]

석창포는 성미가 맵고 따뜻하다. 심장의 구멍을 열어 주고 혈맥을 통하게 하며 귀와 눈을 밝게 하며 목소리를 잘 나게 한다. 풍사와 습사를 제거한다. 소아의 온학(溫瘧)을 치료한다. 몸통이 뜨거운 증상이 풀리지 않을 때는 이것을 달여 목욕한다. [창양(昌陽)이라고도 한다. 물이나 연못에서 자란다. 1촌에 9마디인 것이 약효가 좋다. 겉에 드러난 뿌리는 쓰지 않는다.]

酸棗仁

산조인

酸棗仁甘酸, 斂汗祛煩, 多眠用生, 不寐炒用. [去殼.]

산조인은 성미가 달고 시다. 땀을 수렴시키고 번열을 없앤다. 계속 잠만 자는 경우에는 생것을 쓰고, 잠을 자지 못하는 경우에는 볶아서 쓴다. [껍데기를 제거하고 쓴다.]

栝子仁

백자인

栝子仁辛甘, 補心神, 益氣血, 斂汗扶虛, 止驚悸怔忡. [葉卽側栝葉, 治吐衄下血.]

백자인은 성미가 맵고 달다. 정신을 보충하고 기와 혈을 더한다. 땀을 수렴시키고 허한 기를 붙들어 준다. 경계와 정충을 멎게 한다. [잎은 측백엽이라고 하며 토혈, 육혈, 하혈을 치료한다.]

益智仁

익지인

益智仁辛溫, 安神益氣, 治遺溺遺精, 小便頻數. [去殼取仁.]

익지인은 성미가 맵고 따뜻하다. 정신을 안정시키고 기를 더한다. 유뇨(遺溺), 유정(遺精) 및 소변을 자주 누는 경우를 치료한다. [껍데기를 제거하고 속씨를 쓴다.]

茴香

회향

茴香辛溫, 治腎勞冷疝膀胱氣, 止嘔吐, 療脚腫. [有一種八角茴香, 氣味燥烈, 專治腰痛, 鹽湯洗炒.]

회향은 성미가 맵고 따뜻하다. 신로(腎勞), 냉산(冷疝), 방광기를 치료한다. 구토를 멎게 하고 다리가 부은 증상을 치료한다. [팔각회향이라는 것이 있는데 성미는 건조하고 강렬하다. 오로지 요통만 치료한다. 염탕으로 씻은 후 볶아서 쓴다.]

乾薑

건강

乾薑辛熱, 治心腹冷痛, 四肢厥冷, 解散風寒, 療胃寒嘔吐. [炮炒用, 止血炒黑.]

건강은 성미가 맵고 뜨겁다. 배 전체가 냉하면서 아픈 경우나 사지 끝부터 냉해지는 경우를 치료한다. 풍사와 한사를 흘린다. 뱃속이 차고 구토하는 경우를 치료한다. [습지에 싸서 구운 후 볶아서 쓴다. 피를 멎게 하려면 검게 볶아서 쓴다.]

白薑

백강

白薑, 去皮未經釀, 色白, 治肺寒. [乾薑生, 留皮自乾者也.]

백강은 생강의 껍질을 벗기고 통째 말린 것으로 색깔이 하얗다. 폐장이 한사에 상한 경우를 치료한다. [건생강은 생강을 껍질째 자연 건조한 것이다.]

附子

부자

附子大熱有毒, 治六腑沈寒, 五臟痼冷, 中寒陰毒, 肢體厥冷, 爲百藥長, 走而不守. ○ 烏頭、烏喙、天雄、附子、側子 [五物, 同出而異名也, 形似烏頭者, 爲烏頭, 一名川烏, 兩岐者, 爲烏喙, 細長三四寸者, 爲天雄, 根傍如芋散生者, 爲附子, 傍連生者,

爲側子. ◯附子, 一兩重爲佳, 厥冷回陽, 生用, 引藥行經, 麵裹煨去皮臍, 切四片, 童便浸透炒用.]

부자는 성미가 매우 뜨거우며 독이 있다. 육부의 깊은 한기나 오장에 쌓인 냉기나 중한(中寒)이나 음독(陰毒)이나 사지가 끝부터 냉해지는 경우를 치료할 때 모든 약재의 우두머리가 된다. 효능이 넓고 신속하지만 오래 지속되거나 집중되지 못하는 약성이 있다. ◯오두, 오훼, 천웅, 부자, 측자 [5가지 약재는 같은 식물이지만 이름이 다르다. 모양이 마치 까마귀 머리 같은 것은 오두(천오라고도 한다), 양 갈래인 것은 오훼, 가늘고 길이가 3 - 4촌 되는 것은 천웅, 뿌리 옆에 토란 같은 것이 여기 저기 난 것은 부자, 원뿌리 옆에 연달아 난 것은 측자이다. ◯부자는 무게가 1냥 정도 되는 것이 진품이다. 사지 끝부터 냉해질 때 양기를 회복시키려면 생것을 쓴다. 인경약으로 쓸 때는 밀가루반죽으로 싸서 잿불에 묻어 굵고 껍질과 배꼽을 제거한 후 4쪽으로 잘라 동변에 충분히 담갔다가 볶아서 쓴다.]

木香

목향

木香辛溫, 治心腹一切氣, 破癥癖, 止吐瀉霍亂痢疾, 行肝瀉肺. [生用則行氣, 煨用則止瀉, 實大腸. ◯形如枯骨者佳.]

목향은 성미가 맵고 따뜻하다. 가슴이나 배에 생긴 온갖 기병(氣病)을 치료한다. 징가와 현벽을 깨뜨리고 토사곽란이나 이질을 멎게 한다. 간기(肝氣)를 운행시키고 폐기(肺氣)를 사해준다. [생것을 쓰면 기를 운행시키고, 잿불에 묻어 구워 쓰면 설사를 멎게 하니 대장을 튼튼하게 하기 때문이다. ◯마른 뼈 같은 모양이 진품이다.]

檳榔

빈랑

檳榔辛溫, 散滯氣, 瀉胸中至高之氣, 治諸痢後重, 殺三蟲, 破癥癖. [其性沈, 有若鐵石之重墜下降氣, 閩廣之人多服者, 地氣溫煖蒸上, 故服此以降之.]

빈랑은 성미가 맵고 따뜻하다. 울체된 기를 흩으며 가슴 속에 가득 찬 숨을 빼준다. 여러 가지 이질과 뒤가 묵직한 것을 치료한다. 삼시충을 죽이며 징가와 현벽을 깨뜨린다. [가라앉는 성질이 있어 마치 쇠나 돌처럼 무겁게 아래로 누르고 기운을 내린다. 민(閩)이나 광(廣) 지역의 사람이 많이 먹는 이유는 기후가 따뜻하여 위쪽으로 증발시키기 때문에 빈랑을 복용하여 기운을 내리는 것이다.]

沈香

침향

沈香辛熱, 降氣煖胃, 止心腹冷痛, 養諸氣, 上而通天, 下而徹地. [入湯磨服, 入丸散研細用.]

침향은 성미가 맵고 뜨겁다. 기를 내리고 위 속을 따뜻하게 한다. 배 전체가 냉하고 아픈 것을 멎게 한다. 여러 가지 기운을 길러주어 위로는 꼭대기까지 달게 하고 아래로는 바닥까지 이르게 한다. [탕약에는 빻아서 넣고, 환이나 산에는 곱게 갈아서 넣는다.]

丁香

정향

丁香辛熱, 溫脾胃, 止反胃, 療腎氣奔豚, 冷氣腹痛. [有雌雄, 小者雄, 大者雌, 卽母丁香, 氣味尤香烈, 去蒂用. ○氣血盛者, 勿服.]

정향은 성미가 맵고 뜨겁다. 비장과 위를 따뜻하게 한다. 번위를 멈춘다. 신허(腎虛)로 생긴 분돈(奔豚)이나 냉복통을 치료한다. [정향은 암수가 있다. 작은 것은 수컷이고, 큰 것은 암컷이니 바로 모정향(母丁香)이다. 모정향은 성미가

정향보다 강렬하고 향이 있는데 꼭지를 제거하고 쓴다. ○기와 혈이 왕성한 경우에는 복용하지 말아야 한다.]

肉桂

육계

肉桂大熱小毒, 治沈寒痼冷, 卒疝心腹臍腰痛, 破瘀通經, 補命門相火不足, 久服, 明耳目, 悅顏色. [孕婦炒過用, 否墮胎.]

육계는 성미가 매우 뜨겁고 독이 조금 있다. 몸속 깊이 차갑거나 냉기가 쌓여 갑자기 산증, 심복통, 제요통(臍腰痛)이 생긴 경우를 치료한다. 어혈을 깨뜨리고 월경이 잘 나오게 한다. 명문에 상화(相火)가 부족한 것을 보한다. 오랫동안 복용하면 귀와 눈을 밝히고 안색을 좋게 한다. [임신부는 충분히 볶아서 써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유산될 수 있다.]

桂枝

계지

桂枝辛熱有小毒, 氣味俱輕, 能上行頭目, 發散表邪, 橫行肩膊, 治痛風, 兼瀉奔豚. [柳桂, 乃小枝嫩條, 尤善行上, 補陽氣, 虛人服之, 不生熱. ○諸桂一物, 以味之厚薄而別, 故枝皮尤輕.]

계지는 성미가 맵고 뜨거우며 독이 조금 있다. 기미가 모두 가볍기 때문에 머리와 눈까지 올라가서 표부의 사기를 발산시킬 수 있고 어깨와 팔뚝까지 마음대로 돌아다닐 수 있다. 통풍을 치료하며 동시에 분돈(奔豚)을 빼낸다. [육계(柳桂)는 바로 계지 중에서 작고 부드러운 가지로 계지보다 위로 더 잘 올라간다. 양기를 보한다. 허약한 사람이 복용해도 열이 나지 않는다. ○여러 가지 계(桂)는 같은 식물이니 맛의 농담으로 구별한 것이다. 그러므로 계지와 계피는 맛이 더욱 약하다.]

桂皮

계피

桂皮有小毒, 止腹冷痛, 殺三蟲, 補五勞七傷, 通九竅, 利關節. [桂皮一斤, 削皮上甲, 竝內薄皮, 取心中, 辛味五兩, 爲桂心, 治九種心痛, 及中惡寒疝, 二三分, 入於補陰藥中, 則能行血補腎.]

계피는 독이 조금 있다. 냉복통을 멎게 하고 삼시충을 죽인다. 오로칠상(五勞七傷)을 좋아지게 하고 구구(九竅)를 통하게 하며 관절을 부드럽게 만든다.

[계피 1근의 겉껍질과 속껍질을 벗기고 중심부만 남기면 매운맛이 나는 것 5냥이 남는데 이것이 계심이다. 9종의 심통과 중악(中惡), 한산(寒疝)을 치료한다. 2 - 3푼을 보음제(補陰劑)에 넣으면 혈을 운행시키고 신장을 보하는 효과가 있다.]

吳茱萸

오수유

吳茱萸辛熱小毒, 治一切疝氣, 臍腹冷痛, 下焦寒濕脚氣, 開利胸膈. [多服散氣, 湯浸去苦汁, 鹽水炒.]

오수유는 성미가 맵고 뜨거우며 조금 독이 있다. 여러 가지 산증으로 배꼽 부근이 냉하면서 아픈 경우, 하초의 한사나 습사로 생긴 각기를 치료한다. 흉격을 소통시킨다. [많이 복용하면 기를 흩어지게 한다. 뜨거운 물에 담가 쓴 물을 제거한 후 소금물에 축여 볶아서 쓴다.]

肉豆蔻

육두구

肉豆蔻辛溫, 補脾溫中, 消食下氣, 治腹冷瀉痢. [麴裏煨熟.]

육두구는 성미가 맵고 따뜻하다. 비장을 보하고 뱃속을 따뜻하게 하며 음식을 소화시키고 기를 아래쪽으로 내린다. 배가 냉하면서 설사하는 경우를 치료한다. [밀가루 반죽으로 싸서 잿불에 구워 익혀서 쓴다.]

草豆蔻

초두구

草豆蔻辛溫, 治心腹冷痛, 止霍亂吐瀉. [麵包煨.]

초두구는 성미가 맵고 따뜻하다. 배 전체가 냉하면서 아픈 경우를 치료한다. 토사곽란을 멎게 한다. [밀가루 반죽으로 싸서 잿불에 묻어 굽는다.]

白豆蔻

백두구

白豆蔻大溫, 主冷積心痛, 嘔吐反胃, 消穀下氣. [麵裹煨去皮研.]

백두구는 성미가 매우 따뜻하다. 외부의 냉기가 쌓여 가슴이 아픈 경우나 구토나 번위를 치료한다. 음식을 소화시키고 기를 아래쪽으로 내린다. [밀가루 반죽으로 싸서 잿불에 구운 후 껍질을 제거하고 갈아서 쓴다.]

草果

초과

草果辛溫, 治一切冷氣寒瘧, 消瘧母, 止嘔吐. [麵裹煨研.]

초과는 성미가 맵고 따뜻하다. 여러 가지 냉기로 생긴 한학(寒瘧)을 치료한다. 학모(瘧母)를 사그라뜨리고 구토를 멎게 한다. [밀가루 반죽으로 싸서 잿불에 묻어 구운 후 갈아서 쓴다.]

訶子

가자

訶子苦溫, 消痰下氣, 止瀉痢嗽喘, 斂肺氣. [麵包煨, 去核取肉.]

가자는 성미가 쓰고 따뜻하다. 담음을 사그라뜨리고 기를 아래쪽으로 내리며 설사나 이질이나 기침이나 천식을 멈춘다. 폐기(肺氣)를 수렴시킨다. [밀가루 반죽에 싸서 잣불에 묻어 구운 후 씨를 제거하고 과육을 쓴다.]

高良薑

고량강

高良薑性熱, 治胃中冷逆, 霍亂吐瀉腹痛, 消宿食, 解酒毒. [剉油炒用.]

고량강은 성미가 뜨겁다. 위 속에서 냉한 기운이 역류하는 경우 및 객란, 구토, 설사, 복통을 치료한다. 묵은 음식을 소화시키고 주독(酒毒)을 푼다. [썰어서 기름에 축여 볶아 쓴다.]

山查肉

산사육

山查肉甘酸, 消磨肉食, 行氣健脾開胃, 止瀉痢, 下腹脹. [半熟者蒸去核用, 陳久者良.]

산사육은 성미가 달고 시다. 고기를 소화시킨다. 기를 운행시키고 비장을 튼튼하게 하며 음식을 잘 넘기게 한다. 설사나 이질을 멎게 하고 복창을 배출시킨다. [반 정도 익힌 것을 찢 후 씨를 제거하고 쓴다. 오래 묵은 것이 효능이 좋다.]

神曲

신곡

神曲味甘, 開胃消食, 破結逐痰, 止霍亂嘔吐, 調中下氣. [炒用⁶研.]

신곡은 성미가 달다. 입맛을 좋게 하고 음식을 소화시키며 멍울을 깨뜨리고 담음을 몰아낸다. 객란과 구토를 멎게 한다. 뱃속을 편안하게 하며 기를 아래쪽으로 내린다. [볶은 후 갈아서 쓴다.]

麥芽

맥아

麥芽甘溫, 消宿食, 除心腹膨脹, 止霍亂, 破癥癖. [炒黃研細, 久服消腎.]

맥아는 성미가 달고 따뜻하다. 묵은 음식을 소화시킨다. 배 전체가 똥똥해지는 증상을 없애 객란을 멎게 하며 징가와 현벽을 깨뜨린다. [누렇게 볶은 후 곱게 갈아서 쓴다. 오랫동안 복용하면 신기(腎氣)를 소모시킨다.]

郁李仁

옥리인

郁李仁苦辛, 治通身浮腫, 利小便, 療腸中結氣, 關格不通. [去殼皮用.]

옥리인은 성미가 쓰고 맵다. 온몸이 붓는 증상을 치료한다. 소변을 잘 나오게 한다. 장 속에 맺힌 기운과 관격으로 대소변이 나오지 않는 경우를 치료한다. [겉의 껍데기를 제거하고 쓴다.]

蘇子

소자

蘇子味辛, 消痰降氣, 止嗽定喘, 潤心肺, 療霍亂反胃. [炒研.]

소자는 성미가 맵다. 담음을 사그라뜨리고 기를 아래쪽으로 내린다. 기침을 멎게 하고 혈떡거리는 숨을 안정시킨다. 심장과 폐장을 촉촉하게 한다. 객란과 번위를 치료한다. [볶은 후 갈아서 쓴다.]

白芥子

백개자

白芥子辛溫, 專治脇痰痛, 破癰痞, 止嗽下氣, 利九竅. [炒研.]

백개자는 약성이 맵고 따뜻하다. 옆구리가 담음으로 아픈 증상을 전문으로 치료한다. 벽적(癰積)과 비괴(痞塊)를 깨뜨리고 기침을 멎게 하며 기를 아래쪽으로 내린다. 구구(九竅)를 잘 소통되게 한다. [볶은 후 갈아서 쓴다.]

蘿菔子

나복자

蘿菔子辛溫, 破積聚, 下氣, 利二便, 消腹脹. [炒研.]

나복자는 성미가 맵고 따뜻하다. 적취를 깨뜨리고 기를 아래쪽으로 내린다. 대소변을 잘 나오게 하고 복창(腹脹)을 사그라뜨린다. [볶은 후 갈아서 쓴다.]

甘遂

감수

甘遂苦寒有毒, 破癥癖, 消痰結浮腫脹滿, 通利水道. [麩炒, 反甘草.]

감수는 성미가 쓰고 차가우며 독이 있다. 징가와 현벽을 깨뜨리고 담결(痰結), 부종, 창만을 사그라뜨린다. 소변을 잘 나오게 한다. [밀기울과 함께 볶아서 쓴다. 감초와는 상반(相反) 관계이다.]

大戟

대극

大戟甘寒小毒，治水腫脹滿，黃疸溫瘡，破癥結，墮胎。[蒸炒用，反甘草。]

대극은 성미가 차갑고 독이 조금 있다. 수종(水腫), 창만(脹滿), 황달(黃疸), 온학(溫瘡)을 치료한다. 징가와 멍울을 깨뜨린다. 태(胎)를 떨어뜨린다. [찌 후 볶아서 쓴다. 감초와 상반(相反) 관계이다.]

芫花

원화

芫花苦寒有毒，消浮脹，療咳嗽瘴瘡魚肉毒，殺蟲。[醋炒用，不可近眼。]

원화는 성미가 쓰고 차가우며 독이 있다. 부종이나 창만을 사그라뜨린다. 기침, 장학(瘡瘡) 및 생선이나 육고기 독을 치료한다. 충을 죽인다. [식초에 축여서 볶아 쓴다. 눈 쪽에 가까이 대지 말아야 한다.]

牽牛

견우

牽牛苦寒，通利腸胃，散壅滯，破癥癖，消浮脹。[一名黑丑，又白丑，黑屬水效速，白屬金效遲，一斤取頭末五兩用。]

견우는 성미가 쓰고 차갑다. 장과 위를 잘 소통시키며 웅체된 것을 흘리고 징가와 현벽을 깨뜨리고 부종과 창만을 사그라뜨린다. [흑축(黑丑)이라고도 한다. 백축(白丑)도 있다. 흑축은 오행 중 수(水)에 속하므로 약효가 빠르고, 백축은 금(金)에 속하므로 약효가 느리다. 1근을 체에 쳐서 처음 나온 가루 5냥을 쓴다.]

巴豆

파두

巴豆辛熱大毒, 蕩滌腸胃, 治十種浮脹, 破癥癖, 殺蟲墮胎. [去心皮膜油, 爲霜用, 或生用煮用.]

파두는 약성이 맵고 뜨거우며 독이 매우 강하다. 장과 위를 씻어버린다. 10종의 부종과 창만을 치료한다. 징가와 헌벽을 깨뜨리고 충을 죽이며 태(胎)를 떨어뜨린다. [심과 피막과 기름을 제거한 후 서리가 앉은 것처럼 만들어서 쓴다. 혹은 생것으로 쓰거나 끓여서 쓰기도 한다.]

葶藶子

정력자

葶藶子苦寒, 消遍身浮脹, 逐膀胱留熱, 止嗽定喘, 除胸膈痰飲. [葶藶有苦甜二種, 苦瀉下, 甘少緩. ◦此藥性急, 最能害人, 洗去沙土, 隔紙炒研, 以大棗緩之.]

정력자는 성미가 쓰고 차갑다. 온몸이 붓고 뻥뻥해진 증상을 사그라뜨리고 방광에 머물고 있는 열을 몰아낸다. 기침을 멎게 하고 혈떡거리는 숨을 안정시킨다. 흉격의 담음을 제거한다. [정력자는 달고 쓴 2가지 종류가 있다. 고정력은 설사를 하게 하고 침정력은 조금 천천히 대변으로 나오게 한다. ◦이 약재는 약성이 급하여 사람을 몹시 상하게 한다. 물에 씻어 모래나 흙을 제거하고 종이를 대고 볶은 후 갈아서 쓴다. 대조와 함께 써서 설사시키는 속도를 늦춰야 한다.]

三稜

삼릉

三稜味苦, 破癥瘕癖痞, 散氣滯, 消血積. [虛者勿用, 醋浸透炒.]

삼릉은 성미가 쓰다. 징가, 벽적, 비괴를 깨뜨린다. 울체된 기를 흘리고 어혈을 사그라뜨린다. [몸이 허한 경우에는 쓰지 말아야 한다. 식초에 충분히 담갔다가 볶아서 쓴다.]

蓬朮

봉출

蓬朮辛溫, 治一切氣, 通月經, 破血塊癥癖, 止心腹痛, 療奔豚. [煨熟承熟, 搗碎取末.]

봉출은 성미가 맵고 따뜻하다. 여러 가지 통증을 치료하고 월경을 통하게 한다. 혈괴(血塊), 징가, 헌벽을 깨뜨린다. 심복통을 멎게 하고 분돈(奔豚)을 치료한다. [잿불에 묻어 구운 후 뜨거울 때 뺏아서 가루로 만들어 쓴다.]

五靈脂

오령지

五靈脂味甘, 治血痢腹痛, 破瘀行血. [止血醋炒, 行血生用.]

오령지는 성미가 달다. 혈리(血痢)로 배가 아픈 경우를 치료한다. 어혈을 깨뜨리고 혈을 잘 운행시킨다. [지혈할 때는 식초에 축여서 볶아 쓰고, 혈을 잘 운행시킬 때는 생것을 쓴다.]

蒲黃

포황

蒲黃味甘, 破血止血生血, 傳小兒重舌口瘡, 及虛熱蜜調多服. [補血炒用, 破血生用.]

포황은 성미가 달다. 어혈을 깨뜨리고 지혈시키며 혈을 만든다. 소아의 중설(重舌)이나 구창(口瘡)에 뿌린다. 허혈에는 꿀을 타서 많이 복용한다. [혈을 보하려면 볶아서 쓰고, 어혈을 깨뜨리려면 생것을 쓴다.]

桃仁

도인

桃仁甘寒, 潤大腸, 破瘀通經, 止心腹痛. [湯泡, 去皮尖雙仁, 研如泥用.]

도인은 성미가 달고 차갑다. 대장을 촉촉하게 하고 어혈을 깨뜨리며 월경을 잘 통하게 한다. 심복통을 멎게 한다. [뜨거운 물에 담갔다가 껍질과 뾰족한 부분과 쌍인(雙仁)을 제거한 후 질게 갈아서 쓴다.]

紅花

홍화

紅花辛溫, 治產後血暈, 腹內惡血不盡絞痛, 下死胎. [小用則入心養血, 酒洗多用則破血. 〇子, 治痘疹不快出.]

홍화는 약성이 맵고 따뜻하다. 산후의 혈훈(血暈) 및 뱃속에 악혈(惡血)이 모두 빠지지 않아 배가 쥐어짜듯 아픈 경우를 치료한다. 죽은 태아를 나오게 한다. [조금 쓰면 심장으로 들어가 혈을 길러주고, 술에 씻어서 많이 쓰면 어혈을 깨뜨린다. 〇홍화의 씨는 두창이나 마진이 시원하게 돋지 않는 경우를 치료한다.]

薑黃

강황

薑黃味辛, 治心腹結積脹痛, 逐冷氣, 消宿食, 破瘀血. [大者爲薑黃.]

강황은 성미가 맵다. 배에 생긴 멍울이나 적취나 복창이 있으면서 아픈 경우를 치료한다. 몸에 쌓인 냉기를 몰아내고 묵은 음식을 소화시키며 어혈을 깨뜨린다. [큰 것이 강황, 작은 것이 울금이다.]

鬱金

울금

鬱金味苦, 破血生肌, 治血淋溺血, 婦人產後敗血衝心欲死. [少⁷者爲鬱金.]

울금은 성미가 쓰다. 어혈을 깨뜨리고 살이 나게 한다. 혈림(血淋)과 요혈(溺血) 및 부인이 산후에 악혈이 심장으로 치받아 죽을 것 같은 경우를 치료한다. [큰 것이 강황, 작은 것이 울금이다.]

金銀花

금은화

金銀花甘溫, 花與莖葉同功, 治外感寒熱, 諸般瘡癰腫毒. ○忍冬藤煮汁, 釀酒飲, 補虛療風, 輕身益壽, 臘月採, 常服, 古方云, 誰知至賤之中, 乃有殊常之功. [乾者力不及生.]

금은화는 성미가 달고 따뜻하다. 꽃과 줄기와 잎은 효능이 같다. 한사나 열사에 외감된 경우 및 여러 가지 창이나 웅저나 부종의 독기를 치료한다. ○인동등 달인 물로 술을 담아 마시면 허로를 보하고 풍증을 치료하며 몸을 가볍게 하고 수명을 늘린다. 선달에 채취하여 늘 복용한다. 옛 방서에 '누가 알리오, 지극히 보잘것없는 것들 중에, 이것이 비범한 효능이 있는 줄.'이라고 하였다. [말린 것은 효능이 생것보다 못하다.]

蒺藜

질러

蒺藜苦溫,療諸瘡搔痒,白癩風,祛翳明目.

질러는 성미가 쓰고 따뜻하다. 여러 가지 창으로 가려운 경우 및 백전풍(白癩風)을 치료한다. 예막을 없애고 눈을 밝게 한다.

蛇床子

사상자

蛇床子辛溫,主男子陰痿,濕痒洗男女陰,去風冷,大益陽事. [入丸散,微炒去皮殼,取仁用,作湯洗生用.]

사상자는 약성이 맵고 따뜻하다. 남자의 음위(陰痿)를 치료한다. 남녀의 음부가 습하고 가려운 경우에는 이것으로 씻는다. 풍사나 냉기를 제거한다. 남자의 정력에 매우 유익하다. [환제나 산제에 넣을 때는 살짝 볶아서 걸쭉질과 속껍질을 제거한 후 속의 과육만 쓰고, 탕제에 넣을 때는 씻어서 생것을 쓴다.]

天麻

천마

天麻辛寒,主諸風濕痺,四肢拘攣,頭目眩暈,小兒驚風風癇.

천마는 성미가 맵고 차갑다. 여러 가지 풍습비(風濕痺)나 사지가 경직되는 증상이나 헌헌 및 소아의 경풍(驚風)과 풍간(風癇)을 치료한다.

白附子

백부자

白附子辛溫小毒,治中風諸疾,及風痰壅塞,聲如引鉅,聲音不出. [炮用.]

백부자는 성미가 맵고 따뜻하며 독이 조금 있다. 중풍으로 생긴 여러 가지 증상을 치료한다. 또한 풍담(風痰)이 목구멍을 막아 목소리가 톱질하는 소리처럼 되거나 목소리가 아예 나오지 않는 경우도 치료한다. [습지에 싸서 구운 후 쓴다.]

全蝎

전갈

全蝎味辛有毒, 治風痰口眼喎斜, 小兒驚風癇疾. [水洗, 去腹中土炒用, 梢者尾, 力尤功.]

전갈은 성미가 맵고 독이 있다. 풍담(風痰)이나 구안와사나 소아의 경풍(驚風)과 간질(癇疾)을 치료한다. [물로 씻고 뱃속의 흙을 제거한 후 볶아서 쓴다. 갈 초는 전갈의 꼬리로 약효가 더욱 좋다.]

白僵蠶

백강잠

白僵蠶味酸, 治諸風驚癇, 濕痰喉痺, 皮膚搔痒. [薑炒去鬚.]

백강잠은 성미가 시다. 여러 가지 풍증, 경풍, 간질, 습담(濕痰), 후비(喉痺) 및 피부의 가려움증을 치료한다. [생강즙에 축여 볶은 후 주둥이 부분을 제거하고 쓴다.]

蟬退

선되

蟬退甘平, 治諸風驚癇, 目昏翳障, 痘瘡出不快. [水洗去頭足翅.]

선되는 성미가 달고 평이하다. 여러 가지 풍증, 경풍, 간질과 눈이 어두워지면
서 예막이 끼는 경우와 두창이 돋기는 했으나 시원하게 돋지 않는 경우를 치료
한다. [물로 씻고 대가리와 다리와 날개를 제거하고 쓴다.]

木鱉子

목별자

木鱉子甘溫, 治腹中冷痛, 疝氣衝上, 逐瘡毒, 療乳癰. [去殼用.]

목별자는 성미가 달고 따뜻하다. 냉복통과 산증기가 위로 치미는 경우를 치료
한다. 창독(瘡毒)을 몰아내고 유옹(乳癰)을 치료한다. [껍데기를 제거하고 쓴
다.]

鼠粘子

서점자

鼠粘子辛溫, 消瘡毒癰疹, 療風熱咽喉痛. [炒研, 一名牛蒡子, 一名惡實.]

서점자는 약성이 맵고 따뜻하다. 창독(瘡毒)과 반진(癰疹)을 사그라뜨린다. 풍
사나 열사로 생긴 인후통을 치료한다. [볶은 후 갈아서 쓴다. 우방자나 악실이
라고도 부른다.]

茵陳

인진

茵陳苦寒, 治熱結黃疸, 小便黃赤, 瀉濕, 利水道, 療瘴癘.

인진은 성미가 쓰고 차갑다. 열이 뭉쳐서 생긴 황달과 소변이 누렇거나 붉은
경우를 치료한다. 습사를 배출시키고 소변을 잘 나오게 한다. 장학(瘴癘)을 치
료한다.

蔓荊子

만형자

蔓荊子味苦, 治頭痛耳痛, 肢節拘攣, 去翳收淚. [酒炒研.]

만형자는 성미가 쓰다. 두통, 이통(耳痛), 사지가 오그라드는 것을 치료한다.
예막을 없애고 눈물이 나지 않게 한다. [술에 축여 볶은 후 갈아서 쓴다.]

馬兜鈴

마두령

馬兜鈴苦寒, 治肺熱久嗽, 定喘消痰下氣. [收⁸梘面子, 去殼膜, 微炒用.]

마두령은 성미가 쓰고 차갑다. 폐장의 열로 오랫동안 기침을 하는 증상을 치료한다. 숨을 헐떡거리는 증상을 안정시키고 담음을 사그라뜨리며 기를 아래쪽으로 내린다. [속에 있는 씨를 모으고 껍데기와 피막을 제거한 후 살짝 볶아서 쓴다.]

秦艽

진교

秦艽微冷, 治骨蒸寒熱, 除風寒濕痺, 筋攣骨痛.

진교는 성미가 약간 서늘하다. 골증열과 오한발열을 치료한다. 풍비와 한비와 습비 및 힘줄이 당기면서 뼈까지 아픈 경우를 없앤다.

紫菀

자완

紫菀苦辛, 治痰喘咳嗽, 肺痿吐膿. [酒洗.]

자완은 성미가 쓰고 맵다. 담천(痰喘)과 기침 및 폐위(肺痿)로 고름을 토하는 증상을 치료한다. [술로 씻어서 쓴다.]

款冬花

관동화

款冬花甘溫, 理肺消痰, 止喘嗽, 除煩熱.

관동화는 성미가 달고 따뜻하다. 폐기를 다스리고 담음을 사그라뜨리며 심한 기침을 멎게 하고 번열을 없앤다.

金沸草

금비초

金沸草性寒小毒, 治胸上痰唾如膠, 脇痰脹痛, 止咳嘔, 祛風明目. [蒸熟曬乾用, 芒子刺喉, 綿濾去滓. ○一名旋覆花.]

금비초는 성미가 차갑고 독이 조금 있다. 흥격에 아교처럼 찢득거리는 가래가 있는 경우와 옆구리가 담음 때문에 뽕뽕해지면서 아픈 경우를 치료한다. 기침과 구토를 멎게 한다. 풍사를 제거하며 눈을 맑게 한다. [찌서 익힌 후 벌레 말려 쓴다. 가시랭이가 목구멍을 찌르므로 천에 걸러 제거하고 쓴다. ○선복화라고도 부른다.]

桑白皮

상백피

桑白皮甘寒, 瀉肺火, 定喘急, 止咳嗽唾血, 消浮脹, 利水道, 止煩渴消痰. [出土者殺人, 東行根佳, 忌鐵. ○咳嗽, 蜜蒸或蜜炒, 利水生用.]

상백피는 성미가 달고 차갑다. 폐장의 열을 배출하고 숨을 급하게 헐떡거리는 증상을 안정시키며 기침이나 타혈(唾血)을 멎게 한다. 부종이나 창만을 사그라뜨리고 소변을 잘 나오게 하며 번갈을 멈추고 담음을 사그라뜨린다. [땅 밖으로 나온 것은 사람을 죽인다. 동쪽으로 뺀 뿌리가 진품이다. 철을 피해야 한다. ◦기침에는 꿀을 묻혀 찌거나 혹은 꿀을 묻혀 볶는다. 소변을 잘 나오게 할 때는 생것을 쓴다.]

阿膠

아교

阿膠甘溫, 益肺氣, 定喘, 止嗽唾膿血, 赤白久痢, 治血虛動胎, 腰腹重墜. [眞膠難得, 寧用黃牛皮膠, 拌蛤粉炒成珠用.]

아교는 성미가 달고 따뜻하다. 폐기(肺氣)를 더하고 숨을 헐떡거리는 증상을 안정시킨다. 기침하면서 피고름을 뱉는 경우와 오랫동안 낫지 않는 적백리를 멎게 한다. 혈허(血虛)로 태가 불안해져 허리와 배가 심하게 무너진 경우를 치료한다. [아교의 진품은 구하기 어렵다. 차라리 누런 소 가죽의 아교를 합분(蛤粉)과 섞은 후 볶아서 구슬처럼 만들어 쓰는 편이 낫다.]

杏仁

행인

杏仁苦溫小毒, 治風痰喘咳, 解肌, 潤大腸, 殺狗肉毒. [去皮尖, 麯炒令黃色用, 生熟俱宜, 惟半生半熟殺人. ◦病人有火有汗, 童便浸三日用.]

행인은 성미가 쓰고 따뜻하며 독이 조금 있다. 풍담(風痰)으로 심한 기침을 하는 경우를 치료한다. 해기시키는 작용이 있다. 대장을 촉촉하게 하고 개고기의 독을 줄인다. [껍질과 뾰족한 부분을 제거한 채 밀기울과 함께 누렇게 되도록

볶아서 쓴다. 생것이나 익힌 것은 모두 약으로 쓰기에 적합하지만 절반만 익은 것은 사람을 죽일 수 있다. ◦환자가 열이 있거나 땀이 나는 경우에는 동변에 3일 동안 담갔다가 써야 한다.]

烏梅

오매

烏梅酸溫, 收斂肺氣, 生津止渴, 療瘴瘧久痢. [去核.]

오매는 성미가 시고 따뜻하다. 폐기(肺氣)를 수렴시키고 진액을 생기게 하여 갈증을 멎게 한다. 장학(瘴瘧)과 구리(久痢)를 치료한다. [씨를 빼고 쓴다.]

五味子

오미자

五味子酸溫, 滋腎水, 煖腎臟, 除煩熱, 生津止渴, 補虛羸, 強陰益精, 夏月常服, 補五臟氣. [不宜多食, 多則收補太驟, 反致虛熱.]

오미자는 성미가 시고 따뜻하다. 신수(腎水)를 북돋고 신장을 따뜻하게 하며 번열을 없앤다. 진액을 생기게 하여 갈증을 없앤다. 허로로 여윈 경우를 보하고 음기를 튼튼하게 하며 정기를 더한다. 여름철에 자주 복용하면 오장의 기운을 보한다. [너무 많이 먹지 말아야 한다. 많이 먹으면 수렴시키고 보하는 약성이 너무 커져서 도리어 허열이 생기게 된다.]

瓜蒌

과루

瓜蒌苦寒, 潤燥降火, 治痰咳嗽, 利胸膈鬱熱, 止消渴, 生津液. [瓜蒌者, 連皮汁竝子而言也. ◦仁, 炒去殼, 去油, 治胸痞, 潤心肺. ◦葉莖, 療熱中傷暑. ◦穰乾者煎茶, 化痰降氣, 又和葛粉拌炒熟, 爲末, 沸湯下, 治肺燥熱渴, 大便秘.]

과루는 성미가 쓰고 차갑다. 건조함을 촉촉하게 하고 화기를 내린다. 가래 기침을 치료한다. 흉격에 울체된 열을 뚫어주고 소갈을 멎게 한다. 진액을 생기게 한다. [과루는 껍질의 즙과 씨까지 있는 것을 말한다. ○과루인은 볶아서 껍질과 기름기를 제거하고 쓴다. 흉격이 딱 막힌 증상을 치료한다. 심장과 폐장을 촉촉하게 한다. ○과루의 줄기와 잎은 열중(熱中)과 서상(暑傷)을 치료한다. ○과루의 속 말린 것을 차로 달여 먹으면 담음을 녹이고 기를 내려가게 한다. 또는 갈분(葛粉)과 함께 볶아서 익히고 가루 낸 후 끓인 물로 넘기면 폐장이 건조해져 생긴 열갈(熱渴)과 변비를 치료한다.]

天花粉

천화분

天花粉性寒, 止煩渴, 祛熱痰, 退黃, 除腸中痼熱. [取瓜蒌根, 作粉用, 虛熱人食之, 甚佳.]

천화분은 성미가 차갑다. 번갈을 멎게 하고 열담(熱痰)을 제거하며 황달을 떨어지게 한다. 잘 낫지 않는 장 속의 열을 없앤다. [과루근을 가루 내어 쓴다. 허열이 있는 사람이 먹으면 매우 효과가 좋다.]

蜜蒙花

밀몽화

蜜蒙花味甘, 主明目, 治虛翳青盲, 小兒疳眼, 痘後翳莫.

밀몽화는 성미가 달다. 눈을 밝게 한다. 보이지 않는 예막으로 청맹이 된 경우나 소아의 감안(疳眼)이나 두창을 앓은 후에 예막이 생긴 경우를 치료한다.

甘菊

감국

甘菊味甘, 除熱祛風, 頭眩眼赤, 收淚. [家園黃菊甘甜者佳, 酒漬曬乾.]

감국은 성미가 달다. 열사와 풍사를 없앤다. 머리가 어지럽거나 눈이 충혈되는 경우를 치료한다. 눈물이 나오지 않게 한다. [집 화원에 심은 노란 국화 중에 서 단맛이 나는 것이 진품이다. 술에 담갔다가 볶에 말려 쓴다.]

木賊

목적

木賊味甘, 益肝退翳, 治腸風下血. [去節, 童便浸, 曬乾.]

목적은 성미가 달다. 간기(肝氣)를 더하고 예막을 떨어뜨린다. 장풍(腸風)으로 하혈하는 경우를 치료한다. [마디를 제거하고 동변에 담갔다가 볶에 말려서 쓴다.]

草決明

초결명

草決明味甘, 除肝熱目赤, 收淚, 止鼻衄. [微炒用.]

초결명은 성미가 달다. 간장의 열 때문에 눈이 충혈된 증상을 없앤다. 눈물이 나오지 않게 하고 코피를 멎게 한다. [살짝 볶아서 쓴다.]

犀角

서각

犀角酸寒, 化毒辟邪, 解熱止血, 鎮心除驚. [烏犀佳, 不經火.]

서각은 성미가 시고 차갑다. 독기를 녹이고 사수(邪祟)를 물리치며 열을 풀고 출혈을 멈추며 마음을 진정시키고 경기를 없앤다. [오서(烏犀)의 뿔이 진품이다. 불에 달게 하지 말아야 한다.]

羚羊角

영양각

羚羊角性寒, 明目清肝, 却驚解毒, 鎮心安神.

영양각은 성미가 차갑다. 눈을 밝게 하고 간기(肝氣)를 깨끗하게 하며 경기를 물리치고 독기를 풀어주며 마음을 진정시키고 정신을 편안하게 한다.

龜甲

구갑

龜甲味甘, 滋陰補腎, 逐瘀續筋, 治解顱. [生取甲剔去肉, 爲佳, 煮脫者不用, 凡甲兩邊肋骨露出者, 煮取.]

구갑은 성미가 달다. 음기를 북돋고 신기(腎氣)를 보하며 어혈을 몰아내고 근육을 다시 붙게 한다. 소아의 해로(解顱)를 치료한다. [산 채로 등딱지를 벗기고 고기를 발라낸 것이 진품이다. 삶아서 등딱지를 벗긴 것은 쓰지 않는다. 대 채로 등딱지 양쪽에 늑골이 드러난 것은 이미 삶아서 벗긴 것이다.]

鱉甲

별갑

鱉甲酸平, 治勞嗽骨蒸熱, 小兒癰瘡寒熱. [與龜甲, 取用同也.]

별갑은 성미가 시고 평이하다. 노수(勞嗽)나 골증열을 치료한다. 소아의 벽적이나 비괴나 오한발열을 치료한다. [구갑과 채취법이 같다.]

紫草

자초

紫草苦寒, 通九竅, 利水道, 消脹滿, 茸, 治痘出不快. [茸酒洗用, 紫草反泄.]

자초는 성미가 쓰고 차갑다. 구구(九竅)를 소통시키고 소변을 잘 나가게 하며 창만을 사그라뜨린다. 자초용은 두창이 돋기는 했으나 속시원히 돋지 않는 경우를 치료한다. [자초용은 술로 씻어서 쓴다. 자초를 술로 씻어 쓰면 도리어 설사를 하게 만든다.]

地膚子

지부자

地膚子性寒, 去膀胱熱, 通小便, 祛皮膚搔痒.

지부자는 성미가 차갑다. 방광의 열을 없애고 소변을 잘 나오게 하며 피부의 가려움증을 없앤다.

苦練根

고련근

苦練根性寒, 殺諸蟲, 破積聚. [取白皮用.]

고련근은 성미가 차갑다. 여러 충을 죽이고 적취를 깨뜨린다. [속껍질을 쓴다.]

樗根白皮

저근백피

樗根白皮味苦, 治瀉痢崩帶, 腸風痔漏, 燥濕澁精.

저근백피는 성미가 쓰다. 설사, 이질, 봉루, 대하, 장풍(腸風), 치루(痔漏)를 치료한다. 몸의 습사를 말리고 정액을 잡아준다.

皂角

조각

皂角味辛, 通關利竅, 消風化痰, 破堅癥, 能墮胎. [去皮及子, 酥灸或蜜灸. ◦洗垢, 甚妙.]

조각은 성미가 맵다. 막힌 곳을 뚫어주고 몸의 구멍을 잘 소통시키며 풍사를 없애고 담음을 녹인다. 단단한 징가를 깨뜨리고 태를 떨어지게 만든다. [껍질과 씨를 제거한 후 연유나 꿀을 묻히고 구워서 쓴다. ◦때를 잘 씻어내린다.]

胡黃連

호황련

胡黃連苦寒, 骨蒸勞熱, 小兒諸疳, 羸瘦煩渴, 浮脹瀉痢.

호황련은 성미가 쓰고 차갑다. 골증노열 및 소아가 여러 가지 감질로 바싹 마르면서 번갈, 부종, 창만, 설사, 이질이 생기는 경우를 치료한다.

使君子

사군자

使君子甘溫, 主小兒五疳, 殺三蟲, 止瀉痢, 小便白濁. [煨去殼用, 或兼殼用.]

사군자는 성미가 달고 따뜻하다. 소아의 다섯 가지 감질을 치료하고 삼시충을 죽이며 설사나 이질을 멎게 하고 소변의 백탁(白濁)을 치료한다. [잿불에 묻어 구운 후 껍데기를 제거하고 쓴다. 간혹 껍데기째 쓰기도 한다.]

蕪荑

무이

蕪荑味苦, 治小兒疳積, 殺蟲, 冷氣心腹痛. [其臭如傷敗之物, 大者麩炒黃用.]

무이는 성미가 쓰다. 소아의 감적(疳積)을 치료한다. 충을 죽이고 주변의 냉기 때문에 생긴 심복통을 치료한다. [무이는 썩은 내가 난다. 큰 것을 밀기울과 함께 누렇게 볶아서 쓴다.]

蘆薈

노회

蘆薈苦寒, 療小兒五疳, 殺三蟲, 治癰癤驚搐. [黑色如錫, 入水化自合者, 爲眞.]

노회는 성미가 쓰고 차갑다. 소아의 다섯 가지 감질을 치료하고 삼시충을 죽이며 전간(癲癇)과 경축(驚搐)을 치료한다. [주석처럼 검은 색을 띄고 물에 넣었을 때 녹아서 저절로 뭉쳐지는 것이 진품이다.]

阿魏

아위

阿魏性溫, 消肉積, 化宿食, 殺諸蟲, 破癥癖冷氣, 下惡物, 辟瘟疫, 止霍亂心腹冷痛. [狀如桃膠, 黃散, 極臭而能止臭, 取半銖, 安熟銅器中一宿, 沾處白如銀者, 眞.]

아위는 성미가 따뜻하다. 육고기로 체한 것이나 묵은 음식을 소화시키고 여러 가지 충을 죽이며 징가나 헌벽이나 뭉친 냉기를 깨뜨린다. 이물질들을 배출시키고 온역을 몰아내며 곽란이나 심복통을 멎게 한다. [복숭아나무 진 같이 생겼으며 노란 빛을 띤 것이 진품이다. 냄새가 강하여 다른 냄새를 잡을 수 있다. 아위 0.5수(銖)를 구리그릇에 넣고 하룻밤 묵혔을 때 달아 있던 부분이 은처럼 하얗게 변한 것이 진품이다.]

靑黛

청대

靑黛酸寒, 收五臟鬱火, 尤瀉肝火, 消食積, 解諸藥毒, 治小兒驚癇, 發熱腹脹, 瀉痢胎瘡, 百般疳症. [靑黛以藍造者, 乃入藥.]

청대는 성미가 시고 차갑다. 오장의 울체된 화기를 수렴시키되 간장의 화기를 특히 잘 배출시킨다. 식적을 사그라뜨리고 여러 가지 약재의 독성을 풀어준다. 소아의 경간, 발열, 복통, 설사, 이질, 태창(胎瘡) 및 감질로 생긴 온갖 증상을 치료한다. [청대는 쪽 잎으로 만든 것만 약으로 쓴다.]

乳香

유향

乳香辛溫, 調氣血, 止心腹痛, 療惡瘡, 生肌.

유향은 성미가 맵고 따뜻하다. 기와 혈을 조화롭게 하며 심복통을 멎게 하고 악창을 치료하며 살이 돌게 한다.

沒藥

몰약

沒藥溫平, 破宿血癥結, 臍腹疔痛, 消腫止痛, 爲瘡家奇藥也. [乳沒微炒, 殺毒, 不粘.]

몰약은 성미가 따뜻하고 평이하다. 어혈, 징가, 멍울을 깨뜨린다. 배꼽 부위가 당기면서 아픈 경우를 치료한다. 부종을 사그라뜨리고 통증을 멎게 한다. 창이 난 사람에게 신호한 약재이다. [유향과 몰약을 살짝 볶아서 쓰면 독성이 감쇄 되고 끈적이지도 않는다.]

石硫黃

석유황

石硫黃大熱有毒, 治心腹冷邪, 嘔吐泄瀉, 殺蟲, 療瘡疥, 煖腎壯陽. [熔化入麻油中, 成⁹ 浸童便七日, 細研水飛用, 入瘡冷藥, 以雀腦髓拌之, 則不臭矣.]

석유황은 성미가 매우 뜨겁고 독성이 있다. 배에 냉한 기운이 있어 구토하거나 설사하는 경우를 치료한다. 몸속의 충을 죽이고 창개(瘡疥)를 치료한다. 신장을 따뜻하게 하여 양기를 튼튼하게 한다. [녹여서 참기름 속에 넣어 두거나 혹은 동변에 7일 동안 담갔다가 곱게 간 후 수비하여 쓴다. 고질적인 냉증을 치료하는 약에 넣을 때 참새의 뇌와 섞어서 쓰면 냄새가 나지 않을 것이다.]

礞砂

봉사

礞砂味辛, 療喉腫痛, 消隔上痰熱, 口齒瘡.

봉사는 성미가 맵다. 목구멍이 붓고 아픈 증상을 치료한다. 흥격에 막힌 담음으로 열이 나거나 입이나 잇몸에 창이 생긴 경우를 없앤다.

釣鉤藤

조구등

釣鉤藤苦寒, 主小兒十二驚癇, 驚風客忤, 胎風內釣, 腹痛不可忍. [鉤, 比籐力銳.]

조구등은 성미가 쓰고 차갑다. 소아의 12가지 경간, 경풍, 객오, 태풍(胎風), 내조로 참을 수 없이 배가 아픈 경우를 치료한다. [갈고리 모양 부분이 덩쿨에 비하여 약효가 예리하다.]

豆豉

두시

豆豉鹹寒, 除傷寒勞復食復, 煩燥懊懷不得眠. [造法, 見寶鑑雜方. ◦和葱白煎服, 發汗最速.]

두시는 성미가 짜고 차갑다. 상한의 노복이나 식복 때문에 생긴 번조, 오농 증상으로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는 경우를 치료한다. [제조법은 《동의보감》 잡방문에 나온다. ◦충백과 함께 달여 복용하면 땀을 내는 효과가 매우 빠르다.]

五倍子

오배자

五倍子苦酸, 療齒宣疳蠱, 口瘡脫肛. [剝去內蟲. ◦入丸略炒.]

오배자는 성미가 쓰고 시다. 이에 감닉충이 번지는 경우 및 구창(口瘡), 탈항(脫肛)을 치료한다. [속에 있는 벌레를 굵어 버려야 한다. ◦환제에 넣을 때는 살짝 볶아서 쓴다.]

竹葉

죽엽

竹葉甘寒, 治壯熱頭痛, 中風失音, 消痰止渴, 小兒驚癇, 煩熱不寤. [有葶淡苦三種, 葶大竹, 淡綿竹, 苦烏竹, 葶淡爲上, 苦次之, 餘竹不入藥. ◦抑考竹譜, 淡苦竹者, 今階種之類.]

죽엽은 성미가 달고 차갑다. 열이 심한 두통이나 중풍으로 목소리가 쉰 경우를 치료한다. 담음을 사그라뜨리고 갈증을 멎게 한다. 소아가 경간(驚癇)으로 번열이 있어 잠들지 못하는 경우를 치료한다. [근죽(葶竹)·담죽(淡竹)·고죽(苦竹) 3종이 있다. 근죽은 대죽(大竹), 담죽은 면죽(綿竹), 고죽은 오죽(烏竹)이다. 근죽과 담죽이 진품이며 고죽은 그보다 아래이다. 3종 이외의 대나무는 약재로 사용하지 않는다. ◦한편 《죽보(竹譜)》를 살펴보니 담죽과 고죽은 지금 계단 옆에 심는 종류이다.]

竹茹

죽여

竹茹寒澁, 治嘔噎膈, 熱咳逆, 肺虛吐衄血, 胃熱不寐. [刮青竹皮.]

죽여는 성미가 차갑고 떼다. 구역질이나 열격(噎膈)이나 열이 나면서 심한 기침을 하는 경우를 치료한다. 폐허(肺虛)로 생긴 토혈이나 육혈 및 위 속에 있는 열 때문에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는 경우를 치료한다. [푸른 껍질을 긁어 내고 쓴다.]

竹根

죽근

竹根, 除煩熱, 止渴下氣, 解臟腑熱, 補虛, 治風小兒驚癇, 安胎, 產後煩渴. [一斤細切, 水五升, 煎至一升服.]

죽근은 번열을 없애고 갈증을 멎게 하며 기를 아래쪽으로 내린다. 오장육부의 열을 풀어주고 허로를 보한다. 풍증 및 소아의 경간(驚癇)을 치료한다. 태아를 편안하게 하고 산후의 번갈을 치료한다. [1근을 잘게 잘라 물 5되에 넣고 달여 1되가 되면 복용한다.]

竹瀝

죽력

竹瀝, 主暴中風, 瘖不能語, 痰迷心竅, 療胸煩熱, 孕婦煩渴, 小兒驚癇, 治一切危急之病.

죽력은 갑작스런 중풍으로 말을 하지 못하는 경우 및 담음이 심장 구멍을 막은 경우를 치료한다. 흥격의 번열이나 임신부의 번갈이나 소아의 경간(驚癇)을 치료한다. 또한 위급한 병 일체를 치료한다.

蘆根

노근

蘆根甘寒, 主消渴客熱, 噎膈反胃, 療孕婦心煩, 小兒身熱煩渴. [採取洗淨, 搗取汁, 煎數沸, 入薑汁少許, 頓服.]

노근은 성미가 달고 차갑다. 소갈, 객열(客熱), 열격(噎膈), 번위를 치료한다.
임신부의 심번이나 소아가 몸통이 뜨거우면서 번갈이 나는 경우를 치료한다.
[뿌리를 캐서 깨끗하게 씻은 후 찢어서 즙을 낸다. 이것을 몇 소끔 달인 후 생강즙을 약간 넣고 모두 복용한다.]

燈心

등심

燈心甘寒, 通利水道, 祛心熱, 療喉痺.

등심은 성미가 달고 차갑다. 소변을 잘 나오게 하고 심장의 열을 없애며 후비(喉痺)를 치료한다.

茶茗

다명

茶茗微寒甘苦, 下氣消食, 止熱渴, 清頭目, 令人少睡, 解炙炒毒. [茶名甚多, 俱以味佳爲名, 中國人待客啜茶, 解猪羊鵝鴨炙烹之毒.]

다명은 성미가 약간 차갑고 달면서 쓰다. 방귀를 나오게 하고 음식을 소화시키며 열갈(熱渴)을 멎게 하고 머리와 눈을 맑게 한다. 약간 졸리게 만들고 굵거나 볶은 음식의 독을 풀어준다. [차의 품명은 매우 많고 모두 맛이 좋다는 단어를 이름으로 삼는다. 중국인들은 손님을 대접할 때 차를 마시게 하는데 돼지고기, 양고기, 거위고기, 오리고기를 굵거나 볶았을 때 생기는 독을 풀어준다.]

童便

동변

童便寒鹹, 潤心肺, 止喘嗽吐衄血, 破瘀血, 療熱狂, 明目益聲, 降火極速.

동변은 성미가 차갑고 짜다. 심장과 폐장을 촉촉하게 하고 천식, 기침, 토혈, 육혈을 멎게 하며 어혈을 깨뜨리고 열로 생긴 광증을 치료한다. 눈을 밝게 하고 목소리를 커지게 한다. 화기를 내리는 데 효과가 매우 빠르다.

白蜜

백밀

白蜜甘溫, 安五臟, 補中益氣, 止腸澼, 療口瘡, 明耳目, 和百藥, 止痛解毒. [山石中或木中, 經二三年者佳, 家畜一年再取者劣.]

백밀은 성미가 달고 따뜻하다. 오장을 편안하게 하고 위기(胃氣)를 보하며 기를 더한다. 장벽(腸澼)을 멎게 하고 구창(口瘡)을 치료한다. 귀와 눈을 밝게 하고 온갖 약재를 조화시킨다. 통증을 그치게 하고 독을 풀어준다. [산의 바위 속이나 나무 속에 있으며 2 - 3년 정도 묵은 것이 진품이다. 집에서 치는 벌통에서 1년에 2번 따는 꿀은 효능이 떨어진다.]

酒

술

酒大熱味苦甘辛有毒, 行藥力, 殺百邪惡毒氣, 通血脈, 厚腸胃, 潤皮膚, 消愁發怒, 宣言暢志. [大寒凝海, 惟酒不冰, 明其熱也, 人飲之, 體廢神昏, 是其有毒也. ○燒酒大熱大毒, 多飲則爛胃穿腸而死. ○入藥用米酒, 糯米酒亦可.]

술은 성미가 매우 뜨겁고 쓰면서 달면서 매우며 독이 있다. 약효를 돌게 만든다. 온갖 사기나 악기나 독기를 감쇄시킨다. 혈맥을 통하게 하고 장과 위를 튼튼하게 하며 피부를 윤택하게 한다. 근심을 없애거나 분노하게 만들고 선포하는 말을 하며 생각을 실행하게 한다. [몹시 추울 때 바닷물까지 얼어도 오직 술만은 얼지 않으므로 성미가 뜨겁다는 것이 명확하다. 사람들이 술을 마시고 몸이 망가지거나 정신이 혼미해지므로 독이 있다는 것이 맞다. ◦소주는 성미가 매우 뜨겁고 몹시 독하므로 많이 마시면 위가 문드러지고 장에 구멍이 나면서 죽는다. ◦약에 넣을 때는 쌀로 빻은 술을 쓴다. 찹쌀로 빻은 술도 괜찮다.]

白狗屎

백구시

白狗屎氣味俱熱有小毒, 治霍亂癥積, 心腹痛, 解一切毒, 痘瘡倒靨, 燒灰服. [狗糞之白者, 非必皆白狗屎, 凡狗屎, 亦或有色白者, 今之專取白者, 誤矣.]

백구시는 성미가 모두 뜨겁고 독이 조금 있다. 광란, 징가, 적취, 심복통을 치료하고 온갖 독을 풀어준다. 두창이 돌아 딱지가 앉았을 때는 백구시 태운 재를 복용한다. [개똥 중에 흰 부분이지 반드시 흰 개의 똥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대체로 개똥에도 간혹 색이 흰 부분이 있기도 하므로 요즘 흰 개의 똥만 찾는 것은 오류일 것이다.]

- 按. 俗方, 小兒之病, 不問寒熱虛實, 輒用狗屎之白者, 此古方諸書所無之法, 以熱治寒, 以寒治熱, 乃理之常, 而取狗屎之溫, 治純陽小兒之病, 何也. 蓋以至陰¹⁰ 出下竅, 取其義而用之歟, 抑以其能解一切毒, 用於胎毒, 因以成俗而然耶. 第小兒外感餘熱、驚熱、變蒸發熱等症用之, 或有效而無害, 脾胃虛冷挾熱, 而不敢用寒涼之藥, 治熱者用之, 亦有兩得之, 便溫以散之, 陰以清之, 似不無其理, 但胎毒小兒, 多服狗屎者, 間有精神不足, 無乃穢濁之物, 傷損之致歟, 以俟高明.
- [안어] 민간요법에서 소아의 병에 한열이나 허실을 불문하고 곧바로 개똥의 흰

부분을 쓰는 것은 옛 방서 중 어떤 책에도 없는 방법이다. 뜨거운 성미의 약재로 한증을 다스리고 차가운 성미의 약재로 열증을 다스리는 것이 상례인데, 따뜻한 성미의 개똥을 가져다 순수하게 양기만 가진 소아의 병을 치료하는 것은 어째서인가. 아마도 탁음(濁陰)이 하규(下竅)로 나온다는 구절의 의미를 취하여 쓰는 것일까? 아니면 온갖 독기를 풀기 때문에 태독에 쓰다가 결국 민간요법이 된 것일까? 다만 소아의 외감 후에 남은 열이나 경풍으로 생긴 열이나 변·증으로 생긴 열에 쓴다면 간혹 효과가 있으면서 해는 없을 것 같다. 비위가 허랭할 때 열까지 나는 경우에는 차갑거나 서늘한 성미의 약을 함부로 쓸 수 없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 열을 치료할 때 쓰면 양쪽(허랭과 열) 모두 효과가 있을 것이다. 문득 따뜻한 성미의 약재로 열을 흠어내고 음한 성미의 약재로 열을 씻어 낸다는 것이 마치 이치에 맞기도 한 것 같다. 다만 태독이 있는 아이가 개똥을 많이 복용하여 간혹 정신이 나가는 경우가 있는데, 바로 더러운 똥이 아니었다면 그 지경까지 되었겠는가. 고명한 사람의 의견을 기다린다.

猪屎

저시

猪屎氣味俱寒無毒，治寒熱黃疸，天行熱病，一切熱毒，李時珍曰，御藥院方，治痘瘡黑陷，無價散，錢仲陽，治小兒驚風癇瘵，取除熱解毒也。[臘月冀東行者佳。] ○猪屎，治熱之大劑，天行熱病，用野乾無效者，以猪屎能退熱，小兒胎熱、驚熱、熱癇等症，諸藥無效，猪屎燒存性，細末，蜜水調服，有奇效。

저시는 성미가 모두 차갑고 독이 없다. 오한발열, 황달, 유행성 열병 및 열독 일체를 치료한다. 이시진은 "《어약원방御藥院方》에서 두창이 거뭇게 움푹 들어가는 경우를 치료할 때 무가산을 쓰는 경우와 전중양(錢仲陽)이 소아의 경풍이나 간질이 치병을 치료할 때 저시를 쓰는 것은 열을 없애고 해독하는 효능을 취한 것이다."라고 하였다. [설달에 동쪽으로 눈 것이 상품이다.] ○저시는

열을 치료하는 위대한 약재이다. 유행성 열병에 야인건을 써도 효과가 없는 경우에는 저시를 쓰면 열을 떨어뜨릴 수 있다. 소아의 태열이나 경풍의 열이나 열간(熱癇) 같은 증상에 여러 약이 효과가 없을 때는 저시를 약성이 남도록 태워 곱게 가루 낸 후 꿀물에 타서 복용하면 신기한 효과가 있다.

胞衣水

포의수

[俗胎水]

[민간에서는 태수(胎水)라고 한다.]

胞衣水氣味辛涼無毒, 主治小兒丹毒, 及諸熱熱毒, 發寒熱不歇, 狂譫妄語, 無辜疳, 天行熱病. ○胎水, 稟至陰之氣, 性寒涼, 眞小兒胎熱良劑, 但不可多服, 以致胃寒也.

포의수는 성미가 맵고 서늘하며 독이 없다. 소아의 단독이나 여러 가지 열증, 열독, 쉬지 않고 오한발열이 나는 것, 광증, 섬어(譫語), 망어(妄語), 무고감(無辜疳), 유행성 열병을 치료한다. ○태수(胎水)는 지음(至陰)의 기운을 가지고 있으니 성미가 차갑고 서늘하므로 소아의 태열을 치료하는 참으로 좋은 약재이다. 다만 너무 많이 복용하지 말아야 하니 뱃속이 차가워지기 때문이다.

牛黃

우황

牛黃氣味苦平小毒, 主治小兒驚癇夜啼, 益肝膽, 定精神, 除熱, 辟惡氣, 治小兒百病, 清心化熱, 利痰涼驚, 痘瘡赤色, 發狂譫語者, 可用.

우황은 성미가 쓰고 평이하며 독이 조금 있다. 소아의 경간이나 야제를 치료한다. 간장과 담부의 기운을 더하고 정신을 안정시키며 열을 없애고 나쁜 기운을 물리친다. 소아의 온갖 병을 치료한다. 속을 깨끗하게 하고 열을 중화시키며

담음을 배출시키고 경기를 진정시킨다. 두창이 붉은 색이거나 광증과 섬어가 발작한 경우에 쓰면 좋다.

- 按. 牛黃治小兒百病者, 蓋小兒之病, 胎熱者十居八九故也, 俗醫不分寒熱, 而渾治之, 誠可歎也, 錢仲陽, 治初生小兒胎熱, 取牛黃豆許, 入蜜調膏, 以乳汁滴兒口中, 若兒形色不實, 勿令多服, 李時珍曰, 牛之黃, 牛之病, 方春疫癘, 牛飲毒則結爲黃, 以此觀之, 則有毒者明矣, 不可多服, 亦宜矣.
- [안어] 우황이 소아의 온갖 병을 치료한다는 말은 아마도 소아의 병 중에서 태열이 원인인 경우가 십중팔구이기 때문일 것이지만 실력이 부족한 의원들이 한증과 열증을 구분하지 않고 섞어서 치료하고 있으니 참으로 한탄할 일이다. 전증양은 '갓난아이의 태열을 치료할 때 우황 콩 만큼에 꿀을 넣고 섞어 고약처럼 만든 후 젖과 함께 아이의 입 속에 떨어뜨렸는데 만약 아이의 상태가 건강하지 못하다면 많이 먹이지 말아야 한다.'고 하였다. 이시진은 "소의 우황은 소가 병 들었을 때 생기는 것으로 봄철 역병이 돌 때 소가 독기가 있는 물을 마시면 멍을 이 생겨 누렇게 된다."고 하였다. 이로 미루어보면 독이 있는 것이 명확하다. 많이 복용하지 않아야 한다는 전증양의 말도 옳은 말이다.

月經

월경수

月經氣味鹹平無毒, 治小兒驚癇, 李時珍曰, 修鍊性命者, 皆避忌, 又曰, 穢液壞人神氣, 合藥忌觸之.

월경수는 성미가 짜고 평이하며 독이 없다. 소아의 경간을 치료한다. 이시진은 "성명(性命)을 수련하는 신선들은 모두 이것을 꺼린다."고 하였고, "더러운 진액은 사람의 정신과 기를 무너뜨리므로 약재로 사용할 때는 다른 약재와 접촉을 피해야 한다."고도 말하였다.

- ○月經治熱之說, 古方諸書亦無之, 而世俗勿論大人小兒新舊, 諸熱并用月經而

有效, 何也, 竊想, 凡下竅出者, 稟至陰之氣, 女屬陰, 血亦屬陰, 故借陰氣而然耶, 未知其詳也.

- ○〔안어〕 월경수가 열을 치료한다는 설은 옛 방서 중 어느 책에도 없으나 민간에서는 성인이나 아이나 신병이나 구병을 막론하고 여러 가지 열증에 모두 월경수를 쓰고 있고 효과도 있으니 어째서일까? 곰곰이 생각건대 대체로 아래쪽의 구멍으로 나오는 것은 지음(至陰)의 기운을 갖고 있는 데다가 여자는 음에 속하고 혈 또한 음에 속하므로 음기의 특성을 취하여 그런 것이 아닐까? 자세히는 알지 못하겠다.

猪乳

저유

猪乳氣味甘鹹寒無毒, 治小兒驚癇, 去來寒熱, 五癰, 初生兒臍風、嘔口、驚癇、夜啼等症, 取猪乳, 頻滴口中, 極良. ○猪乳取之甚難, 須待家馴猪, 乳兒時, 捉母猪後脚, 以手將而承之, 非此法, 不可得也.

저유는 성미가 달면서 짜고 차가우며 독이 없다. 소아의 경간, 한열왕래, 5가지 임증(淋症) 및 갓난아이의 제풍(臍風), 찰구(嘔口), 경간(驚癇), 야제(夜啼) 같은 증상을 치료한다. 저유를 구하여 아이 입 속에 자주 떨어뜨려주면 효과가 매우 좋다. ○저유는 구하기가 매우 어렵다. 반드시 집에서 키우는 돼지가 새끼에게 젖을 물릴 때 어미돼지의 뒷다리를 붙잡고 젖을 손으로 짜서 받아야 한다. 이 방법이 아니면 저유를 구할 수 없다.

地龍

지룡

地龍寒鹹, 治傷寒伏熱狂謬, 腹大黃疸, 小便不通, 殺三蟲, 大解諸熱毒. [一名蚯蚓, 白頸是其老者, 宜三月取, 日乾微熬, 作末用, 或生者洗去土, 着鹽, 須臾成水爲汁用.]

지룡은 성미가 차갑고 짜다. 상한에 잠복한 열 때문에 발광하고 헛소리를 하며 배가 똥똥해지고 황달이 생기며 소변이 나오지 않는 경우를 치료한다. 삼시충을 죽이고 여러 가지 열독을 아주 잘 풀어준다. [구인(蚯蚓)이라고도 한다. 흰 환대가 있는 것이 늙은 것이다. 3월에 채취하여 볏에 말린 후 살짝 볶고 가루 내어 쓴다. 혹은 생것을 물에 씻어 흙을 제거한 후 소금을 뿌리면 조금 후에 물기가 생기면서 녹는데 이것을 쓰기도 한다.]

臘雪水

납설수

臘雪水甘寒, 解一切毒, 治天行瘟疫熱疾, 及酒後暴熱黃疸, 小兒熱癇狂啼. ○三夏炎熱之時, 心胸煩悶, 大渴引飲, 和蜜, 微溫快服, 膈間清爽, 酒後煩渴亦可.

납설수는 성미가 달고 차갑다. 여러 가지 독을 풀어 준다. 유행성 온역이나 열병 및 음주 후 갑자기 열이 나며 황달이 생긴 경우나 소아의 열간(熱癇), 광증, 야제를 치료한다. ○삼복더위에 가슴이 답답하고 갈증이 심하여 물을 찾는 경우에는 납설수에 꿀을 타고 살짝 데워 꼭 복용하면 가슴속이 시원해진다. 음주 후 번갈이 나는 경우에 마셔도 괜찮다.

1. 無 : 無知 ※문맥상 ↩

2. 蜜 : 密 ※문맥상 ↩

3. 壁 : 壁 ※문맥상 ↩

4. 猪 : 楮 ※《동의보감》 ↩

5. 澁 : 𣎵滑 ※문맥상 [↩](#)

6. 炒用研 : 炒研用 ※문맥상 [↩](#)

7. 少 : 小 ※문맥상 [↩](#)

8. 裡 : 裏 ※문맥상 [↩](#)

9. 成 : 或 ※《의학입문》 [↩](#)

10. 至陰 : 𣎵濁陰 ※《황제내경소문》 [↩](#)



食治發明 식치발명

- 按. 入門云, 人知藥之藥人, 而不知食之藥人, 世有誤食一毒而宿疾遂愈者, 天生萬物, 以養人也, 豈爲口腹計哉. 孫真人謂, 醫者先曉病源, 知其所犯, 以食治之, 不愈然後命藥. 不特老人小兒相宜, 凡驕養及久病厭藥, 窮乏無資貨藥者, 俱宜以飲食調治, 故略採本草食治中常食可要者, 備著性味所忌, 付之於下, 以爲養生家之法, 而脾盛善食者, 勿拘於此.
- [안어] 《의학입문》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다. "사람들은 약이 사람에게 약이 되는 사실을 알지만, 음식이 사람에게 약이 되는 사실을 알지 못한다. 또한 세상에는 어떤 독을 잘못 먹고 오랜 병이 낫는 경우도 있다. 하늘이 만물을 만들고 그것으로 사람을 기를 때 어찌 배를 채우는 계획만을 세웠겠는가. 손진인(孫真人)이 말하기를 '의원은 먼저 병의 원인을 명확히 파악하고 그 손상된 곳을 알아야 한다. 그 후에 음식으로 치료해보고 낫지 않는 경우에 약을 써야 한다.'고 하였다. 이 방법으로 노인과 소아뿐만 아니라 급게 자란 사람이나 오랜 병으로 약을 싫어하는 사람과 가난하여 약을 사지 못하는 사람까지 모두 음식으로 조리하고 고칠 수 있다. 그러므로 본초서와 식치서 중에서 늘 먹고 요긴한 것들을 대략 골라서 성미와 금기를 기록하여 아래에 붙이고 양생의 기준으로 삼았다. 그러나 비위가 튼튼하여 잘 먹는 경우에는 구애받지 않아도 된다."¹

¹. 의학입문 內集 卷又二上 食治門의 총론을 축약하여 옮겨놓았다. ↩

穀部 곡부

粳米

갱미〔멥쌀〕

粳米甘平無毒. 和五臟, 補脾胃, 長肌肉, 堅筋骨, 溫中益氣, 止泄除煩. [晚米霜後者, 佳, 早熟米不及. ◦陳倉米, 三四年陳久無膏, 多食易飢.]

갱미(粳米, 멥쌀)는 맛이 달고 약성이 평범하며 독이 없다. 오장을 조화롭게 하고 비위를 보하며 살을 붙게 하고 근골을 튼튼하게 하며 속을 따뜻하게 하고 기운을 더한다. 설사를 멎게 하고 번열을 없앤다. [서리 후의 **늦벼**¹ 쌀이 좋으며 **올벼**² 쌀은 그에 미치지 못한다. ◦진창미는 3 - 4년간 오래 묵어서 기름기가 없으니 많이 먹어도 쉽게 배고프다.]

糯米

나미〔찹쌀〕

糯米甘溫無毒. 補中益氣, 止泄痢, 定霍亂, 養下元, 縮小便, 治婦人胎動. 多食, 壅經絡不能行, 令人神昏脹悶, 蓋性溫質粘難化也.

나미(糯米, 찹쌀)는 맛이 달고 약성이 따뜻하며 독이 없다. 중기(中氣)를 보하며 기운을 더한다. 설사와 이질을 멈추고 객란을 진정시킨다. 하초를 길러주며 소변을 참을 수 있게 하고 부인의 태동을 치료한다. 많이 먹으면 경락(經絡)을 막아서 기가 잘 돌지 못하게 되므로 정신이 혼미해지고 배가 팽팽해지며 답답하게 된다. 이는 아마도 약성이 따뜻하고 끈적하여 소화가 잘 되지 않기 때문 일 것이다.

粟米

속미〔좁쌀〕

粟米性微寒味鹹酸無毒. 養腎氣, 去脾胃熱, 益氣, 利小便. 煮汁服, 治食不消化, 嘔逆反胃. [粟者小米, 細於梁米. 陳久者, 治胃熱消渴, 止泄痢. ◦糗即蒸粟作末, 解熱除渴.]

속미(粟米, 좁쌀)는 약성이 약간 차고 맛이 짜고 시며 독이 없다. 신기(腎氣)를 길러주며 비위의 열을 없애고 기운을 더하며 소변을 잘 통하게 한다. 속미 달인 물을 먹으면 소화불량, 구역질, 번위를 치료한다. [좁쌀은 작은 곡물로 기장보다 잘다. 오래 묵은 좁쌀은 위열과 소갈을 치료하며 설사와 이질을 멎게 한다. ◦구(糗, 미숫가루)는 좁쌀을 찌서 가루낸 것으로 열을 내리고 갈증을 없앤다.]

靑梁米

청량미〔생동쌀〕

靑梁米性微寒無毒. 養五臟, 補脾胃, 和中益氣, 止霍亂吐利煩渴, 利小便, 實大腸. [梁有靑黃白三種, 黃者尤勝, 皆粟類, 比他最益. 夏月食之, 極清涼. ◦靑梁醋拌, 百蒸百曝作糗糧, 斷穀.]

청량미(靑梁米, 생동쌀)는 약성이 약간 차고 독이 없다. 오장을 길러주며 비위를 보하고 속을 편하게 하며 기운을 더한다. 객란, 토사, 번갈을 멎게 하고 소변을 잘 통하게 하며 대장을 튼실하게 한다. [청량, 황량, 백량 3종이 있는데 황량이 가장 좋으며 모두 좁쌀류로 좁쌀류 중에서 가장 유익하다. 여름에 먹으면 아주 시원하다. ◦청량미를 식초에 버무린 후 찌고 벌에 말리기를 백번 하여 미숫가루로 만들면 곡기를 끊을 수 있다.]

黍米

서미(기장쌀)

黍米甘溫無毒. 益氣補中. 又云有小毒. 不可多食, 令人煩悶, 好睡, 發宿疾. [有二種, 粘者爲秬, 不粘者爲黍, 秬釀酒甚佳.]³

서미(黍米, 기장쌀)는 맛이 달고 약성이 따뜻하며 독이 없다. 기운을 더하고 속을 보한다. 조금 독이 있다고도 한다. 많이 먹지 않아야 하니 가슴이 답답해지며 잠이 많아지고 속병이 재발하기 때문이다. [두 종류가 있다. 찰진 것은 출(秬), 찰지지 않는 것은 서(黍)라고 한다. 출로 술을 담그면 아주 좋다.]⁴

稷

직(메진 기장쌀)

稷性冷味甘無毒. 益氣安中, 補不足, 利脾宜胃, 多食發冷氣. [稷乃稬之異名, 似黍而小, 又謂之梁, 五穀之長, 甘芳可愛, 故供祭饗.]

직(稷, 메진 기장쌀)은 약성이 서늘하고 맛이 달며 독이 없다. 기운을 더하며 속을 편안케 하고 부족한 것을 보하니 비위에 이롭다. 많이 먹으면 냉병이 생긴다. [직(稷)은 제(稬)의 이명으로 서(黍)와 비슷하나 작다. 양(梁)이라고도 한다. 오곡의 우두머리로 달고 향기로와 좋아할만 하므로 제향에 쓴다.]

穬麥

광맥(겉보리)

穬麥卽麥之有皮者, 俗皮牟. 甘寒無毒. 主輕身補中, 除熱下氣, 益顏色, 頭不白. 久服, 令人多力健行. [大麥卽米麥, 功用同, 秋種者佳, 春種者氣不足, 故力劣.]

광맥(穰麥, 겉보리)은 껍질이 있는 보리인데 민간에서 피모(皮牟, 겉보리)라고 한다. 맛이 달고 약성이 차가우며 독이 없다. 몸을 가볍게 하고 중기(中氣)를 보하며 열을 없애고 기운을 내리며 안색을 좋게 하고 머리가 세지 않게 한다. 오래 먹으면 힘이 많아지고 걸음이 튼튼해진다. [대맥(大麥)은 곧 미맥(米麥, 쌀보리)인데 효력이 같다. 가을에 심은 것이 좋고, 봄에 심은 것은 기운이 부족하기 때문에 효능이 덜하다.]

麵, 平胃消食療脹, 無熱燥, 勝於小麥. 多食則益人.

광맥가루는 위장을 편안하게 하고 음식을 소화시키며 복창을 치료한다. 뜨겁거나 말리는 약성이 없으므로 소맥보다 낫다. 많이 먹으면 좋다.

小麥 [밀]

소맥 [밀]

小麥 [밀] 甘寒無毒. 除煩熱少睡, 止燥渴, 利小便, 養肝氣. [小麥麩寒麵熱, 合湯皆完用之, 不許折, 折則溫. ○大小麥, 秋種冬長, 春秀夏實, 具四時中和之氣, 故爲五穀之貴. 地煖處亦可. 春種受氣不足, 故有毒而麵性亦冷. ○浮小麥養心, 與大棗同. ○治盜汗, 大小人骨蒸肌熱, 婦人勞熱, 微炒用之.]

소맥(小麥, 밀)은 맛이 달고 약성이 차며 독이 없다. 번열로 조금밖에 자지 못하는 경우를 없애고 갈증을 멎게 하며 소변을 잘 통하게 하고 간기(肝氣)를 길러준다. [밀기울은 약성이 차고 밀가루는 약성이 뜨거우므로 탕약에는 통채로 쓴다. 갈아서 넣지 않아야 하니 가루 내면 약성이 뜨거워지기 때문이다. ○ 대맥과 소맥은 가을에 심으면 겨울에 자라서 봄에 이삭이 패고 여름에 결실을 맺어 사계절의 기운이 고르게 갖추어 있기 때문에 오곡 중에서도 귀하다. 따뜻한 땅에서 자라는 것도 괜찮다. 봄에 심으면 받을 수 있는 기운이 부족하기 때문에 독이 생기고 가루의 성질도 냉하게 되는 것이다. ○부소맥은 심기(心氣)를 길러주니 대조의 효능과 같다. ○도한, 어른과 아이들의 골증열, 부인의 노열을 치료하려면 살짝 볶아서 쓴다.]

麵, 性溫味甘. 補中益氣, 厚腸胃, 強氣力, 助五臟. 久食實人.

밀가루(麵)는 약성이 따뜻하고 맛이 달다. 중기(中氣)를 보하며 기운을 더하고
장과 위를 튼튼하게 하고 기력을 강하게 하며 오장의 기운을 돕는다. 오래 먹
으면 사람을 튼실하게 한다.

蕎麥 [모밀]

교맥 [메밀]

蕎麥 [모밀] 甘寒無毒. 實腸胃, 益氣力, 雖動諸病, 能鍊五臟滓穢, 續精神. [久食
動風, 令人頭眩, 合猪羊肉食之, 成風癩.]

교맥(蕎麥, 메밀)은 맛이 달고 약성이 차가우며 독이 없다. 장위를 튼실하게 하
고 기력을 더한다. 비록 여러 가지 병을 일으키지만 오장의 찌꺼기를 없애고
정신을 통하게 한다. [오래 먹으면 풍병을 일으켜 머리가 어지럽게 된다. 돼지
나 양고기와 같이 먹으면 나풍(癩風)이 생긴다.]

麵可煮食, 生則發諸瘡. 俗謂一年沈滯, 積在腸胃⁵, 食此麥, 乃消去.

교맥가루는 익혀 먹어야 하며, 생것을 먹으면 창(瘡)이 생긴다. 민간에서는 1
년 된 장이나 위의 적취도 메밀을 먹으면 삭아 없어진다고 한다.

秬 藿 [슈슈]

출축 [수수]

秬 藿 [슈슈] 穀之最長, 米粒亦大, 而北地多種之, 以備缺糧, 否則喂牛馬.

출축(秬 藿, 수수)은 곡식 중에 키가 가장 크고 알도 크다. 북방에서는 수수를
많이 심어 모자라는 식량을 메꾸거나 그렇지 않으면 소나 말을 먹인다.

大豆

대두(콩)

大豆甘平無毒. 補五臟, 和脾胃, 調中益氣, 久服身重. 和飯搗, 塗一切癰瘡毒, 小兒豌豆瘡, 殺牛馬瘟毒. [豆有黑白黃三種, 黑者緊小爲雄入藥, 白黃但食之而已.]

대두(大豆, 콩)는 맛이 달고 약성이 평범하며 독이 없다. 오장을 보하고 비위를 화평케 하며 속을 고르게 하고 기운을 더한다. 오래 먹으면 몸이 무거워진다. 밥과 함께 짓찧어 모든 옹창(癰瘡)이나 소아의 완두창에 바른다. 마소의 전염 독을 감쇄시킨다. [콩에는 검은콩·흰콩·누런콩 3종류가 있다. 단단하고 작은 검은콩은 효능이 뛰어나므로 약에 넣고, 흰콩과 누런콩은 음식으로만 먹는다.]

豆腐

두부

豆腐甘平有毒. 寬中益氣, 和脾胃, 下大腸濁氣, 消脹滿. 多食則脹滿, 喫酒則甚, 惟飲冷水即消. [中寒多泄多屁者, 忌.]

두부는 맛이 달고 약성이 평범하며 독이 있다. 속을 편안하게 하고 기운을 더하며 비위를 조화시키고 대장의 탁한 기운을 배출시키며 창만을 없앤다. 많이 먹으면 창만이 생기는데 술을 먹으면 심해지고 냉수를 마시면 금세 사그라든다. [한사(寒邪)를 맞았거나 설사와 방귀가 잦아진 경우에는 금해야 한다.]

赤小豆

적소두(팥)

赤小豆甘平無毒. 下水腫脹滿, 排癰腫膿血, 治消渴, 止泄痢. [逐水通氣滲脾之劑, 久服令人黑瘦枯燥. ○入藥宜用早種, 晚種力弱, 赤者佳. ○花解酒毒.]

적소두(赤小豆, 팥)는 맛이 달고 약성이 평범하며 독이 없다. 수종(水腫)과 창만을 빼주며 응종(癰腫)과 피고름을 배출시키고 소갈을 치료하며 설사나 이질을 멎게 한다. [수기(水氣)를 몰아내고 기운을 통하게 하며 비장을 씻어내는 약이다. 오래 먹으면 까맣게 마르고 피부가 건조해진다. ○약에는 일찍 심는 팥을 쓴다. 늦게 심는 팥은 약력이 약하다. 붉은 것이 좋다. ○팥꽃은 주독을 푼다.]

菉豆

녹두

菉豆甘寒無毒. 解一切藥草蟲魚牛馬金石等毒, 除煩熱. 風疹消渴, 生研汁服之, 霍亂吐逆奔豚, 和胡椒末等分, 冷水調服. [作枕, 明目, 治頭風頭痛. ○皮寒肉平, 治病勿去皮, 去皮壅氣. ○色綠圓小者, 佳.]

녹두는 맛이 달고 약성이 차가우며 독이 없다. 약·식물·동물·금속 등 모든 독을 풀어주며 번열을 없앤다. 풍진(風疹)이나 소갈에는 생것을 갈아 즙을 먹고, 곽란이나 구토나 분돈(奔豚)에는 후추 가루 같은 양을 섞어 냉수에 타서 먹는다. [베개로 만들면 눈을 밝게 하며 두통을 치료한다. ○껍질은 약성이 차갑고, 알맹이는 약성이 평범하다. 약으로 쓸 때는 껍질을 까지 말아야 한다. 껍질을 까면 기운을 막히게 한다. ○동그랗고 작고 녹색인 것이 좋다]

麵, 性冷無毒. 益氣, 除熱毒, 療發背癰疽瘡癤, 解酒毒食毒.

녹두가루는 약성이 서늘하고 독이 없다. 기운을 더하며 열독을 없애고 등에 생긴 옹저와 창절(瘡癤)을 치료하며 주독·식독을 풀어준다.

飴糖

이당(엿)

飴糖甘溫. 補中氣, 健脾胃, 進飲食, 止渴消痰, 療咳嗽, 斂汗, 治吐血瘀血, 及誤吞鉛鐵, 服之便出. [糯米造者佳, 色如琥珀者入藥, 白者但食. ○中滿及嘔吐者, 勿多服. ○治骨髓在喉.]

이당(飴糖, 엿)은 맛이 달고 약성이 따뜻하다. 위기(胃氣)를 보하고 비위를 튼튼하게 하며 음식을 잘 먹게 한다. 갈증을 멈추고 담을 삭히며 기침을 치료하고 땀을 잡아주며 토혈과 어혈을 치료한다. 금속을 삼켰을 때 엿을 먹이면 대변으로 나온다. [찹쌀로 만든 것이 좋다. 호박색 엿은 약에 쓰고 흰 엿은 음식으로만 먹는다. ○속이 그득하고 구토하는 경우에는 많이 먹지 말아야 한다. ○목에 뼈가 걸린 경우를 치료한다.]

砂糖

사당

砂糖甘寒無毒. 潤心肺, 助脾和中, 清心肺熱, 止煩渴. 小兒多食, 生蛔消肌, 發疳蠱, 損齒根.

사당(砂糖)은 맛이 달고 약성이 차가우며 독이 없다. 심폐를 촉촉하게 하고 비기를 도우며 속을 편안하게 하고 심폐의 열을 내리며 번갈을 멎게 한다. 아이가 많이 먹으면 회충이 생겨서 살이 빠지고 감늑창(疳蠱瘡)이 생기며 잇몸이 상하게 된다.

以上穀部.

이상은 곡부(穀部)이다.

1. 늦벼 : 제철보다 늦게 여무는 벼 ↩

2. 올벼 : 제철보다 일찍 여무는 벼 ↩

3. [有二種, 粘者爲秬, 不粘者爲黍, 秬釀酒甚佳.] : ※원고본 ↩

4. [두 종류가 있다. 찰진 것은 출(稭), 찰지지 않는 것은 서(黍)라고 한다. 출로 술을 담그면 아주 좋다.] : 원고본에는 없는 내용이다. [↩](#)

5. 聞 : 聞 ※문맥상 [↩](#)



果部 과부

梨子

이자(배)

梨子甘平寒無毒。除心肺客熱煩熱，胸中痞結，咳嗽氣喘，止渴解毒，治中風失音不語，傷寒發熱驚狂，利大小便，孕婦臨月食之易產，療小兒風熱昏懣燥悶。○甘梨三枚切破，以水煮取汁一升，入粳米一合，煮粥食之，解煩熱。[甘者佳。]

이자(梨子, 배)는 맛이 달고 약성이 평범하고 차가우며 독이 없다. 심장과 폐장의 객열과 번열, 가슴이 막히고 맺힌 경우, 기침, 기천(氣喘)을 없앤다. 갈증을 멈추고 독을 풀어준다. 중풍으로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말을 하지 못하는 경우, 상한으로 열이 나고 놀라며 발광하는 경우를 치료하며 대소변을 잘 통하게 한다. 임신부가 산달에 먹으면 쉽게 해산을 하며 아이가 풍열로 정신이 혼미하고 가슴이 답답한 경우를 치료한다. ○맛이 단 배 3개를 잘게 썰고 물에 달인 후 국물 1되에 맵쌀 1홉을 넣어 죽을 쑀어 먹이면 번열을 풀어준다. [단 것이 좋다.]

紅柿

홍시

紅柿甘寒無毒。潤心肺，止煩渴口乾吐血，療肺痿心熱，開胃，解酒熱毒，治小兒骨蒸熱。[柿朱果，有牛心紅珠之稱，日乾者名白柿，火乾者名烏柿，功同。○白柿皮上凝厚者，謂之柿霜。○與蟹同食，腹痛大瀉，昏不省人，以木香磨汁服之，即愈。]

홍시는 맛이 달고 약성이 차가우며 독이 없다. 심장과 폐장을 촉촉하게 하고 번갈과 입이 마르는 것과 토혈을 멎게 하며 폐위(肺痿)와 심열(心熱)을 낮게 하며 입맛을 돋우고 술의 열독을 풀며 아이의 골증열을 치료한다. [홍시는 붉

은 과일로 우심(牛心)·홍주(紅珠)라는 별칭이 있다. 별에 말린 것은 백시(白柿), 불에 말린 것은 오시(烏柿)라 하는데 효능은 같다. ○백시의 껍질에 두툽히 엉긴 가루를 시상(柿霜)이라 한다. ○게와 같이 먹으면 배가 아프고 설사를 심하게 하며 인사불성이 되는데 목향을 갈아 그 즙을 먹이면 곧 낫는다.]

栗

울(밤)

栗性溫味鹹無毒. 益氣, 厚腸胃, 補腎氣, 令人耐飢, 治小兒疳瘡, 脚弱不能行, 啖栗數升, 能行立. [凡食¹栗於炭火煨, 令出汗²食之, 下氣補益, 熟則壅氣, 生則發氣. 若袋盛懸風乾食之, 益腎氣, 治腰脚無力, 破冷瘕癖. ○小兒不可多食, 生者難化生蟲.]

울(栗, 밤)은 약성이 따뜻하고 맛이 짜며 독이 없다. 기운을 더하고 장위를 튼튼하게 하며 신기(腎氣)를 보한다. 굽주림을 건디게 하고 아이의 감창(疳瘡)을 치료한다. 다리가 약하여 잘 걷지 못하는 경우에 밤을 몇 되 먹으면 잘 서고 걷게 된다. [생밤을 잣불에 묻어서 즙이 나오게 한 후 먹으면 기운을 내리고 보익 작용이 있다. 익혀 먹으면 기운을 막히게 하고 생으로 먹으면 기운을 돌게 한다. 자루에 담아 매단 후 바람에 말려서 먹으면 신기(腎氣)를 더하고 허리와 다리에 힘이 없는 경우를 치료하며 냉기로 생긴 현벽(瘕癖)을 없앤다. ○아이는 많이 먹지 않아야 하니 생밤은 소화가 어렵고 여러 충을 생기게 하기 때문이다.]

大棗

대조(대추)

大棗甘溫. 和脾胃, 補五臟, 療腸澼下痢, 腸胃癖氣, 潤肺止嗽, 助十二經脈, 通九竅, 和百藥. 小兒壯熱, 煎棗俗³之, 痢疾蟲痛, 與棗食之, 良. [生棗多食, 動濕熱, 生葱合食, 動風, 蒸熟之, 去皮核用. ○心下痞中滿嘔吐齒病者, 忌.]

대조(大棗, 대추)는 맛이 달고 약성이 따뜻하다. 비위를 조화롭게 하고 오장을 보하며 장벽(腸癖)과 하리(下痢)와 장위의 벽기(癖氣)를 치료한다. 폐장을 촉진하게 하며 기침을 멎게 하고 십이경맥을 도와 구구(九竅)를 통하게 하고 온갖 약을 조화시킨다. 아이의 심한 열에는 대조 달인 물로 목욕을 시키고, 이질이나 회충으로 아픈 경우에는 대조를 추가하여 먹이면 좋다. [생대추를 많이 먹으면 습열을 생기게 하고, 생파와 같이 먹으면 풍증을 일으킨다. 꼭 찌서 껍질과 씨를 버리고 써야 한다. ◦명치가 답답하거나 속이 더부룩하거나 구토하거나 이가 아픈 경우에는 금해야 한다.]

桃實

도실〔복숭아〕

桃實性熱味酸微毒. 益顏色, 多食令人發熱. 急性子, 卽小紅桃子, 治小兒癖疾.

도실(桃實, 복숭아)은 약성이 뜨겁고 맛이 시며 독이 약간 있다. 안색을 좋게 한다. 많이 먹으면 열을 나게 한다. 급성자(急性子)는 작고 붉은 복숭아의 씨로 아이의 헌벽(疳癖)을 치료한다.

杏實

행실〔살구〕

杏實性熱味酸有毒. 不可多食, 損神傷筋骨.

행실(杏實, 살구)은 약성이 뜨겁고 맛이 시며 독이 있다. 많이 먹지 않아야 하니 정신과 근골을 손상시키기 때문이다.

石榴

석류

石榴性溫甘酸無毒. 主咽燥渴, 多食, 損肺損齒. [有甘酸二種, 甘者可食, 酸者入藥.]

석류는 약성이 따뜻하고 맛이 달고 시며 독이 없다. 목구멍이 마르고 갈증이 나는 경우를 치료한다. 많이 먹으면 폐와 이를 손상시킨다. [단것과 신것 2종이 있는데 단것은 음식으로 먹고 신것은 약에 넣는다.]

櫻桃

앵도(앵두)

櫻桃性熱味甘酸無毒. 調中益脾, 止水穀痢, 好顏色, 美志, 雖多食, 無損害, 但發虛熱耳.

앵도(櫻桃, 앵두)는 약성이 뜨겁고 맛이 달고 시며 독이 없다. 속을 편안하게 하고 비기(脾氣)를 더하며 수곡리(水穀痢)를 멎게 하고 안색을 좋게 하며 생각을 긍정적으로 만든다. 많이 먹어도 큰 해는 없으나 허열을 생기게 한다.

林檎

임금(능금)

林檎性溫味酸甘無毒. 止消渴, 治霍亂肚痛, 消痰, 多食, 閉百脈, 發痰生瘡.

임금(林檎, 능금)은 약성이 따뜻하고 맛이 시고 달며 독이 없다. 소갈을 멎게 하고 객란과 복통을 치료하며 담을 삭힌다. 많이 먹으면 온 맥을 막히게 하여 담이나 창이 생긴다.

李子

이자(자두)

李子味甘美者可啖, 味苦者入藥. 除骨節間勞熱, 益氣, 不可多食.

이자(李子, 자두)는 달고 맛있는 것은 먹을 수 있고, 쓴 것은 약에 넣는다. 뼈마디에 있는 노열(勞熱)을 없애고 기운을 더한다. 많이 먹지 않아야 한다.

胡桃

호도(호두)

胡桃甘平無毒. 通經脈, 潤血脈, 治肺氣喘促, 療腰痛, 補腎, 黑鬚髮, 令人健⁴. [性熱, 不可多食, 入夏亦禁食.]

호도(胡桃, 호두)는 맛이 달고 약성이 평범하며 독이 없다. 경맥을 통하게 하며 혈맥을 윤택하게 한다. 폐기(肺氣)로 숨을 헐떡거리는 것을 치료하며 요통을 낫게 하고 신기(腎氣)를 보하며 수염과 머리칼을 검게 한다. 사람을 튼튼하고 살지게 한다. [성질이 뜨거우므로 많이 먹지 말아야 하며 여름철에도 먹지 말아야 한다.]

獼胡桃

미호도(獼猴桃, 미후도)〔다래〕

獼胡桃性寒味酸甘無毒. 止暴渴, 解煩熱, 下石淋, 涼胃, 療熱壅反胃. [一名藤梨.]

미호도(獼猴桃, 미후도, 다래)는 약성이 차가우며 맛이 시고 달며 독이 없다. 갑자기 나는 심한 갈증을 멎게 하고 번열을 풀어주며 석림(石淋)을 배출시키고 위장을 식혀주며 열이 맺혀 생긴 번위를 치료한다. [등리(藤梨)라고도 한다.]

柰子

내자

柰子性寒味苦無毒. 益心氣, 和脾, 補中焦諸不足氣. [未詳其何果也.]

내자(奈子)는 약성이 차갑고 맛이 쓰며 독이 없다. 심기(心氣)를 더하고 비기(脾氣)를 조화시키며 중초의 부족한 기운을 보충한다. [어떤 과일인지 알 수 없다.]

榛子

진자〔개암〕

榛子甘平無毒. 益氣力, 寬腸胃, 令人不飢, 開胃健行.

진자(榛子, 개암)는 맛이 달고 약성이 평범하며 독이 없다. 기력을 더하며 장위를 편안하게 한다. 배고프지 않게 하며 밥을 잘 먹게 하고 걸음을 튼튼하게 한다.

銀杏

은행

銀杏甘寒有毒. 清肺胃, 治渴氣, 定喘止嗽, 小兒食之, 發驚. [煮食或煨食, 生食戟人喉.]

은행은 맛이 달고 약성이 차가우며 독이 있다. 폐와 위를 시원하게 하며 갈증을 치료하며 혈떡이는 숨을 진정시키고 기침을 멎게 한다. 아이가 먹으면 경증을 발작시킨다. [삶아 먹거나 잿불에 구워 먹는다. 생것을 먹으면 목구멍을 찌른다.]

榧子

비자

榧子甘平無毒. 治五痔, 去三蟲鬼疰, 消穀, 殺寸白蟲, 日食七枚, 七日其蟲皆化爲水. [裏皮難脫, 以猪油浸炒, 易脫. 臨臥嚼十餘枚, 益腎氣, 壯陽事.]

비자(榧子)는 맛이 달고 약성이 평범하며 독이 없다. 다섯 가지 치질을 치료하며 삼시충(三屍蟲)과 귀주(鬼疰)를 없애고 음식을 소화시키며 촌백충을 죽인다. 하루 7개씩 먹으면 7일만에 충이 녹아서 물로 된다. [속껍질은 벗기기 힘들데, 돼지 기름에 담갔다가 볶으면 쉽게 벗겨진다. 잠자리에 들 때 10개 정도 씹으면 신기(腎氣)를 더하고 정력을 튼튼하게 한다.]

以上果部.

이상은 과부(果部)이다.

1. 食 : 生 ※동의보감 ↩
2. 出汗 : 出汁 ※동의보감 ↩
3. 俗 : 浴 ※문맥상 ↩
4. 肌 : 肥 ※《동의보감》 ↩

菜部 채부

西瓜 [슈박]

서과 [수박]

西瓜 [슈박] 甘寒極淡無毒. 壓煩渴, 消暑毒, 寬中下氣, 利小便, 治血痢, 療口瘡.

서과(西果, 수박)는 맛이 달면서 아주 담박하고 약성이 차가우며 독이 없다. 번갈을 억제하며 서독(暑毒)을 없애고 속을 편안하게 하며 기운을 내리고 소변을 통하게 하며 혈리(血痢)를 치료하고 구창(口瘡)을 낫게 한다.

甜瓜 [참외]

참과 [참외]

甜瓜 [참외] 甘寒有毒 [一云無毒]. 止渴, 除煩熱, 利小便, 通三焦間壅塞氣, 兼主口鼻瘡. [多食, 動宿冷, 手脚無力.]

참과(甜瓜, 참외)는 맛이 달고 약성이 차가우며 독이 있다. [독이 없다고도 한다.] 갈증을 멈추며 번열을 없애고 소변을 통하게 하며 삼초에 막힌 기운을 통하게 한다. 입과 코의 창(瘡)도 치료한다. [많이 먹으면 오랜 냉병을 발작시키며 손발에 힘이 없어진다.]

胡瓜 [외]

호과 [오이]

胡瓜 [외] 甘寒無毒. 不可多食, 動寒熱, 多瘡病. [越瓜色白.]

호과(胡瓜, 오이)는 맛이 달고 약성이 차가우며 독이 없다. 많이 먹지 않아야 하니 한사와 열사를 발작시키고 자주 학질을 앓게 된다. [월과(越瓜)는 색깔이 하얗다.]

白冬瓜 [동화]

백동과 [동아]

白冬瓜 [동화] 性微寒味甘無毒. 主三消渴疾, 解積熱, 利大小腸, 壓丹石毒, 除水脹, 止心煩. [一名地芝. ◦久病與陰虛腹冷痛者, 不可食.]

백동과(白冬瓜, 동아)는 약성이 약간 차고 맛이 달며 독이 없다. 상소(上消)·중소·하소를 치료하고 적열(積熱)을 풀어주며 대소장을 통하게 하고 단석독(丹石毒)을 제압하며 수창(水脹)을 없애고 심번(心煩)을 멎게 한다. [지지(地芝)라고도 한다. ◦지병이 있거나 음허로 배가 차갑고 아픈 경우에는 먹지 않아야 한다.]

甜瓠 [단박]

참호 [단박]

甜瓠 [단박] 性冷味甘無毒. 通利水道, 除煩止渴, 治心熱.

참호(甜瓠, 단박)는 약성이 차갑고 맛이 달며 독이 없다. 소변을 잘 통하게 하며 번조(煩躁)를 없애고 갈증을 멎게 하며 심열(心熱)을 치료한다.

南瓜 [今琥珀菜]

남과(南瓜) [지금의 호박나물이다.]

南瓜 [今琥珀菜] 味如山藥, 補中益氣. [同猪肉食, 更良, 蜜煎食亦可, 多食, 發脚氣黃疸.]

남과(南瓜) [지금의 호박나물이다.] 는 맛이 산약과 비슷하다. 중기(中氣)를 보하고 기운을 더한다. [돼지고기와 같이 먹으면 더욱 좋고, 꿀과 함께 달여 먹어도 좋다. 많이 먹으면 각기와 황달을 일으킨다.]

茄子

가자[가지]

茄子甘寒無毒. 主寒熱五臟勞, 及傳屍勞氣.

가자(茄子, 가지)는 맛이 달고 약성이 차가우며 독이 없다. 오한발열, 오장의 허로, 전시(傳屍), 노채(勞瘵)를 치료한다.

蔓菁 [신무우]

만청 [순무]

蔓菁 [신무우] 甘溫無毒. 利五臟, 消食下氣, 療疽, 輕身益氣, 常食健脾¹. [諸菜中之有益無損, 最宜長服.]

만청(蔓菁, 순무)은 맛이 달고 약성이 따뜻하며 독이 없다. 오장을 이롭게 하며 음식을 소화시키고 기운을 내리며 황달을 낮게 하고 몸을 가볍게 하며 기운을 더한다. 늘 먹으면 튼튼하고 살지게 된다. [여러 가지 채소 중에 유익만 있고 해가 없으니 오래 먹기에 가장 적당하다.]

萊菔 [대무우]

내복 [무]

萊菔 [대무우] 性溫味辛甘無毒. 消食, 去痰癖, 止消渴, 利關節, 鍊五臟惡氣, 治肺痿吐血勞瘦咳嗽, 下氣最速, 久服, 澁榮衛, 令鬚髮早白. [俗名蘿菔.]

내복(萊菔, 무)은 약성이 따뜻하며 맛이 맵고 달며 독이 없다. 음식을 소화시키고 담벽(痰癖)을 없애며 소갈을 멎게 하고 관절을 부드럽게 하며 오장의 나쁜 기운을 없앤다. 폐위(肺痿), 토혈(吐血), 노수(勞瘵), 기침을 치료한다. 기운을 내리는 효능이 가장 빠르다. 오래 먹으면 영기(榮氣)와 위기(衛氣)가 잘 운행하지 못하여 수염과 머리칼이 일찍 희게 된다. [민간에서 나복(蘿菔)이라고 한다.]

水芹

수근(미나리)

水芹甘平無毒. 止煩渴, 養神益精, 治酒後熱毒, 利大小腸, 療女子崩中帶下, 五種黃疸, 小兒暴熱.

수근(水芹, 미나리)은 맛이 달고 약성이 평범하며 독이 없다. 번갈을 멎게 하고 정신을 길러주며 정(精)을 더한다. 술로 생긴 열독을 치료하고 대소장을 통하게 하며 여자의 붕루와 대하, 다섯 가지 황달, 아이의 갑작스런 고열을 낮게 한다.

芋子 [토란]

우자 [토란]

芋子 [토란] 性平味辛有毒. 寬腸胃, 光²肥膚, 滑中, 破宿血, 去死肌. [一名土芝, 生則有毒, 熟則無毒.]

우자(芋子, 토란)는 약성이 평범하며 맛이 맵고 독이 있다. 장과 위를 편안하게 하며 피부를 충실하게 하고 속을 매끄럽게 하며 어혈을 없애고 죽은 살갗을 제거한다. [토지(土芝)라고도 한다. 생것은 독이 있으며 익히면 독이 없어진다.]

芥菜 [갓又계조]

개채 [갓, 겨자]

芥菜 [갓又계조] 辛溫無毒. 除腎邪, 利九竅, 明耳目, 止咳嗽上氣, 溫中, 去頭面風.
[大葉者良, 煮食動氣.]

개채(芥菜, 갓, 겨자)는 맛이 맵고 약성이 따뜻하며 독이 없다. 신장의 사기(邪氣)를 없애며 구구(九竅)를 통하게 하고 귀와 눈을 밝게 하며 기침과 상기(上氣)를 멎게 하고 속을 따뜻하게 하며 두면풍(頭面風)을 없앤다. [잎이 큰 것이 좋다. 익혀 먹으면 풍을 발작시킨다.]

萵苣 [부릇]

와거 [상추]

萵苣 [부릇] 性寒味苦微毒. 補筋骨, 利五臟, 開胸膈壅氣, 通經脈, 齒白, 聰明, 少睡, 療蛇咬. [常食者腹冷.]

와거(萵苣, 상추)는 약성이 차갑고 맛이 쓰며 독이 약간 있다. 근골을 보충하고 오장을 통하게 하며 가슴에 막힌 기운을 열어주고 경맥을 통하게 하며 이빨을 희게 하고 귀와 눈을 밝게 하며 잠을 적게 자게 하고 뱀에 물린 상처를 낫게 한다. [자주 먹으면 배가 차가워진다.]

薺菜 [냉이]

제채 [냉이]

薺菜 [냉이] 甘溫無毒. 利肝氣, 和中補五臟, 煮粥食, 能引血歸肝, 明目. ○子名芹莫, 療青盲目痛不見物.

제채(薺菜, 냉이)는 맛이 달고 약성이 따뜻하며 독이 없다. 간기(肝氣)를 통하게 하고 속을 편안하게 하며 오장을 보한다. 죽을 쑤어 먹으면 피가 간으로 모여들어 눈을 밝게 한다. ○씨는 석명(芹萇)이라고 하는데 청맹으로 눈이 아프고 보지 못하는 것을 낫게 한다.

菰菜 [비취]

송채 [배추]

菰菜 [비취] 甘平無毒. 消食下氣, 通利腸胃, 除胸中熱, 解酒渴, 止消渴. [多食發冷病, 惟生薑可解.]

송채(菰菜, 배추)는 맛이 달고 약성이 평범하며 독이 없다. 음식을 소화시키고 기운을 내리며 장과 위를 잘 통하게 하고 가슴의 열을 없애며 주갈(酒渴)을 풀고 소갈을 멎게 한다. [많이 먹으면 냉병을 일으키는데 생강으로만 풀 수 있다.]

子作油, 塗頭長髮, 塗刀劍令不銹.

송채씨로 기름을 짜서 머리에 바르면 머리칼이 자라고, 칼에 바르면 녹이 슬지 않는다.

苦菜 [고들바기]

고채 [고들빼기]

苦菜 [고들바기] 性寒味苦無毒. 主五臟邪氣, 去中熱, 安神, 少睡臥, 療惡瘡.

고채(苦菜, 고들빼기)는 약성이 차갑고 맛이 쓰며 독이 없다. 오장의 사기(邪氣)를 치료하며 열중(熱中)을 없애고 정신을 편안하게 하며 잠을 적게 자게 하고 악창을 낫게 한다.

薺萆 [계록기]

제니 [모싯대]

薺萆 [계록기] 甘寒無毒. 解百藥, 殺蟲毒, 治蛇蟲咬.

제니(薺萆, 모싯대)는 맛이 달고 약성이 차가우며 독이 없다. 여러 약독을 풀어 주며 충독(蟲毒)을 없애고 뱀이나 충(蟲)에 물린 상처를 치료한다.

蕨菜 [고사리]

귤채 [고사리]

蕨菜 [고사리] 性寒滑味甘. 去暴熱, 利水道, 味甚好, 不可久食, 令人消陽氣, 陽痿脚弱不能行, 眼暗腹脹.

귤채(蕨菜, 고사리)는 약성이 차갑고 미끄러우며 맛이 달다. 갑작스런 고열을 없애고 소변을 통하게 한다. 맛이 아주 좋으나 오래 먹지 말아야 하니 양기를 소모시켜 양위(陽痿)가 생기고 다리가 약해져 잘 걷지 못하며 눈이 어두워지고 창만이 생기기 때문이다.

苜蓿 [거여목]

목숙 [개자리]

苜蓿 [거여목] 根, 性涼味苦無毒. 安中, 利五臟, 去脾胃間邪氣惡熱毒, 利大小腸, 療黃疸, 多食瘦人.

목숙(苜蓿, 개자리)은 뿌리는 약성이 서늘하고 맛이 쓰며 독이 없다. 속을 편안하게 하며 오장을 통하게 하고 비위의 사기와 심한 열독을 없애고 대소장을 통하게 하며 황달을 낮게 한다. 많이 먹으면 사람을 마르게 한다.

木耳 [남기도든버섯]

목이 [나무에 돋은 버섯]

木耳 [남기도든버섯] 甘寒無毒. 利五臟, 宜³腸胃壅毒氣, 涼血, 止腸癖下血, 益氣輕身. ○桑槐榆柳楮, 此五木耳, 煮漿粥, 安木上, 以草覆之, 卽生耳. 軟者作菹, 并堪啖. 生山中僻處者, 多毒殺人. ○木生曰蕈, 地生曰菌, 皆濕熱相感而成. 春初無毒, 夏秋有毒. [楓菌尤毒.]

목이(木耳, 나무에 돋은 버섯)는 맛이 달고 약성이 차가우며 독이 없다. 오장을 통하게 하며 장위의 막힌 독기를 풀어내며 피를 시원하게 하고 장벽(腸癖)과 하혈을 멎게 하며 기운을 더하고 몸을 가볍게 한다. ○뽕나무, 회나무, 느릅나무, 버드나무, 닥나무가 다섯 가지 목이(木耳)이다. 장죽(漿粥)⁴을 쑤어 나무 겉에 안착시키고 풀로 덮어두면 버섯이 생긴다. 연한 버섯을 절이면 모두 먹을 만하다. 산중 벽지에 난 버섯은 독이 많아 사람을 죽인다. ○나무에 나는 것은 심(蕈), 땅에 나는 것은 균(菌)이라 하는데 모두 습과 열이 서로 접촉하여 생긴 것이다. 초봄에는 독이 없고 여름과 가을에는 독이 있다. [단풍나무의 버섯은 독이 더욱 세다.]

松耳

송이 [송이버섯]

松耳甘平無毒. 味甚香美, 木耳中第一.

송이(松耳, 송이버섯)는 맛이 달고 약성이 평범하며 독이 없다. 맛과 향이 좋아서 목이(木耳) 중에 제일로 친다.

麝菰 [표고]

마고 [표고버섯]

蘑菰 [표고] 甘平無毒. 悅神開胃, 止吐瀉, 菜中香美.

마고(蘑菰, 표고버섯)는 맛이 달고 약성이 평범하며 독이 없다. 기분을 좋게 하고 입맛을 돋게 하며 구토와 설사를 멎게 한다. 채소 중에서 향이 좋고 맛있는 편이다.

石耳

석이(석이버섯)

石耳甘寒無毒. 清心養胃, 止血, 延年, 益顏色, 令人不飢. [一名靈芝.]

석이(石耳, 석이버섯)는 맛이 달고 약성이 차가우며 독이 없다. 가슴을 시원하게 하고 위기(胃氣)를 길러주며 지혈시키고 장수하게 하며 안색을 좋게 하고 배고프지 않게 한다. [영지(靈芝)라고도 한다.]

大蒜

대산(마늘)

大蒜辛溫有毒. 辟瘟疫, 去瘴氣, 散壅腫, 除風濕, 健脾溫胃, 止霍亂, 去蟲, 療瘡蛇蟲傷. 養生家不食. 久食傷肝損目, 清血髮白. ◦獨頭蒜, 灸癰疽多用. ◦小蒜 [독지] 野蒜 [들랑귀], 性味相同, 人多採食, 亦葷臭之物, 不可多食.

대산(大蒜, 마늘)은 맛이 맵고 약성이 따뜻하며 독이 있다. 온역을 몰아내고 산람장기(山嵐瘴氣)를 없애며 웅종(壅腫)을 흡어주고 풍습을 제거하며 비위를 건강하고 따뜻하게 한다. 객란을 멎게 하고 충(蟲)을 없애며 학질과 뱀에 물린 상처를 낫게 한다. 양생가들은 먹지 않는다. 오래 먹으면 간과 눈이 손상되며 피가 차갑게 되고 머리칼이 희어진다. ◦외톨마늘은 웅저에 뜸둘 때 많이 쓴다. ◦소산(小蒜, 족지)과 야산(野蒜, 달래)는 성질과 맛이 같다. 사람들이 자주 캐어 먹는다. 이것도 훈채(葷菜)이므로 많이 먹지 않아야 한다.

韭菜 [부척]

구채 [부추]

韭菜 [부척] 辛溫微酸無毒. 歸心, 安五臟, 除胃中熱, 補虛乏, 煖腰膝, 充肝氣. [菜中此物, 最溫而益人, 宜常食之.]

구채(韭菜, 부추)는 맛이 매우면서 약간 시고 약성이 따뜻하며 독이 없다. 심장으로 들어간다. 오장을 편안하게 하며 위장의 열을 내리고 허손을 보하며 허리와 무릎을 따뜻하게 하며 간기(肝氣)를 채워준다. [채소 중에 부추가 제일 따뜻하면서 사람에게 이로우니 늘 먹으면 좋다.]

薤菜 [염교]

해채 [염교]

薤菜 [염교] 性溫味辛苦無毒. 調中, 止久痢冷瀉, 除客熱, 去水氣, 健人. ○仙方及服食家, 皆須之, 道家常餌之, 不葷而補虛也. [葉似韭而闊, 多白光滑.]

해채(薤菜, 염교)는 약성이 따뜻하고 맛이 쓰며 맵고 독이 없다. 속을 소화시키며 오랜 이질과 냉사(冷瀉)를 멎게 하며 객열을 없애고 수기(水氣)를 몰아내며 몸을 튼튼하게 한다. ○선방(仙方)이나 복식가(服食家)에서는 모두 필수로 여긴다. 도가에서 늘 먹는 이유는 훈채(葷菜)가 아니면서 허손을 보하기 때문이다. [잎은 부추와 비슷하면서 넓고, 흰 부분이 많으며 매끄럽다.]

葱

총(파)

葱辛溫無毒. 主傷寒寒熱, 中風面目腫, 利五臟, 通二便, 殺百藥毒, 安胎, 治奔豚脚氣, 小兒盤腸內釣, 孕婦腹痛, 殺一切魚毒. [此物以發散爲功, 多食昏人神. 且白冷青熱, 傷寒藥, 去青葉者, 以其熱也. ○傷寒初, 頭痛寒熱甚, 童便一升, 水一升, 酒半

合, 連鬚葱白什莖, 并煎, 至五六沸服, 大汗而愈.]

충(葱, 파)은 맛이 맵고 약성이 따뜻하며 독이 없다. 상한으로 생긴 오한발열과 증풍 및 얼굴과 눈의 부종을 치료한다. 오장을 통하게 하고 대소변을 잘 통하게 하며 온갖 약독(藥毒)을 없애고 태아를 편안하게 한다. 분돈(奔豚)·각기와 소아의 반장(盤腸)·내조(內釣), 임신부의 복통을 치료하며 모든 어독(魚毒)을 푼다. [이것은 열을 내는 효능이 있으니 많이 먹으면 정신이 혼미해진다. 또한 흰 부분은 약성이 차고 푸른 부분은 약성이 뜨겁다. 상한에 약을 쓸 때 푸른 부분을 잘라버리는 이유는 약성이 뜨겁기 때문이다. ◦상한 초기에 두통과 오한발열이 심할 때에는 동변 1되, 물 1되, 술 0.5홉, 연수충백 20줄기를 함께 달여 5 - 6소속 후에 먹으면 땀이 폭 나면서 낫는다.]

生薑

생강

生薑辛溫無毒. 歸五臟, 去痰下氣, 止嘔吐, 除風寒濕氣, 療咳逆上氣喘嗽. [去皮則溫, 留皮則涼. ◦古云, 不徹薑食, 但勿過多, 夜不食薑. 又云, 八九月多食薑, 至春患眼, 損壽, 減筋力.]

생강은 맛이 맵고 약성이 따뜻하며 독이 없다. 오장으로 들어간다. 담을 없애고 기운을 내리며 구토를 멎게 하고 풍한습의 사기를 없애며 해역(咳逆)·상기(上氣)·천수(喘嗽)를 낫게 한다. [껍질을 벗기면 약성이 따뜻하고, 껍질을 그대로 두면 약성이 서늘하다. ◦옛 방서에서 '생강을 빠뜨리지 않고 먹어야 하지만, 너무 많이 먹지 말아야 하며 밤에도 먹지 말아야 한다고 하였다. 또한 8 - 9월에 생강을 많이 먹으면 봄이 되어 눈병을 앓으며 수명이 줄어들고 근력이 줄어든다.'고 하였다.]

以上菜部

이상은 채부(菜部)이다.

1. 脾 : 脾肥 ※《동의보감》↩

2. 光 : 充 ※《동의보감》↩

3. 宜 : 宜宣 ※《동의보감》↩

4. 장죽(漿粥) : 미상 ↩



獸部 수부

牛肉

우육(소고기)

牛肉性平味甘無毒. 養脾胃, 止吐瀉, 治消渴水腫, 令人強筋骨, 補益腰脚. [牛之五臟, 主人之五臟. ○肚卽胃, 俗【月+羊】, 補五臟益脾. ○百葉, 俗千葉, 主熱氣火氣, 解酒勞, 治痢. ○糞, 性寒. 主霍亂, 消渴黃疸, 浮脹脚氣, 小便不通, 微火煎如糖, 水調服之. 湯火灼, 頭瘡五色丹毒, 及鼠瘻¹惡瘡, 以熱屎付之, 或燒灰鷄子白調付. ○塗門戶, 或燒庭中, 辟惡氣. ○小兒夜啼, 置席下. ○新生犢臍中屎, 主九竅出血, 燒灰溫水調服. ○乳, 微寒甘無毒. 補虛羸, 止煩渴, 潤皮膚, 養心肺, 解熱毒. 凡服乳, 必煮一二沸, 停冷啜之, 生飲令人痢, 熱食卽壅, 乳酪與酸物相反. ○黑牛勝於黃牛.]

우육(牛肉, 소고기)은 약성이 평범하고 맛이 달며 독이 없다. 비위의 기운을 길러주고 구토와 설사를 멎게 하며 소갈과 수종(水腫)을 치료하며 근골을 튼튼하게 하고 허리와 다리의 기운을 보충한다. [소의 오장은 사람의 오장을 치료한다. ○밥통은 위장이며 민간에서 양(【月+羊】)이라 한다. 오장을 보하고 비기(脾氣)를 더한다. ○백엽(百葉)은 민간에서 천엽(千葉)이라고 한다. 열기와 화기를 치료하며 주로(酒勞)를 풀고 이질을 치료한다. ○똥은 약성이 차갑다. 괘란, 소갈, 황달, 부창(浮脹), 각기, 소변불통을 치료한다. 은근한 불에 끓이면 옅처럼 되는데 물에 타서 먹는다. 뜨거운 물이나 불에 데거나 두창, 오색단독(五色丹毒), 서루(鼠瘻), 악창에는 뜨거운 오줌을 바른다. 혹은 똥 태운 재를 달걀 흰자와 섞어 환부에 바른다. ○똥을 대문에 바르거나 뜰 안에서 태우면 나쁜 기운을 쫓는다. ○소아의 야제(夜啼)에는 똥을 이부자리 밑에 둔다. ○갓 태어난 송아지 배꼽의 똥은 구규출혈(九竅出血)을 치료한다. 똥 태운 재를 따뜻한 물에 타서 먹는다. ○우유는 약성이 약간 차갑고 맛이 달며 독이 없다. 허약하고 마른 경우를 보하며 번갈을 멎게 하고 피부를 윤택하게 하며 심폐의 기운을 길

러주고 열독을 풀어준다. 우유를 먹을 때에는 반드시 1 - 2번 끓여오른 후에 식혀서 먹어야 한다. 생우유를 먹으면 이질이 생기고, 뜨겁게 먹으면 체한다. 우유와 신 음식은 약성이 상반된다. ◦검은 소가 누런 소보다 효능이 좋다.]

猪肉

저육(돼지고기)

猪肉甘美酸寒有微毒. 其性暴悍, 故多食神昏氣閉, 動風. 能食者暴肥, 蓋虛肌也. 療水銀丹砂毒. [入皂角、桑白皮、黃蠟煮食, 不動風. ◦猪毒在首, 病者食之, 生風發疾. ◦野猪勝於家猪.]

저육(猪肉, 돼지고기)은 맛이 달고 좋으며 시고 약성이 차가우며 독이 약간 있다. 돼지의 성질은 사납기 때문에 많이 먹으면 정신이 혼미해지고 기운이 막히며 풍을 발작시킨다. 탈 없이 먹은 경우라도 갑자기 살이 찌게 되는데 대개는 헛살이다. 수은독과 주사독(丹砂毒)을 낮게 한다. [조각·상백피·황랍을 넣어 달여 먹으면 풍이 발작하지 않는다. ◦돼지고기독은 머리에 있으니 환자가 먹으면 풍을 발작시켜 병이 생긴다. ◦멧돼지가 집돼지보다 효능이 좋다.]

羊肉

양육(양고기)

羊肉味甘無毒大熱. 治五勞七傷, 安五臟, 補中益氣, 益腎壯陽, 堅筋骨, 健腰膝, 療婦人虛寒, 羸瘦之聖藥. [人參補氣, 羊肉補形. ◦痰火者忌用.]

양육(羊肉, 양고기)은 맛이 달고 독이 없으며 약성이 아주 뜨겁다. 오로칠상(五勞七傷)을 치료하며 오장을 편안하게 하고 중기(中氣)를 보하며 기운을 더하고 신기(腎氣)를 더하여 정력을 튼튼하게 한다. 근골을 단단하게 하고 허리

와 무릎을 튼튼하게 하며 부인의 허한(虛寒)을 낮게 한다. 바삭 마르는 경우의 특효약이다. [인삼은 기를 보충하고 양고기는 몸을 보충한다. ◦담화가 있는 경우에는 금기한다.]

狗肉

구육(개고기)

狗肉性溫味鹹酸微毒. 補五勞七傷, 安五臟, 補血脈, 厚腸胃, 壯陽道, 實下焦, 填精髓. [食犬不可去血, 力少不益人. 黃犬壯者爲上, 黑白次之. ◦九月勿食, 傷神.]

구육(狗肉, 개고기)은 약성이 따뜻하고 맛이 짜고 시며 독이 약간 있다. 오로칠상(五勞七傷)을 보하며 오장을 편안하게 하고 혈맥을 보충하며 장과 위를 충실하게 하고 정력을 튼튼하게 하며 하초를 튼실하게 하고 정(精)과 골수를 채운다. [개고기를 먹을 때 피를 빼지 않아야 하니 효력이 적어져서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누르고 건장한 개가 가장 좋고, 검거나 흰 개는 그 다음이다. ◦9월에는 먹지 말아야 하니 정신을 상하게 하기 때문이다.]

鹿肉

녹육(사슴고기)

鹿肉性溫味甘無毒. 補虛羸, 强五臟, 益氣力, 調血脈. [野肉中獐鹿, 皆益人, 故爲第一品, 道家許聽, 爲脯或煮蒸食, 但飲藥者不可食, 鹿常食解毒草, 故減藥力. ◦獐肉與鹿肉同, 但多食, 發痼疾墮胎.]

녹육(鹿肉, 사슴고기)은 약성이 따뜻하고 맛이 달며 독이 없다. 바삭 마른 살을 보충하며 오장을 강하게 하고 기력을 더하며 혈맥을 고르게 한다. [야생짐승 중에 노루와 사슴 고기는 사람에게 유익하므로 최상품이 된다. 도가에서도 인정하여 육포로 말리거나 혹은 삶거나 찌서 먹는다. 다만 복약 중인 경우에는

먹지 않아야 하니 사슴은 늘 해독하는 풀을 먹어 약효를 떨어뜨리기 때문이다.
 ○노루고기는 사슴고기와 효능이 같다. 다만 많이 먹으면 고질병이 생기거나
 유산하게 된다.]

兔肉

토육〔토끼고기〕

兔肉性寒味辛無毒. 治渴健脾, 然性冷, 多食, 損元氣, 絕血脈, 弱房事, 令人萎黃. 臘
 月肉作醬食, 去小兒豌豆瘡. [血, 主涼血活血, 解胎中熱毒, 故兔血丸服之, 小兒終
 身不出痘瘡, 或出亦稀少. ○臘月初八日, 生兔刺血, 和蕎麥麵, 加雄黃四五分, 候乾,
 丸如菉豆大, 初生兒以乳汁送下二三丸, 遍身出紅點, 是其驗. 但長成兒, 常以肉啖
 之, 蓋兔血丸服, 治瘡小兒有效. ○尿, 一名明月砂, 治目中浮翳五疳, 殺蟲解毒. ○痘
 後目翳, 兔屎三七粒, 雌雄檳榔 各一枚, 同磨, 井水調服, 其效如神.]

토육(兔肉, 토끼고기)은 약성이 차갑고 맛이 매우며 독이 없다. 갈증을 치료하
 고 비장을 튼튼하게 한다. 그러나 약성이 서늘하므로 많이 먹으면 원기를 손상
 시키고 혈맥을 끊으며 정력이 약해지고 얼굴이 누렇게 뜨게 된다. 선달에 토끼
 고기로 장조림을 만들어 먹으면 소아의 완두창(豌豆瘡)을 없앤다. [토끼 피는
 혈을 시원하게 하고 잘 돌게 하며 태열(胎熱)을 풀어준다. 그러므로 토혈환을
 먹으면 아이들이 죽을 때까지 두창(痘瘡)이 나지 않고 혹 두창이 나더라도 아
 주 적게 난다. ○선달 8일에 산 토끼의 피를 메밀가루와 섞고 옹항 4-5푼을 더
 한 후 마르면 녹두 크기로 환을 빚어 갓난아이에게 젖으로 2-3환을 넘기게 한
 다. 온몸에 붉은 점이 돋는 것이 그 효험이다. 다만 큰 아이에게는 늘 고기를 먹
 여야 한다. 토혈환을 먹이는 것은 태창(胎瘡)이 있는 아이에게 효과가 있다. ○
 똥은 명월사(明月砂)라고도 하는데 눈에 생긴 예막과 오장감(五臟疳)을 치료
 하며 충(蟲)을 죽이고 독을 풀어준다. ○두창 후에 예막이 생긴 경우에는 토끼
 똥 21알과 **빈랑의 암수**² 각각 1개를 함께 갈아서 우물물에 타 먹으면 그 효과
 가 귀신같다.]

牡鼠肉

모서육(숫쥐고기)

牡鼠肉溫甘無毒. 治小兒疳疾腹大貪食, 飮食, 療骨蒸羸瘦, 殺蟲. [去骨食, 一名家鹿.]

모서육(牡鼠肉, 숫쥐고기)은 약성이 따뜻하고 맛이 달며 독이 없다. 아이가 감질로 배가 똥똥하고 식탐이 있는 경우를 치료한다. 구워 먹으면 골증열과 바싹 마르는 것을 낫게 하고 충(蟲)을 죽인다. [뼈를 발라 먹는다. 가록(家鹿)이라고도 한다.]

鼯鼠肉 [두더쥐]

언서육 [두더쥐고기]

鼯鼠肉 [두더쥐] 性寒味酸無毒. 治小兒虬蟲癰疽. [取膏塗之.]

언서육(鼯鼠肉, 두더쥐고기)은 약성이 차갑고 맛이 시며 독이 없다. 아이의 회충과 응저를 치료한다. [두더쥐고기의 기름을 바른다.]

獠肉 [오소리]

단육 [오소리고기]

獠肉 [오소리] 甘平. 味美, 作羹食, 令瘦兒長肥肉, 又治久痢水腫. [俗名土猪.]

단육(獠肉, 오소리고기)은 맛이 달고 약성이 평범하다. 맛이 좋다. 국을 끓여 먹으면 마른 아이들을 살지게 한다. 또한 오랜 이질과 수종(水腫)을 치료한다. [민간에서 토저(土猪)라고 한다.]

上以獸部.

이상은 수부(獸部)이다.

1. 痿 : 痿 ㄱ 痿 ㄱ

2. 빈랑의 암수 : 미상 ㄱ



禽部 금부

丹雄鷄肉

단웅계육(붉은 수탉 고기)

丹雄鷄肉性溫味甘無毒. 主女人崩中漏下, 赤白痢¹, 補虛溫中通神, 辟不祥. [易云, 巽爲鷄風, 鷄鳴於五更者, 日將至巽位, 感動其氣而鳴也, 故風人不可食. ◦鷄冠血, 主自縊死, 及百蟲入耳.]

단웅계육(丹雄鷄肉, 붉은 수탉 고기)은 약성이 따뜻하고 맛이 달며 독이 없다. 여자의 붕루와 적백대하(赤白帶下)를 치료한다. 허손을 보하고 속을 따뜻하게 하며 정신을 통하게 하고 불길한 것을 물리친다. [《주역》에 '손(巽)은 닭이 되고 바람이 된다' 하였다. 닭이 오경(새벽 4시경)에 우는 것은 태양이 동남쪽인 손(巽)의 방위에 이를 때 그 기운에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풍병이 있는 사람은 먹지 않아야 한다. ◦계관혈(鷄冠血)은 목매어 죽은 경우 및 귀에 벌레가 들어간 경우를 치료한다.]

白雄鷄肉

백웅계육(흰 수탉 고기)

白雄鷄肉性溫味酸. 療狂邪, 安五臟, 止消渴, 利小便, 去丹毒. [白毛烏骨者, 佳. ◦凡禽眼黑者, 骨必黑, 乃眞烏鳥²也.]

백웅계육(白雄鷄肉, 흰 수탉 고기)은 약성이 따뜻하고 맛이 시다. 발광을 낮게 하고 오장을 편안하게 하며 소갈을 멎게 하고 소변을 통하게 하며 단독을 없앤다. [흰 깃털에 검은 뼈인 닭이 좋다. ◦무릇 눈이 검은 새는 뼈도 반드시 검다. 이것이 좋은 백오계(白烏鷄)이다.]

烏雄鷄肉

오웅계육(검은 수탉 고기)

烏雄鷄肉性溫無毒. 主心腹痛, 陰³濕攣痺, 補虛羸, 安胎.

오웅계육(烏雄鷄肉, 검은 수탉 고기)은 약성이 따뜻하고 독이 없다. 심복통(心腹痛)과 풍습으로 경련이 나는 것을 치료한다. 허약하고 마른 것을 보하며 태를 안정시킨다.

烏雌鷄肉

오자계육(검은 암탉 고기)

烏雌鷄肉性溫味甘無毒. 療反胃, 安胎, 補產後虛羸, 治癰疽, 排膿.

오자계육(烏雌鷄肉, 검은 암탉 고기)은 약성이 따뜻하고 맛이 달며 독이 없다. 번위를 낮게 하며 태를 안정시키고 산후에 허하고 마른 것을 보하며 응저를 치료하고 고름을 배출시킨다.

黃雌鷄肉

황자계육(누런 암탉 고기)

黃雌鷄肉性平味甘無毒. 主消渴, 小便數, 腸澼泄痢, 補五臟, 益腎助陽.

황자계육(黃雌鷄肉, 누런 암탉 고기)은 약성이 평범하며 맛이 달고 독이 없다. 소갈, 소변삭, 장벽(腸癖), 설사, 이질을 치료한다. 오장을 보하며 신기(腎氣)를 더하고 양기를 돕는다.

鷄子

계자(달걀)

鷄子性平味甘. 除煩熱, 及孕婦天行熱疾狂走, 淡煮食, 開豁潤聲⁴, 養胃, 益心血, 止驚. 和蠟炒, 止久泄痞痢, 和黑豆入酒服, 治癰疾. 卵黃熬取油和粉, 付頭瘡. [天泡瘡, 鷄子三箇炒取油, 入輕粉一錢, 攪勻, 掃瘡上. 又塗乳頭瘡. ○漆瘡塗之, 亦有效.]

계자(鷄子, 달걀)는 약성이 평범하고 맛이 달다. 번열 및 임신부가 유행성 열병으로 미친듯이 달리는 것을 없앤다. 깨서 싱겁게 끓여 먹으면 목소리가 윤택해지고 위기(胃氣)를 길러주며 심혈을 더해주고 경풍을 멎게 한다. 밀랍과 섞어 볶으면 오랜 설사와 감리(痞痢)를 멎게 하고, 검은콩과 섞어 술에 넣어 먹으면 간질을 치료한다. 노른자를 볶아 기름을 내고 가루⁵와 섞어 두창(頭瘡)에 바른다. [천포창에는 달걀 3개를 볶아 기름을 내고 경분 1돈을 넣어 골고루 섞은 후 환부에 바른다. 또한 유두창(乳頭瘡)에도 바른다. ○칠창(漆瘡)에 발라도 효과가 있다.]

白鵝肉

백아육(흰 거위 고기)

白鵝肉性涼無毒. 解五臟熱, 止渴. [卵, 性溫, 補中益氣.]

백아육(白鵝肉, 흰 거위 고기)은 약성이 차갑고 독이 없다. 오장열을 풀어주고 갈증을 멎게 한다. [알은 약성이 따뜻하며 중기(中氣)를 보하고 기운을 더한다.]

家鴨

가압(집오리)

家鴨有白黑二種, 俱性涼. 補虛除熱, 和臟腑, 利水道, 不可多食, 發冷痢. [綠頭青頭老鴨, 佳, 軟者有毒. 九月後立春前, 採野鴨食, 大補益, 全勝於家鴨. 其形小小者名刀鴨, 味最重, 食之補虛.]

가압(家鴨, 집오리)은 흰 색과 검은 색 2종이 있으며 모두 약성이 서늘하다. 허손을 보하고 열을 없애며 오장육부를 조화롭게 하고 소변을 통하게 한다. 많이 먹지 않아야 하니 냉리(冷痢)를 생기게 하기 때문이다. [머리가 녹색이나 청색인 늙은 오리가 좋으며, 어린 오리는 독이 있다. 음력 9월 이후부터 입춘 전까지 야생오리를 잡아 먹는데 보익하는 효능이 크고 집오리보다 모든 면에서 좋다. 몸집이 아주 작은 것은 도압(刀鴨)이라 하는데 맛이 가장 좋으며 허손을 보한다.]

雉肉

치육(꿩 고기)

雉肉性微寒味酸無毒. 主補中益氣, 止泄痢, 除癰瘡. [雉雖食品之餐, 然有小毒, 不宜常食, 九月後至立春前, 食之猶有補, 他月勿食.]

치육(雉肉, 꿩 고기)은 약성이 약간 차갑고 맛이 시며 독이 없다. 중기(中氣)를 보하고 기운을 더하며 설사와 이질을 멎게 하고 누창(癰瘡)을 없앤다. [꿩은 비록 귀한 음식이지만 독이 조금 있어서 늘 먹기에는 적합하지 않다. 음력 9월 이후부터 입춘 전까지 먹으면 보익 작용이 있으나, 나머지 기간에는 먹지 말아야 한다.]

鶉肉 [뽕새라기]

순육 [메추라기 고기]

鶉肉 [뽕새라기] 性平味甘無毒. 補五臟, 實筋力, 消結熱, 治小兒疳痢下五色. [炙食之. 蛙變爲鶉. 鼠⁶化爲鴛, 卽鶉也.]

순육(鶉肉, 메추라기 고기)은 약성이 평범하고 맛이 달며 독이 없다. 오장을 보하고 근력을 튼실하게 하며 맏힌 열을 없애고 아이의 감질(疳疾)과 오색리(五色痢)를 치료한다. [구워 먹는다. 개구리가 변하여 메추리가 된다. 두더쥐가

변하여 여(鵲)가 되니 이것이 곧 메추라기이다.]

雀肉

작육(참새 고기)

雀肉大溫無毒. 壯陽道, 益氣力, 添精益髓, 縮小便, 令人有子. [十月後正月前者, 良, 取其陰陽未泄之義也.]

작육(雀肉, 참새 고기)은 약성이 아주 따뜻하고 독이 없다. 정력을 튼튼하게 하고 기력을 더하며 정(精)과 골수를 더하고 소변을 참을 수 있게 하고 아이를 가지게 한다. [음력 10월 이후부터 정월까지 잡은 참새가 좋으니 음양이 아직 새어 나가지 않았다는 의미를 취한 것이다.]

以上禽部.

이상은 금부(禽部)이다.

1. 痢 : 沃 ※《동의보감》↩

2. 烏鳥 : 白烏鷄 ※《동의보감》↩

3. 陰 : 風 ※《동의보감》↩

4. 淡煮食, 開豁潤聲 : 豁開淡煮, 大能却痰, 潤聲 ※《의학입문》↩

5. 가루 : 미상 ↩

6. 鼠 : 田鼠 ※《동의보감》↩

魚部 어부

鯉魚

이어〔잉어〕

鯉魚甘平無毒. 止渴消¹水腫, 黃疸脚氣, 主咳嗽喘促,² 治孕婦身腫, 安胎, 破冷氣瘕癖. [食品中上味, 脊上兩筋及黑血, 有毒也.]

이어(鯉魚, 잉어)는 맛이 달고 약성이 평범하며 독이 없다. 소갈, 수종(水腫), 황달, 각기, 기침, 천축(喘促), 임신부의 부종을 치료하고 태를 편안하게 하며 냉기로 생긴 현벽(瘕癖)을 없앤다. [맛이 좋은 식품이다. 등줄기의 양측에 있는 힘줄과 검은 피에는 독이 있다.]

鯽魚

즉어〔붕어〕

鯽魚, 卽鮒魚. 甘溫無毒. 平胃氣, 益五臟, 調中下氣. [諸魚皆屬火, 鯽屬土, 故有調胃實腸之功. ○鱠, 主赤白痢.]

즉어(鯽魚, 붕어)는 부어(鮒魚)이다. 맛이 달고 약성이 따뜻하며 독이 없다. 위기(胃氣)를 조화롭게 하며 오장의 기운을 더하고 속을 고르게 하며 기운을 내린다. [물고기는 모두 화(火)에 속하지만 붕어는 토(土)에 속한다. 그러므로 위기를 조화시키며 대소장을 튼실하게 하는 효능이 있다. ○붕어회는 적백리를 치료한다.]

鯿魚 [송어]

치어 [송어]

魴魚 [송어] 甘平無毒. 開胃, 通利五臟, 令人**健肥**³.

치어(魴魚, 송어)는 맛이 달고 약성이 평범하며 독이 없다. 입맛을 돋우며 오장의 기운을 통하게 하여 살이 찌고 건강하게 한다.

石首魚 [조기]

석수어 [조기]

石首魚 [조기] 甘平無毒. 主食不消, 腹脹暴痢, 和蓴作羹, 開胃益氣. [乾食名蓴. ◦頭中有小石, 主下石淋, 磨服之.]

석수어(石首魚, 조기)는 맛이 달고 약성이 평범하며 독이 없다. 음식이 소화되지 않고 배가 똥똥해지는 것과 갑작스런 심한 이질을 치료한다. 순채와 섞어 국을 끓여 먹으면 입맛을 돌게 하고 기운을 더한다. [말려 먹는 조기는 상(蓴, 굴비)이라고 한다. ◦머리 속에 있는 작은 돌은 석림(石淋)을 치료한다. 갈아 먹는다.]

蠡魚 [가물치]

여어 [가물치]

蠡魚 [가물치] 甘寒無毒. 主勞瘵骨蒸, 傳屍疰氣, 和五味煮粥食之, 治腰背間風濕痺, 常如水洗, 及濕脚氣五痔, 腸風下血, 婦人帶下, 百病食之, 良. 此魚雖有毒, 而能補五臟虛損傷, 煖腰膝, 興陽, 令人肥健, 亦美味也. 又殺諸蟲, 治皮膚瘙癢, 疥癬疳蠹. [下部陰蟲, 及氈中竹木中蛀蟲蚊蟲, 竝可燒煙薰之, 取其骨, 置箱中, 斷白魚咬衣. ◦火上灸, 俟油出, 以指蘸擦, 赤白癩即愈. ◦此魚蛇之所變, 故有蛇性, 代花蛇, 治癩風.]

여어(蠡魚, 가물치)는 맛이 달고 약성이 차가우며 독이 없다. 노채(勞瘵), 골증열, 전시(傳屍), 주기(疰氣)를 치료한다. 양념하여 죽을 쑀어 먹으면 허리와 등에 풍비(風痺)나 습비(濕痺)가 있어서 늘 물로 씻은 듯한 경우를 치료하며, 또

한 습각기(濕脚氣), 오치(五痔), 장풍하혈(腸風下血), 부인의 대하를 치료한다. 온갖 병에 먹으면 좋다. 이 물고기는 비록 **독이 있으나**⁴ 오장의 허손을 보하며 허리와 무릎을 따뜻하게 하고 양기를 왕성하게 하며 살지고 건강하게 하며 맛도 좋다. 또한 여러 충(蟲)을 죽이며 피부의 가려움증, 개선(疥癬), 감닉창(疥癩瘡)을 치료한다. [사타구니의 음충(陰蟲), 갈개나 나무에 있는 좀과 모기에는 모두 태운 연기로 훈증한다. 뼈를 상자에 넣어두면 옷에 좀이 슬지 않는다. ◦불에 구워 나오는 기름을 손가락에 찍어 환부에 문지르면 적백라(赤白癩)도 곧 낫는다. ◦이 물고기는 뱀이 변한 것이므로 뱀의 약성이 있으니 화사(花蛇) 대신 써서 나풍(癩風)을 치료한다.]

鰻鱺魚 [뱀장어]

만리어 [뱀장어]

鰻鱺魚 [뱀장어] 性寒味甘無毒. [似鱸而腹大, 五色者功勝.]

만리어(鰻鱺魚, 뱀장어)는 약성이 차고 맛이 달며 독이 없다. [선어(鱸魚, 드렁허리)와 비슷하나 배가 크다. 오색 빛깔 나는 것이 효능이 좋다].

鱸魚 [드렁허리]

선어 [드렁허리]

鱸魚 [드렁허리] 性大溫味甘無毒. [以上三種, 皆蛇類, 治症大同, 故不復疊錄.]

선어(鱸魚, 드렁허리)는 약성이 아주 따뜻하고 맛이 달며 독이 없다. [이상 3종은 모두 뱀 종류로 주치증이 거의 같으므로 중복하여 기록하지 않았다.]

鮎魚 [머여기]

점어 [메기]

鮎魚 [머여기] 味甘無毒. 主浮腫, 下水, 利小便, 爲臙美, 而且補稍益胃氣. [赤目赤鬚無鰓者, 殺人. 無鱗多涎, 非食品之佳者.]

점어(鮎魚, 메기)는 맛이 달고 독이 없다. 부종을 치료하며 수기(水氣)를 배출하고 소변을 통하게 한다. 폭 끓이면 맛이 있고 위기를 더한다. [눈과 수염이 붉고 아가미가 없는 것을 먹으면 죽는다. 비늘이 없고 많이 끈적거리니 좋은 식품은 아니다.]

比目魚 [가자미]

비목어 [가자미]

比目魚 [가자미] 性平味甘無毒. 補虛, 益氣力, 多食, 稍動氣. [一邊有兩目, 故動則兩⁵魚相比而行.]

비목어(比目魚, 가자미)는 약성이 평범하고 맛이 달며 독이 없다. 허손을 보하고 기력을 더한다. 많이 먹으면 기를 약간 동하게 한다. [한 쪽에 두 눈이 있으므로 움직일 때는 두마리가 서로 붙어 다닌다⁶.]

大口魚

대구어(대구)

大口魚性平味鹹無毒. 食之, 補氣下氣. [腸與脂, 味尤佳.]

대구어(大口魚, 대구)는 약성이 평범하고 맛이 짜며 독이 없다. 먹으면 기운을 보충하고 기를 내린다. [내장과 지방은 맛이 더욱 좋다.]

鰻魚 [전복]

복어 [전복]

鰓魚 [전복] 性凉鹹甘無毒. 啖之明目. [供饌中最爲珍味. ◦乾者鰓, 生者鮑. ◦甲名石決明, 內含珍珠.]

복어(鰓魚, 전복)는 약성이 서늘하고 맛이 짜고 달며 독이 없다. 먹으면 눈을 밝게 한다. [반찬 중에 최고의 진미이다. ◦말린 것은 복(鰓), 생것은 포(鮑)라고 한다. ◦껍데기는 석결명(石決明)이라 하며 속에 진주를 머금고 있다.]

鮫魚 [사어]

교어 [상어]

鮫魚 [사어] 性平味甘無毒. 補五臟. [作脯作鱠, 皆食品之美者.]

교어(鮫魚, 상어)는 약성이 평범하고 맛이 달며 독이 없다. 오장을 보한다. [포로 말리거나 회로 떠 먹으며 모두 맛있는 음식이다.]

鱸魚

노어(농어)

鱸魚性平味甘有小毒. 補五臟, 和腸胃, 益筋骨. [作鱠尤佳, 多食宜人, 雖有小毒, 不至發病.]

노어(鱸魚, 농어)는 약성이 평범하고 맛이 달며 독이 조금 있다. 오장을 보하며 장과 위를 편안하게 하고 근골을 보충한다. [회를 떠서 먹으면 더욱 좋다. 많이 먹어도 사람에게 적합하다. 비록 독이 조금 있지만 병을 일으키지는 않는다.]

鰕魚 [쇼가리]

겉어 [쏘가리]

鰓魚 [쇼가리] 性平味甘無毒. 補虛勞, 益脾胃, 治腸風瀉血, 去腹內小蟲. [卽今錦鱗魚.]

겔어(鰓魚, 쇼가리)는 약성이 평범하고 맛이 달며 독이 없다. 허로를 보하고 비위의 기운을 더하며 장풍(腸風)으로 피를 쏟는 것을 치료하고 뱃속의 작은 충(蟲)을 없앤다. [지금의 금린어(錦鱗魚)이다.]

烏賊魚肉

오적어육(갑오징어 살)

烏賊魚肉性平味酸無毒. 益氣強志, 通月經, 久食益精, 令人有子. [骨名海螵蛸, 灸黃、白芨 各一錢, 輕粉五分, 竝細末, 搽小兒疳蠱及月+文/月⁷瘡, 一切惡肉瘰肉, 滿頭餅瘡, 竝治之.]

오적어육(烏賊魚肉, 갑오징어 살)은 약성이 평범하고 맛이 시며 독이 없다. 기운을 더하고 의지를 강하게 하며 월경을 통하게 한다. 오래 먹으면 정(精)을 더하여 자식을 갖게 한다. [뼈는 해표초(海螵蛸)라고 한다. 노랗게 구운 해표초와 백급 각 1돈, 경분 5푼을 모두 잘게 가루 내어 아이의 감닉창(疳蠱瘡)과 제창(臍瘡)에 바른다. 모든 악육(惡肉)과 식육(瘰肉) 및 머리에 온통 병창(餅瘡)이 생긴 것을 모두 치료한다.]

八梢魚 [문어]

팔초어 [문어]

八梢魚 [문어] 性平味甘無毒. 食無別功. [俗名文魚, 一名八帶魚.]

팔초어(八梢魚, 문어)는 약성이 평범하고 맛이 달며 독이 없다. 먹어도 특별한 효능은 없다. [민간에서 문어(文魚)라고 하며 팔대어(八帶魚)라고도 한다.]

小八梢魚 [俗名絡蹄]

소팔초어 [낙지]

小八梢魚 [俗名絡蹄] 性平味甘無毒. 形似八帶魚. [味珍好.]

소팔초어(小八梢魚, 낙지) [민간에서는 낙제(絡蹄)라고 한다.] 는 약성이 평범하고 맛이 달며 독이 없다. 모양이 문어와 비슷하다. [맛이 참 좋다.]

白魚

백어〔뱅어〕

白魚性平味甘無毒. 開胃下食. [冬月鑿氷取之, 生漢江者佳.]

백어(白魚, 뱅어)는 약성이 평범하고 맛이 달며 독이 없다. 입맛을 돋우고 음식을 소화시킨다. [겨울에 얼음을 뚫고 잡으며 한강에 사는 것이 좋다.]

以上魚部

이상은 어부(魚部)이다.

1. 渴消 : ㉾消渴 ※《동의보감》↩

2. 主咳嗽喘促, : ※《동의보감》↩

3. 健肥 : ㉾肥健 ※《동의보감》↩

4. 독이 있으나 : 앞에서 말한 성미와 다른 의미로 말한 것인지 분명하지 않다.
↩

5. 魚 : 邊 ※《동의보감》↩

6. 한 쪽에 두 눈이 있으므로 움직일 때는 두마리가 서로 붙어 다닌다 : 이태원

의 《현산어보를 찾아서》에서는 소문이 왜곡된 결과 이와 같은 표현이 나왔다
고 보았다. ←

7. 月+夕/月 : 臍 ←



蟲部 충부

蟹 [게]

해 [게]

蟹 [게] 性寒味鹹有毒. 主胸中邪熱, 解結散血, 養筋益氣, 去五臟中煩悶, 消食宜人. [八月蟹¹稻芒後, 方可食, 霜後更佳, 佳²已前食之有毒, 孕婦及風疾人, 不食. ◦漆得蟹而散, 故塗瘡即愈. ◦爪墮胎. ◦獨鰲³獨目四足六足者, 皆有毒.]

해(蟹, 게)는 약성이 차갑고 맛이 짜며 독이 있다. 가슴에 있는 열사(熱邪)를 치료하며 맟힌 열과 어혈을 풀어주고 근골을 길러주며 기운을 더하고 오장의 나쁜 피를 없애고 근력을 도우며 오장의 번민(煩悶)을 없애고 음식을 소화시킨다. 사람이 먹기에 알맞다. [게는 음력 8월 도망(稻芒)을 뱉은 후에 먹어야 하며, 상강(霜降) 이후가 더욱 좋다. 상강 이전에 먹으면 독이 있다. 임신부와 풍병이 있는 사람은 먹지 않아야 한다. ◦옥독은 게를 만나면 풀어지므로 환부에 바르면 곧 낫는다. ◦발 끝부분은 유산시킨다. ◦집게발이나 눈이 하나밖에 없거나 발이 4개 혹은 6개만 있는 것은 모두 독이 있다.]

蛤蜊 [참조개]

합리 [참조개]

蛤蜊 [참조개] 性冷味甘無毒. 止渴, 開胃, 解酒毒, 破婦人血塊.

합리(蛤蜊, 참조개)는 약성이 서늘하고 맛이 달며 독이 없다. 갈증을 멎게 하고 입맛을 돋우며 주독을 풀어주고 부인의 혈괴(血塊)를 깨뜨린다.

蚌蛤 [바다굴큰조개]

방합 [바다의 굴은 조개]

蚌蛤 [바다굴큰조개] 性冷味甘無毒. 明目, 止渴, 療眼赤, 除煩渴.

방합(蚌蛤, 바다의 굽은 조개)은 약성이 서늘하고 맛이 달며 독이 없다. 눈을 밝게 하며 갈증을 멎게 하고 눈의 충혈을 낮게 하며 번열을 없앤다.

淡菜 [홍합]

담채 [홍합]

淡菜 [홍합] 性溫味甘無毒. 補五臟, 利腰痛⁴, 益陽事, 療虛損羸瘦, 產後血結腹痛.

담채(淡菜, 홍합)는 약성이 따뜻하고 맛이 달며 독이 없다. 오장을 보하고 허리와 다리를 이롭게 하고 정력을 더하며 허손과 바싹 마르는 것과 산후에 피가 엉겨 배 아픈 것을 낮게 한다.

龜肉

구육(거북이 고기)

龜肉性溫味酸. 治與鼈同, 龜多神靈, 不可輕殺. [版, 大有補陰之功.]

구육(龜肉, 거북이 고기)은 약성이 따뜻하고 맛이 시다. 주치증은 자라와 같다. 거북이는 신령한 동물이므로 함부로 죽이지 않아야 한다. [구판(龜版)은 음기를 크게 보하는 효능이 있다.]

鼈肉

별육(자라 고기)

鼈肉性冷味甘. 主熱氣濕痺, 益氣, 補不足, 治婦人帶下. [龜鼈有三足獨足頭不縮者, 有大毒. ◦龜鼈皆以眼聽, 故稱守神.]

별육(鼈肉, 자라 고기)은 약성이 냉하고 맛이 달다. 열증과 습비(濕痺)를 치료하며 기운을 더하고 허손을 보하며 부인의 대하를 치료한다. [거북이와 자라 중 발이 셋 또는 하나 뿐이며 머리를 움츠리지 못하는 것은 독이 세다. ○거북이와 자라는 모두 눈으로 듣기 때문에 수신(守神)이라고 부른다.]

蝦 [사요]

하 [새우]

蝦 [사요] 性平味甘有小毒. 久食, 動風泄瀉. ○小蝦, 治小兒赤遊丹毒, 搗附.

하(蝦, 새우)는 약성이 평범하고 맛이 달며 독이 조금 있다. 오래 먹으면 풍을 발작시키고 설사한다. ○작은 새우는 소아의 적백유종(赤白遊腫)과 단독을 치료한다. 짓찢어 붙인다.

田螺 [우렁이]

전라 [우렁이]

田螺 [우렁이] 性寒無毒. 解腹中熱, 利大小便, 止渴, 治肝熱目赤腫痛, 療酒醒.

[殼, 主反胃, 消痰, 治心腹痛, 火煨爲末服. ○夏秋採螺, 用米泔浸去泥, 乃煮食之.]

전라(田螺, 우렁이)는 약성이 차갑고 독이 없다. 뱃속의 열을 풀어주며 대소변을 통하게 하고 갈증을 멎게 한다. 간열로 눈이 충혈되면서 붓고 아픈 것을 치료하고 주독을 낮게 한다. [껍질은 번위를 치료하고 담을 삭히며 심복통(心腹痛)을 치료한다. 불에 달궈 가루 내어 먹는다. ○여름과 가을에 우렁이를 잡아 쌀뜨물에 담가 해감한 후에 익혀 먹는다.]

海螺

해라[소라]

海螺, 卽小螺. 治目痛久不愈, 取生螺抹開, 以黃連納螺口中, 取汁, 點目中.

해라(海螺, 소라)는 소라(小螺)이다. 눈이 아픈데 오래도록 낫지 않는 것을 치료한다. 살아있는 소라의 뚜껑을 떼고 황련을 소라 속에 넣으면 즙이 나온다. 그 즙을 눈에 떨어뜨린다.

以上蟲部

이상은 충부(蟲部)이다.

1. 𧈧 : 𧈧 輪 ※《동의보감》↩

2. 佳 : 𧈧 霜 ※문맥상 ↩

3. 鰲 : 𧈧 鰲 ※《동의보감》↩

4. 痛 : 𧈧 脚 ※《동의보감》↩

해제

개요

《급유방及幼方》은 1749년(영조 25) 조정준(趙廷俊)이 편찬한 소아과 의서이며, 미키 사카에의 《조선의학사》에서 조선 제일의 소아과 전문 의서로 그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특히 조선 의서에 흔하지 않은 의안(醫案)이 병증 끝부분에 붙어있어 더욱 가치가 높으며, 권말에 별도로 본초서를 축약한 〈본초발명本草發明〉과 〈식치발명食治發明〉을 붙인 구성 또한 특징적이다.

서지사항 및 판본

《급유방》은 13권 4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필사본이다. 서울특별시 종로도서관(이하 종로본)에 원고본이 소장되어 있다. 이밖에 한독제석재단 한독의학박물관(이하 한독본), 서울대학교 규장각(이하 규장본), 성균관대학교 존경각, 산청군청 산청한의학박물관(이하 존경-산청본) 등과 일본 행우서옥(이하 행우본)에 완질 필사본이 소장되어 있다. 존경각과 산청한의학박물관 소장본은 한 질이지만 현재는 나누어 소장되어 있다.

판본은 조현명의 서문이 있는 종로본·한독본·행우본과 그렇지 않은 규장본·존경-산청본으로 나뉜다. 지금까지 《한국의학대계》에 수록된 규장본을 통행본으로 사용하고 있었으나, 원고본인 종로본이 발견되었으므로 이제부터는 이 판본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저자사항

조정준(趙廷俊, 1674-미상)은 경종 연간부터 영조 연간 사이에 활동한 의학자 및 관료로 본관은 횡성(橫城), 자는 중경(重卿)이다. 관직을 시작하기 전인 50세 이전의 기록은 찾을 수 없고, 다만 《급유방》의 서문으로 미루어 보아 30세 무렵부터 의원의 길을 걷기 시작했다고 짐작할 뿐이다.

50세인 1723년(경종 3)에 침의로 종6품 부사과에 임명된 것을 시작으로 1726년(영조 2)에는 조지별제, 1727년(영조 3)에는 서빙고별제를 지냈다. 1728년(영조 4)에는 양무원종공신(총8,773명) 2등(2,541명)을 녹훈받았다. 1730년(영조 6)에는 사근찰방을 지냈으며, 1732년(영조 8)에는 평구로 이임하여 1734년까지 평구찰방을 지냈다. 1735년(영조 11)에는 소아의(小兒醫)로 명성이 나있어 원자(元子)의 담당 의원으로 윤순(尹淳)의 추천을 받은 일이 있다. 1737년(영조 13)부터 남양감목관을 지내다가 1739년에 내의원으로 돌아왔으며, 1741년(영조 17)에 진주감목관을 지내다가 1744년에 다시 내의원으로 돌아와 아의(兒醫)로 활동하였다. 1749년에는 《급유방》을 저술하였고, 이듬해인 1750년(영조 26)에 연로하여 의약동참으로 감하되었다. 이 때 나이가 77세였고 물년은 정확히 알 수 없으나 1750년 이후로 비정할 수 있다.

《급유방》의 서문을 쓴 조현명(趙顯命, 1690-1752)은 본관은 풍양(豐壤), 자는 치회(稚晦), 호는 귀록(歸鹿)·녹옹(鹿翁)이다. 조정준이 활동하던 시기에 좌의정을 지냈다.

구성 및 내용

《급유방》은 크게 총론 - 각론 - 부록의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총론은 권1에 해당하며 〈동방육기론〉, 〈소아론〉, 〈관형찰색〉 등 소아 치료에 필요한 19개의 의론을 담고 있다. 〈관형찰색〉이 운문인 부(賦)의 형태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볼 때 《의학입문》을 계승했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다.

권1 : 東方六氣論, 小兒論, 解毒法, 延生第一方, 洗浴法, 乳哺法, 保護法, 養子十法, 調護歌, 相兒壽夭歌, 觀形察色, 聽聲音法, 額脈, 虎口三關脈, 小兒脈法, 五臟主病, 子母補瀉法, 五臟相乘, 小兒病機

각론은 권2부터 권12에 해당하며 아래와 같이 총 66개 병증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병증마다 대개 증론 - 병인 - 방제의 형태로 구성되어 있으며 끝에 의안(醫案)이나 안어(按語)가 종종 붙어있다. 각론의 방제 중에는 범례에서 제시한 《의학입문》이나 《소아약증직결》에서 찾아볼 수 없는 방제가 상당 부분 등장하는데 이는 명대의 《증치준승證治準繩》유과(幼科) 부분에서 찾을 수 있다.

권2 : 初生雜症, 撮口, 噤口, 臍風, 胎驚癇風, 胎驚夜啼

권3 : 變蒸, 丹毒, 胎瘡, 膿耳, 痘科說

권4 : 諸驚, 急驚, 慢驚, 慢脾風, 癇疾, 剛柔痊, 天弔, 客忤, 內釣, 龜胸, 龜背, 解顱, 五軟五硬, 鶴膝

권5 : 麻疹, 痧疹(附癰疹)

권6 : 諸熱, 眼疾, 諸血, 口舌瘡, 煩躁不寐, 煩渴飲水, 滯頤

권7 : 疳疾, 魘病, 諸積, 癖積

권8 : 腹痛, 盤腸痛, 霍亂, 蛔蟲痛, 嘔吐(附泄瀉), 吐瀉, 痢疾, 腹脹

권9 : 浮腫, 黃疸, 瘡疾

권10 : 外感, 暑症

권11 : 咳嗽, 喘, 馬脾風

권12 : 大便不通, 小便不通, 大小便不通, 疝症, 陰腫, 諸淋, 尿白濁, 遺尿, 汗, 咽喉痛, 諸瘡, 雜病經驗

부록은 권13에 해당하며 본초서의 내용을 축약한 〈본초발명本草發明〉과 음식으로 치료하는 〈식치발명食治發明〉으로 이루어져 있다. 〈본초발명〉에는 193종의 본초를 골라 성미·효능·주치에 대해 경험과 함께 간단히 정리해 놓았고, 〈식치발명〉에는 식치로 사용하는 본초 중 곡식류, 과일류 등 총 105종을 골라 성미·효능·주치에 대해 간단히 정리해 놓았다.

권13 : 本草發明, 食治發明

의의 및 특징

《급유방》은 《소아약증직결》, 《의학입문》, 《증치준승》의 내용을 모아 요약하고 정리한 후 평생의 경험을 붙여 지은 소아과 의학 서적이다. 소아 치료에 대한 의론, 증론, 병인, 방제부터 의안과 본초 및 식치에 이르기까지 두창을 제외한 모든 내용이 수록되어 있어 조정준 평생의 역작이라 할 만하다. 급유방의 가치는 다음과 같이 몇가지를 꼽을 수 있다.

1. 소아과 분야의 핵심 의론과 처방을 정리하고 요약하였다. 《급유방》에서는 큰 병증 아래에 세부 병증을 놓고 있고, 각 세부 병증마다 증상과 원인을 기술한 후 처방을 제시하고 있다. 이와 같은 서술방식은 《동의보감》 이후 조선 후기 의서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으로 서문에서 말하는 '번다하지 않은 의서'를 만드려는 의도였을 것이다. 저자는 두창을 제외한 대부분의 소아과 질병에 대하여 이와 같은 형태로 요약하고 정리함으로써 비교적 적은 분량으로 소아 치료의 지식을 글로 압축해 놓았다.
2. 〈동방육기론〉과 범례에서 자신의 의학론을 피력하였다. 저자의 소아 치료에 대한 견해는 〈동방육기론〉과 범례에 어느 정도 드러나 있다. 《황제내경소문》의 〈이법방의론異法方宜論〉을 시작으로 지역이나 기후에 따라 자주 발생하는 병증이 있기 때문에 각기 다른 방법으로 치료해야한다는 이론이다. 또한 범례에

서 강조하듯이 약보다는 잘 보호하는 것이 우선해야 하며, 문진이나 맥진보다는 형색과 음성을 우선해야 하고, 나이에 따라 약재의 수와 분량을 조절해야 하며, 약성이 강한 처방은 아주 조심히 써야한다고 시종일관 주장하고 있다.

3. 마진에 대한 풍부한 임상 경험을 간명하게 정리하여 후대 의서에 영향을 미쳤다. 저자는 두창에 대해서는 직접 경험하지 못했고 《의학입문》이나 《의학정전》에 자세하다고 하면서 내용을 비워놓았다. 이에 비해 마진에 대해서는 별도의 권을 두어 짧지만 비중있게 다루었으며, 기존 의서의 내용 이외에도 자신의 경험을 결부하여 임상에서 곧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서술하였다. 이로 인하여 《급유방》의 마진 관련 내용은 《마과회통》·《의종손익》·《마진》 등 19세기 마진 관련 서적에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4. 각 병증 끝부분에 자신의 경험인 의안이나 안어를 붙여 실제 임상 현장의 치료 과정을 제시하였다. 《급유방》의 의안은 임상의 길잡이나 스토리텔링 소재로서의 가능성도 가지고 있다. 전통의서에는 치료에 관한 방대한 정보에 비해 부작용이나 실패 사례에 대한 내용이 극히 적은데 의안 속에는 이러한 내용이 종종 등장한다. 또한 의안에 등장하는 홍현보, 이의현 등 실존 인물에 대한 정보와 연결한다면 보다 풍성한 스토리텔링이 가능하기도 하다.
5. 조선 후기 의약생활의 일면을 엿볼 수 있다. 의안이나 범례를 통해 조선후기의 의료형태의 분위기를 짐작할 수도 있다. 의안에는 병이 있을 때 여러 의원을 집으로 초빙한 후 한 의원을 지목하여 치료받는 형태가 자주 등장하는데, 이는 조선 후기의 다른 의안들에서도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형태이다. 또한 범례 마지막 조항에서 밝히고 있듯이 강한 약은 아주 조심스럽게 쓰는 것과 사약(瀉藥)보다는 보약 위주로 쓰는 것도 하나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6. 본초와 식치에 대해 별도로 정리하였다. 마지막 권의 〈본초발명〉과 〈식치발명〉은 《급유방》의 부록격이다. 총론이나 각론에 나오는 약재와 음식으로 치료할 수 있는 약재만을 별도로 모아놓은 것이다. 특히 저자는 〈식치발명〉에서 《의학

입문》식치문 총론의 내용을 인용하여 '모든 사람은 음식으로 조리하고 고칠 수 있다'는 자신의 생각을 밝혀놓았다. 이와 같은 구성은 범례에서 밝힌 것처럼 치료보다 예방이 더 중요하다는 저자의 의학론을 반영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 참고자료

- 승정원일기
- 조선왕조실록
-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 미키 사카에. 朝鮮醫書誌
- 박훈평. 조선시대 의관 총목록
- 조미숙. 조정준의 급유방에 대한 연구
- 박훈평. 조선, 홍역을 앓다 -조선후기 홍역치료의 역사
- 이정현. 급유방 판본 연구

일러두기

판본 및 구성

- 판본은 원고본인 종로본을 저본으로 삼고 한독본과 규장본으로 교감하였다.
- 이 책의 총론-각론-부록으로 구성되어 있다. 총론은 권1, 각론은 권2-12, 부록은 권13에 해당한다.
- 처방의 내용은 가독성을 위하여 형태를 약간 변형하였으며 글자의 차이는 없다. 포제법은 괄호로 묶었고, 나열은 '、'으로 구분했으며, 용량은 공백으로 구분하였다.
- 의안은 번역문 앞에〔의안〕으로 표시하였다.
- 저자의 의견을 적은 부분은 번역문 앞에〔안어〕로 표시하였다.

표기법

- 포제법은 괄호로 묶어 표시하였다.
- 작은 글자는 []로 표시하였다.
- 대제목은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번역하거나 한자 병기를 하지 않고 독음으로 달아놓았다. 처방명에 붙은 바로가기(처방은 ~~문에 나온다)를 활용하기 위함이다.
- 본초발명과 식치발명은 가독성을 위하여 임의로 소제목으로 달아두었다.
- 단위를 나타내는 글자는 兩(냥), 錢(돈), 分(푼), 釐(리), 條(조), 字(자) 등으로 통일하여 표기하였다.
- 생강을 뜻하는 薑, 姜, 干은 薑으로 통일하였다.
- 龜의 독음은 인명이 아닌 경우에 '구'로 통일하였다. 두음법칙에 따라 尿, 衄, 泥가 첫음절인 경우에는 '요', '육', '이'로 처리하였다.

- 목단(모란), 목과(모과), 앵도(앵두) 등 현대 한글과 발음이 다른 경우는 한자의 독음을 그대로 표기하였다.
- 길경이나 지각 등 표기법이 다양한 본초는 桔梗이나 只殼처럼 하나로 통일하였다.
- 환의 크기를 나타내는 말은 오동자 크기·속미 크기와 같이 풀었다.
- ☞ : 글자를 교정한 경우



출판사항

서 명 : 국역 급유방 하 及幼方 下

원저자 : 조정준 趙廷俊

국역 및 해제 : 이정현

발행인 : 김종열

발행처 : 한국한의학연구원

발행일 : 2020년 12월 11일

주 소 : 대전시 유성구 유성대로 1672

대표전화 : 042)868-9482

글꼴 출처 : 함초롬체(한글과컴퓨터)

기여한 사람들

이 책의 번역을 기획하고 판본을 조사한 이는 오준호이고, 판본을 수집하고 정본화 된 원문 텍스트를 만든 이는 이정현이며, 원서에 가까운 모습으로 eBook을 편집하여 온라인에 공개한 이는 구현희입니다.

copyright © 2020 korea Institute of Oriental Medicine

이 책에 실린 모든 내용, 디자인, 이미지, 편집 구성의 저작권은 한국한의학연구원에 있습니다.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제한적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고전한의학번역서 e-book @ 한국한의학연구원

지원과제 : (KSN2012110) AI 한의사 개발을 위한 임상 빅데이터 수집 및 서비스 플랫폼 구축



ISBN

PDF : 978-89-5970-441-5

세트 : 978-89-5970-445-3